韓國書院學報

제 10 호



韓國書院學會
2020. 06

차례

■ 기획논문 : 한·중 서원의 기원

唐代 書院의 형성에 대한 재검토 ····· **류준형** ◦ 1
-존재 양태와 배경을 중심으로-

고·중세 한국 私學의 전통이 서원 설립에 이르기까지 ····· **이광우** ◦ 33

16세기 한국 서원의 출현과 정비 ····· **이병훈** ◦ 67

■ 일반논문

研經書院의 설립과 위상 및 의의 ····· **구본욱** ◦ 101

朱熹书院祀制度的建构, 完善与传承 ····· 方彦寿 ◦ 129

일본과 베트남의 서원 연구 현황과 제언 ····· **이우진** ◦ 143

《武屹九曲圖》, 寒岡 鄭逑 道統의 시각화 ····· **정은주** ◦ 165

서원의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 ····· **채광수** ◦ 201
-追享禮・致祭禮・賜額禮를 중심으로-

■ 부록

해제 :『근암서당창건고적(近嵓書堂創建古蹟)』 ····· ◦ 227

『근암서당창건고적』 영인 ····· ◦ 231

■ 휘보

■ 연혁·활동 보고 | 374
■ 한국 서원학회 회칙 | 377
■ 편집 규정 | 384
■ 논문투고 규정 | 387
■ 원고작성 규정 | 391
■ 연구윤리 규정 | 395
■ 한국서원학회 임원 및 편집위원 | 397

■ 기획논문 : 한·중 서원의 기원

http://dx.doi.org/10.30594/kss.2020.06.10.1 1

唐代 書院의 형성에 대한 재검토*

-존재 양태와 배경을 중심으로-

류준형**

Ⅰ. 머리말
Ⅱ. '書院' 명칭의 출현과 그 實意
Ⅲ. 서원의 존재 형태와 발전 양상
Ⅳ. 독서 강학의 풍조와 서원
Ⅴ. 맺음말

<국문요약>

서원의 명칭은 중국에서 唐代에 처음 확인된다. 이는 당시 궁중 내 설치된 麗正書院의 존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書院으로 지칭되는 대상의 변화 속에서 書院의 명칭은 특정 성격을 갖는 범칭으로 활용되었다.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書院은 민간에서도 이용되었고 특정 개인의 독서 및 강학의 장소를 일컫는 의미로 통용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唐代 작성된 문학 작품을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특정 사료에서 서원의 명칭이 管見되는 것을 곧 송대 이후 확립되는 서원, 즉 일정한 規制를 갖춘 서원의 출현과 연결 짓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당대의 서원은 개인의 학술과 교육을 위한 장소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에 점차 확대되어가던 사회적 분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당 중기 이후 관방 교육 제도의 부실화 경향이 과거 응시자들의 새로운 수요와 맞물려 확대되고, 이를 배경으로 이른바 당대 서원의 형성과 확산이 촉진되었다.

당대에 개인에 의한 개별적인 학습 방식은 다양한 계기로 시작되었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시행되기도 했다. 이는 곧 교육을 중심으로 한 講學의 형태로 확대되었고, 여럿이 독서와 교육을 함께 하는 경향이 늘어갔다. 이를 배경으로 추천 또는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는 일이 잦았다. 한편 개인에서 시작된 독서와 강학의 활동은 관직 획득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어서 관직의 재임 기간이나 致仕 이후에도 시행되었다. 이에 개인 및 확대된 형태로 이루어진 독

서와 강학은 점차 사회적인 의미를 인정받았고 그 행위를 중시하는 태도가 확산되어 곧 사회적 풍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은 당대 서원의 형성과 이후 서원의 발전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키워드: 당왕조, 서원, 교육제도, 사회풍조, 제도형성

Ⅰ. 머리말

書院은 중국에서 처음 등장하여 천년 이상 유지된 민간의 교육기관으로 15세기 이후에는 한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쳐 학술,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1]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사에 출현했던 서원의 수량이 8,802개소로 양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2] 이러한 배경에서 서원은 錢穆에 의해 중국 전통 교육제도 중 가장 훌륭하고 보존할 만한 제도라고 극찬받기도 했다.[3]

그런데 중국의 서원은 19세기말을 전후한 근대화의 思潮에서 改制를 통해 學堂으로 변모해 갔다. 光緖 31년(1905), 과거제 폐지의 上諭가 반포되면서 급격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이다.[4] 이것은 근대화의 적극적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5], 전통문화의 단절이라는 측면에서는 비판받기도 했다. 예컨대, 胡適은 1923년에 있었던 南京東南大學의 강연에서 서원의 폐치를 중국사의 큰 불행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6] 그러나 신문화 운동 이래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전통적 의미의 서원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웠고 역사적 존재로 퇴색되었다. 이후 전통 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서원 역시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다.[7] 이르게는 1939년에 復性書院이 四川지역에 등장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2813)
**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부교수 / korchin@ynu.ac.kr
1) 鄧洪波, 『中國書院史』, 上海: 東方出版中心, 2004.
2) 鄧洪波, 趙子龍, 『中國書院的歷史與傳承』, 北京: 人民出版社, 2018, p.227.
3) 錢穆, 『新亞遺鐸』, 北京: 三聯書店, 2003, p.1.
4) 李兵, 『書院與科擧關係研究』, 武漢: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5, p.285.
5) 李國鈞 主編, 『中國書院史』,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1994, pp.947-950 참조.
6) 胡適, 『胡適論歷史』,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13, p.262.
7) 최근에는 근대 대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참고 대상으로 서원이 부각되기도 한

것[8]을 비롯해 서원의 명칭을 갖는 몇몇 기구들이 설립되었다. 1984년, 湯一介 주도의 中國文化書院이 설립된 후에는 중국 각지에서 서원의 출현이 이어졌고[9] 최근에는 새로운 교육 기관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서원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이다. 1920-30년대에도 盛郎西[10]와 曹松葉[11] 등의 연구가 소개되기는 하였으나 내용이 소략하거나 특정 시기 또는 지역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다. 80년대에 陳元暉 등의 『中國古代的書院制度』[12]와 張正藩의 『中國書院制度考略』[13] 등의 서적이 출간되면서 비로소 전통시기 서원의 발전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해졌다. 90년대 이후 서원 연구는 각 지역 별 소재 서원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심화되었고 학술과 학파 분야로 연구의 영역이 넓혀졌다.[14]

서원에 대한 다양한 논의 중 그 始原에 대한 토론은 전통시기 이래로 治史者들에게 중요한 관심 대상이었다. 이것은 서원의 연원을 확인하여 서원에 대한 完整한 이해에 기여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초기의 상황이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중시되었다. 상당수의 관련 연구가 淸代 袁枚의 언설을 거론하며 立論을 시작했는데, 袁枚는 『隨園隨筆』에서, "서원의 명칭은 唐 玄宗 시기 麗正書院과 集賢書院에서 시작되었고, 이들은 궁성 내에 설치되었는데 修書의 장소였지 士人들이 학업을 익히는 곳이 아니었다."[15]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袁枚는 두 가지의 중요

다. 朱漢民, 「書院精神與書院制度的統一--古代書院對中國現代大學建設的啓示」, 『大學教育科學』2011-4, pp.3-5.

8) 劉夢溪, 『馬一浮與國學』, 北京: 三聯書店, 2018, pp.169-170.

9) 鄧洪波, 趙子龍, 『中國書院的歷史與傳承』, p.231.

10) 盛朗西, 『中國書院制度』, 北京: 中華書局, 1934.

11) 曹松葉, 「宋元明淸書院概況」, 『中山大學語言歷史研究所周刊』, 1929年12月, 1930年1月.

12) 陳元暉, 尹德新, 王炳照, 『中國古代的書院制度』,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81.

13) 張正藩, 『中國書院制度考略』, 江蘇: 江蘇教育出版社, 1985.

14) 각 시대별 구체적인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鄧洪波, 「83년 이래 중국의 서원연구」(『한국학논총』29호, 2007, pp.75-108)과 肖永明, 劉艷偉, 「70년 동안의 중국 서원 연구」(『한국서원학보』제9호, 2019, pp.125-138), 拓夫 林爾吉, 「八十年中國書院研究綜述」(朱漢民, 李弘祺 主編, 『中國書院』第六輯, 長沙: 湖南大學出版社, 2004, pp.1-48), 鄧洪波, 「書院研究綜述」(同氏 編著, 『書院學檔案』,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17, pp.3-27) 참조. 최근 3-4년 내의 연구에 대해서는 肖啸, 鄧洪波, 「2015年書院研究綜述」(『南昌師範學院學報』2018-1, pp.107-114), 趙偉, 鄧洪波, 「2016年書院研究綜述」(『南昌師範學院學報』2018-1, pp.115-120), 王帥, 鄧洪波, 「2017年書院研究綜述」(『南昌師範學院學報』2018-5, pp.101-106), 趙連穩, 劉藤, 「2018年中國古代書院研究綜述」(『華北電力大學學報』2019-5, pp.92-100) 참조.

한 이해를 구체화했다. 하나는 '書院' 명칭이 당대 官方 기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기관이 후대 서원의 중요한 특질인 교육의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교육이 서원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임을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서원'의 명칭이 당대 관방 기관의 설립을 통해 등장했다는 인식은 폭넓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사료를 통해 당대 지방 서원들의 존재가 확인되고 연혁이 고찰되자 麗正書院 이전에 이미 서원의 존재가 출현했다는 설명이 제기되었다.[16] 이는 서원의 원류 문제를 다시금 인식하게 했다.[17] 이에 명칭의 출현 시기에 근거한 평면적인 이해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본질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 袁枚의 지적처럼 관방 書院이 후대의 서원과 달리 교육의 기능이 부재했다는 사실[18]에 착안해 교육 기능을 갖춘 서원의 시작을 규명하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결과 서원의 시작 시기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이들은 唐代說, 五代說 그리고 宋代說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당대설은 私人에 의해 건립된 서원이 당대에 출현했고 이곳에서 강학과 학생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교육기관으로서의 맹아뿐만 아니라 교육적 역할을 실제적으로 담당한 서원이 당대에 존재했다고 이해한다.[19] 한편 오대설은 정식의 서원을 특정하고 그것의 등장 시기를 확정하는 방식에 천착하여 서원의 역사에서 오대가 차지하는 위상을 강조하며 형성되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廬山書院을 최초의 정식 서원으로 간주했고, 이에 따라 오대를 서원의 시작 시기로 인식했다.[20] 때문에 당대 서원과 오대 서원의 구별에 특별한 관심을

15) [淸]袁枚, 『隨園隨筆』 권14, 「典禮類」, 王英志 編, 『袁枚全集新編(第13冊)』,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15. "書院之名, 起唐玄宗時麗正書院、集賢書院, 皆建於趙省, 爲修書之地, 非士子肄业之所也."

16) 陳元暉 등은 『中國古代的書院制度』(pp.6-7)에서 張九宗書院이 貞觀 9년(635)에 건립되어 가장 오래도니 서원이라고 지적했는데 鄧洪波은 「唐代地方書院考」(『教育評論』1990-2, pp.56-60)에서 이를 貞元 연간(785-804)의 것으로 고증하고 瀛洲書院을 가장 이른 시기의 서원이라 주장했다.

17) 기존 연구에서 서원의 기원을 '官'과 '民' 두 개의 연원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주류를 이룬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일부 연구에서 唐代 '民'의 서원을 '官'에서 영향 받은 것으로 이해하여 진일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검토는 여전히 부족하다. 戴書宏, 肖永明, 「唐代集賢書院與'書院'的名和實-書院起源的一個假說」, 『大學教育科學』2016-1, pp.63-67.

18) 集賢殿書院의 교육적 기능이 고찰되기도 했다. 劉海峰, 「唐代集賢書院有教學活動」, 『上海高教研究』1991-2, pp.93-96, p.107.

19) 毛禮銳, 沈灌群 主編, 『中國教育通史』(第3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7 참조.

기울이기도 했다.[21] 마지막으로 송대설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북송 시기에 교육 기관으로서의 서원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22] 당에서 오대를 거쳐 송으로 이어지는 발전의 과정을 부각시키고, 북송 시기에 진정한 의미의 서원이 시작되었다는 인식을 견지했다. 비록 서원의 제도가 오대시기의 南唐에서 확인되더라도 그 제도적 확립은 송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23]

이후 관련 연구의 확대와 사료의 고증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당대를 서원의 시작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24] 이 과정에서 당대의 어느 시기 혹은 어떤 상황에서 서원이 출현하여 발전해갔는가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치된 인식이 확정되지는 못했다. 일부에서는 당후기, 구체적으로는 德宗, 憲宗 시기 이후를 당대 서원의 시작 시기로 분석했지만[25], 다른 한편에서는 唐 초기 서원이라는 명칭의 등장과 함께 서원의 출현을 인정하는 인식[26]이 제기되어 서로 分岐를 이루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예 이러한 논의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했다.[27] 이러한 상황은 당대 서원의 존재 양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당대 서원의 출현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기 서원의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원의 성격이나 운영 양상에 대한 해석에 앞서 당대 서원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학계에서 통용되어 왔던 당대 서원과 관련된 사료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그것이 나타내는 실제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당대 서원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서원의 용어 사용 문제를 검토하여 그것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초기 서원의 등장 상황을 알리는 근거 사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당대 서원의 실존

---

20) 盛朗西, 『中國書院制度』, 北京: 中華書局, 1934 참조.
21) 徐曉望, 「唐五代書院考略」, 『教育評論』2007-3, pp.102-106. 당대에는 진정한 의미의 서원이 없었고 오대에서야 비로소 등장한다고 강조한다.
22) 楊榮春, 「中國古代書院的學風」, 『華南師範大學學報』1979-1, pp.68-71.
23) 張正藩, 『中國書院制度考略』, p.6.
24) 李才棟, 「唐代書院的創建與功能」, 『江西教育學院學報』2000-2, pp.69-75 참조.
25) 李國鈞 主編, 『中國書院史』, p.13.
26) 鄧洪波, 「唐代民間書院研究」, 『中國書院』(第3輯),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2002, pp.90-98.
27) 肖永明, 『儒學·書院·社會-社會文化史視野中的書院』, 北京: 商務印書館, 2012, pp.17-21 참조.

적 상황에 대한 복원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대 서원의 존재 상황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그것의 배경이 되는 조건을 실제적 사례들의 재구성을 통해 유추해보고자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당대 서원의 출현과 전개 상황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중국 서원의 발전을 단계적 과정으로 체계화하여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Ⅱ. '書院' 명칭의 출현과 그 實意

'書院'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기록은 唐代 集賢殿書院의 연혁에 대한 것에서 비롯된다. 구체적으로 언급해보면, 그 시작이 당 초기 貞觀 연간부터 존재가 확인되는 乾元殿의 관련 기록에서 확인된다. 垂拱 4년(688)에 무측천이 기존의 건원전을 허물고 明堂을 건설하였는데[28], 이후 화재로 소실과 재건을 반복하다[29] 開元 5年(717)에 玄宗이 다시 건원전으로 복구했다. 건원전은 황제가 동도 낙양에 행차하였을 때, 元日이나 冬至의 賀禮의식을 행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30] 현종은 "개원 5년에 건원전 東廊 아래에서 四部의 책들을 編寫하여 內庫를 채우게 하였는데, 右散騎常侍 褚無量과 秘書監 馬懷素로 하여금 그 일을 총괄하게 하고 刊定官 4인을 설치하여 그중 한 명으로 하여금 일을 맡아 처리토록 했다"[31]. 궁중의 도서가 정리되지 못하고 어지럽게 보관되어 열람하기에 불편함을 느낀 현종[32]이 도서의 정리를 지시하면서 건원전은 서적의 編寫와 校勘을 위한 장소로 사용된 것이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 『新唐書』「百官志」는,

---

28) [後晉]劉昫 等撰, 『舊唐書』, 권6, 「則天皇后紀」, 北京: 中華書局, 1975, p.118(正史 이하 모두 中華書局本). "(垂拱)四年春二月, 毁乾元殿, 就其地造明堂."

29) [宋]歐陽修 等撰, 『新唐書』 권13, 北京: 中華書局, 1975, p.338. "至則天始毁東都乾元殿, 以其地立明堂, 其制淫侈, 無復可觀, 皆不足記. 其後火焚之, 既而又復立; 開元五年, 復以爲乾元殿而不毁."

30) 『구당서』 권22, 「禮儀志」, p.876. "自是駕在東都, 常以元日冬至於乾元殿受朝賀."

31) [唐]李吉甫 等撰, 陳仲夫 點校, 『唐六典』 권9, 「中書省」, 北京: 中華書局, 1992, p.279. "洎開元五年, 於乾元殿東廊下寫四部書, 以充內庫, 仍令右散騎常侍褚無量、秘書監馬懷素總其事, 置刊定官四人, 以一人判事."

32) 『구당서』 권46, 「經籍志」, p.1962. "開元三年, 左散騎常侍褚无量、馬懷素侍宴, 言及經籍. 玄宗曰: '內庫皆是太宗、高宗先代舊書, 常令宮人主掌, 所有殘缺, 未遑補緝, 篇卷錯亂, 難於檢閱. 卿試爲朕整比之.'"

> (개원 6년) 乾元院을 麗正脩書院으로 고치고 院使와 檢校官을 두고 脩書官을 麗正殿直學士로 바꾸었다. 8년에는 文學直을 더하고 다시 脩撰, 校理, 刊正, 校勘 등의 官職을 더하였다. 11년에는 麗正院脩書學士를 설치하였으며 光順門 밖에 또한 書院을 두었다. 12년에는 東都 明福門 밖에 아울러 麗正書院을 두었다. 13년에는 麗正脩書院을 集賢殿書院으로 바꾸었다.[33]

고 기록하고 있다. 『신당서』는 乾元院이 麗正脩書院으로 바뀌고 새로운 관직이 설치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乾元殿이 아니라 乾元院인 점이 주목을 끈다. 우선, 乾元院을 乾元殿의 별칭으로 이해하여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볼 수 있는데, 건원전이 당 말기에도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殿閣이었음을 고려해보면[34] 이 둘은 같은 것이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당육전』뿐만 아니라 『通典』과 같은 唐代의 저술에서 '乾元殿의 東廊 아래에서' 도서의 編寫가 이루어졌음을 명기[35]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원원은 건원전과 가까운 별도의 殿室이었다고 추론된다. 따라서 건원전의 東廊 일부를 건원원이라 하고 이에 乾元院使를 설치하여[36] 새로운 院에 대한 관리를 맡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등장한 乾元院이 麗正脩書院으로 바뀌면서 '書院'이라는 명칭이 사료에 처음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唐會要』는 "乾元院을 麗正脩書院으로 바꾸어 불렀다"[37]고 했지만, 麗正脩書院으로의 변경은 동일한 건물에 대한 단순한 개명이 아니었다. 개원 5년에 저무량과 마회수의 책임 하에 진행된 서적 정리 사업이 일차적으로 완성되자, 이듬 해 현종은 낙양에 행차하여 이를 확인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 『신당서』는 "(현종이) 京師로 돌아간 후, 서적을 東宮의 麗正殿으로 옮겼다"[38]고 적시하고 있다. 즉, 서적을 보관하고 편수하는 작업을 乾元院이 아니라 동궁에 위치한 전각인 여정전으로 옮겨 지속하게 한 것이다. 『職官

---

33) 『신당서』 권47, 「百官志」, p.1213. "六年, 乾元院更號麗正脩書院, 置使及檢校官, 改脩書官爲麗正殿直學士. 八年, 加文學直, 又加脩撰、校理、刊正、校勘官. 十一年, 置麗正院脩書學士; 光順門外, 亦置書院. 十二年, 東都明福門外亦置麗正書院. 十三年, 改麗正脩書院爲集賢殿書院."

34) 楊鴻年, 『隋唐宮廷建築考』,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92, p.197.

35) [唐]杜佑 撰, 『通典』 권21, 「職官」, 北京: 中華書局, 1988, p.567. "開元五年十一月, 於乾元殿東廊下寫四部書."

36) 『신당서』 권47, 「百官志」, p.1212. "開元五年, 乾元殿寫四部書, 置乾元院使."

37) [五代]王溥 撰, 『唐會要』 권64, 「集賢院」,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p.1321. "乾元院更號麗正修書院."

38) 『신당서』 권57, 「藝文志」, p.1422. "及還京師, 遷書東宮麗正殿."

分紀』도 언급하듯[39] 이때의 여정전은 낙양이 아닌 장안의 대명궁에 위치한 동궁 내 건물이었다. 비록 사료의 제약으로 인해 京師 내 동궁에 있던 여정전의 실제 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 초기 역사에서 주요한 전각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규모의 건물로 추정된다.[40] 그렇다면, 麗正殿으로 도서를 옮긴 것은 향후 서적의 원활한 정리 작업을 위해 관련 기구를 확대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정전의 작업에 참여하는 관인들로 하여금 京官과 함께 조회에 참여하도록 명하여 지위를 높여준 것[41]이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해 준다. 결국 해당 기구를 확대하고 圖書의 정리와 관련된 업무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한 결과 '書院'의 명칭이 출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乾元院에서 수행되던 업무가 보다 전문화되고 그 성격이 명확해졌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書院'이 나타내는 실제 의미를 좀 더 살펴보자. 앞서 인용한 『신당서』「백관지」의 기록에 따르면, 개원 6년에 麗正脩書院을 두고 나서 5년이 지나 광순문 밖에 '書院'을 설치했다. 이듬해에는 다시 동도의 명복문 밖에도 '麗正書院'을 설치함에 따라 경사와 동도 두 지역 모두에 書院이 존재하게 되었다. 여기서 언급된 '書院'은 麗正脩書院의 '脩書院'을 簡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당대 처음 등장한 '書院'이 책을 편수하고 정리하는 장소를 뜻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簡稱으로서의 '書院'이기 때문에 麗正書院과 麗正脩書院이 혼용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예컨대, 개원 13년 기사에서 『신당서』는 '麗正脩書院'이라고 기록한 반면, 『구당서』는 '麗正書院'이라 서술한 것[42]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麗正脩書院'에서 '集賢殿書院'으로 명칭이 바뀐 이후, 사료에서 '集賢殿修書院'(혹은 '集賢修書院')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현전서원의 건물 규모가 이전과 비교해 이른바 宏敞하고[43] 부속 관인의

---

39) [宋]孫逢吉, 『職官分紀』 권15, 「集賢院」, 北京: 中華書局, 1988, p.83. 孫逢吉은 韋述의 『集賢注記』를 인용하여, 開元 6년 겨울에 "車駕入京, 其乾元殿書籍, 始令於京大內東宮之麗正殿安置."고 하여 경사의 동궁임을 밝혔다.

40) 楊鴻年, 『隋唐宮廷建築考』, p.136.

41) 『신당서』 권200, 「褚無量傳」, p.5689. "帝西還, 徙書麗正殿, 更以脩書學士爲麗正殿直學士, 比京官預朝會."

42) 『구당서』 권97, 「張說傳」, p.3054. "(開元)十三年(중략)因下制改麗正書院爲集賢殿書院." 동일한 사물에 대한 다른 형태의 기록 차이는 해당 사료의 성격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신당서』는 「백관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보다 공식적인 형태로 기재되었을 것이고, 반면 『구당서』는 열전에 해당되니 의미전달이 가능한 줄임말의 형태로 사용했다는 유추가 가능할 듯하다.

숫자도 대폭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44], 집현전서원의 책임자로 張說을 임명할 때 張說의 謙讓[45]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大學士'의 칭호를 부여했던 일을 고려해 보면, 修書를 포함해 확대된 직무를 수행하는 '집현전서원'이 기존의 기관보다 지위가 상승하면서 해당 기관의 명칭 또한 공식화되어 안착되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현종 시기까지의 공식 기록에 해당하는 『당육전』이 '집현전서원'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은 적절해 보인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같은 책에서 집현전서원의 簡稱이 동시에 사용되는 사실이 주목된다. 『당육전』은 집현전서원의 學士가 맡은 직임을 설명하면서 집현전서원학사가 아닌 '集賢院學士'라고 적고 있는 것이다.[46] 이는 『당육전』에서 '집현전서원학사'[47]라는 명칭을 기재한 것과 함께 '집현원서원'도 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집현전서원'을 대신해 '集賢院'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집현원'이라는 簡稱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집현전서원'이 상대적으로 긴 명칭인 연유일 수도 있지만, 당대에 다섯 글자의 관직명이 없지 않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글자 수의 多少가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造語의 방식을 보면, 장소를 나타내는 '殿'과 업무의 내용을 포함하는 '書'를 생략하고 있다. '殿'의 경우는 '院'과 중복되는 의미가 있어 생략이 가능하겠지만, '書' 또한 제외하는 것은 별도의 배경조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麗正書院'의 명칭이 통용되었기 때문에 '集賢書院' 또한 충분히 사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추론이 성립될 수 있다면, '書院'이라는 명칭을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비록 집현전서원이 설치됨에 따라 해당 기관은 확대된 직무와 제고된 위상을 갖게 되었지만, '書院'이 그 자체로 공식적인 기관명으로 확립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書院'은 서적과 관련된 장소 또는 관청이라는 의미 이상의 의의를 내포하지 못했다. 만약 '서원'이 후대에 언급되는 書院制度를 구성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것이 고유한 명칭으로 존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지만 아직 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

43) 『구당서』 권43, 「職官志」, p.1851. "其大明宮所置書院, 本命婦院, 屋宇宏敞."
44) 『당육전』 권9, 「中書省」, pp.279-280 참조.
45) 『당회요』 권64, 「집현원」, p.1119. "以張說爲大學士, 辭曰學士本無大稱."
46) 『당육전』 권9, 「중서성」, pp.280-281. "集賢院學士掌刊緝古今之經籍, 以辯明邦國之大典, 而備顧問應對."
47) 『당육전』 권15, 「광록시」, p.446. "集賢殿書院學士及修撰、校理官吏, 幷供五品."

이러한 사정은 당대에 직접 사용되었던 詔令文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唐大詔令集』에 수록된 唐代의 詔書에 여러 차례 집현전서원과 관련된 언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集賢書院' 또는 '書院'의 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집현전서원이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인 현종 天寶 8載(749)의 冊文에서는 재상 李林甫의 관직명을 나열하면서 '攝太尉開府儀同三司行尙書左僕射兼右相吏部尙書崇玄館大學士集賢院學士修國史上柱國晉國公臣林甫'[48]라고 하여 『당육전』에서 사용된 명칭인 '集賢院學士'로 기록했다. 또한 다른 조서는 진현전서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언급할 때도 '集賢院'이라 칭하였고[49], 집현전서원의 직무 수행을 의미하는 관직명을 기록할 때도 '判集賢院'이라 했다[50]. 그러나 詔書 어디에도 '서원'을 포함한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 조서는 '집현원'을 대신해 '집현전'이라 쓰기도 하고, 大曆 12년(777)에 반포된 楊綰과 常袞의 재상 임명 조서[51]에서는 심지어 이 둘을 혼용하기도 하지만, '서원'의 명칭을 사용한 사례는 한 차례도 보이지 않는다. 극히 罕見되지만, '集賢'으로 집현전서원의 의미를 대신하는 경우[52]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의 용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민간에서 작성된 집현전서원의 관련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집현전서원이 설치된 직후인, 개원 15년에 사망한 平陽郡의 敬覺이라는 자의 墓誌銘을 보면, 적장자 敬會眞의 관직을 '朝散大夫行國子監大學博士集賢院侍講學士'라고 기록했다.[53] 개원 22년에 사망한 張休光의 묘지명은 그 撰者와 書者의 관직명을 남기면서 집현전서원의 학사와 집현전서원의 근무자라는 뜻으로 각각 '集賢院學士'와 '直集賢院'이라 기록했다.[54] 아울러 '集賢殿'으로 집현전서원을 대신하는 경우도 덕종 시기 이후부터는 확인될 뿐만 아니라[55] '集賢' 두 글자로만 기록한 사례[56]도 없지 않다.

---

48) [宋]宋敏求 編, 『唐大詔令集』 권7, 「開元天地大寶聖文神武應道皇帝冊文」, 北京: 中華書局, 2008, p.44.
49) 『당대조령집』 권72, 「乾符二年南郊赦」, p.404. "其弘文館集賢院奏請直館敎理."
50) 『당대조령집』 권54, 「劉瞻荊南節度平章事制」, p.285. "正義大夫中書侍郎兼刑部尙書同中書門下平章事判集賢院彭城縣開國公食邑一千戶賜紫金魚袋劉瞻."
51) 『당대조령집』 권45, 「楊綰常袞平章事制」, p.225.
52) 『당대조령집』 권46, 「李吉甫平章事制」, p.231. "內殿集賢之淸祕."
53) 周紹良 主編, 『唐代墓誌彙編(下)』, 「大唐故敬府君墓誌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p.1341.
54) 『唐代墓誌彙編(下)』, 「大唐故敬府君墓誌銘」, p.1438.
55) 『唐代墓誌彙編(下)』, 「有唐相國贈太傅崔公墓誌銘」, p.1823. "轉中書侍郎, 集賢殿、崇文館大學士."

이렇듯 '서원'의 명칭은 '麗正脩書院' 이후 '脩書院'의 簡稱으로 등장했지만, 공식적 명칭으로 통용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서원'이 특정한 제도가 갖춰진 機構를 나타내는 공식 명칭이었다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당서』와 『구당서』의 용례에서 한 사례가 포착된다. 『구당서』 권184, 「高力士傳」이 현종 시기 환관들의 활동상황을 서술하면서 기록한 "楊則持節討伐, 黎、林則奉使宣傳, 尹則主書院."[57]이 그것이다. 환관 楊思勗, 黎敬仁, 林招隱, 尹鳳祥의 행적을 묘사하면서 윤봉상의 업무를 '書院'의 일을 주관했다고 기록하여 일견 '서원'이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한 것처럼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장의 맥락에서 분석해보면, 해당 문장에서 '主書院'은 '持節討伐[부절을 가지고 적을 토벌했다]'와 '奉使宣傳[사명을 받들어 전달했다]'라는 서술과 호응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서를 편수하는 곳의 일을 맡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서원'은 일반적 의미의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결국 '集賢殿書院'의 등장으로 인해 '서원'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특정 기관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통용되지 못하였다. 『당육전』의 기록처럼[58], 圖書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Ⅲ. 서원의 존재 형태와 발전 양상

당대 서원에 관한 기록은 집현전서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민간에 존재했던 다양한 형태의 서원에 관한 기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까지의 연구를 통해 현재 총 49곳의 자료가 발굴되어 唐代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59]

사료의 제약으로 인해, 민간에 출현한 것으로 여겨지는 서원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초의 조성 시기를 확인하는 것 역시 그러하

56) 周紹良 主編, 『唐代墓誌彙編續集』, 「唐故開府儀同三司守太傅致仕上柱國太原郡開國公食邑二千户贈太尉白公墓誌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p.1033. "歷集賢大學士."

57) 『구당서』 권184, 「高力士傳」, p.4757.

58) 『당육전』 권9, 「중서성」, p.279. "於是改名集賢殿修書所爲集賢殿書院."

59) 鄧洪波, 『中國書院史』, pp.8-26 참조.

다. 때문에 가장 이른 시기의 서원을 비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鄧洪波는 이중 현종 시기의 麗正書院보다 앞선 시기의 서원으로 光石山書院, 瀛州書院, 李公書院, 張說書院, 松洲書院을 제시하며 당대 書院의 초기 상황을 분석했다. 여기서 각각의 서원과 관련된 기록을 잠시 살펴보자.

鄧洪波는 영주서원의 조성 시기를 무덕 6년(623) 이전으로 확정하면서, 『陝西通志』 권27의 "瀛州書院은 (藍田)縣의 치소 남쪽에 있고, 唐의 學士 李元通이 창건했다. 明 弘治 연간에 知縣 任文獻이 重修했다."[60]는 기록을 근거로 삼고, 『淸一統志』, 『藍田縣志』의 기록을 참조했다.[61] 그런데 『섬서통지』는 雍正 13년(1735)에 편찬된 것으로 무덕 6년에서 1112년 이후의 기록이다. 천년이 넘는 기록부재의 시간을 거친 후에 작성된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자료의 용어 선택에 의문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옹정 연간은 이미 서원제도가 완비되고 보편화되어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당시의 익숙한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게다가 嘉靖 21년(1542)에 편찬된 『陝西通志』에서는 瀛州書院과 관련된 언급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록의 신뢰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李公書院은 嘉靖 연간에 편찬된 『靑州府志』의 기록에 의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李公書院은 (臨朐)縣의 서남쪽에 위치했는데 唐代 李靖이 독서하는 장소였다. 일설에는 이정이 太宗의 閻左 정벌을 따라갔다가 이곳에서 司馬兵法을 열독했다고 한다."[62]라고 되어 있다. 李靖이 649년에 사망하기 때문에 이 기록은 적어도 900년 이후의 설명이다. 역사적 사실과 기록 사이의 시간적 거리뿐만 아니라 서술의 내용을 볼 때, '일설에는[一云]'이라 기록한 내용은 그 사실적 엄밀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 게다가 '閻左'는 秦代의 용어로 당 태종이 여좌 정벌을 나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李公書院이 위치했다고 하는 臨朐縣의 縣志에서는 해당 내용을 '전하길[相傳]'[63]이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어 직접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松洲書院에 대해서는 淸 康熙 연간에 편찬된 『漳州府志』의 기록에서 그 존재

60) 雍正『陝西通志』 권27. "瀛州書院在縣治南, 唐學士李元通建. 明弘治時, 知縣任文獻重修."
61) 嘉慶『淸一統志』 권233; 光緖 『藍田縣志』 권14.
62) 嘉靖『靑州府志』 권9. "李公書院在縣西南, 唐李靖讀書處. 一云靖從太宗征閻左, 於此閱司馬兵法."
63) 嘉靖『臨朐縣志』 권4. "相傳李靖微時讀書於此."

를 확인하고 있다. 『漳州府志』는 松洲書院에 대해 주를 달아, "唐代 陳珦이 士民들과 강론을 하던 곳이었다."[64]고 설명했다. 관련 설명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기록의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張說書院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明 弘治 연간에 편찬된 『保定郡志』의 기록에 의거해서 張說書院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保定郡志』는 '張說書院'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保定郡志』는 宋代 인물로 여겨지는 滕中이 지었다고 하는 「張說相公堂記」를 인용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볼 때 張說이 활동했던 시기와 가까운 기록으로 여타 사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실제 기록을 살펴보면, "(張說이) 아직 관직에 오르지 않았을 때, 滿城縣의 花陽山에 이르렀는데 풍경이 예사롭지 않고 꽃과 나무가 울창한 것을 보고는 이곳에 거처를 두고 독서의 장소로 삼았다. 후대 사람들이 수리하고 완성한 후 이름을 바꾸어 相公堂이라 했다."[65]고 되어 있다. 또 같은 내용에 대해 萬曆 연간의 『保定府志』는 "(張說이) 滿城縣을 지나다 화양산에 書院을 세우고 藏修의 장소로 삼았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 거소를 相公堂이라 했다."[66]고 기록했다. 결국 양쪽 기록 모두 張相公堂의 유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張說書院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保定府志』는 '書院'이라 기록했지만 이는 결국 張說이 독서하던 장소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고 張說書院의 실제 존재를 가리킨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光石山書院은 당대의 기록을 근거로 삼고 있어 여타 사례와는 달리 주목된다. 당 현종 시기 道士인 蘇師道가 지은 「司空山記」의 기록에 그 명칭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사공산기」는 "司空의 宅이 산의 서쪽에 있는데 (朱陽) 觀에서 11리 떨어져 있고 지금의 殿宇에 像이 있으며 壇井과 基圖가 분명하게 남아 있다. 宅의 왼쪽에는 光石山書院이 있었는데 옛 기단이 여전히 남아 있다."[67]고 적고 있다. 이 記文은 天寶 14年(755) 10月에 작성된 것으로 道士 鍾仙芝가 사공산에서 司空 張岊의 행적을 추념하며 구술하고 潭州刺史 蘇師道가

64) 康熙『漳州府志』 권34. "陳珦與士民講論處."
65) 弘治『保定郡志』 권22. "未遇時, 至滿城花陽山, 因見風景異常, 花木蓊鬱, 築室於此, 以爲讀書之處."
66) 萬曆『保定府志』 권36. "過滿城, 築書院於花陽山, 以爲藏修之所, 後人名其居曰相公堂."
67) [淸]董誥 等編, 『全唐文』 권371, 「司空山記」, 北京: 中華書局, 1983, p.3768. "司空宅在山之西, 去觀十一里, 今殿宇有像, 壇井基圖, 宛然在焉. 宅左有光石山書院, 故基尚存."

기록한 글이다. 張岊은 正史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南朝 梁 시기, 즉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에 활동하다[68] 神仙이 되었다고 전래되는 인물이다. 그런데 소사도가 언급한 광석산서원은 최소 200년 이전의 설화 속 존재로, 천보 연간 당시에는 건축물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옛 기단이 남아 있다고는 하나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記文 속 광석산서원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사도가 '서원'이라 기록한 것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前章에서 살펴본 바, 현종 시기에 도서와 관련된 장소로서 서원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사실을 고려해보면, 소사도 또한 특정한 規制를 갖춘 대상을 언급하기 보다는 독서의 장소를 의미하는 범칭으로 '서원'을 사용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후대의 일부 기록에서 보이는 光石山書院, 瀛州書院, 李公書院, 張說書院, 松洲書院 등에 대해 書院으로서의 實在性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제도화되어 동질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후대의 기록이 실제 상황과 내용적 차이를 보이는 용어선택을 한 경우가 있으며 일부는 그 근거에 의문이 들거나 별도의 의도로 粉飾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瀛州書院 등의 기록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비록 내용적 相異性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모든 내용이 전혀 무관한 서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李公書院, 張說書院, 松洲書院의 관련 기록들이 특정 개인의 강학과 독서의 장소를 해당 '서원'에 결부해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비록 唐代에 일정한 規制를 갖춘 서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의 강학 또는 독서와 관련된 장소가 실재하였기에 관련 기록이 流傳될 여지가 있었다고 이해된다.

그렇다면 관련 내용을 보다 사실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 후대의 기록보다는 당대 사람들에 의해 지칭되는 서원의 사례들이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正史나 당대 筆記史料에서 서원 관련 기록이 검출되지 않아 그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당대 문인들이 지은 詩文의 일부에서 서원 명칭의 사용 사례가 확인되는 점은 관련 사항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우선, 詩文에서 확인되는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

68) 劉偉鏗, 吳詠平, 『肇慶歷史風貌』, 廣州: 廣州文化出版社, 1989, pp.249-250.

[표 1] 唐詩 속 서원 관련 기록

저자	시 제목	서원 명칭	출처
韓翃	題玉眞觀李泌書(院)[69]	李泌書院	『文苑英華』[70] 권226, 1135쪽
盧綸	題耿拾遺春中題第五四郎新修書院	第五四郎新修書院	『文苑英華』 권317, 1636쪽
盧綸	宴趙氏昆季書院	趙氏昆季書院	『文苑英華』 권215, 1071쪽
王建	杜中丞書院新移小竹	杜中丞書院	『唐百家詩選』[71] 권13
于鵠	題宇文裔山寺讀書院	宇文裔山寺讀書院	『文苑英華』 권236, 1190쪽
楊巨源	題五老峯下費君書院	費君書院	洪邁, 『萬首唐人絶句詩』 권8
吕溫	同恭夏日題尋眞觀李寬中秀才書院	李寬中秀才書院	『吕衡州文集』[72] 권1
楊發	南溪書院	南溪書院	『文苑英華』 권317, 1637쪽
李群玉	書院二小松	書院	『李群玉詩集』[73] 後卷4
賈島	田將軍書院	田將軍書院	『文苑英華』 권317, 1638쪽
曹唐	題子姪書院雙松[74]	子姪書院	元好問, 『唐詩鼓吹箋注』 권4
齊己	宿沈彬進士書院	沈彬進士書院	齊己, 『白蓮集』 권7
李益	書院無曆日問路侍御六月大小[75]	書院	洪邁, 『萬首唐人絶句詩』 권11
劉禹錫	罷郡歸洛途次山陽阳留辭郭中丞使君	書院	劉禹錫, 『劉禹錫集』 권31, 上海人民出版社, 1975, 291쪽
許渾	病後與郡中群公宴李秀才	書院	許渾, 『丁卯集箋證』 권8
姚合	題田將軍宅	書院	姚合, 『姚合詩集校考』 권7, 岳麓書社, 1997, 99쪽

위의 표에서 보이듯 총 16편의 시문에서 서원의 용례가 확인된다. 이중 李群玉, 李益, 劉禹錫, 許渾, 姚合의 작품에서와 같이 서원으로 지칭되는 대상의 명칭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11편의 작품에서 이름으로 추정되는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각각을 살펴보면, 楊發의 작품에서 보이는 南溪書院 이외에 모든 사례가 특정인과 서원을 연계하여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특정 개인의 서원을 뜻하는 것이다. 盧綸의 「宴趙氏昆季書院」에서는 '昆季', 즉 조씨의 형제를 일컫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과 서원을 연결하여 지칭하는 모습에는 차이가 없다. 문학 작품의 특성상 별도로 존재했을지 모를 특정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부적절했을 수도 있지만, 이름을 추정할 수 있는 사례 모두가 원문이 아니라 제목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로 인한 제약은 부분적이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시문에서 검출되는 서원의 사례들은 곧 당대 문인들 사이에서 개별적이고 사적인 독서의 공간이 서원으로 칭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면 南溪書院의 사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개인의 이름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사례들과 차이를 보인다. 『문원영화』에 실려 있는 楊發의 「南溪書院」은 『전당문』 권517에도 수록되어 있다.[76]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詩文이 于鵠을 작자로 하여 「南谿書齋」라는 제목으로 『전당문』 권310에도 포함되어 있다.[77] '溪'와 '谿'가 서로 通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南溪'라는 명칭은 해당 시문이 작성될 당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원영화』의 기록을 기준으로 「남계서원」의 작성 시기를 추정해 보면,

---

69) 『문원영화』에는 '題玉眞觀李泌書'으로 되어 있지만 여타 기록에 '서원'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맥으로 볼 때, '院' 자의 脫漏라 판단된다. 『萬首唐人絶句詩』(권20)에는 제목이 '題玉眞觀'으로 되어 있어 서원에 관한 기록이 없다.

70) [宋]李昉 等編, 『文苑英華』, 北京: 中華書局, 1966(이하 모두 中華書局本).

71) [宋]王安石 編, 任雅芳 整理, 『唐百家詩選』,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6, p.451.

72) [唐]呂溫, 『呂衡州文集』, 叢書集成初編本, p.6.

73) [唐]李群玉 著, 羊春秋 輯注, 『李群玉詩集』, 長沙: 岳麓書社, 1987, p.121.

74) [明]曹學佺, 『石倉歷代詩選』 권84, 「曹唐」(四庫全書本)에서는 '題子姪雙松'이라 함.

75) [淸]彭定求 等編, 『全唐詩』 권283, 北京: 中華書局, 1980, p.3221에는 「書院無曆日以詩代書問路侍御六月大小」로 되어 있음.

76) 『전당시』 권517, 「南溪書院」, p.5904.

77) 『전당시』 권310, 「南谿書齋」, p.3499. 詩句에 '入院'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書齋'는 '書院'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해 보인다. 그러나 명대 기록인 『石倉歷代詩選』(권65)에서도 '南溪書齋'로 되어 있어 별도의 考證이 필요하다.

楊發이 大中 12년(858)에 嶺南東道節度使로 있다가 軍亂이 일어나 폄관되어 官途에서 밀려나기[78] 때문에 詩의 내용상 이를 전후한 시기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남계서원」이 작성된 시기는 당 후반기에 해당하며, 왕조가 멸망하기 대략 50년 전 즈음이 된다.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등장한 사례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개인의 독서나 강학을 위한 장소의 조성이 당대에 점차 만연해가면서 초기에 개인의 이름 혹은 無名으로 있던 상황이 이후에 특정한 명칭을 붙이는 형태로 발전한 것은 아닌가 추측된다.

이를 고려해보면, 당대에 서원으로 불리는 장소들이 개인에 의해 조성 또는 유지되다가 차후에 완비 또는 重修되면서 특정한 명칭이 붙여지는 상황을 당대 이래로 서원의 발전 과정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앞서 소위 張說書院의 상황을 살피면서 거론했던 『保定府志』의 기록, 즉 "후대 사람들이 이 거소를 相公堂이라 했다."는 기록을 보면, 事後에 이름이 붙여지는 상황은 이를 傍證하기도 한다.

관련 사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후대의 기록에도 특정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唐代 서원의 존재를 찾아볼 수 있는데 盧藩書院이 그중 하나이다. 道光 연간에 편찬된 『衡山縣志』는 해당 서원을 소개하면서, "盧藩은 唐 시기의 사람으로 衡山에 은거했다가 紫蓋峰에 서원을 만들었다. 書院은 폐치되고 기단이 남아 있다."[79]라고 했다. 盧藩이 은거하면서 독서나 강학을 했던 곳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으면서 개인의 이름으로 기억되며 남아 있는 것이다.

명청시기에도 衡山에 存留했던 南嶽書院은 전형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嘉靖 연간의 『湖廣圖經志書』[80]는 남악서원에 대해, "(남악서원은) 형산의 서쪽에 있다. 唐代 李泌은 字가 長源이었는데 肅宗 시기에 京兆尹이 되었다. 李輔國이 그를 질투하자 물러나 衡山에 은거했는데 道士服이 하사되었고 처소와 이 서원을 만들었다. 후에 덕종 시기에 재상이 되자 서원이 이로 인해 이름이 생겼다."[81] 고 기록했다. 앞선 [표1]에서 확인했듯이 李泌에 의해 조성된 것은 '李泌書院'이라 불렸는데 그가 재상의 지위에 오르게 되자 이에 남악서원이라는 이름이 붙여

78) 『신당서』 권8, 「선종기」, p.252. "四月庚子, 嶺南軍亂, 逐其節度使楊發."
79) 道光『衡山縣志』 권15. "盧藩, 唐時人, 隱居衡山, 創書院於紫蓋峰. 院廢基存."
80) 李秋芳, 「嘉靖『湖廣圖經志書』及其史料價值」, 『史學史研究』2010-4, pp.112-116, p.123.
81) 嘉靖『湖廣圖經志書』 권12. "南嶽書院, 在嶽山西. 唐李泌, 字長源, 肅宗時爲京兆尹. 李輔國嫉之, 退隱衡山, 詔道士服, 爲治室廬及此書院. 後相德宗, 書院由是有名."

지게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湖廣圖經志書』는 「重修南嶽書院記」도 수록하고 있는데, 「重修記」에 따르면, "南嶽書院은 唐 李鄴侯[82]가 독서하던 곳으로 南嶽의 좌[서쪽]에 처음 창설되었다. 宋 寶慶 연간에 轉運使 張嗣可가 그 위치가 市場과 가까워 시끄럽고 좁다고 여겨 이를 集賢峰 아래로 옮겼다. 이로써 서원의 儀制가 비로소 갖춰졌다."[83]고 되어 있다. 寶慶 시기가 된 후에 서원으로서의 제도와 형식이 완비되어 발전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 기록을 통해 李泌 개인에 의해 조성된 이른바 李泌書院이 이후에 南嶽書院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고 남송 시기에 이르면 서원의 모습을 갖추며 발전해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景星書院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경성서원은 그 명칭의 출현 배경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복수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嘉靖 연간의 『江西通志』는 "景星書院은 府城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唐 元和 초에 (헌종이) 李渤을 불러 右拾遺로 삼고자 했는데 (이발이) 나아가지 않았다. 韓愈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길, '朝廷의 사인들이 목을 빼어 동쪽을 바라보기를 마치 景星이나 鳳凰을 보듯 서로 다투어 보며 기뻐한다'고 했다. 李渤은 이내 命을 따랐다. 長慶 연간에 (그는) 江州에서 刺史로 있었다. 후대 사람들이 이에 서원을 지어 이름을 景星이라 했다."[84]고 적고 있다. 그런데 李渤이 강주자사로 있었던 때의 일에 대해 嘉靖 연간의 『九江府志』는 이발이 강주의 治所인 九江에 "건물을 지었는데 士人들의 독서의 장소가 되었다."[85]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또한 이를 李渤書堂이라 했는데 두 기록을 종합해 보면, 장경 연간에 이발이 九江에 독서의 장소를 만들고 후에 사람들이 한유와의 일화를 기려 景星이라는 이름을 붙인 서원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杜陵書院의 사례를 보면, 嘉慶 연간의 『湖南通志』는 그 위치와 유래에 대해 "杜陵書院은 耒陽縣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唐 杜甫를 모시고 있다. 당대

82) 李泌이 鄴侯의 작위를 받는다. 羅寧, 「<鄴侯家傳>與<鄴侯外傳>考」, 『四川大學學報』 2010-4, pp.65-73 참조.

83) 嘉靖『湖廣圖經志書』 권12, 「重修南嶽書院記」. "南嶽書院者, 唐李鄴侯讀書之所也, 創始於南嶽之左. 故宋寶慶年間, 運使張嗣可以其近市喧雜啾隘徙之集賢峰下. 由是, 書院之制, 始備."

84) 嘉靖『江西通志』 권14. "景星書院在府城東. 唐元和初, 召李渤爲右拾遺. 不就. 韓愈遺之書, 云朝廷士引領東望, 若景星鳳凰爭先覩之爲快. 渤乃就命. 長慶中, 刺江州. 後人因建書院, 名曰景星."

85) 嘉靖『九江府志』 권10. "遂築室於斯, 爲士人讀書處."

에 建造되었는데 明 嘉靖 연간에 知縣 馬宣이 重建했다."[86]고 설명했다. 기록에서 보듯 당대에는 두보를 기리는 祠堂의 형태가 후대에 중건되면서 杜陵書院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87]

마지막으로 앞선 [표1]에서 보이는 '李寬中秀才書院'의 사례를 살펴보자. 秀才인 李寬中의 서원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이것은 呂溫의 詩 「同恭夏日題尋眞觀李寬中秀才書院」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다. 이것과 衡州 石鼓書院과의 관계가 주목되는데, 光緖 연간의 『湖南通志』는 "石鼓書院은 예전에 尋眞觀이었으며, 李寬이 그곳에서 독서를 했다. 刺史 呂溫이 일찍이 이곳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심진관을 지나다 李秀才書院을 찾아 이를 詩로 지었다."[88]고 기록했다. 또한 乾隆 연간의 『衡州府志』는 "讀書堂이 石鼓山에 있는데, 예전에 尋眞觀이었다. 唐 刺史 齊映이 合江亭을 (石鼓)산의 오른편 기슭에 만들었다. 元和 士人 李寬이 오두막집을 짓고 살며 그곳에서 독서했다. 刺史 呂溫이 일찍이 이곳을 방문하여 「題尋真觀李秀才書院」이라는 시를 남겼다."[89]고 했다. 따라서 李寬中과 동일 인물인 李寬[90]이 尋眞觀이라는 道觀의 자리에 가서 독서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것이 서원으로 불리게 되었다. 또한 독서당으로 불리기도 하는 점에서 보듯 呂溫이 시로 남긴 것은 석고서원이 아닌 李寬中의 서원이었다. 그러던 것이, 「衡州石鼓書院記」에서 "예전에 서원이 있었는데 唐 원화 연간에 시작되었고 衡州 사람 李寬이 만들었다. 宋 초기가 되어 일찍이 勅額이 내려졌다."[91]고 명기한 것처럼 북송 시기에 석고서원의 이름이 붙여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李寬의 독서당에서 비롯된 것이 석고서원으로 발전해 간 것이어서 李寬이 석고서원을 건설했다는 이해[92]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

86) 嘉慶『湖南通志』 권50. "杜陵書院在耒陽縣北, 祀唐杜甫, 唐建. 明嘉靖中, 知縣馬宣重建."

87) 唐代 裴說의 詩 「題耒陽杜公祠」가 시사하듯 뇌양현에 있던 두공의 사당은 그 명칭이 杜陵書院이 아니었다. 杜陵書院의 명칭은 이후에 붙여진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88) 光緖『湖南通志』 권69. "石鼓書院舊爲尋真觀, 李寬讀書其中, 刺史呂溫嘗訪之, 有過尋眞觀, 訪李秀才書院, 詩是也."

89) 乾隆『衡州府志』 권33. "讀書堂在石鼓山, 舊爲尋真觀. 唐刺史齊映建, 合江亭於山之右麓. 元和士人李寬結廬讀書其上. 刺史呂溫嘗訪之, 有題尋真觀李秀才書院詩."

90) 郭建衡, 「李寬與石鼓書院之創設」, 『中國書院論壇』(第10輯), 2017, pp.241-243.

91) [宋]朱熹, 『晦庵集』 권79, 「衡州石鼓書院記」, 四庫全書本. "故有書院, 起唐元和間, 州人李宽之所爲. 至國初時, 嘗賜敕額."

92) 嘉靖『湖光圖經志書』 권20. "(呂溫)元和中刺史有善狀. 時李寬中建石鼓書院, 溫爲刺史訪之."

Ⅳ. 독서 강학의 풍조와 서원

일반적인 의미로 통용되던 서원이 향후 規制를 갖춘 서원으로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에 당대 사인들의 개인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서원의 始原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당대 어떠한 상황 하에서 이른바 서원의 原型을 이루는 모습들이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도화된 서원의 초기 양상을 보여주는 당대 사인들의 개별적 학습 활동은 그 특성상 해당 시기의 교육 상황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당대 교육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사인들의 독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당대 교육제도는 건국 초기부터 중시되었다. 武德 2年(619)에 중앙의 國子學, 太學, 四門學 등에 學生을 두어 제도를 확정하고 지방에는 郡縣學을 3등급으로 나누고 해당 기관 별 학생 수를 제도로 규정하여 정비했다.[93] 그러나 아직 각 지역 세력을 통일하기 이전인 탓에 전국적 규모의 제도 시행은 좀 더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를 통해 당이 교육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현종 天寶 초기가 되면 관련 제도가 확대되고, 각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수가 6만 여명이 넘을 정도[94]로 완비되었다. 이른바 중국 전통시기 교육사에 있어서 중요한 성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95] 그러나 당대 교육제도가 지속적인 발전 과정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측천의 집권 시기에는 기존의 博士, 助教들이 學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그에 걸맞은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경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출세를 위한 요행을 기대하게 되면서 20년 동안 학교가 기능을 하지 못했다.[96] 무측천 이후 다시 발전

93) 『구당서』 권189상, 「儒學傳」, p.4940. “以義寧三年五月, 初令國子學置生七十二員, 取三品已上子孫; 太學置生一百四十員, 取五品已上子孫; 四門學生一百三十員, 取七品已上子孫. 上郡學置生六十員, 中郡五十員, 下郡四十員. 上縣學並四十員, 中縣三十員, 下縣二十員.”

94) 『通典』 권15, 「選擧典3」, p.362. “弘文、崇文館學生五十員, 國子、太學、四門、律、書、算凡二千二百一十員, 州縣學生六萬七百一十員.”

95) 唐群, 『唐代教育研究』, 西安: 西安出版社, 2009, p.10.

96) 『구당서』 권189상, 「儒學傳上」, p.4942. “則天稱制, 以權道臨下, 不吝官爵, 取悅當時. (중략) 至於博士、助教, 唯有學官之名, 多非儒雅之實. 是時復將親祠明堂及南郊, 又拜洛, 封嵩嶽, 將取弘文國子生充齋郎行事, 皆令出身放選, 前後不可勝數. 因是生

을 이루던 교육제도는 현종 시기를 정점으로 쇠락의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천보 연간 이후에 학교가 더욱 폐치되었고 生徒들이 사라졌다."[97] 안사의 난 이후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楊瑒은 "경사에 태학이 있고 州縣에 소학이 있지만 전란이 있은 이후 생도들이 흩어지고 儒臣과 學師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中略) 국자감박사 등의 수를 늘리고, 그 祿秩을 올려주고, 학식이 뛰어난 자를 뽑아 그 직임을 맡기도록 해야 한다. 10道 중 大郡에는 太學館을 설치하고 박사들로 하여금 나아가 郡官을 겸하고 生徒들을 두도록 해야 한다."[98]고 간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교육제도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관학을 진흥하려는 노력[99]과 함께 일부의 성과[100]를 거두기도 했지만, 元和 연간에 劉禹錫이 재상에게 學官의 진흥을 강조하는 것[101] 등의 내용을 보면, 당 후기 官學의 기능 약화는 추세적인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당대 사인들의 개별적 학습 및 교육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당 초기부터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崔信明은 "太行山에서 은거하다가 貞觀 6년 詔擧에 응시하여 興世丞에 제수되었다."[102]고 하여 산에서 개별적으로 독서를 하다 官途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후 유사한 사례가 다수 보이는데, "終南山 깊은 곳에 들어가 홀로 공부한 것이 3년이 되자 나와 府試에 응시했다가 급제했다."[103]는 許稷의 경우처럼, 정식의 학교 제도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학습 활동을 통해 관직에 나아가는 일이 잦았다. 徐顔伯은 태행산에서 초가집을 짓고 은거하다 추천을 받고 급제하기도 했으며[104], 盧群

徒不復以經學爲意, 唯苟希僥倖. 二十年間, 學校頓時隳廢矣."

97) 「신당서」 권44, 「選擧志上」, p.1165. "然自天寶後, 學校益廢, 生徒流散."

98) 『구당서』 권119, 「楊瑒傳」, p.3434. "今京有太學, 州縣有小學, 兵革一動, 生徒流離, 儒臣師氏, 祿廩無向. (중략) 其國子博士等, 望加員數, 厚其祿秩, 選通儒碩生, 間居其職. 十道大郡, 量置太學館, 令博士出外, 兼領郡官, 召置生徒."

99) 『당회요』 권35, 「學校」, p.635. "貞元三年正月, 右補闕宇文炫上言, 請京畿諸縣鄉村廢寺並爲鄉學."

100) 『신당서』 권146, 「李栖筠傳」, p.4736. "則又增學廬, 表宿儒河南褚沖、吳何員等, 超拜學官爲之師, 身執經問義, 遠邇趨慕, 至徒數百人."

101) 『신당서』 권168, 「劉禹錫傳」, p.5130. "貞觀時, 學舍千二百區, 生徒三千餘, 外夷遣子弟入附者五國. 今室廬圮廢, 生徒衰少, 非學官不振, 病無貲以給也."

102) 『구당서』 권190상, 「崔信明傳」, p.4991. "隱於太行山. 貞觀六年, 應詔擧, 授興世丞."

103) [淸]徐松 撰, 『登科記考』 권15, 貞元17年條, 北京: 中華書局, 1984, p.542. "深入終南山, 隱學三年, 出就府薦, 遂擢第."

은 太安山에서 독서를 하다 유명해져 淮南節度使의 幕職官을 맡았다[105]. 물론 모든 사례의 學人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독서의 행위를 거쳐 관직에 나아가는 많은 사례가 확인된다.[106]

이들이 개인적인 독서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를 살펴보면, 陳子昂은 "예전에 나이가 18세이었을 때 글을 알지 못했는데 (중략) 후에 鄕校에 들어갔다가 후회를 느끼고 곧 (梓)州 동남쪽의 金華山觀에서 독서를 했다."[107]고 한다. 정식의 鄕校 교육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진자앙의 개인적인 독서가 시작된 계기였음을 알 수 있다. 柳璨은 "어려서 고아가 되고 가난하였지만 배우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林泉에 거하고 있었다. 낮에는 땔 나무를 모으고 밤에는 나무와 잎을 태워 책을 밝혔다."[108] 가난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개인적인 독서를 이어가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隋代 王通의 5세손인 王質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壽春에 客居했는데 힘써 농사를 경작하며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講學을 게을리하지 않았다."[109]고 한다. 이를 통해 왕질이 농사를 지으며 偏母를 봉양해야 하는 처지에서 개인적인 학습을 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한편, 鮮于向의 경우는, "나이가 20여 살이 되어서도 아직 글을 깨우치지 못했다. (아버지인) 太常이 이를 심하게 꾸짖었다. (중략) 公은 이내 慷慨하고 분발하여 세상의 일을 끊고 돌을 뚫어 방을 만들고 기거하면서 진력을 다해 공부를 했다."[110]고 한다. 세상과 단절하고 학습에 진력하려는 의도가 개별적인 학습의 계기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개인적인 성향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房琯의 경우처럼 弘文館의 학생 신분임에도 隱遁을 좋아하는 성격상 伊陽山으로 들어가 讀書를 했던 사례[111]가 이를 말해준다.

---

104) 『신당서』 권114, 「徐顔伯傳」, p.4201. "七歲, 能爲文, 結廬太行山. 薛元超安撫河北, 表其賢良, 對策高第."

105) 『구당서』 권140, 「盧群傳」, p.3833. "初學於太安山, 淮南節度使陳少遊聞其名, 辟爲從事."

106) 嚴耕望, 『唐史研究論稿』, 香港: 新亞研究所出版, 1968, pp.367-424 참조.

107) 傅璇琮 主編, 『唐才子傳校箋』 권1, 「陳子昂」, 北京: 中華書局, 1987, p.105. "初年十八時未知書 (中略) 後入鄕校, 感悔, 即於州東南金華山觀讀書."

108) 『구당서』 권179, 「柳璨傳」, p.4669. "少孤貧好學, 僻居林泉. 晝則採樵, 夜則燃木葉以照書."

109) 『신당서』 권164, 「王質傳」, p.5052. "質少孤, 客壽春, 力耕以養母. 講學不倦."

110) 『전당문』 권343, 「中散大夫京兆尹漢陽郡太守贈太子少保鮮于公神道碑」, p.3483. "年二十餘, 尚未知書. 太常切責之. (中略) 公乃慷慨發憤, 棄人事, 鑿石構室以居焉. 勵精爲學."

이와 같은 개별적인 학습의 방식은 특정 1인에 한정되지 않았다. 崔從은 "太原에 거주하였는데 둘째 형과 함께 山林에 은거하며 마음을 다해 공부하는데 힘썼다. (중략) 산을 나서지 않은 것이 10년이나 되는 것 같았다. 貞元 초에 진사로 급제했다."[112] 崔從의 사례는 형제가 함께 산에 들어가 수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형제와 같은 가족의 관계뿐만 아니라 뜻이 맞는 士人들이 함께 학습하기도 했다. 符載는 "蜀 지역 사람으로 빼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楊衡, 宋濟와 함께 靑城山에 기거하면서 習業했다."[113] 함께 수학한 결과는 사뭇 달랐지만 여럿의 사람이 함께 학습했던 것은 분명하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貞元 연간의 許敬은 張閒과 함께 偃月山에 가서 독서를 했고, 書堂을 두 칸 마련하여 각각 하나씩 사용하는 일도 있었다.[114] 혼자 혹은 여러 명이 함께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호 간의 교류 관계가 생기기도 했다.[115]

개인적인 학습은 그것 자체로 한정되지 않았고 학습의 내용을 전수하는 講學이 수반되어 더욱 확대된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미 언급한 바 있는 王質의 경우에서 일부 확인했듯이 그는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講學을 주요한 일로 삼았고 門人들 중 수업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그 집에 크게 모였다."[116]고 한다. 이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강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貞觀 초에 생활했던 馬嘉의 경우는 "白鹿山에 은거하고 있었는데, 여러 곳에서 찾아와 수업을 받는 자가 천 명에 달했다."[117]고 한다. 이처럼 당시 일부에서는 강학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강학을 이어가다 명성이 알려지면 천거를 받아 出仕하기도 했는데, 袁滋가 그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袁滋는 "荊과 郢 사이에 客居하면서 學廬를 세우고 講授를 했다. 建中 초에 黜陟使 趙贊이 조정에 추천하자 處士에서 起家하여 試

111) 『구당서』 권150, 「房琯傳」, p.3320. "琯少好學, 風儀沉整, 以門蔭補弘文生. 性好隱遁, 與東平呂向於陸渾伊陽山中讀書爲事, 凡十餘歲."
112) 『구당서』 권177, 「崔愼由傳」, pp.4577-4578. "寓居太原, 與仲兄能同隱山林, 苦心力學. (중략) 不出山巖, 如是者十年. 貞元初, 進士登第."
113) [五代]孫光憲 撰, 賈二强 點校, 『北夢瑣言』 권5, 「符載侯翮歸隱」, 北京: 中華書局, 2002, p.118. "本蜀人, 有奇才, 始與楊衡、宋濟棲靑城山以習業."
114) [宋]李昉 等編, 『太平廣記』 권365, 「許敬張閒」, 北京: 中華書局, 1961, p.2898(이하 모두 中華書局本). "唐貞元中, 許敬、張閒同讀書於偃月山, 書堂兩間, 人據其一."
115) 『태평광기』 권307, 「張仲殷」, p.2434. "張滂之子曰仲殷, 於南山內讀書, 遂結時流子弟三四人."
116) 『구당서』 권163, 「王質傳」, p.4267. "專以講學爲事, 門人受業者大集其門."
117) 『신당서』 권196, 「馬嘉運傳」, p.5645. "退隱白鹿山, 諸方來受業至千人."

校書郎에 제수되었다"[118]. 講授(講學)의 활동은 袁滋가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당 후기 정계의 중요 인물 중 하나인 李德裕 또한 관직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東都에서 講學 활동을 했음이 확인된다.[119] 개인적인 학습과 강학의 활동은 起家하기 전뿐만 아니라 관직의 재임 중에도 이루어졌다. 開元 초까지 활동했던 尹知章은 "비록 官吏의 職任에 거하고 있었지만, 집에 돌아가도 講授를 멈추지 않았고 특히 易과 老莊의 玄學에 밝아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와서 수업을 받았다."[120]고 한다. 秘書省에서 관직을 맡아 봉직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강학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관직을 맡기 전이나 재임 중에 강학을 하는 것 이외에,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 강학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고종시기, 王義方은 萊州의 司戶參軍을 맡았다가, "임기가 다하자 昌樂에 거주하면서 생도를 모아 가르쳤다. 어머니가 죽은 후 더 이상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왕의방은) 總章 2년에 죽었는데 나이가 55살이었다. 『筆海』10권과 文集10권을 찬술했다."[121] 그는 관직을 마친 후 昌樂에 정착해 강학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술도 남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竇常과 같은 경우는 진사에 급제했지만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거처를 마련해 강학과 저술의 일에 매진했다. 중앙의 관직뿐만 아니라 지방 절도사의 초빙에도 응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활동을 계속했다.[122] 이처럼 당대에 개인적인 독서와 강학의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고, 당시 지식인들에 의한 보편적인 행위의 하나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독서와 강학 활동과 관련해 흥미로운 기사가 전한다. 『신당서』는 貞元 연간에 재상을 지내고 한림학사로서의 학문적 소양도 인정받았던 鄭餘慶의 附傳에서 아들 鄭澣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

118) 『신당서』 권151, 「袁滋傳」, p.4824. "後客荊、郢間, 起學廬講授. 建中初, 黜陟使趙贊薦于朝, 起處士, 授試校書郎."

119) 『구당서』 권174, 「李德裕傳」, p.4528. "初未仕時, 講學其中. 及從官藩服, 出將入相, 三十年不復重遊, 而題寄歌詩, 皆銘之於石."

120) 『구당서』 권189하, 「尹知章傳」, p.4974. "雖居吏職, 歸家則講授不輟, 尤明易及莊、老玄言之學, 遠近咸來受業."

121) 『구당서』 권187상, 「王義方傳」, p.4876. "秩滿, 家于昌樂, 聚徒教授. 母卒, 遂不復仕進. 總章二年卒, 年五十五. 撰筆海十卷、文集十卷."

122) 『구당서』 권155, 「竇常傳」, p.4122. "兄常字中行, 大曆十四年登進士第, 居廣陵之柳楊. 結廬種樹, 不求苟進, 以講學著書爲事, 凡二十年不出. 貞元十四年, 鎮州節度使王武俊聞其賢, 遣人致聘, 辟爲掌書記, 不就."

> 예전에 (鄭)餘慶이 興元에서 學廬를 만든 적이 있는데 (鄭)澣이 이를 이어 완성하고 생도를 양성하자 교화가 크게 행해졌다. (황제가) 戶部尙書의 관직으로 불렀으나 拜受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죽게 되었는데 나이가 64세였고, 尙書右僕射를 贈官으로 내렸다.[123]

이것은 아버지가 독서와 강학을 했던 것을 아들인 鄭澣이 계승하여 2대에 걸쳐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3품의 호부상서에 서임되는 것도 사양하고 독서와 강학을 이어갔다는 사실은 독서와 강학의 활동을 장기간 유지했다는 것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의미가 중시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겠다. 앞선 竇常의 경우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방증하는 사례라고 하겠다. 아울러 독서와 강학이 혈연의 관계 속에서만 계승된 것이 아니라 다른 개인들 간에도 이어졌다. 『廬山記』는 당대에 출현했던 書堂의 연혁을 소개하면서 薛氏인 諫議大夫의 서당이 원래 侍御史 劉弇의 舊居였는데 會昌 연간에 薛氏가 南海書記를 지내다 임기를 끝마치고 와서는 직접 서당을 관리했다고 기록했다.[124] 이를 통해 개인의 독서와 강학의 장소가 다른 이에 의해 계승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개인의 독서와 강학 활동이 당대에 하나의 풍조를 이루어 사인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행해졌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그로 인한 교육적 영향력도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후대의 서원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하겠다.

V. 맺음말

서원에 대한 연구는 그 제도적 완성과 학술적, 사회적 역할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었다. 대체적으로 중국의 서원 제도는 송대에 성립되어 원대에 전반적인 보급이 이루어지며, 명대에 번영을 구가하다 청 말기에 쇠락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儒敎, 道敎, 佛敎가 서원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으며 서원

123) 『신당서』 권165, 「鄭餘慶傳」, pp.5061-5062. “始, 餘慶在興元創學廬, 澣嗣完之, 養生徒, 風化大行. 以戶部尙書召, 未拜, 卒, 年六十四, 贈尙書右僕射.”

124) [宋]陳舜兪, 『廬山記』 권2, 「叙山南篇」, 北京: 中華書局, 叢書集成初編本. “又有薛諫議書堂, 即劉弇侍御舊居. 會昌中, 薛自南海書記滿秩, 親經營之.”

을 매개로 한 학문적 분파가 성립되어 학술의 전파와 계승을 推動하기도 했다.

후대 서원의 발전 양상이 다양하면서도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과는 달리 서원의 시작을 알리는 초기 상황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이며 의견이 상충되었다. 이는 사료의 부족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서원이 개인의 독서 및 강학이라는 생활 방식의 한 형태로 출현하여 후대 서원의 始原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官'과 '民'이라는 이중적 원류 속에서 그 胎動을 드러냈다는 점은 서원의 초기 상황에 대한 이해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麗正書院 이후 관방 史料에서 확인되는 '서원'은 그 자체가 일정한 規制를 갖춘 특정 기관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었다. 현종 시기 관련 기관의 확장과 정비의 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修書院의 簡稱으로 등장한 서원은 정식의 제도 명칭이 아닌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도서와 관련된 장소를 지칭하는 용어로 통용되었다. 이는 후대에 언급되는 서원과는 有別되는 명칭이었다.

이와 함께 당대에 '서원'은 민간의 그것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始見되는 사례는 그에 해당하는 장소가 실존했다는 개관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런데 기존의 이해와는 달리 여정서원의 출현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간주되는 光石山書院 등의 민간 서원들은 그 사료적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서원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당대 詩文에서 확인되는 서원들은 그 존재를 긍정할 만한데 이들의 명칭은 후대의 그것과는 달리 특정 개인의 이름과 결부해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당대 서원이 특정 개인의 독서 또는 강학의 장소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서원의 초기 형태는 개인의 학술 및 교육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으며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당 후반기 교육제도의 부실화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학습 및 교육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여러 계기를 통해 시작된 개별적인 학습 방식은 특정 1인에 한정되지 않고 복수의 사람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시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개별적 학습은 講學의 형태로 확대되었으며 아울러 다수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독서와 교육을 하는 사례가 늘어갔다. 이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추천 또는 과거에 응시해 관직에 나아가는 경우도 頻發했다. 그러나 독서와 강학은 관직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만 공유된 것이 아니어서 관직을 맡고 있는 기간이나 致仕를 한 이후에도 이루어졌다. 개인을 중심으로 한 독서와 강학은 점차 사회적인 확대 과정을 거치며 그 의미를 인정받아 중시

되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인 개별적인 독서와 강학은 당대 지식인들에 의해 보편적 행위의 하나로 이어졌으며, 나아가 사회적 풍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은 당대 서원이 발전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결국 당대 서원은 명칭과 실재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형성되어 갔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독서와 강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배경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사료
[後晉]劉昫 等撰,『舊唐書』, 北京: 中華書局, 1975.
[唐]李吉甫 等撰, 陳仲夫 點校,『唐六典』, 北京: 中華書局, 1992.
[唐]杜佑 撰,『通典』, 北京: 中華書局, 1988.
[唐]呂溫,『呂衡州文集』, 叢書集成初編本.
[唐]李群玉 著, 羊春秋 輯注,『李群玉詩集』, 長沙: 岳麓書社, 1987.
[唐]劉禹錫,『劉禹錫集』,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5.
[唐]許渾,『丁卯集箋證』, 北京: 中華書局, 2012.
[唐]姚合,『姚合詩集校考』, 長沙: 岳麓書社, 1997.
[唐]齊己,『白蓮集』, 四庫全書本.
[五代]王溥 撰,『唐會要』,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五代]孫光憲 撰, 賈二强 點校,『北夢瑣言』, 北京: 中華書局, 2002.
[宋]歐陽修 等撰,『新唐書』, 北京: 中華書局, 1975.
[宋]孫逢吉,『職官分紀』, 北京: 中華書局, 1988.
[宋]宋敏求 編,『唐大詔令集』, 北京: 中華書局, 2008.
[宋]李昉 等編,『文苑英華』, 北京: 中華書局, 1966.
[宋]王安石 編, 任雅芳 整理,『唐百家詩選』,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6.
[宋]李昉 等編,『太平廣記』, 北京: 中華書局, 1961.
[宋]洪邁,『萬首唐人絶句詩』, 叢書集成初編本.
[宋]陳舜俞,『廬山記』, 叢書集成初編本.
[宋]朱熹,『晦庵集』, 四庫全書本.
[金]元好問,『唐詩鼓吹箋注』, 四庫全書本.
[淸]袁枚,『隨園隨筆』, 王英志 編,『袁枚全集新編』,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15.
[淸]董誥 等編,『全唐文』, 北京: 中華書局, 1983.
[淸]彭定求 等編,『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80.
[淸]徐松 撰,『登科記考』, 北京: 中華書局, 1984.
[明]曹學佺,『石倉歷代詩選』, 四庫全書本.
[明]弘治『保定郡志』(이하 모두『中國方志庫』初集, 二集)
[明]嘉靖『靑州府志』
[明]嘉靖『臨朐縣志』
[明]嘉靖『湖廣圖經志書』
[明]嘉靖『江西通志』

[明]嘉靖『九江府志』
[明]萬曆『保定府志』
[清]雍正『陝西通志』
[清]乾隆『衡州府志』
[清]嘉慶『清一統志』
[清]嘉慶『湖南通志』
[清]光緒『藍田縣志』
[清]光緒『湖南通志』
[清]康熙『漳州府志』
[清]道光『衡山縣志』
周紹良 主編,『唐代墓誌彙編(上, 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周紹良 主編,『唐代墓誌彙編續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논저
唐群,『唐代教育研究』, 西安: 西安出版社, 2009.
鄧洪波,『中國書院史』, 上海: 東方出版中心, 2004.
鄧洪波, 趙子龍,『中國書院的歷史與傳承』, 北京: 人民出版社, 2018.
毛禮銳, 沈灌群 主編,『中國教育通史』(第3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7.
傅璇琮 主編,『唐才子傳校箋』, 北京: 中華書局, 1987.
盛朗西,『中國書院制度』, 北京: 中華書局, 1934.
劉夢溪,『馬一浮與國學』, 北京: 三聯書店, 2018.
劉偉鏗, 吴詠平,『肇慶歷史風貌』, 廣州: 廣州文化出版社, 1989.
李國鈞 主編,『中國書院史』,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1994.
李兵,『書院與科舉關係研究』, 武漢: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5.
楊鴻年,『隋唐宮廷建築考』,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92.
嚴耕望,『唐史研究論稿』, 香港: 新亞研究所出版, 1968.
張正藩,『中國書院制度考略』, 江蘇: 江蘇教育出版社, 1985.
錢穆,『新亞遺鐸』, 北京: 三聯書店, 2003.
陳元暉, 尹德新, 王炳照,『中國古代的書院制度』,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81.
肖永明,『儒學·書院·社會-社會文化史視野中的書院』, 北京: 商務印書館, 2012.
胡適,『胡適論歷史』,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13.

논문
郭建衡,「李寬與石鼓書院之創設」,『中國書院論壇』(第10輯), 2017.
戴書宏, 肖永明,「唐代集賢書院與'書院'的名和實-書院起源的一個假說」,

『大學教育科學』, 2016-1.
鄧洪波,「唐代地方書院考」,『教育評論』, 1990-2.
鄧洪波,「83년 이래 중국의 서원연구」,『한국학논총』29호, 2007.
鄧洪波,「書院研究綜述」, 同氏 編著,『書院學檔案』,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17.
羅寧,「<鄴侯家傳>與<鄴侯外傳>考」,『四川大學學報』, 2010-4.
徐曉望,「唐五代書院考略」,『教育評論』, 2007-3.
楊榮春,「中國古代書院的學風」,『華南師範大學學報』, 1979-1.
王帥, 鄧洪波,「2017年書院研究綜述」,『南昌師範學院學報』, 2018-5.
劉海峰,「唐代集賢書院有教學活動」,『上海高教研究』, 1991-2.
李才棟,「唐代書院的創建與功能」,『江西教育學院學報』, 2000-2.
李秋芳,「嘉靖『湖廣圖經志書』及其史料價值」,『史學史研究』, 2010-4.
曹松葉,「宋元明清書院概況」,『中山大學語言歷史研究所周刊』, 1929年12月, 1930年1月.
趙連穩, 劉藤,「2018年中國古代書院研究綜述」,『華北電力大學學報』, 2019-5.
趙偉, 鄧洪波,「2016年書院研究綜述」,『南昌師範學院學報』, 2018-1.
朱漢民,「書院精神與書院制度的統一-古代書院對中國現代大學建設的啓示」,『大學教育科學』, 2011-4.
肖啸, 鄧洪波,「2015年書院研究綜述」,『南昌師範學院學報』, 2018-1.
肖永明, 劉艷偉,「70년 동안의 중국 서원 연구」,『한국서원학보』제9호, 2019.
拓夫 林爾吉,「八十年中國書院研究綜述」, 朱漢民, 李弘祺 主編,『中國書院』第六輯, 長沙: 湖南大學出版社, 2004.

이 논문은 2020년 5월 29일 투고 완료되어
2020년 6월 1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6월 23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The Reviewal of Formation of Seowon(書院, Shuyuan) in Tang dynasty

Ryu, Jun-hyoung*

The Seowon(Shuyuan) found in the official history after the Ryeojung(Lizheng) Seowon was not the official term for the particular institution with certain regulations. The Seowon that had emerged as the simple form of Susuwon(Xiushuyuan) was used not as a formal name but as a general meaning, and was more widely used to refer to places related to books. This name was a distinguished one from the Seowon mentioned in later generations.

In addition, the Seowon was also used to refer to that of the civilians during the Tang Dynasty, which hold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insight into the fact that the corresponding site existed. Unlike the preexisting understandings, however, the civil Seowon such as Gwangsuksan(Guangshishan) that are considered to have existed even before the advent of the Ryeojung Seowon have credibility issues in historical materials, making it difficult to recognize their actual existence as a Seowon. On the other hand, the Seowon identified in the literature works of the Tang Dynasty deserve the affirmation of their existence, but their names, different to those of later generations, were used in connection with the names of certain individuals. This shows that the Tang Dynasty Seowon originated from a specific individual's place of study or lecturing.

* Associate Professor at Department of History, Yeungnam University / korchin@ynu.ac.kr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early form of Seowons was formed directly linked with the academic and educational activities of individuals, and it was operated as a place for personal learning and educational activity in the latter half of the Tang Dynasty in the face of the increasing insolvency of the educational system. Individual learning methods initiated in result of multiple causes were not limited to a particular person but were also collectively implemented by multiple people. This individual learning had expanded into a form of teaching, and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a large number of people study and educate in groups had increased. In this process, there were frequent cases where certain individuals took the Bureaucratic appointment examination or were recommended for government posts. However, studying and teaching was not only shared as a means of obtaining such positions, and so this also took place during the period of employment or after retirement as well. The individual-centered studying and teaching gradually went through the process of social expansion and was recognized and valued. Having shown its various aspects, individual study and teaching led to one of the universal acts by intellectuals in the Tang Dynasty, and further established a social trend. This situation provided an important background for the development of the Tang Dynasty Seowons.

In the end, the Tang Seowon was formed under the circumstance of a certain discrepancy between its name and the actual being, and ultimately was embodied in the background of the phenomenon in which the studying and education of the individual continued to expand.

Keywords: Tang Dynasty, Seowon, Educational System, Social trend, Formation of System

http://dx.doi.org/10.30594/kss.2020.6.10.2 33

고·중세 한국 私學의 전통이 서원 출현에 이르기까지*

이광우**

Ⅰ. 머리말
Ⅱ. 고대 중앙집권적 국가의 성립과 私學의 자취
Ⅲ. 중세 私學의 발전과 전개
Ⅳ. 맺음말

<국문요약>

전통시대 존재했던 사학기관 중 가장 완숙한 체계를 갖춘 것은 16세기 중반에 출현한 書院이다. 조선시대 동안 서원은 官學의 공적 영역을 보완하였으며, 통치이념을 지역 사회에 闡揚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지금까지 서원 출현은 재지사족 층의 성장과 성리학 발전의 결과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시각을 넓혀 유구한 사학의 전통이 서원 출현을 이끌어 내었다는 전제 하에 상고시대부터 서원 출현 직전까지 우리나라 고·중세 사학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사학의 개념은 상고시대 계급의 출현으로 공동체 교육이 분열되면서 등장하였다. 이후 중앙집권적 고대국가 성립 과정에서 각 왕조는 토속적이었고 개별적이었던 교육 체계를 정비하여, 관학 설립과 함께 인재 선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성립된 扃堂과 花郎制度 같은 교육기관 및 교육체계를 통해 고대 사학의 흔적을 확인 할 수 있다. 중세 이후에는 유학이 통치이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관학 체계도 과거제도와 연계되었다. 이에 과거 시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중앙과 지방의 관료예비군 층에 의한 사학기관이 활성화되었다. 고려시대 동안 중앙에는 文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2813)

** 영남대학교 강사 / ikw38@ynu.ac.kr

憲公徒를 위시한 私學 12徒가 운영되었으며, 지방에서는 무신정변 이후 난을 피해 은둔한 文人들이 사학기관을 설립하였다. 조선초기 정부는 지방 관학을 정비하기 위해 지방 사학을 통제하려 했다. 그러나 여러 부작용이 지적되었기에 사학의 역할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15세기 후반 등장한 士林 세력은 성리학적 제 이념의 체득과 실현처로 사학기관을 주목하였다. 나아가 16세기에 이르러서는 공신 계열 관료에 의해 사학의 모범으로 서원이 거론되었다. 사학의 위상 변화 속에 정부 내외에서 부진한 관학을 보완하는 새로운 사학기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 16세기 중반 교육·교화 기능을 겸비한 서원이 출현하였던 것이다.

키워드 : 사학, 관학, 서원, 과거제도, 성리학

Ⅰ. 머리말

한국사에서 교육의 전통과 문화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교육기관을 크게 官學과 私學으로 구분하되, 그것의 설립과 변천에 대한 제 양상과 상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교육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한국사 및 교육사 분야에서 진행된 교육기관과 교육체계에 관한 연구는 관학과 사학이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관계임을 입증하였다. 현대에도 그렇듯이 교육을 등용의 기회로 삼은 자들은 관학이 제공하는 공적 영역에서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우에 따라 사학은 시대적 변화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관학을 대신해, 변혁 세력의 구심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각 시대별 관학과 사학의 역할, 그리고 관학과 사학의 상보적 관계는 중앙집권적 국가의 성립 과정을 통해 한국사의 발전 양상을 설명하려는 입장에서 폭넓게 다루어졌었다. 관학의 운영 목적은 시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가급적 다양한 사회 세력을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시켜, 통치이념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는 곧 중앙집권적 관료국가 성립과 발전에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한편, 사학은 관학이 제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통치이념을 부식하고, 왕조의 교화체계에 자발적으로 부응하는 세력을 양성함으로써, 중앙집권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관학과 상보적 관계를 맺으며, 중앙

집권적 관료국가 성립에 기여를 한 전통시대 사학의 전통, 그 중에서도 16세기 書院 출현 이전의 사학 전통이다. 전통시대 사학기관 중 가장 완숙한 형태의 체계를 갖춘 것은 단연 서원일 것이다. 서원은 조선시대 관학기관에 만족하지 않았던 士流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들은 서원 교육을 통해 관학의 공적 영역을 보완하고, 통치이념을 지역 사회에 闡揚해 나갔다. 조선 정부도 이들 서원의 공신력을 충분히 인정하였다. 그래서 서원은 다른 사학기관과 달리 정부에 의해 공적 영역에서 관리되었는데, 이는 곧 정부가 사류를 지방 교화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거기에 걸맞은 사회적 권위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 교육 및 교화체계에서 관학의 공적 영역을 보완하며, 조선 사회가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양반관료국가로 성립되는데 서원이 일정부분 역사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서원은 한국사에 있어 사학의 전통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까? 물론 조선시대 사류들은 다른 향촌 교화체계와 마찬가지로 서원 설립의 전통과 명분을 으레 宋儒의 행적에서 찾았다. 三代 이후 풍속의 해이로 관학이 제 역할을 못했는데, 송유가 서원을 설립함으로써 올바른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언급이 서원 설립과 관련된 각종 記文과 문자에서 쉽게 확인된다.[2] 하지만 시각을 넓힌다면 서원의 출현은 한국사 전개 과정에서 확인되는 유구한 사학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3]

---

1) 신동훈, 「16세기 서원(書院) 사액(賜額)과 국가의 서원 정책」, 『역사와 현실』 98, 역사비평, 2015, pp.276-277.

2) 『竹溪誌』 권1, 行錄後, 〈白雲洞紹脩書院記〉, "漢·唐·魏·晉 이후 학교를 숭상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모두 한갓 그 이름만 있고 직접 인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스림의 효과는 거의 세상에 알려진 바가 없었다. … [宋]太宗이 천하의 군주로서 작은 隱士의 서원에 편액과 서책을 하사하여 학문을 진작시킴으로써, 송나라가 다할 때까지 眞儒가 배출되고 도학이 크게 천명되어 그동안 단절되었던 孔孟의 도통을 계승하였다. 이를 본다면 宋朝에서 이룬 성과는 서원에서 나왔지 국학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退溪集』 권42, 記, 〈伊山書院記〉, "옛날 夏·殷·周 三代의 학교가 모두 인륜을 밝히는 곳이었다. 후세에 이르러 … 안으로는 국학과 밖으로는 향교가 모두 전혀 가르칠 줄을 모르는 곳이 되고 학문을 일삼을 줄 모르는 막막한 상황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것이 뜻있는 선비로 하여금 발분하여 깊이 개탄하면서 … 서원을 세우는 일은 … 송나라에서 시작되어 원나라·명나라 시대에 성대하였고, … 이 어찌 斯道의 큰 다행이 아니겠는가?"

3) 근대학문에서 우리나라 私學의 전통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이다. 이 시기 일본인 학자들은 우리나라 교육 通史를 다루면서 사학기관의 존재 양상과 운영상을 언급하였지만,(高橋亨, 『朝鮮の教育制度略史』, 朝鮮總督府, 1920; 高橋浜吉, 「朝鮮教育沿革略史」, 『朝鮮』 85, 朝鮮總督府, 1922; 小田省吾, 『朝鮮教育制度史』

서원 출현이 시대적으로 士林派 발전에 구심처가 되었다는 평가처럼,[4] 고대 이후 부단히 설립된 사학들도 분명히 한 시대의 성립과 변화에 기여 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중세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여러 사학기관과 그 체계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필자가 과문한 관계로 선행되어야 하는 고·중세 사학의 범주를 명확히 개념화하지는 못하였다. 그렇기에 여기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고·중세 사학기관, 그리고 사학의 기능을 갖춘 의식과 제도 중에서 국가의 통치이념을 교육하며, 관학과 상보적 관계에 있었던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고대 중앙집권적 국가의 성립과 私學의 자취

1. 상고시대 사학 개념의 성립

고대 한국사에서 교육기관 및 교육체계로는 고구려의 太學과 扃堂, 신라의 花郎制度와 國學 정도만 실체가 전할 뿐, 삼국 성립 이전은 자료의 부족으로 그 존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상고시대 이후 초기국가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통해 사학의 존재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관학은 국가 성립을 전제로 한다. 초기국가 성립 후 통치 세력들은 자연스레

(『朝鮮史講座』 Ⅱ-分類史-), 朝鮮史學會, 1923) 이들의 연구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식민주의적 역사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들은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역대 교육기관이 중국 교육제도를 모방한 것에 불과함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식민통치를 합리화시켰다. 그런 가운데 李萬珪는 '『朝鮮敎育史』 상, 을유문화사, 1947'을 통해 보편사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교육사도 내적 발전 과정을 드러낸다고 하였다.(이정빈, 「한국 고대 교육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학계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9-1, 한국교육사학회, 2017, p.102; 오경택, 「조선시대 서당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전북사학』 31, 전북사학회, 2007, p.85) 한편, 柳洪烈은 '「朝鮮祠廟發生에 對한 一考察」, 『진단학보』 5, 진단학회, 1936'과 '「麗末鮮初의 私學」, 『靑丘學叢』 24, 靑丘學會, 1936' 등의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사학을 주목하며, 한국교육사에 대한 식민주의적 인식을 극복하려 했다.(강명숙,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의 「조선 교육제도 약사」에 대한 일 고찰 -일제강점기 조선 거주 일본인의 한국교육사 연구와 그 한계-」, 『한국교육사학』 38-4, 한국교육사학회, 2016)

4) 이병휴, 「朝鮮前期 中央權力과 鄕村勢力의 對應」, 『국사관논총』 12, 국사편찬위원회, 1990, p.125.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국가 유지에 필요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교육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원시공동체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종족 번영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업과 관련된 필수 지식과 기술을 미성년 집단에게 가르쳐야만 했다. 기본적으로 성년 집단은 미성년 집단에게 농경·사냥·어로·전투 방법을 교육하였다. 또한 고유의 원시신앙 체계를 교육시켜 동질감을 형성해 나갔다. 미성년 집단의 교육은 일종의 통과의례로 치러지는 成年式을 통해 마무리되었고, 그 과정을 거친 미성년은 공식적으로 원시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5)]

그러나 청동기시대 이후 사유재산 발달로 원시공동체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분열되었으며, 정복전쟁의 수행으로 피정복 집단은 정복 집단의 통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원시공동체가 공유하던 교육도 분화되어 갔다. 정복 집단의 지배계급은 지도력 함양과 통치 행위에 필요한 교육을 권력 유지를 위해 독점하였으며, 자신들만의 집회와 통과의례로 특권 계층이라는 동질감을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고, 통치 세력 내 후속 세대를 양성해 나갔다.

청동기시대를 거쳐 초기국가가 성립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특권층의 미성년·청년 대상의 집단 교육은 권력 유지와 효율적 통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더욱 체계화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를 형성한 삼국은 초기국가 시절부터 경험한 특권층의 집단 교육을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켰고, 고구려의 태학·경당, 신라의 花郎徒, 통일신라의 국학과 같은 정비된 교육체계가 탄생하였다.[6)] 이처럼 계급 분화 이후 새롭게 성립된 교육체계는 사학의 성립을 가능케 했다. 즉, 상고시대 이후 국가의 통치 세력에 의해 관리된 교육체계가 관학, 그 체계에 편입되지 못한 나머지 교육체계와 관학을 보조하기 위해 사적으로 형성된 교육체계를 사학으로 각각 분류지울 수 있게 된 것이다.

2. 고구려의 지방 교육기관 경당

---

5) 한기언, 『韓國敎育史』, 박영사, 1963, pp.7-11. 이와 관련해 한기언은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조의 "용감하고 건장한 젊은이는 모두 등의 가죽을 뚫고, 큰 밧줄로 그곳에 한 발쯤 되는 나무막대를 매달고 온 종일 소리를 지르며 일을 하는데, 아프게 여기지 않으며, 그렇게 작업하기를 권하고, 또 이를 강건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상고시대 韓의 풍속을 성년식의 통과의례 보았다.

6) 노용필, 「古代의 敎育과 人材養成」, 『한국사 시민강좌』 18, 일조각, 1996, p.4.

원시공동체의 교육체계는 고대 국가가 성립됨에 따라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 고대 각 왕조는 관료 양성을 목적으로 관학을 설립하였으며, 한편으로 중앙과 지방의 세력가들은 관학 보조를 위해 사학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고대에는 과거 공동체 교육의 흔적이 남아 있는 사학의 존재를 유추 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이 바로 고구려의 경당이다.

고구려의 경당은 문헌에서 실체가 확인되는 고대 교육기관 중 유일하게 지방에 설립된 것이다. 초기 연구에서는 경당의 운영 형태를 사학으로 규정하였으나,[7] 이후 공립교육기관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등장하였다.[8] 비록 운영 형태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지방 세력에 의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청년 조직이 경당의 기원이라는 입장은 동일하다.

중앙집권화 된 권력은 지방 세력을 일방적으로 통제한 것이 아니라, 통치의 조력자로도 활용하였다. 교육을 통해 국방과 행정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함양시키고, 탁월한 자를 관료로 등용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고구려에서는 경당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경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舊唐書』와 『新唐書』에만 짤막하게 언급되어 있다.

> 습속은 書籍을 매우 좋아하여, 衡門과 廝養의 집에 이르기까지, 각 거리마다 큰 집을 지어 扃堂이라 부른다. 子弟들이 결혼할 때까지 밤낮으로 이곳에서 독서와 활쏘기를 익히게 한다. 책은 五經과 『史記』, 『漢書』, 范曄의 『後漢書』, 『三國志』, 孫盛의 『晋春秋』, 『玉篇』, 『字統』, 『字林』이 있다. 또 『文選』을 매우 중하게 여긴다.[9]

> 사람들이 배우기를 좋아하여 窮里와 廝家에 이르기까지 서로 힘써 배우므로, 길거리마다 큼지막한 집을 지어 局堂이라 부른다. 결혼하지 않은 자제들을 이곳에 보내어 글을 외고 활쏘기를 익히게 한다.[10]

위의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경당이 미혼 자제를 교육시키는 장소라는 것이다. 그런데 경당의 미혼 자제는 상고시대 공동체 교육의 대상이었던 미성년·청년 집

---

7) 이병도, 『韓國史』 -古代篇-, 을유문화사, 1959, p.569; 이동환, 「韓國文敎風俗史」, 『韓國文化史大系』 8 風俗·藝術史(下),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1970, p.773.
8) 노용필, 앞의 논문(1996), p.5.
9) 『舊唐書』 권199, 列傳 149 上, 高麗.
10) 『新唐書』 권220, 列傳 145, 東夷, 高麗.

단과 연결 지울 수 있다. 이에 이기백은 경당에 대한 선구적 연구에서 신라의 화랑도에 견줄 수 있는 원시 남자집회로 분석하였다.[11]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행해지던 일련의 집단 교육이 경당으로 발전했다고 본 것이다. 덧붙여 이기백은 『三國志』에 소개된 고구려 풍습 중 "於所居之左右立大屋 祭鬼神"이라는[12] 대목을 주목하였다. 여기서 그는 大屋을 경당으로 보았으며, 종교적 제의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보았다.[13] 이러한 경당의 기능은 교육과 제의를 동시에 수행했던 중세 교육기관을 연상시킨다.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등장한 경당은 인재양성 뿐만 아니라, 토착적 제의를 통해 지방 세력을 교화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경당의 입학 대상인 미혼 자제의 신분이다. 일찍이 白南雲은 『구당서』의 '衡門·廝養', 『신당서』의 '窮里·廝家'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촌락의 천민 계층도 경당에서 文武를 익혔기에 고구려의 문화 수준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판단하였다.[14] 그러나 위의 표현들은 非官人의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낮추어 부를 때도 사용하였기에 미혼 자제의 신분은 상층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고구려 지방 세력가의 미혼 자제들이 경당에 입학하였던 것이다.[15]

경당에서는 군사 훈련을 비롯해 경전과 역사서, 그리고 문서 행정에 필수인 『文選』을 교육하였다. 경당의 미혼 자제들은 경전과 역사서를 통해 전제왕조의 이데올로기를 체득하고, 행정 실무를 위한 기본 소양을 익혀 나갔다.[16] 경당의 교육 목적이 통치를 보조할 관료예비군 층 양성에 있었던 것이다.

상고시대 미성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 교육은 4~5세기 이후 중앙집권

---

11) 이기백, 「高句麗의 扃堂 -韓國 古代國家에 있어서의 未成年集會의 一遺制-」, 『역사학보』 35·36, 역사학회, 1967, p.49. 일찍이 일본인 관학자 三品彰英은 1943년 발표한 『新羅花郎の研究』를 통해 원시 남방 문화권의 특징인 남자집회가 신라에서 화랑도로 나타나지만, 고구려는 북방 문화권에 속해 남자집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三品彰英은 식민주의적 견해에서 우리 역사를 북방과 남방 문화권으로 분리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이기백은 고구려의 경당을 화랑도와 견줄 수 있는 원시 남자집회의 흔적으로 보고, 三品彰英의 견해를 반박함과 동시에 고대 우리 문화의 동질성을 입증하였다.

12) 『三國志』 魏書 30, 東夷傳, 高句麗.

13) 이기백, 앞의 논문(1967), pp.48-49. 한편, 한기언은 비교사적 입장에서 경당을 서양 중세의 수도원학교에 견주었다.(한기언, 앞의 책(1963), p.13)

14) 백남운 저, 윤한택 역, 『조선사회경제사』, 이성과현실, 1989, p.204.

15) 이정빈, 「고구려 扃堂의 설립과 의의」, 『한국고대사연구』 67, 한국고대사학회, 2012, pp347-352.

16) 이정빈, 앞의 논문(2012), pp.357-358.

화된 정부에 의해 공적 영역으로 재편되었다. 고구려는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새로운 교육체계를 수입하였고, 이것을 재래의 공동체 교육과 결합시켰다. 이에 유학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정착되기 이전, 그 과도기적 단계로서 핵심 권력층의 미성년 집단, 즉 귀족 자제가 입학하는 태학이 372년(소수림왕 2) 중앙에 설립되었다.[17] 그리고 지방의 공동체 교육은 경당으로 변모하였다. 경당이 사학의 형태로 운영되었는지, 아니면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적 영역에서 전개된 지방의 공동체 교육이 중앙집권화에 부응하여 공적 영역에 의해 관리되면서 경당이 탄생하였다는 점이다.

3. 신라 화랑제도의 사학적 요소

신라의 화랑제도는 원시공동체 사회의 집단 교육이 고대 국가의 교육 및 인재 선발 체계로 발전하면서 성립된 것인데, 여기에서도 사학적 요소를 찾아 볼 수 있다. 화랑제도는 신라 특유의 비형식적 교육제도로 주로 왕족과 귀족 자제를 대상으로 한다. 화랑의 무리를 화랑도라 하며, 각 화랑은 휘하에 많은 낭도를 거느렸다. 화랑과 낭도는 공동생활을 통해 결속력을 다져 나갔고, 학습 능력이 입증된 화랑은 왕조의 귀족 관료로 발탁되었다.[18] 앞서 고구려의 경당을 화랑도에 견준 이기백의 견해처럼,[19] 화랑제도 역시 상고시대 공동체 교육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화랑제도가 설립된 것은 576년(진흥왕 37)이며, 그 이전에 화랑의 전신인 源花가 있었다.[20] 원화는 화랑과 달리 여성 가운데 선발되었기에 화랑제도보다 토속적 교화체계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원화와 화랑 모두 상고시대 청년 집단의 공동체 교육과 무관하지

17) 이만규, 『다시 읽는 조선교육사』, 살림터, 2010, p.94.
18) 『삼국사기』 권47, 列傳 7, 金歆運, "신라 사람들은 인재를 알아볼 수 없을까를 걱정하여 무리로 하여금 모여 함께 놀게 하고, 그 행동을 본 후에 발탁했다. … 혹은 도의로써 서로 갈고 닦았으며, 혹은 노래로써 서로 즐거워하며 산수를 유람하고 즐기어 멀리라도 가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사람의 그릇됨과 바름을 알아, 선택하여 조정에 천거하였다"
19) 이기백, 앞의 논문(1967), p.49.
20)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4, 眞興王 37년.

않다는 것이다. 신라도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많은 정치 세력을 복속시켰다. 신라의 구성 세력이 다양해짐에 따라, 핵심 권력층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적 교육제도를 마련하였고, 그것은 원화제도를 거쳐 화랑제도로 정립되었다.

상고시대 공동체 교육에서 출발한 화랑제도는 崔致遠[857~?]의 〈鸞郎碑序〉에 "나라에 玄妙한 道가 있는데, 風流라고 한다. 가르침의 근원에 대해서는 仙史에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실로 이는 三敎를 포함하고 뭇 백성들과 接하여 교화한다"라고[21] 언급된 것처럼,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도입된 외래 문물과 결합되었다. 토속적인 교화체계를 넘어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의 통치이념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이다.

화랑 집단의 인재선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난랑비서〉의 내용을 감안했을 때, 무예와 더불어 三敎, 즉 유학·불교·도교의 소양이 중요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화랑들은 내부 경쟁을 위하여, 공동생활과는 별개로 삼교의 소양을 익혀 나갔을 것이다. 만약, 화랑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학문을 익혔다면, 이는 사학적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승려의 존재이다. 승려는 화랑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다. 眞智王 대에 첫 國仙으로 알려진 未尸郎은 승려 眞慈에 의해 발탁되었으며,[22] 신라 景文王은 화랑 시절 興輪寺 승려 範敎에게 조언을 받고 공주와 혼인하였다.[23] 나아가 승려들은 화랑에게 직접적으로 학문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高麗史』 열전의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 閔頔[1270~1336]은 … 國俗에 어릴 때 반드시 승려를 따라가서 글을 익히게 되어 있었는데, 얼굴과 머리털이 아름다운 남자는 승려든 속세 사람이든 모두 받들어서 仙郎이라고 불렀다. 따르는 무리의 숫자가 어떤 경우에는 100~1,000명에 이르기도 하였는데 그 풍속은 신라 때부터 비롯된 것이다.[24]

위의 기사에서처럼 신라의 젊은 인재들은 당대 엘리트 지식인인 승려를 찾아가 사사로이 학문을 배웠다. 이때 승려들이 주로 가르친 것은 관료 활동에 필수

21)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4, 진흥왕 37년.
22) 『三國遺事』 권3, 塔像 4,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
23)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11, 憲安王 4년; 『삼국유사』 권2, 紀異 2, 〈景文大王〉.
24) 『高麗史』 권108, 列傳 21, 閔頔.

적인 유학이었다. 유학에 대한 승려들의 높은 이해도는 圓光[555~638]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원광은 중국 留學 시절 불교뿐만 아니라 유학을 함께 배웠으며, 귀국해서는 경계할 금언을 청하고자 찾아온 貴山과 箒項 두 사람에게 유가적 사상이 가미된 '世俗五戒'를 지어 주었다. 나아가 隋나라 황제에게 군대를 청하는 〈乞師表〉를 올렸는데,[25] 이는 승려가 당시 유가 지식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위상을 감안할 때 승려들은 자신과 결탁된 화랑을 조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지적 교육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크다.[26] 미래 권력의 상층부를 형성할 화랑 입장에서도 經史를 익혀 실무에 필요한 예비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화랑과의 경쟁을 대비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아직 유가 지식인이 드물었던 중고기 신라의 화랑들은 개별적으로 연결된 승려들을 통해 유학을 배워 나갔는데, 이를 화랑제도의 사학적 요소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4. 고대 유학을 교육한 여러 사학기관의 존재 가능성

고대 삼국은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각기 유학을 수용하며, 체제 정립에 적극 활용하였다. 유학의 이념은 전제왕조의 권위를 보장해 주었고, 각종 문물과 제도 정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동아시아 제 왕조가 한자문화를 공유하게 되면서, 經史와 詩書는 외교와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에게 필수 교양이 되었다. 이에 각 왕조는 유학적 소양을 갖춘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관학체계를 마련하였다.

관학체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을 통한 인재선발이었다. 따라서 관학체계에 만족하지 못한 관료예비군 층은 사학을 통해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여 갔다. 유학이 관료 선발에 있어 중요한 소양으로 부각됨에 따라, 자연스레 사학기관도 관학의 운영 시스템에 맞추어 중앙과 지방에 설립되어 갔을 것이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으로 고대에 유학 교육을 담당한 사학의 실체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단편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유학을 교육한 여러 사학기관의 존재 가능성을 가늠해 보도록 하겠다.

백제의 경우 교육기관의 존재가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고구려와 비

25) 『삼국유사』 권4, 義解 5, 〈圓光西學〉.
26) 이동환, 앞의 책(1970), p.778.

슷한 시기 중앙집권화의 길을 걸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태학-경당' 체계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백제에서는 博士라는 교육 관직의 존재가 주목된다. 4세기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을 가르쳤다는 박사 阿直岐와 王仁의 활약,[27] 그리고 박사 高興이 『書記』를 편찬했다는 사실을[28] 미루어 볼 때, 4세기 무렵 백제에는 상당한 수준의 유가 지식인이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근래에는 백제 유민 陳法子[615~690]의 墓誌가 발견되면서, 백제 태학의 존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29]

그렇다면 백제에도 중앙 관학에 입학하기 전, 그것을 대비하는 사학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周書』에 소개된 "俗重騎射 兼愛墳史"라는[30] 백제 풍속을 고구려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경당과 같은 지방 교육기관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견해도 있다.[31] 한편, 2005년 인천 계양산성 集水井에서 발굴된 『論語』 목간도[32] 지방 교육기관 또는 사학기관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신라에는 국학이라는 중앙 관학이 운영되었다. 『삼국사기』에는 682년(신문왕 2) 신라에 비로소 관학기관이 설립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681년 세워진 文武王陵碑에 이미 '國學少卿'과 '大舍'라는 명칭이 보인다는 것과 651년(진덕왕 5) 신라 禮部에 大舍를 두었다는 기사를 바탕으로[33] 삼국통일 이전에 이미 국학이 설치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34] 즉, 7세기 이후 신라가 唐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중국의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그것이 유학을 주로 가르치는 중앙 관학의 탄생을 견인하였다.

그런데 7세기 중·후반 국학 설립을 통해서도 사학의 존재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라는 통일 이전 성립된 화랑제도 운영에서 사학의 가

27) 『日本書紀』 권10, 譽田天皇 應神天皇, 15년 가을 8월.
28)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 2, 近肖古王 30년.
29) 이 묘지는 중국 陝西省 西安 大唐西市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묘지에 소개된 진법자의 증조부 陳春은 太學正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용례상 태학정은 태학의 장관으로 해석된다. 정동준, 「陳法子 墓誌銘」, 『목간과 문자』 13, 한국목간학회, 2014; 이정빈, 앞의 논문(2017), pp.108-109.
30) 『周書』 권49, 列傳 41, 異域 上, 百濟.
31) 노용필, 앞의 논문(1996), p.7.
32) 김경호·이영호 책임 편집, 『지하의 논어, 지상의 논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pp.41-42.
33) 『삼국사기』 권38, 雜志 7, 職官 上.
34)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p.494-495.

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학 공부에 대한 다짐을 기록해 놓은 〈壬申誓記石〉도 사학기관의 존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데,[35] 이와 관련해 强首에 대한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 强首는 中原京 沙梁部 사람이다. … 나이가 들자 스스로 책을 읽을 줄 알아 뜻과 이치를 환하게 깨우쳤다. 아버지가 그의 뜻을 알아보려고 "너는 불교를 배우겠느냐? 유학을 배우겠느냐?"라고 물었다. "제가 들으니 불교는 세상 밖에 대한 가르침인데, 저는 이 세속 사람이니 어찌 불교를 배우겠습니까? 유학의 도를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아버지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였다. 드디어 스승을 찾아가 『孝經』, 『曲禮』, 『爾雅』, 『文選』을 읽었다. 배운 것은 비록 얼마 되지 않았지만, 깨달은 바가 더욱 많았다.[36]

강수의 활동시기를 감안할 때 7세기 중반 이전 유학을 배웠을 것이며, 공부한 곳은 중원경 일대의 私塾으로 보인다.[37]

이러한 형태의 사숙은 통일신라 말기 귀족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骨品制의 모순 속에 더욱 확산되었다. 특히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豪族 세력은 지역 내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을 통해 충족하였다. 호족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지방교육기관의 사례는 962년(광종 13) 건립된 청주 龍頭寺의 〈龍頭寺鐵幢記〉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고려 成宗조 향리직 개편 이전 작성된 이 철당기에는 사찰 건립을 주도한 여러 종사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學院卿'과 '學院郎中'이란 직책을 띤 지방 세력가가 등장한다.[38] 여기서 '학원'은 분명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설치된 지방교육기관일 것이다. '학원'의 성격이 관학인지 사학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시 시대상을 감안한다면 '학원'의 운영자는 옛 청주 지역의 호족으로 이해된다.[39]

발해의 중앙 관학으로는 왕족과 귀족 자제를 교육한 胄子監이 있었다. 관학의

---

35) 마종락, 「韓國 古代의 社會構成과 敎育」, 『역사교육』 49, 역사교육학회, 1991, p.30.
36) 『삼국사기』 권46, 열전 6, 强首.
37) 마종락, 앞의 논문(1991), p.30.
38) 용두사는 고려 초에 건립되었지만 철당기에 기재된 나머지 직역은 成宗조 향리직 개편 이전에 사용되던 것이기에 통일신라 말기의 지역 질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수, 「羅末麗初의 地方學校問題」, 『한국사연구』 7, 한국사연구회, 1972, pp.116-118.
39) 김광수, 앞의 논문(1972), p.127.

설립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714년 발해 高王[大祚榮]이 생도 6명을 당나라 태학에 입학시켰다는 것으로 보아[40] 왕조 초기에 형태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41] 그런데 발해는 고구려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 고구려 유민 중 營州로 강제 이주된 세력을 제외하고는 많은 백성들이 고구려 영역에 남아 여전히 옛 풍속을 유지하였다. 그렇다면 발해에서도 고구려의 '태학-경당' 체계를 계승한 '주자감-지방 사학'을 상정할 수 있다.[42]

한편, 777년과 792년에 각각 작성된 〈貞惠公主墓誌〉와 〈貞孝公主墓誌〉에는 동일하게 "早受女師之敎 克比思齊 每慕曹家之風 敦詩悅禮"라는[43] 구절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女師의 존재이다. 여사는 두 공주에게 유학 경전과 유가의 예의범절을 가르쳤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왕족뿐만 아니라 귀족 가문의 여성들도 어느 정도 수준의 유학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44] 이는 여사들의 사적 교육행위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Ⅲ. 중세 私學의 발전과 전개

1. 사학 12도의 성립과 변화

한국 중세 왕조의 특징 중 하나는 본격적으로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하고, 그것에 소양을 갖춘 인재를 관료로 등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려 정부는 건국 초기부터 유학 장려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갔다. 특히 958년(광종 9)의 과거제 실시는 중앙집권적 관료국가 성립에 기본시스템이 되었다.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도 과거제도에 맞추어졌다. 과거제도와 연계하여 관학기관을 정비하였고, 관료예비군 층은 과거 시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물론 고대 중앙과 지방에 존재했던 사학도 이러한 체계

40) 『玉海』 권153, 朝貢, 外夷來朝, 內附, 唐渤海遣子入侍.
41) 방학봉, 『발해사연구』, 정음사, 1989, p.127.
42) 방학봉, 「정효공주묘지에 반영된 유가사상 연구」, 『발해문화연구』, 이론과 실천, 1991, pp.102-103.
43) 한국고대사회연구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992.
44) 천인석, 「渤海의 儒學思想과 統一新羅의 儒學思想 比較」, 『동양철학연구』 17, 동양철학연구회, 1997, p.128.

정립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고려시대 사학기관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단연 사학 12徒이다. 『고려사』 選擧志에는 12도를 설명하는 '私學'이 한 조목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된 12도의 설립 경위와 운영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文宗 때 大師中書令 崔沖이 후진을 불러 모아 싫증내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고 깨우치자, 靑衿과 白布가 그의 집 문과 거리를 가득 메우고 넘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九齋로 나누었으니, 樂聖齋·大中齋·誠明齋·敬業齋·造道齋·率性齋·進德齋·大和齋·待聘齋가 그것으로써 이를 일러 '侍中崔公徒'라고 하였다. 衣冠子弟들로서 무릇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먼저 이 徒에 들어가 배웠다. 해마다 여름철에는 僧房을 빌려 夏課를 열었는데, 徒 출신으로 급제하여 학문이 우수하고 재능이 많지만, 아직 관직에 나가지 못한 사람을 택하여 敎導로 삼았다. 배우는 것은 九經과 三史였다. 간혹 선배가 찾아오면 촛불에 금을 그어 詩를 지은 후 등급을 붙여놓고 이름을 불러 들어오게 한 후 술자리를 베풀어주었다. 童冠이 좌우에 벌려있으면서 술잔과 안주를 받드는데, 進退의 의절과 長幼의 질서가 있으며, 하루 종일 시를 酬唱하였으므로 보는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감탄해 마지않았다. 그 뒤부터 무릇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들 모두 이름을 구재에 籍하였으니, 이를 文憲公徒라고 일렀다. 또 儒臣으로서 徒를 세운 이들이 11명이었다.[45] … 文憲公 최충의 徒를 합하여 세간에서 12도라고 불렀지만, 최충의 도가 가장 번성하였다.[46]

위의 『고려사』는 사학의 효시를 崔沖[984~1068]이 세운 문헌공도로 보고 있다. 이어 여러 儒臣들이 11도를 세움으로써 고려의 사학이 번성했다고 한다. 그

45) 문헌공도 이외의 나머지 11도는 徒名과 설립자만 기재되어 있는데, 설립 시기를 추정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徒明	설립자	설립 시기	徒明	설립자	설립 시기
文憲公徒	侍中 崔沖	1055년(문종 9)	良愼公徒	平章 金義珍 [郎中 朴明保]	문종 중기
弘文公徒 [熊川徒]	侍中 鄭倍傑	문종 중기	貞敬公徒	平章 黃瑩	숙종 [1095~1105] 초
匡憲公徒	參政 盧旦	1086년(선종 3) 이후	忠平公徒	柳監	미상
南山徒	祭酒 金尙賓	문종 중기	貞憲公徒	侍中 文正	미상
西園徒	僕射 金無滯	문종 후기	徐侍郎徒	侍中 徐碩	미상
文忠公徒	侍郎 殷鼎	문종 말~선종 초	龜山徒	미상	미상

46) 『고려사』 권74, 志 28, 選擧 2, 學校, 私學.

러나 실제 사학은 왕조 초기부터 존재하며, 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 성종 … 8년(989) 4월 국왕이 敎書를 내려 말하기를 "… 지금부터는 무릇 文官으로서, 제자가 10명 이하인 자를 有司에서 임기가 차서 관직을 옮길 때 갖추어 기록해 보고하면 褒奬하거나 貶黜하겠노라!…"[47]

위의 敎書는 중앙 관학인 國子監이 설립되기 3년 전에 내려진 것이다. 이때 이미 상당수의 문신 관료들은 개별적으로 사숙을 열어 문인을 양성하고 있었다. 992년(성종 11)이 되어서야 비로소 국자감이 설립된 것도 왕조 초기 사숙 교육이 활발하여, 중앙 관학이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48] 즉, 왕조 초기의 사숙이 최충 시대에 한층 더 융성해져 사학 12도로 설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49]

문헌공도로 대표되는 사학 12도의 주된 교육은 "衣冠子弟들로서 무릇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먼저 이 徒에 들어가 배웠다"라는 언급처럼 과거 공부 위주로 이루어졌다. 夏課는 과거 준비와 관련하여 문헌공도에거 거행한 특징적인 학습 방법으로 소개되어 있다. 하과는 여름철 僧房에서 거행되었는데, 과거에 급제한 선배가 교육을 담당하였다. 하과의 음주 자리에서는 선후배 간의 구분이 엄정했다. 이러한 관계는 훗날 생도들이 관료로 진출했을 때, 동문 의식으로 결속하는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 일부 사학은 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1205년(희종 1) 弘文公徒 출신의 과거 급제자 林得侯가 宣聖堂을 金俊에게 사사로이 팔아버리자, 홍문공도의 여러 학생이 崔忠獻[1149~1219]에게 호소하여 임득후가 처벌된 사건이 일어났는데,[50] 선성당은 바로 공자 사당이다. 12도 전체에 祠廟 시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사학기관이 유가의 교화 의례를 자발적으로 거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렇다면 최충 대에 이르러 어떻게 사학이 번성할 수 있었을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거란과의 오랜 전쟁으로 인한 관학의 피폐이다. 1096년(숙종 7) 재상 邵台輔는 "國學에서 선비를 기르는 비용이 막대하니 실로

47) 『고려사』 권74, 지 28, 선거, 학교, 國學.
48) 박찬수, 「高麗의 國子監과 私學 十二倒」, 『한국사시민강좌』 18, 일조각, 1996, p.25.
49) 박찬수, 『高麗時代 敎育制度史 硏究』, 경인문화사, 2001, p.251.
50) 『고려사』 권21, 世家 21, 熙宗 1년 6월.

백성에게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법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행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이를 폐지하옵소서!"라며,[51] 국학 무용론을 제기하였는데, 그의 견해는 당시 국자감에 대한 관료층의 인식을 대변한다. 하지만 국자감 교육이 실제 무용하지 않았고, 교육은 엄연히 진행되었을 것이다.[52] 오히려 소태보의 의견은 과거제가 열기를 띰에 따라, 사학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 국자감의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학 12도의 설립자는 모두 전직 관료 출신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의 知貢擧를 맡으며, 과거 시험의 출제 경향에 대한 정보가 밝았다. 또한 같은 사학 출신끼리는 일련의 동문 의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것이 훗날 관료 생활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 준비하는 과거 시험과 미래의 관료 생활을 위해 관료예비군 층과 그들의 부모들은 당연히 사학을 신중하게 선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학 간의 경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실제 1133년(인종 11) 6월 정부는 "각 徒의 儒生으로 일찍이 수업한 스승을 등지고 다른 徒로 소속을 옮긴 자는 東堂監試에 응시함을 허락할 수 없다"라는[53] 判을 내리게 되는데, 이는 사학 간 과열 경쟁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급관리나 지방 향리 자제들이 12도에서 과거 시험을 적극적으로 준비했을 가능성이다. 앞서 소태보는 국자감의 피폐를 주장했으나, 실제 11세기 동안 고려 정부는 국자감에 대한 입학자격을 강화시켜 나갔고, 國子監試를 거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 시험 응시생이 많아지는 가운데, 국자감 입학생의 성격이 엘리트화·귀족화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자감 입학의 기회가 좁아진 하급관리 및 향리 자제들은 상대적으로 입학이 자유로운 사학에 몰리게 되고,[54] 이후 사학이 잇따라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

51) 『고려사』 권95, 열전 8, 邵台輔.
52) 박찬수, 앞의 책(2001), pp.254-255.
53) 『고려사』 권74, 志 28, 選擧 2, 學校, 私學.
54) 김용선, 「고려시대의 私學과 그 입학생」, 『역사학보』 220, 2013, pp.84-87. 이 연구에서는 『고려사』와 문집 및 墓誌銘을 통해, 사학 12도에 실제 입학했던 14인의 면면을 분석했는데, 대부분이 향리 자제거나, 선대가 향리역에서 벗어난 지 오래되지 않은 중·하급 관료의 자제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안동 출신의 權正平[1085~1160]은 부친·조부·증조부가 모두 안동의 戶長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李勝章[1138~1192]은 京山府[성주] 출신으로 아버지 대에 처음 서울로 올라와 공부한 것으로 보아, 향리 가문 출신으로 보인다. 李奎報[1168~1241]는 증조부가 향리, 조부가 하급 무관이었다.

최충 이후 번성했던 사학은 고려후기 내우외환으로 쇠락해져 갔다. 1239년(고종 26)경 江都에서 하과가 재개되자 李奎報는 기쁜 감회를 시로 남기면서, "나는 들으니 儒門의 선현들이 12도를 만들어 … 늘 여름에 한 차례씩 모여 課業을 익히며 그 명칭을 夏天都會라 했으나, 요즘 국가가 多難하기 때문에 이 풍습은 거의 없어졌다"라고[55] 하였다. 무신정변과 몽고족의 침입으로 이규보 대에는 하과의 전통이 이미 단절되어 버렸던 것이다.

전란이 끝나고 개경으로 환도되었지만, 사학은 옛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정부가 사학 12도의 교육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관학화 했다는 견해가 있다.[56] 1352년(공민왕 1) 李穡[1328~1396]은 服喪 중 올린 상소에서 "나라에 안으로는 成均·12도·東西學堂을 세워두었으며 밖으로는 척박한 州郡에도 학교를 두었는데 규모가 매우 원대하며 節目은 치밀하였습니다"라고[57] 하였는데, 여기서 이색은 분명 사학 12도를 성균관·동서학당·향교와 동일한 관학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정부는 사학 12도에 學官을 파견하거나,[58] 운영 경비를 국가재정에서 충당하는 등[59] 사학을 직접 관리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사학 12도는 1391년(공양왕 3) 혁파되었다. 이는 직전 해에 단행된 五部學堂 성립과 무관하지 않다. 신왕조 개창을 앞두고 교육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2. 고려시대 사학기관의 확산

중세 왕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정치 참여세력의 외연 확대이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최대 관건은 지방에 난립한 여러 호족 세력을 효과적으로 규합했기 때문이다. 고려에서 호족 세력은 과거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았고, 이를 통해 중앙 귀족과 더불어 관료예비군 층이 될 수 있었다. 고대 지방세력들이 중앙과 반목하며 무력으로서 힘을 키워나간 것과 달리, 중세 지방 세

55) 『東國李相國全集』 권7, 古律詩, 〈寄金學士〉.
56) 박찬수, 앞의 책(2001), pp.274-277.
57) 『고려사』 권115, 열전 28, 李穡.
58) 『櫟翁稗說』 全集 2, "尙書 崔元冲은 … 처음 급제하여 九齋의 敎導가 되었을 때, 생도들에게 매질하는 법이 엄격하였다"
59) 『고려사』 권39, 세가 9, 恭愍王 7년 5월, "12도의 양식이 없자 徒官을 여러 도에 보내 布를 팔아 쌀을 사오는 것을 매년 시행하는 규정으로 삼으려 했다"

력들은 과거 급제와 관료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높여 나가게 된다.

과거제 실시로 관료 진출의 길이 열리자, 지방 세력들은 과거 시험을 준비할 교육기관 확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도 930년(태조 13) 西京에 학교를 설치하고, 989년 12목에 經學博士를 파견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방 관학기관을 설립하였으나, 지방 세력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에 지방 세력들은 개별적으로 사학기관을 설립하여 관학기관의 한계를 보완해 나갔다.

> 위로는 조정 관리들의 威儀가 우아하고 문채가 넉넉하며, 아래로는 민간 마을에 經館과 書社가 두셋씩 늘어서 있다. 그리하여 그 백성들의 자제로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 무리지어 살면서 스승으로부터 경서를 배우고, 좀 장성하여서는 벗을 택해 각각 그 부류에 따라 절간에서 강습하고, 아래로 군졸과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도 鄕先生에게 글을 배운다. 아아, 훌륭하기도 하구나![60]

1123년(인종 1) 고려를 방문한 徐兢은 위와 같이 민간 마을에 이르기까지 經館과 書社로 대표되는 사설 교육기관이 많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서긍이 목격한 민간 마을은 개경 외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내용이 『新增東國輿地勝覽』의 開城府 風俗條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61] 하지만 군졸과 어린아이들까지 글을 배웠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지방의 주요 도시에도 서긍이 목격한 교육시설이 적지 않게 운영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서긍의 글에서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 무리지어 살면서”, “좀 장성하여서는 벗을 택해 각각 그 부류에 따라 절간에서”라는 구절은 앞장에서 언급한 고대 미성년 또는 청년 집단의 공동체 교육을 연상시킨다. 과거제 실시에 따라 유학을 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적지 않게 설립되었지만, 그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고대 공동체 교육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또한 사찰을 강습 장소로 삼았다는 구절도 고대 교육의 흔적으로 여겨진다. 이는 문헌공도의 학생들이 승방을 찾아 거행한 하과와[62] 성격이 다르다. 하과는 사학의 학생들이 단순히 사찰 공간을 빌려 학습 장소로 활용한 것인 반면, 『고려도경』의 구절은 아래 민적 기사에 등장하는 사찰 교육과 동일한 형태로 봐야 할 것이다.[63]

---

60) 『高麗圖經』, 권40, 同文, 儒學.
6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 開城府 上, 風俗.
62) 『고려사』 권74, 志 28, 選擧 2, 學校, 私學.

> 閔頔은 … 國俗에 어릴 때 반드시 승려를 따라가서 글을 익히게 되어 있었는데, 얼굴과 머리털이 아름다운 남자는 승려든 속세 사람이든 모두 받들어서 仙郞이라고 불렀다. 따르는 무리의 숫자가 어떤 경우에는 100~1,000명에 이르기도 하였는데 그 풍속은 신라 때부터 비롯된 것이다. 민적은 열 살 때 절에 가서 글을 배웠는데 천성이 명민하여 글을 받으면 바로 그 뜻을 깨달았다. 눈썹이 그림과 같고 풍채가 빼어나 아름다워서 한번 본 사람은 모두 사랑하였다. 충렬왕이 소문을 듣고 궁중으로 불러보고는 국선으로 지목하였다.[64]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라시대 승려 중에는 유가 지식인으로서 사찰에서 유학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전통은 고려시대까지 계승되었다. 민적은 어린 시절 國俗에 따라 사찰에서 승려에게 글을 배웠다. 훗날 민적의 총명함에 감복한 충렬왕은 사찰에서 공부한 민적을 신라시대 화랑에 빗대어 國仙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 또한 공동체 교육처럼 재래 사학교육의 흔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려시대 사학기관이 지방에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1170년(의종 24) 무신정변 이후로 여겨진다. 그 배경에 대하여 李齊賢[1287~1367]은 忠宣王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그런데 불행하게도 毅王 말년에 武人의 변란이 일어나 순식간에 薰蕕가 그 냄새를 같이하고 玉石이 함께 타는 것처럼 선악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겨우 범의 입에서 벗어난 화를 피한 자는 깊은 산 속으로 도망가서, 衣冠을 벗어버리고 袈裟를 입고 남은 생애를 보냈으니, 神駿·悟生 같은 부류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 후 국가에서 차츰 문교를 쓰는 정책을 회복하였지만, 선비들이 비록 학문을 원하는 뜻이 있으나 좇아 배울 만한 곳이 없었으니, 부득이 가사를 입고 깊은 산중에 도망가 있는 이를 찾아가 배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그러므로 신의 생각에는 학자들이 중을 좇아 章句만을 익히게 된 그 원인이 대개 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전하께서 진실로 학교를 넓히고 庠序를 일으키며, 六藝를 높이고 五敎를 밝혀 선왕의 도를 천명한다면, 누가 참 선비를 배반하고 중을 따를 것이며, 實學을 버리고 章句만 익히는 자가 있겠습니까?[65]

무신정변으로 혼란한 정국이 지속되자, 많은 문인들이 관직을 버리고 은둔을

63) 이동환, 앞의 논문(1970), p.790.
64) 『고려사』 권108, 열전 21, 민적.
65) 『역옹패설』 全集 1.

선택하였다. 이들 문인들은 유학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있었으며, 神駿과 悟生처럼 자신들을 찾아온 선비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위의 대화에서 이제현은 무신정변 때문에 선비들이 승려에게 학문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다. 이는 앞서 민적 기사를 수록한『고려사』편찬자와 다른 견해이다. 이러한 차이는 학문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나 명확한 까닭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현이 이러한 세태를 비판하며 "그렇기 때문에 선비들이 道學을 알지 못하고 章句만 쫓게 되었음을"이란 구절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章句之學'은 문장을 章과 句를 나누어 해석하는 것으로 유학을 공부하는 자들에게 항상 논란거리가 되었다. 이제현처럼 도학을 중요시 하는 학자들에게 '章句之學'은 비판의 대상이었으나,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에게 '장구지학'은 효율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무신정변으로 낙향한 인사들에게 학문을 배운 관료들이 적지 않았음을 뜻한다.

실제 무신정변으로 정치 세력이 크게 교체되면서, 과거 시험이 집중적으로 치러졌고, 종전 관료들과 체질을 달리하는 인사들이 중앙 정계에 대거 진출하였던 것이다. 이때 중앙에 진출한 사대부 세력의 상당수는 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郡縣土姓의 자제들이었다.[66] 이들은 최초 은둔 문인들에게 학문을 배워 신흥 관료로 진출하였고,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낙향하여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麗末鮮初까지 반복되어, 무신정변 이후 지방 사학기관의 확산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한편, 고려후기는 거듭된 내우외환과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정치 세력의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군현토성 세력은 재경관인과 토착향리 세력으로 분화되었으며, 재경관인은 낙향하여 在地士族 층을 형성하였다. 나아가 재지사족 층은 종전의 邑治에서 任內나 他邑의 외곽지대로 거주지를 옮기게 된다. 이들은 당시 새롭게 도입된 농업 기술을 바탕으로 임내 지역을 개발하였으며, 이곳을 새로운 근거지로 삼았다.[67] 이러한 거주지 변화에 따라 사학기관도 지방 세력의 '移去地' 혹은 '卜居地'에 설립되어 갔는데, 이는 훗날 재지사족 세력의 학문적 구심처가 되었다.

---

66) 이수건, 「高麗·朝鮮時代 支配勢力 변천의 諸時期」, 『韓國史 時代區分論』, 소화, 1995, p.235.

67) 이수건, 앞의 논문(1993), pp.244-247.

3. 조선전기 사학기관의 위상 변화

1392년 7월 28일 태조는 즉위 교서에서 "중앙에는 國學, 지방에는 鄕校에 生徒를 더 두고 講學에 힘쓰게 하여, 인재를 양육하게 할 것이다"라며,[68] 신왕조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성균관-향교'로 이어지는 관학체계가 교육 정책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과거제와 관료제의 근간이 되는 교육 정책을 정비함으로써, 그들이 지향하는 중앙집권적 양반관료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왕조 개창 이전부터 오부학당 성립 및 사학 12도 폐지 등 교육기관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에 설립된 여러 사학기관을 공적 영역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고심하였다.

그런 가운데 1407년(태종 7) 3월 權近[1352~1409]은 8개조로 구성된 〈勸學事目〉을 올려 과거제도 개선과 교육진흥책을 개진하였다.

> 吉昌君 權近이 上書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 前朝 때 外方에 있는 閑良 儒臣이 사사로이 書齋를 두어서 후진을 敎訓하여, 스승과 생도가 각기 편안함을 얻어 그 학업을 이루었었는데, 지금에는 師儒가 간혹 다른 州의 敎授가 되어, 가족과 떨어지게 되고 생업을 廢하게 되므로, 모두 구차히 免하려 하고, 생도는 강제로 향교에 나오게 하여 편안히 공부를 하지 못하고, 수령이 혹은 書寫의 일로써 使役을 시키니, 이름은 勸學이라 하나 실지는 廢弛됨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외방에 있는 儒臣으로서 사사로이 書齋를 두고 교훈하고 있는 자를 감히 다른 州의 교수로 정하지 말도록 하고, 생도도 강제로 鄕學에 나오게 하지 말도록 하며, 監司와 수령이 권면을 가해, 각기 편안히 살면서 강학하여 風化를 돕게 하소서"[69]

위 조목은 〈권학사목〉 중에서도 제7조에 해당된다. 제7조는 당시 정부가 사학기관을 공적 영역에서 관리하는 가운데 나타난 몇 가지 폐단으로 인해 제시되었다. 권근은 지방에서 書齋를 운영하고 있는 閑良儒臣을 앞으로 州의 敎授로 임명하지 않도록 청원하였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사학기관을 직접 통제하여 향교 진흥의 기반으로 활용했다는 것

68) 『太祖實錄』 권1, 태조 1년 7월 정미.
69) 『太宗實錄』 권13, 태종 7년 3월 무인.

이다. 앞서 즉위 교서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조선 정부는 관학체계 정비를 교육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 향교를 정비해야 되었는데, 당시 향교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고을은 그리 많지 않았다. 향교 건물이 없어 사찰이나 관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敎官의 자질이 문제 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교관 확보를 위해 사학기관의 閑良儒臣을 교수로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원치 않게 타 고을의 교수로 임명된 儒臣은 생계가 어려워졌고, 사학에서 성립된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원망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기존에 있던 사학기관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여 왕조 초기의 과제인 관학 정비를 달성하려 했던 것이다.[70]

둘째, 〈권학사목〉에서 書齋라 지목한 사학기관의 유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71] 이 시기는 조선후기와 달리 사학의 성격이 분화되지 않아, 글을 가르치고 과업을 준비하는 곳이 精舍·書齋·書塾·書堂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고 있었다.[72] 서재도 그 중 한 표현이지만, 여말선초 사학기관의 주류를 총칭하는 용어로 보고 있다.[73] 당시 여러 계기로 인해 서재가 설립되고 있었는데,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吉再[1353~1419]와 같은 은거 학자가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을 위해 자신의 연고지에 설립한 것이다.[74] 그 외 趙庸[?~1424]과 같이 귀양지에 설립하거나,[75] 金叔滋[1389~1456]처럼 일시적으로 퇴직한 사대부가 서재를 설립한 경우도 확인된다.[76] 많치는 않지만 尹祥[1373~1455]처럼 지방관으로 재직하면서 사설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인사도 있었다.[77]

---

70) 신동훈, 「조선 전기 童蒙 교육의 추이와 村巷學長 설치의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86, 2018, pp.91-92.

71) 이하 유형에 대한 분류와 사례는 '이병휴, 「麗末鮮初의 科業敎育 -書齋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67, 역사학회, 1975, pp.54-55'를 참조한 것이다.

72)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2, p.55.

73) 이병휴, 앞의 논문(1975), p.48.

74) 『용재총화』 권3, "吉再 선생은 고려가 멸망함을 통탄하여 門下注書의 벼슬을 던지고 善山 金鰲山 밑에 살면서 본조에서는 벼슬하지 않기로 맹서하였는데, … 공은 郡의 여러 생도를 모아 두 齋로 나누어, 양반의 후손들을 上齋로 삼고, 마을의 천한 가문의 아이들을 下齋로 삼아, 經史를 가르치고 勤惰를 시험하였는데 하루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백 수십 명이었다"

7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慶尙道 眞寶縣, 人物, "본조 趙庸 … 일찍이 醴泉郡에 귀양살이하면서 후진을 가리키는 데에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名士가 많이 나왔다. 趙末生·尹祥·裵恒·裵杠이 모두 그 문하에서 나왔다"

76) 『佔畢齋集』, 彝尊錄 下, 〈先公事業〉 4, "鳳巖에서 여묘살이할 적에는 鄕人들이 서로 다투어 자제들을 보내와서, 여막의 곁에 書齋를 지었다"

셋째, 당시 교관 임명의 대상이 된 '閑良儒臣'의 존재이다. 이들은 '閑良'으로서 특정한 직역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역'의 부과를 대신하여, 이들을 교관에 강제적으로 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대로 된 대가도 지급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閑良儒臣'은 당대의 명문 사족이라기보다는 직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사족의 자제로 볼 수 있다.[78] 한편으로는 이런 계층에서도 서재를 운영했다는 것은 여말선초를 거치면서 이전보다 광범위하게 사학기관이 설립되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왕조 초기 정부는 지방의 사학기관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여 관학기관을 정비하려 했지만, 〈권학사목〉이 태종에 의해 수락되면서 사학기관에 대한 정부 정책은 선회하게 된다. 1418년(세종 즉위) 세종은 諭示를 내려 "儒士들이 사사로이 書院을 설치하여, 생도를 가르친 자가 있으면, 위에 아뢰어 포상하게 할 것이다"라며,[79] 사학기관 운영을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신료들도 호응하여 1436년(세종 18)에는 知成均館事 許稠[1369~1439]가 사사로이 서재를 열어 생도를 가르친 이를 포상하자고 上言하였으며,[80] 1466년(세조 12) 工曹判書 丘從直[1404~1477]은 條件을 올려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신은 원하건대 州郡의 各里에 학문과 덕행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스승으로 삼아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子弟를 가르치도록 하고, 그 성명을 써서 차례대로 보고하여 임금에게 아뢰도록 하되, 만약 효과와 이익이 있으면 身役을 면제해 주도록 명하고, 그 중에 더욱 훌륭한 사람을 혹 散官 관직에 임명한다면,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공부하는 기풍이 마을에서 일어나게 되고, 장년이 되어 從軍하는 사람도 또한 임금을 높이고 윗사람을 사랑하는 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81]

위의 條件에서 구종직은 '各里'에 '窮村僻巷'의 연소자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자고 건의하였다.[82] 아울러 교육에 효과를 본 스승에 대해

77) 『점필재집』, 이존록 하, 〈선공사업〉 4, "[김숙자] 그리하여 윤공상이 黃澗縣監으로 있다는 말을 듣고 도보로 찾아가 『周易』을 수학하면서, 陰陽變化의 數와 原始要終의 說을 끝까지 탐구하니, 윤공이 공의 견고한 뜻을 알고 그 오묘한 이치를 다 가르쳐 주었다"
78) 정순우, 앞의 책(2012), p.33.
79) 『세종실록』 권2, 즉위년 11월 기유.
80) 『세종실록』 권75, 18년, 10월 경오.
81) 『세조실록』 권39, 12년, 7월 병자.
82) 신동훈, 앞의 논문(2018), p.95.

서는 신역 면제 및 산관 임명과 같은 구체적인 포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구종직이 건의한 학교는 관학체계가 아니라, 기존의 사학기관을 공적 영역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형태였다. 왕조 초기 사학기관을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했던 것과 달리, 상보적 관점에서 이들에게 관학체계의 한 축을 담당케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15세기 동안 사학기관 운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포상이 이루어졌으며,[83] 지방 사학기관은 그 존재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게 되었다.[84] 이처럼 조선초기 精舍·書齋·書塾·書堂 등은 정비 단계에 있던 관학체계를 보완하며, 교육기관의 한 축을 이루었다. 아울러 사학기관이면서도 정부에 의해 보호·장려되며 발전해 갔다.[85]

한편, 15세기 후반 등장한 사림파는 사학기관을 향촌교화의 중심지로 인식하였다. 과거제 실시 이후 사학기관 설립의 주된 목적은 과업에 있었다. 그러나 성리학이 도입된 이래 과업 위주의 '章句之學'은 비판을 받게 되고, 爲學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86] 이러한 경향은 왕조 초기 정치적 부침 속에 향촌에 은둔했던 재야 학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을 계승한 사림파에 의해 더욱 두드러졌다. 金宗直[1431~1492]의 교육 내용을 "朱子의 學規에 의거하여, 본원을 함양하는 것을 進德의 기반으로 삼고, 性理를 窮探하는 것을 修業의 근본으로 삼았다"라고[87] 평가한 것처럼, 이들 사림파에게 교육의 주목적은 바로 성리학 고수에 있었던 것이다.[88]

16세기 초반의 己卯士林은 道學政治 실현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전개하였다. 그 중에서도 金宏弼[1454~1504]·鄭汝昌[1450~1504]에 대한 文廟從祀 청원은 도학의 정통을 사림파에게 부여하여, 勳舊派와의 경쟁에서 이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두 사람에 대한 사림파의 문묘종사 청원이 지

83) 1420년 崔保民(『세종실록』 권9, 2년 1월 경신)과 姜友諒((『세종실록』 권9, 2년 9월 기축), 1448년 劉思德(『세종실록』 권121, 30년 7월 임인), 1455년 金九知(『세조실록』 권1, 1년 7월 을미), 1472년 吳季禎(『成宗實錄』 권18, 3년 5월 을묘) 등이 사학 운영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84) 앞서 살펴 본 허조의 상언과 구종직의 條件 서두에는 『禮記』 學記편을 인용하여, 三代의 교육기관인 家塾·黨庠·術序·國學 중 사학기관이 가숙과 당상에 해당한다는 언급이 있다. 즉, 성균관이 國學, 향교가 術序의 기능을 하지만, 당상과 가숙에는 관학체계가 미치지 못하여 사학기관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85) 이병휴, 앞의 논문(1975), p.59.

86) 『역옹패설』 전집 1.

87) 『점필재집』 附錄, 年譜, 〈佔畢齋先生年譜〉.

88) 이병휴, 앞의 논문(1975), p.58.

속되는 가운데, 1512년(중종 17) 8월 20일 정부에서는 훈구 계열의 南袞[1471~1527]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김굉필은 正學이 중단된 뒤에 태어나서 능히 분발하여 홀로 깊이 연구해서 誠正의 학문으로 諸儒를 창도하였으니, … 후학을 啓發하여 吾道를 지켰으니 공이 또한 큽니다. 그러나 종사는 지극히 중한 일이므로 … 문득 허용하면 경솔한 것이 될 듯합니다. 禮를 상고하건대 "鄕先生을 社에 제사 한다" 한 글이 있으니, 宋朝에서 … 평소에 도학을 강론하던 곳에 祠宇를 설치하고 群祀에 참여시켜 관에서 致祭하면, 비록 廟庭의 祭享에는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국가가 儒를 숭상하고 道를 존중하는 뜻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신은 생각합니다.[89]

남곤은 문묘종사의 신중함을 내세우면서도 김굉필·정여창에 대한 尊賢 장치의 설치는 양보를 하며, 그 절충안으로 祠宇 건립을 제시하였던 것이다.[90] 그런데 여기서 남곤은 宋朝 선현들의 사례를 들어 祠宇를 김굉필의 강학처에 설립하자고 했다. 강학처가 김굉필 도학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물론 김굉필의 강학처는 精舍·書齋·書塾·書堂 등과 같은 사학기관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 제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나는 사학기관에 교화기능을 부여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사학기관이 성리학적 제 이념의 체득과 실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의 가능성은 높아진 사학기관의 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行副司果 魚得江[1470~1550]은 1542년(중종 37) 올린 상소에서 중국의 서원을 언급하였다. 그는 평소 '恬退之節'을 지킨 인사로 평가를 받았고,[91] 내외 관직에 있으면서 書肆 설치 건의 등 文興 振作에 앞장섰던 공신계 인물이다.[92] 그러면서도 어득강은 도학을 중요시하던 金安國·李彦迪·李滉 등 사림계의 주요 인사들과 교유하였다.[93] 1542년 올린 상소문에도 문흥 진작을 위한 여러 대책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학기관 운영과 관련된 대목은 다음과 같다.

---

89) 『中宗實錄』 권29, 12년 8월 계해.
90)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硏究』, 집문당, 1997, p.20.
91) 『明宗實錄』 권9, 4년 10월 무술
92) 정만조, 앞의 책(1997), pp.160-161.
93) 어득강의 시문집인 『灌圃詩集』에 수록된 〈泛槎亭〉과 〈奉呈晦齋道契〉는 각각 김안국·이언적과 주고받은 것이며, 〈昆陽 次魚灌圃 東州道院十六絶〉(『退溪別集』 권1, 詩)은 昆陽郡守 어득강의 초청을 받고 방문한 이황이 지은 시이다.

> 한나라 鄭玄은 생도들을 모아 가르쳤고 隋나라의 王通은 河汾에서 강학하였으며, 당나라 李渤은 南唐 때 白鹿洞의 주인이 되니, 배우는 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무리가 수천 명에 이르렀으므로, 송나라 황제가 九經을 내려 장려했습니다. 周子·張子·程子·朱子에게 각기 문도가 있었는데 그 문하에서 나온 자는 모두 名公碩儒로서 스승보다 더 나았습니다. 李公擇은 山房에다 만권의 책을 간직하여 학자들과 함께 이용했으며, 朱熹는 武夷精舍를 짓고 白鹿書院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도가 우리나라에는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 먼 곳에 있는 유생들이 어디서 학문을 배우겠습니까?
>
>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는 선비들이 詩書를 숭상하니, 신은 충청도·강원도·전라도의 중앙과 경상좌·우도에 각기 한 사찰을 얻어서, 생원·진사를 막론하고 도내의 명유들을 불러 모아 1년의 四仲月에 상하의 齋로 나누어 앉아 독서하게 하는 것을 연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도는 州郡의 學田에서 나온 소출로 6월의 都會 때와 겨울 3개월 동안 모여 독서하는 비용으로 쓰는데,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옮겨다 사중월의 비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은 관에서 보태어 항상 40~50인이든 혹은 20~30인이든 많고 적음에 구애되지 말고 모아서, 官秩이 높은 수령을 試官으로 삼아 두 敎授와 혹은 현감까지 세 사람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勸課하여 製述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分數를 따져 생원·진사는 문과의 館試·漢城試·鄕試에 응시하도록 차등 있게 자격을 수여하고, 幼學은 생원·진사시의 覆試에 바로 응시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선비들이 모두 즐겨 따라서 권하지 않아도 저절로 권장될 것입니다.[94]

위 상소문에서 어득강은 사학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학 지원에 대한 명분으로 중국 역대 名儒들이 사학을 설치하고 인재를 양성한 사례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주자의 백록동서원을 언급하기도 했다.[95]

앞서 사림 세력은 향촌교화의 중심지로 사학기관을 주목하였다. '章句之學'에 매몰된 관학의 풍조를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사학기관이 爲學的 교육을 주도해야 된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관학의 부진에 따른 교화·교육 체계의 개선이 당시 정치 세력에게 경쟁 이슈가 되면서, 공신 계열에서도 대응책이 모색되었는데, 어득강의 견해도 이러한 흐름 속에 등장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구체적

94) 『중종실록』 권98, 37년 7월 을해.
95) 어득강의 상소는 16세기 중반 우리나라 서원의 성립 과정에서, 서원에 대한 공신 계열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기사이다. 정만조, 앞의 책(1997), pp.23-28.

으로 어득강은 과거제도와 연계한 사학기관의 운영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방 관학인 향교를 보완하는 것이었다. 어득강이 구상한 사학기관이 과거제도와 연계된 만큼, 재정 지원책도 건의해 놓았다. 국가적 차원의 재정 지원책은 15세기 동안 모범적 운영 사례에 대해 포상을 했던 것과 비교하여, 이 무렵 사학기관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어득강이 상소문을 올린 그 이듬해 풍기군수 周世鵬[1495~1554]은 백록동서원의 전례를 본받아 교육·교화 기능을 겸비한 백운동서원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賜額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서원에 이루어졌다. 즉, 16세기 중반 서원의 출현이 가능하였던 것은 사학기관의 높아진 위상과 맞물려, 관학을 보완하는 새로운 사학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정부와 향촌사회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IV. 맺음말

이상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서원의 前史로서 고·중세 사학의 전통을 살펴보았다. 서원은 전통시대 존재했던 사학기관 중 가장 완숙한 체계를 갖추었다. 조선의 士流들은 으레 宋儒의 행적으로부터 서원 설립의 전통과 명분을 찾았지만, 시각을 넓힌다면 조선시대 서원 설립은 고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유구한 사학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상고시대 사학의 가능성은 미성년·청년 대상의 집단 교육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원시공동체 사회에서는 종족 내 생계와 번영을 위하여, 미성년 대상의 집단 교육이 공동으로 행해졌다. 하지만 청동기시대 이후 공동체가 분열되고 정치 집단이 형성됨에 따라, 권력 최상위 계층은 통치 행위에 필요한 교육을 독점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핵심 교육체계가 관학으로 정비되었으며, 이를 보조하기 위해 사적으로 형성된 교육체계는 사학으로 분류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의 경당은 고대에 존재했던 교육체계 중 사학과 가장 밀접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경당은 지방 교육기관으로 미혼 자제에게 군사 훈련을 비롯해 經史 등 실무 행정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교육하였다. 경당의 교육 목적은 통치를 보조할 문무 관료예비군 층 양성에 있었다. 이러한 경당은 지방 세력에 의해 사적 영역에서 관리되던 재래의 공동체 교육이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외래 문물과

결합되어,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체계화된 것이다.

화랑제도는 신라 특유의 비형식 교육으로 권력 최상위 계층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화랑제도도 상고시대 미성년·청년 대상의 집단 교육이 발전한 것이다. 이들은 공동생활을 하며, 무예와 더불어 통치에 필요한 유학·불교·도교에 대한 소양을 익혔다. 그런 가운데 화랑들은 상호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승려에게 개별적으로 학문을 배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화랑제도의 사학적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백제도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관학체계를 형성했으며, 이를 보조하는 사학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헌상으로는 그 형태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중앙집권화 시기와 과정, 그리고 풍속이 고구려의 그것과 비슷한 점을 감안할 때, 백제에도 경당과 비슷한 지방 교육기관을 상정할 수 있다. 고구려 영역에 건국되었으며, 그 풍속을 이어받은 발해도 백제와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신라는 중앙 관학으로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했는데, 이에 호응한 지방 교육기관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강수가 중원경의 사숙으로 보이는 곳에서 유학을 공부한 사실과 나말여초 청주 지역에서 운영되었던 학원을 통해 사학기관의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세 왕조 성립 이후 유학은 통치이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유학에 소양을 갖춘 인재가 과거제를 통해 관료로 등용되었다. 이에 중앙집권적 관료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춘 중세 정부는 경외에 관학기관을 설립하였으며, 관료예비군층은 과거 시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을 활용하였다. 고려시대 사학기관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최충의 문헌공도를 필두로 한 사학 12도이다. 전직 관료에 의해 설립된 사학 12도에서는 과거 시험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였다. 사학 12도는 11~12세기 동안 융성하였으나 이후 성격이 변질되었고, 고려 말에는 교육체제 정비 과정에서 혁파되었다.

중세 왕조의 특징 중 하나는 정치 참여세력의 외연 확대이다. 이를 반영하듯 고려는 지방 세력의 자제에게도 중앙의 문벌 자제와 마찬가지로 과거 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에 지방에도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학기관이 운영되었는데, 몇몇 사학에서 청년 집단이 공동생활을 하며 학습한 것과 사찰에서 승려가 교육한 사실은 재래 교육의 흔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려시대 지방 사학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무신정변 이후로 보인다. 당시 혼란한 정국을 피해 지방으로 내려온 문인들은 은둔지에서 후학들을 양성하였다. 이들이 나중

에 관료로 진출하여 종전과 체질을 달리하는 사대부 세력을 형성하였고, 다시 이들이 낙향하여 후학을 양성함으로써, 지방 사학은 확산될 수 있었다.

조선은 '성균관-향교'로 이어지는 관학체계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적 양반관료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왕조 초기 향교를 제대로 갖춘 고을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당시 전국적으로 많이 설립되어 있던 사학기관을 주목하였다. 당시 지방에는 명문 사족 이외에도 한량유신으로 불리는 일반 지배 계층에 의해 서재가 운영되고 있었다. 정부는 향교 진흥을 위하여 서재의 한량유신을 향교의 교수로 임명하는 등 사학기관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여러 폐단이 지적되어 사학을 통제 대신 장려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게 된다. 이로써 사학기관은 관학체계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였고, 정부에 의해 보호·장려될 수 있었다. 한편, 사학을 기반으로 성장한 사림파는 도학을 중요시하며, 사학기관을 향촌교화의 중심지로 인식하였다. 그런 가운데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학기관은 성리학적 제 이념의 체득과 실현처로 주목 받았으며, 어득강의 상소문에서 확인되듯이 부진한 관학의 대안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교육·교화 기능을 겸비한 서원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三國志』,『舊唐書』,『新唐書』,『周書』,『日本書紀』,『高麗圖經』,『三國史記』,
『三國遺事』『高麗史』,『朝鮮王朝實錄』,『新增東國輿地勝覽』,『東國李相國全集』,
『櫟翁稗說』『佔畢齋集』,『灌圃詩集』,『竹溪誌』,『退溪集』,『退溪別集』

한국고대사회연구소,『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992.
김경호·이영호 책임 편집,『지하의 논어, 지상의 논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박찬수,『高麗時代 敎育制度史 硏究』, 경인문화사, 2001.
방학봉,『발해사연구』, 정음사, 1989.
_____,『발해문화연구』, 이론과 실천, 1991.
백남운 저, 윤한택 역,『조선사회경제사』, 이성과현실, 1989.
이병도,『韓國史』-古代篇-, 을유문화사, 1959.
정구복 외,『역주 삼국사기』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정순우,『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2.
정만조,『朝鮮時代 書院硏究』, 집문당, 1997.
한기언,『韓國敎育史』, 박영사, 1963.

강명숙,「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의「조선 교육제도 약사」에 대한 일 고찰 -일제강점기 조선 거주 일본인의 한국교육사 연구와 그 한계-」,『한국교육사학』38-4, 한국교육사학회, 2016.
김광수,「羅末麗初의 地方學校問題」,『한국사연구』7, 한국사연구회, 1972.
김용선,「고려시대의 私學과 그 입학생」,『역사학보』220, 역사학회, 2013.
노용필,「古代의 敎育과 人材養成」,『한국사 시민강좌』18, 일조각, 1996.
마종락,「韓國 古代의 社會構成과 敎育」,『역사교육』49, 역사교육학회, 1991.
박찬수,「高麗의 國子監과 私學 十二倒」,『한국사시민강좌』18, 일조각, 1996.
신동훈,「16세기 서원(書院) 사액(賜額)과 국가의 서원 정책」,『역사와 현실』98, 역사비평, 2015.
_____,「조선 전기 童蒙 교육의 추이와 村巷學長 설치의 의미」,『조선시대사학보』86, 조선시대사학회, 2018.
오경택,「조선시대 서당 연구의 현황과 과제」,『전북사학』31, 전북사학회, 2007.
이기백,「高句麗의 扃堂 -韓國 古代國家에 있어서의 未成年集會의 一遺制-」,『역사학보』35·36, 역사학회, 1967.
이동환,「韓國文敎風俗史」,『韓國文化史大系』8 風俗·藝術史(下). 고대민족문화연구

소출판부, 1970
이병휴,「麗末鮮初의 科業敎育 -書齋를 중심으로-」,『역사학보』67, 역사학회, 1975.
_____,「朝鮮前期 中央權力과 鄕村勢力의 對應」,『국사관논총』12, 국사편찬위원회, 1990.
이수건,「高麗·朝鮮時代 支配勢力 변천의 諸時期」,『韓國史 時代區分論』, 소화, 1995.
이정빈,「고구려 扃堂의 설립과 의의」,『한국고대사연구』67, 한국고대사학회, 2012.
_____,「한국 고대 교육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학계의 성과를 중심으로-」,『한국교육사학』39-1, 한국교육사학회, 2017.
정동준,「陳法子 墓誌銘」,『목간과 문자』13, 한국목간학회, 2014.
천인석,「渤海의 儒學思想과 統一新羅의 儒學思想 比較」,『동양철학연구』17, 동양철학연구회, 1997.

Tradition of Sahak(私學) in Ancient and Medieval Korea Leading Up to the Appearance of Seowon(書院)

Yi, Gwang-woo*

From the Sahak institutions existed in the traditional era, the most complete system could be found in Seowon that emerged in the mid-16th century. During the Joseon Dynasty, Seowon supplemented the public domain of Gwanhak(官學) and undertook the role of the hub to uphold the ruling ideals to the local communities.

To the present time, emergence of Seowon is understood as the outcome of the growth of Jaejisajok(在地士族) class and advancement of Neo-Confucianism. Therefore, under this thesis, the view point is broadened to set the premises that the tradition of prolonged Sahak led the emergence of Seowon in a way of taking a look at the flow of ancient and medieval Sahak from the ancient times to the time leading up to the emergence of Seowon. The concept of Sahak was emerged when the community education was dissipated with the appearance of the classes in the ancient times.

Thereafter,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 central integrated ancient state, each dynasty maintained the local and individualistic education system to prepare the human talent screening system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wanhak, and through the in the

* Yeungnam University / ikw38@ynu.ac.kr

education institution and education system such as, Gyeongdang(扃堂) and Hwarang(花郎) System established in the process, the trace of the ancient Sahak could be confirmed. After the medieval era, with Confucius studies settled as the ruling ideals, the Gwanhak system was connected to operate the national examination system. Accordingly, the Sahak institutions were facilitated for the group of government elite class of central and local regions to take advantageous position in the competition for the national examination.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re were 12-do of Sahak including Munheongongdo(文憲公徒) in operation at the central region while the rural area had the Sahak institutions established by the literature men secluded for avoiding the uprising after the Musinjeongbyeon. In early times of the Joseon Dynasty, the government attempted to control the rural Sahak in order to maintain the local Gwanhak. However, there were a number of side-effects that the Sahak policy was shifted toward the direction to acknowledge the role of Sahak and encourage such academic field.

While doing so, the private scholars emerged in the late 15th century paid attention to the Sahak institutions as the place of acquisition and practice of Neo-Confucianism ideals. Furthermore, at the turn of the 16th century, Seowon was mentioned as a model for Sahak by the government servants and officials. As such, with the call for new Sahak institutions to supplement the lackadaisical Gwanhak under the shifting status of Sahak to gain the identify with the government and its surroundings, Seowon that was equipped with the functions for education and edification emerged in the mid-16th century.

Key words : Sahak, Gwanhak, Seowon, national examination system, Neo-Confucianism

이 논문은 2020년 5월 27일 투고 완료되어
2020년 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6월 22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http://dx.doi.org/10.30594/kss.2020.6.10.3 67

16세기 한국 서원의 출현과 정비*

이병훈**

Ⅰ. 머리말
Ⅱ. 16세기 서원의 출현 배경
Ⅲ. 초창기 서원의 건립과 정비
Ⅳ. 맺음말

<국문요약>

16세기 서원은 관학 시스템의 붕괴에 따른 대안으로 출현하였다. 수령의 주도하에 향촌교화를 목적으로 건립되었기에 초기 서원은 관학의 보조적 기구로서의 성격이 컸다. 유생 교육도 과거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편으로는 서당과 정사를 중심으로 유생의 강학과 장수가 진행되어 오던 사학 시스템은 백운동서원 이후 사림 주도의 건립 사례가 증가해갔다. 백운동서원에 대한 퇴계에 사액 청원이후 신설된 서원들은 사액 청원이 일반화되어 갔다. 사액을 통해 관학에 준한 국가의 인정과 안정된 운영기반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서원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학자를 제향인으로 선정하거나, 원규가 조목별로 구체화되어 갔다. 한편 관학의 쇠퇴에 따른 국가 주도의 진흥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학의 확대, 특히 서원의 신설과 그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었다. 관학의 보조적 기구로 설립되었던 서원의 역할이 증대하면서 관학을 대처하자 국왕은 이를 제재하기도 했다. 사림의 사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었기에 서원 신설을 막지는 않았지만 선현이라도 사액을 신중히 함으로써 서원의 영향력을 제한했다. 그러나 향촌사회에서는 서원을 중심으로 한 교학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사액 유무와는 상관없이 지방관의 지원을 받아 더욱 성장하였다. 한편으론 서원 측의 무리한 지원 요구로 지방행정의 재원이 침해를 당하는 폐해가 나타나기도 했다.

주제어 : 이황, 사액, 제향인, 원규, 서원

Ⅰ. 머리말

한국의 서원 연구는 1970년대 중반이래로 양적·질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1] 그 결과 서원에 대한 실체를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성과는 '한국의 서원'이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데 학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특히 조선 서원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일찍부터 연구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사화로 인한 사림의 정치기피와 학문연구 경향, 先賢에 대한 숭배사상 고조 및 사림파의 학문적 축적에 따른 수적인 증가와 그들 중심의 향촌질서 확립을 위한 구심체로서 서원 출현 등이 제기되었다.[2] 이외에도 관학의 쇠퇴와 이를 대처할 교육기구 내지 수단을 강구하는 가운데 서원이 출현했다고 보기도 했다.[3]

한국의 서원은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이 건립한 白雲洞書院이 시초이다. 그렇지만 조선 서원의 典型을 완성한 것은 퇴계 이황이었다. 그는 제향인의 선정, 사액을 통한 지속성 확보, 서원 운영의 기본 원칙인 원규를 제정하면서 초창기 서원의 정착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16세기 후반 이래로 서원이 대거 건립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액유무와 상관없이 관노비와 군정의 무단차정, 제수관급 및 둔전·속공전을 요구하며, 지방관을 압박하고 지방행정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폐단[4]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서원이 가진 교육기관으로서의 긍정적 측면이 더욱 부각되었다.

조선후기 유생의 강학·장수처이자, 향촌지배기구로 자리했던 서원은 16세기 중반 이래로 그것의 도입과 정비라는 과도기를 겪으면서 완성되었다. 16세기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2813)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yukhl@ynu.ac.kr

1) 서원 연구에 관한 추이와 연구사적 정리는 고석규, 「조선 서원·사우에 대한 연구의 추이와 그 성격」, 『외대사학』창간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연구소, 1987 ; 정만조, 「최근 서원연구 동향에 관한 검토」,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 이수환, 「2000년 이후 한국 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민족문화논총』6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7 등이 참고가 된다.

2) 유홍렬, 「조선에 있어서 서원의 성립」, 『한국사회사상사논고』, 일조각, 1980, pp.39-114 ; 이태진, 「사림과 서원」, 『한국사』12, 국사편찬위원회, 1978.

3) 정만조, 「조선서원의 성립과정」,『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p.11.

4) 『선조실록』권41, 선조 26년 8월 3일.

중·후반은 관학과 사학의 사이에서 서원의 위치를 좌정하는 시기였다. 관학에 준하는 사학으로서 서원을 공인하는 사액과 제향인의 선정, 서원 운영의 기본 방향 등이 설정되던 시기였다. 본고는 이처럼 16세기 후반 새로운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였던 서원의 출현과 정비 과정을 재조명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당시의 제한된 자료 속에서 새로운 사실을 파악 한다기 보다는 기왕의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초창기 서원의 출현 배경과 성격을 살펴본다.

Ⅱ. 16세기 서원의 출현 배경

1. 조정에서의 교학진흥책

조선은 건국이후 유교진흥책에 의해서 성균관·四學·향교 등의 관학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성리학 보급과 관리 양성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들 관학은 관리 등용을 위한 과거를 준비하는 기구로 기능하였으며, 관리의 기강해이, 과거제 문란 등의 폐해가 발생하자 점차 쇠퇴의 조짐이 나타났다. 이들 관학제도는 세종대를 기점으로 완비가 되었지만 이때부터 관학의 쇠퇴 조짐이 나타나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갔다.[5] 이런 현상은 연산군대 더욱 심화되어 국학의 황폐화와 士風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중종반정이후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에는 훈구공신이나 사림세력 모두 공감하고 있었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났다. 훈구세력들은 성균관·사학의 수리와 향교 교생에게 賦役을 면제해 주는 조처를 취하는 한편, 師儒의 선발을 통해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인식은 학교를 관리양성기구로 보는 시각을 고수하며, 관학의 필요성만을 표명한 것으로 士禍이후 士氣를 드높이거나 利祿만을 추구하는 유생의 폐습을 교정하는 대책으로는 미흡하였다. 그 결과 성균관·사학은 정원에 미달하였고, 향교는 避役處로 인식되어 취학 유생들 가운데에는 글귀도 못 읽는 자들이 많았다.[6] 이에 조광조를 중심으

5) 『세종실록』권41, 세종 10년 8월 21일 ; 권109, 세종 27년 9월 26일, 『문종실록』 권4, 문종 원년 10월 10일, 『세조실록』권2, 세조 원년 9월 8일 ; 권34, 세조 10년 10월 12일.

로 한 사림세력은 孔孟程朱의 道學[理學]을 천명하며, 그 실천 방안으로 『소학』의 장려, 尊賢, 학문을 매개로 한 사제관계의 형성을 주장하였다.[7)]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한 조선은 15세기를 거치면서 국가 주도하에 유교 이념이 점차 지방사회로 확산되고 있었다. 국가에서는 품관을 포함하여 일반 백성들에게 유교적 사회질서와 생활양식을 보급하여 그들을 교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소학』, 『삼강행실도』, 『주자가례』 등 유교 윤리서의 간행 및 보급을 추진하였고, 교육기관의 정비와 교육을 통한 유교 의례의 전파 및 실천 노력이 이어졌다.[8)] 그런 만큼 修身書인 『소학』의 장려는 훈구세력의 반발 없이 향촌사회에 보급될 수 있었다. 실제 사림들은 1515년(중종 10)에 『소학』과 『여씨향약』, 『근사록』 등을 간행·배포하였고, 1517년(중종 12)에는 경상도관찰사 김안국이 각 향교에 『소학』을 권하고, 『이륜행실도언해』·『여씨향약언해』·『正俗諺解』 등의 언해본을 간행하여 보급하면서, 향약을 시행하도록 하여 향촌사회 전 계층의 敎化 사업에 힘썼다. 비록 기묘사화(1519)로 이들 정책이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사림계 지방관과 재지사족들에 의해 사족부터 일반민에게까지 유교적 실천윤리가 보급되어갔다.

한편 세력이 미약했던 사림계는 훈구계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론을 대표하는 유림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했다. 이에 주자의 道統說에 근거하여 동방 도학 시조인 정몽주와 도학의 확산에 기여한 김굉필의 문묘종사를 청원하였다. 김굉필의 문묘종사는 그 제자였던 조광조 등 사림계의 도학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었기에 훈구계의 반발로 정몽주만이 문묘에 종사되었다. 당시 공신계 南袞은 정몽주의 문묘종사에 찬성하면서도 김굉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사우의 건립과 관에서의 致祭는 가능하다는 절충안을 제시하였다.[9)] 이처럼 유생의 교학진흥을 위해 특정인물을 제향하는 방법은 후일 사림의 존현처로서 서원이 발생하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10)]

사림은 학문을 매개로 한 師弟관계의 형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단순한 학문의

---

6) 『중종실록』권29, 중종 12년 8월 22일.
7) 정만조, 「조선서원의 성립과정」,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pp.12-23.
8) 정재훈, 「조선중기 사족의 위상」,『조선시대사학보』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pp.53~54.
9) 『중종실록』권29, 중종 12년 8월 20일.
10)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p.28.

전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도덕과 인격의 전수였다. 그런 점에서 사제 간의 의리는 대단히 중시되었고 스승에 대한 문인의 尊奉과 師說의 계승과 천명은 의무로 인식되었다. 조광조 등 사림계에 의해 강조된 師友之道는 16세기 중반 이후 성리학의 宗師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철학과 이론 체계가 갖추어지고, 이를 계승할 후계자 그룹이 형성되면서 '學派'가 갖춰지는 토대가 되었다.[11] 학파의 형성은 관학의 쇠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藏修와 朋友講習을 표방하는 서원이 출현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처럼 제도권 내에서 훈구와 사림계에 의한 교학진흥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국학 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훈구세력이나 사림세력이나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대안 교육기관의 모색은 필연적이었지만 사림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사과 魚得江의 발언은 당시 조정에서도 서원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42년(중종 37) 어득강은 중국에서 碩儒들이 精舍·서원 등의 私學을 건립하여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음을 사례로 들며, 조선에서도 충청·전라·강원·경상좌·우도 등에 사찰을 하나씩 지정하여, 도내 명유를 불러 모은 후 사중절에 상·하재로 나누어 독서하는 것을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나아가 주군의 學田에서 나오는 소출로 경비를 보조하고, 부족한 것은 관에서 보태도록 제안했다. 그리고 관질이 높은 수령을 시관으로 삼아 두 명의 교수 혹은 현감까지 3인을 거느리고 제술을 시험하여, 생원·진사는 문과의 관시·한성시·향시에 응하도록 자격을 주고, 유학은 생원·진사시의 복시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풍이 진작될 것이라고 보았다.[12]

어득강의 이 제안은 과거만으로 학문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명유를 초빙하여 1년에 4차례 居接형식의 강독회를 제안한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상설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사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관이 그 설립과 운영을 주관하도록 구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득강은 학교와 과거제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강학과 인재선발 방식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서원의 제향기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당시 훈구계는 사림계가 과거제의 문란과 사장학의 浮薄함을 공박하는 것에

11) 이근호, 「조선시대 성리학 학파의 지역성과 문화권-삼남지역을 중심으로-」,『한국학논총』41,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p.105.
12) 『중종실록』권98, 중종 37년 7월 27일.

대하여 사장과 經學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거제를 대처할 것은 없다고 보았다.[13] 이런 점에서 어득강이 주장하였던 사중절의 교육은 사장과 經術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1542년(중종 37) 주세붕이 문성공묘를 건립하고, 이듬해 강당과 재를 건립하여 백운동서원을 완비한 것은 바로 훈구공신계 내부에서 이전부터 유현에 대한 사묘 건립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학 건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교육도 과거합격을 목표로 사장과 경술을 함께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재야에서의 교학진흥책

연산군부터 명종까지 4차례 士禍를 겪으면서 사림들은 출사보다는 은거하여 爲己之學에 힘썼다. 혹 사환을 하더라도 중앙보다는 지방관으로 나아가길 원하였다. 이러한 시기 퇴계는 당시 조선사회에서 시급한 과제는 집권층의 권력을 이용한 私利 추구를 배제하고, 公道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료사회의 부패는 士習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학의 성격을 유생강학과 修己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퇴계는 각 지방에서 성장하고 있던 신진사림들에게 희망을 걸고, 이들에게 주자학적 정치이념과 학문체제를 훈도하고 수련시킴으로써 성리학적 향촌질서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사림의 시대를 준비하였다. 퇴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송대 주자에 의해서 창안된 지방사학으로서의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4]

그러나 서원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서원을 매개로 한 사림의 양성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다. 퇴계도 낙향한 후 서당을 설립하여 후학을 양성하고, 그 후 문인들과 함께 서원 건립을 이어갔다. 당시에는 이전의 사화로 낙향하거나 은거하여 학문을 닦는 사림들에 의해 정사·서당·서실 등의 私學이 전승되고 있었다. 향촌에 숨거나 유배된 사림들은 산간의 경승지에 精舍를 세워 장수유식의 장소로 삼거나, 서당과 서실을 개설하여 문도의 訓誨에 힘쓰기도 했다.

일례로 김일손은 남계에 청계정사를 세워 정여창 등과 함께 講道하였고, 박하담은 기묘사화를 전후하여 과거를 포기하고 雲樹亭[立巖精舍]를 세워 조식·주세

13) 『중종실록』권29, 중종 12년 8월 30일.
14) 정만조, 「퇴계 이황의 서원론」, 앞의 책(1997), pp.60~67.

붕 등과 교유하며 학문을 닦았다. 李耔도 1529년(중종 24) 충주의 토계에 劒巖精舍를 세워 이장길·김공석 등과 강학처로 삼았다.[15] 李恒도 기묘사화 후 보림산 기슭에 정사를 세워 장수처로 삼았다. 당시의 신진사류들은 이들이 기거하는 곳을 찾아와 강학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림 내의 정사 건립은 남송대 주자의 강학소였던 武夷精舍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이외에도 기묘사화 이후 김안국은 고양 망동에 퇴거하여 집을 짓고 恩休[六務堂]라 이름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다.[16] 성수침도 기묘사화 이후 과거를 포기하고 장단[파주] 백악산에 서실을 짓고 講書하였다.[17] 조광조의 문도인 조욱도 기묘사화 후 과거를 포기하고 1522년(중종 17) 삭녕(연천)에 서실을 짓고 강학하다가, 지평으로 이거하여 1547년(명종 2) 서재를 짓고 후학을 양성하였다.[18] 송인수도 기묘사화 이후 사천의 謫所에서 후학을 양성하여 구암 李楨을 배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화 발생이후 향촌에 은둔한 사림들은 성리학을 강구하는 한편 정사·서당 등의 사학을 열어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다.

이처럼 16세기에는 성격이 분화되지 않은 채 家塾, 書齋, 精舍, 書堂 등 다양한 형태의 사학이 혼재되어 있었다. 특히 정사·서재·서당 등의 역할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운용되었던 사례들이 자주 확인된다. 1608년(선조 41)에 제작된 『永嘉誌』에는 안동지역 서당 17개소, 정사 5개소, 서재 1개소를 '서당조'에 함께 소개하고 있다. 그만큼 이들의 성격이 유사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면 여강서원·삼계서원·병산서원은 '서원조'로 구분하고 있다.[19] 이것은 조선 초기의 정사, 서재, 서당과 16세기 중엽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서원과는 그 성격이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서원은 1543년(중종 38) 백운동서원이 설립된 이래로 선현의 제향과 유생의 장수처라는 제향과 교육의 양 기능을 동시에 가지면서 기존 사학들과 대별되었다. 아울러 이황의 요청으로 1550년(명종 5) 소수서원으로 사액되면서 국학에 준하는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서당의 경우에도 서원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6세기 이전 서당은 특정인물에 주도되지 않았고 학파적 성향을 보이도 않았으며, 비혈연적이고 비

15) 정여창, 『일두선생연보』 연산군 4년조 ; 박하담, 『소요당유고』연보, 축소요기조 ; 이자, 『음애집』 행장.
16) 김안국, 『사재집』권3, 육무당기.
17) 성수침, 『청송집』권2, 행장.
18) 조욱, 『용문집』 연보.
19) 權紀, 『永嘉誌』卷4, 「書院」, 「書堂」.

종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16세기 중엽 이후 출현하는 서당은 사림세력들의 중소 지주적 기반을 토대로 재지적·학파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비교된다.[20] 그런 점에서 16세기 서당의 경우 동몽교육에 관한 공적인 논의나 규정에서는 庶人을 교육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설립된 서당은 현실적으로 사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16세기 사림의 성장이 두드러졌던 안동과 예안에서는 대부분의 서당, 정사가 1549년(명종 4) 퇴계가 낙향하여 강학을 시작한 이래로 그의 문인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설립되고 있다. 이들은 退休處, 藏修處, 자제와 童蒙 교육 등의 목적으로 서당과 정사를 건립 하였다. 한편으로는 동문간의 경학 연구와 유생들을 대상으로 講會를 개최하면서 학적 연대를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양파서당과 면제서당과 같이 '里人爲養蒙創立', '縣人爲養蒙構之'이라 하여 해당 고을의 서민 자제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되기도 했다.[21]

대체로 사족을 대상으로 건립된 서당·정사가 강학과 장수, 자제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면, 하층민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립된 서당은 사족지배체제의 정착과정에서 일반민들에 대한 교화가 목적이었다. 조정에서는 1546년(명종 1) 童蒙訓導를 두어서 사족과 범민의 아이들을 구분치 말고 『소학』과 사서를 교육하도록 했던 예조사목[22]을 반포하였다. 이 조처로 서당의 교육과정이 확립된 후 모든 서당에서의 교육은 『소학』을 기본으로 하되, 諸生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四書뿐만 아니라 성리서까지 익혔다. 특히 안동에서는 1549년(명종 4) 낙향한 이황이 후학 양성을 위해 계상서당(1551)과 도산서당(1560)에서 經學과 禮學, 心學 등의 수준 높은 강학을 진행하면서 道學적 서당의 전형을 보여준 이래로 그의 제자들에 의해 도학적 성격의 서당이 설립되었다.[23]

이렇게 발생한 서당과 정사 가운데 훗날 서원으로 발전한 것도 많았다. 그것

---

20) 서당의 설립과 운영에 교화의 책임을 맡은 수령이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사림계 수령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는데, 상주목사 신잠과 성주목사 황준량 등이 대표적이다. 상주목사 申潛(1491~1554)은 1551년(명종 6) 부임하여 18개의 서당을 세웠는데, 이중 일부는 17세기에 서원으로 승원하였다.(成樀 編, 『商山誌』卷1, 「書堂」). 성주목사 黃俊良(1517~1563)은 1560년(명종 15) 문묘를 중수하고, 마을 동쪽 孔谷에 현인들의 요청에 따라 孔谷書堂을 세우고, 팔거현에는 鹿峰精舍를 세웠다.(黃俊良,『錦溪先生文集』卷9, 「行狀」).

21) 이병훈, 「16세기 안동지역 재지사족의 성장과 서당 건립활동」, 『민족문화논총』6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8, pp.90-91.

22) 『명종실록』권3, 명종 1년 6월 16일.

23)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2, pp.96-110.

은 관학의 쇠퇴, 사화로 인한 은둔, 선현에 대한 私淑 등의 이유로 사림의 집결소로서 강학·장수처라는 시대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처음 서원이 건립되었을 때에는 지방 학제를 진흥하기 위한 한 방책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사림의 강학·장수를 목적으로 한 서원의 성격은 퇴계에 의해 정립되고, 16세기 중반이후 그와 그의 문인들에 의해 보급되어 갔다. 이러한 새로운 敎學체제의 확립은 선초 이래 있어온 중앙통제방식의 관학적 敎化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향촌사림 위주의 새로운 교화체제의 전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Ⅲ. 초창기 서원의 건립과 정비

조선에서 '서원'이라는 명칭은 세종대부터 확인된다.[24] 그러나 당시의 서원은 서당·서재와 같은 私塾을 일컫는 것으로 유생 강학과 선현 제향을 목적으로 건립된 서원과는 그 성격이 달랐다. 조선에 있어서 서원은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건립에서 출현했지만 이후 서원을 조선사회에 보급·정착시키고 그 성격을 규정하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퇴계 이황이었다. 그러나 서원이라는 새로운 교학 시스템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인적·물적·제도적 결정권을 가진 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 기반 위에서 사림의 자율성과 관의 지원을 확보하여 점차 사림 주도의 서원으로 변화되어 갔다. 그 과정에서 16세기의 서원은 관학을 대처하는 비등한 지위의 교학기구로 자리하고, 중국의 서원과는 다른 조선 서원의 전형을 갖춰갔다.

즉 조선의 서원은 국가 집중형 교육구조로부터 향촌이 중심이 되는 분권형 교육구조로 전화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 서원은 결코 국가의 권력이나 교육정책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았다. 서원은 향촌내부의 힘과 외부의 국가권력이 함께 작용하는 공간이었다. 국가와 향촌사회는 서원이라는 완충지대를 매개로 상호 결합하거나 혹은 갈등하면서 발전해갔다.

서원은 지방관, 향인, 후손, 문인 등 다양한 인사들의 협력 하에 설립되어갔다. 이런 양상은 대부분의 서원에서 공통된 점이다. 다만 건립을 처음 주장하고

24) 『세종실록』권2, 세종 즉위년 11월 3일 ; 권7, 세종 2년 1월 21일 ; 권9, 세종 2년 9월 24일 ; 『성종실록』권277, 성종 24년 5월 13일. 성종실록에 나오는 서원은 성종 23년 설립한 독서당을 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공역과 운영을 주도한 세력에 따라서 차이가 날뿐이다.[25] 특히 초창기 서원들에서는 지방관이 건립과 운영을 선도하는 사례가 많다. 재정과 인원을 동원하는 데 유리하고, 서원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향인들의 침해도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조처는 서원에 우호적인 지방관에 한정되고, 사림의 자율성이 일정부분 제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초창기 서원의 정착과 보급에서는 필요한 과정이었다.

<표 1>은 16세기에 건립된 서원을 정리한 것이다. 중종대 백운동서원을 시작으로 명종대 18개소, 선조대 48개소가 설립되었다. 이 가운데 명종대에 5개소, 선조대에 14개소가 사액되었다. 특히 선조대에는 즉위 초반에 사액이 많았다. 제향인을 보더라도 서원이 건립된 지역 출신의 유현을 우선하였으며, 후대로 내려올수록 그들이 사망하거나, 귀향한 곳에서도 서원 건립이 이어졌다. 한편으로는 중국 聖賢들의 화상이 있거나 그들이 거주했던 곳과의 지명이 유사하다는 이유 등으로 성현을 제향하기도 했다. 그 외에는 건립을 주도했던 인물이 사망한 후 제향하는 사례도 있다.

<표 1> 16세기 건립 서원 현황

지역	명칭	건립연도	사액연도	제향인
경상 풍기	白雲洞書院 [紹修書院]	1543(중종 38)	1550(명종 5)	안향·안축·안보 1542년 문성공묘
황해 해주	文憲書院 [首陽書院]	1549(명종 4)	1555(명종 10)	최충·최유선
경상 함양	濫溪書院	1552(명종 7)	1566(명종 21)	정여창
경상 영천	臨皐書院	1553(명종 8)	1554(명종 9)	정몽주
경상 신녕	白鶴書院 [白鶴書堂]	1555(명종 10)		이황·황준량
충청 보은	象賢書院 [三年城書院]	1555(명종 10)	1610(광해 2)	金淨
경상 의성	氷溪書院	1556(명종 11)	1576(선조 9)	김안국·이언적
강원 강릉	五峯書院	1556(명종 11)	1556(명종 11)	공자

25) 정만조, 「17~18세기의 서원·사우에 대한 시론」, 앞의 책(1997), pp.107-133.

경상 성주	迎鳳書院 [川谷書院]	1558(명종 13)	1573(선조 6)	정이·주희·김굉필· 이조년·이인복
경상 榮川	伊山書院	1559(명종 14)	1574(선조 7)	이황
경상 경주	西岳書院	1561(명종 16)	1623(인조 1)	김유신·설총·최치원
함경 함흥	文會書院	1563(명종 18)	1575(선조 8)	孔子
경상 합천	淸溪書院	1564(명종 19)		이희안
전라 순천	玉川書院	1564(명종 19)	1568(선조 1)	김굉필
경기 이천	雪峯書院	1564(명종 19)		서희·이관의·김안 국·최숙정
경상 대구	硏經書院	1564(명종 19)	1660(현종 1)	이황(17C)
평안 평양	仁賢書院	1564(명종 19)	1608(선조 41)	箕子
함경 안변	玉洞書院	1566(명종 21)	1592(선조 25)	李繼孫
경상 밀양	禮林書院 [德城書院]	1567(명종 22)	1669(현종 10)	김종직
경기 파주	坡山書院	1568(선조 1)	1650(효종 1)	성수침
경상 현풍	道東書院 [雙溪書院]	1568(선조 1)	1574(선조 7)	김굉필
경상 예천	金谷書院	1568(선조 1)		박충좌
경상 청도	仙巖書院	1568(선조 1)		김대유·박하담
전라 화순	竹樹書院	1570(선조 3)	1570(선조 3)	조광조
경상 선산	金烏書院	1570(선조 3)	1575(선조 8)	길재·김종직·정붕· 박영
경상 안동	易東書院	1570(선조 3)	1683(숙종 9)	우탁
충청 청주	莘巷書院	1570(선조 3)	1660(현종 1)	이이·이색·경연·박 훈·송인수
충청 논산	杏林書院	1570(선조 3)		徐益
경상 경주	玉山書院	1573(선조 6)	1574(선조 7)	이언적

경기 개성	崧陽書院	1573(선조 6)	1575(선조 8)	정몽주·서경덕
경기 양주	道峯書院	1573(선조 6)	1589~1631	조광조
전라 김제	雙溪書院	1573(선조 6)		崔湜·崔應三·景居綸
경상 예안	陶山書院	1574(선조 7)	1575(선조 8)	이황
전라 김제	龍巖書院	1575(선조 8)		趙簡
경상 안동	虎溪書院 [廬江書院]	1576(선조 9)	1676(숙종 2)	이황
경기 용인	忠烈書院	1576(선조 9)	1609(광해 1)	정몽주
경상 산청	德川書院 [德山書院]	1576(선조 9)	1609(광해 1)	조식
경상 합천	龍巖書院 [晦山書院]	1576(선조 9)	1609(광해 1)	조식
평안 희천	象賢書院	1576(선조 9)	1720(숙종 46)	김굉필·조광조
전라 정읍	南皐書院	1577(선조 10)	1685(숙종 11)	李恒·金千鎰
전라 광주	月峯書院	1578(선조 11)	1654(효종 5)	기대승
전라 전주	華山書院	1578(선조 11)	1658(효종 9)	이언적·송인수
경상 청도	紫溪書院	1578(선조 11)	1661(현종 2)	김일손
황해 벽성	紹賢書院 [隱屛精舍]	1578(선조 11)	1610(광해 2)	朱子
전라 남원	滄洲書院 [古龍書院]	1579(선조 12)	1600(선조 33)	노진
경기 여주	沂川書院	1580(선조 13)	1625(인조 3)	김안국
충청 제천	南塘書院	1580(선조 13)		이황
충청 공주	忠賢書院 [孔巖書院]	1581(선조 14)	1625(인조 3)	주자·이존오·이목·성제원
경상 함양	溏洲書院	1581(선조 14)	1660(현종 1)	盧禛
충청 충주	八峯書院	1582(선조 15)	1672(현종 13)	李耔·李慶延

경상 함양	龍門書院	1583(선조 16)	1662(현종 3)	정여창
전라 나주	景賢書院	1583(선조 16)	1609(광해 1)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
황해 서흥	花谷書院	1584(선조 17)		김굉필
경상 합천	伊淵書院	1587(선조 20)	1660(현종 1)	김굉필·정여창
경상 인동	吳山書院	1588(선조 21)	1609(광해 1)	길재
경상 안동	三溪書院	1588(선조 21)	1660(현종 1)	권벌
경상 영일	烏川書院	1588(선조 21)	1613(광해 5)	정몽주
경상 김해	新山書院	1588(선조 21)	1609(광해 1)	조식
황해 황주	白鹿洞書院	1588(선조 21)	1661(현종 2)	朱子
황해 신천	正源書院	1588(선조 21)	1710(숙종 36)	주자·조광조·이황·이이
황해 안악	鰲峰書院	1588(선조 21)	1697(숙종 23)	주자·이이
전라 장성	筆巖書院	1590(선조 23)	1662(현종 3)	김인후
전라 강진	瑞峯書院	1590(선조 23)		李後白
전라 전주	黃岡書院	1592(선조 25)		이문정·이백유·이경동·류인홍·강해우
경기 지평	雲谿書院	1594(선조 27)	1713(숙종 39)	趙昱·趙晟
충청 한산	文獻書院	1594(선조 27)	1611(광해 3)	이곡·이색
황해 연안	飛鳳書院	1596(선조 29)	1682(숙종 8)	주자·최충·김굉필·이이

※ 임근실, 『16세기 영남지역 서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p.25의 <표 Ⅱ-7>을 일부 수정하여 재인용함.

이처럼 16세기 서원은 선조대 사림파가 집권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으로는 명종대를 거치면서 조선 서원의 典型이 정비되어갔다. 그것은 사림의 강학·장수처로서의 성격 정립과 사액을 통한 국가의 공인, 제향인의 선정, 서원 운

영의 원칙 등으로 대별된다. 또한 이러한 조선 서원의 전형은 퇴계 이황에 의하여 그 초석이 완성되었다.

1. 초창기 서원의 건립과 성격 변화

1) 관학 보조기구로서의 서원

백운동 서원은 풍기군수 주세붕의 주도로 건립되었다. 그는 지역의 교화를 위해 1542년(중종 37) 향현인 安珦의 사묘[文成公廟]를 백운동의 숙수사 터에 세우고, 이듬해에 사묘 옆에 서원[堂齋]을 건립하였다. 이처럼 사우를 먼저 건립한 것은 백운동서원 건립이 강학보다 제향을 우선하였음을 나타낸다. 주세붕은 사우를 건립한 후 서울에 거주하는 후손 안정의 집에서 안향의 영정을 옮겨와 봉안하였다. 한편, 서원을 낙성한 이듬해인 1544년(중종 39) 안축·안보 형제를 종향하였다. 이들의 종향은 서원에 주향자 이외에도 다른 자를 배향하는 전례를 만들었다.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건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수령으로서 재정과 인원을 동원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숙수사 터에서 출토된 수백 근의 유기를 팔아 藏書를 마련하고 수결의 전토를 획급하였는데, 향유 황빈이 부조한 租 75섬을 보태어 향사와 유생 공궤의 자금으로 삼도록 했다. 특히 경상도 관찰사로 재직하고 있던 안향의 11대손 안현의 광범위한 지원은 백운동서원이 빠르게 정착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또한 안현은 전 사간 황효공, 도사 정준, 군수 유경장, 전정랑 안공신, 차사원 황준량 등과 함께 「斯文立議」를 작성하여 서원 운영 전반에 대한 틀을 완성하였다. 이 입의에는 춘추향사와 유생들에 대한 처우, 유생 정원을 포함한 제반 학규 등이 상세하게 거론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서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관리를 사실상 관에서 관장하도록 조치한 사실이다.[26] 이러한 조처는 사실상 관아

26) 일례로 우수사에게 靑魚基 3곳, 웅천관아를 비롯한 각 관아에 2,220관을 할당하는 등 서원 경영에 관의 힘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다. 또한 寶米를 출납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 관에서 차사를 보내어 받아내고, 수량이 부족하면 관의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매년 보미와 전답, 서책, 노비의 실태를 관에서 회계 감독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전답 30결에 대한 경작인의 잡역을 면제하고, 수철과 염분 2좌를 울산 관아에서 매입하여 매월 여기에서 나오는 소금과 목면을 원장과

에서 서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물자를 충당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관에서 관리 감독한 관 중심의 운영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그렇기에 운영 과정으로만 본다면 백운동서원은 사학과 관학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16세기 전반까지 기존의 향교 중심 관학체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백운동서원이 설립된 이래로 서원이 확대되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당시 유생들이 서원에 대해 걸었던 기대는 다소 이중적이었다. 첫째는 이미 확립된 기존 관학과 함께 성리학의 전수와 확산에 기여하는 보완적 교육기관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향교를 대체할 대안적 교육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던 주세붕이 1549년(명종 4) 해주에 건립한 수양서원에서도 확인된다. 주세붕은 고려시대 사학 건립에 공헌한 최충의 사당이 폐허가 된 것을 새로 짓고 소수서원과 마찬가지로 당재를 건립하고는 수양서원이라 하였다.

최충의 사당은 1519년(중종 14) 해주향교의 문묘에 종향해오던 최충·최유선 부자의 위패를 철거한 후 향인들의 뜻에 따라 사문에 공이 있는 최충의 사우를 건립한 것이 기원이었다.[27] 이후 30년이 지나 폐허가 된 것을 주세붕이 새로 중건하고, 규모를 확장하여 서원으로 설립한 것이다. 이때 백운동서원과 규모를 같이 하면서,[28] 아울러 서적과 田民을 마련하여 유생들의 강학과 공궤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수년이 되지 않아서 유생들과 관아에서 藏書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건물의 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생원 金澤 등은 이러한 폐단이 조정에서 수양서원의 건립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사액을 요청하였다.[29] 그 결과 1555년(명종 10) 조정에서는 문헌서원으로 사액하고, 편액과 서적 등을 하사하였다.

수양서원 건립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은 백운동서원처럼 먼저 사당을 마련하고 이어서 서원을 지었다는 것이다. 서원의 교육적 기능보다 祀賢을 통한 교화적 기능을 우선하였던 주세붕의 의견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는 향교의

관아에서 함께 감독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사당과 서원 건물에 대한 보수 관리의 책임도 일체 관에서 지도록 하였다(「사문입의」). 1556년(명종 11)의 「등록」에는 서원에서 상시 숙식하는 거접 유생 10명을 위하여 상주훈도를 초치하고, 인접한 榮川·봉화·안동·의흥·의성·예천·용궁·비안·진보·청송·군위 등의 관아에서 백미와 된장, 등유 등을 갖추어 보내도록 한 것이 확인된다.

27) 『중종실록』권35, 중종 14년 1월 6일.
28) 『명종실록』권33, 명종 21년 6월 15일.
29) 『명종실록』권18, 명종 10년 2월 25일.

서쪽에 서원을 건립한 것이다. 이는 초창기 서원의 성격이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서원이 향교를 대처할만한 동일한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국학을 보조하는 곳으로 인식한 것이었다. 그것은 교육과정에서도 확인되는 데 수양서원에서는 관리양성을 위한 육례 즉 과업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실제 이러한 인식은 이황이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청원하는 글에서도 확인된다.[30]

> … 우리 동국의 교도하는 방법은 한결 같이 중국의 제도를 따라서 중앙에는 성균관과 사학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으니 아름답다 하겠으나, 유독 서원을 설치하였다는 말만은 아직 들은 적이 없으니, 이는 곧 우리 동방의 큰 결점입니다. 周侯(주세붕)가 비로소 서원을 창건하자 세속에서 자못 의심하고 괴이하게 여겼으나, 주후의 뜻은 더욱 독실하여 사람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방을 물리치면서 이 전례에 없던 장한 일을 단행하였으니, 아, 하늘이 아마도 이로 말미암아 우리 동방에 서원의 교육을 일으켜 중국과 같아지도록 하려는 것인가 봅니다. … 내가 보건대 지금 국학은 원래 현명한 선비가 관여하고 있지만 저 군현의 학교는 한갓 허울만 남았고 가르침이 크게 무너져, 선비들이 도리어 향교에서 지내는 것을 수치로 여겨 시들고 피폐함이 극심하여 구제할 방법이 없으니, 한심하다 하겠습니다. 오직 서원 교육이 오늘날 성대하게 일어난다면 무너진 學政을 구제할 수 있어 학자가 귀의할 바가 있고, 士風이 따라서 크게 변혁되고 습속이 날로 아름다워져서 왕의 교화가 이루어질 것이니, 聖治에 조그마한 도움이 될 뿐이 아닐 것입니다.… [31]

퇴계는 인용문의 앞부분에서 성균관과 향교로 이어지는 관학체계가 어느 정도 완비되었지만 이를 보완해줄 서원이 활발하게 설립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거론함으로써 서원을 관학의 보완적 교육기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뒷부분에서는 향교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서원을 향교에 대신할 대안적 교육기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퇴계는 무너진 지방관학을 대신하여 서원 설립을 통해 교육을 새롭게 진흥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다.

서원에 대한 퇴계의 기대는 세세한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며 선비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였다.

> 은거하여 뜻을 구하는 선비와 도학을 강명하고 학업을 익히는 사람들이 흔히

30) 李滉, 『退溪先生文集』卷9, 書, 「上沈方伯(通源 己酉)」.
31) 李滉, 『退溪先生文集』卷9, 書, 「上沈方伯(通源 己酉)」.

> 세상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것을 싫어하여 서책을 싸 짊어지고 넓고 한적한 들판이나 고요한 물가로 도피하여 선왕의 도를 노래하고, 조용히 천하의 의리를 두루 살펴서 덕을 쌓고 仁을 익혀 이것으로 낙을 삼을 생각으로 기꺼이 서원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국학이나 향교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곽 안에 있어서 한편으로 學令에 구애되고 한편으로 科擧 등의 일에 유혹되어 생각이 바뀌고 정신을 빼앗기는 것과 비교할 때 그 공효를 어찌 동일 선상에 놓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말하자면 선비의 학문이 서원에서 역량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인재를 얻는 데도 틀림없이 서원이 국학이나 향교보다 나을 것입니다. … 진실로 先正의 자취가 남고 향기가 뿌려져 있는 곳, 예를 들어 崔冲、禹倬、鄭夢周、吉再、金宗直、金宏弼 등이 살던 곳에 모두 서원을 건립하되 혹은 조정의 명에 의하고 혹 사사로이 건립하여서 책을 읽고 학문을 닦는 곳이 되어 聖朝의 학문을 존중하는 교화와 태평한 세상의 교육의 융성을 빛내고 드높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장차 우리 동방 文敎가 크게 밝아져 鄒魯나 閩越과 더불어 훌륭함을 나란히 일컫게 될 것입니다.[32]

한편 퇴계는 서원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관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서원이 더욱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야의 선비 가운데 一世의 師表가 될 만 한 자를 洞主나 山長으로 두어 교육을 관장토록 해야 하며, 그것의 실현은 관찰사의 재량과 조정의 가부 논의에 달렸다고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서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흥학을 위해 서적과 토지, 노비를 지급해주길 요청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1550년(명종 5) 편액과 서적,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고, 토지는 주세붕이 마련해준 것을 인정하고, 노비는 그 수익에서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감사와 수령의 단속을 제한하여 사림의 자율성을 보장토록 했다.[33]

이상과 같이 초기 서원에 대한 인식은 사묘와 서원이 별개로 간주되어 서원은 사묘의 부수적 존재로 여겼다. 실제 주세붕 본인도 존현처인 사묘가 있기 때문에 서원을 두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문입의」에서도 문성공묘와 백운서원으로 사묘와 서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서원을 유생의 장수처가 중심인 것으로 보고, 그들의 마음을 흥기하기 위한 사묘가 부설되어 있는 강당과 사묘를 같이 갖춘 형태는 16세기 후반 퇴계 이황에 의해 나타났다.

교육방법도 과거 중심으로서 관학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즉 백운동서원이

32) 李滉, 『退溪先生文集』卷9, 書, 「上沈方伯(通源 己酉)」.
33) 『명종실록』권10, 명종 5년 2월 11일.

건립된 초기에는 관학의 보완적 교육기구로 인식됐던 것이다. 그러나 퇴계는 사액을 요청한 글에서 관학을 대처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기구로 서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기존 관학과는 교학이념과 성격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 유생의 강학과 장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조선 서원의 성격은 퇴계가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요청하는 때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2) 사림 자치기구로의 전환

소수서원에 이어 건립된 남계서원은 설립과 사액 과정에서 소수서원과 형식을 달리한다. 남계서원의 설립은 사림 세력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남계서원은 송대 서원이 가진 관학과 사학의 절충형태를 탈피하여 조선 서원의 고유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소수서원 창건 이후 이렇게 빠른 시간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서원에 대한 관의 과중한 지원이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조정에서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34)]

남계서원은 1552년(명종 7) 함양의 진사 강익 등이 주도하여 정여창을 제향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1517년(중종 12)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세력은 피화인들에 대한 복권과 함께 정몽주와 김굉필에 대한 문묘종사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김굉필이 도학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중신들이 문묘종사를 반대하고, 그 대신 그가 講道한 장소에 사우를 세워 致祭하자는 의견을 내었다. 이때 정여창 역시 김굉필과 동일하게 사우를 세워 치제하는게 맞다는 의견이 나왔다.[35)]

예조에서도 도를 강론하던 곳에 사당을 세워 치제하기를 청하였는데, 의정부에서는 관의 치제가 아니라 祭需만을 주어서 私家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다.[36)] 조정에서 私廟에 대한 제수 관급으로 결정하자, 사림들도 의례상 公祭를 사묘에서 지낼 수는 없었기에 정여창에 대한 향사 논의는 중지되었다. 그런 가운데 소수서원의 건립은 함양 유림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었던 것이다.[37)]

---

34) 정순우, 앞의 책(2013), pp.65~75.
35) 『중종실록』권29, 중종 12년 8월 20일 ; 권36, 중종 14년 7월 30일.
36) 『중종실록』권29, 중종 12년 9월 24일.
37) 『명종실록』권33, 명종 21년 6월 15일.

1552년(명종 7) 함양의 사림들이 정여창이 도학을 강설한 장소에 서원 건립을 시작하였을 때 당시 군수였던 서구연이 물력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그 지원 규모는 절대적으로 소수서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소수서원과 같은 관찰사의 파격적인 지원도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당시 물력을 지원하던 군수 서구연이 사우를 세우고 강당을 조성하던 중 체직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1559년(명종 14)에야 비로소 완공을 하였다.

소수서원 건립 당시 2년이 걸리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지방관의 개입과 지원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실제 기부 내역을 적은 남계서원『袞寶錄』을 보면 1552년(명종 7) 건립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서원 운영에 관의 협조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소수서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였다. 그렇기에 함양지역 사림들이 그만큼 물자를 출자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함양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던 남명 문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반면 영천의 임고서원은 1553년(명종 8) 건립을 시작하여 1554년(명종 9) 완공할 때까지 鄕父老와 유생들이 주도적으로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영천에서 태어나고 수학한 정몽주의 가묘와 서원 건립을 통해 풍속을 돈독히 하고 後生을 격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찰사 정언각에게 허가를 받은 후 향유들 스스로 資材를 내어 가묘를 먼저 완공하고 서원 건립을 이어갔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소수서원만큼은 아니지만 영천군수 李義의 인적·물적인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임고서원은 사림의 주도로 1554년 완공되었으며, 곧바로 청액하여 그 해에 사액되었고 서책·노비·전결도 함께 하사되었다.[38]

임고서원이 단기간에 건립되고 나아가 사액까지 가능했던 데에는 제향자인 정몽주가 문묘 종사 대현이라는 점과 사림 내에서 높은 비중을 가진 퇴계 이황의 영향이 컸다. 퇴계는 임고서원의 건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즉 창건을 주도하고 사액을 청원하였던 김응생·정윤량·노수 등은 모두 퇴계의 문인들이었으며, 퇴계 본인은 임고서원의 규모와 절목의 제정, 봉안문 및 각종 예식 문자의 찬술뿐만 아니라 서적도 희사했다.[39]

임고서원보다 이른 시기에 건립을 시작했지만 늦게 완공되었던 남계서원은

38) 『명종실록』권16, 명종 9년 6월 14일, 7월 11일.
39) 김학수, 「17세기 초반 영천유림의 학맥과 장현광의 임고서원 제향논쟁」,『조선시대사학보』35, 조선시대사학회, 2005, p.50.

남명 조식과 그 문인들의 회합과 강학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1563년(명종 18)에는 남명이 여러 문인들과 강론하였으며, 1565년(명종 20)에는 오건이 『주자연보』를 강론하였다. 1564년(명종 19)에는 함양군수로 부임한 남명의 고제 김우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동·서재를 건립하였다.

한편, 강익 등의 함양 사림들은 남계서원이 一邑의 사설 서원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사액을 청원하였다. 이들은 소수서원과 임고서원의 사례에 따라 노비와 전토를 획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즉 사액을 통해 향사를 관이 인정하는 公祭로 설행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결과 1566년(명종 21) 서원 곁 시내의 이름을 따서 남계서원으로 사액을 받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훈구공신계 수령의 주도로 처음 서원이 건립되었지만 그 후의 서원들은 일향 사림들에 의해 발의되고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지방관의 허가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지만 점차 사림주도의 서원 건립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16세기 중반에는 서원의 효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향인과 수령들이 많았다. 그렇기에 퇴계는 서원의 정착을 위해 '儒臣 가운데 사림의 모범이 되는 인물을 지방관으로 임명'하도록 당부하였다.[40]

즉 서원에 대한 이해가 높고 명망있는 지방관을 통해 부정적 인식을 쇄신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유신을 임명한다면 임금의 교화가 유생들에게 이어져서 한 나라의 학교로서 후세에 전해질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실제 이후부터 사액서원이 있는 곳의 수령은 고을의 규모에 상관없이 문과 출신의 문관을 임명하는 사례가 확인된다.[41]

한편으로는 서원이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유생들의 공론을 표방하면서 향후 정치권에서 서원이 지방 여론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단서가 되었다. 서원이 정치적 사안에 관여한 첫 사례로는 1551년(명종 6) 소수서원 유생들의 상서가 있다.[42] 당시 수렴청정을 하던 문정왕후는 1550년(명종 5)에 불교의 선종

40) 李滉, 『退溪先生文集』卷9, 書, 「上沈方伯(通源 己酉)」.

41) 실제 조정에서는 先儒의 서원이 있다는 이유로 예안과 풍기, 희천 등에 문관을 수령으로 차정하여 보내면서, 사풍을 진작시키도록 하였다(『선조실록』권115, 선조 32년 7월 11일 ; 권129, 선조 33년 9월 3일 ; 권178, 선조 37년 9월 12일). 이러한 조처는 당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이었다. 아마도 퇴계의 백운동서원 청액 당시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서원이 남설되면서 그러한 조건을 맞추기 어려웠기에 그 기준이 점차 쇠퇴·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42) 『명종실록』권11, 명종 6년 4월 13일 ; 권12, 명종 6년 10월 15일.

과 교종을 복립하라는 왕명을 내렸다. 이에 소수서원 유생들은 사림의 공론을 대표하여 조선의 통치이념에 반하는 명령을 내린 문정왕후와 회암사 승려 보우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때의 유소는 당쟁과 무관한 것이었지만 16세기 후반 붕당정치가 본격화되고 개별서원이 특정 당파로 급격하게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서원에 대한 국가의 공정한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17세기 이래로 남계서원이 정인홍을 중심으로 하는 북인계 인물과 이에 반대하는 남인계 그리고 서인세력 간의 갈등과 알력으로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지방정치의 공간으로 변한 사실은 서원에 대한 국가 통제력의 상실이 가져온 결과였다.

2. 초창기 서원의 정비 과정

1) 서원의 국가 공인과 통제로 이용된 사액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은 이황의 청원으로 사액 받으면서, 최초의 사액 서원이 되었다. 사액 청원은 수령→관찰사→예조→국왕의 행정체계에 따라 진행되었다. 백운동서원은 풍기군수 이황이 관찰사 심통원을 통해 청원하였으며, 영천 임고서원은 김응생 등의 유생이 영천군수 이의를 통해 관찰사 정언각에게 청원하고, 정언각은 예조에 품의하였다.[43]

백운동서원은 1550년(명종 5) 국왕이 직접 '紹修書院'이란 편액을 써서 하사했다. '소수'란 '무너진 유학을 다시 이어 닦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소수서원은 '학문의 중흥'이란 큰 임무를 띠고 탄생했다. 임고서원은 영천의 별호인 臨皐와 益陽 가운데 '임고'로 사액 하였는데, 이는 지명을 따라 이름 짓는 전례에 따른 것이었다.[44] 당시 소수서원에 대한 사액이 특례 조치였다면, 임고서원에 대한 사액은 사액의 규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사액을 내리면서 서책과 토지, 노비를 함께 내려준 것은 소수서원과는 다른 점으로서 임고서원부터 행해졌던 것이다.

한편 서원의 사액 요청은 서원의 안정된 운영을 위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향촌교화의 일정한 역할을 서원이 담당하고 있음을 피력한 것이

43) 『명종실록』권16, 명종 9년 6월 14일.
44) 『명종실록』권17, 명종 9년 10월 10일.

다. 조정에서의 사액 결정은 서원의 향촌교화 역할을 인정한다는 증거이자 기대감을 표시한 것이었다.[45] 사액을 통해 서원은 향촌교화에 대한 국가의 공적인 인증과 사류의 장수처라는 사적인 부분이 함께 공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사학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의 국가의 공인이었다. 사액을 통해 국학에 준하는 대우를 받은 서원은 국가입장에서는 쇠퇴한 국학을 보조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사류는 자신들의 사적인 공간이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은 사액을 통해 교화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부여받았던 사류들이 스스로를 교화의 주체로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서원이 인재양성과 향촌교화에서 역할을 못할 때 국가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결과를 동반하였다.

사액은 국왕 스스로 사문을 신장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자, 정치적으로 士類에게 국왕의 권위를 표출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사액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국왕은 해당 서원의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왕권을 신장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 실제 명종과 선조는 사액을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명종은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실시하고, 윤원형 등의 외척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이들에 의한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과 숭불책은 국왕의 권위를 크게 실추 시켰다. 문정왕후가 사망하기 이전까지 제약된 왕권으로 실추된 권위를 만회할 방법은 興學에 있었다. 서원에 대한 사액은 이러한 흥학책의 일환이었다.[46] 국학의 보조기구로서 서원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사액을 통해 향촌 사류들에게 국왕이 스스로 吾道를 따르며 사문의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후사가 없는 명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선조는 최초의 방계출신 국왕이었다. 그렇기에 즉위 후 국왕의 권위를 신장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정통성 확보를 위해 생부를 덕흥부원군으로 추숭하고, 명종대 被禍된 자들에 대한 신원과 복직을 통해 조정을 쇄신하였다. 나아가 국가 주도하에 동방사현에 대한 追贈·贈諡 및 사적과 저서를 정리한 『國朝儒先錄』의 간행은 사림의 정통성과 집권 명분을 강화시켜 주었다. 선조는 이런 조처를 통해 사림의 지지 속에서 왕권을 강화해나갔다.

아울러 경전과 성리서, 史書, 의례서 등의 간행[47]과 함께 길재·김종직·정몽주·

45) 『명종실록』권13, 명종 7년 3월 28일 ; 권33, 명종 21년 6월 15일의 史論 참조.
46) 명종대 사액된 곳은 소수서원·임고서원·문헌서원·남계서원 등 4개소였다.

김안국·김굉필·조광조·이언적·이황 등 도학 상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과 피화인을 제향하는 서원에 사액을 내렸다.[48] 그것은 1570년(선조 3)부터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 등의 문묘종사 운동과 관련이 있었다.[49] 문묘종사는 배향자에 대해 권위를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으로서 군주와 사류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군주의 입장에서는 전조의 인물이 아닌 先王대에 피화된 인물을 배향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렇기에 선조는 사체의 중함을 들어 문묘종사를 거절하였다. 대신 그들을 배향한 서원에 대하여 거듭 사액을 내림으로써 유생들을 위로하고 유현들에 대한 존숭을 표하였다.

그러나 1574년(선조 7) 양주 유생들이 조광조를 제향하는 서원에 사액을 요청한 것은 '중국과 조선의 규모가 같지 않은데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심하기에 결단코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하였다.[50] 이후 선조는 조정 대신과 사류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사액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처럼 조야에서의 사액 요청을

47) 『선조실록』권3, 선조 2년 9월 4일 ; 권4, 선조 3년 7월 20일 ; 권5, 선조 4년 7월 8일 ; 권5, 선조 4년 11월 2일 ; 권6, 서조 5년 12월 19일 ; 권7, 선조 6년 1월 29일·30일, 2월 7일·20일, 3월 17일, 4월 12일, 8월16일, 9월 9일·24일 ; 권8, 선조 7년 1월 22일. 권9, 선조 8년 3월 7일 ; 권15, 선조 14년 12월 26일. 이에 따르면 선조초 『五禮儀』, 『儀禮經傳續』, 『朱子語類』, 『朱子大全』, 『心經附註』, 『韻會』, 『綱目』, 『資治通鑑』, 『宋史』, 『皇華集』, 『內訓』, 『學蔀通辨』, 『大學或問』, 『史略』, 『國朝儒先錄』, 『鄕約』, 외에 四書와 五經 등의 경전을 교서관에서 인출하였다.

48) 선조대에는 순천 옥천서원(김굉필, 선조 1), 화순 죽수서원(조광조, 선조 3), 성주 천곡서원(정이·주자·김굉필, 선조 6), 현풍 도동서원[쌍계서원](김굉필, 선조 7), 영천 이산서원(이황, 선조 7), 경주 옥산서원(이언적, 선조 7), **양주 도봉서원(조광조, 선조 7),** 선산 금오서원(길재·김종직·정붕·박영, 선조 8), 개성 숭양서원(정몽주·서경덕, 선조 8), 예안 도산서원(이황, 선조 8), 함흥 문회서원(공자, 선조 8), 의성 빙계서원(김안국·이언적, 선조 9), 안변 옥동서원(이계손, 선조 25), 남원 창주서원(노진, 선조 33), 평양 인현서원(기자, 선조 41) 등 15개 서원이 사액되었다. 도봉서원은 『조두록』 등에는 건립된 해에 사액이 된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선조실록』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49) 『선조실록』권4, 선조 3년 4월 23일 ; 『선조실록』권5, 선조 4년 12월 3일 ; 권6, 선조 5년 9월 19일 ; 권8, 선조 7년 2월 12일 ; 권10, 선조 9년 4월 24일 ; 권12, 선조 11년 4월 23일. 1574년(선조 7)부터는 이황을 포함한 동방오현의 승무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50) 『선조실록』권8, 선조 7년 9월 25일, 10월 10일, 10월 13일 ; 권23, 선조 22년 7월 11일. 『선조수정실록』권12, 선조 11년 8월 1일. 선조는 1589년(선조 22)때까지 양주에 건립된 조광조 서원에 대한 사액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1631년(인조 9) 용인에 건립한 조광조 서원에 대한 사액을 요청하는 글에서 그를 제향하고 사액된 도봉서원과 죽수서원의 사례가 언급되고 있다.(『인조실록』권25, 인조 9년 9월 4일) 이를 토대로 보면 1589~1631년 사이에 양주 도봉서원에 대한 사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거부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였다. 선조는 이 명분을 관학 중심의 교학진흥책 강화에서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

선조는 즉위한 이래로 향교를 통한 향촌의 교육과 교화를 강화해왔다.[51] 선조는 명종과 같이 관학을 중심으로 사학이 이를 보완하는 교학체계를 구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사림이 집권한 후 서원은 이들 관료와 재지사족들에 의해 향촌사회에 확산·정착 되어갔지만, 관학은 더욱 침체되어 교학체제의 주체가 서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실제 관학의 부진은 계속된 반면 서원은 명종이 재위한 22년보다 선조의 즉위 7년간 신설되거나 사액된 서원이 많았다.[52]

서원도 사기를 진작시키고 향촌을 교화하는 한 방책이었기 때문에 사림이 주도적으로 건립하는 서원을 제재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조정 관료와 재지사류들의 의견을 쫓아서 신설된 서원에 사액을 내려 공인하는 것 역시 관학진흥책에 맞지 않았다. 즉 선조의 입장에서는 관학이 향촌교화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사액의 기준을 세워서 선정을 제향하는 서원이라도 사액을 거부할 명분이 필요하였다. 물론 당시 사액의 기준은 확인되지 않지만 선조의 거부 이유는 疊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53]

---

51) 선조는 명종대의 관학진흥책을 전승하여 생원·진사 가운데 교수와 훈도를 삼아 향촌의 유생들이 향교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고, 향교에 입학할 때는 『소학』을 시험하게 하여 동몽들이 학문하는 순서를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씨향약』을 간행하여 향촌교화와 풍속을 순화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 이때 교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를 향교로 지목하고 있었다.(『선조실록』권2, 선조 1년 1월 14일 ; 권7, 선조 6년 8월 22일).

52) 명종 연간 건립된 서원은 18개소가 있었다. 이 가운데 명종대 사액된 곳은 4개소[소수(안향)·임고(정몽주)·문헌(최충)·남계(정여창)]였다. 그러나 선조 즉위 후 7년간 건립된 서원은 14개소이며, 사액된 서원은 6개소[옥천(김굉필)·죽수(조광조)·천곡(주자)·도동(김굉필)·이산(이황)·옥산(이언적)]였다. 명종대의 서원이 제향인의 본향에만 건립되었다면, 선조 대에는 제향인의 본향·처향·관향·유배지 등의 연고를 건립의 명분으로 삼았다.

53) 1573년(선조 6) 조광조의 고향인 양주에서 그를 제향하는 서원을 건립하고 이듬해 사액을 청원했을 때 이미 사액된 竹樹書院이 있었다. 이 서원은 1570년(선조 3) 그가 유배되어 사사되었던 능주[전남 화순]에 건립되어, 그 해에 능주의 별호를 따라 '죽수'로 사액되었다. 당시는 조광조에 대한 신원과 추증, 문묘종사 청원 등이 조야에서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였기에 서원 건립이후 사액까지 단기간에 진행되었다. 물론 1574년(선조 7)까지 사액서원에 첩설된 인물에는 김굉필도 있었다. 그의 유배지였던 순천에 부임하였던 李楨이 1564년(명종 19)이 景賢祠를 짓고, 이듬해 옥천정사를 완성하였는데, 1568년(선조 1)에 사액을 받았다. 김굉필의 본향인 현풍에서도 1568년 서원을 건립하여, 1573년(선조 6) 사액을 허가 받아 이듬해 옥산서원·이산서원과 함께 사액 되었다. 즉 동일인물에 대한 거듭된 사액은 김굉필의 전례가 있었던 것이다. 다만 김굉필은 선조대에 건립된 서원은 도동서원뿐이었으며, 조광조는 양주와 능주의 서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관학에 준하는 특권을 부여하는 사액의 제재를 통해 사액 서원의 수를 조정함으로써 여전히 관학이 국왕을 대리한 향촌교화의 주체임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 <표 1>에서와 같이 1574년(선조 7)이후 1600년(선조 33)이전까지 모두 35개소의 서원이 건립되었지만 같은 시기 사액된 곳은 6개소뿐이었다. 이중 함흥 문회서원과 의성 빙계서원은 명종대 건립된 곳이었다. 또한 공자·길재·이언적·이황 등 도통연원에 관계된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에만 사액함으로써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확인된다.

2) 제향인의 선정 기준

초창기 서원의 설립 과정에서 제향인 선정은 그 서원의 성격을 규정하고, 나아가 사액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백운동서원에 제향된 안향은 성리학을 처음 도입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백운동서원을 이어서 건립되는 서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였다.

1559년(명종 14) 퇴계가 지은 「이산서원기」에 따르면 이산서원이 건립된 후 제향할 先正을 정하지 못하여 사묘를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유생들이 서원으로 명명하기를 주저하자, '해당 고을의 인물 외에도 先聖과 先師를 모시거나 사묘가 없어도 형편에 따라 행하면 된다'고 하였다.[54] 퇴계의 이런 의견은 이산서원 이전 건립된 소수(안향)·문헌(최충)·남계(정여창)·임고(정몽주)·상현(김정)·빙계[장천](김안국)·오봉서원(공자) 등의 사례에 근거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서원에서 해당 지역의 先正들을 제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성의 빙계서원은 김안국의 관향으로 관찰사 시절의 흥학·교화에 힘쓴 업적으로 제향 되었고, 강릉의 오봉서원은 강릉부사 함헌이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가져온 공자 진영을 제향한 것이었다. 퇴계는 이런 사례를 통해 제향인을 그 고을의 인물로 국한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성현을 제외하고, 국내의 인물 가운데 제향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의 연고가 필요하였다. 이런 기준은 16세기 이후에도 꾸준히 지켜졌다.

이 모두 선조대에 건립된 곳이었다.

54) 이황, 『퇴계선생문집』권42, 기, 「이선서원기」. "乃遣儒生張壽禧 來屬於滉 且曰吾鄕先正可祠於學者 未有定論 於書院之制 斯爲未備 欲姑以書齋名之何如 滉辭之不得 則復之曰 古之書院所祠 豈盡其鄕之人哉 有祀先聖先師者 亦有不立祠廟者 惟視其力從其宜而已"

또 다른 기준은 先正·先聖·先師로 표현한 것처럼 유학 상에 공헌이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퇴계는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청원하면서 '최충·우탁·정몽주·길재·김종직·김굉필' 등을 사례로 들면서 그들이 살던 곳에 서원이 건립되길 기원했다. 그가 예시로 든 인물들은 퇴계가 생각하는 도통연원의 유학자들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사견으로서 사문의 도통을 계승하고, 백세에 사표가 될 만한 대현의 선정과 공인은 국가의 공적인 영역이었다. 하지만 16세기에는 아직 국가적으로 도통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사림이 주도하여 건립하는 서원의 제향인은 사족들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 과정에서 사족들 간에 시비가 발생하거나 제향인의 수준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었다. 실제 1558년(명종 13) 성주 迎鳳書院 건립시의 제향인물 선정 시비가 대표적이다.[55] 영봉서원은 퇴계가 讚詩와 書院記를 지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서원이었다. 그렇기에 퇴계가 생각하는 서원관이 잘 드러난다.

1558년(명종 13) 성주목사 노경린은 성주의 대족인 성주이씨와 여침 등 향유들의 요청을 받아 서원 건립을 주관하였다. 옛 지장사 터에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에 낙성한 후 정구가 퇴계에게 물어 영봉서원이라 하였다. 제향인 선정에서 노경린은 성주출신이자, 고려의 충신이며 유학자인 이조년과 그의 손자 이인복을 염두해 두고 있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없지 않았기에 이정·황준량·박승임 등 경향의 사류들에게 의논을 구하여 성주가 처향인 김굉필을 새로 포함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퇴계가 도학자와 충절인을 함께 제향하는 것에 우려를 표방하였다. 퇴계는 충절인의 경우 향현사에 제향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이에 노경린이 중국 서원의 사례를 들어 3인의 병향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퇴계는 서원에 제향되는 인물은 도학자 위주여야 한다는 견해를 명확히 하였다. 제향인이 도학자 위주여야 한다는 것은 서원이 오로지 사림의 도학을 위한 장소라는 데 근거하고 있다. 퇴계는 제향인물의 선정과 그 위차에 있어 중국과 달리 조선 서원의 특징이 반드시 도학자에 기준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원유들의 의견은 김굉필의 독향 아니면 김굉필 주향에 이인복만을 배향하되 이조년을 합향하는 데에는 반대하는 쪽이었다.

반면 노경린과 성주이씨들은 연대를 기준으로 3인을 병향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논란은 영남 전역으로 확산되었는데, 결국 성주에 이천과 운곡의 지명이

55) 이수환, 「성주 영봉서원 연구」, 『역사교육논집』54, 역사교육학회, 2015.

있는 것에 연유하여 程頤와 朱熹를 새로 입향하고, 김굉필만을 종향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서원의 이름도 川谷書院으로 변경하였다. 이조년과 이인복은 서원 옆에 表忠寺를 건립하여 봉안하였으나, 선조 초년 성주이씨는 별도로 안봉영당을 건립하여 제향하였다.

이처럼 제향인의 자격을 둘러싼 논쟁은 설립 주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서원의 운영 주도권을 두고 성주이씨와 원유들 간의 힘겨루기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봉서원 제향 논란을 겪으면서 서원에는 '도학자'가 제향인 선정 기준으로 정리되었다.

3) 원규의 제정과 변화

서원이 건립된 후 이를 운영하기 위한 원칙이 필요하였다. 현재 확인되는 16세기 원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풍기군수 주세붕이 제정한 백운동서원 원규이다. 그가 문성공묘를 건립하고 군수에서 체직되기 이전까지인 1545~1548년 사이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56] 이후 1559년(명종 14) 성주 영봉서원의 원규가 목사 노경린에 의해 제정되고, 같은 해 榮川 이산서원 원규가 이황에 의해 제정되었다. 1562년(명종 17)에는 영천 임고서원 원규가 군수 김렴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후 1588년(선조 21) 인동 오산서원에서 부사 류운용이 원규를 제정하였다. 이에 앞서 해주에서는 李珥가 1576~1584년 사이 문헌서원 원규(1578 제정)와 은병정사 학규(1578 제정)·약속을 제정하였다. 이처럼 백운동서원 건립이후 16세기 중후반까지는 지방관이 중심이 되어 원규를 제정하였다. 이는 서원의 설립과 운영에 지방관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나타낸다.

16세기 제정된 원규들의 각 조목을 비교해보면 시기별 서원이 지향하는 바와 학제의 변화도 유추해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제정된 백운동서원 원규는 謹祀·禮賢·修宇·備廩·點書의 5조목으로 되어있다. 임고서원 원규도 이와 동일하다. 그러나 임고서원 보다 3년 먼저 원규를 제정한 성주의 영봉서원에서 근사·예현 등을 우선한 것은 백운동서원[당시는 소수서원] 원규와 동일하지만 건립과 제향 과정에서의 논란이 컸던 만큼 향후 서원 운영을 책임지는 원장의 선발을 중요하

56) 임근실, 「Ⅲ.원규의 제정과 서원운영론」, 『16세기 영남지역 서원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p.43-85. 이하 원규와 관련한 내용들은 임근실의 논문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게 명시하였다.

즉 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부득이 교체할 때에는 관에 보고를 한 후에 중론에 따라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院長錄』을 별도로 비치하여 그 임기와 성명을 기록하였다. 이외에도 건립과 제향인 선정에 퇴계를 비롯한 그의 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던 만큼 당시 원규에도 강학을 우선시 했던 퇴계의 영향이 보인다. 즉 '勸課'조가 그러한 데 옛날의 서원 설립 취지에 따라 서로 모여 강설하되 불필요한 일이 없도록 하고, 수령이 이들을 시험하도록 했다. 즉 유생들의 집단 강학과 그들의 성취에 대한 시험을 수령이 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같은 해에 榮川의 이산서원 원규가 퇴계에 의해 제정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이산원규가 제정된 이후 건립된 서원들은 대부분 이를 모범으로 삼았다. 이산서원 원규는 모두 12개조로 구성되어있다. 이산서원 건립 시 사묘가 없었기에 원규에도 제향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산원규는 원생들의 공부법과 목표에 대하여 강조하고 이것의 실천을 위한 규제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어서 원생들의 修學을 관리할 원임들의 선발과 원생과의 예법, 원속에 대한 예우, 수령의 침탈 금지와 협조 당부, 童蒙의 입학 제한 등 모든 것이 원생들의 강학과 장수에 맞춰져 있다.

특히 원속과 원생간의 규정은 원생들의 일상을 보필하는 원속의 존속을 위해 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서원이 강학과 장수를 통한 유생의 수기처라는 것이다. 즉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先儒와 원임만을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원속까지도 예로써 대함으로써 일상에서 배움을 체득하길 원했던 것이다. 또한 未冠자와 동몽의 입학을 기본적으로 제한하지만 成才한 자는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입원을 허락했다. 즉 관례를 치른 성인들만이 서원에 입원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도 자격을 갖춘다면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 자격이란 初試에 입격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한편, 16세기 후반에 원규를 제정한 오산서원과 <서원규범>을 새로 정한 임고서원을 보면 이전 시기의 서원들보다 조항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 시기의 원규는 이전까지 나왔던 원규들을 집성한 모습이다. 16세기 후반에 원규의 조항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원의 조직이 다양해지고, 운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문제점도 증가했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다. 오산서원 원규를 보면 有司·院士·居業·勸課·防檢·交際·相正·養賢·修宇·點書·典僕 등 11개조가 확인된다. 유사와 院儒들에 대한 지위와 업무가 구체화되고, 원내 규제가

더욱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Ⅳ. 맺음말

16세기는 조선시대 교학체계가 관학에서 사학으로 전환되었던 시기였다. 15세기 초반부터 조선의 관학체계는 교육과 교화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훈구와 사림세력 모두 관학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였지만 교육의 목표는 상반되었다. 사림의 개혁은 사화를 거치면서 좌절되고 낙향하거나 유배된 사림들에 의해 각처에서 정사·서당 등의 사학이 설립되었다. 16세기 중반 퇴계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새로운 교학기구로서 서원에 주목하였다.

주세붕에 의해 백운동서원이 건립된 이래로 16세기는 조선 서원의 기능과 성격이 정비된 시기였다. 중국 송대의 서원을 모방하여 건립되었지만 조선의 사정에 맞게 조정된 것이다. 초창기 서원은 지방관이 주도하여 건립되다가, 지방관의 지원 하에 사림이 주도적으로 건립하는 사례가 늘어갔다. 이는 서원을 관학의 보조기구로 생각하던 것에서 사림의 강학·장수를 통한 인재양성과 그들에 의한 향촌교화가 효과를 거두면서 관학의 대체기구로 변해갔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원이 향촌사회에서 교육과 교화를 주도하게 되자, 사액 유무와 상관없이 흥학책의 일환으로 수령의 지원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재정이 어려워진 전란기에 문제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서원에 대한 관의 지원은 백운동서원에 대한 퇴계의 사액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그 근거가 되었다. 그 대상은 사액서원이었지만 서원의 비중이 커지면서 미사액서원에도 지방관의 재량에 따라 지원이 있었던 것이다.

백운동서원은 건립 후 제향인의 追享, 사액, 儒疏활동 등을 통해 이후 건립되는 서원들의 운영에 근거를 제공하였다. 한편 사액, 제향인의 선정, 원규의 제정 등을 통해 유생의 강학·장수처라는 조선 서원의 성격을 정비한 것은 퇴계에 의해서였다. 특히 사액은 국가에서 관학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공인과 장서, 토지와 노비 등의 교육 및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여 서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속성을 담보해주는 조처였다. 반면 국왕 입장에서는 사림들에게 왕화의 대리자로서 향촌교화를 책임지게 하고, 사액의 결정권을 통해 왕권을 신장하는 데 일

조하는 효과가 있었다.

서원의 수가 증가하고, 유생 교육과 향촌교화의 역할이 커지면서 서원의 지위도 높아갔다. 그로 인해 서원을 출입하는 자들도 증가하고 다양해졌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시기별, 지역별로 건립주체의 운영목표에 따라 그 규정인 원규도 구체화, 세분화 되어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16세기 서원은 조선의 교학체제 속에 정착·정비되어 갔다.

한편으로는 서원 내외에서 폐단도 증가하였다. 사액 청원의 증가와 운영에 대한 관의 지원 요청이 그것이다. 서원에 대한 지원은 사액서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조는 서원 건립을 막지는 않았지만 사액 선정을 엄격히 함으로써 국가의 공인과 혜택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원들이 사액유무와는 상관없이 사류들의 장수처로서 사기를 진작하고, 교육을 부흥시켜 교화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수령들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었다.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미사액 서원에 지원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서원 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었으며, 숙종 대와 같은 대규모 남설도 아니었고 대부분의 서원이 상대적으로 재원이 넉넉한 대읍을 중심으로 건립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란이 발발하여 국가와 지방 재정이 붕괴된 상황에서도 서원측의 지원 요청이 계속되었기에 文弊로 지적되기도 했다.[57]

57) 『선조수정실록』권29, 선조 28년 7월 1일 ; 『선조실록』권41, 선조 26년 8월 3일. 당시 선조는 서원의 文弊가 심하다는 이유로 미사액 서원에 소속된 곡물과 잡물을 추심하고, 나아가 이들 서원을 철폐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사간원에서 전란 중이기에 군사를 양성하고 무예를 연마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인재 양성과 풍속 교화를 위한 향교와 서원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명령을 거두길 요청하였다.(『선조실록』권65, 선조 28년 7월 12일·15일).

참고문헌

『세종실록』, 『문종실록』, 『중종실록』, 『명종실록』,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永嘉誌』, 『錦溪集』(黃俊良), 『退溪集』(李滉)

유홍렬, 『한국사회사상사논고』, 일조각, 1980.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2.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채휘균, 「조선시대 초기서원의 설립배경과 성격」, 『교육철학』20, 한국교육철학회, 2002.
김학수, 「17세기 초반 영천유림의 학맥과 장현광의 임고서원 제향논쟁」, 『조선시대사학보』35, 조선시대사학회, 2005.
조준호, 「書院志 分析을 통해 본 初期 書院의 性格」, 『한국학논총』3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이근호, 「조선시대 성리학 학파의 지역성과 문화권」, 『한국학논총』41,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신동훈, 「16세기 서원 사액과 국가의 서원정책」, 『역사와 현실』98, 한국역사연구회, 2015.
이수환, 「성주 영봉서원 연구」, 『역사교육논집』54, 역사교육학회, 2015.
정재훈, 「조선중기 사족의 위상」, 『조선시대사학보』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이병훈, 「16세기 안동지역 재지사족의 성장과 서당 건립활동」, 『민족문화논총』6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8.
임근실, 『16세기 영남지역 서원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안다미, 「16~17세기 '서원제도'보급 과정」, 『대동문화연구』10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The Appearance and Maintenance of the Korean Seowon in 16th Century

Lee, Byoung-hoon*

In the 16th century, Seowon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the collapse of the school system. Since it was built for the purpose of cultivating Hyangchon under the Local Governors' efforts, the early Seowon had a great personality as an auxiliary institution for school administration. The Confucian scholar education was also centered on the Highest-Level State Examination.

On the one hand, the case of the Sahak(私學) led by the Seodang Seowon and Jeongsa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Baekdong Dynasty. After the petition for a private amount in the retirement of the Paekdong Seowon, the private petition became general. The purpose was to secure national recognition and stable operating bases based on private school through private money.

As Seowon increased, various problems arose.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is, the potter was selected as the yanghyang or the original rule was materialized by sec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situation where the government-led promotion plan due to the decline of the official school had little effect, the expansion of private studies, especially the establishment of Seowon and its influence, were increasing. As the role of Seowon, which had been established as an auxiliary organization for the official school, has increased, the King

* Researcher at Institute of Korean Cultural Studies in Yeungnam University / yukhl@ynu.ac.kr

also sanctioned it.

The effect of promoting Salim's morale was not to prevent the establishment of Seowon, but even Seonhyun limited the influence of Seowon by carefully considering the amount. However, in the Hyangchon society, as the school system centered around Seowon was established, it grew even further with the support of local government regardless of the amount of private money. On the other hand, the damage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local government has also appeared due to the excessive demand from Seowon.

keyword : Lee Hwang, Seowon(a private Neo-Confucian academy), King's Donative Processes(賜額), a man of Memorial Service(祭享人), seowon regulation(院規)

이 논문은 2020년 05월 27일 투고 완료되어
2020년 06월 1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06월 22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 일반논문

http://dx.doi.org/10.30594/kss.2020.6.10.4 101

硏經書院의 설립과 위상 및 의의

구본욱*

Ⅰ. 서언
Ⅱ. 연경서원의 설립과정
Ⅲ. 연경서원의 위상과 특징
Ⅳ. 연경서원 설립의 의의
Ⅴ. 결어

<국문요약>

연경서원은 대구 최초의 서원으로 대구지역 교육의 원류이다. 이 서원은 1563년(명종 18)에 건립되어,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며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중건되었다. 1601년(선조 34)에 경상감영이 대구에 설치됨에 연경서원은 경상도 首府의 서원이자 監營의 서원으로 그 기능을 다하였다. 이로써 연경서원은 洛中地域 퇴계학의 중심서원이 되었다. 그러나 1871년(고종 8)에 이르러 대원군의 서원철폐정책으로 훼철됨으로써 300여 년간 융성하였던 연경서원의 발자취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연경서원이 대구지역의 교육과 학술, 문화에 끼친 공로는 지대하다. 이것은 『대구읍지』를 비롯한 史書와 先儒들의 문집 속에 기록된 많은 문헌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대구의 뜻있는 인사들이 연경서원이 대구의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과 대구교육의 원류로서 연경서원이 복원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우고 복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논자는 본 논고에서 우리나라의 서원 중에서 연경서원의 위상과 특징 및 의의에 대하여 건립연도, 건물의 규모, 건립의 주체, 배향인물, 강학의 참여자, 사액여부, 관리의 방문, 훼철여부,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은 연경서원 복원을 위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키워드: 연경서원, 대구유학, 대구교육, 계동 전경창, 퇴계학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 교수 / bonwkoo@hanmail.net

Ⅰ. 서언

연경서원은 대구 최초의 서원으로 대구지역 교육의 원류이다. 이 서원은 1563년(명종 18)에 건립을 시작하여 1565년에 완공되었다. 시작에서 완공까지 3년이 소요되었다. 건립된 장소는 대구의 북쪽 硏經里이다.[1]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왜적의 방화로 소실되었으며, 1602년(선조 35) 서원의 일부인 蓮堂을 중건하였다. 1645년(인조 23)에 강당인 仁智堂을 중건하였으며, 중건을 시작한 173년 후 1775년(영조 51)에 東齋인 輔仁齋과 西齋인 時習齋를 완공하여 건립 당시의 모습을 회복하였다.

연경서원은 건립당시에 사당이 없는 서원으로 강학을 위주로 설립되었다. 연경서원의 강학을 통하여 조선 중기 대구지역의 제1, 2, 3세대 유학자가 양성되어 그 계보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 임진왜란 때에는 이 서원에서 공부한 대구유학의 제2세대를 중심으로 의병이 조직되어 국난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였다.

1601년(선조 34)에 경상감영이 대구에 설치됨에 연경서원은 경상도 首府의 서원이자 監營의 서원으로 그 기능을 다하였다. 1613년(광해군 5)에 사당을 건립하여 퇴계선생을 봉안하였다. 이로써 연경서원은 洛中地域 퇴계학의 중심서원이 되었다. 그러나 1871년(고종 8)에 이르러 대원군의 서원철폐정책으로 훼철됨으로써 300여 년간 융성하였던 연경서원의 발자취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연경서원이 대구지역의 교육과 학술, 문화에 끼친 공로는 지대하다. 이것은『대구읍지』를 비롯한 史書와 先儒들의 문집 속에 기록된 많은 문헌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그 동안 연경서원과 관련된『大邱儒賢 通講錄』,『硏經書院 移建時 日記』와『任司錄』, 연경서원 記文과 記文後記, 移建記文의 篇額 등 많은 자료가 발굴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대구의 뜻있는 인사들이 연경서원이 대구의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과 대구교육의 원류로서 연경서원이 복원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우고 복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2년 10월 6일에 (사)팔공산문화포럼과 대구향교, (사)영남퇴계학연구원이

1) 연경서원은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에 있었다.

공동으로 대구향교 대강당에서 연경서원을 주제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2] 이 세미나의 대주제는《연경서원 복원을 위한 - 연경서원과 대구지역의 유학》이었다. 발표된 논문은 홍원식의 <퇴계 이황 및 퇴계학파와 연경서원>, 구본욱의 <연경서원의 경영과 조선 중기 대구지역의 유학>, 전영권의 <팔공산의 지리적 환경과 연경서원> 3편이었다.

2014년 3월 29일에 대구향교 대강당에서 제2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이 세미나의 대주제는《연경서원의 복원과 이 시대 유학의 역할》이었다. 발표된 논문은 홍원식의 <연경서원의 제향인물과 그 배경>, 구본욱의 <연경서원 유현의 한시에 관한 연구>, 이상호의 <복설될 연경서원의 현대적 활용방안> 3편이었다. 이때 공동 개최한 단체는 (사)팔공산문화포럼, 邱研會[3], (사)영남퇴계학연구원이었다.[4]

본 논고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연경서원에 관한 논문[5]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연경서원의 위상과 특징 및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연경서원 복원(중건)을 위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2) 당시 (사)팔공산문화포럼의 대표자는 홍종흠 회장, 대구향교의 대표자는 구자영 전교, (사)영남퇴계학연구원의 대표자는 이동건 이사장이었다.

3) 연경서원에서 강학(공부)을 한 인사들의 후손 모임이다.

4) 당시 (사)팔공산문화포럼의 대표자는 박규홍 회장, 구연회의 대표자는 서정백 회장, (사)영남퇴계학연구원의 대표자는 이동건 이사장이었다.

5) 지금까지 발표된 연경서원에 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구본욱, 「대구지역의 성리학을 연 溪東 全慶昌」, 『조선사연구』20, 조선사연구회, 2011 ; 「연경서원의 경영과 조선 중기 대구지역의 유학」, 『퇴계학논집』11, 영남퇴계연구원, 2012-1 ; 「大邱儒賢 通講錄의 正字化와 해제」, 『퇴계학논집』11,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2 ; 「연경서원 儒賢의 한시에 관한 고찰」, 『민족문화논총』58,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4-1 ; 「연경서원의 경영과 유현들」, 『한국학논집』57,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4-2 ; 「연경서원 移建時 任司錄과 扶助記」, 『퇴계학논집』16, 영남퇴계학연구원, 2015 ; 「연경서원의 강학과 대구지역 제3세대 유학자」, 『조선사연구』28, 조선사연구회, 2019 ; 이상호, 「복설될 연경서원의 현대적 활용방안」, 『퇴계학논집』16, 영남퇴계학연구원, 2015 ; 전영권, 「팔공산의 지리적 환경과 연경서원」, 『퇴계학논집』11,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 ; 홍원식, 「퇴계 이황 및 낙중 퇴계학파와 연경서원」, 『퇴계학논집』11,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 ; 「연경서원의 제향 인물과 그 배경」, 『퇴계학논집』16, 영남퇴계학연구원, 2015.

Ⅱ. 연경서원의 설립과정

1. 서원설립의 시대적 배경과 영향

우리나라의 서원은 풍기군수 주세붕이 1543년(중종 38) 백운동에 서원을 건립하고 安珦을 배향한데서 비롯되었다. 퇴계는 <서원십영>에서 이 서원을 竹溪書院이라고 하였다. 퇴계는 1549년 49세에 주세붕의 후임으로 이곳에 군수로 부임하여 조정에 건의하여 賜額을 추진하게 된다. 이때 퇴계가 경상도 관찰사 沈通源에게 보낸 편지의 주요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엎드려 생각건대, 이 고을에 白雲洞書院이 있는데, 전 군수 周世鵬이 창건하였습니다. 竹溪의 물이 소백산 아래에서 발원하여 옛날 순흥부 가운데로 지나니, 실로 斯文의 先正 文成公 安裕(安珦)가 옛날에 살던 곳으로 마을은 그윽하고 깊으며 구름에 덮인 골짜기가 아늑합니다. 周侯(주세붕)는 고을을 다스리는 데 있어 특히 학문을 일으키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 鄕校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고는 또 죽계가 先賢의 유적이 있는 곳이므로 그곳에다 터를 잡고 서원을 지으니, 모두 30여 칸인데 祠廟를 두어서 문성공을 奉享하고 文貞公 安軸과 文敬公 安輔를 配享하였습니다. 堂齋와 亭宇를 그 곁에 건립하여 유생들이 노닐고 강독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 임금께 아뢰어 宋朝의 고사에 의거하여 서적을 내려 주시고 편액을 내려 주시며 겸하여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여 재력을 넉넉하게 하여주십시오. 또 감사와 군수로 하여금 다만 그 진흥하고 배양하는 방법과 공급해 주는 물품만 감독하게 하고 가혹한 법령과 번거로운 조목으로 구속하지 못하게 해 주실 것을 청하고자 합니다.[6]

위의 글을 살펴보면 주세붕이 안향이 살던 곳에 서원을 건립한 사실과 서원의 규모, 배향 등에 대하여 말하고 조정에 건의하여 사액을 내려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6) 이황, 『국역 퇴계전서』4, <퇴계선생문집>, 권9 書, <上沈方伯 通源○己酉(심방백 통원께 올림). 1549년(명종 4)>. 퇴계학연구원, 1991, p.14, p.19. (번역문은 논자가 수정하였음)

또 퇴계는 사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아! 하늘이 아마도 이로 말미암아 우리 동방에 서원의 교육을 일으켜 중국과 같아지도록 하려는 것인가 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건대, 가르침이란 반드시 위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도달하게 되어야 그 가르침이 뿌리가 있어서 멀리 오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원이 없는 물처럼 아침에 가득했다가도 저녁이면 다 빠질 것이니 어찌 오래갈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인도하는 바는 아래에서 반드시 따를 것이고, 임금이 숭상하는 바는 한 나라가 사모하는 법입니다. 이제 周侯가 창건한 것이 비록 진실로 뛰어나고 위대하며 安公이 이룩해 놓은 바가 또한 매우 완벽하고 빈틈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만 한 郡守나 한 方伯이 한 일일 뿐입니다. 일이 임금의 명령을 거치지 않고 이름이 國史에 실리지 않았으니 세상의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의구심을 진정시키며 온 나라의 본보기가 되어 영구히 전해지지 못할까 염려됩니다.[7]

위의 글을 살펴보면 퇴계는 사액이 필요한 이유를 교육의 지속성과 영구성에서 찾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임금이 편액을 내려 인정할 때 세상 사람들의 서원교육에 대한 의혹도 없어지고 가르침의 근본이 확립된다는 것이다. 이외에 퇴계는 이 편지에서 서원의 유래가 南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과 서원교육의 필요성과 효용성 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백운동서원은 위 편지에서 볼 수 있듯이 퇴계의 건의로 이듬해 1550년 4월에 조정으로부터 紹修書院으로 사액을 받았다. 당시 18세였던 明宗은 御筆로 편액을 써서 내렸다. 소수서원이란 '이미 무너진 유학을 계승하여 발전시킨다(旣廢之學, 紹而修之)'는 의미이다. 이 편액은 안향이 성리학을 도입하여 유학을 잇게 한 것과 주세붕이 서원을 건립하여 계승 발전시키려고 한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로서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자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이후에 전국의 각 지역에서 서원 건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연경서원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연경서원은 당시 서원의 건립과 사액에 영향을 받았다.

또 연경서원은 당시 대구의 이웃 고을인 성주의 八莒縣 녹봉에 건립된 鹿峯精舍 강학에 영향을 받았다. 녹봉정사는 퇴계의 문인인 錦溪 黃俊良(1517~1563)이 성주목사로 부임한 이듬해 1561년(명종 16)에 건립한 서당이다. 녹봉정사는 건립 후 목사와 교관 吳健이 參講한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강학을 받았다. 이 강학에 대구를 비롯한 타 지역의 학생들도 함께 강학을 받았는데, 이때 진사

7) 이황, 앞의 책과 동일.

였던 계동 전경창은 이 정사를 방문하여 강학을 참관하였다.[8] 매암 이숙량 역시 진사로 姪壻인 황준량이 목사로 있던 성주를 방문하여 迎鳳書院 등의 일에 관여한 것[9]이 확인된다. 그래서 논자는 연경서원의 창건을 주도한 이숙량과 전경창이 모두 녹봉정사와 영봉서원을 방문· 관여한 것으로 보아 연경서원을 창건할 때 이보다 2년 먼저 건립된 녹봉정사의 강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경서원은 당시 소수서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서원 건립에 영향을 받았으며, 인근 고을인 성주의 녹봉정사 건립과 강학에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서원의 설립과 중건과정, 훼철

연경서원은 1563년(명종 18) 여름에 黌堂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앞을 다투어 서원을 창건하고 있는데, 우리 고을에서는 아직 서원이 없음을 탄식한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이숙량은 부사를 찾아가 서원 건립을 청원하게 되었는데, 부사는 먼저 주관할 사람을 선정해 달라고 하고, 건물의 기와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이숙량은 이튿날 鄕射堂에서 대구 지역의 父老들과 협의하여 건립을 추진하였다. 부사는 기와뿐만이 아니라 서원의 부지를 공유지와 교환하여 주었고, 父老들은 재력에 따라 돈과 곡식, 베[布] 등을 차등 제공하였다.

이에 동년 가을에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1564년(갑자) 봄 3월에 상량을 하고 1565년(을축) 겨울 10월에 완공하였다. 건립을 주관한 사람은 梅巖 李叔樑(1519~1592)과 溪東 全慶昌(1532~1585)이다. 곽재겸이 <전경창에게 올린 제문>에 의하면 이때 “계동 전경창이 매암을 도와 함께 그 아름다움을 이루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연경서원의 건립은 매암과 계동이 함께 협의하여 건립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대구유학의 1세대[10]인 蓮亭 徐淐(1524~1575)[11],

---

8) 구본욱 ,「녹봉정사의 건립과 경영 및 강학」,『한국학논집』7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0, p.20.

9) 구본욱, 앞의 논문(2020), p.25.

10) 대구유학의 1세대는 연경서원을 건립한 세대로 1530년을 전후하여 출생한 분을 말하고, 2세대는 1세대에게 강학을 받았던 1550년을 전후한 분, 제3세대는 2세대로부터 강학을 받은 분을 지칭한다.

11) 서사원의 養父이다.

全胤昌[12], 洗心亭 全應昌(1529～1586), 松潭 蔡應麟(1529~1584), 秋月軒 蔡應龍(1530～1574)[13], 林下 鄭師哲(1530~1593), 南澗 徐湜(1530～1593)[14], 松齋 朱愼言(1539～임난 중) 등도 함께 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이들이 友人으로 교유하며 함께 강학하였다는 것에서 추론할 수 있다. 위 대구유학의 1세대는 모두 생원과 진사시 즉 司馬試에 합격한 분으로 전응창과 전경창 형제는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연경서원은 모두 40여 칸으로 正堂, 즉 강당은 仁智堂, 동재는 輔仁齋, 서재는 時習齋이고 문은 招賢門, 초현문의 서쪽에 童蒙齋가 있고 동쪽에 주방과 창고를 두었다. 이외에 愛蓮堂(연당)이 있고, 애련당 앞에 네모난 연못이 있다. 또 柳亭이라는 정자가 있었다. 서원의 주변에 담장을 둘렀다.[15] 이것으로 보아 연경서원은 당시 30여 칸이었던 소수서원보다 큰 규모였다.

연경서원은 설립된 27년 후[16] 임진왜란으로 전소하게 된다. 1602년(선조 35) 3월에 중건을 논의하여 7월에 완공하였다. 그러나 이때 완공한 건물은 부속건물이었던 蓮堂이었다. 중건을 주도한 사람은 대구유학의 2세대인 樂齋 徐思遠(1550~1615), 慕堂 孫處訥(1553～1634), 槐軒 郭再謙(1547~1615), 蓮亭 柳堯臣(1550~1618), 苔巖 李輔(1556～1604) 등이었다.

1613년(광해군 5) 겨울에 사당을 건립하여 퇴계선생을 봉안하였으며, 강당이 있던 앞 냇가에 누각인 觀逝樓를 지었다. 이때 1567년(명종 22) 梅巖 李叔樑이 지은 <연경서원 기문(記文)>과 퇴계가 지은 <연경서원 기문후기(書李大用記後)>[17]를 나무에 새겨 다시 篇額하였다.[18] 1635년(인조 13)에는 鄕賢祠를 지어 전경창을 배향하였고, 1645년(인조 23)에는 강당인 仁智堂을 중건하였다.

1774년(영조 50) 6월 21일에 폭우가 내려 사당이 훼손되었다. 이에 대구의 유림들은 7월 10일에 道會를 열어 영남지역의 관리와 유림, 향교·서원의 지원을 받아 1여년에 걸쳐 서원 전체를 동쪽으로 40보 되는 지점으로 이건하였다.[19] 이

12) 전경창의 從兄으로 생원 全春年(1552～1592)의 부친이다.
13) 채응린의 從弟이다.
14) 서형의 아우로 서사원의 叔父, 東皐 徐思選의 부친이다.
15) 이숙량, 『매암문집』, 권1 記, <연경서원기>, 花樹齋, 1938.
16) 이 연도는 완공된 1565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17) 위 두 기문은 1567년(융경 1년, 명종 22)에 지어 서원의 강당에 편액 하였다. 이때 새겨 다시 편액한 것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18) 이때 제작한 기문과 기문후기 편액이 2016년 4월 매암의 후손가에서 발굴되었다.

때 東齋인 輔仁齋와 西齋인 時習齋를 건립하여, 임진왜란 이전 서원의 모습을 모두 복원하였다. 실로 173년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이 일을 주관한 사람은 公事員 趙春慶(1714～1786), 移建都監에 禹命休(1713～1782)·蔡時容(1714～1783), 策應都監에 徐道洙(1728～1810)·郭元澤(1734～1797), 道會時 製通에는 禹命熙, 寫通에는 徐鐵(1731～1796)·具成漢(1737～1799), 奉安時 원장은 朴光普(1713~1794), 齋任은 孫慶錫(1731～1792)과 徐文復(1736～1809), 位板都監은 崔興庚(1730～1795)·李翼龍(1732～1784), 題板都監에는 都世聃(1717～1794)이었다.[20]

1775년 대구부사 李商進은 기문을 지어 편액 하였다. 이건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府의 관아에서 20리 되는 거리에 바위가 우뚝 솟아 있어 畫巖이라고 하는데, 그 곁에 연경서원이 있다. 서원을 창건할 때 대구의 章甫(유림)들이 府使와 상의하여 院宇를 건립하여 학자들이 공부하는 장소로 삼았다. 계축년(광해군 5, 1613)에 退陶 李先生을 사당에 봉안하였으며, 寒岡과 愚伏 두 선생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갑오년(영조 50, 1774) 여름 6월에 큰 비가 내려 산사태가 나서 廟宇(사당)가 훼손되었다. 府의 유림들이 황망히 논의하여 서원을 동쪽으로 이건하기로 하였다. 이때 내가 마침 通判(대구부사)으로 있었는데 돈과 곡식을 약간 출연하였고, 巡察使 閔公 弘烈과 尹公 養厚께서 서로 이어서 부조하였으며, 道內 향교와 서원에서 모두 부조를 하였다. 이해 7월에 시작하여 그 다음해 4월에 落成을 하니, 講誦을 하는 堂과 학업을 익히는 齋, 庖廚(부엌), 庫廐(창고와 마굿간)에 이르기까지 구비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질서정연하고 넓으나 사치스럽지 아니하다. 士人 禹命休, 蔡時容, 徐道洙, 郭元澤 등이 그 일을 주관하였는데 나에게 그 전말을 기록해 주기를 청하였다.(以下略) 숭정 기원후 三乙未(영조 51, 1775) 4월 상순 通判 李商進 기문을 짓다.[21]

---

19) 구본욱, 「연경서원 이건시 任司錄과 扶助記」, 『퇴계학논집』16, 영남퇴계학연구원, 2015-1, p.173.

20) 구본욱, 앞의 논문(2015), pp.175-176.

21) 李商進, <研經書院 移建記(편액)>, 1775. “距府門二十里, 有巖特起削立曰, 畫巖, 其傍有書院曰, 研經. 其始也, 邑中章甫, 謀于地主, 營立院宇, 爲學者, 藏修之所. 癸丑享, 我 退陶李先生, 追配寒岡, 愚伏, 兩先生. 歲甲午夏, 六月, 大雨, 水, 山脇衝決, 廟宇崩壓. 邑之士遑遑也, 遂議移建于東麓. 于時, 余適通判州事. 出捐若干財粟, 巡察使閔公 弘烈, 尹公養厚, 相繼助之, 道內各邑校院, 咸各有助. 經始于其年七月, 落成于明年四月, 講誦之堂, 肄習之齋, 至於庖廚庫廐, 莫不咸備. 整整翼翼, 閎而不侈. 士人禹命休 蔡時容 徐道洙 郭元澤 等, 實相其役, 請記顚末余. 惟書院之設, 闕惟久矣, 其

위의 기문은 연경서원의 건립과 배향, 이건과정, 그리고 건립기간 및 시설, 주관한 사람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기문은 1832년(순조 32)에 필사된 『大丘府邑誌』에 일부가 수록되어 전하였는데, 2016년 3월에 논자가 대구의 달성서씨 현감공 문중에서 이 기문의 편액을 발굴하였다.[22] 연경서원이 훼철된 지 145년이 되는 해에 찾은 것이었다. 이후 연경서원은 96년간 운영되었는데 1871년(고종 8)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3. 사당의 건립과 주향·배향

연경서원의 사당[廟宇]은 1613년(광해군 5)에 건립되었다. 이것은 서원의 강당이 건립된 48년 후이다. 이때 사당의 건립을 주관한 사람들은 대구유학의 제2세대이다. 서사원과 손처눌 등 대구유학의 제2세대들은 1605년부터 대구지역 전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강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사당을 건립하여 퇴계 이황을 봉안하였다. 이것은 연경서원을 창건한 대구유학의 1세대가 퇴계선생의 문인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퇴계선생의 봉안은 연경서원의 學統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경서원은 퇴계학을 계승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대구유림이 연경서원의 사당 건립을 논의한 것은 1609년이다. 그러나 사당의 위치선정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였다. 동년 2월 20일에 한강 정구가 연경서원을 방문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한강은 학생들에게 心經의 首章을 강의하였다. 이때 한강은 손처눌 등의 문의로 서원의 뒤쪽 언덕에 올라 그 위치를 선정하여 주었다.[23] 이에 다른 이론이 없이 사당의 건립을 시작하였다. 사당을 건립할 때 가뭄이 심하여 4년 후 1613년 겨울에 완공하였다. 퇴계선생을 봉안할 때 봉안문

本盖爲學者, 研經討議, 講乎詩書六藝之文, 明乎俎豆獻酒之節, 習乎升降俯仰之儀. 使其耳目開明, 心體舒愉, 及其成也, 治國正家之謨, 吉凶軍賓之體, 無不燦然於胸中, 居家則盡其孝, 事君則盡其忠, 此其實也. 諸生其勉之哉. 是爲記. 崇禎 紀元後 三乙未 四月 上澣 完山 通判 李商進 任之記.(인용문에는 以下略을 하였으나 원문은 모두 수록함)

22) 위 기문을 발굴할 때 제보를 해 주신 분은 徐正伯 연경서원 중건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이다.

23) 구본욱, 「연경서원의 경영과 조선 중기 대구지역의 유학」, 『퇴계학논집』11,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1, p.198.

과 春秋享祀文은 한강이 지었다.[24] 이때 서사원도 봉안문을 지었는데, 『낙재문집』에 <擬研經書院 退溪先生奉安文>으로 수록되어 있다.

1620년(광해군 12) 한강이 대구의 泗水에서 타계하자 2년 후 1622년 3월에 한강을 배향하였다. 이때 퇴계선생께 고한 고유문과 봉안문은 손처눌이 지었다.[25] 1706년(숙종 32)에 이르러 愚伏 鄭經世를 배향하였는데, 우복은 대구부사로 있을 때 연경서원을 방문하는 등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였기 때문이다. 봉안문은 龜巖 李元禎이 지었다.[26]

또 1635년(인조 13)에 향현사를 건립하여 계동 전경창을 배향하였으며, 1707년(숙종 33)에는 매암 이숙량을 배향하였다. 매암을 계동 보다 늦게 봉안한 것은 매암은 연경서원을 창건한 10여년 후에 다시 안동의 예안으로 귀향하였기 때문이다. 계동을 봉안할 때 봉안문은 東皐 徐思選이 지었으며, 이숙량은 黎湖 朴弼周가 지었다.[27] 계동과 매암을 향현사에 배향한 것은 연경서원을 창건한 것과 퇴계학을 전수하여 처음으로 강학한 공로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Ⅲ. 연경서원의 위상과 특징

서원의 위상을 설정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서원의 건립연도, 건물의 규모, 건립의 주체, 배향인물, 강학의 참여자, 사액여부, 관리의 방문, 훼철여부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여도 등이다. 따라서 논자는 연경서원의 위상을 고찰함에 있어서 위에서 제시한 각 요소의 여러 가지 측면을 함께 고찰할 것이다.

---

24) 정구, 『寒岡文集』, 권11 祝文, <研經書院奉安退溪李先生文>, <研經書院春秋享祀文>, 1841.

25) 손처눌, 『慕堂文集』, 권5 祝文, <研經書院告退溪先生文寒岡先生配享時>, <研經書院寒岡先生奉安文>, 1849. 장현광의 『旅軒文集』에도 <奉安寒岡研院時 告退溪先生文>, <告寒岡先生文>이 있다.

26) 이원정, 『龜巖文集』, 권5 祝文, <研經書院愚伏鄭先生配享時祝文. 爲士林作>, 景巖齋, 1937.

27) 박필주, 『黎湖文集』, 권21 祝文, <梅巖李公 叔樑 研經書院鄕賢祠 並享告文>, 한국고전번역원 DB.

1. 퇴계의 서원십영과 연경서원

퇴계는 在世時에 설립된 서원에 대한 찬시를 지었는데 그 시의 제목을 '書院十詠'이라고 하였다. 제목 상으로는 '10개의 서원에 대한 시를 읊는다'는 의미이나, 실제로는 9개의 서원에 대하여 지은 시가 있고 마지막 열 번째 시는 서원총론이다. 다시 말하면 9개의 서원을 읊고 나머지는 한 首는 서원전체에 대한 퇴계의 총괄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퇴계가 읊은 9개의 서원은 풍기의 竹溪書院(白雲洞書院, 사액: 紹修書院, 1543), 영천의 臨皐書院(1555), 해주의 文憲書院(1549), 성주의 迎鳳書院(개칭: 川谷書院, 1560), 강릉의 丘山書院(1556), 함양의 南溪書院(1552), 영주의 伊山書院(1559), 경주의 西岳書院(1561), 대구의 畫巖書院(硏經書院, 1565)이다.[28]

퇴계는 시의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10개의 서원에 대하여 시를 지으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퇴계 재세시에 그가 건립되기를 희구하였던 도동서원이 건립되지 못하여 9개의 서원에 대해서만 시를 짓고 나머지 한 수는 비워두었다고 한다. 한강 정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李先生(퇴계 이황)께서 일찍이 金先生(한훤당 김굉필)의 서원을 건립하는 일에 크게 관심을 가졌으나 안타깝게도 선생의 생존시에 이 일이 미쳐 이루어지지 않아 열 곳의 서원이 채워지지 못하였다. (原註: 문집 속에 서원십영이란 시가 있으나 아홉 곳의 서원만 있고 열 개의 수효가 채워지지 못하였다.) 만일 도동서원이 그 당시에 존재하였더라면 額號를 손수 쓰시는 일을 어찌 여느 서원보다 뒤에 하였겠는가.(原註 : 여러 서원의 액호는 대부분 선생이 손수 쓰신 것이다.) … [29]

위 글은 1607년(선조 40) 7월에 쓴 글로 제목은 '도동서원 편액 아래 쓰다.'이다. 이 글은 지금도 道東書院의 편액 아래 작은 현판에 새겨 걸려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경서원은 퇴계의 서원십영에 포함되어 있다. 서원십영 의 9개서원 중 문헌서원과 구산서원을 제외한 7개의 서원이 모두 영남에

---

28) 이황, 『국역 퇴계전서』2, <퇴계선생문집>, 권4 詩, <書院十詠>, 퇴계학연구원, 1991, pp.145-149. ( )안의 연도는 서원의 완공연도이다.

29) 정구, 『국역 한강집』3, <한강집 별집 제2권>, 송기채 역, 민족문화추진회, 2003, p.336. "書道東書院 額板下"

소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영남에 소재하고 있는 서원은 퇴계의 문인이 건립하였거나, 퇴계가 기문이나 편액을 써서 내린 서원으로 모두 퇴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퇴계가 이와 같이 서원 건립을 주도하고 서원교육을 중시한 것은 從朱子의 한 모습임이 분명하다.[30]

퇴계가 서원십영의 시를 지은 시기는 연경서원이 완공되어가던 1565년(명종 20) 봄이다.[31] 이때 퇴계의 나이는 65세로 그가 타계하기 5년 전으로 학문의 완숙기 때이다. 퇴계는 9개 서원에 대한 시를 각 서원이 완공된 시기 마다 지은 것이 아니라, 연경서원이 완공되어 가던 시기에 함께 지은 것이다. 이것은 연경서원이 완공될 시기에 퇴계의 서원관이 완결되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

퇴계의 '화암서원(연경서원)' 시는 다음과 같다.

畫巖形勝畫難成　화암의 빼어난 모습 그림으로 그리기 어려운데
立院相招誦六經　서원을 건립하여 함께 모여 六經을 공부하네.
從此佇聞明道術　이를 좇아 道術을 밝혔다는 소식듣기를 기다리노니
可無呼寐得群醒　잠자는 뭇 사람을 불러 일으켜 깨우침이 없겠는가?[32]

퇴계는 서원십영 중 첫째 首인 죽계서원의 시에서는 "絃誦하는 것이 주자의 백록동서원을 계승하였다"고 하고 마지막 아홉 번째 화암서원(연경서원) 시에서는 "몽매한 뭇 사람들을 불러 깨우침이 없겠는가?"라고 하여 연경서원에 대해 읊은 시에서 서원교육의 목표 내지는 효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 '서원십영'을 지은 2년 후 67세에 지은 퇴계의 <연경서원 기문후기>에서는 그가 49세에 경상도 관찰사 심통원에게 올린 편지에서 기술한 서원교육에 대한 이론이 종합된 것을 볼 수 있다.

퇴계는 여기에서 서원의 교육은 향교 등 관학과는 달리 學令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학문[吾學], 즉 性理學을 공부할 수 있고 爲己之學에 전념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연경서원은 시기적으로 우리나라 서원이 건립

30) 홍원식, 「연경서원 제향 인물과 그 배경」, 『퇴계학논집』16, 영남퇴계학연구원, 2015, p.14.
31) 구본욱, 앞의 논문(2012-1), p.184.
32) 이황, 『퇴계문집』, 권4 시, <書院十詠 畫巖書院 大丘>, 영인본, 계명한문연구회, 1990.

되기 시작한 초기에 건립된 서원으로, 규모는 40여 칸 이었고, 서원의 <기문후기>에는 퇴계의 서원교육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강학을 중시한 대구최초의 서원

연경서원은 설립될 당시에 사당이 없는 서원이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서원건립 초기에 보이는 현상이다. 퇴계는 伊山書院記에서 "옛날 서원에 祠廟를 세우지 않고 서원을 건립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祭田을 장만하고 제사할 분을 정하는 것은 훗날을 기다려 의논하여도 불가하지 않다"[33]라고 하였는데, 연경서원은 퇴계의 이러한 서원 설립에 관한 견해에 부합하는 서원이다. 송나라 때 朱子가 건립한 서원에도 祠廟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숙량은 기문에서 "풍문을 듣고 흥기한 사람들이 해주의 문헌서원, 성주의 영봉서원, 영천의 임고서원, 경주의 서악서원 같은 것을 지으니 크고 작은 고을에서 서로 다투듯 사모하여 점점 넓게 확산되었으니, 이 어찌 다 수령들이 건립한 것이겠으며, 어찌 반드시 다 尙賢을 위주로 설치한 것이겠는가? 鄕人이 능히 스스로 분발하여 강학의 場으로 세운 곳이 혹 있을 것이니 도의를 강마하고 풍속을 격려하는데 어찌 도움이 적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34]라고 말하고 있다.

위의 기문에서 이숙량은 연경서원은 尙賢 즉 현인의 제향을 중시하는 서원이 아니라 강학을 중시하는 서원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다. 또 타 지역의 서원은 수령들이 중심이 되어 건립한 것이나, 연경서원은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건립한 서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연경서원이 타 지역 서원의 건립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연경서원은 위와 같은 설립취지에 의거 강학을 중시하였는데, 곽재겸은 '전경창에게 한 제문'에서 1세대인 전경창이 행한 강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33) 이황, 『국역 퇴계전서』10, <퇴계선생문집>, 권42 記, <이산서원기>, 퇴계학연구원, 1991, p.110.

34) 이숙량,『梅巖文集』, 권1 記, <研經書院記>, 花樹齋, 1938. "聞風而興起者, 有若海之文憲, 星之迎鳳, 臨皐之於永, 西岳之於慶, 以及大小州縣, 爭相競慕, 寢廣而寢備, 是豈皆出於守令之建立, 豈必皆主於尙賢而設置, 鄕人之能自奮發, 而爲立講學之所者, 亦或有之, 其爲講劘道義, 激勵風俗, 豈曰少補之哉."

> 우리의 弊邑(대구)을 돌아보니 선비들이 공부할 장소가 없었네. 이에 서원의 건립을 부르짖으니 李大用(이숙량)이었네. 공(계동)이 오직 그를 도와 함께 그 아름다움을 이루었네. 터를 잡아 집을 지으니 지묘의 물가였네. 그윽한 곳에 홀연히 이루어지니 갑자년(1564) 봄이었네. 이를 이루고 경영하여 또한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네. 이전에 없었던 것을 창건하니 絃誦[강학]할 곳이 있었네. 畫巖의 봄이 깊고 玉溪의 가을이 깊어갈 때 학도들이 쫓아 遊하며 읊고 즐거워하였네. 부지런히 학문을 논하며 정성스럽게 권면하고 장려하였네.[35]

위의 글에서 "畫巖의 봄이 깊고 玉溪의 가을이 깊어갈 때 학도들이 쫓아 遊하며 읊고 즐거워하였네. 부지런히 학문을 논하며 정성스럽게 권면하고 장려하였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전경창이 곽재겸을 비롯한 대구유학의 2세대를 대상으로 강학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의 화암은 연경서원의 서쪽에 있는 바위를 말하고, 옥계는 서원 앞을 흐르는 내[川]이다.

연경서원의 강학은 임진왜란 이후 대구유학의 2세대에 와서 꽃을 피우게 된다. 2세대는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연경서원을 중건하였으며, 대구의 전 지역 3세대 유학자를 대상으로 通講을 실시하였다. 이 통강은 1605년(선조 38)에 시작되어 1634년(인조 12)까지 30년간 지속되었다. 통강이란 '경전이나 詩文의 일정 분량을 공부한 후에 스승 앞에서 외우거나 해석한 후 지도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공부한 학생들에게 평가하는 시험이다.

대구지역의 통강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는데 1차는 1605년에 실시하여 서사원이 타계한 1615년까지이다. 이때에는 서사원과 손처눌이 함께 스승이 되어 연경서원과 仙査齋[36]에서 강학을 실시하였다. 당시 통강을 한 117명의 명단과 통강을 한 경전과 평가, 출결 등이 기록된 통강록이 대구의 동구 옻골의 百弗庵(崔興遠)宗家에 소장되어 있다. 이 통강록에는 7년간 30회의 통강이 5帖의 行草書로 기록되어 있는데, 논자가 2012년에 정자로 옮겨 학계에 보고하였다.[37] 이 통강록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전하고 있는 통강록 중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것

---

35) 전경창, 『溪東文集』, 권2 부록, <祭文(參奉 郭再謙 朴夢祥)>, 1859. "顧我弊邑, 藏修無地. 爰倡立院, 大用姓李. 公惟讚之, 共濟其美. 于以卜築, 智妙水濱. 渠渠忽起, 歲甲子春. 終是經營, 亦多施措. 創其無前, 絃誦有所. 畫巖春深, 玉溪秋老. 時從學徒, 遊詠蹁躚. 言論亹亹, 勉勵惓惓."

36) 선사재는 서사원의 강학소이다. 이곳에는 儒林에 의하여 伊江書院이 건립되었다.

37) 구본욱, 「大邱儒賢 通講錄의 正字化와 해제」, 『퇴계학논집』11,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2, pp.314-398.

으로 보물급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2차는 1616년부터 손처눌이 타계한 1634년까지이다. 이때 대구유학의 2세대는 모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계하였는데, 모당은 홀로 20년간 통강을 실시하였다. 이때 모당은 이미 고령이었으므로 통강을 永慕堂[38]으로 옮겨 실시하였다. 『永慕堂 通講諸子錄』에는 202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39]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낙재와 모당을 비롯한 대구유학의 2세대는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연경서원을 중건하였으며, 1세대의 강학을 계승하여 매우 엄격하고도 철저하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들 2세대의 노력과 정성으로 1, 2차에 걸쳐 행한 통강에서 265명의 3세대 유학자가 양성되었다.[40] 이와 같이 대구지역은 연경서원의 강학을 통하여 文鄕이 고장이 되었다. 연경서원의 강학은 溪東 全慶昌에서 시작되어 樂齋 徐思遠에 의해서 꽃을 피웠으며, 慕堂 孫處訥에 의하여 결실을 맺게 되었다.

3. 서원의 賜額

연경서원의 사액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모당 손처눌이다. 손처눌은 1623년(인조 1) 4월 6일에 관찰사에게 書院請額疏를 올리려고 投巖 蔡夢硯(1561~1638)과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동년 4월 28일에 상소를 올리려 하였으나 鄕賢祠의 문제로 대구지역의 유림들이 분열되어 상소를 올리지 못하였다. 향현사의 문제라는 것은 전경창과 서사원의 配享 位次 문제이다.[41]

손처눌이 타계한 이듬해 1635년(인조 13) 10월과 1636년 6월에 채몽연이 지은 請額疏로 2차례 상소를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채몽연의 상소문을 살펴보면 이때 이미 서원의 남발로 폐단이 가중되어 조정에서 윤허를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42]

그 후 1659년 3월에 石屛 李休運(1597~1668)이 서원의 원장으로 상소를 하

38) 영모당은 손처눌의 강학소이다. 이곳에는 儒林에 의하여 靑湖書院이 건립되었다.
39) 손처눌, 『영모당 통강제자록』, 청호서원, 2001.
40) 구본욱, 「연경서원의 강학과 대구지역 제3세대 유학자」, 『조선사연구』28, 조선사연구회, 2019, p.102.
41) 여기에 대하여는 구본욱의 「대구지역의 성리학을 연 溪東 全慶昌」, 『조선사연구』20, 조선사연구회, 2011, pp.28-44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42) 구본욱, 앞의 논문(2012-1), pp.196-197 참조.

여 뜻을 이루게 되었다. 이때 疏首로는 진사 具時雄(1625～1671)이고 청액소는 이휴운의 아들 李言直(1631～1698)이 지었다. 『효종실록』 1659년 윤3월 28일에 “이황과 정구를 祭享하는 서원의 額號를 硏經으로 내리라고 명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언직의 문집[43]과 『대구읍지』(영조조)에는 1660년(현종 1)에 사액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로써 연경서원은 대구지역 최초의 서원이자 최초의 賜額書院이 되었다.[44]

4. 경상감영 首府의 서원

연경서원은 건립 후 대구부사를 비롯한 많은 관리들이 방문하였다. 草澗 權文海(1534～1591)는 1588년(선조 21) 10월 4일 대구부사로서 연경서원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暖玉杯’와 ‘諫垣存稿’로 詩와 賦를 짓게 하였고, 하룻밤을 묵으며 監役 徐思遠과 생원 全春年(1552～1592)[45]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46] 권문해는 1590년 4월 2일에도 서원을 방문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1601년(선조 34)에 경상도 감영이 대구에 설치됨에 이후 연경서원에는 관찰사를 비롯한 대구부사와 通判 등이 연이어 방문하였는데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47]

<표-1> 관찰사

연월일	왕 조	성 명	목적	출 전
1603. 7. 2	선조 36	이시발	방문	『태암집』, 『모당집』
1606. 2. 2	선조 39	유영순	방문	『모당일기』

43) 이언직, 『明湖集』, 卷上, <硏經書院 請額疏>, 1909.

44) 사액은 지금의 대구지역에 편입된 현풍의 도동서원에 먼저 내렸는데, 당시에 도동서원은 대구지역의 서원이 아니라 현풍현의 서원이었다.

45) 전춘년은 진사 전윤창의 아들로 전경창의 從姪이다.

46) 권문해, 『草澗日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111. “四日 晴. 早朝往硏經書院. 儒生製述暖玉杯詩, 諫垣存稿賦. 與徐監役思遠 全生員春年, 同宿而話. 五日 晴. 朝後, 向解顔倉. 監還, 上午時, 歷入故蔡生員應獜(麟)家亭. 金監察宇容, 及近處品官五六員, 皆持酒壺而來. 竟日飮話而散.”

47) 구본욱, 앞의 논문(2012-1), pp.193-194 참조.

1608. 8. 5	선조 41	정사호	방문	<낙재연보>
1609.10. 20	광해군 1	강 첨	방문	『모당일기』
1614. 2. 28	광해군 6	권 반	謁廟	『모당일기』
1621. 11~ 1623. 7	광해군 13 ~인조 1	김지남	방문	퇴계선생 화암서원 차운시가 있음

<표-2> 대구부사 및 통판

연월일	왕 조	성 명	목적	출 전
1603. 7. 2	선조 36	조홍립	방문	『태암집』,『모당집』
1604. 윤9. 14	선조 37	윤 후	製述	『모당일기』
1606. 4. 25	선조 39	조 정	通講參講, 제술	『모당일기』
1607.윤6. 15,16	선조 40	정경세	통강 참강	<우복연보>,『모당일기』
1607. 11. 15,16	선조 40	정경세	통강 참강	『모당일기』
1608	선조 41	정경세	강학	『문탄집』
1613. 6. 11	광해군 5	김윤안	부임방문	『모당일기』
1613. 8. 4	광해군 5	김윤안	방문	『모당일기』
1626. 5. 17	인조 4	조국빈	제향	『모당일기』

위의 표는 1603년부터 1626년까지 연경서원을 방문한 관찰사와 대구부사, 통판의 방문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대구부사와 통판은 연경서원이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격려 및 공부의 점검을 위하여 방문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관찰사의 방문은 타 지역 서원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연경서원이 경상감영이 소재한 대구부에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후 관찰사가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고, 또 아래 영조 때 연경서원 이건 낙성식에 관찰사가 직접 고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연경서원은 경상감영

首府의 서원으로 특별히 중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경서원은 1674년(영조 50)년에 이르러 홍수로 인하여 서원의 뒷산에 사태가 나서 사당이 훼손되었다. 그래서 1여년이 소요되어 서원을 동쪽으로 40보되는 지점으로 이건하였다. 『연경서원 이건일기』 중 낙성식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774년(영조 50) 12월 9일 감영의 요청으로 우명휴, 채시용, 서도수, 곽원택이 경상감영에 들어가 奉安에 대해 협의하였다. 감영에서는 봉안시 감사께서 직접 참석하겠다고 하였다. 다시 대구부에 들어가 봉안절차에 대해 논의하였다. 14일에 道內에 봉안 通文을 보내었으며, 18일에는 대구지역 유림들에게 보내었다. 24일에 경산, 청도 등 道儒와 鄕中의 老小가 다 모였는데 거의 100여명에 이르렀다. ..... 12월 25일에 퇴계선생을 비롯한 諸先生의 位牌를 上下廟에 다시 봉안[還安]하였는데 축문[봉안문]은 監司 尹養厚가 지었다. 上廟의 獻官은 감사 윤양후, 執禮는 우명휴, 大祝은 通判(대구부사) 李商進이었고, 下廟의 헌관은 원장 박광보, 집례는 柳宗垕(1719~1782)였다. 축문은 상묘와 함께 사용하였다. 이날 날씨는 흐렸지만 따뜻하였고 바람도 불지 않아 享禮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48]

위의 글에서 '감영에서는 연경서원 사당의 위패를 봉안할 때 감사께서 직접 참석하겠다'고 한 것과 봉안문을 감사인 尹養厚가 직접 지었다고 하고 上廟에 헌관을 한 것으로 보아, 이 행사는 대구부의 차원이 아니라 경상감영의 차원에서 의식을 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上廟는 退溪와 寒岡, 愚伏을 봉안한 사당이고, 下廟는 梅巖과 溪東을 배향한 鄕賢祠를 말한다.

또 당시에 연경서원을 이건할 때 경상도 관찰사 閔弘烈과 尹養厚, 相國 金載順, 대구부사 李商進을 비롯한 많은 관리와 향교·서원에서 물품과 돈 등을 부조하였다. 부조를 한 관리는 관찰사 2명, 相國 1명, 牧使 2명, 부사(대구부사 포함) 10명, 군수 3명, 현령 3명, 현감 23명, 찰방 5명, 左水使 1명으로 모두 50명이다. 또 진사 1명이 참여하였으며, 향교와 서원은 76곳에서 참여하였다.[49] 이것은 경상도 지역의 거의 모든 관리와 향교·서원이 연경서원의 이건에 부조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

48) 玄風郭氏 槐軒 郭再謙 宗家 所藏, 『研經書院 移建時 日記』. 이 일기는 홍수로 묘우가 훼손된 1774년 6월 21일부터 1775년 5월 23일까지 서원의 이건과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표지를 제외한 본문 45장 90면이다. 이 일기는 郭宗勳 연경서원 중건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2014년 9월에 논자에게 제공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49) 구본욱, 앞의 논문(2015-1), p.170.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경서원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경상도 首府의 서원이자 경상감영의 서원으로 그 위상이 대단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Ⅳ. 연경서원 설립의 의의

1. 낙중 퇴계학의 중심

퇴계학이 영남의 남쪽으로 전파된 南傳은 금계 黃俊良에 의해서다. 황준량은 신녕현감으로 있을 때 白鶴書堂을 건립하였으며, 1560년에는 성주목사로 부임하여 이듬해 고을의 동쪽에 孔谷書堂을 건립하였고, 칠곡의 鹿峯에 精舍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당시에 성주에는 迎鳳書院이 건립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녹봉정사이다. 녹봉정사는 주자의 백록동규에 의거하여 목사인 금계와 교관인 오건이 參講하여 通講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통강을 한 126명의 명단이 전하고 있다. 이 통강에 대구, 인동, 개녕, 상주, 청도, 영천, 거창, 청주 등지의 사람들도 참여하였다.

그 가운데 대구지역에서 참가한 사람은 16명으로 성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수이다.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50]

> 徐弘胤, 柳直諫, 柳純諫, 李敏德, 鄭師哲, 鄭光天, 徐應謙, 徐思達, 李孝伯, 都珣, 柳忠諫, 朴夢禎, 柳堯臣, 郭沂, 孫處謙, 孫處訥[51]

위에 보이는 사람은 대구의 달성서씨, 문화류씨, 동래정씨, 성주도씨, 밀양박씨, 현풍곽씨, 일직손씨 들이다. 위에는 대구유학의 1세대인 정사철과 광천 부자, 2세대인 서사원의 아우 서사달, 류요신, 손처눌이 보인다. 류순간은 류요신의 再從叔으로 3세대인 柳思溫의 부친이다. 또 위 녹봉정사를 방문한 대구 인사는 진사 全慶昌, 徐洽, 李敏德[52], 진사 蔡應龍, 朱愼言이다. 여기에서 채응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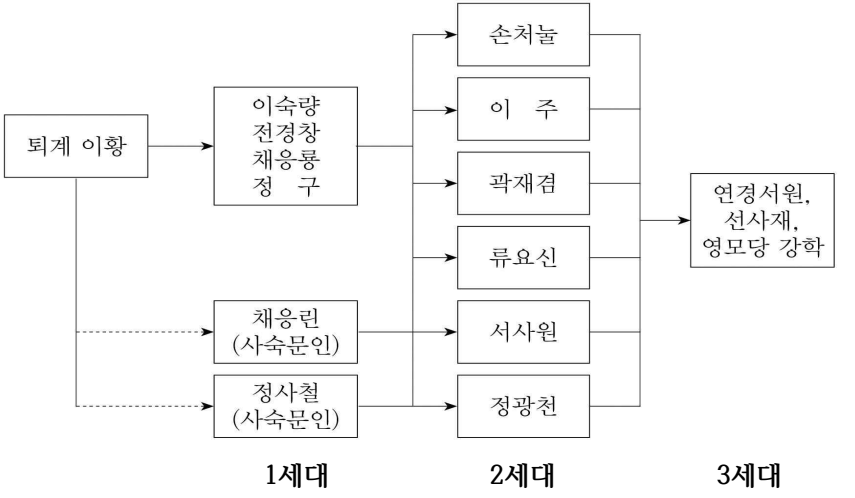
50) 성주도씨 서재문중 소장, 《鹿齋 講舍錄》.
51) 원본에는 孫處訥은 孫汝訥, 孫處謙은 孫汝謙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52) 이민덕은 통강과 방문자 명단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퇴계의 문인으로 전경창의 從妹夫[53]이고, 3세대인 達西齋 蔡先修의 양부이다. 또 서흡은 서사원의 生父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경서원의 설립과 강학은 녹봉정사의 영향을 받았다. 전경창과 이숙량은 퇴계의 문인으로 연경서원을 건립하여 강학을 하였으며, 2세대인 손처눌, 이주, 곽재겸, 류요신, 서사원, 정광천에게 전하였다. 2세대 유학자들은 硏經書院, 仙査齋, 永慕堂의 통강[54]을 통하여 265명의 제3세대 유학자들을 양성하였다. 이들은 모두 洛中 退溪學의 계승자들이다.

낙중학은 낙동강 중류의 유학[55]으로 이숙량과 전경창에게 강학을 받은 대구 유학의 2세대 유학자들이 모두 한강 정구에게 집지함으로써 연경서원의 강학은 寒岡學의 범주로 편입되었다. 이로써 대구지역 즉 연경서원의 강학은 그 외연을 더욱 확장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연경서원은 낙중 퇴계학의 중심서원이 되었다.

이를 계보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56]



53) 전경창 伯父의 사위이다.

54) 대구지역의 통강은 연경서원, 선사재, 영모당이 모두 같은 선상에서 행한 통강이다. 통강록에는 이외에 대구향교, 達城에서 행한 2차례 통강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55) 홍원식, 「영남유학과 낙중학」, 『낙중학, 조선시대 낙동강 중류의 유학』(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계명대출판부, 2012.

56) 구본욱, 「대구지역의 퇴계학맥」, 『영남지역 퇴계학맥의 전개』(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중문출판사, 2020, p.39.

2. 대구교육의 원류

조선 중기 대구지역의 교육기관으로는 대구향교와 연경서원이 있었다. 향교는 나라에서 설립한 관학으로 조선 후기에 이르면 향교는 과거 등과 관련된 업무에 치중하였으며, 지역의 교육은 거의 서원에서 행하게 된다.

연경서원 역시 앞에서 언급한 통강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대구지역의 거의 모든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이들의 교육이념은 퇴계가 제시한 서원교육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연경서원에서 강학한 2세대 유학자를 배향하는 서원이 건립되게 되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연경서원 강학한 2세대 배향 서원

서원명	주·배향	배향인물	시호·호	관직·이력
伊江書院	獨享	徐思遠	樂齋	호조정랑, 의병대장
靑湖書院	尊位	孫肇瑞	格齋	집현전 한림학사
	主享	孫處訥	慕堂	의병대장
	配享	柳時藩	沙月堂	달성십현
		鄭好仁	暘溪	진주목사
柳湖書院	독향	郭再謙	槐軒	통정대부
西山書院	주향	蔡貴河	貞義公	호조전서
	배향	蔡應麟	松潭	생원
	배향	蔡先修	達西齋	의병장
	배향	蔡先見	兩傳軒	진사, 참봉
琴巖書院	주향	鄭師哲	林下	생원, 참봉
	배향	鄭光天	洛涯	의병장
西溪書院	주향	李文和	恭度公	증 영의정
	배향	李 輈	苔巖	의병대장
鳳山書院	독향	孫 遴	聞灘	단성현감

龍湖書院	幷享	都聖俞	養直堂	달성십현
		都汝兪	鋤齋	달성십현
		都愼修	止巖	영해부사
屛巖書院	병향	都應兪	翠厓	진사
		都慶兪	洛陰	平壤庶尹
百源書院	독향	徐時立	全歸堂	孝行 贈戶曹佐郎

위 표에서 나타낸 서원은 연경서원에서 통강을 한 분을 배향한 서원을 나타낸 것이다. 이외에 대구지역에는 제향을 위주로 하는 많은 서원이 건립되었다. 연경서원은 대구지역 서원의 모체이며 교육의 원류이다.

3. 국난극복의 호국서원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양력 5월 23일) 왜적이 부산포에 진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왜적들은 파죽지세로 북상하였는데, 8일 후 4월 21일(양력 5월 30일)에 밀양과 청도를 거쳐 팔조령을 넘어 가창과 파동으로 진입하였다.

이때 대구부사 尹暐이 초기 대응을 하였으나 실패를 하고 부사는 관군을 이끌고 팔공산으로 피신하여 동화사에서 관군을 지휘하였다.

대구의 유림 지도자들 역시 졸지에 변란을 당하여 팔공산과 비슬산 등지로 피난을 하였다. 서사원은 가족을 거느리고 팔공산으로 피난을 갈 때 연경서원에서 하루를 머물기도 하였다.

동년 7월 6일에 이르러 대구지역의 유림들은 팔공산 부인사에서 鄕會를 열어 대구지역의 의병을 결성하였다. 이때 결성된 의병을 公山義陣軍이라고 하는데[57], 이를 주도한 사람은 대구유학의 2세대인 서사원과 이주, 손처눌, 곽재겸, 류요신, 鄭光天(1553~1594) 등이었다.

공산의진군은 대구지역을 20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대구의 전 지역을 하나의 의병조직으로 구성하였다. 이것은 연경서원에서 공부한 同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주요 의병장을 살펴보면 의병대장은 서사원이고[58] 公事員은 李輈, 解

57) 구본욱,「대구유림의 임진란 창의와 팔공산 회맹」,『조선사연구』24, 조선사연구회, 2015-2, p.49.

顔縣 다섯 面의 都大將은 곽재겸, 해안 北村 의병장은 류요신, 해안 東村里 의병장은 禹舜弼, 壽城縣의 대장은 손처눌, 수성 북면 의병장은 채몽연, 河濱縣 대장 겸 西面 의병장은 李宗文, 하빈 南面 의병장은 정광천[59] 등 이들 의병장은 모두 연경서원에서 공부한 유학자들이었다.

대구지역은 왜적들이 후방의 군수기지로 사용함으로 왜적의 주력부대가 주둔함에 의병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이들이 활동함으로 인하여 왜적의 후방을 교란시켜 북상을 지연시킨 것은 그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왜란이 종결된 후 대구지역 전후의 복구에도 연경서원에서 공부한 유학자들이었다. 서사원은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1592년 4월 13일부터 1595년 8월 청안현감으로 부임하기 이전까지 팔공산과 대구지역의 난중일기[60]를 남기기도 하였다.

V. 결어

지금까지 연경서원의 설립과 위상 및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경서원의 설립은 대구를 학문과 문화의 고장이 되게 하였으며, 오늘날의 대구를 있게 한 바탕이자 근원이다. 그러나 대원군의 훼철 정책으로 훼철된 이후 복원되지 못하고, 일제의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遺址(터)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훼철된 지 150여년 후에 대구의 뜻있는 인사들이 연경서원이 대구의 발전에 끼친 공적을 확인하고 서원 복원운동을 추진함에 2016년에는 대구광역시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마쳤으며, 동구 연경지구에 건립 부지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직 중건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거 연경서원의 위상과 의의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8) 처음에는 당시에 63세로 대구지역의 최고의 원로 학자인 鄭師哲(1530~1593)을 추대하였는데, 병으로 사양하였다.

59) 구본욱, 앞의 논문(2015-2), p.48.

60) 이 일기(낙재선생일기)는 계명대학교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첫째 연경서원은 퇴계의 '서원십영'에 포함된 서원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서원이 설립되기 시작한 초기에 건립된 서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 서원의 규모는 40여 칸이었으며, 서원건립의 주체는 퇴계의 문인이다. 특히 '서원십영'에 읊은 연경서원 시와 <연경서원 기문후기>에는 퇴계의 서원교육의 철학이 집약되어 있다.

둘째, 연경서원은 강학을 위주로 설립되었으며, 강학을 통하여 그 계보를 형성하였다. 1세대인 이숙량과 전경창에게 강학을 받은 2세대 유학자인 서사원과 손처눌 등이 모두 한강 정구의 문인이 됨으로써, 그 외연을 넓히게 되었으며 낙중 퇴계학의 중심서원이 되었다.

세째, 연경서원의 주향은 퇴계선생이고 한강 정구와 우복 정경세를 배향하였다. 향현사에는 매암 이숙량과 계동 전경창을 배향하였다. 이들은 모두 도학을 창명한 분으로 역사적으로 추앙 받는 분들이다.

넷째, 1601년(선조 34)에 경상감영이 대구에 설치됨에 연경서원은 경상도 즉 영남 首府의 서원이자 경상감영의 서원이기도 하였다.

다섯째, 연경서원은 호국서원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연경서원에서 공부한 동문들이 함께 모여 의병을 조직하여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경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 정책으로 훼철 되었다. 대원군의 이러한 정책은 당시 서원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서원이 훼철되었다고 하여 그 위상이나 格이 낮은 것은 아니다. 다만 대원군의 一賢人一書院의 원칙[61]에 의하여 대구 최초의 서원이자 사액서원인 연경서원은 훼철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서원의 건립연도, 건물의 규모, 건립의 주체, 배향인물, 강학의 참여자, 사액여부, 관리의 방문, 훼철여부,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연경서원의 위상과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위의 기준으로 볼 때 연경서원은 우리나라 서원 중에서 최고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1) 예를 들면 퇴계를 모신 首 서원이 도산서원이므로 도산서원을 제외하고 퇴계를 모신 전국의 모든 서원은 훼철한다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1. 문집, 일기, 편액
권문해,『草澗日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박필주,『黎湖文集』, 한국고전번역원 DB.
손처눌,『慕堂文集』, 1849.
_____,『영모당 통강제자록』, 청호서원, 2001.
이숙량,『매암문집』, 花樹齋, 1938, 이언직,『明湖集』, 1909, 이원정,『龜巖文集』, 景巖齋, 1937, 이황,『퇴계문집』, 영인본, 계명한문연구회, 1990.
이황,『국역 퇴계전서』2, 4, 10, 퇴계학연구원, 1991.
전경창,『溪東文集』, 1859. 장현광,『旅軒文集』, 정구,『寒岡文集』, 1841.
정구,『국역 한강집』3, 송기채 역, 민족문화추진회, 2003.
玄風郭氏 槐軒 郭再謙 宗家 所藏,『硏經書院 移建時 日記』.
성주도씨 서재문중 소장,《鹿齋 講舍錄》, 李商進, <硏經書院 移建記(편액)>, 1775.

2. 단행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낙중학, 조선시대 낙동강 중류의 유학』, 계명대출판부, 2012.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영남지역 퇴계학맥의 전개』, 중문출판사, 2020,

3. 논문
구본욱,「대구지역의 성리학을 연 溪東 全慶昌」,『조선사연구』20, 조선사연구회, 2011.
_____,「연경서원의 경영과 조선 중기 대구지역의 유학」,『퇴계학논집』11,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1,
_____,「大邱儒賢 通講錄의 正字化와 해제」,『퇴계학논집』11,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2.
_____,「연경서원 이건시 任司錄과 扶助記」,『퇴계학논집』16, 영남퇴계학연구원, 2015-1.
_____,「대구유림의 임진란 창의와 팔공산 회맹」,『조선사연구』24, 조선사연구회, 2015-2.
_____,「연경서원의 강학과 대구지역 제3세대 유학자」,『조선사연구』28, 2019.
_____,「녹봉정사의 건립과 경영 및 강학」,『한국학논집』78,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20.
홍원식,「연경서원 제향 인물과 그 배경」,『퇴계학논집』16, 영남퇴계학연구원, 2015.
이수환,「서원 기록자료의 정리현황과 과제」,『한국서원학보』2, 한국서원학회, 2013.
이병훈,「조선후기 영남지역 원사의 건립과 변화 검토」,『한국서원학보』6, 한국서원학회, 2018.

The Establishment, Status, and Significance of Yeongyeong Seowon School

Koo, Bon-wook*

Yeongyeong Seowon School(研經書院) was the first of its kind in Daegu, representing the starting point of education in the Daegu area. First constructed in 1563 (the 18th year of the reign of King Myeongjong), and then, torn dow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壬辰倭亂), the School went through a long period of being rebuilt. As the provincial office of Gyeongsang Province(慶尙監營) was set up in Daegu in 1601 (the 3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onjo), Yeongyeong Seowon School faithfully fulfilled its function as a Seowon School in Daegu, the capital city of Gyeongsang Province.

This ultimately led to the School becoming the main Seowon School when it came to the Toegye Studies in the Daegu area. However, in 1871 (the 8th year of the reign of King Gojong), the School subjected to abolition as a result of the nationwide abolition policy against Seowon Schools led by Heungseon Daewongun(興宣大院君), King Gojong's father who was acting as a regent at the time. The abolition made the School leave around three-hundred-year-long prosperity behind history.

However, it is needless to say that Yeongyeong Seowon School made an immeasurable contribution to educational, academic and cultural aspects in the Daegu area. In recent days, recognizing the enormous

* Daegu Catholic University professor of industry-academy cooperation / bonwkoo@hanmail.net

influence of the School on the formation of identity in Daegu, and agreeing on the need for the School to regain its reputation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Daegu education, some interested figures in this matter in the Daegu area have embarked on a campaign for restoring the Seowon School. Against this backdrop, the writer of this thesis has touched on the status, characteristic, and significance of Yeongyeong Seowon School.

Key word : Yeongyeong Seowon School, Daegu Confucianism, Daegu Education, Jeon Kyung-chang, Toegye Studies.

이 논문은 2020년 5월 21일 투고 완료되어
2020년 6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6월 22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http://dx.doi.org/10.30594/kss.2020.6.10.5 129

朱熹书院祭祀制度的建构、完善与传承

方彦寿*

Ⅰ. 朱熹书院祭祀制度的建构
Ⅱ. 后学对书院祭祀制度的完善
Ⅲ. 后学对书院祭祀制度的传承

< 국문요약 >

주희의 서원 의례제도는 상례(常禮)와 제례(祭禮)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례는 강학, 장서 및 刻書와 함께 서원 교육의 "三大기능"으로 주희가 서원을 설립하는 데 중점을 두는 서원 의례제도의 주체이다. 그 내용은 제향 인물의 선정, 제향 취지의 확립, 제향 의례의 실행, 주문 후학들이 "창주제도(滄州之制)"에 의한 정체성의 확립, 강화, 완성 및 전승 등이 포함된다. 주자학이 흥기(興起)되기 전 복건(福建)지역 서원은 보편적으로 규모가 작고 서원 제도화 정도가 낮았으며, 전문적인 교수 및 관리자가 부족했고, 장서 및 서원 의례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희의 시대에는 서원 제도(制度) 강화, 특히 서원 의례제도의 구축은 주희가 서원을 건립하고 서원을 부흥(復興)시킬 때 직면한 중요 과제가 되었다.

상례는 즉 서원의 일상 의례이며, <백록동서원게시>, <훈학재규>등 서원 학규에 반영되어 있고, 일상의 강학활동과 사제(師弟)간의 예의와 규칙으로 적용된다. 본 논문은 주희 서원 제향제도의 구축, 개선(改善), 전승(傳承)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제어 : 상례(常禮), 제례(祭禮), 주희서원, 제례개선(祭禮改善), 제향전승(祭享傳承)

* 福州理工学院朱子文化研究所长，福建省炎黄文化研究会副会长 / bangnisio995@183.com

Ⅰ. 朱熹书院祭祀制度的建构

南宋乾道、淳熙年间（1165－1189），随着朱子学的兴起，朱子学派的逐渐形成，南宋书院的创建逐渐进入一个高潮。朱熹书院祭祀制度的建构，也随着他在推进书院建设的进程而逐渐展开和深入。其中，也有一些虽然也是其仪礼制度建构的内容，但其初衷未必就是专为书院而设。如释奠礼，如祭祀学派先贤等，最早都是朱熹在担任地方官时，为地方官学而创，但最终均被吸收到朱熹本人或其后学所创书院的祭祀制度中。纵观朱熹书院祭祀制度的建构过程，有以下几点值得重点关注。

1. 祭祀对象的抉择及其意义

朱熹在书院祭祀方面的建树，对南宋以后的书院产生了巨大的影响。主要体现在：

(1) 是在书院祭祀中首创“四配”。

朱熹创建的书院，在祭祀孔圣配祀、从祀方面，有两大创举。一是开启了配祀孔门四大弟子的先河，二是开启了从祀本学派先贤的创举。

祭祀孔圣，而以门人配祀，在北宋以前仅有颜子和孟子两位，左颜右孟。颜配始于唐玄宗太极元年（712），孟配始于宋神宗元丰七年（1084）〔一说是三位，颜配始于三国魏正始二年（241），见《三国志.魏书》卷四。另有曾子配享，始于唐太极元年〕。王安石新经盛行之时，有一股以王为圣人之风，王去世后，曾将王作为配祀。先是列于左，在颜子之下，王安石女婿蔡卞当权时，认为王不应在孟子之下，故移王于右，与颜子对，而移孟子于第三，如此逐渐升极，乃至有去孔圣而专祀王安石的苗头。宋南渡后，王安石罢配祀，曾有过一段时间，右配出现虚位的局面。

绍熙五年(1194)十二月，朱熹在建阳沧洲精舍举行的释菜礼上，主祀孔圣

之外，首次将颜渊、曾参、子思、孟子作为配祀，此为全国书院祭祀孔圣，而以四位门人配祀的创举。这一创举从私立书院而走向官学，已是宋理宗咸淳三年（1267）[1]，比朱熹考亭崇祀晚了70多年。朱熹之后，书院崇祀孔圣和四配成为定例，并进而影响到孔庙的配祀制度。

(2) 是将祭祀学派先贤的创举引入书院祭祀制度。

朱熹在淳熙六年(1179)任南康知军时，在江州立濂溪祠于军学，在祠中主祀周敦颐，而以二程配祀。此为全国祭祀学派先贤的创举。朱熹请其友人张栻为其作《南康军新立濂溪祠记》。张栻在记文中说："淳熙五年秋，诏新安朱侯熹起家为南康守。越明年三月至官，慨然思所以仰称明天子德意者，首以兴教善俗为务，力立濂溪周先生祠于学宫，以河南二程先生配，贻书其友人张某曰：'濂溪先生尝领是邦，祠像之立，视他州尤不可以缓。子盍为我记其意？'某既不克辞，则以平日与侯习讲者述之以复焉。"他认为。周敦颐"先生崛起于千载之后，独得微旨于残编断简之中，推本太极，以及乎阴阳五行之流布，人物之所以生化，于是知人之为至灵，而性之为至善，万理有其宗，万物循其则，举而措之，"使"求道者有其序，而言治者有所本。其有功于圣门而流泽于后世"。[2]在此文中，他高度赞扬了朱熹建造濂溪祠，对儒学传播的意义。

绍熙五年(1194)十二月，朱熹在建阳沧洲精舍举行的释菜古礼上，除了"四配"的创举之外，又将江州濂溪祠主祀周敦颐，而以二程配祀之举引入沧洲精舍。且在道学先贤周敦颐和二程兄弟之外，又增祀邵雍、张载、司马光、李侗，共七人从祀。此为福建书院祭祀学派先贤的开先河之举。

朱熹所创的书院"四配"和从祀本学派先贤之举，有何深意？

1) 为其理学道统论的建构张目。

朱熹在书院举行祭祀活动，其目的是使其门人从这些先圣先贤的身上吸取教益，受到文化、道德的熏陶。更重要的是，举行这项活动，能使儒家的道

1) （元）脱脱：《宋史·度宗纪》卷四六，中华书局1977年版，第897页。
2) （宋）张栻：《南轩先生文集》卷十，《朱子全书外编》第4册，华东师大出版社2010年版，第183—184页。

统学说得到生动活泼的、立体的体现，从而使门人容易接受，取得比讲学更好的效果。儒家的道统说，是唐代韩愈、李翱所创，后经北宋二程、南宋刘子翚的阐发，并经朱熹的论定。韩愈在《原道》一文中认为，中国文化的根本传统是儒家传统。这个传统是尧开其端，后尧传舜、舜传禹、禹传汤、文王、周公，一直到孔子、孟子，史称"道统论"。道统的观念指的是圣人相传的谱系和儒家正统文化精粹的传承关系，这种传承并不一定是师徒之间的直接传授，而也可以是跨越时代的密契心传，故又称"道统心传说"。

"道"，指的就是他的理学核心思想——存天理，灭人欲，也就是封建伦理纲常。"统"则指的是圣人相传的谱系，和儒家正统文化精粹的传承关系。陈荣捷先生说："道统之绪，在基本上乃为哲学性之统系而非历史性或经籍上之系列。"[3]也就是说，"道统"的提出，与是否符合历史真实无关。其要点在于"哲学性"，即对"道"的内涵的阐述、思想的继承方面是否有"授受"关系，并以此为标准对道统的谱系人物进行选择。

朱熹的道统论的提出，是与他在各地的书院讲学实践紧密联系在一起的。淳熙二年(1175)，朱熹在建阳建成云谷晦庵草堂时，就曾有过在此书院祭祀孔圣，而以颜、思、曾、孟配祀的想法。他说："配享只当论传道，合以颜子、曾子、子思、孟子配。尝欲于云谷左立先圣四贤配，右立二程诸先生，后不曾及。"[4]除祭祀孔圣和四配之外，朱熹认为，周、张、二程等继承了孟子的道统，因此在书院中祭祀这些先贤也是理所当然的。他在《沧洲精舍告先圣文》中说："恭惟道统，远自羲轩。集厥大成，允属元圣。……千有余年，乃曰有继。周程授受，万理一原。曰邵曰张，爰及司马。学虽殊辙，道则同归。"[5]说的就是儒学道统的传承。其要在于，"学"未必求同，而"道"则须"同归"。

2) 为理学四书体系的建构张目。

从思想渊源来说，朱熹思想源于"北宋五子"周敦颐、邵雍、张载和二程，而集宋代理学之大成。乾道九年(1173)，朱熹在寒泉精舍编纂的《伊洛渊源

3) 陈荣捷：《朱熹集新儒学之大成》，《朱学论集》第17页，台湾学生书局1982年。
4) (宋)黎靖德编：《朱子语类》卷九十，中华书局1986年版，第2294—2295页。
5) (宋)朱熹：《朱文公文集》卷八十六，《朱子全书》第24册，第4050页。

录》，书中列入了周敦颐、程颢、程颐、张载、邵雍，以及他们的门人弟子共46人的言行，来阐扬他们的学术传承和师友渊源。全书以宋代儒家学派中影响最大的程颢、程颐，即“二程洛学”为中心，而兼及周敦颐的濂学、张载的关学、邵雍的先天之学。在本书中，朱熹以“伊洛渊源”传授系统，揭示北宋理学各主要学派的传授渊源。

绍熙五年（1194）十二月，朱熹在考亭沧洲祭祀孔圣和四配，又将北宋道学先贤周、张、二程等作为从祀。这一祭祀学派先贤的开先河之举，与最早的学术思想史专著《伊洛渊源录》，及其理学思想体系的代表性著作《四书章句集注》的编纂和出版，鲜明地揭示了朱子理学思想体系的渊源和建构。钱穆先生认为：

朱子融会理学于经学，又确定伊洛为上承孔孟之道统，厥功之伟，端在其定为四子书，而又为之作集注与章句。至其反复叮咛，必使读者先《孟子》而后《中庸》，尤为有甚深之义蕴。并退六经于四书之后，必使学者先四书后六经，更为于中国学术史上有旋乾转坤之大力 。[6)]

历史上，最早将此四部著作合称为“四书”，创始于朱熹。他在建阳、武夷两地的书院中，前后以数十年精力撰著的《四书章句集注》，结束了前人对此四部著作个别的、零散的，不成体系的研究局面，开创了中国经学史上崭新的四书经学体系。此即钱穆先生所说“退六经于四书之后”，“于中国学术史上有旋乾转坤”的历史功绩。而四书的撰著者，正是孔圣和被朱子列为四配的几位孔门后学。

2. 祭祀程序与文本

绍兴二十五年(1155),在任同安主簿时,县学要举行释奠礼，由于缺乏可供施行的文本，朱熹因此而编纂《州县释奠仪图》。后历经修改，定稿于绍熙间，故名《绍熙州县释奠仪图》。此为官学的礼仪，朱熹所创书院由于受场地狭小所限，后来并未在其所创的书院中推行。

6) 钱穆：《朱子新学案》，台北三民书局1971年版，第4册，第226页。

释菜礼其名始见于三《礼》中，也是一种古老的祭祀仪式,北宋时各级官办学校每年在四月举行。宋南渡后，此礼在官学中亦日渐式微。朱熹要将此礼在书院中推行，就面临着文本的编撰、程序的编排、祭文的撰写等方面的问题。为此，他查阅了大量古籍，参考古礼，及其建构理学思想体系、弘扬道统学说的需要，结合考亭沧洲精舍的具体情况，亲自撰写了可供操作的祭祀程序。由于其私办书院的规模较小，官学的释奠礼和释菜礼均不太适合书院使用，故朱熹对释菜礼进行了改造，《沧洲精舍释菜仪》和《沧洲精舍告先圣文》由此而产生。

3. 祭祀实践在书院的落实

依照《沧洲精舍释菜仪》的祭祀程序和文本，绍熙五年(1194)十二月，朱熹在建阳考亭沧洲精舍举行一次规模较大的祭祀先圣的仪式。此为仅见于文献的、在朱熹本人所创的书院中举行的祭祀活动。

在这次祭祀活动中任“赞”（司礼）的门人叶贺孙记载了朱熹在考亭沧洲精舍首行释菜礼的全过程。文中记载由于条件所限，书院大堂狭小而潮湿，所祭先圣先贤，孔圣之外，四配与两宋道学先贤七子均以纸牌子代替而非塑像，但主献官即朱熹却“极其诚意”，气氛认真而隆重。弟子中，叶贺孙、蒋叔蒙为赞，黄榦和徐寓为分奠（负责分送祭品），朱在为掌仪（负责对献官的引导）。最后，朱熹即席开讲，内容是为学之要，表明书院的祭祀活动是与讲学活动紧密结合在一起的。[7)]

II. 后学对书院祭祀制度的完善

1. 祭祀对象的重新排列

7) （宋）黎靖德：《朱子语类》卷九十，中华书局1986年，第2295-2296页。

庆元六年（1200）三月，朱熹逝世。黄榦担负起了领导朱门后学的任务。他在《朱文公先生行状》中，论定了朱熹的儒家道统地位。他说："道之正统待人而后传，至周以来，任传道之责，得统之正者不过数人，而能使斯道章章较著者，一二人而止耳。由孔子而后，曾子、子思继其微，至孟子而始著。由孟子而后，周、程、张继其绝，至熹而始著。"[8]将前人所创由尧舜开其端，一直到孔子、孟子的道统之传，下延至周、张、二程和朱熹。

在认定道统的同时，考亭书院的祭祀对象，很自然地就要列入朱熹。元代朱门后学，名儒陈普《考亭记》中说："庆元庚申先生殁，诸生就祠焉。"[9]是说先师逝世之后，诸生将朱子列入书院祭祀的圣贤之列。

2. 朱子专祠与祭祀场所的新建

宝庆二年（1226），知县刘克庄在书院内建成文公祠。其址在沧洲精舍之后。陈普《考亭记》中："宝庆丙戌，邑宰刘公克庄别为祠于精舍之后。"所谓"别为祠"，[10]是说另建了一座独立的祠。此祠为祭祀朱子的专祠，也是中国历史上第一座朱文公祠。此祠建成之初，仅主祀朱熹一人，而以黄榦配祀。元至元二十五年(1288)，母逢辰任建宁路判官，曾将书院修复一新，县令郭珙助成之。在书院原祀朱熹、黄榦的基础上，增祀蔡元定、刘爚和真德秀，此为朱文公祠四大弟子排行之由来。

绍熙五年，沧洲精舍落成之时，朱熹有《沧洲精舍告先圣文》。门人王过记，朱熹每日早起，率弟子"随侍登阁，拜先圣像，"[11]说明自书院开创以来，祀奉孔圣，是一传统。但祀奉之所是在精舍之内，而非一独立建筑。一直到正德十三年重修书院，在明伦堂前建了燕居庙，以祀奉孔夫子。至此，建阳考亭书院祭孔和祭朱的两个各自独立的建筑物才算真正形成。

---

8)（宋）黄榦：《勉斋先生黄文肃公文集》卷三十四《朱文公先生行状》，《北京图书馆古籍珍本丛刊》本，第705页。

9)（元）陈普：《石堂先生遗集》卷十三，《续修四库全书》第1321册，第476 页。

10)（元）陈普：《石堂先生遗集》卷十三，《续修四库全书》第1321册，第476 页。

11)（宋）黎靖德编：《朱子语类》卷一0七，中华书局1986年版，第2674页。

3. 书院祭祀“沧洲之制”的形成

刘克庄在考亭建文公祠，主祀朱熹，此为书院祭祀朱熹的开端，也是对朱熹在考亭书院祭祀学派先贤这一创举符合逻辑的发展。

刘克庄不仅创建文公祠，在实践层面上将朱熹开创的祭祀活动发扬光大，并且还努力在理论层面上加以总结，将朱熹在考亭所建立的祭祀制度，通称为“沧洲之制”[12)]，指的是朱熹在考亭沧洲精舍创建的，包括祭祀对象、祭品、程序、参祭人员、服饰，乃至所采用的音乐等，而形成的一整套完整的制度。此制度经朱子的创建，朱门后学黄榦、刘克庄等人的完善，从而产生了良好的效果。其表现为，在空间上向闽南的书院推广，在时间上因宋元后学如熊禾、陈普等人的弘扬而代代传承，并最终得以向省内外书院和全国各地推广和普及。

Ⅲ. 后学对书院祭祀制度的传承

在朱熹书院的示范和引导下，祭祀活动成为此后福建书院代代相传的重要活动之一。几乎每个书院都有祭祀的专门场所，规模较大的书院设有专祠；一些无法设置专祠的小书院，则在书院某处找个合适之所，供奉祭祀对象。对于书院崇祀的意义，明代刘健在《重修（延平）书院记》中针对有人认为书院只是讲学的地点，而讲学和传道的要点在人而不在于地的看法提出，你如果仰慕其道，就应该仰慕传道之人，仰慕传道之人，就应该爱慕传道的地点。“即其地，则如见其人，而想见其道。此先生之所以必祠，书院所以必兴。”[13)]应当说，刘氏由道（儒学之道）及人（儒学先贤）与地（崇祀儒学圣贤的书院先贤祠）的见解，颇为精当地肯定了书院崇祀对推动书院教学的正面意义。

---

12)（宋）刘克庄：《泉山书院记》，《后村先生大全集》卷九十三，《四部丛刊》本。

13)（明）刘健：《重修书院记》，民国《南平县志》卷十三，《中国方志丛书》华南217号，台北成文出版社1974年版，第1104页。

在书院祭祀制度的继承方面，祭孔和祭朱制度都得到了继承。

1. 祭孔制度

朱熹之后，书院崇祀孔圣和四配逐渐成为定例。如元初建阳刘应李的化龙书院，就是在大堂中“以奉宣圣四配”。至正十年（1351），同安创建大同书院，前有先圣殿，祀孔子；后有朱子祠，祀朱子。元至正崇安文定书院，左为孔殿，配以颜、曾、思、孟。明成化六年（1470），福建按察副使命通判李明重修黄榦的鳌峰书院，建有道原堂，也是祀奉孔子和四配。清张伯行创建的鳌峰书院，有大成殿，也以孔子和四配为祭祀对象。

2. 祭朱制度

南宋后期，朱子理学成为官方的统治思想后，一直到明清，福建书院多以朱熹为主祀对象，配祀对象则南北略有差异。闽北的配祀对象为四大弟子：蔡元定、黄榦、刘爚和真德秀，　明景泰七年（1456），朱子八世孙朱泗上奏朝廷请以这四位弟子配祀，得到朝廷的批准，使闽北朱子祠祭祀四配之习至此最后确立。闽南则将四大弟子中的浦城真德秀换成了漳州的陈淳。

经过历代书院崇祀的传承，福建书院形成了一套完整的祭祀朱子仪式。通常分为春秋二祭。此举始于明代宗景泰七年（1456），礼部曾下文建安博士府，且令各地建祠崇祀。从明景泰年间开始，在考亭书院所在地的建阳，在博士府所在地的建瓯和朱熹诞生地的尤溪南溪书院，每年都有春秋两祭。春祭在每年的三月初九举行，属家祭；九月十五日朱子的诞辰纪念日，由县官主持，举行官祭。地点即在考亭书院内。祭礼有一套完整的仪式，有规定的祭品和祭具，分主祭官、陪祭官，在引赞、捧香、接香、捧帛、接帛、执爵、接爵等助祭者的引导和协助完成三跪九叩之礼。

我们现在可以看到的清朝各地地方志书中，书院祭祀朱子的释菜礼版本，有清道光《建阳县志》中考亭书院祭祀程序。此外，还有清道光刊本《新修罗源县志》卷十二《典礼志》“朱文公之祭”，清嘉庆《新修浦城县志》卷十二《典礼

志》“祭朱文公祠仪注”等，其内容几乎与《建阳县志》“祭朱子祠礼”完全相同。

3. 当代书院祭祀的传承与活化

明弘治四年（1491），尤溪国子监生林海上《乞朱文公诞辰典疏》，明孝宗皇帝“特允其奏，遂命有司以九月望日（即农历九月十五日朱子诞辰日）致祭，”并钦颁祭品、祭文。从此，南溪书院首开朱熹诞辰公祭之先河，成为朱子诞辰日官方祭祀朱熹的地方。尤溪县从明代开始直至民国初期，公祭朱子大典成为当地一项重要活动，每年都在文公祠里为朱子举行春秋二祭和诞辰日祭祀大典。在《南溪书院志》和历代《尤溪县志》以及其他一些史料中还记载了当时朝廷钦定的祭器、祭品和明朝首辅徐阶撰写的祝文等。

这项活动一直延续到当代。2007年10月18日，尤溪于朱熹887周年诞辰日恢复对朱子的公祭，此后每年朱熹诞辰日，都在南溪书院文公祠内举行公祭朱子大典。2011年，被列入福建省非物质文化遗产保护名录。

참고문헌

(明) 刘健 :《重修书院记》, 民国《南平县志》,《中国方志丛书》
(宋) 刘克庄 :《泉山书院记》,《后村先生大全集》,《四部丛刊》本。
(宋) 黎靖德编 :《朱子语类》, 中华书局1986年版.
(元) 陈普 :《石堂先生遗集》,《续修四库全书》第1321册.
(宋) 黄榦 :《勉斋先生黄文肃公文集》,《北京图书馆古籍珍本丛刊》本.
(宋) 黎靖德 :《朱子语类》, 中华书局1986年.
钱穆 :《朱子新学案》, 台北三民书局1971年版.
(宋) 朱熹 :《朱文公文集》,《朱子全书》第24册.
(宋) 黎靖德编 :《朱子语类》, 中华书局1986年版.
陈荣捷 :《朱熹集新儒学之大成》,《朱学论集》第17页, 台湾学生书局1982年。
(宋) 张栻 :《南轩先生文集》,《朱子全书外编》第4册, 华东师大出版社2010年版.
(元) 脱脱 :《宋史·度宗纪》, 中华书局1977年版.

The Establishment, Improvement and Tradition of the Confucianist Sacrifice Service System in Zhu Xi's Neo-Confucian Academies

Fāng, Yàn-Shòu*

Zhu Xi's Neo-Confucian academies' ritual system consists of two parts, daily services and Confucian sacrifice service.

In particular, the ritual of Confucian sacrifice service is one of three functions of Neo-Confucian Academy's education with lectures, libraries and publishing, and the main element of the ritual system of Neo-Confucian academies emphasized by Zhu Xi for establishing them.

The contents include selecting person for the sacrifice service, the establishment of the its purpose, and execution of the ritual of the sacrifice service, and establishing, enforcing, and inheriting of Zhu Xi's followers through "cāng zhōu zhī zhì(滄州之制)"

Before the establishment of Neo-Confucianism, the academies in Fújiàn Shěng had been small with low level of their systemization and lack of academic experts and managers without establishment of libraries and academy's ritual systems.

Therefore, in the era of Zhu Xi, enforcing Neo-Confucian academies, especially, the establishment of academy's ritual service systems had been main task of Zhu Xi, when he built and recovered the academies.

The daily services, the common rituals in academies were reflected in the rules for academiessuch as bái lù dòng shū yuàn jiē shì (白鹿洞書院揭示) and xùn xué zhāi guī (訓學齋規) and applied as the etiquettes

* The President of Zhu Xi's Culture Institute, Fuzhou Institute of Technology, China / bangnisio995@183.com

and regulations for daily studies and teachers and students.

This article reviews the establishment, improvement and tradition of Neo-Confucian sacrifice system in Zhu Xi's Neo-Confucian Academies.

Keywords: Daily Services, Confucian Sacrifice Service, Zhu Xi's Neo-Confucian Academies, Improvement in Confucian Sacrifice Services, Tradition of Confucian Sacrifice Services

이 논문은 2020년 05월 25일 투고 완료되어
2020년 06월 1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06월 22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http://dx.doi.org/10.30594/kss.2020.6.10.6 143

일본과 베트남의 서원 연구 현황과 제언*

이우진**

Ⅰ. 서론
Ⅱ. 일본·베트남 서원 비교연구를 위한 전제
Ⅲ. 일본·베트남 서원의 선행 연구 검토
Ⅳ. 결론과 제언

<국문요약>

현재 우리 학계에서 일본과 베트남의 서원연구는 대단히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베트남 서원의 경우 언어적 문제와 자료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학계내에서 연구된 바가 없다. 하지만 서원연구의 지평을 한국과 중국을 넘어 일본과 베트남까지 확대하는 일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의 서원이 지닌 보편성'과 '한국 서원의 독자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서원연구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국가의 전문 연구자들과 협업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협업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서원에 대한 정의'를 한국이나 중국에서 바라보는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조금은 느슨하고 열린 시각'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과 베트남에서는 '서원이라는 용어'를 '존현과 강학을 위한 사설 교육기관'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토착화 과정을 거쳐 확립한 일본과 베트남의 독자적인 유교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근세 일본 사회가 막번체제(幕藩體制)의 사회로서 한국·중국·베트남과 같이 중앙집권적인 사회체제가 아니었다. 또한 베트남의 유교 문화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스승의 가르침을 존숭하고 계승하려는 사법(師法)의 사상을 중시하지 않았다. 이 점들은 한국 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2813)

** 공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Jeannie@gjue.ac.kr

원과 그들 국가의 서원을 비교·분석할 때 유의해야 할 사실들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전제를 수용한다면, 다양한 소재들을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서원 학규, 건립주체, 강학교재, 장서(藏書), 출판문화, 건축형식, 제향인물 등이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서원, 일본, 베트남, 비교연구, 유교문화권.

Ⅰ. 서론

유네스코(UNESCO)는 한국의 9개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그 기준을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되고 그 결과 그 기능과 배치, 건축적인 면에서 변화를 겪고 토착화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특출한 증거"[1]라고 제시하였다. 당시에 많은 언론들은 "소수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도동서원, 남계서원, 무성서원, 필암서원, 돈암서원 9곳의 서원유산들은 동아시아 성리학 교육기관의 한 유형인 서원의 한국적 특성을 나타낸다"[2]는 유네스코의 설명을 대서특필하였다. 특히 "서원이라는 단어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베트남에도 존재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서원들과는 다른 한국 서원만의 독자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공간은 한국 뿐"이라는 기사 제목마저 있었다.[3]

당시 많은 서원 전문가들은 중국의 서원과 달리 한국의 서원은 '제향 인물, 입지, 기능, 통일성 등'에서 독자성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서원과 일본이나 베트남의 서원이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지 "일본에는 가신(家臣)을 대상으로 한 사숙(私塾:시주쿠)이 있었지만, 지역에 뿌리를 둔 서원 같은 교육기관은 사실상 없었다"[4]는 정도에서 머물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학계의 서원연구에 대한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우리 학계의 서원연구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수환에 따르면, 우

1)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 검색일(2020.05.15.).
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www.unesco.or.kr), 검색일(2020.05.15).
3) 중앙일보 인터넷판(2019.07.06), 「이런 공간은 한국 뿐 … 서원 9곳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news.joins.com), 검색일(2020.05.15).
4) 연합뉴스 인터넷판(2019,07,06), 「중국과는 다른 서원 …고유한 유산 가치 인정받다」(www.yna.co.kr), 검색일(2020.05.15).

리 학계는 유홍렬(柳洪烈)의 「조선(朝鮮)에 있어서 서원(書院)의 성립(成立)」[5]이라는 선구적인 연구 이래로, 일제 관학자들에 의한 당쟁사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서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양적·질적으로 놀라운 학문적 성과를 이루어왔다. 2000년을 기점으로 이전의 연구들이 한국 서원연구의 틀을 형성하는 거시적인 접근을 하였다면,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의 서원 역사, 문화, 기능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한 미시적 연구를 진행시켜왔으며, 나아가 개별 서원에 대한 학제 간 사례 연구를 본격화하여 개개 서원의 구체적인 실체를 밝혀왔다.[6]

그러나 이수환이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 학계의 서원연구는 아직까지 한국 서원연구는 중국 및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 속한 국가들의 전통교육 기관과의 비교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7] 앞으로 더 확대·심화시켜야 하겠지만, 2000년대 이후로 한·중 서원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들이 간간이 나오고 있다.[8] 성급한 결론일지 모르겠으나, 한·중 서원을 비교·분석한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음은 우리 학계가 '중국 서원'에 대한 이해나 탐구를 어느 정도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이나 베트남 서원을 한국 서원과 비교·분석한 연구는 그 시작마저

---

5) 柳洪烈, 「朝鮮에 있어서 書院의 成立」, 『靑丘學叢』29·30, 靑丘學會, 1930.

6) 이수환, 「2000年 이후 한국 서원연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6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7, pp.99~152.

7) 이수환, 앞의 논문(2017), p.130.

8) 현재 한국의 서원과 중국의 서원을 비교·분석한 연구들은 석사학위 논문 5개, 학술지 논문 4개, 단행본 1권이 있다. 구체적으로 석사학위논문으로는 仲麗娟, 「中國과 韓國의 書院敎育 比較硏究:德性敎育을 中心으로」, 경북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18 ; 링진이, 「한국 안동과 중국 휘주 서원의 비교연구 :도산서원과 자양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李虎, 「韓·中 書院建築의 比較硏究:嶽麓.白鹿洞.陶山.屛山書院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송미영, 「중한 서원교육의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홍화, 「한.중 초기서원교육 비교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이 있다. 다음으로, 학술지 논문으로는 조인철, 「한국 소수서원과 중국 백록동서원의 비교고찰: 건립배경과 자연환경의 풍수적 특성을 중심으로」, 『道敎文化硏究』50, 한국도교문화학회, 2019 ; 임근홍.안득수, 「한.중서원의 입지와 외부공간에 관한 비교연구」, 『휴양 및 경관연구』10, 전북대학교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2016 ; 이수환, 「朝鮮朝 嶺南과 淸代 山東의 書院 비교연구-人的組織과 經濟的 기반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4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 정낙찬.김홍화, 「한·중 초기서원 교육 비교」, 『교육비교연구』15-3, 한국비교교육학회, 2005 가 있다. 마지막으로 단행본으로 강판권, 『서원생태문화기행 : 중국과 한국 서원의 생태문화』,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9 가 있다.

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본·베트남 서원에 대한 우리 학계의 이해가 극히 빈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베트남의 서원은 우리 학계의 서원연구자들이 반드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대상이다. 왜냐하면, 서원연구의 영역을 중국을 넘어 일본과 베트남까지 확대하는 일은 '한국 서원의 독자성'과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 서원이 지닌 보편성'을 확인하는 데 더 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이나 베트남의 서원연구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선행연구의 빈곤함을 넘어 자료의 접근마저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한국·일본·베트남 서원 비교·분석을 위한 전제를 논의하고, 3장에서는 '일본과 베트남의 서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간략하게 검토한 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베트남의 서원 비교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일본·베트남 서원 비교연구를 위한 전제

중국에서 기원한 유교가 한국·일본·베트남에 전파되었을 때 토착화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유교를 확립하게 된 것처럼, '서원이라는 용어' 역시 각 지역의 독자적 양상과 변용을 띠어왔다. 한국과 중국과 달리 일본과 베트남에서는 '서원'을 '존현과 강학을 위한 사설 교육기관'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서원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서재(書齋)를 겸하고 있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용되어왔다.[9] '서원조(書院造:쇼인즈쿠리)'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서원'은 주택 양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사립교육기관을 가리키는 용어로서는 '서원'보다는 '사숙(私塾:시주쿠)'이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서원이라는 용어'는 어떤 조직화된 교육적 기능이나 프로그램이 없이 순수하게 책들과 문서들을 보관하는 '도서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한되어 왔다. 특이할 만한 점으로, 베트남에서는 한국·중국·일본과 달리 Library를 나타내기 위해 '도서관(圖書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10] 이처럼

9) 구체적으로 '다다미가 깔리고 뒤로는 객실 정면에 설치하여 미술품 등을 장식하는 도코노마(床の間) 등이 있는 거실과 서재를 겸하고 있는 건축양식'을 의미한다.

서원이라는 용어를 일본과 베트남에서는 한국이나 중국과는 판이하게 사용하여 왔다.

물론 일본과 베트남에서도 '서원'이라고 이름을 한 '사설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마가렛 메흘(Margaret Mehl)이 "일본에는 한국과 중국의 서원과 같은 양상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고 있듯이,[11] 우리의 일반적인 서원개념으로 일본 서원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우리의 서원과 유사하기는 해도 일본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정확히 일치하는 기관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바 유키오(難波征男)의 언급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 확실히 사숙(私塾) 안에서는 예를 들면, 나카에 도주(中江藤樹)의 등수서원(藤樹書院)이라든지, 구스모토 단잔(楠本端山)의 봉오서원(鳳鳴書院)과 같이 서원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 있으나, 이들은 주자학과 양명학을 교육하는 면에서 중국과 한국의 서원과 같지만, 중국과 한국의 서원 개념으로 보자면 엄밀하게는 서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지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12]

곧 '서원'이라는 명칭을 지닌 교육기구가 일본에 존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교육기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학문연구와 선현제향을 하는 사설 교육기관이자 서적을 출판·보관하는 향촌 자치운영기구'가 아니었다. 사와이 게이치(澤井啓一)가 지적하고 있듯, 근세 일본 사회에서는 국자감(國子監)·부주현학(府縣學校)이나 성균관(成均館,)·향교(鄕校)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관립학교제도가 완비되어있지도 않았고, 또 그러한 관립학교제도와 긴장관계를 내포하면서 '자립적'이려던 서원과 같은 교육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13]

그러나 남바 유키오는 일본에서도 나름의 '서원의 독자적인 전개'가 있었다고

---

10) Nguyễn Tuấn-Cường, *Private Academies and Confucian Education in 18th-Century Vietnam in East Asian Context: The Case of Phúc Giang Academy*, ***Confucian Academies in East Asia***, Brill, 2020, p.90.

11) Margaret Mehl, *Transmutations of the Confucian Academy in Japan: Private Academies of Chinese Learning (Kangaku Juku 漢学塾) in Late Tokugawa and Meiji Japan as a Reflection and a Motor of Epistemic Change*, Ibid. 2020, p.126.

12) 難波征男, 「일본의 '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韓國學論叢』(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p.63.

13) 澤井啓一, 「東アジアの中の日本漢学塾」, 『東アジア文化交涉研究』(2), 関西大学文化交涉学教育研究拠点, 2009, p.141.

주장한다. 바로 “근대화 학교 이전에 존재했던 번교(藩校:한코), 향교(鄕校:교코), 숙(塾:주쿠), 사자옥(寺子屋:데라코야)과 같은 기관이 **서원의 일본적인 전개**”라는 것이다.[14] 더불어 그는 “각양 각색의 서원들이 지닌 교육적 유산을 결합시킬 때 교육사적 유산의 규모와 역량은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당부한다.[15] 다시 말하면, 한·일 서원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서원에 대한 정의’를 한국이나 중국의 시각에서 벗어나 조금은 느슨하고 열린 시각에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일 서원 뿐만 아니라 한·베 서원을 비교·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의미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남바의 주장처럼 ‘번교(藩校)·향교(鄕校)·숙(塾)·사자옥(寺子屋)’ 모두를 ‘서원의 일본적인 전개’라는 명목으로 묶는 것은 비교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 기관의 성격이 한·중 서원과 확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 비교 연구를 하기에는 약간의 제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주마 주지(吾妻重二)가 ‘관학과 사학’ 및 ‘교육내용의 수준이나 교육대상’에 따라 한국·중국·베트남·일본의 교육제도들을 분류하여 제작한 아래의 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6]

<표-1> 근세 동아시아의 학교

	중국	한국	베트남	일본
科擧制	有	有	有	無
官學	國子監, 府縣學校	成均館, 鄕校	國子監, 府縣學校	昌平坂學問所, 藩校, 鄕校
私學1	**書院**	**書院**	**私塾**	**私塾, 書院[17]**
私學2	小學, 義學, 家塾	書堂	私塾	鄕校, 寺子屋 (手習所)

14) 澤井啓一, 앞의 논문(2009), p.141.
15) 澤井啓一, 앞의 논문(2009), p.67.
16) Azuma Juji, *The Private Academies of East Asia: Research Perspectives and Overview*, ***A Selection of Essays on Oriental Studies of ICIS***, 2011, p.12
17) 이 표에서 아주마 주지(吾妻重二)는 사숙(私塾)과 서원(書院)을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 서원은 사숙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근세 일본에서의 사숙(私塾)은 ‘서원’이라는 명칭을 비롯하여 숙(塾)·의숙(義塾)·당(堂)·사(舍)·학사(學舍)·학관(學館)·사(社) 등 다양한 명칭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마 주지(吾妻重二)는 위의 표에 대해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근세 일본의 경우에 부가적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그것은 바로 근세 일본은 막번체제(幕藩體制)의 사회로서 한국·중국·베트남과 같이 중앙집권적인 사회체제가 아니었으며, 무엇보다도 관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구분이 한국과 중국의 학교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다.[18] 실제로 근세 일본에서 관학에 해당되는 창평판학문소(昌平坂學問所:쇼헤이자카가쿠몬쇼)나 번교(藩校)도 한국이나 중국처럼 관료 양성이나 등용을 위한 교육기관은 아니었다.[19] 이러한 시각에서 사와이 게이치(澤井啓一)는 한·일 서원을 비교·분석함에 있어서, 민간의 사숙뿐만 아니라 번교(藩校)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을 필요가 있다. 아니, 그는 한·일 서원을 비교·분석함에 있어서 번교가 가장 적절한 대상이라고 제안하고 있었다.

> 근세 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중 서원과 비교를 시도할 때에, … 민간의 학숙(學塾)과 함께 반드시 번교(藩校)를 추가해야 한다고 나는 제안한다. … 물론 번교(藩校)는 순수한 민간 시설은 아니기에, '준-관립(準-官立)'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그 실태를 보면 각 지역의 특성과 각 번(藩)의 사정을 반영하여 상당히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국이나 한국의 서원이 완수한 역할, 즉 인재의 양성, 서적의 출판이나 수집과 같은 같은 교육적 역할 뿐만 아니라 공자묘를 설립해 석전(釋奠)이라는 유교 제사의례를 실천하는 등 지역사회의 문화활동을 널리 담당했다는 서원의 역할에 가까운 활동에 생각하면, 일본의 경우는 역시 '번교(藩校)'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20]

그렇다고 한다면 한·일 서원을 비교·분석한다고 할 때, 먼저 아주마 주지(吾妻重二)가 제안한 것과 같이 '관학과 사학' 및 '교육내용의 수준이나 교육대상'의 기준으로 하여 '사숙'을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와이 게이치(澤井啓一)가 제안한 것처럼 그 역할과 기능의 측면에서 '번교'를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두는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서원에 대한 정의를 한국이나 중국에서 바라보는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조금은 느슨하고 열린 시각'에서 규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

18) Ibid. p.13
19) 辻本雅史, 「근세일본(1600~1867)의 유학 학습과 유교적 인간 형성」, 『한국학논총』 3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p.110.
20) 澤井啓一, 앞의 논문(2009), pp.141~142.

Ⅲ. 일본·베트남 서원의 선행 연구 검토

'서원에 대한 정의'를 조금은 느슨하고 열린 시각에서 규정해 본다면, 한국의 서원과 비교·분석을 위한 '서원의 일본적 전개'에 해당되는 대상은 '사숙'과 '번교'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 학계에서 이루어진 '근세 일본의 서원'에 대한 연구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어느 정도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베트남 서원'에 관한 우리 학계의 연구상황은 극히 미진하다. '서원'은 고사하고 '전근대 베트남 교육이나 교육기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마저도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베트남에 서원이 존재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을 갖게 하는 실정이다. '베트남의 역사'를 소개하는 한 저술에서 '숭정서원(崇貞書院)'이라는 용어가 출현한다는 사실에서, 베트남에 서원이 존재유무만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 저술에서 '숭정서원(崇貞書院)'이란 용어가 출현하게 된 맥락은 이와 같았다.

> [떠이선(西山) 왕조의] 꽝중(光中)황제는 또한 학문과 예술과 문화의 융성, 특히 독자적인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무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힘써 중앙에 숭정서원을 만들었다. 당대의 이름난 학자였던 응우옌 티엡(院浹)에게 숭정서원의 운영을 맡기고 지방의 선비들에게는 자기 고장에 학교를 설립하도록 권장했다.[21]

위의 설명에서, 베트남의 서원은 황제의 칙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당대의 이름난 학자가 원장으로 임명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행히 최근『동아시아의 유교 서원들*(Confucian Academies in East Asia)*』(2020)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서적에서, '응우옌 투안쿠옹(Nguyễn Tuấn-Cường)이 베트남의 서원을 소개하고 있었다.[22] 현재 우리 학계에 베트남 서원에 관한 연구가 전문할 뿐만 아니라,

---

21) 유인선,『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서울:이산, 2002, pp.242~243.

22) Nguyễn Tuấn-Cường, *Private Academies and Confucian Education in 18th-Century Vietnam in East Asian Context: The Case of Phúc Giang Academy*, ***Confucian Academies in East Asia***, Brill 2020, pp.89~125.

앞으로 한·베 서원을 비교·분석함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응우옌 투안쿠옹의 연구를 소개하고자 하도록 하겠다.

이에 앞서 먼저 우리 학계에서 이루어진 '근세 일본의 서원'에 관한 연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일본 서원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일본 서원에 관한 우리 학계의 선행 연구들은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한·일 서원을 비교·분석해가는 노정을 구축함에 있어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그 연구들의 주제가 "일본 초기 사숙의 전형(典型)"[23]으로 평가되는 '나카에 도주(中江藤樹, 1608~1648)의 도주서원(藤樹書院:도주쇼인),[24]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의 양명학 서원과는 다른 독자성을 보이는 '오시오 츄사이(大鹽中齋, 1793~1837)의 세심동학당(洗心洞學堂:세신동가쿠도)',[25] 일본의 근세와 근대를 연결시킨 사숙인 '오가타 고안(緒方洪庵, 1810~1863)의 적숙(適塾:데키주쿠)과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의 송하촌숙(松下村塾:쇼카손주쿠)'이기 때문이다.[26] 물론 본격적인 한·일 서원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개별적 사숙에 대한 탐구가 요청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부터 그 선행 연구에 의해 검토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설립된 시대순에 따라서, 먼저 '일본 초기 사숙의 전형'으로 평가되는 도주서원(藤樹書院)에 대한 김대식의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자. 김대식은 이 연구에서 '도주서원을 나카에 도주가 생전에 교육하던 전통을 이어받아 그 문인과 재전(再傳) 문인들이 제도화시킨 교육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록 이 서원의 기원

---

23) Rubinger, Richard, 石附実·海原徹 訳.『私塾ー近代日本を拓いたプライベート・アカデミー』, 東京: サイマル出版會, 1982, 37~43쪽. Rubinger는 도주서원을

24) 김대식, 「나카에 도주(中江藤樹)의 문인(門人)공동체와 도주서원」,『亞細亞研究』,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pp.103~125. *이하 도주서원에 대한 기술은 이 논문을 참조하여 제시하였다.

25) 이우진, 「오시오 츄사이(大鹽中齋)의 세심동(洗心洞) 강학(講學) 연구(研究)」,『한국서원학보』7, 한국서원학회, 2018, pp.33~57. *이하 세심동학당에 대한 기술은 이 논문을 참조하여 제시하였다

26) 이건상, 「근세말 시주쿠(私塾) 교육의 특징 : 데키주쿠(適塾)와 쇼카손주쿠(松下村塾)를 중심으로」,『일어일문학』32, 대한일어일문학회, 2006, pp.183~194. *이하 적숙과 송하촌숙에 대한 기술은 이 논문을 참조하여 제시하였다.

이 나카에 도주가 1647년에 건립한 사숙이지만, 도주서원을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성립시키고 학문을 강론하고 제향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킨 주체는 도주의 문인과 재전(再傳) 문인들이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18세기 초까지 서원이 아닌 강당이란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이후에야 도주서원이란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김대식은 일본에 서원이란 유학 교육기관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주서원은 '서원'이란 명칭을 특별히 사용했는가에 대한 이유의 하나로서, 이 곳이 '나카에 도주를 제향(祭享)하고 그의 학문을 강학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주서원은 하나의 건물 내부에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이 함께 접해 있는데, 이는 사당과 강당을 반드시 별개의 공간으로 구획하고 건물도 따로 짓는 중국이나 한국의 서원과는 완전히 다른 형식이다. 또한 사당에 나카에 도주만이 아니라 그의 조부(祖父), 부(父), 그리고 부인(婦人), 3남(男)인 조세(常省)의 신위가 함께 안치되어 있는 일종의 가묘(家廟)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한·일 서원을 비교·분석함에 있어서 유의미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나카에 도주는 일종의 학규에 해당되는 「등수규(藤樹規)」와 「학사좌우계(學舍座右戒)」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등수규」의 앞부분에 주희의 「백록동규(白鹿洞規)」를 차용하였다는 사실이다. 나카에 도주는 자칭 양명학자로서 『전습록(傳習錄)』 등과 같은 양명학 관련 서적을 문인들에게 강학하였음에도, 「백록동규」를 차용하였다는 점은 특이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후대의 양명학자인 오시오 츄사이가 세심동학당(洗心洞學堂)을 위해 제정한 학규들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두드러진 특징이다. 오시오 츄사이가 마련한 세심동학당의 학규들을 통해 그곳에서 시행된 강학의 구체적인 면모를 확인하고자 했던 이우진의 연구에 따르면, 오시오츄사이의 학규는 나카에 도주와 달리 철저히 양명학의 입장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심동학당은 오시오 츄사이가 양명학에 입문한 이듬해(1817)에 자기 수양과 제자 강학을 위한 공간으로 설립하게 된 기관이었다. 세심동학당이 본격적인 교육기관으로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1825년으로, 이 때 오시오츄사이는 학당의 교육이념이 담긴 「학당동게(學堂東揭)」.「학당서게(學堂西揭)」.「학당게시(學堂揭示)」와 실제적 규칙인 「세심동입학맹서팔조(洗心洞入學盟誓誓八條)」를 작성하게 된다.

먼저 「세심동입학맹서팔조」를 살펴보면, 각 조에는 세심동학당에서의 마음가

짐과 태도, 처벌의 기준과 내용, 학당 기숙 생활의 원칙 등을 규정되어 있다. 흥미로운 벌칙으로서 학생이 학업을 게을리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 학생의 가정형편에 맞추어 선생이 지정하는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구매케 하여 그 책들을 전부 세심동의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기증도록 하는 것이 있다. 더불어 몇 몇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에게 회초리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규정도 있다. 이러한 '장서기증과 회초리 체벌'의 방식은 한·일 서원의 학규를 비교·분석함에 있어서 유의미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세심동의 학당의 게시물인 「학당동게(學堂東揭)」.「학당서게(學堂西揭)」.「학당게시(學堂揭示)」를 보면, 이 게시물 모두를 양명학적인 가르침이다. 먼저 「학당서게」는 왕양명(王陽明)이 작성한 「교조시용장제생(教條示龍場諸生)」이고, 다음으로 「학당게시」는 왕양명의 제자인 전덕홍(錢德洪)의 「천성편(天成篇)」이다. 마지막 「학당동계」는 양명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여곤(呂坤)의 『신음어(呻吟語)』에서 발췌한 18개의 문구이지만, 오시오 츄사이가 여곤의 『신음어』를 읽고서 그 학문적 연원이 양명학이라고 언명하였다는 점에서 이우진 양명학적인 학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이우진은 세심동 학당에 게시된 교육이념들은 오시오 츄사이 자신의 양명학적 공부론인 '귀태허(歸太虛) 공부론'의 틀과 부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와 같은 서원 설립자의 공부론과 학규의 일치성은 비교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주목할 만한 대상이다. 또한 오시오 츄사이의 세심동학당에서는 나카에 도주와 달리 동아시아 전반에 영향력을 펼친 주희의 학규인 「백록동규(白鹿洞規)」의 틀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의 두 교육기관이 일본의 근세를 대표하는 사숙이라면, 오가타 고안(緒方洪庵)의 '적숙(適塾)'과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송하촌숙(松下村塾)'은 일본의 근세와 근대를 연결시킨 대표적인 사숙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오가타 고안의 '적숙(適塾)'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오가타 고안은 에도와나가사키에서 최신 서양의학과 네덜란드어를 습득한 뒤, 1838년 오사카로 돌아와 '적숙'을 열었다. 이 '적숙'에서 오가타 고안은 서양의학을 주로 가르쳤지만, 병학(兵學), 포술(砲術), 본초(本草), 화학(化學) 등 당시 난학에 관심을 갖고 있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네덜란드어의 독해에 힘을 기울였다. 그 점에서 이건상은 '적숙'을 일종의 외국어학교 즉 '어학숙(語學塾)'의 성격이 강한 교육기관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적숙은 신분의 상하, 선후배에 관계없이 실제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정해지는 능력주의의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근대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교육기관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적숙과 달리 요시다 쇼인의 '송하촌숙(松下村塾)'은 서양의 새로운 지식을 교수하거나 능력주의적 커리큘럼을 갖추지도 못했다. 사실상 송하촌숙은 설립자인 요시다 쇼인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기관이었다고 이건상은 평가한다. 1857년 요시다 쇼인은 송하촌숙(松下村塾)의 주재자가 되어 교육을 실시하는데, 신분의 구별 없이 입문을 허용하였다. 당시 숙생들의 연령층은 12세부터 40대까지 다양했고, 사자옥(寺子屋)에서 기초적인 교육을 받은 이들부터 번교(藩校)에서 이미 일정수준의 교육을 받은 이들까지 다양했기에, 요시다 쇼인은 통일된 커리큘럼보다는 맨투맨식 교육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이 송하촌숙은 사농공상·남녀노소를 가리지않고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쇼인은 모든 직업의 존재이유를 인정하고 각각의 직업이 있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제자들에게 먼저 각자의 가업을 계승할 것을 기대하면서도, 국가에도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였다.

오가타 고안의 적숙(適塾)과 요시다 쇼인의 송하촌숙(松下村塾)은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개인이 재능이 발전되도록 숙생들을 규칙으로 묶어 두려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신분에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한 점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한·일 서원을 비교·분석하는 데 있어서, 통일성을 유지한 한국의 서원과 다양화를 추구한 일본의 서원과의 차이를 노정하는 데 유의미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베트남 서원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응우옌 투안 쿠옹(Nguyễn Tuấn-Cường)은 「동아시아 맥락에서 18세기 베트남에서의 서원과 유교 교육」이라는 연구에서,[27] 18세기 후반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서원인 '응우옌 후이 오한(阮輝瑩)의 복강서원(福江書院)'을 중심 주

27) Nguyễn Tuấn-Cường, *Private Academies and Confucian Education in 18th-Century Vietnam in East Asian Context: The Case of Phúc Giang Academy*, ***Confucian Academies in East Asia***, Brill 2020, pp.89~125. 이하 내용은 이 연구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제로서 다루었다.

먼저, 응우옌 투안 쿠옹은 베트남에서의 '서원이라는 용어'는 주로 '도서관'이라는 의미로 국한되었고, 그것의 다른 의미인 '학원 또는 학교'로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하지만 '서원'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당(唐)의 여정수서원(麗正修書院), 집현전서원(集賢殿書院)이라는 점에서, 베트남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원'은 본래 서원의 기능인 '도서관(Library)'이라는 의미를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음으로 응우옌 투안 쿠옹은 아주마 주지(吾妻重二)가 '베트남은 다른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에 존재하는 모델인 서원이 아닌 사립 학교 모델만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는 완전히 정확한 주장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물론 베트남은 한국·중국·일본과 같은 풍부한 서원 전통을 공유하지는 않았어도, 현존하는 자료를 검토해 볼 때 베트남 역사에서는 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기관이 곳이 적어도 3곳 이상 있었다는 것이다. 그 기관들의 이름은 난가서원(爛柯書院), 숭정서원(**崇正書院**), 복강서원(福江書院)이다.

먼저, 난가서원(爛柯書院)은 베트남 역사에서 '학원을 의미하는 서원'이라는 용어에 걸맞는 최초의 기구이다. 이 서원은 쩐(陳)왕조(1226~1400) 시절에 개창되었다. 명대 학자 고웅진(高熊徵)의 『안남지(安南志)』에 따르면, 쩐(陳)왕조는 난가서원을 설립하고 유명한 유학자 쩐똥(陳蓀)을 이 서원의 원장(院長)으로 임명하여 생도(生徒)들을 가르쳤으며, 왕이 종종 서원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난가서원에 대해서는 이 『안남지』의 기록밖에 없지만, 그 내용을 볼 때 명성있는 학자를 원장을 완비하고 생도를 교육하였다는 점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서원모델'이었다고 응우옌 투안 쿠옹은 평가한다.

두 번째로 숭정서원(崇正書院)은 떠이선(西山) 왕조(1778~1802)의 꽝쭝(光中)황제가 마련한 서원이다. 꽝쭝황제는 수도가 아님에도 명망있는 응우옌 티엡(院浹)를 기리기 위하여 그가 은퇴한 지역인 '응헤 안'에 이 숭정서원을 건립하였고, 서원의 원장으로 응우엔 티엡을 초빙하였다. 이 숭정서원은 많은 유교 고전들을 재인쇄, 번역, 목판 인쇄, 배포하였다. 특히 이들 고전의 상당수는 용이한 교육을 위해 쯔놈(笁喃)문자를 사용하였다. 쯔놈은 베트남어를 적기 위해서 만든 한자에 바탕을 둔 문자체계로서,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치하에서 라틴 문자 표기법인 쯔꾸옥응으가 보급되기 전까지 공식적인 문자였다. 특히 꽝쭝황제는 왕조의 수도를 응헤 안으로 이전시켰는데, 그 점에서 숭정서원은 떠이선왕조의

중앙 서원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이 서원에서 쯔놈(字喃)문자를 통해 유교 경전을 번역, 인쇄, 배포하였다는 점에서, 베트남에서 유교경전을 확산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복강서원(福江書院)은 18세기 후반의 서원으로서, 앞의 두 서원이 국가적인 규모로 후원을 받은 교육기관이었다면, 복강서원은 응헤 틴(Nghệ Tĩnh) 지역을 대표하는 사설 교육기관이었다. 당시 베트남의 유명한 학교는 대부분 북 베트남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비교적 외진 지역에 자리한 복강서원은 학규 제작, 학전 마련, 유교 교재의 편찬, 편집, 인쇄, 배포 등을 시행하였다. 응우옌 투안 쿠옹은 복강서원이 이룬 성공은 베트남 역사상 다른 어떤 사설 서원과도 견줄 수 없다고 평가한다.

응우옌 투안 쿠옹은 복강서원이 사설 서원으로서 엄청난 성공하게 된 중요한 이유로서 이 서원의 설립자인 '응우옌 후이 오한(阮輝儈)'이 베이징에 사절단으로 파견되었을 때 방문한 중국의 9개 서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다.[28] 특히 그 가운데 악록서원의 영향이 무엇보다도 컸던 것으로 보고있는데, 당시 응우옌 후이 오한은 악록서원을 방문하였을 때 악록서원을 건설·발전하는 데 기여한 여섯 명의 인물들을 배향한 육군자사(六君子祠)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던 것이었다. 서원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사당에 모셔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는 사실에 감동을 받아, 응우옌 후이 오한은 베트남으로 귀국한 후 악록서원 모델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서원을 창설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복강서원의 토대는 '응우옌 후이 오한(阮輝儈)'의 아버지인 '응우엔 후이 떠(阮輝僖)'가 설립한 사설 학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복강서원의 전신은 '응우얜 후이 오안' 자신이 1732년 송 레우(Côn Lêu)에 개교한 학교이지만, 이 학교는 또한 아버지인 '응우엔 후이 떠'의 유산을 이은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응우엔 후이 떠(阮輝僖)가 개교한 사설 학교는 당시 1218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왔을 정도로 교육기관으로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특히 응우엔 후이 떠는 가난한 학생들의 수업료를 보조하기 위해 일종의 서원학전(書院學田)인 과명전(科名田)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응

28) 응우옌 후이 오한이 방문한 9개 서원은 '廣西, 太平의 麗江書院', '廣西, 平南의 武成書院', '廣西, 蒼梧의 蒼梧書院', '廣西, 梧州의 古岩書院', '廣西, 桂林의 愛日書院', '廣西, 桂林의 流恩書院', '湖南, 衡州의 石鼓書院', '湖南, 長沙의 嶽麓書院', '山東, 東平의 龍山書院'이다.

우옌 후이 오한도 아버지의 이러한 유지를 이어 복강서원의 학생들을 위해 일등전(一等田)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응우옌 후이 오한(阮輝瑩)은 아버지 응우엔 후이 떠의 교육이념과 제도를 계승하여 복강서원을 건립하게 되었다. 이후 복강서원은 자손들에게까지 계승되었다. 그 서원의 전신이 아버지로서 시작되어 이후 자손들에게가지 지속적으로 계승된다는 사실에서, 복강서원은 문중서원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응우옌 후이 오한(阮輝瑩)은 복강서원을 건립하면서 독자적인 「복강서원규례(福江書院規例)」를 제작한다. 응우옌 투안 쿠옹은 이 학규가 한국과 일본에 엄청난 인기를 얻은 「백록동규(白鹿洞規)」와도 완전히 다른 것으로 평가한다. 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교육 시작을 위한 의례, (2) 졸업자 및 모범생 축하공고를 위한 예문, (3) 음력 1월부터 마지막 달까지 서원에서 행해진 다양한 의례를 위한 한 각종 의식에 대한 의례 규정과 예문, (4) 학생의 도덕적 요구, (5) 중국 유자들에게 채택한 교육과 도덕과 관련된 선별된 격언들.

응우옌 투안 쿠옹이 언급처럼 한국의 많은 서원에서 백록동서원의 학규를 차용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카에 도주(中江藤樹) 자신이 양명학자임을 표방하였음에도 자신의 도주서원(藤樹書院)의 학규로서 「백록동규(白鹿洞規)」를 채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서원 학규는 후기로 갈수록 독자성을 띠게 되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일본의 경우 오시오 츄사이(大塩中斎)의 세심동학당의 학규는 「백록동규」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 점에서 1767년 응우엔 후이 오안이 쓴 「서원규례」의 초안은, 베트남의 복강서원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 서원들이 「백록동규」를 탈피하여 독자성을 마련하고 있던 경향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강서원은 동아시아의 다른 서원들처럼 '서원본'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응우옌 후이 오한(阮輝瑩)은 자신과 부친의 저술들의 목판본들을 제작하고 인쇄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목판들은 다음과 같다.

> 『福江書院規例』(阮輝瑩), 『初學指南』(阮輝瑩), 『訓女子歌』(阮輝瑩), 『國史纂要』(阮輝瑩), 『詩纂要大全』(阮輝瑩), 『書經纂要大全』(阮輝瑩), 『禮經纂要大全』(阮輝瑩), 『易經纂要大全』(阮輝瑩), 『春秋纂要大全』(阮輝瑩), 『性理纂要大全』(阮輝儆).

이처럼 복강서원의 목판들은 『소학』, 『오경』, 『여훈서』, 성리학 저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었다. 오늘날 복강서원의 소장품 중 일부는 응우옌 후이 가문의 후손들에 의해 보관, 번역, 연구, 홍보되어 연구자들과 사회 전반의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다. 2016년 복강서원의 목판 379개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받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8세기 베트남에서 복강서원은 서원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는 교육기관이었다. 당시에 복강서원에서는 엄청난 수의 과거합격자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응우옌 투안 쿠옹은 복강서원을 제외하고는 베트남 서원 전통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풍요롭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그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베트남의 서원이 유교 사상을 깊이 탐구하고 토론하기 보다는 과거시험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베트남 유림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더 발전시키고 전수한다는 개념, 즉 '사법(師法)의 사상'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베트남 유교문화의 특징은 앞으로 한·베 서원을 비교·분석하는데 있어서 우리 학계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특징으로 볼 수 있다.

IV. 결론과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학계에서 일본과 베트남의 서원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베트남 서원의 경우 언어와 자료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학계내에서 연구된 바가 없다. 사실 우리 학계는 그들 국가의 서원을 물론이고 교육사 자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서원연구의 지평을 중국을 넘어 일본과 베트남까지 확대하는 일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 서원의 보편성'과 '한국 서원의 독자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원연구 지평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국가의 전문 연구자들과 협업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협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어야 사항들이 있다. 2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서원'을 일본과 베트남에서는 '존현과 강학을 위한 사설 교육기관'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거의 사용되

지 않았다. 따라서 서원에 대한 정의를 한국이나 중국에서 바라보는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조금은 느슨하고 열린 시각'에서 규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 이와 같은 서원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과 베트남에서 토착화 과정을 거쳐 확립한 독자적인 유교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지녀야 한다. 예컨대, 베트남의 유교 문화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스승의 가르침을 존숭하고 계승하려는 '사법(師法)의 사상'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때에야 베트남에서 서원 문화가 풍요롭게 발달하지 않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세 일본 사회가 막번체제(幕藩體制)의 사회로서 한국·중국·베트남과 같이 중앙집권적인 사회체제가 아니었으며, 무엇보다도 관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구분이 한국과 중국의 학교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들을 수용할 때에야 비로소 한·일 서원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관학과 사학' 및 '교육내용의 수준이나 교육대상'의 기준으로 하여 '사숙(私塾)'을 그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삼거나, 혹은 그 역할과 기능의 측면에서 '번교(藩校)'를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보았듯이, 한국·일본·베트남 서원의 학규에 대한 차이와 공통점을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서원의 건립주체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베트남의 숭정서원(崇正書院)은 황제가 마련한 서원이고, 일본의 도주서원이나 세심동학당은 양명학을 자처한 무사들이 마련한 서원이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사숙을 건립한 주요 주체들은 어떤 이들이었는가를 확인해보고, 이를 한국 서원의 건립한 주요 주체들과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 도주서원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서원과 달리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이 함께 접해있으며, 가묘형태를 띠고 있는 측면도 의미있는 비교대상일 것이다. 더불어 서원의 강학교재와 장서(藏書), 출판문화 등 비교·분석을 위한 수많은 대상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판권,『서원생태문화기행 : 중국과 한국 서원의 생태문화』, 대구:계명대학교 출판부, 2019.

유인선,『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서울:이산, 2002.

Rubinger, 石附実·海原徹(訳). 『私塾-近代日本を拓いたプライベート·アカデミー』, 東京: サイマル出版會, 1982.

김대식,「나카에 도주(中江藤樹)의 문인(門人)공동체와 도주서원」,『亞細亞研究』,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難波征男,「일본의 '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韓國學論叢』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링진이,「한국 안동과 중국 휘주 서원의 비교연구 :도산서원과 자양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송미영,「중한 서원교육의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홍화,「한.중 초기서원교육 비교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辻本雅史,「근세일본(1600~1867)의 유학 학습과 유교적 인간 형성」,『한국학논총』3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柳洪烈,「朝鮮에 있어서 書院의 成立」,『靑丘學叢』29·30, 靑丘學會, 1930.

이건상,「근세말 시주쿠(私塾) 교육의 특징 : 데키주쿠(適塾)와 카손주쿠(松下村塾)를 중심으로」,『일어일문학』32, 대한일어일문학회, 2006.

이수환,「서원 기록자료의 정리현황과 과제」,『한국서원학보』2, 한국서원학회, 2013.

이수환,「朝鮮朝 嶺南과 淸代 山東의 書院 비교연구-人的組織과 經濟的 기반을 중심으로」,『민족문화논총』4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이우진,「오시오 츄사이(大鹽中齋)의 세심동(洗心洞) 강학(講學) 연구(研究)」,『한국서원학보』7, 한국서원학회, 2018.

李虎,「韓·中 書院建築의 比較研究:嶽麓.白鹿洞.陶山.屛山書院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임근홍.안득수,「한.중서원의 입지와 외부공간에 관한 비교연구」,『휴양 및 경관연구』10, 전북대학교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2016.

정낙찬.김홍화,「한·중 초기서원 교육 비교」,『비교교육연구』15-3, 한국비교교육학회, 2005.

조인철,「한국 소수서원과 중국 백록동서원의 비교고찰: 건립배경과 자연환경의 풍수적 특성을 중심으로」,『道敎文化研究』50, 한국도교문화학회, 2019.

권시용,「16-17세기 초반 퇴계 문인의 서원건립 활동」,『한국서원학보』8, 한국서원학회, 2019.

仲麗娟,「中國과 韓國의 書院教育 比較研究:德性教育을 中心으로」, 경북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18.

澤井啓一,「東アジアの中の日本漢学塾」,『東アジア文化交涉研究』(2), 関西大学文化交涉学教育研究拠点, 2009.

Azuma Juji, The Private Academies of East Asia: Research Perspectives and Overview, A Selection of Essays on Oriental Studies of ICIS, 2011.

Margaret Mehl, Transmutations of the Confucian Academy in Japan: Private Academies of Chinese Learning (Kangaku Juku 漢学塾) in Late Tokugawa and Meiji Japan as a Reflection and a Motor of Epistemic Change, Confucian Academies in East Asia, Brill, 2020.

Nguyễn Tuấn-Cường, Private Academies and Confucian Education in 18th-Century Vietnam in East Asian Context: The Case of Phúc Giang Academy, Confucian Academies in East Asia, Brill, 2020.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 검색일(2020.05.15.).

연합뉴스 인터넷판(2019.07.06),「중국과는 다른 서원 …고유한 유산 가치 인정받다」(www.yna.co.kr), 검색일(2020.05.15).

유네스코 한국위원회(www.unesco.or.kr), 검색일(2020.05.15.).

중앙일보 인터넷판(2019.07.06),「이런 공간은 한국 뿐 … 서원 9곳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news.joins.com), 검색일(2020.05.15).

The Research Status and Suggestions on Confucian Academies in Japan and Vietnam

Lee, Woo-jin*

Currently, the research on Confucian academies in Japan and Vietnam is very poor in our academic circles. In particular, Confucian academies in Vietnam have not been studied in our academia due to the limitations of language and data access. However, expanding the horizon of Confucian academies research beyond China to Japan and Vietnam is an important task to confirm the universality of Confucian academies in the Confucian culture of East Asia and the identity of Confucian academies in Korea.

In order to expand the horizon for Confucian academies research, collaboration with professional researchers from local countries will have to be carried out. But for this collaboration, two things will have to be premised: First, the definition on Confucian academy should be defined in 'a slightly loose and open perspective' instead of a fixed view of Korea or China. Secondly, we should have an understanding of their own Confucian society and culture established through the process of indigenousization in Japan and Vietnam.

If these are done, we will be able to use a variety of topics as the subject of comparison and analysis. For example, we can use regulations in Confucian academies, builders, textbooks, and publishing culture as subjects of comparative analysis.

* Professor in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Jeannie@gjue.ac.kr

Key words : Confucian academy(書院), Japan, Vietnam, Comparative research, Confucian cultural area.

이 논문은 2020년 5월 29일 투고 완료되어
2020년 6월 1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6월 22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http://dx.doi.org/10.30594/kss.2020.6.10.7 165

《武屹九曲圖》, 寒岡 鄭逑 道統의 시각화

정은주*

Ⅰ. 머리말
Ⅱ. 寒岡 鄭逑의 강학공간과 武屹精舍 운영
Ⅲ. 武屹九曲의 명명과 九曲圖 제작 경위
Ⅳ. 武屹九曲圖의 주요 내용
Ⅴ. 맺음말

<국문요약>

한강 정구는 1604년 그가 62세 되던 해에 무흘로 들어가 精舍를 건립하고 1612년까지 그곳에서 강학과 학문에 정진하였다. 무흘정사는 구곡 중 만월담에 더욱 가까이에 위치하였다. 정구는 무흘정사에서 저술과 학문적인 결실을 보았다. 그는 李湛이 소장했던 《무이구곡도》 중국본을 모사하여 소장하였고, 1606년 12월 안동의 부임지에서 만난 화가에게 『무이지』에 중국본 화본을 모사해 넣게 하고 거기에 퇴계의 발문을 첨부하였다. 또한 정구가 《무이구곡도》와 함께 <도산도>를 제작한 것도 주자에서 이황으로 이어진 道脈을 잘 보여준다.

무흘구곡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과 금수면, 그리고 김천시 증산면에 걸쳐 가야산 북서쪽에 위치한 修道山, 禿用山, 연봉산 등의 산세로 감싸 도는 낙동강의 지류에 형성되었다. 무흘구곡의 세부지명은 제1곡 鳳飛巖, 제2곡 한강대, 제3곡인 선암, 제4곡 입암, 제5곡 사인암, 제6곡 옥류동, 제7곡 만월담, 제8곡 와룡암, 제9곡 龍湫이다.

정구의 구곡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한강학단이 일정한 활동을 시작한 1633년 裵尙龍이 武屹山長이 되어 무흘정사를 36칸 규모로 확장하고 장서각을 새로 세우면서 비롯되었다. 한강의 6세손 정동박은 1184년과 1604년 갑진년에 무이정사와 무흘정사가 지어졌고 1784년 갑진년에 무흘정사를 중건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정동박을 비롯한 한강학파는 주자의 무이구곡과 부합하도록 무흘구곡의 지명을 정하여 한강 정구가 주자의 학문과 도통을 계승했음을 드러내려 하였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선임연구원 / jeje@aks.ac.kr

만월담과 와룡암 사이에 위치한 무흘정사의 서운암은 구곡에 독립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한강 정구의 학문과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곳으로 독립적으로 그려졌다.

정구의 문인과 후손들의 요구로 화가 김상진이 1784년 그린 《무흘구곡도》에 이어 1785년 제작한 《무이구곡도》는 앞서 정구가 그랬듯이 주자와 이황, 그리고 정구로 이어지는 도통의 시각화를 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학맥의 정통성을 확보하게 한다. 이는 《무이구곡도》가 주자의 사상과 학문을 추종하는 후인들에게 그러하듯 《무흘구곡도》를 통해 한강의 학덕을 계승하고 성리의 도를 실천하는 장소적 상징성을 보여주려는 구곡도의 효용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키워드 : 정구, 무흘정사, 무이구곡도, 무흘구곡도, 회연서원

Ⅰ. 머리말

寒岡 鄭逑(1543~1620)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 활동했던 영남사림의 대표적 인물이다. 정구의 집안이 성주에 정착한 것은 부친 鄭思中(1505~1551) 때부터였다. 그는 부친 鄭應祥이 사망한 이후 모친 서흥김씨[金宏弼의 딸]를 모시고 달성의 현풍에 살던 외조모 박씨를 찾았고, 그곳에서 성주이씨[李煥의 딸]에게 장가들면서 성주 南山里 沙月村에 자리 잡게 되었다.[1)]

정구는 13세에 金宇顒(1540~1603)과 함께 성주향교의 교관이자 曺植의 고제였던 吳健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2)] 이후 1563년 21세에 이황을 찾아가 眞德秀의 『심경』에 대해 질문한 이래 서신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그해에 進士試에 합격하였으나 문과에 응시하지 않고 이듬해 후학 양성에 뜻을 두어 낙향하였고, 1566년 조식에게 인사하였다. 1568년에는 성주의 연봉산 아래 서원을 세우고 이황의 자문을 구해 그 이름을 '川谷'이라 하여 정자와 주자를 주향하고 외증조부 김굉필을 배향하였다. 이후 1607년 안동부사로 재임 시에는 이황의 글씨를 집자하여 川谷書院 및 道東書院의 편액을 제작하는 등 사문에 대한 계승의식을 드러냈다.[3)]

---

1) 張顯光, 『旅軒集』卷13, 「寒岡鄭先生行狀」.

2) 吳健은 조식의 문인으로 정구의 종이모부였기에 정구는 그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權延雄, 「≪檜淵及門諸賢錄≫ 小考」, 『한국의 철학』1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85 참조.

3) 정구의 영남학통 계승에 대해서는 김학수, 「한강 정구의 학문 연원」, 『한국학논집』4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pp.146-162 참조.

이러한 학맥 관계에서 한강 정구를 중심으로 한 성주권 유림의 학풍은 남명학파의 영향으로 氣學的 특징이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程朱學이 대세를 형성하면서[4] 이황의 수양론을 수용하여 영남학파의 제3계열로 평가된다.[5] 한강 정구의 문인록인 『檜淵及門諸賢錄』에 수록된 문인 342명 중에서 낙동강 연안권 17개 지역 출신의 문인이 213명이고, 그중 성주지역의 문인 수는 91명으로 압도적 다수였음을 알 수 있다.[6] 정구 이후 성주의 학맥은 그의 姪壻 장현광을 통해 영남지역의 주리적 전통과 허목을 중심으로 근기지방의 실학계열과 결합되었다.[7]

『檜淵及門諸賢錄』은 이황이 편찬한 주자학자들의 언행록인 『宋季元明理學通錄』과 『陶山及門諸賢錄』에 따르고 있어 주자, 이황, 정구로 이어지는 학통인식과 관련이 깊다.[8] 이와 함께 정구는 《무이구곡도》와 <도산도>를 함께 제작하여 주자에서 이황으로 이어진 道脈을 드러내었다. 이후 1784년에 정구의 문인과 후손에 의해 제작된 《무이구곡도》와 정구의 무흘정사 일대를 그린 《무흘구곡도》는 주자와 이황, 정구로 이어지는 도통의 시각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9]

무흘구곡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과 금수면, 그리고 김천시 증산면에 걸쳐 가야산 북서쪽에 위치한 修道山, 禿用山, 연봉산 등의 산세로 감싸 도는 낙동강의 지류에 있는 구곡을 일컫는다.[10] 제1곡 鳳飛巖에서 제2곡 한강대는 대가천을 따

4) 정구의 정주학 수용양상에 대해서는 권진호, 「한강 정구의 정주학 수용양상」, 『남명학연구』24, 남명학회, 2007, pp.143-180 참조.

5) 金武鎭, 「朝鮮時代 星州의 敎育體制」, 『한국학논집』2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7, 17쪽; 김성윤, 「조선시대 星州圈 유림층의 동향-학맥.학풍.향전.향약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59, 경남사학회, 2006, pp.163-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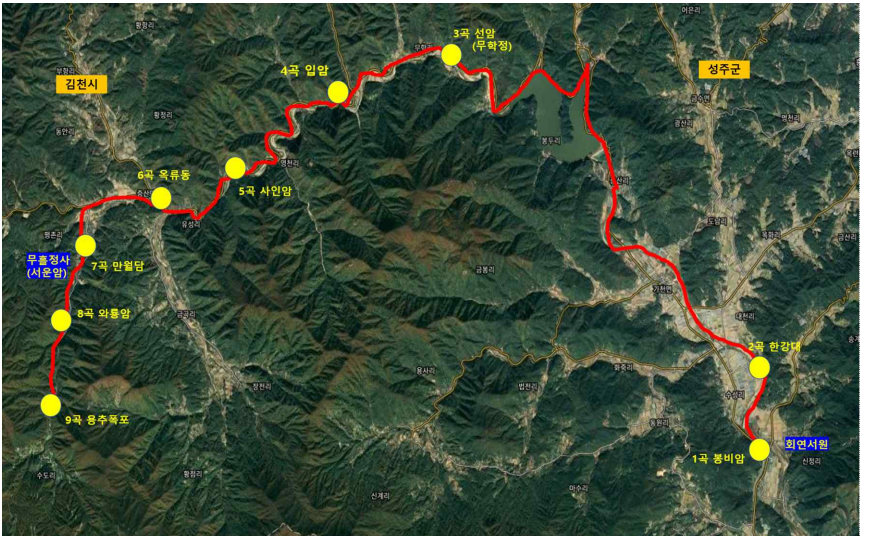
6) 김학수,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등장과 전개-문인록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115-117쪽; 김형수, 「임란 전후 寒岡學團의 활동과 성주지역 사족사회의 동향」, 『민족문화연구』7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pp.263-254.

7) 정우락, 「한강 정구의 사물인식방법과 세계지향」, 『한국사상과 문화』49,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pp.69-102. 장현광은 정구의 姪壻[정구 맏형 鄭适의 사위]였으나 장현광은 정구의 문인임을 자처하지는 않았다. 寒旅是非에 대해서는 김학수, 「17세기 여헌학파 형성과 학문적 성격의 재검토」, 『한국인물사연구』13, 한국인물사연구소, 2010, pp.15-34. 정구의 재임지에서 8종의 사찬 지리지 편찬에 대해서는 김문식, 「16~17세기 한강 정구의 지리지 편찬」, 『민족문화』29, 한국고전번역원, 2006, pp.173-218 참조.

8) 權延雄, 앞의 논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85; 우경섭, 「한강 정구의 학문연원과 도통적 위상」, 『역사문화논총』4, 역사문화연구소, 2008.

9) <무흘구곡도>에 대한 회화사적 검토는 윤진영, 「한강 정구의 유거 공간과 《무흘구곡도》」, 『정신문화연구』3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pp.8-44 참조.

라 형성되어 한강 정구를 봉향하는 회연서원과 그의 후손이 사는 마을에 위치하였다. 제3곡인 선암, 제4곡 입암, 제5곡 사인암은 성주군 금수면 성주댐의 상류이며, 제6곡 옥류동, 제7곡 만월담, 제8곡 와룡암, 제9곡 龍湫는 수도산 계곡인 김천시 증산면 황동천을 따라 형성되었다(도 1).[11]



도1.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에 걸쳐있는 무흘구곡 위치도

본문에서는 선행논고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강 정구의 강학처였던 무흘정사의 운영 정황을 먼저 살피고, 그의 사후 무흘구곡의 논의 전개와 그 조성 과정을 파악하려 한다. 또한 정구의 무흘정사 관련 시문과 후학들의 차운시를 현존하는 《무흘구곡도》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그 제작배경과 내용적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

10) 조선시대 성주목은 지금의 성주군 전체와 고령군의 덕곡면·운수면·성산면·다산면, 달성군 논공읍 북쪽, 김천시 감천면·증산면에 해당하는 큰 고을이었고 읍치는 성주읍 경산리 일대에 있었다. 읍치 좌측에 태종의 태를 묻은 胎封山, 우측 위에 세조의 태를 묻은 胎封山이 있었다. 또한 조선 초에는 읍성 안에 왕조실록을 보관하던 史庫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탄 후 봉화군 태백산으로 사고를 옮겼다.

11) 『전통명승 동천구곡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7, pp.43-44 ; 정우락, 「성주 및 김천 지역의 구곡문화와 무흘구곡-무흘구곡의 일부 위치 비정을 겸하여」, 『퇴계학과 유교문화』54,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4, pp.213-248.

Ⅱ. 寒岡 鄭逑의 강학공간과 武屹精舍 운영

정구의 출생지는 성주 沙月里 柳村이었으나, 30대에 창평산의 선영 인근에 寒岡精舍, 41~49세에 후일 한강학파의 핵심 거점이 된 檜淵草堂, 62~70세에는 求道의 공간으로 수도산의 무흘정사, 70~78세에는 칠곡의 蘆谷精舍와 泗陽精舍에서 생활하며 저술 및 후진 양성에 힘썼다.[12]

1573년(31세)에 건립한 寒岡精舍는 성주군 수륜면 수성리 지촌 뒷산인 창평산으로 이장한 선영을 돌보기 위한 것으로,[13] 寒岡의 서쪽에 대를 하나 만들어 悠然臺라 이름하였다. 한강정사는 정구가 회연초당으로 이거한 후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1603년 한강의 북쪽에 夙夜齋를, 1604년 한강의 뒤쪽에 五蒼亭과 초가집 한 칸 규모의 川上亭, 幽靜堂, 於是軒, 洗心臺를 새로 조성하였다.

회연초당은 1583년 한강정사에서 조금 떨어진 창평산의 남쪽으로 1리 정도 떨어진 회연으로 옮겨와 지은 것으로, 1591년까지 학문에 전심하며 후학을 양성한 곳이다. 정구는 회연초당의 방을 '不愧寢', 창문을 '梅牕', 軒을 '靜觀'이라 이름 지었다. 또 門楣에는 竹牖와 松欞 등의 명칭을 붙여 걸었다. 초당 동쪽에 초가 한간을 다시 지어 선영을 우러러 본다는 의미로 望雲庵이라 하였다. 회연초당 역시 임란으로 소실되었는데, 1605년 정구가 초당을 중건하고, 지방의 자제들이 학문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通讀會儀, 講法, 契會立儀 등을 통해 문생들을 양성한 것이 회연서원의 기원이 되었다.[14]

1603년 정구는 친우 金宇顒의 죽음과 『남명집』 갑진본 간행과 관련하여 조식의 수제자인 정인홍과의 불화로 인해 그가 살던 孚飮亭에서 멀리 떨어진 무흘로

12) 김학수, 「鄭逑(1543~1620) 文學의 創作現場과 遺跡에 대한 연구」, 『대동한문학』29, 2008, 대동한문학회, pp.137-178.

13) 1551년 부친 정사중이 별세하자 이듬해 정월 회봉산에 안장하였으나, 1569년 성주 남쪽 대리의 창평산에 터를 잡아 이장하였다.

14) 장현광, 『여헌문집』권13, 行狀, 「皇明朝鮮國, 故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兼世子輔養官,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寒岡鄭先生行狀」; 정구, 『한강집 속집』 권4, 雜著, 「通讀會儀」; 「講法」. 초하루와 보름에 通讀하는 모임을 만들어 이 약속에 가입한 자가 모두 70여 명이었다. 주로 『小學』, 『呂氏鄕約』, 『童蒙須知』를 통독하였는데, 암송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이는 별도로 유사를 정해 楚罰하였고, 심지어 사우의 모임에서 축출되어 참여하지 못하였다.

거처를 옮겼다.[15] 정구는 1604년 62세 되던 해에 무흘로 들어가 1612년까지 그곳에서 강학과 학문에 정진한다. 1604년 초가 3간의 무흘정사를 건립하고 棲雲庵이라 편액하였다. 무흘정사는 외지고 깊어 은거처로 적당하였고, 와룡암과 만월담 사이에 있었으나 만월담에 더 가까이에 위치하였다. 1604년 건립 당시에는 서운암을 중심으로 그 아래에 飛雪橋와 滿月潭이 있고, 만월담 위에는 나무로 얽어 지은 自怡軒이 있었다. 서운암의 동쪽에는 山泉菴이 있고, 산천암 위에는 와룡암이, 와룡암 위에는 반석이 평평한 場巖이 있다.

정구는 무흘정사에서 『오선생예설분류』와 『심경발휘』 등을 저술하면서 학문적 결실을 보았고,[16] 주자의 雲谷、武夷山、白鹿洞、晦庵 등지와 관련된 서문, 기문, 제영과 사적을 수집한 『谷山洞庵志』와 『武夷誌』를 엮어 2책으로 나누어 만들었다. 또한 《무이구곡도》를 모사하여 병풍을 만들어 두고 때때로 펼쳐 봄으로써 주자의 학덕을 흠모하였다.[17] 이는 그의 학문에 있어 주자학에 대한 이론적 심화를 잘 보여준다.

1612년 정구는 칠곡의 八莒縣 蘆谷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2년 뒤 노곡정사에 화재가 나서 많은 저술이 소실되었고, 1617년 칠곡의 泗水로 옮겨 泗陽精舍를 지었다. 1620년 정구는 78세에 사양정사의 持敬齋에서 운명하였고 선영이 있는 창평산에 묻혔다.

정구의 별세 뒤 1633년(인조 11) 그의 문도들과 성주의 유학을 중심으로 무흘정사를 원래 자리에서 아래쪽으로 수백 보 옮겨 36칸 규모로 확장하고, 정사의 남쪽 10步 정도 거리에 장서각 3동을 세웠다.[18] 이때 서운암과 구분된 장서각

---

15) 『寒岡年譜』卷1, 61세(1603)조; 정인홍이 이언적과 이황의 문묘 퇴출을 요구하는 「晦退辨斥疏」를 올려 조식을 문묘에 배향하여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려 하였고, 『남명집』의 발문으로 퇴계를 배척하자 편지를 보내 그 부당함을 변설하였다. 이는 정인홍과 한강 정구와의 결별 원인이 되었다. 한강과 정인홍의 대립 이후 다른 지역 보다 두 학맥 사이에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었다. 최연식, 「조선시대 도통 확립의 계보학-권력 정치적 시각」, 『한국정치학회보』45(4), 한국정치학회, 2011, pp.156-158.

16) 『오선생예설』은 1611년에 저술한 것으로, 1614년 노곡정사의 화재로 소실된 후 1618년 정구가 송대 성리학자 程顥, 程頤, 司馬光, 張載, 朱熹 등의 예설과 이황의 예설을 포함하여 다시 편찬하였다. 『한강집 별집』권2, 雜著, 「五先生禮說分類跋」.

17) 『寒岡言行錄』卷3. “先生嘗在武屹山齋, 裒聚雲谷武夷山白鹿洞晦庵等地序記事實題詠, 合爲一冊, 名曰谷山洞庵誌. 又編武夷誌, 分爲二冊. 摹畵九曲圖, 列爲屛障, 以時披閱, 以寓高山景行之思.”

18) 정우락, 「한강 정구의 무흘정사 건립과 저술활동」, 『남명학연구』28, 남명학회, 2009, pp.285-290.

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장서각에는 정구의 저술 및 서책, 敎帖, 궤장, 시초, 深衣, 履 등을 보관하여 淸庵의 승려들에게 보호하게 하였다. 정구의 제자 成安義(1561~1629)의 5대손인 成涉(1718~1788)은 무흘정사의 장서각을 조선의 대표적 산중 장서고로 평가하며, 장서각의 연원을 정구의 사후 그의 제자들이 서운암 가에 큰 나무를 깎아 기둥을 올리고 서가를 엮어 수십 개 상자에 순서를 매겨 보관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밝혔다.[19]

정구의 사후 수도산의 무흘정사는 선비들의 대표적 유람코스였고, 정구의 유품과 서적이 있는 장서각은 裵尙龍(1574~1655)을 비롯한 문도들에게 한강의 학문을 계승하기 위한 구심점이 되었다.[20] 金景泌(1701~1748)은 18세기 전반 무흘정사에 있는 정구의 장서가 천권이 넘고, 정구의 畫像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21] 1760년(영조 36)경까지도 무흘정사 장서각에는 정구의 지팡이, 신발, 서적 등 유품과 서적이 보관되었다.[22] 칠곡 출신 宋履錫(1698~1782)은 1777년 무흘정사를 방문하고, 장서각에 소장되었던 도서를 정리하여『武屹書閣抄錄』2권을 남겼고,[23] 金翰東(1740~1811)은 무흘정사의 장서목록을 작성하여 정조에게 올렸다.[24]

이후 서운암의 입지가 높고 승려들의 기강도 해이해져 건물이 방치되면서 더 이상 경영할 수 없게 되자 1784년에 정구의 종손 鄭煒(1740~1811)를 비롯한 후손이 중심이 되어 무흘정사의 옛터에 서운암을 이건하였다.[25] 당시 장서각은 그대로 두었다가 1810년(순조 10)에야 무흘정사가 있는 곳으로 이건하였고,[26] 1854년(철종 5)에 장서각이 화재로 소실되면서 1862년에 기존 위치에서 10여리

19) 成涉,『僑窩文稿』外編,「武屹藏書記」.
20)『한강집』초간은 1636년 배상룡과 이서가 주관하였고, 중간본은 1680년 허목에 의해 추진되었다.
21) 金景泌,『聞韶世稿』卷24,「雙溪寺紀行」.
22)『여지도서』, 경상도 성주 누정조 ; 정우락,「산중도서관 '무흘정사 장서각'의 장서 성격과 의미」,『영남학』2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1, pp.13-14.
23) 李萬運,『默軒集』권11,「成均進士南邨宋公行狀」; 宋履錫,『南村集』권2,「書武屹書閣抄錄後」.
24) 임란 이후 많은 전적들이 산실되면서 정조의 명으로 嶺外의 임란 이전 전적을 올리라는 교서가 내려지자 金翰東에 의해 무흘정사의 장서각 장서목록이 작성되어 상진되기도 하였다. 정우락, 앞의 논문(2011), p.13 주석 11 참조.
25) 成涉,『僑窩文稿』外編,「再遊武屹」.
26) 이때 정위는「武屹藏書閣上梁文」을 짓고 李萬運은「武屹精舍藏書閣移建記」를 지었다. 李萬運,『默軒文集』卷7, 記,「武屹精舍藏書閣移建記」.

위쪽에 옛 규모로 재건하였다.[27] 1922년 향리의 인사들이 옛터를 개척하여 새로 4칸의 당과 庖舍 몇 동을 지었는데 그 규모는 매우 축소되었다.[28] 이후 1940년 회연서원으로 옮겼다가 1970년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었다.[29]

Ⅲ. 武屹九曲의 명명과 九曲圖 제작 경위

九曲은 주희를 추종하는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그가 경영한 무이정사를 중심으로 주자의 道로 나아가는 순서를 하나로 조목한 무이구곡에서 비롯되었다.[30] 따라서 조선에서도 구곡의 기원이 된 정사는 그것을 최초로 경영자한 인물 또는 그의 후학들이 주자의 학문을 계승하고, 성리의 도를 실천하는 장소로서 상징성과 학파적 연원을 가진 장소로 발전되었다.[31]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된 16세기 조선 사회에서는 이황과 이이를 비롯한

---

27) 정위의 현손 鄭世容이 『武屹讀書錄』을 만들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고문서 「星州武屹山鄭寒岡書齋所藏書冊」과 1832년 간행된 『星州牧邑誌』에 소개된 장서목록, 國會圖書館에서 1968년 발간한 『韓國古書綜合目錄』에 무흘장서 목록을 종합해 보면 고문헌 80종으로 중국과 조선의 성리서, 역사서, 문학서, 예서 등이 중심을 이룬다. 그리고 책판은 『京山志』를 비롯해 『湫灘集』, 『一松集』, 『月峰集』, 『一竹集』, 『松堂集』 등 6종으로 파악된다. 정우락, 앞의 논문(2011), pp.25-29.

28) 鄭宗鎬, 『磊軒集』卷6, 「武屹精舍記」. "先子文穆公, 自淵上溯流, 六十里而避地, 盖谷邃源遠, 人烟迥隔, 有九曲雲霞之趣, 貯百家詩禮之富, 當時所稱海東武夷者此也. 始築茅屋三間, 及先生沒, 而地主門徒, 爲構精舍, 盖三十六架, 而舍之南十武許, 又建藏書閣三棟, 書冊及敎帖几杖簀履之屬, 藏焉 其後二百五十年甲寅, 爲鬱攸攸災後, 九年壬戌, 移卜于數堠之上, 卽此地也. 規模廣狹, 一如舊制, 又其後六十一年壬戌, 鄕人士, 悶其傾圮拓舊址, 而新之堂爲四架, 庖舍亦若干棟, 皆斲而小之, 比前才十之一也, 是亦關世道之降替也."

29) 정구의 창작 현장인 한강정사, 회연초당, 무흘정사에 대한 연구는 김학수, 앞의 논문(2008), pp.137-165 참조; 무흘정사의 위치와 구조에 대해서는 정우락, 앞의 논문(2009), pp.285-290 참조.

30) 이상균, 「조선시대 사대부의 산수유관과 구곡유람」, 『영남학』2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pp.369-395.

31) 무이도는 燕文貴(967~1044)의 <武夷疊嶂圖>와 張擇端(1042~1107)이 그린 <武夷山圖卷>이 있었던 점에서 1183년 주자가 이곳에 무이정사를 짓기 전부터 무이산은 중국 화가들 사이에서 명산으로 그려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윤진영, 「조선시대 구곡도의 수용과 전개」, 『미술사학연구』217.218, 한국미술사학회, 1998, p.64 <표 1> 참조; 강신애, 「조선시대 무이구곡도의 연원과 특징」, 『미술사학연구』254, 한국미술사학회, 2007, pp.7-9.

사림들이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전승하였으며, 그들은 뛰어난 경관과 수려한 산수에 건립된 정사를 경영하며 주자의 사상을 추종하며 후학을 양성하였다.[32] 정사나 서당에서 후학 양성을 위한 서원 공간으로 발전된 대표적 사례로 퇴계의 도산서당, 율곡의 은병정사, 서애의 옥연정사, 한강의 무흘정사 등을 들 수 있다.[33] 또한 도통의식과 관련하여 구곡 시가의 창작이나 次韻과 더불어 이를 시각화한 구곡도는 정치적 학맥의 정통성 확보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되어 주목할 만하다.[34]

정구는《무이구곡도》와 <도산도>를 함께 제작하여 주자에서 이황으로 이어진 道脈을 드러내었다. 한강학단을 중심으로 한 무흘정사 관련 시문 저술과《무흘구곡도》를 제작한 것 역시 주자에서 퇴계를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도통을 시각화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구가 증찬한『武夷志』는 명대 楊亘이 1522년 6권으로 편찬한 것의 寫本을 필사한 것이다.[35] 그 제작 내력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난날에는 <武夷圖>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루만지며 우러러 상상하는 뜻을 붙였는데, 요즘 또『무이지』6권을 얻어 책장을 넘기며 그 내용을 읊노라니 내 정신이 마치 隱屛峯과 鐵笛亭 사이에 노닐며 주자가 끼친 도덕의 향기에 젖어드는 것 같아 아주 불행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당장 이 책을 베껴 써서 산

32) 박균섭, 「은병정사 연구 : 학문과 학풍」,『율곡학연구』19, 율곡연구원, 2009, pp.171~204.

33) 최종현, 「朱子의 武夷九曲圖」,『역사와 실학』, 역사실학회, 2000, pp.718-719.

34) 1674년 甲寅禮訟이나 1689년 己巳換局으로 서인들이 실각한 시기를 전후하여 <고산구곡도>를 제작하였고, 1680년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재집권하면서 1682년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를 허락 받은 시기에 김수증이 <곡운구곡도>를 제작한 것은 이이에서 송시열, 그리고 김상헌 후손가로 이어지는 도통의 맥을 그리려던 대표적 사례이다. 이상원, 「조선후기 <高山九曲歌> 수용양상과 그 의미」,『고전문학연구』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pp.50-51 ; 조규희, 「조선 유학의 '道統'의식과 九曲圖」,『역사와 경계』61, 경남사학회, 2006, pp.9-14.

35) 정구가 증보한『무이지』는 1609년 필사되었는데, 이황의 1564년「武夷九曲圖序」와 1609년 정구의 識가 있다. 고려대학도서관에 2권1책 缺帙本이 소장되었다. 명대 楊亘이 편찬한『무이지』구성은 1520년 費宏이 찬한「武夷新志序」가 있고, 6개 조항의 범례, 胡璉의「再遊武夷四首」,「무이지목록」에 이어 주희의「武夷圖序」, 다음으로 王鉉이 그린 <武夷九曲總圖>, 무이구곡 각 1도, <新修武夷書院圖>가 추가되었다. 본문은 권1부터 권6에 이어 1520년 舒芬이 찬한「武夷志後序」, 1522년 蕭乾元이 찬한「書武夷志後」가 붙었다.『무이지』는 현재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전병철,「明代 楊亘의『武夷志』가 조선에 끼친 영향」,『한문학논집』, 근역한문학회, 2015, pp.269-274.

> 중에 간직하여 책상에 앉아 펴 보며 즐길 자료로 삼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책도 寫本이어서 誤字가 많고 권수에 있어야 할 11장의 그림도 빠진 상태였다. 그림은 앞으로 화가를 구해 옛 판본을 근거로 모사해서 끼워 넣을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 비록 실물을 직접 대하고 그린 것처럼 사실적이지는 않겠지만 책을 펴고 살펴볼 때 완전히 빠져 볼 것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니 주자가 무이산을 주제로 하여 지은 여러 작품이 많이 보이지 않고 산천을 기록한 내용도『一統志』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은 상세하고 어떤 부분은 간략하였다. 이름을 이미『무이지』라고 붙이면서 어찌 이래서야 되겠는가. 저 두 楊氏는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으나[36] 주 부자의 詩文을 감히 이 산의 기록에서 선별해 실었다는 것이 말이 될 일인가.[37]

정구는 徐思遠(1550~1615)이 金道源의 것을 필사한 양긍의『무이지』6권을 빌려 그냥 베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주자전서』에 실린 주자의 시 중 무이산과 관련된 작품을 모두 취하였고, 누락된 산천 명승 부분을『일통지』에서 보충하여 해당 편에 끼워 넣었다.[38] 또한 부록으로「簡霄」와「胡璉」등 누락된 시를 해당 부분에 넣었다. 구곡의 시도 모두 해당 曲 아래로 모았는데, 퇴계 선생의 시와 발문을 그 밑에 달아놓았다. 그는 이러한 일이 비록 참람한 일임을 알면서도『무이지』증찬에 있어『일통지』에서 무이산의 명승지로 이름난 곳을 보충하고, 누락된 주자의 시는 물론 그의 도통을 따르던 퇴계 이황의「무이도발」을 추가하였음을 밝혔다. 아울러『무이지』사본에 있던 오자를 바로잡고, 이 책에 포함되어야 할《무이구곡도》와 <무이산총도>, <무이서원도> 등 11장의 그림이 누락된 것에 대해 후에 화가를 구해 양긍의『무이지』를 근거로 모사해서 끼워 넣

---

36) 여기서 두 양씨는『무이지』를 편찬한 楊亘과 교주한 楊易을 말한다.

37) "舊有武夷圖, 嘗竊摩挲, 以寓其瞻想之懷, 近又得所謂武夷志六卷者, 披閱吟誦, 不覺此身周旋於隱屛鐵笛之間, 仰襲道德之餘芬 亦不可謂全不幸也. 卽謀謄寫, 留置山中, 以爲牀榻展玩之資, 第所得者. 亦寫本也, 頗有誤字處, 編首十一圖子, 亦皆闕焉. 圖則將欲求畫史, 據舊本而模入. 雖不如面對落筆之逼眞, 而開卷寓目, 不猶愈於全缺而無所覩乎. 見編中朱子武夷諸作, 多不見在, 山川所識, 亦與一統志, 互有詳略. 旣曰武夷志, 則豈合如是, 彼兩楊, 不知爲何如人, 朱夫子之詩文, 而敢有所取捨於玆山之志哉." 정구,『한강집』권10, 跋,「武夷志跋」.

38) 정경세,『愚伏先生文集』卷15, 跋,「書武夷志後」. 정구가『무이지』를 증편한 사례는 영남학파의 핵심인물이었던 우복 정경세(1563~1633)에게도 보인다. 그는 1607년 달성부사로 부임할 때 徐思遠에게 빌린『武夷志』를 등사한 후 <九曲摠圖> 한 폭을 모사하여 권수에 추가하고, 퇴계 이황이 주자의「무이도가」의 운에 화답한 시를 마지막에 붙였다. 그는 완곡하게 표현하였지만, 무이산은 주자의 학문이 완성된 곳이며,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무이구곡은 주자의 도통을 상징으로 간주하였다.

을 계획을 밝히고 있다.[39]

정구는 李湛(1510~1574)이 소장한 중국본을 모사한 《무이구곡도》를 이전부터 소장하였고, 새로 얻은 중국본 도판을 화가에게 모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한강이 쓴 다음 발문에서 확인된다.

> 내게 이전부터 (武夷)九曲圖가 있었는데, 이는 이 선생(퇴계 이황)이 발문을 쓰신 것으로 靜存 李湛이 소장한 중국본을 모사한 것이다.[40] 이 그림을 대하면 정말이지 이른바 시야에 가득 들어온 구름이며 안개가 정묘의 극치를 다하여 마치 귓전에 들리는 듯 황홀하다. 또 중국본 책자 속에서 무이산의 總圖와 書院圖를 발견하였는데, 지난번 花山(安東의 옛 이름)에 있을 때 우연히 화가를 만나 이것까지 아울러 『(武夷)志』에 본떠 그려 넣게 하고 거기에 이 선생의 발문을 첨부하였다. 한가할 때마다 가끔 한 번씩 열람하고 있노라면 내 몸이 외진 조선 땅, 그것도 400여 년 뒤에 살고 있다는 현실을 잊곤 한다. 그러니 그 당시 매일 주자를 모시고 도를 강론하면서 「武夷櫂歌」를 부르며 생활하던 사람들은 그 기상과 의취가 어떠하였겠는가. 감회가 있어 이를 적는다. 기유년(1609) 3월 정미일에 정구가 쓰다.[41]

정구는 1606년 12월 안동의 부임지에서 만난 화가를 시켜 중국본 책자 속에

---

39) 『武夷志』는 명대 楊亘이 1522년 6권으로 편찬하였고, 그 구성은 1520년 費宏이 찬한 「武夷新志序」가 있고, 6개 조항의 범례, 胡璉의 「再遊武夷四首」, 「무이지목록」에 이어 주희의 「武夷圖序」, 다음으로 王鉉이 그린 <武夷九曲總圖>, 무이구곡 각 1도, <新修武夷書院圖>가 추가되었다. 본문은 권1부터 권6에 이어 1520년 舒芬이 찬한 「武夷志後序」, 1522년 蕭乾元이 찬한 「書武夷志後」가 붙었다. 『무이지』는 현재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전병철, 앞의 논문(2015), pp.269-274.

40) "世傳武夷圖多矣, 余昔在京師, 求得數本, 倩名畫摹來, 由其元本疎略, 傳亦未盡. 吾友李君仲久, 近寄一本來." 이황, 『退溪集』卷43, 跋, 「李仲久家藏武夷九曲圖跋」; 퇴계는 세간에 전하는 무이도가 많아 서울에 있을 때, 여러 본을 얻어 모사하여왔으나 그림이 매우 소략하여 아쉬워하던 차에 1584년 친우 李仲久가 제발을 부탁하기 위해 보내준 <무이도>는 잘 그려 완상할 만하였다. 이후 1585년 이중구가 퇴계에게 <무이도>를 한 벌 축으로 장황하여 보낸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동환 역, 「答李仲久之書」, 『퇴계학보』9집, 퇴계학연구원, 1976, pp.111-113 ; 『퇴계학보』14집, 퇴계학연구원, 1976, p.201.

41) 鄭逑, 『寒岡集』卷9, 雜著, 「書武夷志 附退溪李先生跋 李仲久家藏 武夷九曲圖後」. "余舊有九曲圖, 卽李先生題跋李靜存所藏唐本之摹寫者也. 信乎所謂滿目雲烟, 精妙曲盡, 怳若耳邊之有聞矣. 又於唐本冊子中, 得總圖與書院圖, 頃在花山, 偶値畫手, 竝令模入志中, 係以李先生跋文. 每於閑中時一翫閱, 不覺此身之落在東偏. 四百有餘年之下, 不知當日日侍講道, 而歌詠周旋於其間者, 其氣像意味, 又復何如也邪. 感想之餘, 因竊識焉. 己酉暮春丁未, 逑書."

서 발견한 <무이산총도>와 <무이서원도>를『武夷志』에 모두 모사해 넣게 하고 퇴계의 발문을 첨부하였다.[42]

무흘구곡의 명칭 중 舟巖(船巖), 立巖, 搯印巖 등은 정구가 1579년 37세에 지은『遊伽倻山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정구의 정착 이전부터 명명된 이름이었다. 이때 정구는 주희가 쓴『운곡기』와『무이산기』를 휴대하였고, 가야산과 무이산의 경관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또한 寒岡臺는 정구가 1573년에 한강정사를 세우고 이곳에 정착하면서 명명한 것이고, 滿月潭과 臥龍巖은 1604년 무흘정사를 건립하고 이곳에 정착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무흘구곡의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한강학단이 일정한 활동을 시작한 1633년 裵尙龍(1574~1655)이 武屹山長이 되어 무흘정사를 큰 규모로 확장하고 장서각도 새로 세우면서 비롯되었다. 허목은 1681년 성주 회연서원의 유생들의 요청으로 篆書로 회연서원 강당의 편액'望雲庵'과 서원 옆 바위 이름인 '鳳飛巖'을 써 주었다. 허목은 이황, 정구를 계승하여 이익과 채제공으로 이어지는 근기 남인의 학문적 연원을 이어준 핵심인물이었다.[43]



도2. 1716년 무흘구곡의 立巖 刻字

玉流洞은 정구의 제자인 呂燦(1578~1646)의 아들 呂孝思(1612~1661)가『可隱八景』에서 특별히 노래한 곳이다. 立巖, 搯印巖, 臥龍巖, 玉流洞 등의 글씨가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이중 입암의 각자 옆에는 "崇禎紀元後八十九年丙申孟秋"라고 하여 1716년 7월에 새겼음을 알 수 있다(도 2).[44]

42) 현재 고려대학교도서관에 소장된『무이지』필사본에는 1564년 이황이 쓴「무이구곡서」와 1609년 暮春 丁未에 한강 정구가 쓴 識文이 추가되었으나, 권수에 11개 그림은 실려 있지 않다.

43) "吾道自有統緖, 退溪我東夫子也. 以其道而傳寒岡, 寒岡以其道而傳眉叟, 先生私淑於眉叟者, 學眉叟而以接夫退溪之緖, 後之學者知斯文之嫡嫡相承." 蔡濟恭,『樊巖集』권51,「星湖李先生墓碣銘」; 우경섭, 앞의 논문(2008), pp.145-193.

44) 정구의 무흘 정착과 무흘구곡의 명명에 대해서는 정우락,「한강 정구의 무흘 경영과 무흘구곡 정착과정」,『한국학논집』4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pp.109-120

龍湫는 1784년 그의 후손 정동박이 『무흘구곡운』을 지으며 명명한 명칭이다. 무흘구곡의 지명이 오늘날처럼 정해진 것은 정구의 문인들에 의한 것이다.

1784년 정구의 종손 鄭煒(1740~1811) 등을 중심으로 무흘정사가 중건되고, 정동박(1732~1792)의 발의로 《무흘구곡도》가 그려진다. 현전하는 《무흘구곡도》는 정재국 소장 필사본이 있고, 한강의 종가 구장본은 흑백사진으로만 전한다.

무흘구곡이 한강의 사후 후대인들에 의해 이름 붙여진 정황과 《무흘구곡도》를 그린 목적은 李萬運이 지은 다음 발문에서 확인된다.

> 우리 寒岡 정선생은 주자의 도를 몸소 행하여 학문에 힘쓰고 노래한 곳은 武屹 한 곳에서 가장 잘 드러나니 회암의 武夷와 같다. 선생은 일찍이 『武夷志』를 曾撰하였고, 또한 구곡시를 화운하니 그 뜻이 은미하였다. 후대인들이 무흘구곡을 이름 붙여 마애에 새기고 그림으로 그려 첩을 만들어 武夷의 故事를 본떴다. 대개 무이정사는 淳熙 甲辰(1184)년에 세웠고 무흘정사는 萬曆 甲辰(1604)년에 세웠는데, 지금 중건하여 새기고 그린 것이 마침 갑진(1784)년이다. 하늘이 두 현인[주자와 한강]을 내어 지명이 이미 부합하고 앞뒤 세월을 경영함 또한 우연이 아니다. 아, 계곡과 산의 향기 넉넉하고, 구름안개 눈에 가득하여 만져질 듯하고 곁에 모시고 월담과 용암 사이를 노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흠모하여 흥기할 수 있을 것이니 선생의 仁智의 덕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장차 이 그림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45]

이만운은 한강에게 있어 무흘은 주자의 무이산과 같다고 비유하며, 그가 『무이지』를 증찬하고 주자의 「무이도가」에 화운한 사실을 밝혔다. 이어 무흘의 구곡 명칭은 한강의 사후에 후대인들에 의해 이름이 붙여지고, 무이구곡의 고사를 본떠 刻石하고 시화첩이 만들어진 계기를 설명하였다. 또한 무이정사와 무흘정사가 지어진 것이 각각 1184년과 1604년으로 갑진년이며, 무흘정사를 중건하여 구곡의 이름을 새기고 그린 것이 1784년 갑진년으로 주자의 무이구곡과 부합하

; 정우락은 사인암, 만월담, 와룡암의 기존 위치 비정의 오류를 시정하였다. 정우락, 앞의 논문(2014), pp.227-238.

45) "惟我寒岡鄭先生躬行晦庵夫子之道, 而藏修歌詠之所, 最在於武屹一區, 與晦庵之武夷同焉. 先生嘗增撰武夷志, 又和九曲詩, 其旨微矣. 後之人仍名武屹九曲, 刻之磨崖, 且爲繪畵作帖, 以倣武夷故事. 盖武夷精舍成於淳熙甲辰, 武屹精舍刱於萬曆甲辰, 而今重建刻繪, 適在甲辰. 天生兩賢, 地名旣符, 經營前後之歲又同, 亦非偶然者矣. 噫, 溪山剩馥, 雲烟滿目, 摩挲髣髴, 怳若追陪杖屨於月潭龍巖之間. 庶幾有所想慕而興起焉, 則欲學先生仁智之德者, 亦將有得於斯圖也." 李萬運(1736~1820), 『默軒文集』卷7, 「武屹九曲圖跋」.

도록 무흘구곡의 지명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46] 후대인들의 이러한 구곡 선정은 한강 정구가 주자의 학문과 도통을 계승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임을 잘 보여준다. 이만운은 마지막에 주자의 무이구곡도가 그의 사상과 학문을 추종하는 후인들에게 그러듯 구곡도를 통해 한강 선생의 학덕을 배울 수 있다고 그 효용성을 언급하였다. 다음은 散翁 李奎壽가《무흘구곡도》를 본 후 적은 발문이다.

> 光遠 鄭東璞 군은 선생의 후손으로 성정이 충담하고 蕭然하여 산수를 좋아하는 흥취가 있었다. 무흘이 서쪽 지경에 있어 한가로운 때 노닐었다. 무릇 산의 물이 100리를 둘러 오르내리는 것이 선생이 남긴 자취와 여운 아닌 것이 없었다. 광원 군이 선조를 추모하여 감흥을 일으킨 것은 비단 우뚝 서 있는 산과 조화롭게 흐르는 물에 있는 것만이 아니었다. 대개 서른여섯 봉우리와 아홉 굽이가 幔亭峯과 大王峯처럼 보이는 것이 선명하였다. 절뚝거리는 나귀로 나막신을 끌며 구경하는 여가에 유명한 화공을 시켜 武屹九曲을 그리게 하여 구비를 따라 시 한 수를 짓고 작은 화첩을 만들어 武夷九曲圖와 짝하게 했다. 아, 광원 군은 선조를 높이고 현인을 공경하는 정성과 산수로 仁智를 즐기는 이 두 가지 아름다움을 다 하였다고 하겠다.[47]

이규수는 한강의 6세손 정동박이 산수를 좋아하는 흥취가 있어 한가로운 여가에 무흘을 거닐다가 한강을 추모하기 위해 구곡을 정하고 유명한 화공을 시켜 무흘구곡을 그리게 하고 구곡을 따라 시를 짓고 화첩으로 만들었으며, 이어《무이구곡도》를 함께 제작하였음을 밝혔다. 이규수는 정동박이 이 두 화첩을 제작한 이유를 주자와 한강을 공경하는 정성을 보임과 동시에 그 산수를 통해 얻어지는 仁智의 도를 즐기려는 목적이라 하였다.[48]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작품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무이구곡도》이

---

46) 李萬運,『默軒文集』卷7, 記,「武屹精舍藏書閣移建記」.

47) "鄭君光遠氏 先生之裔孫也. 雅性冲澹蕭然, 有林壑之趣, 而武屹在其西境, 暇則遊焉. 凡山若水之環, 百里周遭而沿洄者, 皆莫非先生遺躅餘韻, 則光遠氏之所以寓慕而興感者, 不但在於峙然而立, 融然而流而已也. 蓋將以峰六六而曲三三, 如幔亭大王視之也. 明矣. 蹇驢蠟屐之暇, 乃倩名畵, 摹寫武屹九曲, 逐曲歌詩一絶 粧成短帖, 以配夫武夷九曲圖. 噫, 光遠氏尊祖敬賢之誠, 山水仁智之樂, 可謂兩盡其美矣." 李奎壽,『全城世稿』卷1,「書鄭警軒武屹九曲帖後」.

48) 仁智의 도는 山水를 통해 얻어지는 道로, 공자가『論語』「雍也」편에서 "知者는 물을 좋아하고 仁者는 산을 좋아하니, 지자는 動的이고 인자는 靜的이며, 지자는 낙천적이고 인자는 장수한다."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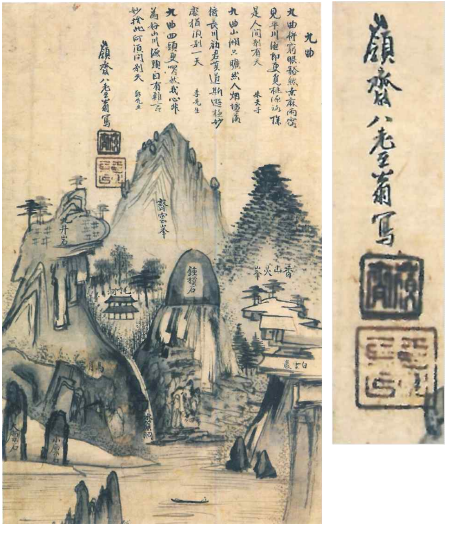
도3.《무흘구곡도첩》표지



도3-1. 김상진 그림,《무흘구곡도첩》
제1폭 <서운암>, 1784년, 개인



도4.《무이구곡도첩》표지



도4-1. 김상진,《무이구곡도첩》제9곡,
1785년, 국립중앙박물관

다.[49] 표제는 '武夷九曲圖'이고, 표지 장황 형식은 앞의 정재국 소장《무흘구곡

49)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무이구곡도》의 模本은 한강 정구가 증편한『무이지』에 포

도》와 유사하다(도3, 도4). 《무흘구곡도》의 <서운암도> 상단 정동박의 시 좌측에 "嶺齋名尙眞姓金年七十九是年甲辰(영재, 이름은 상진이고 성은 김이며, 나이는 79세로 갑진년이다)"이라 기록하였고, 우측 하단에 '嶺齋'라는 주문방인을 찍었다. 따라서 嶺齋의 성명은 金尙眞이며, 그림을 그린 갑진년(1784)에 79세였던 점에서 생년이 1706년임을 알 수 있다(도3-1). 한편 《무이구곡도》 제9곡 상단에는 "嶺齋八耋翁寫(영재가 80세에 그리다)"라고 적고 '嶺齋', '金尙眞印' 주문방인을 찍었다(도4-1). 따라서 영재 김상진이 80세인 1785년에 그렸음을 알 수 있다. 화첩의 순서는 「武夷圖序」가 있고, <무이전도>를 포함한 구곡도 10폭이 온다. 그림 상단에는 각각 주자의 「무이도가」 10수, 퇴계 이황의 「閒居讀武夷志, 次九曲櫂歌韻」 10수와 한강 정구의 「仰和朱夫子武夷九曲詩韻」 10수가 각 화면에 각 1수씩 순서대로 기록되었다. 이후 무이구곡 유적에 대해 기록한 「武夷名勝」, 퇴계 이황의 「武夷圖跋」, 한강 정구의 「武夷志跋」이 차례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이 작품이 앞서 정동박이 화원을 시켜 《무흘구곡도》와 짝하여 제작한 《무이구곡도》로 간주된다.

Ⅳ. 武屹九曲圖의 주요 내용

한강의 종가 구장본 《무흘구곡도》의 화첩 크기는 39.5×21.1cm, 지본수묵, 첩형태의 장황으로 구곡도 9폭과 무흘정사의 <서운암도>가 맨 마지막에 실렸고, 그 뒷면에 정구가 주자의 「무이도가」에 차운한 「仰和朱夫子武夷九曲詩韻」 10수가 적혀 있다. 시는 「무이도가」에 등장하는 바위, 못, 정자, 폭포, 계곡 등 자연 경관의 순서에 맞춰 구곡의 이름을 정하였기 때문에 무이산을 노래한 제1수를 제외한 나머지 구곡은 무흘구곡의 자연적 소재와도 거의 합치된다.

특히 제3곡의 壑船은 무이산 일대에서 시신을 배에 담아 바위 벼랑에 매달아 장사지내던 古越族의 풍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무이도가」의 압운뿐만 아니라 무이구곡의 내용까지 시에 인용하고 있어 주목된다.[50] 화면에 제시는 따로 없고

함된 그림들과 『일통지』에서 찾아 넣은 「武夷名勝」, 퇴계 이황의 「武夷圖跋」, 한강 정구의 「武夷志跋」을 그대로 옮긴 것임을 알 수 있다.

50) 그림은 무흘구곡을 묘사한 것이지만, 화첩 뒤에 붙은 정구의 시는 주자의 「무이도가」를 차운한 것이다. 정구의 구곡시는 주자의 「무이도가」 제1곡부터 제9곡까지 釣船, 옥녀봉, 壑船, 巖花, 平林, 茅茨(정사), 碧灘, 遊人, 별천지를 소재로 압운에 맞춰 차



도5. 김상진 그림, 《무흘구곡도첩》 제9폭<용폭>, 1784년경, 寒岡宗家 舊藏



도3-2. 김상진 그림,《무흘구곡도첩》 제10폭<용폭>, 1784년, 개인

'一曲 鳳飛巖', '三曲 舞鶴亭 一名船岩'과 같이 구곡의 명칭만 우측 상단에 기록하여 구분하였다. 이 화첩의 제9곡 용추 그림 상단에 '嶺齋', '金尙眞印' 이라는 주문방인이 찍혀 있어 그린 이가 김상진임을 확인할 수 있다(도 5). 따라서 1784년 정동박이 《무흘구곡도》 화첩을 제작할 때 한강종가 소장본으로 1부를 더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재국 소장본은 39.7×24.1cm, 지본수묵, 첩 형태의 장황으로, 표지에는 '武屹九曲圖'라는 제첨이 붙었다. 각 그림 상단에는 6세손 警軒 鄭東璞(1732~1792)이 정구의 「仰和朱夫子武夷九曲詩韻十首」에 차운한 시 20수가 적혀 있다.[51] 화면은 서운암이 맨 처음 오고, 나머지 구곡은 鳳飛巖, 寒岡臺, 舞鶴

운하였다. 주자의 「무이도가」 제3곡에서는 "三曲君看架壑船"이라 하여 架壑船이라 표현하고 있다. 『주자대전』권9, 「武夷櫂歌」.

51) 鄭東璞(1732~1792)의 호는 警軒, 본관은 淸州. 자는 輝國으로 이조 참의에 증직되었다. 평소에 산수를 좋아해 일찍부터 과거공부를 끊고 동지들과 경치가 아름다운 산수

亭(船巖), 立巖, 捺印巖, 玉流洞, 滿月潭, 臥龍巖, 龍湫(臼瀑) 등의 순서로 장황되었다. 그중 제10폭에 해당하는 <용폭>에는 '警軒稿'라고 쓰고 정동박의 성명인과 호인을 찍어 정동박이 9곡시를 지었음을 밝혔고, 이어 '嶺齋寫'라 쓰고 '嶺齋', '金尙眞印'의 주문방인을 찍어 김상진이 그렸음을 밝혔다(도3-2). 정동박의 시는 그림이 그려진 화면 상단에 원래 있던 제시를 세초한 뒤 종이를 그 위에 덧대어 쓴 것으로, 각 화면 전체에 걸쳐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본장에서는 종가에서 구장한《무흘구곡도》뒤에 붙인 한강 정구가 주자의 「무이도가」를 화운한 「仰和朱夫子武夷九曲詩韻」 10수와《무흘구곡도》상단에 있는 6세손 정동박의 시 20수를 구곡의 그림과 함께 비교하여 1784년 정동박이 선정한 무흘 구곡의 내용을 파악하려한다.

정구의 8세손인 進庵 鄭壕(1799~1879)은 정동박의 차남 鄭煐의 아들로, 그가 정구의 무이구곡시운 10수에 차운한 것을 '敬次先祖文穆公武屹九曲韻十絶'이라 하였다.[52]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정구의 시운은 무이구곡을 대상으로 지은 것이었다<표 1>.

김상진의 그림은 모두 수묵으로 제작하였고, 미점준의 산 묘사와 T자형 소나무, 절대준과 부벽준을 혼용한 암벽 묘사, 적묵법으로 표현한 바위 등은 조선후기 전형적인 겸재의 화풍을 계승한 진경산수화풍을 따르고 있다.

《무흘구곡도》에는 棲雲庵이 맨 처음 붙었고, 나머지 구곡 鳳飛巖, 寒岡臺, 舞鶴亭(船巖), 立巖(喚仙臺), 捺印巖, 玉流洞, 滿月潭, 臥龍巖, 龍湫가 차례로 장황되었다. 제1폭은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의 서운암을 그렸다. 한강 정구는 1604년(선조 37) 62세에 武屹精舍를 완성하고, 편액을 '棲雲庵'이라 하였다. 무흘은 성주의 서쪽 修道山 속에 있어 泉石이 정갈하고 人家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 정구가 이곳에 초가 3칸을 세워 서책을 보관하고 편히 쉬는 장소로 삼았으니 속세를 떠나고픈 뜻에서였다. 이러한 심경은 한강이 무흘정사 벽에 적은 시에 잘 나타난다. '武屹'이라는 정사의 명칭은 주자의 武夷와 그 의미와 중국어 발음이 [wuyi]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한강이 이를 염두에 두고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53]

를 배회하며 시를 주고받았다. 伽倻山 竹項村에 초가를 지어 마을 이름을 月淵洞이라 하고 정자 이름을 養閒亭이라 하였다.

52) 무흘구곡 차운시는 제1곡 鳳飛巖에서 제9곡 龍湫에 이르며 鄭壕의 「敬次先祖文穆公武屹九曲韻十絶」과 鄭觀永(1817~1895)의 「詠武屹九曲詩十首」, 그리고 崔鶴吉(1862~1936)의 「敬次武屹九曲韻」으로 이어진다.

53) 정우락, 앞의 논문(2012), p.99.

自竄窮山　스스로 궁벽한 산속에 숨어
與世長辭　세상과는 길이길이 작별을 고하였네.
滅影絶迹　그림자를 지우고 자취도 끊고
以盡餘年　남은 세월 여기서 보내 볼거나.[54]

한강은 정사에 많은 서책을 보관하고 시중드는 2~3명과 함께 거처하였고, 찾아오는 객들을 사절하고 단정히 앉아 經史를 열독하였다.[55] 무흘정사에 소장된 서목인『星州武屹山鄭寒岡書齋所藏書冊』에는『武陵雜稿』,『朱子成書』등 22종 119책이 수록되었다.[56] 서운암 동쪽에는 비설교에서 10여보 위에 2칸 규모의 山泉庵이 있었다. 산천암은 주자가 지은 '깊은 밤 베갯머리 산골의 샘 소리(夜枕山泉響)'의 뜻을 취해 이름한 것이다.

<서운암> 화면에는 큰 산을 주산으로 대숲이 안온하게 감싼 배경에 무흘정사가 보인다. 그 앞으로 흐르는 계곡에 임한 바위 주변에 나무들이 자리를 잡았다. 이는 1784년 중건된 무흘정사의 서운암을 묘사한 것이다. 중건한 서운암은 'ㄱ'자 형태로 지어 장서를 두는 곳에는 습기 방지를 위해 지면에서 높게 지은 것이 특징이다.[57] 이와 관련하여「武屹夜詠」이란 제목의 절구 한 수가 있다.

峯頭殘月點寒溪　산봉우리 지는 달 시냇물에 어리는데,
獨坐無人夜氣凄　찾는 이 없이 홀로 앉으니 밤기운 싸늘하네.
爲謝親朋休理屐　벗들에게 말하노니 나막신 손질하려 마오.
亂雲層雪逕全迷　구름 짙고 쌓인 눈에 오솔길 모두 덮였으니.

제1폭에 그려진 무흘정사의 서운암은 만월담과 와룡암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화폭의 순서에서 제7곡 만월담의 다음에 오는 것이 옳으나, 서운암을 제1폭

54) 정구,『한강집 별집』권2, 雜著,「武屹題壁」.
55) "卜築武屹精舍於修道山中, 距村閭百餘里, 雲山萬疊, 谷邃林深, 藏書冊於其中, 偕飯僧二三人. 先生以山冠野服, 謝絶外客, 兀然端坐, 披閱經史, 焚膏繼晷, 優遊玩索, 以詠歌先王之風, 而不知老之將至." 李天封,『白川集』卷1,「寒岡先生敍述」.
56) 정우락, 앞의 논문(2011), p.25.
57) 무흘정사의 위치와 구조에 대해서는 정우락, 앞의 논문(2009), pp.278-279 참조.

에 앞세운 이유는 한강 정구의 학문과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무흘정사가 위치한 곳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무흘구곡도》 제1곡의 주요 소재는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의 봉비암과 회연서원이다. 회연의 자연 조건은 그림에서 자세히 보인다. 회연서원 옆 절벽 바위인 봉비암은 수도산에서 발원해 가야산 북쪽을 돌아 흐르는 大伽川 가에 높이 솟았고, 실제 경관보다 과장되고 크게 그려졌다. 巖面에는 '鳳飛巖' 3자와 다음과 같이 「檜淵偶吟」 1수를 각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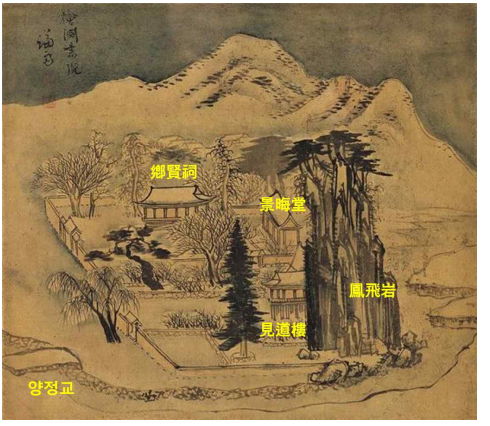
伽川於我有深緣　가천은 나에게 깊은 인연 있거니
占得寒岡又檜淵　한강에다 회연까지 얻었노라.
白石淸川終日翫　흰 돌과 맑은 시내 종일토록 즐기나니
世間何事入丹田　세간의 무슨 일이 마음에 들어오겠는가.[58]

정구는 1583년(선조 16) 檜淵에 터를 닦고 草堂을 만들어 대나무와 매화나무를 심고 百梅園이라 하였다. 그는 회연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20가지로 읊었다. 도회지에서 멀고, 세속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며, 선영을 가깝게 모실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자연적 조건으로는 앞뒤로 구릉과 늪지에 통하며, 좌우로 마을과 맑은 못이 접해 있고, 푸른 석벽과 흰 바위, 울창한 숲과 풀이 있어 나무하고 소먹이기 편한 점, 나물 캐고 낚시하기 좋고, 여러 산이 에워싸 산과 물이 절승을 이루고 들판이 넓게 트인 점,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점, 토질이 촉촉하여 벼농사에 적합하며 들이 넓어 뽕나무와 삼나무 가꾸기 좋은 점 등을 들었다.[59] 한강이 회연에 초당을 짓고 지은 시에서 이곳에 대한 애착을 엿볼 수 있다.

小小山前小小家　나지막한 산 앞에 자그만 초당이라
滿園梅菊逐年加　동산 가득 매화 국화 해마다 더해지네.
更敎雲水粧如畫　게다가 구름 냇물 그림같이 장식하니
擧世生涯我最奢　온 세상에서 내가 가장 호사롭다네.[60]

58) 정구, 『한강집』권1, 詩, 「檜淵偶吟」.
59) 정구, 『한강집 별집』 권2, 雜著, 「檜淵新遷二十宜」. "遠隔城市, 近陪先壟. 後負丘陵, 前控池沼. 右接閭閻, 左臨澄潭. 蒼崖白石, 茂林豐草. 樵牧兩便, 採釣俱宜. 群山環擁, 兩水交流. 岡阜奇絶, 郊原平曠. 面陽背流, 冬溫夏涼. 濕宜禾稼, 衍合桑麻. 南村訪索, 西嶽尋眞."

한강은 1604년(선조 37) 회연의 옛터로 옮겨 1605년에 檜淵草堂을 재건하였다. 檜淵이라는 이름은 그림에서 보이듯 큰 노송나무[檜木]가 서있는 것에서 유래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봉비암 아래에서 대가천이 돌아나가면서 못이 형성되어 '回淵'과도 관계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6. 정선,<회연서원도>,1733~1735년, 개인



도3-3. 김상진,《무흘구곡도첩》
제2폭 <비봉암> 부분, 개인

회연서원은 한강 정구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하여 1622년(광해군 14) 창건하여 1627년 준공되었고, 1690년 사액되었다.[61] 서원 밖 百梅園에는 1668년 移建한 한강의 신도비가 서있고,[62] 외삼문 입구에 見道樓가 있고 그 안쪽에 持敬齋와 明義齋, 강당인 景晦堂 등이 있고, 내삼문 내에는 한강을 향사하는 鄕賢祠가 보인다.

<회연서원도>는 겸재 정선이 淸河縣監으로 재임한 1733년에서 1735년 사이에 눈이 쌓인 한겨울의 회연서원과 봉비암을 그린 것이다(도 6). 그림에서는 정구의 신도비가 그려지지 않았지만, 노송나무를 비롯하여 회연서원 내 건물이 더

60) 정구, 『寒岡集』卷1, 詩, 「題檜淵草堂」.
61) 『연려실기술 별집』 권4, 祀典典故, 「檜淵書院」.
62) 정구의 신도비는 申欽이 찬하고, 金世濂의 글씨로 새겨 1633년 성주 수륜면 창평산에 있던 정구의 묘지 부근에 세웠으나, 성주 금산리 인현산으로 이장하면서 1668년에 회연서원 경내로 옮겨 세웠다.

욱 상세하며, 얼어 있는 대가천 위를 가로지르는 石橋인 양정교가 선명하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양정교는 나무다리로 변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흘구곡도》 제1곡의 좌측하단에 갓을 쓴 선비가 나귀를 타고 지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도3-3).

회연서원과 봉비암 일대를 묘사한 한시는 李淳(1530~1606), 金沔(1541~1593), 徐思遠(1550~1615) 등이 남겼고, 정구 이후 崔璘(1597~1644), 呂孝思(1612~1671), 송시열, 이규진, 이만운, 정동박, 정위, 정각, 정내석, 정관영 등 53명의 문인과 후손들에 의해 지어졌다.[63]

제2곡은 성주군 수륜면 수성리의 한강대를 소재로 하였다. 한강대는 정구의 회연초당 북쪽에 있던 높고 편평한 암봉으로, 대가천을 따라 물가에 임해있다. 정구가 늘 여기서 휴식을 취하여 그 정상에는 '寒岡臺' 3자를 각자하고, 다음과 같이 「曉起偶吟」 1수를 각석하였다.

夜宿松間屋　솔숲 사이 집에서 잠자리 들고
晨興水上軒　물가 누각에서 새벽에 일어나니
濤聲前後壯　앞뒤에 우렁찬 물소리,
時向靜中聞　이따금 고요 속에 들려오누나.[64]

寒岡이라는 명칭은 원래 주자 모친의 묘가 있던 寒泉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자가 모친의 상을 당하여 한천의 정사에 거처하며 초하루와 보름마다 几筵에 제사하고 廬墓의 예를 지켰던 곳으로, 정구 역시 한천의 의미를 취하여 蒼坪山의 서쪽 기슭에 정사를 짓고 先塋을 돌보았다. 정구는 회연이 선영과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여 회연초당 동쪽에 초가 한 칸 규모로 望雲庵을 따로 지어 선영을 정성껏 돌보았다.[65] 이만운은 "武屹은 武夷의 구곡이며, 정사는 寒岡에 있었는데, 한강은 寒泉의 묘를 보살피기 위해 세운 초막이다."라고 하였다.[66] 1603년(선조 36) 3월 한강은 義興衛護軍을 그만두고 9월에 고향 성주로 돌아와 창평산의 寒岡臺 위에 夙夜齋를 지었고, 그 아래에 五蒼亭과 川上亭 등을 경영하였다.

---

63) 송시열도 회연서원에 모신 정구의 사당을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다. 『宋子大全』卷2, 詩, 「檜淵書院次趙復亨韻」.
64) 정구, 『한강집』권1, 詩, 「曉起偶吟」.
65) 『한강연보』권1, 「연보」 1605년(선조 38)조.
66) "武屹, 武夷之九曲也. 精舍之有寒岡, 寒泉之墳庵也." 『默軒集』卷7, 記, 「社倉書堂記」.

정동박은 제2곡의 제시에서 넓고 편평한 한강대 솟아 봉우리 이루고 절로 우뚝하다고 하였다. 그림에서는 한강대 아래로 계천이 돌아 흘러 장관을 이룬다. 주로 암산으로 이루어진 높은 대 중간에 작은 누각이 한 채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 이 누각은 한강대 위에 지은 숙야재로 추정된다.

제3곡은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에 있는 정구의 고향마을 언덕인 한강대에서 대가천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성주호를 지나 강줄기가 이어지는 물가에 솟은 船巖과 舞鶴亭을 소재로 하였다. 정동박은 제시의 제목을 "三曲舞鶴亭, 一名船巖"이라 기록하였다. 제3곡은 한강이 무이산에서 행해지던 오랜 장례 풍습이던 架壑船棺에서 유래한 높은 암벽에 걸린 壑船을 노래한 것을 정동박은 학이 머물던 정자와 선암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동박의 시에는 "우뚝 솟은 기암은 떠 있는 배 같고, 학을 탄 신선이 하늘로 오르내리는 듯. 묻노니 선인은 어디로 갔는가. 천년토록 닻줄을 푸른 산 앞에 매어두고서."라고 하여 무이구곡의 학선을 떠있는 배와 닻줄을 매어두었다는 표현으로 대신하였다. 그림에는 무학정은 보이지 않고 붉은 글씨로 지명만 기록하였으나, 현재는 선암 위에 정자를 세워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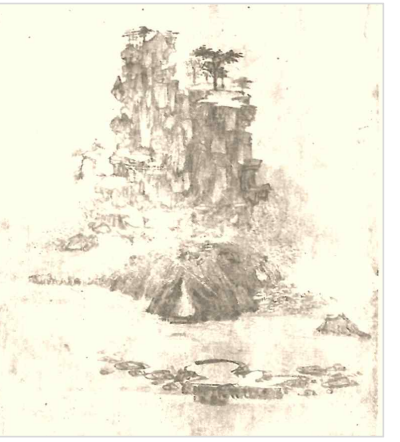
제4곡은 성주군 금수면 영천리에 있는 무학정에서 대여섯 물굽이를 돌아 오른 대가천 건너에 서있는 立巖과 喚仙島, 巢鶴峯을 소재로 하였다. 화면의 구도는 제3곡의 선암과 유사하지만, 30미터의 바위가 곧고 길게 솟은 수직 암벽이 특징이다. 암벽에는 '立巖'이라 각자하였다. 이는 한강이 「무이도가운」 제4곡에서 노래한 학소암, 운암, 선기암 등의 소재와 유사하다. 정동박은 제4곡 제시의 제목을 "四曲立巖, 傍有喚仙島"라고 하였다. 환선도는 높이 솟은 입암과 계곡을 사이에 둔 넓은 암반이다. 또한 그는 입암을 학이 내려앉은 화표주에 비유하였는데, 입암 옆에 소학봉이라 붉은 글씨로 적은 이유도 여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입암 뒤쪽으로 흘러내린 계곡은 정동박의 시에서처럼 환선도 앞에서 작은 못을 만들고 있다. 화면에서 입암은 마치 홀로 우뚝 서있는 바위처럼 묘사되었으나, 현장의 모습은 뒤의 넓은 바위산과 연결되었다.

제5곡은 성주군 금수면 영천리의 捨印巖을 소재로 하였다.[67] 입암을 뒤로 하고 대가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성주군 가천면과 김천 증산면의 경계에 걸린 은적

67) 사인암은 과거 벼슬한 사람이 아름다운 수석을 사랑하여 바위 아래 자리 잡고 살았기 때문에 '舍人巖'이라 하거나, 이곳이 바로 (세속의) 몸을 놓아버린다는 '捨身巖'이라 표기한다고 하였으나 1579년 9월 21일에 이곳을 찾은 한강은 이런 설을 모두 속되어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 정구, 『한강집』, 잡저, 「遊伽倻山錄」.



도3-4. 김상진,《무흘구곡도첩》제6폭 <捨印巖> 부분,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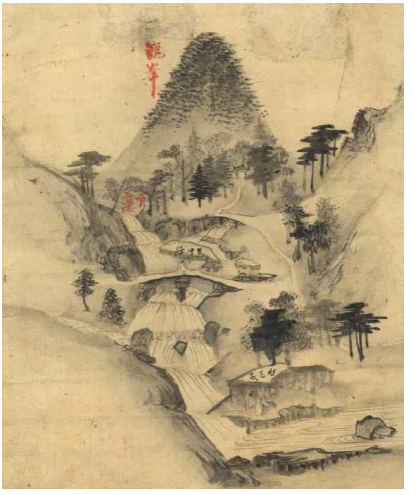


도6. 김상진,《무흘구곡도첩》제5폭 <사인암> 부분, 寒岡宗家舊藏

교가 있는데 다리 주변에는 깎아지른 기암괴석과 암반 위로 옥처럼 맑은 溪流가 흘러간다. 원래 '捨印巖'이라 새겨진 각석이 있었으나, 현재는 1990년대 국도 공사로 인해 바위가 훼손되어 자취를 찾기 어렵다.

정동박의 시 첫 소절에서 "바위 위 소나무 천년의 빛 변치 않으니 선조가 관직을 버린 마음 응당 알겠네(巖松不改千年色, 應識前人捨印心)"라고 하였고, 둘째 소절에서는 "관직을 버린 사람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산 정상에 아직 구름 머뭇거리는구나(捨印人今何處去, 山頭猶有未歸雲)"라고 하여 평생 관직이나 세속을 멀리한 한강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명이다. 舍人巖이라고도 표기하지만, 舍人은 조선 초 문하부의 內史舍人이나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4품 관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官印을 사용하는 관직을 버린다는 의미의 捨印巖이 한강 정구가 추구한 삶의 궤적과 더 가까운 명칭으로 간주된다. 화면에서도 암석으로 이루어진 단애에 붉은 글씨로 '捨印巖'이란 각자를 표시하였다(도3-4, 도6). 여기서는 다른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나귀와 시자를 거느린 선비가 사인암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림에서 사인암의 모습은 실물보다 더 높은 암봉으로 묘사되었다.

제6곡은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에 있는 玉流洞을 소재로 하였다. 사인암을 뒤로하고 올라가면 김천시 증산리이다. 수도산에서 북류한 계곡은 증산리를 거쳐 百川橋 부근에 이르러 대가천 본류에 합류하여 옥류



도3-5. 김상진,《무흘구곡도첩》제7폭 <옥류동> 부분, 개인



도7. 옥류동 계곡, 김천시 증산면 소재

동을 이룬다.[68] 溪流의 암반에는 '玉流洞'이라 각자하였다. 화면에는 甑峯에서 내려오는 큰 계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증봉 아래에는 雙溪寺의 일주문이 보이는데, 한강이 은퇴하여 유유자적하던 곳이다. 한강에게 수학했던 張顯光(1554~1637)도 이곳을 자주 왕래하였고, 쌍계사에서 약 10리 정도 거리에 '退雲亭'을 세웠다.[69]

물길은 噴玉瀑에서 쏟아져 내려 큰 암반으로 만든 百川橋를 지나 하류에 있는 넓은 너럭바위로 흐르는 물을 보며 시름을 날린다는 愁送臺 앞을 지난다. 정동박은 "눈앞에 유리처럼 맑은 세계 홀연히 펼쳐지니, 쉼 없이 흘러 청류옥이 절로 이어지네."라고 하여 흰 암반 위로 맑게 흐르는 계곡의 정경을 묘사하였다. 백석암에서 조금 내려오는 계곡 중간에는 홀로 지팡이를 들고 돌다리를 건너는 인물이 보인다.

제7곡은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에 있는 飛雪橋, 滿月潭, 觀瀾臺를 소재로 하였

68) 이 다리는 백천교로 "戊寅三月 雙溪寺法堂行路 熱石 四月 日訖"이라 각자하여 암반을 깎아 가설한 석교를 통해 쌍계사 법당으로 가는 길을 만든 것이 무인년 3월에서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은창, 「韓國儒家 傳統園林의 연구-유학자의 卜居와 九曲經營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연구』4,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8, p.284.

69) 李南珪, 『修堂集』권6, 「退雲亭記」.

다. 만월담은 옥류동을 지나 옥동천의 하상에 남아 있는 수직암벽 앞에 형성된 연못이다. 이곳에는 수도암이 위치해 있다. 비설교 조금 위쪽으로 무흘정사 서운암이 있다. 서운암 밑에는 비설교와 만월담이 있고, 만월담 우측 관란대에는 4명의 인물들이 함께 만월담을 바라보며 교유하고 있다. 만월담 위에는 自怡軒을 건축하고 山泉庵과 관란대를 조성하였다. 또한 관란대 위의 큰 소나무 뒤 지팡이를 든 한 노인이 고목에 의지하고 서 있다. 정동박의 시에서는 "달빛 가득한 차가운 못이 거울처럼 열렸는데, 누가 술을 들고서 높은 대에 오르는가."라고 하여 관란대 위의 소박한 酒宴을 묘사하고 있다.

제8곡은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에 있는 臥龍巖과 場巖을 소재로 하였다. 와룡암은 수도산에서 북류하여 옥동천의 맑은 계류가 너럭바위를 지나 굽이굽이 흘러내리는 곳으로, 한강이 생전에 노닐던 곳이다. 와룡암 위에 장암이 있는데, 바위 비탈이 깎아지른 듯 서 있고 반석이 평평하게 깔려 있다.[70]

한강은 1604년『와룡암지』를 지었는데, '臥龍'이란 명칭은 주희가 55세 때인 1184년에 廬山의 五劒峯 밑에 있는 지명인 臥龍을 취해 臥龍庵과 武侯祠를 지어 蜀漢의 승상 諸葛亮을 향사한 일에서 기원한다.[71] 또한 정구는 일생 동안 주자를 존경하여 주자의 도를 강론하거나 소요하던 장소까지도 상상하며 흠모하였다.

제9곡은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에 있는 龍湫와 修道山을 소재로 하였다. 와룡암에서 물줄기를 따라 가면 수도산에서 발원한 계류가 17미터 가량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바로 용추폭포이다. 화강암반이 수직절리를 따라 침식되면서 만들어져 용추폭포는 臼瀑이라고도 하였다.[72] 화면의 용추폭포 우측의 바위에는 2명의 선비가 모여 떨어지는 폭포를 바라보고 있다. 용추 아래에는 큰 沼가 형성되었고, 폭포는 다시 계곡 아래로 흘러간다. 원래는 인근에 폭포를 구경하던 정자인 翫瀑亭이 있었는데, 이는 정동박의 시에서 "폭포 구경하던 옛 정자 지금은 보이지 않고(玩瀑古亭今不見)"라고 하여 이러한 정황을 묘사하였다.

---

70)『寒岡言行錄』卷3. "循溪而上一里許, 有巖石, 橫亘水中, 狀如臥龍, 命曰臥龍巖. 又其上數里許, 有奇巖削立盤石平鋪, 名曰場巖. 場巖之上, 四五里許, 有懸瀑, 流瀉巖隙, 就其左傍平穩處, 誅茅除地, 命曰翫瀑亭, 欲創數椽, 而深邃幽險, 人不能守 而不暇爲也."

71)『朱子大全』卷79「臥龍菴記」.

72) 郭鍾錫,『俛宇集』卷7, 詩,「修道山臼瀑 此爲武屹第九曲, 而寒岡臺爲第一曲」.

V. 맺음말

한강 정구는 1604년 그가 62세 되던 해에 무흘로 들어가 精舍를 건립하고 1612년까지 그곳에서 강학과 학문에 정진하였다. 무흘정사는 구곡 중 만월담에 더욱 가까이에 위치하였다.

정구는 무흘정사에서 저술과 학문적인 결실을 보았다. 주자의 雲谷、武夷山、白鹿洞、晦庵 등지와 관련된 서문, 기문, 제영과 사적을 수집한『谷山洞庵志』와『武夷誌』를 엮어 2책으로 나누어 만들었으며,『臥龍巖志』,『洙泗言仁錄』등을 이 시기에 찬술하는 등 1612년까지 무흘정사에서 대부분 시간을 저술과 강학에 전념하였다. 또한 李湛이 소장했던《무이구곡도》중국본을 모사하여 소장하였고, 1606년 12월 안동의 부임지에서 만난 화가에게『무이지』에 중국본 화본을 모사해 넣게 하고 거기에 퇴계의 발문을 첨부하였다. 또한 정구가《무이구곡도》와 함께 <도산도>를 제작한 것도 주자에서 이황으로 이어진 道脈을 잘 보여준다.

무흘구곡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과 금수면, 그리고 김천시 증산면에 걸쳐 가야산 북서쪽에 위치한 修道山, 禿用山, 연봉산 등의 산세로 감싸 도는 낙동강의 지류에 형성되었다. 무흘구곡의 세부지명은 제1곡 鳳飛巖, 제2곡 한강대, 제3곡인 선암, 제4곡 입암, 제5곡 사인암, 제6곡 옥류동, 제7곡 만월담, 제8곡 와룡암, 제9곡 龍湫이다.

구곡의 명칭 중 舟巖(船巖), 立巖, 搯印巖 등은 정구가 정착하기 전부터 명명된 이름이었다. 寒岡臺는 정구가 1573년에 한강정사를 세우고 이곳에 정착하면서 명명한 것이고, 滿月潭과 臥龍巖은 1604년 무흘정사를 건립하고 이곳에 정착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玉流洞은 정구의 제자인 呂燦(1578~1646)의 아들 呂孝思(1612~1661)이 노래한 可隱八景 중 하나였다.

정구의 구곡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한강학단이 일정한 활동을 시작한 1633년 裵尙龍이 武屹山長이 되어 무흘정사를 36칸 규모로 확장하고 장서각을 새로 세우면서 비롯되었다. 한강의 6세손 정동박(1732~1792)은 1184년과 1604년 갑진년에 무이정사와 무흘정사가 지어졌고 1784년 갑진년에 무흘정사를 중건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때 앞서 나열된 명승에 龍湫를 추가하여 구곡의 지명

이 완성되었다. 정동박을 비롯한 한강학파는 주자의 무이구곡과 부합하도록 무흘구곡의 지명을 정하여 한강 정구가 주자의 학문과 도통을 계승했음을 드러내려 하였다. 만월담과 와룡암 사이에 위치한 무흘정사의 서운암은 구곡에 독립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한강 정구의 학문과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곳으로 독립적으로 그려졌다.

정구의 문인과 후손들의 요구로 화가 김상진이 1784년 그린 《무흘구곡도》에 이어 1785년 제작한 《무이구곡도》는 앞서 정구가 그랬듯이 주자와 이황, 그리고 정구로 이어지는 도통의 시각화를 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학맥의 정통성을 확보하게 한다. 이는 《무이구곡도》가 주자의 사상과 학문을 추종하는 후인들에게 그러하듯 《무흘구곡도》를 통해 한강의 학덕을 계승하고 성리의 도를 실천하는 장소적 상징성을 보여주려는 구곡도의 효용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자와 한강을 공경하는 정성을 보임과 동시에 구곡을 통해 얻어지는 仁智의 道를 즐기려는 목적도 컸다.

표 1. 정구의 武夷九曲 제시와 정동박의 武屹九曲 제시 비교

순서	정구 무이구곡의 주요 소재와 시	정동박의 무흘구곡의 주요 소재와 시
1	題詩石, 天柱峰, 仙機岩, 大隱屛峰, 仙船岩, 筒巖, 齊雲峯, 仙掌岩, 北廊岩, 天壺巖, 玉女峰, 鐵板嶂, 倦猿岩, 獅子岩, 幔亭峰, 小觀音石, 大觀音石, 三教峰, 仙跡臺, 九井岩, 鼓樓岩, 仙羊巖, 仙冠石	棲雲庵
	天下山誰最著靈 人間無似此幽淸 紫陽況復曾棲息 萬古長流道德聲 천하의 산 중 가장 저명한 영산은 어디인가. 인간 세상엔 이 [무이산]처럼 깊고 맑은 곳 없다네. 더욱이 주자가 일찍이 은둔하였으니, 도덕적 명성 만고에 전해온다네.	佳山麗水自鍾靈 百里烟霞曲曲淸 況復先賢棲息地 高樓聳出帶溪聲 아름답고 고운 산수 절로 영기 모았고 백리에 걸친 안개와 노을 굽이굽이 맑구나. 하물며 선현[정구]이 거처하던 곳임에야 우뚝 솟은 높은 누각엔 물소리 들린다네. 樓壓高臺地勢危 百靈昭列護占著 山光水色非堪美 翔鳳千年覽德輝 높은 대 위에 선 누각의 지세 위태로워 신령들 소열하여 점을 쳐 보호하니 산빛 물빛이 더욱 아름답지 않겠는가. 봉황이 천년의 덕이 빛나는 곳 발견하고 날아드네.
2	大王峯, 三姑石, 投龍洞, 契骨岩, 禪岩, 虎曼石, 大觀音石, 幔亭峰, 小觀音石	鳳飛巖, 檜淵書院
	一曲灘頭泛釣船 風絲繚繞夕陽川 誰知損盡人間念 唯執檀槳拂晩煙 일곡이라. 여울어귀에 낚싯배 띄우니, 석양빛 시내 위 실같은 바람 감도네. 누가 알겠는가. 인간 세상 잡념 다 버리고, 박달나무 삿대 잡고 저문 안개 젓는지.	一曲巖標可係船 源頭活潑自成川 巖邊鳳玄無消息 面首淸都隔暮烟 一曲이라. 바위 끝에 배를 매어 둘만 한데 솟아나는 수원 활발하여 절로 내 이루었네. 바위 가의 봉황은 멀리간 뒤로 소식 없는데 고개 돌려 하늘 보니 저녁연기에 가려있네. 奇巖削出壓淸溪 日轂初從檜院西 鳳玄千年何不返 孤梧疎竹綠陰低 깎아 낸듯한 기암절벽 맑은 시내 압도하고 나라님 보좌는 회연서원 서쪽으로부터 시작되었네. 봉황은 떠난 지 천년토록 돌아오지 않는가. 고독한 오동과 성근 대나무 그림자 낮게 드리웠네.

3	凌霄岩, 三峯, 靈巖, 玉女峯, 仙冠石, 粧鏡臺, 倦猿岩, 虎嘯岩, 馬首岩, 試釣石, 鐵板嶂	寒岡臺
	二曲佳妹化作峰 春花秋葉靚粧容 當年若使靈均識 添却離騷說一重 이곡이라. 미녀 봉우리로 화하여 봄꽃 가을단풍 고이 단장하니 저 옛날 초나라 굴원이 알았다면 『離騷經』을 한 편 더 지었으리.	二曲岡臺聳作峯 聳聳不改舊時容 瞻仰高山綠萬重 百年遺躅今猶在 二曲이라. 한강대 우뚝 솟아 봉우리 이루고 높고 높아 옛 모습 변함없으니, 백년 남긴 자취 지금도 여전히 있고, 높은 산 우러러 보니 만 겹으로 푸르구나. 臺上遊人水上鷗 層巖峯崒壓烟洲 先生德業將何倣 臺自峩峩水自流 누대 위엔 유람객 물 위에는 갈매기 험하고 가파른 층암은 안개 낀 모래톱 진압하네. 선생의 덕업 장차 어찌 본받으리. 臺는 절로 우뚝하고 물은 절로 흐르네.
4	石室, 仙羊岩, 仙館岩, 水樂石, 三杯石, 玉蟾, 車錢峯, 會仙岩, 上昇峯, 大藏岩, 小藏岩	舞鶴亭, 船巖
	三曲誰藏此壑船 夜無人負已千年大 川病涉知何限 用濟無由只自憐 삼곡이라. 누가 여기 壑船 두었던가. 천년토록 야밤에 지고 간 이 없었거니. 괴롭게 건너야할 큰 강 그 얼마일까. 건널 방도 없어 가련할 뿐이라네.	三曲桃源上釣船 亭留鶴去問幾年 欲知仙術郤由得 浮世人生却自憐 三曲이라. 도원을 낚싯배로 오르니 학 떠나고 정자만 남은 지 몇 해던가. 신선술 알고자 하나 무슨 수로 배우리 덧없는 인생살이 도리어 절로 가련하구나. 奇巖突兀似泛船 乘鶴仙人下上天 借問仙人何處去 千年繫纜碧山前 우뚝 솟은 기암은 떠 있는 배 같고 학을 탄 신선이 하늘로 오르내리는 듯. 묻노니 선인은 어디로 갔는가. 천년토록 닻줄을 푸른 산 앞에 매어두고서.
5	鶴巢岩, 仙機岩, 題詩石, 宴仙岩, 雲巖, 拜章岩	立巖, 喚仙島, 巢鶴峯
	四曲雲收百尺巖 巖頭花草帶風髮 箇中誰會淸如許 霽月天心影落潭사곡이라. 백척 바위에 구름 걷히니, 바위 머리 화초 바람결에 날리네. 그 중 맑기가 이와 같음을 누가 알까. 하늘에 맑은 달은 못 속에 그림자 드리웠네.	四曲溪邊矗矗巖 千年特立碧毯毯 誰知造物無窮意 故遣淸流作小潭 四曲이라. 시냇가에 곧게 솟아 있는 바위 천년토록 우뚝 서서 푸른 못에 일렁이네. 조물주의 무궁한 뜻 누가 알겠는가. 맑은 시내 보내어 작은 못을 만들었네. 華表當年化鶴還 名區從此自生穎 島中特立喚仙客 標致儼然誰可攀 학이 되어 돌아와 화표주에 내려앉던 그 해

		명승이 이로부터 절로 빼어났네. 섬 가운데 홀로 서서 선객을 부르니 엄연히 자취 드러내 뉘 잡을 수 있으리.
6	天柱峰, 大隱屛峰, 笋岩, 羅漢岩, 伏羲洞	捨印巖
	五曲淸潭幾許深　潭邊松竹自成林幅巾人坐高堂上　講說人心與道心오곡이라. 맑은 못 그 얼마나 깊은가, 못가의 송죽 절로 숲 이루었네. 복건 차림 은자 높은 당에 앉아 인심과 도심을 강설하네.	五曲靑山深復深 雲霏開處散瓊林 巖松不改千年色 應識前人捨印心 五曲이라. 청산이 깊고 깊은데 구름 걷힌 곳에 경림 펼쳐져 있네. 바위 위 소나무 천년의 빛 변치 않으니 선조가 관직을 버린 마음 응당 알겠네. 巉巖苔壁自生紋 歸客停驂日將曛 捨印人今何處去 山頭猶有未歸雲 가파른 바위 이끼 낀 벼랑 절로 문채 나서 나그네 말 멈추니 오늘도 저물어가네. 관직을 버린 사람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산 정상에 구름 아직 머뭇거리누나.
7	三層峯, 仙掌岩, 蒼屛峰	玉流洞, 甑峯, 噴玉瀑, 百川橋, 愁送臺
	六曲茅茨枕短灣 世紛遮隔幾重關 高人一去今何處　風月空餘萬古閑육곡이라. 초가집 여울가에 놓여, 세상 근심 막은 것 몇 겹이던가. 고인은 지금은 어디로 떠났는가. 풍월만 남아 만고토록 한적하네.	六曲淸流玉作灣 洞門深鎖自成關 山靈倘有慇懃意 借我月淵一域閑 六曲이라. 청류옥이 물굽이 만들어 동천 문 깊숙이 잠겨 절로 관문을 이루었네. 산신령이 은근한 뜻이 있어서인지 내게 빌려준 달빛 못 한곳에서 한가롭네. 瓊樹雲林步步穿 紫烟深鎖入諸天 眼前忽闢琉璃界 滾滾淸流玉自漣 구름 낀 경림을 한 걸음씩 나아가니 붉은 연무 자욱하게 드리워 하늘로 올라가네. 눈앞에 유리처럼 맑은 세계 홀연히 펼쳐지니 쉼 없이 흘러 청류옥이 절로 이어지네.
8	天壺岩, 鑄錢岩, 北廊岩	滿月潭, 觀瀾臺, 飛雪橋
	七曲層巒繞石灘 風光又是未曾看 山靈好事驚眠鶴 松露無端落面寒 칠곡이라. 높은 봉 여울물 감아 도니, 이런 풍광 일찍이 보지 못했네. 산신령 일 만들기 좋아하여 잠든 학을 깨우고, 솔 이슬 까닭 없이 얼굴에 차갑게 떨어지네.	七曲橋前瀉石灘 誰將風物靜中看 箇中自有源頭水 山月無心照作寒 七曲이라. 다리 앞에 돌 여울물 쏟아져 누가 이 풍물을 고요한 가운데 보겠는가. 그 가운데 절로 솟아나는 물 있어 산에 뜬 달 무심히 비추어 차게 하네. 月滿寒潭鏡面開 何人携酒上高臺

		溪山欲盡烟霞晩 無乃仙翁駕鶴來 달빛 가득한 차가운 못이 거울처럼 열렸는데 누가 술을 들고서 높은 대에 오르는가. 시내와 산엔 안개와 노을 물드니 신선이 학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닐는지.
9	鼓子岩, 人面石, 三敎峰, 鼓樓岩, 猫石	臥龍巖, 場巖
	八曲披襟眼益開 川流如去復如廻 煙雲花鳥渾成趣 不管遊人來不來팔곡이라. 흉금 터놓으니 시야 한층 트이고, 시내 흘러가려다 다시금 돌아든다. 안개구름과 화조 어우러져 정취이루고, 노니는 사람 오든 말든 개의치 않네.	八曲山如畵幛開 洛花流水共縈廻 天公不識龍潛意 恒作風雷吼洞來 八曲이라. 산들이 그림 병풍같이 펼쳐지고 떨어진 꽃잎 흐르는 물과 함께 빙빙 도네. 천공이 용이 물속에 잠긴 뜻을 알지 못하여 늘 바람 일고 우레 울려 동천에 들려오네. 百年龍臥洞天深 世外氣埃不敢侵 借問何時能起汝 謾成風雨晝常陰 용이 백년토록 동천 깊이 누워 세상 밖 먼지 감히 범접하지 못하네. 묻노니 어느 때에 그대 일으킬 수 있을까 부질없는 비바람 일어 낮에도 그늘 드리네.
10	齊雲峯, 鍾模石, 毛竹洞, 井岩, 馬月岩	龍湫, 修道山
	九曲回頭更喟然 我心非爲好山川 源頭自有難言妙 捨此何須問別天구곡이라. 고개 돌려 또 탄식하니 내 마음은 산천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거늘. 샘물 근원에서 형언 못할 묘리 있으니, 이것을 버리고 어찌 별천지 찾겠는가.	九曲龍湫却肅然 飛湍百尺盡奔天 世人不識龍無德 惟事禱龍不禱天 九曲이라. 용추폭포 되레 숙연하기만 한데, 백척 폭포수는 모두 하늘로 흩날리네. 세상 사람들 용에게 덕 없음을 알지 못하여, 용에게만 빌고 하늘에는 기도하지 않네. 一天雷雨暮山東 飛瀑從來石竇中 玩瀑古亭今不見 何來孤衲坐松風 온하늘 천둥치고 비 내려 산 동쪽에 저물고 날리는 폭포수 바위 구멍에서 쏟아지네. 폭포 구경하던 옛 정자 지금은 보이지 않고 어디서 온 외로운 승려 솔바람 밑에 앉았네.

참고문헌

金景泌, 『聞韶世稿』卷24, 李萬運, 『默軒文集』卷7, 成涉, 『僑窩文稿』 外編, 宋履錫, 『南村集』권2, 李肯翊, 『燃藜室記述 別集』권4, 李萬運, 『默軒集』권11, 張顯光, 『旅軒集』卷13, 鄭逑, 『寒岡集』권10; 『寒岡集 續集』권4; 『寒岡集 別集』권2 鄭宗鎬, 『磊軒集』卷6, 蔡濟恭, 『樊巖集』권51, 『寒岡言行錄』卷3.

『전통명승 동천구곡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7.

강신애, 「조선시대 무이구곡도의 연원과 특징」, 『미술사학연구』254, 한국미술사학회, 2007.

權延雄, 「≪檜淵及門諸賢錄≫ 小考」, 『한국의 철학』13, 경북대 퇴계연구소, 1985.

권진호, 「한강 정구의 정주학 수용양상」, 『남명학연구』24, 남명학회, 2007.

金武鎭, 「朝鮮時代 星州의 敎育體制」, 『한국학논집』24,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97.

김성윤, 「조선시대 星州圈 유림층의 동향」, 『역사와 경계』59, 경남사학회, 2006.

김학수, 「한강 정구의 학문 연원」, 『한국학논집』48,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2012.

_____,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등장과 전개-문인록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40,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2010.

_____, 「17세기 여헌학파 형성과 학문적 성격의 재검토」, 『한국인물사연구』13, 한국인물사연구소, 2010.

_____, 「鄭逑(1543~1620) 文學의 創作現場과 遺跡에 대한 연구」,『대동한문학』29, 대동한문학회, 2008.

김형수, 「임란 전후 寒岡學團의 활동과 성주지역 사족사회의 동향」, 『민족문화연구』7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우경섭, 「한강 정구의 한문연원과 도통적 위상」, 『역사문화논총』4, 역사문화연구소, 2008.

윤진영, 「조선시대 구곡도의 수용과 전개」, 『미술사학연구』217.218, 한국미술사학회, 1998.

_____, 「한강 정구의 유거 공간과 《무흘구곡도》」, 『정신문화연구』3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이상균, 「조선시대 사대부의 산수유관과 구곡유람」, 『영남학』2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이상원, 「조선후기 <高山九曲歌> 수용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이은창, 「韓國儒家 傳統園林의 연구-유학자의 卜居와 九曲經營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연구』4, 효성여자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988.
전병철, 「明代 楊亘의 『武夷志』가 조선에 끼친 영향」, 『한문학논집』, 근역한문학회, 2015.
정우락, 「산중도서관 '무흘정사 장서각'의 장서 성격과 의미」, 『영남학』20,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1.
_____, 「성주 및 김천 지역의 구곡문화와 무흘구곡」, 『퇴계학과 유교문화』54,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4.
정우락, 「한강 정구의 무흘 경영과 무흘구곡 정착과정」, 『한국학논집』48,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2012.
_____, 「한강 정구의 무흘정사 건립과 저술활동」, 『남명학연구』28, 남명학회, 2009.
_____, 「한강 정구의 사물인식방법과 세계지향」, 『한국사상과 문화』49,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조규희, 「조선 유학의 '道統'의식과 九曲圖」, 『역사와 경계』61, 경남사학회, 2006.
최연식, 「조선시대 도통 확립의 계보학-권력 정치적 시각」, 『한국정치학회보』45(4), 한국정치학회, 2011.
최종현, 「朱子의 武夷九曲圖」, 『역사와 실학』, 역사실학회, 2000.

Muheul Gugok-do, Visualization of Jeong Gu' Confucian Thought

Jeong, Eun-joo*

In 1604, when Jeong Gu was 62 years old, he built a school and advanced on his studies there until 1612. Muheul Jeongsa was located closer to Manwoldam among the Gugok landscapes. Jeong Gu has gained literary and academic fruits in Muheul Jeongsa. He had a copy of "Mui Gugok-do", which was owned by Yi Sim, and he met an artist at the Andong in December 1606 asked to copy a Chinese version of the painting and attached a writing of Yi Hwang in Muiji. In addition, the fact that Jeong Gu had painted "Dosan-do" with "Mui Gugok-do" shows the flow of Tao that led from Zhu Xi to Yi Hwang.

Muheul Gugok was formed in the tributaries of the Nakdong River, which surrounded by the Mt.Sudo, Mt.Yeonbong and Mt.Dogyong, located northwest of Mt.Gaya, across Suryun and Geumsu-myeon, Seongju County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and Jeungsan-myeon of Gimcheon City. The detailed names are the first song "Bibongam," the second song "Hangangdae," the third song "Seonam," the fourth "Ibam," the fifth song "Sainam," the sixth song "Ongryudong," the seventh song "Manwoldam", the eighth song "Waryongam," and the ninth song "Yongchu."

The discussion of the Muheul Gugok took shape in 1633 when the School of Jeong Gu began its official activities, expanding Muheul

* Senior Researcher at Jangseogak Archives i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jeje@aks.ac.kr

Jeongsa and establishing a new Jangseogak. Jeong Dong-bak, a descendant of the Jeong Gu, gave meaning to the fact that Muheul jeongsa was rebuilt in 1784 of Gapjin year, as Muyi Jeongsa in 1184 and Muheul Jeongsa in 1604. Jeong Dong-bak and other scholars of Geong Gu tried to reveal that he succeeded the studies and practices of Zhu Xi by selecting Muheul Gugok correspond to Muyi Gugok.

The "Mui Gugok-do", which was painted in 1785 by the painter Kim Sang-jin at the request of the scholars and descendants of Jeong-gu. It shows the legitimacy of his academic connections by showing genealogy of the confucian thought that leads to Zhu Xi, Yi Hwang and Jeong-gu. As Muyi Gugok-do follows the ideas and studies of Zhu Xi, this can be seen the utility of Gugokdo to show the place-based symbolism of inheriting the studies and practicing the moral principles of Jeong Gu.

Key words : Jeong-gu, Muheul Jeongsa, Mui Gugok-do, Muheul Gugok-do, Hoeyeon seowon

이 논문은 2020년 05월 7일 투고 완료되어
2020년 06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06월 22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http://dx.doi.org/10.30594/kss.2020.6.10.8 201

서원의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

-追享禮・致祭禮・賜額禮를 중심으로-

채광수**

Ⅰ. 머리말
Ⅱ. 追享禮 -道淵書院을 중심으로
Ⅲ. 致祭禮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Ⅳ. 賜額禮 -玉洞・옥산서원을 중심으로
Ⅴ. 맺음말

<국문요약>

이글은 서원의 특수 의례의 종류와 그 구체적 거행 과정을 관련 자료가 현전하는 개별 서원의 실제적 사례를 통해 검토한 것이다. 조선시대 서원 의례는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정기적 의례와 부정기적 특수 의례가 존재했다. 서원 입장에서는 특수 의례가 정기 의례보다 더 큰 행사임은 물론 서원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위였다.

본론에서 살펴본 추향례, 치제례, 사액례의 특징적인 면모를 선별해 보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추향례는 기존 서원에 인물을 추가하는 제향 의례이다. 조선시대 서원은 한 사람을 모시는 독향 형태의 서원보다 합향 형태의 서원이 더 많이 존재한다. 그런 만큼 추향례의 빈도가 높았지만, 입향례 못지않게 영예롭게 인식을 했다. 준비과정에서 다수의 인사에게 예식문자를 청탁한 점과 행사 날짜를 탄력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취했다. 봉안 의절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고, 위패에 관직 기재 여부 역시 그 기준이 일정치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집사분정, 진설, 봉안식 등은 일반 향사와 다르지 않았다. 한편 영정과 함께 봉안하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치제례는 서원의 의례 중에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도산서원은 최다 치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corhkdtn911@ynu.ac.kr

의 대상이었던 만큼 치제례를 규명할 수 있는 좋은 實例였다. 치제례는 임금의 명령을 위임받아 파견된 예관을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 치제관이 잠시 머물며 香祝을 봉안하는 천막 설치, 의절에 대한 가부 등 행사 전반에 대해 지시를 받았다. 예식 가운데 향사와 크게 차이나는 것은 헌관과 진설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헌관은 오로지 치제관 1명이 전담을 했는데 원위에는 세잔의 술을 올리고, 종위에는 단잔만 올렸다. 또 음식 가지 수는 더 많으며, 떡류의 비중이 높았다.

셋째, 사액례는 임금이 국가로부터 정해준 액호를 서원에 인도하는 연액, 게시하는 게액 의례를 말한다. 조선시대 사액의 명확한 규정은 없고, 임금 의지에 달려 있었는데 17세 중후반 이후부터는 사액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먼저 편액 제작용 판자는 서원에서 준비해 소속 관아에 보냈다. 행사 당일 강당에 편액을 게시한 시점부터 치제례가 시작이 되는데 사당이 아닌 강당 아래에 위판을 모시고 거행이 되는 점이 일반 치제례와 대별되는 점이다. 사액 즉 국가 공인 서원이 되면 향촌사회에서 그 위상의 변화를 수반했다.

키워드 : 서원, 특수 의례, 추향례, 치제례, 사액례

Ⅰ. 머리말

조선시대 서원은 '尊賢養士' 곧 의례와 교육이 핵심 기능이다. 특히 향교나 중국과 일본 유학시설들이 공자를 모시는 것과 달리 조선의 성리학자를 향사하는 것이 한국 서원의 특징 중 하나이다. 그래서 서원 의례는 다른 기능에 비해 매우 중요하여 사당이라는 특정 공간이 반드시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서원에는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의례가 있었다. 전자에는 춘추 제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하는 삭망례, 정월 초5일이나 6일에 행하는 정알례가 대표적이다. 후자는 서원의 사정에 따라 설행되는 의례를 말한다. 곧 추가 제향자를 사당에 봉안하는 추향례, 서원 건물 수리 시 위패를 옮겨 거행하는 이안제와 환안제, 재난 때 올리는 위안제, 새 위패 봉안 및 제외할 때 올리는 예성제, 사액 받고 올리는 사액례, 국가에서 제관을 보내 치제하는 치제례, 제향자의 영정을 봉안하는 봉안례 등 여러 유형의 특수 의례가 존재했다.[1)]

그 동안 서원의 정기적 의례에 대해서는 제례의 일반론, 정립과 전개 그리고 변화에 대해 몇몇 연구들이 이루어졌다.[2)] 하지만 부정기적인 의례에 대해서는

1) 윤희면, 「서원의 제례기능과 위차문제」『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p.308.

보고서[3] 또는 서원 논고의 일부로 취급되어 소략한 면이 많았다. 또한 기존 서원의 기능적인 면을 연구하는데 있어 주로 교육 기능에 초점을 맞춰 진행이 된 반면 의례는 그에 상응하는 연구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는 특수 의례에 대한 자료의 파편성과 이 분야에 대한 관심 부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원 입장에서 보면 특수 의례가 정기 제례보다 더 큰 행사임은 물론 서원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위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특수 의례의 종류와 그 구체적 거행 과정을 관련 자료가 현전하는 개별 서원의 실제적 사례를 통해 검증해보려 한다. 다만 서원 모든 특수 의례를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자료가 현전하는 도연서원의 추향례, 도산서원 치제례, 옥동·옥산서원 사액례를 중심으로 검토하려 한다. 먼저 서원 자체에서 주최한 추향례를 먼저 살펴본 다음 국가 命에 의해 개최한 치제례와 사액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나머지 특수 의례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나라 서원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 분야 연구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Ⅱ. 추향례 -도연서원을 중심으로

서원의 향례는 퇴계에 의해 정립이 되었다. 퇴계는 풍기군수로 재직하던 1549년(명종 4) 10월 백운동서원 청액 전에 『春秋享圖』와 『묘제홀기』를 제정하여 서원 향례의 표준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서원 향례의 모범이 되었고, 대다수의 서원은 이를 기초로 삼아 준용하였다.

---

2) 서원 향사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과 도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논문 : 권삼문, 「향사의 역사와 구조」『역사민속학』 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 한재훈, 「퇴계의 書院享祀禮定礎에 대한 고찰-백운동서원향사례 수정을 중심으로-」『퇴계학과 유교문화』 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 김미영, 「서원 향사享祀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국학연구』 22, 한국국학진흥원, 2013. ; 한재훈, 「조선시대 서원향사례 비교연구 -9대서원 향사의절을 중심으로」『퇴계학논집』 20, 퇴계학연구원, 2017.
- ○도록 : 안동민속박물관, 『安東의 書院 享祀』, 2009.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서원향사-노강·돈암·흥암·대로사·무성·필암·남계·도동·병산·옥산·자운·파산·소수·도산·우저·심곡서원』, 2012~2018.

3) 달성군·달성문화재단, 「도동서원 사액봉행 학술연구」『道, 東에서 꽃피다』, 2013.

서원 향사의 절차는 크게 '取土 ⇨ 분정 ⇨ 行祭 ⇨ 당회' 순으로 진행이 된다. 향교의 釋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구조이다. 이를 좀 더 상세히 개관해 보자.[4] 먼저 향사를 개최하는 서원에서 校院과 개인 등에게 통문·회문·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 향사 사실을 알린다. 통보를 받은 인사들은 향사 전날 서원에 도착해서 시도기에 이름을 기재한다. 이어 다음 의례에서의 소임을 결정하는 분정이 실시되는데 통상적으로 나이와 명망이 고려되었다. 이중 헌관, 대축, 집례는 '5집사'라 하여 아무나 담당할 수 없는 중책이기 때문에 선임에 신중을 기했다. 그래서 서원에 현전하는 집사록에도 이들의 이름이 등재 되는 것이다.

분정이 끝나면 여러 집사들은 근신하며 부정 타지 않도록 재계를 하고 예행연습을 병행하였다. 이어 희생을 검수하는 省牲儀는 홀기에 따라 헌관이 적합여부를 판단했다. 희생의 대상물은 돼지였다. 소수서원의 경우 당초 돼지였으나 퇴계에 의해 닭으로 변경 되었다가 어느 시점에 너무 간소하다는 여론 때문에 복구가 되었다. 진설은 진설도에 따라 유사와 집사들만 참석해 제물을 제기에 담는다. 그때 제물은 쌀·조·4邊·4豆·돼지이다. 진설 뒤 모든 집사들은 의관을 정제한 뒤 사당에 모인 가운데 축문을 작성하고서 헌관들에게 확인을 받는다.

세 번째 행제는 홀기에 의거 진행하고 마무리 되면 음복개좌 시간을 가진다. 음복 시에도 헌관은 상석에 앉고 특별 예우를 받았다. 그 후 마지막으로 향사를 위해 헌관을 선임하고, 망기를 작성하는 출문당회로 일단락이 된다.

영남지역 69개소 사액 院祠 가운데 사우를 제외한 순수 서원은 60개소로 파악이 되었다. 60개소 제향처를 보면 독향처는 17개소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합향처 형태였다.[5] 이 수치는 추가 제향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추향은 국가의 서원 첩설 금령에도 저촉되지 않거니와 신설에 비교해 비용 부담이 낮아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선택되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인, 후손, 향현, 학통, 문중, 공적자 등이 추향의 대상이긴 하나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서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기제들이 작동되었다. 이를테면 함양 남계서원의 정온, 永川 임고서원 황보인, 순흥 소수서원 주세붕 추향 등에서 어렵지 않게 산견된다.

도산·도동서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추향도 입향 못지않게 대단히 영예롭게 인식을 했다. 그래서 추향 과정은 당초 서원을 건립하고 봉안이 진행되는 과

4) 이에 대해서는 권삼문, 앞의 논문(2001)을 참조하여 정리 하였다.

5) 금호[허조], 덕곡[이황], 도잠[조호익], 봉람[이황], 삼계[권벌], 西礪[김상헌], 서계[오건], 송담[백수회], 신산[조식], 역동[우탁], 오산[길재], 옥산[이언적], 용산[최진립], 용암[조식], 이산[이황], 화암[박소], 흥암[송준길].

정과 비해도 그 위용이나 규모, 소요 시간 등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추향일기가 현전하는 안동 도연서원을 통해 그 일단을 확인할 수가 있다.

도연서원은 숭정처사를 자칭한 金是榲[6]을 모시는 서원이다. 김시온은 병자호란 후 벼슬을 단념하고, 와룡산 아래 도연폭포 근처에 초당을 지어 40여 년간 은거하며 절의를 지킨 인물이다. 그는 대외적으로 영남의 종장으로 위상을 가졌고, 대내적으로는 의성김씨 가학의 적통 계승자로 평가를 받는다.[7] 서원 창건은 1703년(숙종 29) 1차 시도가 있었으나 진행 중 무산이 되었고, 1819년(순조 19) 무렵 의성김씨와 전주류씨 문중이 그의 유풍이 남은 곳에 도연이라는 자호를 취해 건립이 되었다.

그로부터 16년 뒤 1834년(순조 34) 김시온의 문인이자 족손인 金學培[8]의 추향 논의가 岐陽書堂에서 발의되었다. 기양서당은 전주류씨 수곡파의 대표적인 가학 공간이며, 구심처로 기능한 것으로 미루어 앞서 창건 때와 주도세력이 동일함을 암시한다. 이 시기 양 문중의 적극적인 공조는 다름 아닌 병호시비 격화에 따른 상호 결속의 일환에서 모색된 사업이었다.

먼저 추향의 준비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9]

<표 1> 추향 준비 과정

연 대	내 용
1835년(헌종 1) 4월 1일	○ 호계서원에서 향회 개최 결정.
4월 4일	○ 의성김씨 문중의 松石齋舍에서 100여명 齋會해 추향 논의 확정.
5월 7일	○ 호계서원에서 龜溪·泗濱·周溪서원 원임 등 40여명 유생 참가해 향회 개최.
5월 8일	○ 공사원 李海鷹과 金驥壽, 도집례 류치명 등 선출. ○ 國葬 감안 정확한 날짜 차후 결정.

6) 김시온(1598~1669) : 본관 의성. 자 以承. 호 陶淵·瓢隱. 학봉 김성일이 종조부이다.
7) 정순우, 「서원의 건립과 문중 연대」『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p.116.
8) 김학배(1628~1673) : 본관 의성. 자 天休. 호 錦翁. 김시온의 문인으로 1663년 문과에 급제한 뒤 예조좌랑 등을 역임했다. 스승 사후 유고 정리, 언행록 찬술, 허목에게 묘갈명 수령 등 현양사업 전반을 주도하였다.
9) 이하는 한국국학진흥원 편, 「표은 김시온 도연서원 추향시 일기」『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2007를 참조하여 정리·서술 하였기 때문에 출처는 생략한다. 권오영, 「19세기 초 安東儒林의 儒會와 그 活動」『한국중세사논총 -이수건교수 정년기념』, 논총간행위원회, 2000 에도 김학배의 추향 과정이 자세히 서술 되어있어 참조가 되었다.

1836년(헌종 2) 2월, 4월	○ 영양 영산서원 통문 발의, 도판 선출.
1838년 (헌종 4) 1월	○ 문중에서 3개월 내 추향 거행 결의.
2월 1일	○ 도유사, 재유사 선출.
2월 6일	○ 운곡서당에서 문중 定會 : 집사 분정, 문중 내 자금 100緡 취합.
2월 15일	○ 洞主 李秉遠에게 고유문과 봉안문 청탁, 위판과 상탁 제작 의뢰.
3월 2일	○ 향사일 3월 25일로 확정.
3월 3일	○ 류정문에게 고유문과 봉안문 청탁.
3월 18일	○ 류치명에게 고유문과 봉안문 청탁.
3월 19일	○ 위판, 상탁, 제기 등 물품 수령
3월 21일	○ 가건물 11채 설치, 서원과 각 문중 부조와 편지 당도. ○ 예식문자 결정.

1834년 추향을 결의했음에도 전염병과 연이은 순조의 국상 여파로 원만히 진행이 되지 못했다. 이듬해 향회 개최 및 공사원 선출 등 일부의 진척이 보였으나 다시 중단 되었다가 1838년(헌종 4)에 들어 본격적인 착수에 돌입한다. 준비과정에서 지적할 대목은 다수의 인사에게 예식문자를 청탁하는 점과 추향 날짜의 선택 배경이다. 앞의 부분은 2월 15일 류치명에게 문자를 청하면서 “이런 글들은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널리 일러 이러한 사람들에게 부탁하였다가 일을 할 시기에 가서 여러 사람들의 글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3명에게 예식문자를 청했다. 그리고 3월 25일로 추향일을 정한 것은 상정일이 국기일과 겹쳐 불가피하게 하정에 봉행하기 때문에, 주향 · 추향자에게 동시에 향사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손님 접대를 위해 임시건물 11채와 남북 2곳의 時到所가 설치되고, 담당 유사를 배정한 점도 자못 흥미롭다. 이런 기획은 창건 당시 행했던 전례를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본 장에서 주목하는 추향례의 구체적 진행 상황을 쫓아보자. 아울러 창건 당시 입향례의 상세한 기록이 있어 차이점도 짚어보려 한다. 행사 준비를 마친 3월 22일 저녁 900여명의 사람이 시도소를 찾았고, 시도소에서는 引標를 붙여 가건물에 숙식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밤에는 위패 봉안 의절이 논의 되었다. 원장은 예식에 대해 “일정하게 정해진 법칙은 없다. 보통 하루 전에 위패에 題主를 하여 강당에 모시고, 그 다음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받들고 사당 안에 들어가 진설하고 행한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위패에 제주를 했으면

즉시 사당에 모셔야 하는데 강당에 하루를 두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길일을 택해 사당에 모시는 뜻에 어긋나며, 하루 안에 위패에 제주 후 바로 향사하는 것은 너무 박하다는 이유로 원안대로 결정이 난다. 그 전날에 題板을 실시한 것도 논거가 되었다.[10]

이어서 위패에 관직의 기재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반대 측에서는 元位의 위패에 관직을 미 기재한 사실을 거론했고, 찬성 측에서는 동일한 예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연전에 김시온 봉안 때도 위패에 '贈執義' 기재 여부가 대두된 바 있다. 그러나 숭정절의가 증직의 명분이므로 관직명이 아닌 '숭정처사'로 쓴 것이었다.[11] 이런 사정에 정통했던 류정문이 찬성하는 주장을 내놓자 류치명도 여기에 동조를 한 것이었다. 이는 부친 柳範休가 도연서원 창건을 주재한 인물이며, 그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에서 나온 찬성 발언이었다. 서원의 위패는 대체로 正位와 配位는 '관직 · 시호 · 號 · 성씨 · 선생'이지만, 종향위는 대개 부자 · 사제지간이어서 '號 · 성씨 · 公'으로 쓰는 것이 관례였다.[12]

김학배가 제자임에도 위패에 관직을 기재한 것은 각 서원에 따라 그 기준이 일정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튼 세세한 부분까지 의논하는 위패의 문자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다음날 오전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도회를 열어 70여명의 집사 분정을 마쳤다. 분정 후 간식을 제공했는데 인파가 많아 접대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오후에는 강당에서 위패을 題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李鎭華 · 李彙鄰 · 金羲裕 3명이 나와 각각 필법을 시험했고, 이중 이진화의 것이 채택 되었다. 위패는 강당 북쪽 벽 아래 모셔두고, 두 겹의 병풍으로 둘러 보관했다. 저녁에는 원장이 사당 안에 들어가 류정문이 쓴 축문을 읽었다.[13] 다음 진설관이 원위에 먼저 진설한 다음 동쪽 아래 추향하는 자리[14]에 위패는 없지만 탁자를 설치해 진설해 두었다. 위패 봉안 때 진설이 어렵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었다. 그날 밤에 도집례 류치명의 홀기 개정이 있었다. 반면 창건 때는 오전에 사당에 모여

10) 창건 당시 예식은 모두 泗濱書院[享 김진, 김극일 · 김수일 · 김명일 · 김성일 · 김복일]의 式例에 의거하였다.
11) 권오영, 앞의 논문(2000), p.818.
12) 이수환, 『도동서원 -道, 東에서 꽃피다』, 민속원, 2019, p.169.
13) 위패를 題할 때처럼 대축 집사가 나와 축문을 썼다. 류정문의 봉안문은 『壽靜齋集』 권9, 「祝文-陶淵景節祠追享時奉安文」.
14) 일기에는 配位라 기재되어 있으나 방향이 동쪽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종향이 정확한 표현이다.

본손 1명을 제위판으로 선임했고, 위판도 사당에 보관을 했었다.[15]

오후에 진행된 제판과 진설의 자세한 상황도 언급이 되어있다. 원장은 章服·집례는 齊服·齋席은 복건을 갖추고, '제위판 ⇨ 원장 ⇨ 도집례 ⇨ 집례·봉위판 ⇨ 본손' 순으로 사당에 들어갔다. 원장과 도집례는 북향으로, 집례는 남향으로 앉았다. 아헌관이 탁자 앞 왼쪽에 앉아 분향을 하고, 나머지 유사는 좌우에 자리하였다. 본손 金羲壽가 서향으로 앉아 위패에 題하자, 집례가 탁자 위에 봉안하고 도집례 앞에서 봉안문을 썼다. 원장 이하가 퇴장한 다음 진설 유사들이 들어가 진설을 마쳤다. 여러 집사들이 목욕하고 예행연습을 병행했다.

봉안식 당일 원장은 일찍 기상해 촛불을 밝히고 새벽 5시에 북을 쳐 제 집사들을 불러 위패 봉안 의식을 거행하였다. 집사들이 한꺼번에 설 수 없어 좌우로서 집례를 지켜보았고, 집례를 마친 뒤에도 아침까지 위패에 배알하는 행렬이 이어졌다. 봉안식은 류치명이 개정한 홀기에 의거해 진행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당대 상식으로 통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관련 제반 비용은 모두 470緡이 지출이 되었다. 그 뒤 서원에서는 김시온의 아들 김방걸의 추향 논의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영정이 함께 봉안되는 사례가 있다. 서원의 영정례는 크게 강당에 안치해서 고유하는 방식과, 사당에 바로 봉안하는 두 번의 예식이 있었던 것 같다. 1799년(정조 23) 소수서원에 채제공의 영정을 모실 때가 전자에 해당한다.[16] 먼저 강당 직방재에 펼쳐두고 원장이 세 번 향을 피워 부복하고 나면, 고유문을 낭독한다. 이어 唱笏이 興拜를 외치면 전원 再拜를 행했다. 그 다음 화상 감실에 보관하는 기존 영정을 모두 걸어두고, 마지막에 전원 四拜 행위만 제외하면 앞과 동일하였다. 영정은 임시 장소인 소수서원 보다 적합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안동 도연서원[享 정구·허목]으로 이전하였다.

후자의 구체적 모습은 1815년(순조 15) 4월 성주 노강서원[17] 송환기 추향에서 잘 드러난다.[18] 행사에 앞서 전날 저녁에 미리 진설하고 위패의 위치를 옮겨 봉안해 두었다. 새벽에 예정대로 시작되어 우선 원위에 술을 올리고, 고유문을 읽은 뒤 배위에도 차례로 봉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새 위패에 술을 올리고 봉안

15) 권오영, 앞의 논문(2000), p.819.
16) 영남문헌연구소 편, 「번암 채제공 영정」『소수서원지』, 2007, pp.399~402.
17) 조선시대 성주 1712년(숙종 38) 송시열이을 주향자로 건립된 노론계 서원이다. 이후 권상하·한원진·윤봉구·송환기 추향이 있었다.
18) 한국국학진흥원 편, 「성담 송환기 노강서원 추배시 일기」, 앞의 책(2007) 참조.

문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Ⅲ. 치제례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치제란 국가를 위해 죽은 사람에게 임금이 제문과 제물을 보내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신라시대 때부터 확인되는 의례로[19] 조선시대에는 大·中·小祀 국가 제례를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찾아진다.

서원에서의 치제는 소수서원에 宣額 치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서원 치제는 기본적으로 조정의 특별 허가 즉 임금의 의지에 따라 좌우 되었다. 이를테면 선액을 위시해 도통 관련 大賢을 모신 서원, 양란과 무신난 등 충절 인사를 봉향하는 충절인 사당, 위상이 높은 인물의 추향, 능행 때 연로에 위치한 원사, 특정 인물의 생일 기념[20] 등 임금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미사액 서원에도 치제가 이루어진 것에서 재차 확인이 된다. 이는 1785년(정조 9) 성주 청천서원의 경우 청액소가 올라오자 정조는 사액을 반려하고 치제로 대신하였다. 치제의 명분은 정조가 세손 시절 김우옹이 지은 『속강목』을 교정하고, 경연에 進講한 경험이 그 이유였다.[21]

서원 치제 가운데 가장 잦았던 선액을 논외로 하면 선조 대부터 고종 대까지 주로 중국인과 충절·절의자 제향 사당에 치제가 집중되어 있다. 그 외 서원은 약 20여 개소 내외임을 실록에서 확인되었고,[22] 서원으로는 도산서원이, 제향자로는 송시열이 최다 치제의 대상이었다.

서원 치제가 본격화 된 시기는 영·정조 연간이다. 이 시기는 사회개혁사상의 진보적 흐름과 기존 양반 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방향이 병존하는 양상이 전개된 시기로, 서원의 치제는 바로 존명의리와 예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취해진 조치임과 동시에[23] 학문의 진흥과 탕평정책의 성공을 위해 정치적으로 자주

19)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제8 신문왕 7년 4월」.
20) 1787년 정조는 송시열 생년 3주갑을 맞아 여주의 대로사에 치제를 하였다. 『정조실록』 권24, 정조 11년 11월 9일.
21) 『정조실록』 권19, 정조 9년 2월 10일.
22) 실록에 수록된 선액을 제외한 치제 서원은 아래와 같으며, ( )는 치제의 횟수이다. 화양(2), 四忠(3), 도산(4), 도봉(2), 옥산(2), 소현(3), 자운(2), 파산(1), 동락(1), 청천(1), 대로사(2), 龍谷(1), 仁賢(1), 숭양(3), 죽림(1), 黔潭(1), 梅谷(1), 鷺江(1).
23) 정만조, 「17~18세기의 서원·사우에 대한 시론」,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활용한 측면도 있었다.

도산서원의 치제는 1575년(선조 8) 8월 사액 때와 이황이 '文純' 시호를 받던 1576년(선조 9)에 2회, 그 뒤 8회가 더 시행되어 모두 10회에 걸쳐 시행되었다.[24] 여타의 서원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숫자임에 틀림이 없다. 8회가 시행된 연도는 1733년(영조 9), 1756년(영조 32), 1781년(정조 5), 1785년(정조 9), 1792년(정조 16), 1816년(순조 16), 1840년(헌종 6), 1854년(철종 5)이다.[25]

이 가운데 영·정조 연간의 5회 때의 치제일기가 현전하고 있다. 이러한 일기는 조선시대 서원 치제례의 준비·분정·홀기·의례·진설·행사 후 풍경·소요 금액 등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판단된다. 치제일기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치제례의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치제례는 크게 임금의 '하명 ⇨ 준비 ⇨ 거행 및 罷齋' 3단계로 진행된다. 치제는 서원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임금의 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고, 거기에 도산서원 치제의 命은 선현 존모라는 본래의 목적도 있겠으나 무신난 이후 영남의 士氣 진작, 서학 확산 방지와 같은 정치적 복선이 내재되어 있었다. 1792년 정조의 치제 전교에서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중 일부를 소개하면,[26]

> 지난날 사학이 점점 퍼져 갈 때, 오직 교남의 인사가 삼가 선정의 정학을 지키고 흔들리거나 빠져들지 않았고 흐려지거나 물들지 않았다. (중략) 천주학이 서양으로부터 나와 그 학설이 기호 지방에서 성행하였는데, 전년 가을에 진산 사람 권상룡과 윤지묵이 사학으로 죽임을 당했으나 오직 영남은 한 사람도 물들지 않아 임금으로부터 깊이 칭찬을 받았으니 선정의 유풍이 백세토록 없어지지 않으리라 하였다.

도산서원의 치제를 기획한 이유는 서학의 확산을 방지하고, 정학인 성리학 부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조선 성리학의 모범인 이황에 대한 제사를 통해 확실한 명분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절차는 먼저 왕의 어명은 關文으로 감영과 안동부를 경유해 서원에 송달이

1997, pp.85~88.

24) 『선조수정실록』 10권, 선조 9년 12월 1일.

25) 일기 해제와 관련해서는 설석규, 「사제 일기」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참조.

26) 한국국학진흥원 편, 「사제 일기」, 앞의 책(2007), pp.456~457. 이하는 본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하기에 출처는 생략한다.

된다.[27] 관문에는 치제일과 의절[28], 임금의 요청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관문이 답지하면 곧장 행사 준비에 돌입한다. 우선 향중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당회를 개최해 도내에 통문을 보낸다. 관에서 전체 행사 비용이 지원되지 않기에 부조 요청도 통문에 실었다. 준비 사항은 대략 3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원활한 행사를 위해 각 분야의 실무자를 선임했다. 행사 전체를 주관하는 공사원[도집례, 일기·시도유사]을 시작으로 도판·각물유사, 고유시 집사, 식당 定座유사, 치제시 집사 등 각종 집사 등을 단계적으로 분정해서 임무를 부여했다. 특히 행사를 총괄하는 도집례는 선임에 신중을 기했고, 각기의 유사는 중복하여 선임하지 않았다. 사문의 경사에 더 많은 사족들을 유사로 참여시키려는 일종의 배려로 볼 수 있다. 한편 당일 집사관은 서원 소속 인사를 차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인근 지방관을 차정했다.[29] 집사관 명단은 감영 또는 안동부에서 서원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통보된다.

둘째, 치제례의 핵심은 의절인 만큼 실수는 용납될 수 없었다. 그래서 서원에서는 치제 선례의 기록을 열람하고, 의절에 대해 院中 인사들과의 논의는 물론 치제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다행히 도산서원은 이미 여러 차례 치제의 경험으로 별도의 '치제 홀기'를 구비해 두고 있었다. 1733년 일기에 그 전문이 수록되어 있어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이 홀기는 1421년(세종 3)에 정비된 예조 의절 홀기를 거의 원용한 가운데 서원의 특성에 맞게 약간 더 구체화한 것이다.[30]

다만 치제문을 직접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의절에 약간의 혼란은 불가피했다. 더구나 도산서원은 1733년에는 원위에만, 1756년에는 종위까지 치제 대상이 달랐던 점도 한몫을 했다. 특히 1781년이 그러했는데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27) 도산서원은 예안현 소속임에도 안동부에 공문을 보낸 것은 아마도 동일 권역으로 인식에 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된다.

28) 1781년 치제 의절에 대해서는 정조는 1776년(정조 1) 화양동 서원의 전례를 따르도록 명하였다.

29) 도산서원 치제 집사관 명단

연도	전사관	대축	祝史	찬자	알자	도예차
1781년	·	풍기군수	영천군수	예안현감	영양현감	진보현감
1782년	봉화현감	영양현감	순흥부사	유곡찰방	안기찰방	·

30) 이동구, 『한국의 서원 의절』,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연합회, 2013, pp.83~85. 조선의 치제의식과 諡號 策贈 의식은 세종 3년에 마련이 된 것이다. 『세종실록 권11』, 세종 3년 4월 12일.

나기에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치제관이 당도해야만 그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해 옥산서원에서도 치제에 앞서 도산서원을 방문해 전례의 홀기와 禮幣 규례를 傳寫해 행사에 임했다.[31] 반대로 도산서원에서도 5일 먼저 행사를 치룬 옥산서원의 사제물 단자를 베껴와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당시 옥산서원의 제물은 춘추향사에 의거했으나 이전에 보지 못한 돼지머리 1頭, 大脯肉 5條, 대구 5尾가 추가 되어 있던 점을 특기해 두었다.

셋째, 경비와 공력이 제일 많이 드는 식당 운영 방안과 임시 건물을 설치하는 일이다. 도산서원 치제 당시 방문자는 1733년 700~800여명, 1781년 1,400여명, 1782년에는 무려 1만 여명이 운집했다. 단 1782년 폭증은 別試 개최의 여파이며, 별도의 음식은 제공하지 않았다. 1782년을 예외로 하더라도 앞서 2회도 엄청난 숫자이다. 1787년 정조는 송시열을 제향한 여주 대로사 치제에 祠役 경비를 획급하고, 碑役은 내수사의 돈 1천 緡을 하사하는 파격이 있긴 하나 매우 특별한 사례일 따름이다.[32] 여타의 서원에서 이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산서원 같이 탄탄한 경제력을 갖춘 곳이어야 가능한 일이다. 똑같이 치제례를 준비한 옥산서원만 하더라도 사정이 어려워 본손가로부터 300여 금을 빌렸을 정도였다.[33] 실제 18세기 중반 도산서원의 한해 수입량을 점검해 보면, 1,000구의 노비가 바치는 身貢이 곡물 100석과 동전 1,000냥, 토지가 30결에 재고가 무려 1,000석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를 자랑했다.[34] 1733년 원장으로서 치제례를 관장했던 권상일의 일기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겨울 끝자락에 임금이 제문을 내릴 때에는 800여명에 이르는 많은 선비들이 서원에 머물렀다. 그 비용이 헤아릴 수 없었다. 그렇지만 오히려 빌리지 않고 **서원에 저축**된 것으로 비용에 댈 수 있었던 것이다.[35]

원근의 부조도 간과할 수 없지만 이처럼 도산서원의 안정적 재원이 치제례를 개최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참고로 1781년 행사에서는 돈 300여냥

31) 1781년(정조 5) 치제 날짜는 옥산서원은 5월 18일, 도산서원은 5월 22일이었다.
32) 『정조실록』 24권, 정조 11년 11월 9일.
33)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1792년 옥산서원 치제 어제제문』, (http://yn.ugyo.net/town/seowon)
34) 정수환, 「도산서원의 아낌없는 투자와 치밀한 경영」 『도산서원』, 한국중앙연구원, 2018, pp.134~137.
35) 권상일, 『청대일기』, 1733년 12월 28일. 정수환, 『앞의 책』(2018), p.134 재인용.

과 쌀 10섬이 사용되었다.

한편 식당에 필요한 집기인 그릇과 소반은 관례대로 예안 관아에 요청을 했다. 서원, 관아, 향교에 소장된 소반 500개 이상을 동원했는데 器皿·排床유사 10명을 차정해 책임을 지웠다.

임시 건물은 치제관이 서원에 도착하면 잠시 머물며 香祝을 봉안하는 천막인 幕次, 서원 남쪽에 흐르는 낙천을 건너기 위한 교량, 서원 내·외정문 출입의 편리성을 위해 浮階[36] 등이 설치가 되었다. 막차는 예안현감, 교량은 안동부사, 부계는 서원 측에서 공사를 맡았다.

행사 전날은 일정이 바쁘게 돌아간다. 치제관이 예안 또는 안동 관아에 도착하면 서원에서는 사람을 보내 치제관과 의절에 대해 가부를 의논한 뒤 확정시켰다. 제물은 현지 관에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제물의 이바지는 인근 지방관이 직접 행사 전날 또는 당일에 가져온다.[37] 서원에서는 미리 행사를 알리는 고유제를 원위에만 설행을 한다.[38] 그러나 일정이 촉박했던 1733년의 경우 행사 당일 卯時에 함께 치렀다.

치제례는 임금의 명령을 위임받아 파견된 예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39] 흑단령을 입은 치제관이 儀仗 행렬을 앞세워 서원에 이르면 원임과 집사들은 길 왼편에 도열해 국궁례로 공손히 맞이한다.[40] 말을 탄 치제관은 "회원은 향축을 모시고 먼저 들어가라" 명을 하면 회원은 "향축은 유생이 감히 모시고 갈 바가 아닙니다. 예관이 마땅히 모시고 들어가고 유생은 따라가야 합니다"라는 의례적 문답이 오고간다. 이에 치제관은 막차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해서 지니고 온 향축을 집사에게 전달해 床 위에 안치시킨다.[41] 예안현감[42]의 인도를 받아 막차

---

36) 임시로 널을 놓은 계단

37) 1733년에는 풍기군수가 1792년에는 봉화현감이 가져왔다. 제물이 서원에 이르면 원장 등은 건복을 갖추고 지영의 예를 행했다. 사액서원은 춘추향사의 제수도 관에서 제공이 된다.

38) 정위에만 고유하는 것은 尊統의 의리가 그러하기 때문이며, 향사·봉안·환안·이안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장현광, 『여헌속집』 권2 「答-答禮林書院」.

39) 치제관은 1733년 부수찬 鄭亨復, 1756년 부수찬 李錫祥, 1781년 좌부승지 李養鼎, 1785년 예조정랑 李載徽, 1792년 좌부승지 李晩秀가 파견이 되었다.

40) 儀仗 행렬은 1781년 치제 때 선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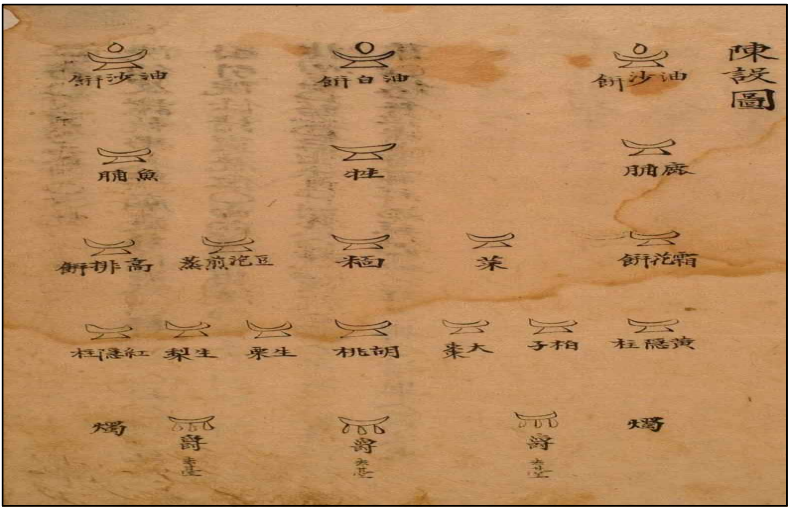
41) 가령 해남의 휴정을 주향하고 있는 표충사의 사액 당시 향축을 막차가 아닌 사찰의 享祀廳이나 재실에 보관하였다. 이욱, 「조선시대 해남 표충사 제향의 설행과 변천」 『불교학보』 8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9, p.136.

42) 예안현감이 掌次者 즉 막차와 자리를 전담했기 때문이다. 또 서원 관계자가 이 역할

에서 대기하며 원장 등과 인사를 나누는 한편 집사관에게는 內庭에 입장할 수 있는 대상자를 지시한다. 참석자는 본손 및 유생 · 생원 · 진사 중 건복을 착용한 자로 한정을 했다.[43] 너무 많은 인파가 모여 전부 수용하지 못해 취해진 조치였다. 아마 祗迎節目을 걸어 이러한 제반 사항을 알렸을 것이다.

본 예식은 알자의 인도 하에 치제관은 손을 씻은 뒤 향축을 모시고 사당에 들어서면 치제홀기에 맞춰 신성한 예식이 거행된다.[44] 그 절차는 일반 향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헌관과 진설 두 가지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먼저 헌관은 오로지 치제관 1명이 전담을 한다. 치제관은 서서 세 번 향을 올리고, 원위에 술도 연속 3잔을 올린다. 종위에는 단잔만 올린다. 임금의 서압이 찍힌 축문을 읽는 것으로 공식적인 예식은 종료가 된다. 축문은 태우지 않고 서원에 소중히 보관했다. 다음으로 진설되는 饌品을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도산서원 치제 원위 진설도 - 1756년(영조 32)>[45]

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43) 1781년에는 원거리에서 방문한 많은 유생들은 건복을 갖추지 못해 예식에 참관을 못한 인원이 2,500여명에 달했다. 한편 전직 관료의 경우에는 章服과 帽帶를 하고 참석하도록 했다.

44) 서원의 치제홀기는 예조 치제홀기를 준용한 것이다.

45) 치제 원위 진설도

볶은 沙蔘을 넣어 만든 떡	기름 바른 흰떡	볶은 沙蔘을 넣어 만든 떡

2簠 2簋와 4籩 4豆가 진설되는 춘추향사 때와는 차이가 있다. 진설도는 전체 5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부터 4행까지 찬품이다. 순서대로 보면 1행에 기름 바른 흰떡을 기준으로 좌우에 볶은 沙蔘을 넣어 만든 떡을 놓았다. 2행은 어육류인 돼지, 건어물, 말린 사슴고기로 향사 때도 동일하게 올리는 것이다. 3행은 떡, 두부전·찜, 나물 등 여러 종류가 나열이 된다. 4행은 실과류인데 배·밤·호두·대추·잣을 두고, 좌우 끝에 홍색 및 황색의 과자를 두었다. 실과류의 경우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을 대체하기도 했다.

상주 옥동서원 치제 진설도에는 대추·밤·호두·곶감·잣으로, 富寧의 충현서원에는 그냥 果로만 기재되어 있다.[46] 1781년 도산서원 치제에서도 배가 제철이 아니라 구하기 어려워 다른 과일로 바꿨다. 향사 때 보다는 음식 가지 수가 4개가 더 많으며, 그 가운데 떡류가 5개로 비중이 컸다. 또 음식을 담는 그릇은 그림에서 보듯 器로 통일을 했다.[47]

이후 행사가 끝나면 치제관과 집사관에게 연회를 베풀어 음식을 대접하며 禮幣를 드렸다. 예폐의 상세한 내역이 1792년 일기에 전하고 있다.[48] 치제관에게는 『주서절요』 10책·『언행록』 3책·『매화시첩』 1책·비단 1단·수화주 1단, 집사관에게는 『언행록』 3책·『매화시첩』 1책, 장용위에게는 비단 1필·종이 3묶음, 政院吏·香室首僕 등은 각각 전례에 근거해 물건을 주었다.[49] 원장은 치제관에게 선사할 때만 무릎을 꿇어 授受하면서 상호 절하는 예절을 갖추었으나 나머지와는 그러한 禮가 없었다.

연회가 끝난 뒤에도 일부 치제관은 소수의 서원관계자와 담소를 나누거나 서원의 역사와 소장된 필적을 玩覽 또는 주위 경관을 살폈다. 치제관은 떠나기 전

건어물		돼지	말린 사슴고기	
그릇에 높이 올린 괸 떡	두부 전과 찜	면(緬)	나물	상화떡
기둥모양 붉은 빛깔의 과자	배 밤	호두	대추 잣	기둥모양 누른 빛깔의 과자
촛대	술잔(대를 없앰)	술잔(대를 없앰)	술잔(대를 없앰)	촛대

46) 옥동서원, 『本院日錄』「치제진설도」; 『忠賢書院志』「치제진설도」.
47) 예조에서 발행한 『致祭謄錄』「제물단자」에도 器로 적혀있다.
48) 별도의 예폐유사 2명을 선정해 준비하게 했다.
49) 옥산서원에서 선사한 예폐는 치제관에게 百水火紬 1필·九經衍義·求仁錄·大學補遺·太極問辯 각 1질과 壯紙 1속을 주었다. 執事官에게는 문집 대학보유 각 1질·장지 1속을 주었다. 壯勇衛는 玉色紡紗紬 1필·장지 1속, 승정원 서리에게는 40냥을 주었다.

어명 곧 책자 인쇄, 그림 제작, 서원 귀중본 대출 등 임금이 요청 사안을 진상하는 업무를 재차 점검하였다.

그리고 1792년에는 치제관 이만수가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임금의 전교와 제문을 판각해 게시하게 했다. 임금의 권위를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50] 치제의 전말은 어전에서 직접 또는 상소를 통해 보고가 이루어졌다.[51]

어명에 의해 치제관을 선발하고 임금이 직접 제문과 제수를 하사하는 치제례는 서원의 제례 중에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국가로부터 권위를 재 확인받아 서원의 정치·사회적 위상이 한층 격상되는 효과를 주었기 때문이다.[52] 아울러 본손을 녹용하는 실직적인 혜택도 뒤 따랐다.

IV. 사액례 -옥동·옥산서원을 중심으로

한국 서원의 사액제도 역시 1549년(명종 4) 풍기군수 이황이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액을 요청하면서 시작 되었다.

> 송나라 태종은 백록동서원에 대하여 江州知事 周述의 건의에 따라 九經을 역마 편에 보내고, 또 그 洞主 明起를 발탁하여 썼으며, 그 후 直史館으로 있던 孫冕이 병으로 조정을 사직하고 백록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자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理宗은 유학을 존숭하여 考亭書院 같은 데에 모두 칙령으로 **扁額**을 내리어 영광되게 하였습니다. (중략) 옛 현인이 美風을 남긴 땅과 우리 동방 사람이 창시하여 드러낸 미덕이 드디어 쇠퇴하고 추락하는 데 이를까 크게 두려워, 망녕되이 조정에 아뢰어 만에 하나라도 재가해 주시는 **은전**을 받고자 하였습니다.[53]

이황은 송나라 태종이 서원에 편액과 서적을 하사한 고례를 거론하며 사액 및 경제적 지원을 청원하였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액은 명확하게 정해진 규정이나 구체적 기준이 없고, 다만 첩설 불허 원칙만 제시되었다.[54] 국가로부터 공인받

50) 이만수는 옥산서원에서도 전교와 제문을 동일하게 판각 후 게시토록 하였다.
51) 『승정원일기』 771책, 영조 10년 1월 5일.
52) 이병훈,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과 역할』,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p.136.
53) 이황, 『퇴계선생문집』권9, 書「上沈方伯書」.
54) 이수환, 「蔚山 鷗江書院의 設立과 賜額過程」『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p.55.

는 사액은 임금 의지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 사액 서원은 약 201개소[55]로 보고가 되었는데 사액 서원이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것으로 울산 구강서원과 양주 旌節祠처럼 막대한 인적 · 물적 비용과 상당한 노력이 동반되었다. 구강서원 사액 과정에서는 1682년(숙종 8)부터 1694년(숙종 20) 13년간 4차례에 걸쳐 무려 54,000냥 이상의 돈을 지출하였으며,[56] 정절사는 10여 차례가 넘는 청액소 끝에 겨우 사액 받은 것에 보듯 한 두 차례 시도로 성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57] 또 18세기 이후 건립된 대부분의 문중서원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조건임에도 사액을 원한 가장 큰 이유는 향촌에서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이라는 위상과 경제적 혜택 때문이었다.

사액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서원에서 조정에 청액소를 올려야 한다. 초창기 서원의 경우 수령 및 감사를 통해 요청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17세기 중후반 국가에서 서원 신 · 첩설을 금지하자 疏儒들이 직접 상경해 疏廳을 설치한 후 관료들을 찾아다니며, 활동을 펼치는 형태로 변화했다. 다행히 유소가 승정원에 봉입되면 담당자인 동부승지의 검토를 거쳐 반려 또는 수용 여부가 결정이 난다. 상소가 수용되면 상소문의 요지를 승정원에 제출하고, 입시해 상소문을 낭독한 뒤 비답을 기다린다. 만약 비답이 내려지면 재차 승정원에 들어가 그 전문을 傳寫했는데 사액의 명분, 서원명, 사액 치제일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치제일은 서원이 원하는 날을 고려해 선택하게 하기도 했다.

사액례는 임금이 정해준 額號를 서원에 인도하는 延額, 게시하는 揭額 의례를 말한다. 이와 관련된 자료가 현전하는 상주 옥동서원과 경주 옥산서원을 바탕으로 사액례의 제 양상을 조명해보자.[58] 다만 옥동서원은 1789년(정조 13) 사액 때, 옥산서원은 1840년(헌종 6) 재사액 때의 기록이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자는 사액의 전반적인 흐름을, 후자는 儀式과 같은 세밀한 부분이 잘 드러나 있다.

---

55) 박주, 「朝鮮 肅宗朝의 祠宇濫設에 대한 考察」『한국사론』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0, p.194.

56) 이수환, 앞의 책(2001), p.55.

57) 최홍규, 「조선시대 양주지방의 서원과 祠宇」『조선후기 향촌사회연구』, 일조각, 2001, p.274.

58) 『옥동서원 창건록』, 『옥산서원 구인당 중건일기』 이하는 두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했기에 별도의 출처는 생략한다.

사액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서원에 통지가 되면 예산 확보, 임원 선임, 물품 준비에 착수한다. 옥동서원은 완의까지 작성해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했는데 대내외 자손을 위주로 여타 校院에 도움을 청했다. 부조금은 총 675냥 149전 72관을 모금했다. 이중 문중의 부조금이 약 648냥으로 총 부조액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다.[59] 이 시기 서원 운영이 문중 중심의 분위기와 고을 내 제향자 후손이 불명확한 도남·흥암서원과 달리 초기부터 명확한 제향자 후손에 의해 관리된 것이 부조금 수치에 반영이 된 것이다. 옥동서원은 치제례의 경험이 전무해 1787년(정조 11) 사액례를 치룬바 있는 선산 낙봉서원의 전례를 등사해 왔다. 동시에 지역의 으뜸 서원인 도남서원과 명망가 정종로·趙錫穆 등에게 수시로 자문과 협의를 구했다.

다음 행사의 임원은 도감과 유사 체제로 아래와 같이 선출 하였다.

> 都執禮[1명], 執禮[1명], 都廳[3명], 都廳유사[7명], 排床도감[1명], 鋪陳도감[1명], 酒도감[2명], 排床유사[6명], 鋪陳유사[3명], 酒유사[2명], 行盃유사[3명], 到記유사[6명], 일기유사[2명]

행사를 총괄하는 도집례에 애초에는 정종로를 고려했으나 병환으로 고사해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한편 고유제관들도 미리 분정했고, 집사관은 상주목사를 비롯해 인근 지방관들이 차정되어 행사 전날 명단이 전달되었다.[60]

가장 빨리 준비하는 물품은 술이다. 상주목에서 사액 관문을 받은 즉시 유사를 임명해 祭酒를 담았다. 제물은 都廳에 보냈고, 편액을 제작용 판자는 상주목에 보내었다. 옥산서원의 편액 제작은 예조에서 액호를 繕寫해 내리자 예조 서리가 영남 감영으로 들고 와 판각 작업을 벌였다. 옥동서원 역시 동일한 방식을 취했을 것이다. 한편 관에서 지원은 많지 않았는데 都例差官에 선임된 선산부사가 刀尺[61]을, 상주목사는 음식을 나르는 架子軍 10명과 사액판·가마를 동여맬 무명실 2필을 지원한 것이 전부였다.

전체적인 행사 절차는 앞의 치제례와 크게 다르지 않기에 특징적인 면모를 선별해 검토해 보겠다. 사액례에서 제일 중시한 것은 편액이다. 치제관은 의장대

---

59) 김순한,「18세기 후반 상주 玉洞書院 청액활동과 사액의 의미」『민족문화논총 7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60) 집례관 : 상주목사, 축사관 : 개령현감, 전사관 : 유곡찰방, 집사관 : 함창현감, 例差官 선산부사.

61) 지방 관아에 소속으로 음식 만드는 일을 맡아보던 하인을 말한다.

를 앞세우며, 편액은 붉은 보자기로 덮어서 가마[轎輿]에 실어 행차한다. 행차가 서원에 닿으면 지영 의절을 거친 뒤 막차 또는 강당 탁자에 임시로 봉안이 되고 관련 의절도 뒤따랐다.



<옥동서원 사액 현판>

먼저 옥동서원의 경우 유생이 막차에서 편액을 받들고 앞서 가면, 치제관이 그 뒤를 따라 正門에 들어간다. 이때 旗幟와 악공이 강당 아래에 도열하고, 좌우에서 음악을 연주한다. 유생이 편액을 받들고 남쪽을 향해 서면 원장은 계단 사이 정중앙에서 위판을 들고 북쪽으로 향해 開讀한다. 치제관은 有旨를 알리고, 편액을 받들고 두루 읽어주기를 다한다. 봉안례가 끝나면 편액을 문설주 사이에 걸었다.

한편 강당 중건 전에 미리 재사액 편액이 도착한 옥산서원은 조금 달랐다. 강당 위에서 예조서리가 板을 원장에게 주면 원장은 무릎을 꿇고 공손히 받아서 다시 집사자에게 전달한다. 집사자는 탁자 위에 보자기를 벗겨 편액을 연다. 예조서리는 남쪽을 향해 큰 소리로 액호의 네 글자와 옆의 註를 읽은 후 원장과 함께 물러난다.

편액의 글자를 낭독하고 이를 강당에 게시한 시점으로부터 치제례가 시작된다. 그 공간은 사당이 아닌 편액을 건 강당 아래에 위판을 모시고 거행되는 점이 일반 치제례와 대별되는 특징이다. 의식은 사당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의식이 끝나면 음식과 폐백을 제공하는 사은례 자리를 가지는데 이에 겸하여 뱃놀이, 불꽃놀이 등과 같은 유흥도 이어졌다.[62] 또 사액을 기념하는 백일장을 개최하기도 하고, 중앙관료 · 성균관 · 서원 등에서 축하의 편지를 보내주기도 했다.

옥동서원 사액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位土田 3결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향촌사회 내 위상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그 변화는 사액 후 더 다양한 가문들

62) 달성군 · 달성문화재단, 「제4장 서원 사액 관련 사례 검토 – 예림서원」, 앞의 책 (2013), p.241.

이 서원 운영에 참여했고, 헌납 조석목 · 정종로 등 원장의 격도 한층 높아지는 등 외연의 확장성을 증폭시키는 인적 네트워크가 견고해 지는 것으로도 귀결된 것이었다. 또한 1791년(정조 15) 17세기 영남 사림를 대표하는 상주 출신의 관료 학자인 정경세의 『우복별집』 간행을 주관하는데 모습도 확인이 된다.[63]

어쨌든 사액은 상주에서 옥동서원이 서부지역을, 도남서원은 동부지역을, 흥암서원은 관내를 영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던 계기가 된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서원의 특수 의례와 실제에 대해 도연 · 도산 · 옥동 · 옥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자료의 제한으로 영남지역 서원만을 대상으로 검토한 한계를 안고 있다. 본론에서 살펴본 추향례, 치제례, 사액례의 특징적인 면모를 선별해 보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추향례는 기존 서원에 인물을 추가하는 제향 의례이다. 조선시대 서원은 한 사람을 모시는 독향 형태의 서원보다 합향 형태의 서원이 더 많이 존재한다. 그런 만큼 추향례의 빈도가 높았지만, 입향례 못지않게 영예롭게 인식을 했다. 준비과정에서 다수의 인사에게 예식문자를 청탁한 점과 행사 날짜를 탄력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취했다. 봉안 의절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고, 위패에 관직 기재 여부 역시 그 기준이 일정치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집사분정, 진설, 봉안식 등은 일반 향사와 다르지 않았다. 한편 영정과 함께 봉안하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치제례는 서원의 의례 중에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도산서원은 최다 치제의 대상이었던 만큼 치제례를 규명할 수 있는 좋은 實例였다. 치제례는 임금의 명령을 위임받아 파견된 예관을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 치제관이 잠시 머물며 香祝을 봉안하는 천막 설치, 의절에 대한 가부 등 행사 전반에 대해 지시를 받았다. 예식 가운데 향사와 크게 차이나는 것은 헌관과 진설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헌관은 오로지 치제관 1명이 전담을 했는데 원위에는 세잔의

63) 한국학중앙연구원, 「玉洞院會敦事時通文」, 『鄭經世 史料精選』(한국학자료총서 51), 2015.

술을 올리고, 종위에는 단잔만 올렸다. 또 음식 가지 수는 더 많으며, 떡류의 비중이 높았다.

셋째, 사액례는 임금이 국가로부터 정해준 액호를 서원에 인도하는 연액, 게시하는 게액 의례를 말한다. 조선시대 사액의 명확한 규정은 없고, 임금 의지에 달려 있었는데 17세 중후반 이후부터는 사액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먼저 편액 제작용 판자는 서원에서 준비해 소속 관아에 보냈다. 행사 당일 강당에 편액을 게시한 시점부터 치제례가 시작이 되는데 사당이 아닌 강당 아래에 위판을 모시고 거행이 되는 점이 일반 치제례와 대별되는 점이다. 사액 즉 국가 공인 서원이 되면 향촌사회에서 그 위상의 변화를 수반했다.

이상 부족한 면이 있지만 막연하게 인식했던 조선시대 서원의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서원 연구의 지평을 한층 넓혀주는 중요한 주제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忠賢書院志』,『致祭謄錄』, 옥동서원『本院日錄』,『옥동서원 창건록』,『옥산서원 구인당 중건일기』, 권상일,『청대일기』, 이황,『퇴계선생문집』, 장현광,『여헌속집』

국립문화재연구소,『서원향사 -노강·돈암·흥암·대로사·무성·필암·남계·도동·병산·옥산·자운·파산·소수·도산·우저·심곡서원』, 2012~2018.
달성군·달성문화재단,『道, 東에서 꽃피다』, 2013.
영남문헌연구소 편,『소수서원지』, 2007.
안동민속박물관,『安東의 書院 享祀』, 2009.
윤희면,『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이동구,『한국의 서원 의절』,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연합회, 2013.
이수환,『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이수환,『도동서원 -道, 東에서 꽃피다』, 민속원, 2019.
정만조,『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한국국학진흥원 편,『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2007.

김순한,「18세기 후반 상주 玉洞書院 청액활동과 사액의 의미」『민족문화논총』7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권삼문,「향사의 역사와 구조」『역사민속학』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권오영,「19세기초 安東儒林의 儒會와 그 活動」『한국중세사논총 -이수건교수 정년기념』, 논총간행위원회, 2000.
김미영,「서원 향사享祀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국학연구』22, 한국국학진흥원, 2013.
박 주,「朝鮮 肅宗朝의 祠宇濫設에 대한 考察」『한국사론』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0.
이병훈,『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과 역할』,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이 욱,「조선시대 해남 표충사 제향의 설행과 변천」『불교학보 8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9.
정수환,「도산서원의 아낌없는 투자와 치밀한 경영」『도산서원』, 한국중앙연구원, 2018.
정순우,「서원의 건립과 문중 연대」『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최홍규,「조선시대 양주지방의 서원과 祠宇」『조선후기 향촌사회연구』, 일조각, 2001.
한재훈,「조선시대 서원향사례 비교연구 -9대서원 향사의절을 중심으로」『퇴계학논집』20, 퇴계학연구원, 2017.
한재훈,「향(鄕)에 대한 퇴계의 이해와 실천」,『한국서원학보』8, 한국서원학회, 2019.

Types and Actuality of Special Ceremonies of Seowon

-Focusing on Chuhyangrye, Chijerye and Saaekrye-

Chae, Gwang-su*

This article has reviewed the types of special ceremony of Seowon (memorial hall for Confucian services to honor distinguished scholars and statesmen) and the detailed performance process through the actual cases of individual Seowon that has pertinent data still available. The ceremony of Seowon in the Joseon Era was a very important function with regular ceremony and irregular special ceremony. In the position of Seowon, the special ceremony was the larger event than the regular ceremony and it was an important ceremony to display the status of Seowon at the time.

Following is the sorting out the characteristic aspects of Chuhyangrye, Chijerye and Saaekrye as seen from the main context. First, Chuhyangrye is the ritual ceremony that added characters to existing Seowon. For the Seowon of the Joseon Era, there was more Seowons for Haphyang (multiple ceremonies) type than the Seowons for Dokhyang (sole ceremony) where only one person was enshrined. Therefore, the frequency of Chuhyangrye was higher, but it was perceived as honorable as Iphyangrye. In the preparatory process, the ceremonial characters were requested to a number of people and it

* Institute of Korean Cultural Studies Yeungnam University / corhkdtn911@ynu.ac.kr

had the method of flexibly selecting the event date. The enshrinement manner was not clearly established and the record of government position on the enshrining plaque did not have certain established standard either. Jipsabunjeong, Jinseol, enshrinement ceremony and the like were not different from a general enshrine quarter. In the meantime, there was a case of enshrining along with the portrait of the deceased.

Second, Chijerye had the most special important implication from the ceremonies of Seowon. Dosan Seowon was the subject of largest Chije that it was a great example to clarify Chijerye. Chijerye was processed around the ceremonial officer who was dispatched with the delegation of decree from the king. The Chije Officer briefly stayed to have the instructions on overall event, such as, installation of the tent where the hyangchuk was enshrined, approval for certain ceremonial manner, and so forth. From the ceremony, one tha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eremonial quarter was the different point of Heongwan (officer for ceremonies) and Jinseol. Heongwan had only one Chije Officer to exclusively in charge and it had 3 glasses of alcohol on the wonwi and only a single glass was devoted on the jongwi. Also, it had more food with the higher ratio of rice cakes.

And, third, Saaekrye means the ceremonies involving yeonaek that guided the name of tablet that the king rendered from the state to Seowon and posted talet. There was no clear provision of saaek during the Joseon Era but it was rather depended on the intent of the king, and after the mid- to later 17th century, there was a need for significant effort to obtain the saael (tablet rendered by the king). First of all, the board for manufacturing the tablet was prepared by Seowon to send to the local government office. From the time of posting the tablet in the hall on the event day, Chijerye was commenced and the fact that the enshrining board was enshrined on lower hall area, not the sadang (enshrining hall) to have the event would be the contrasting

point from the ordinary Chijerye. Once the saaek, namely, the government certified Seowon was rendered, it usually accompanied the change of status in the local community.

Keywords : Seowon, special ceremony, Chuhyangrye, Chijerye, Saaekrye

이 논문은 2020년 05월 28일 투고 완료되어
2020년 06월 1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06월 22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부록

해제 :『근암서당창건고적(近嵓書堂創建古蹟)』

『근암서당창건고적』 영인

『근암서당창건고적』 해제[1)]

『근암서당창건고적(近嵓書堂 創建古蹟』은 현재의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에 위치한 근암서원(近嵓書院)의 초창기 기록을 필사한 것이다. 근암서원은 1553년(명종 8)부터 1554년(명종 9)까지 상주목사(尙州牧使)를 역임한 영천자(靈川子) 신잠(申潛, 1491-1554)이 세운 죽림서당(竹林書堂)에서 시작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터를 옮겨 중건하면서 근암서당(近嵓書堂)이라 하였다. 1665년(현종 6) 홍언충(洪彦忠, 1473-1508)을 제향하면서 향현사(鄕賢祠)가 되었다. 이후 1669년(현종 10) 이덕형(李德馨, 1541-1613)을 병향하면서 근암서원으로 승원하였다. 아울러 김홍민(金弘敏, 1540-1594), 홍여하(洪汝河, 1621-1678), 이구(李榘, 1613-1654), 이만부(李萬敷, 1664-1733), 권상일(權相一, 1679-1759)의 남인계 인사들을 추가로 제향하면서, 도남서원과 더불어 상주지역 남인계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자리했다.[2)]

『근암서당창건고적』의 크기는 가로 30㎝, 세로 41㎝이며, 71장 1책으로 구성된 필사본이다. 표지의 훼손이 심하여 표제는 '근암서당…(近嵓書堂…)'만이 확인된다. 내제는 「근암서당창건고적(近嵓書堂創建古蹟)」이다. 『근암서당창건고적』은 1653년(효종 4)부터 1750년(영조 26)까지 근암서원에서 수수하였던 각종 문서를 수록하고 있어서 근암서원의 초창기 모습과 18세기의 운영 실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 정확한 작성연대는 알 수 없지만 수록된 내용으로 보아서 18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본문은 1554년(명종 9) 상주목사 신잠이 서당을 건립하였을 때부터 1750년(영조 26)까지 발생하였던 각종 사안과 관련한 향내·외에 주고받았던 통문·답통(答通)과 목사·순상(巡相) 등에게 올린 상서, 관에서 내려온 관문(關文), 하첩(下帖) 및 상량문, 중수기 등의 기문(記文) 등이 등서(謄書) 되어 있다.

---

1) 『근암서당창건고적』의 원본은 현재 소재가 불명하다. 학보에 소개하는 본 자료는 영남대학교 이수환 교수가 소장하고 있던 복사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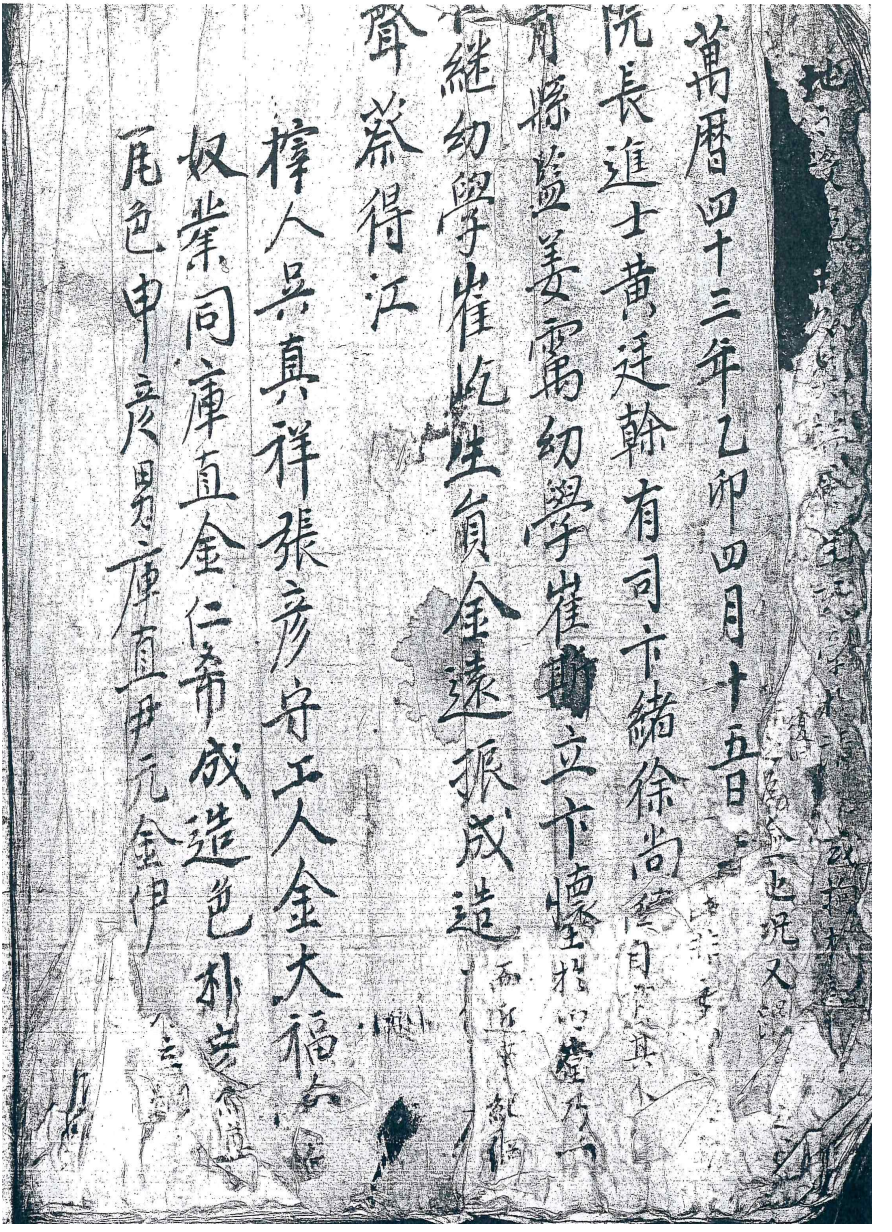
2) 문경 근암서원의 변천과 운영에 대해서는 이병훈,「16~18세기 문경 근암서원의 변천 - 조선후기 서원 변천의 한 사례」, 『영남학』7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 「17~18세기 문경 근암서원의 운영 실태」,『영남학』7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0 이 참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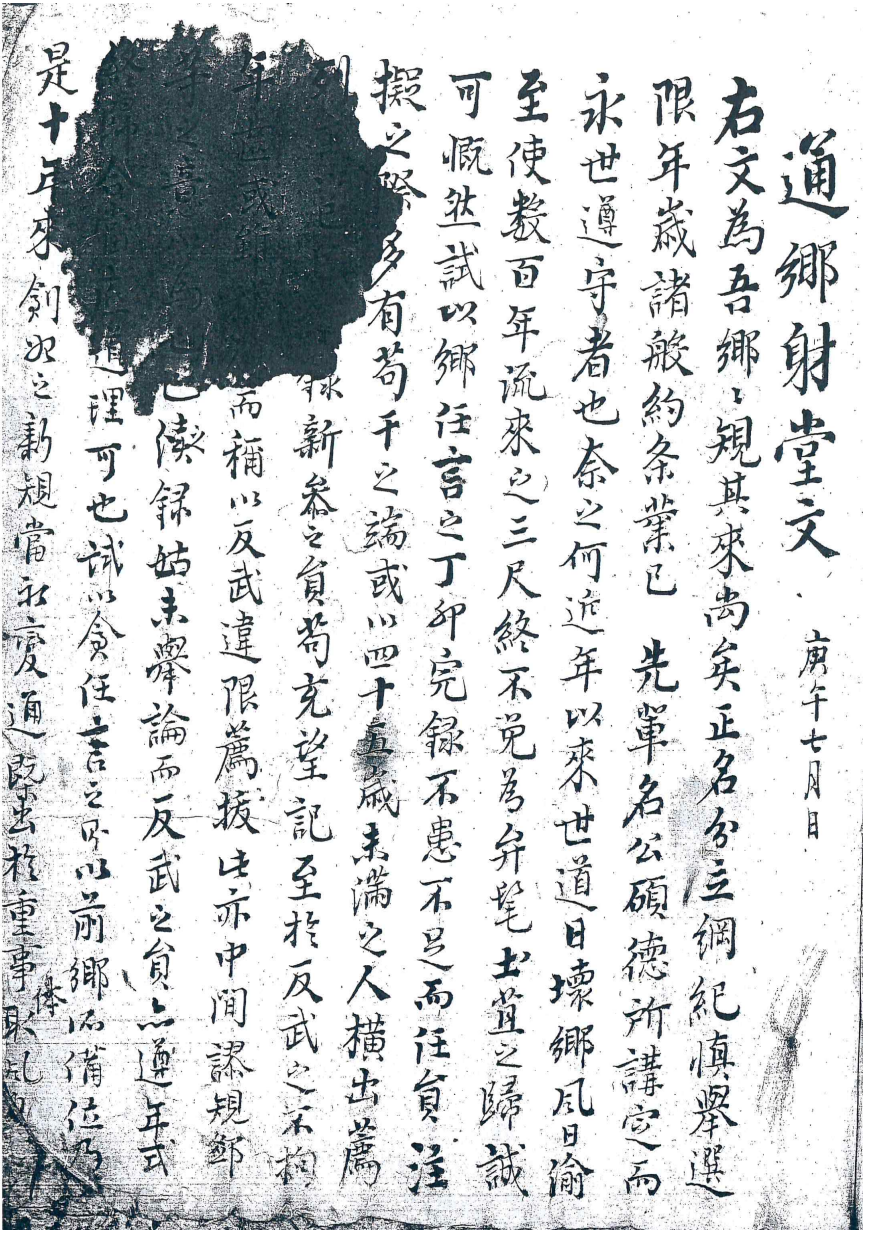
이를 보면 향내외 통문이 62건, 정문(呈文) 14건이며, 그 외 묘우·문루상량문, 홍언충·이덕형·김홍민·홍여하의 봉안문, 축문, 발문(跋文), 제문(이만부), 명륜당 중수문, 묘우중수이·환안축문, 품목(稟目), 관문(關文), 전령(傳令), 이종적효유문(李宗迪曉諭文), 원중완의(院中完議) 등이 기재되어 있다.

통문은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크게 서원으로의 승원(陞院), 추향(追享), 중건(重建), 무신란(戊申亂), 문집(文集)간행 등으로 나눠진다. 정문(呈文)은 근암서원으로의 승원과 원속(院屬), 속사(屬寺)인 미면사(米麵寺) 등에 대한 면역(免役)과 수조권에 관한 것이다. 추향 당시 작성한 봉안문, 축문과 홍언충의 문집『우암집(寓菴集)』간행에 관한 논의 및 발문 등도 확인된다.

이외에도 관문과 전령은 이인좌의 난과 관련된 것으로 호소사(號召使) 조덕린(趙德鄰)과 소모사(召募使) 황익(黃翼)이 보낸 관문, 상주에서 의소(義所)를 만들고 제정한 14개조의 절목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1744년(영조 20) 3월에 상주목사로 부임한 송계(松溪) 이종적(李宗迪, 1710-1748)이 상주내 교원(校院)에 흥학(興學)과 관련하여 효유(曉諭)하고 6개조의 절목을 반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원중완의(院中完議)」15개 조항은 근암서원의 실제 운영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된다.

근암서당창건고적(近嵓書堂創建古蹟)영인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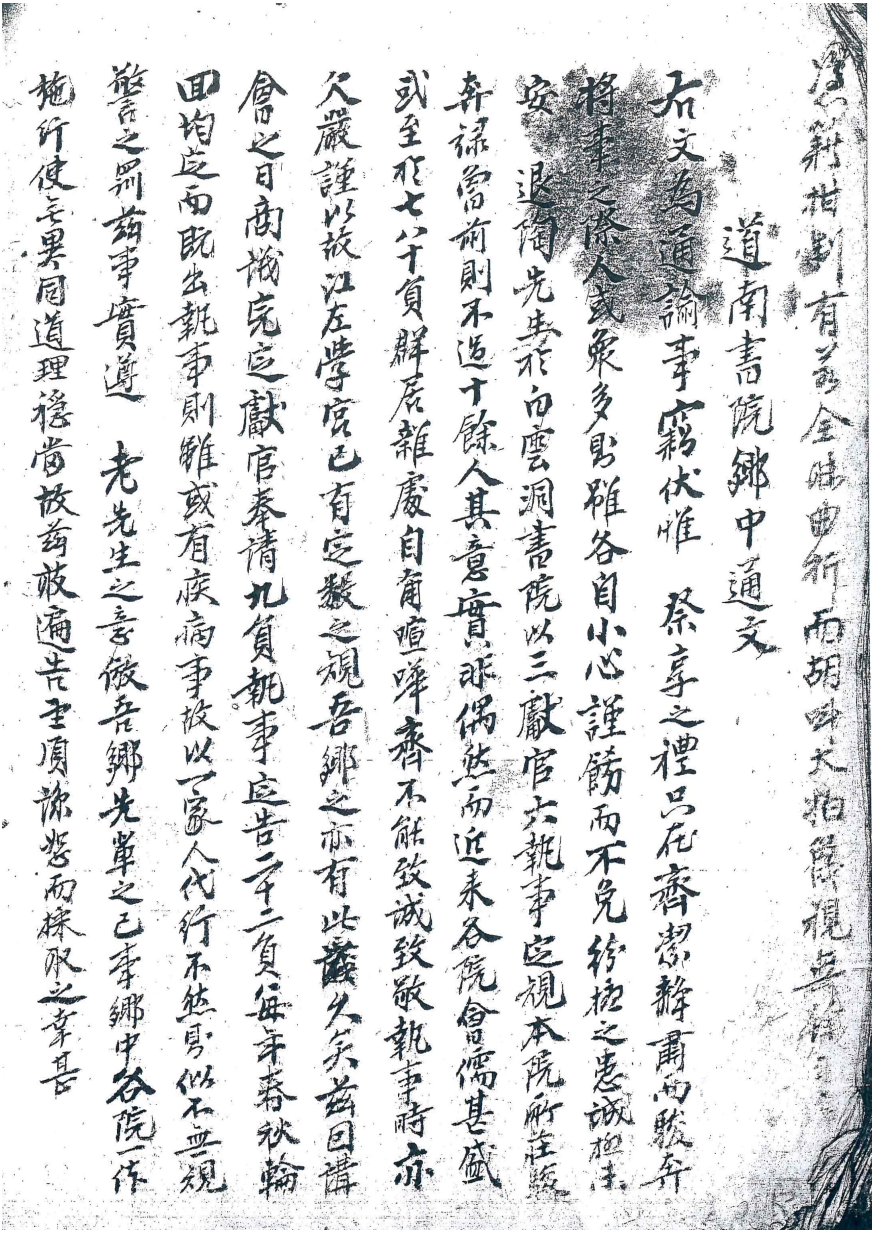




通鄉射堂文

庚午七月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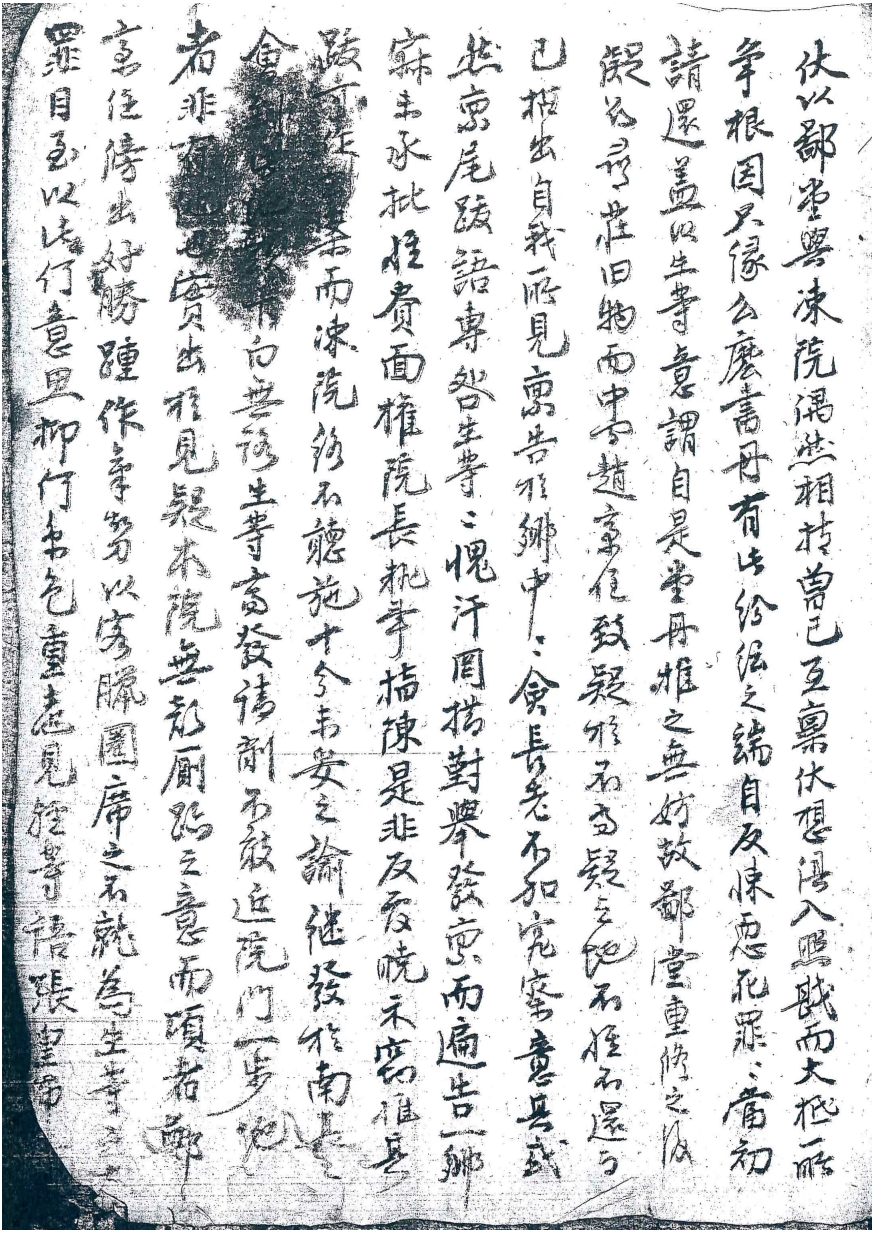
右文為吾鄉〻規其來尚矣正名分立綱紀慎舉選限年歲諸般約条業已 先輩名公碩德所講定而永世遵守者也奈之何近年以來世道日壞鄉風日渝至使數百年流來之三尺終不免為弁髦士苴之歸誠可慨然試以鄉任言之丁卯完錄不患不足而任員注擬之際多有苟干之端或以四十五歲未滿之人橫出薦[illegible]錄新參之員苟充望記至於反武之不拘[illegible]而稱以反武違限薦拔此亦中間謬規鄒[illegible]已[illegible]錄姑未舉論而反武之員亦遵年式[illegible]道理可也試以僉任言之則以前鄉所備位乃是十年來劍如之新規當初變通既出於重事体取[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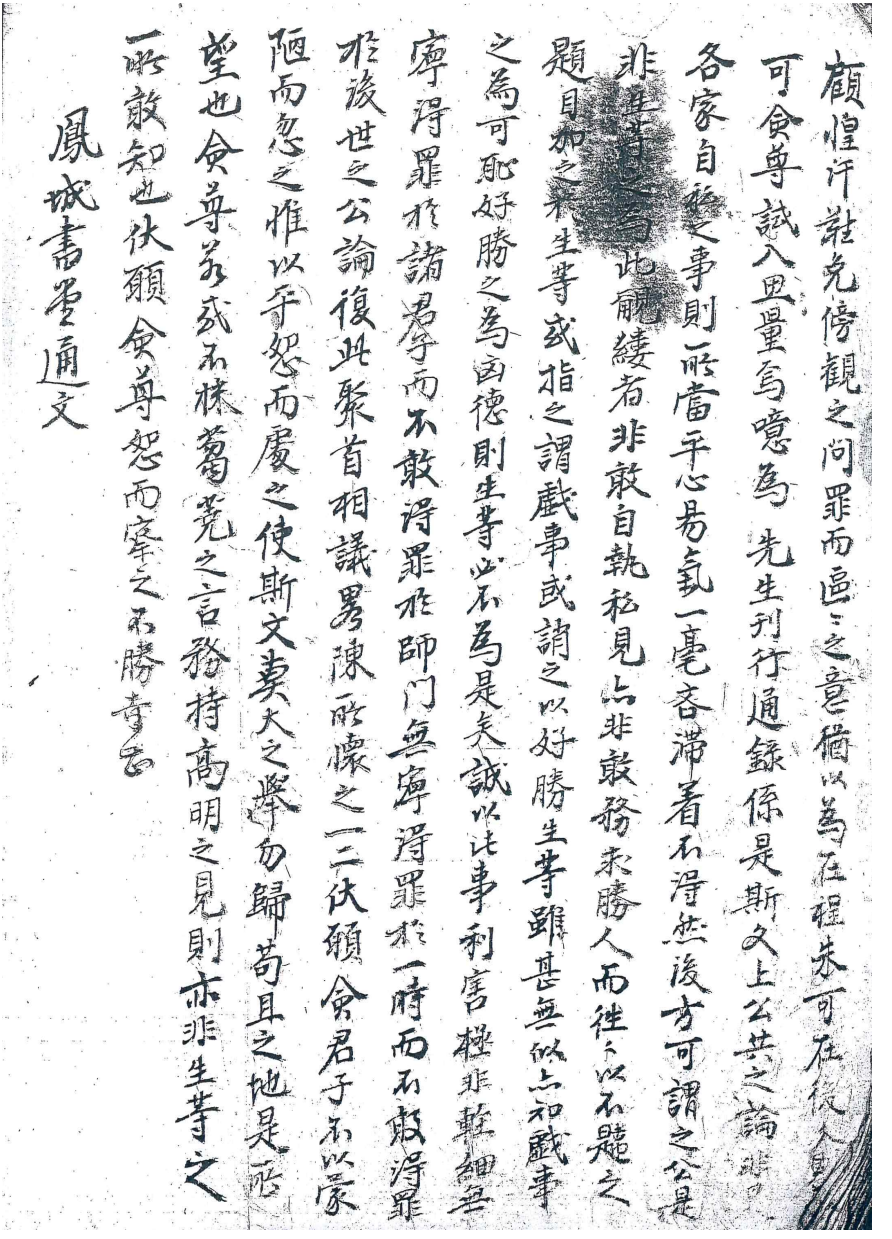


學之新拙劇有益全體曲折而胡叫大拍隱視無[illegible]

道南書院鄉中通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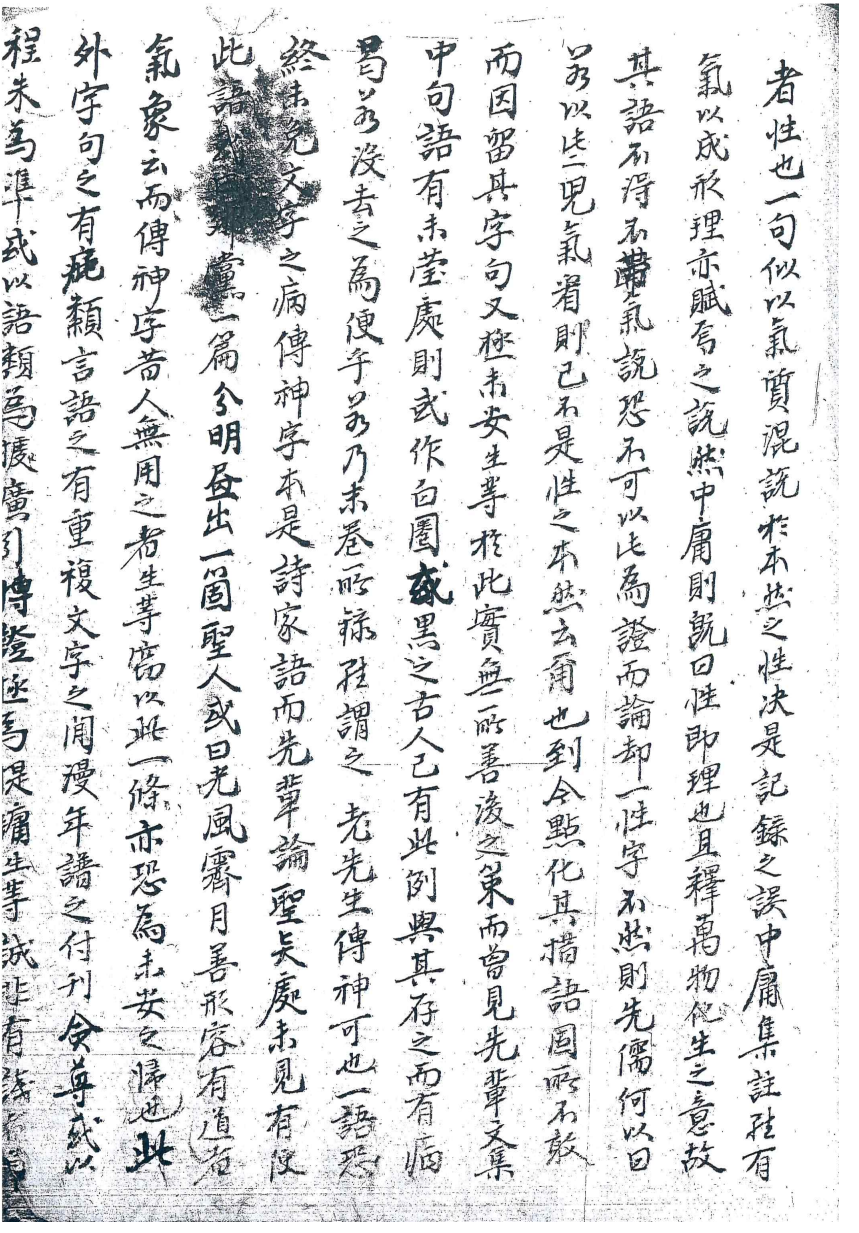
右文為通諭事竊伏惟 祭享之禮只在齊潔靜肅而駿奔將事之際人或衆多則雖各自小心謹飭而不免紛擾之患誠極未安 退陶先生於白雲洞書院以三獻官六執事定規本院所莊駿奔祿曾前則不過十餘人其意實非偶然而近來各院會儒甚盛或至於七八十員群居雜處自甯喧嘩齊不能致誠致敬執事時亦欠嚴謹以故江左學宮已有定數之規吾鄉之亦有此議久矣茲因講會之日商議完定獻官奉請九員執事定告二十二員每年春秋輪回均定而既出執事則雖或有疾病事故以一家人代行不然則似不無規警之罰茲事實遵 老先生之意倣吾鄉先輩之已事鄉中各院一作施行使無異同道理穩當故茲敢遍告至願諒悉而採取之幸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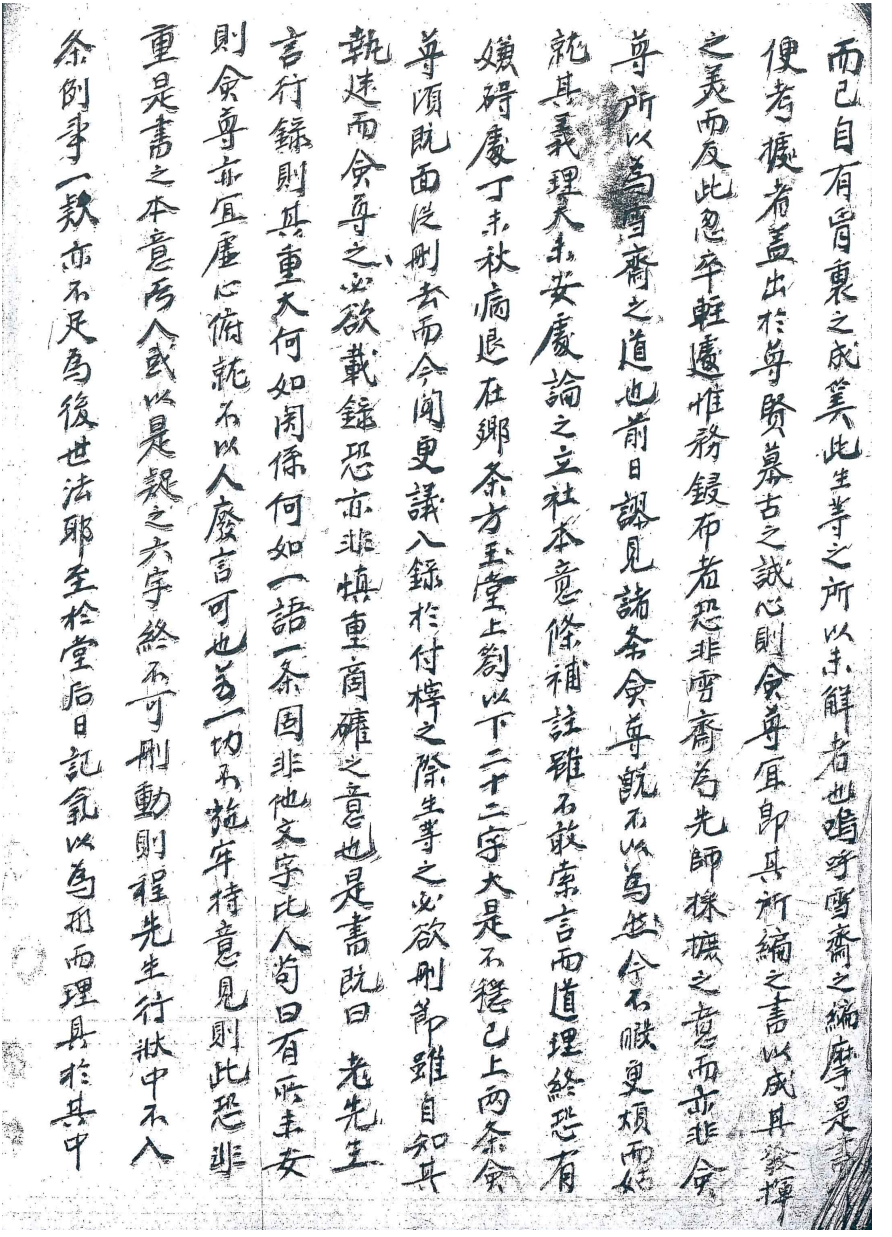


顧惶汗難免傍觀之問罪而區區之意猶以為在程朱可在後人見
可僉尊試入思量焉噫為 先生刊行通錄係是斯文上公共之論非
各家自私之事則一所當平心易氣一毫吝滯着不得然後方可謂之公是
非生等之為此觀縷者非敢自執私見亦非敢務求勝人而徃徃以不韙之
題目加之於生等或指之謂戲事或誚之以好勝生等雖甚無似亦知戲事
之為可恥好勝之為凶德則生等必不為是矣誠以此事利害極非輕細無
寧得罪於諸君子而不敢得罪於師門無寧得罪於一時而不敢得罪
於後世之公論復此聚首相議畧陳所懷之一二伏願僉君子不以蒙
陋而忽之惟以平恕而處之使斯文莫大之舉勿歸苟且之地是所
望也僉尊若或不株蔓荒之言務持高明之見則亦非生等之
一所敢知也伏願僉尊恕而察之不勝幸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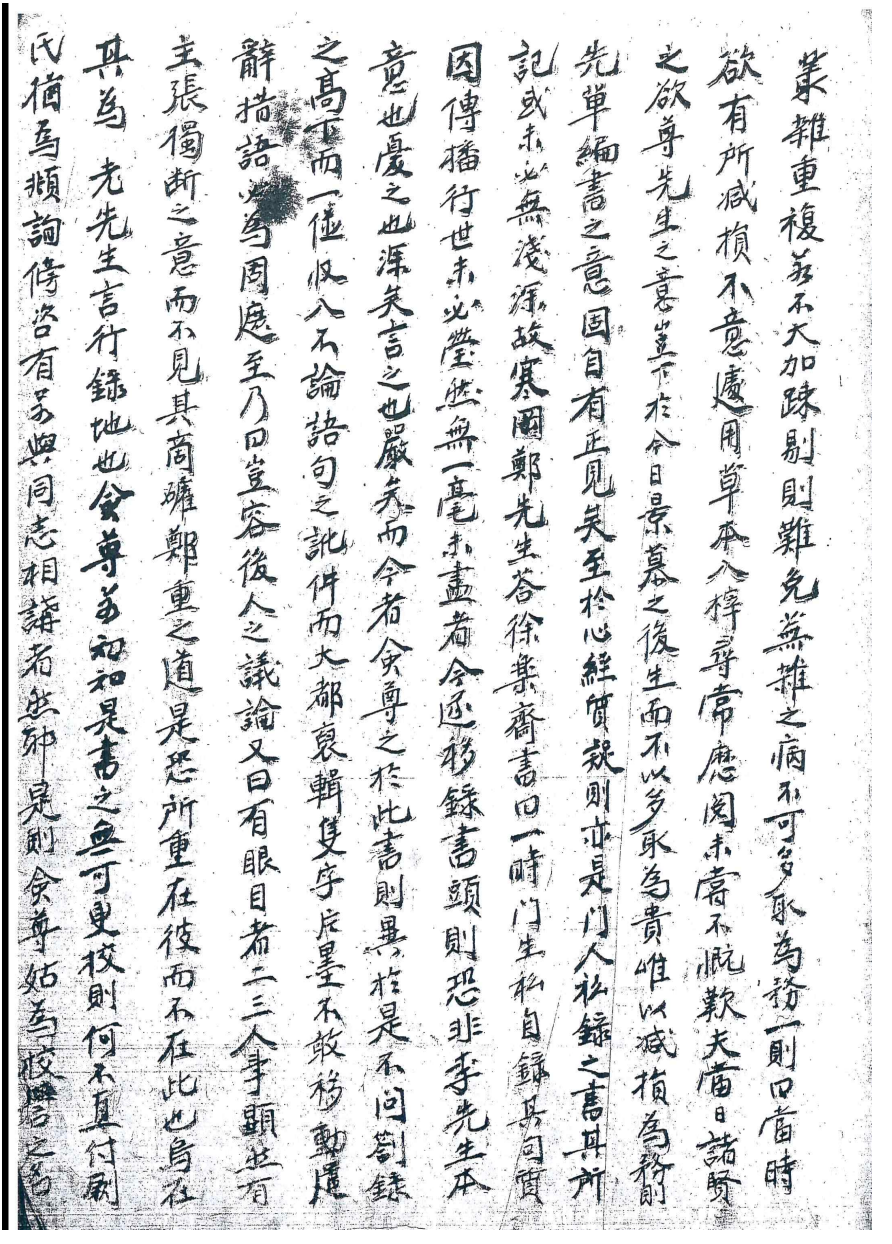
鳳城書堂通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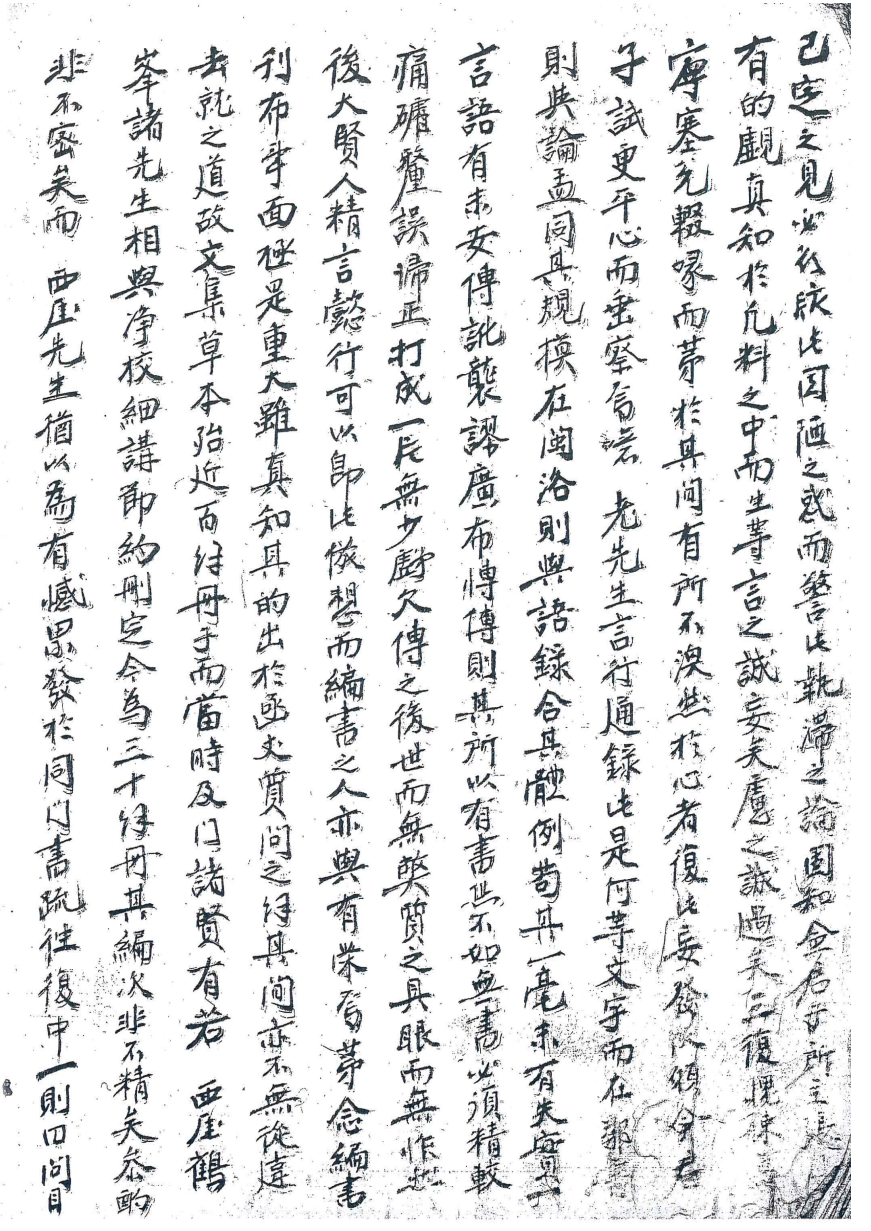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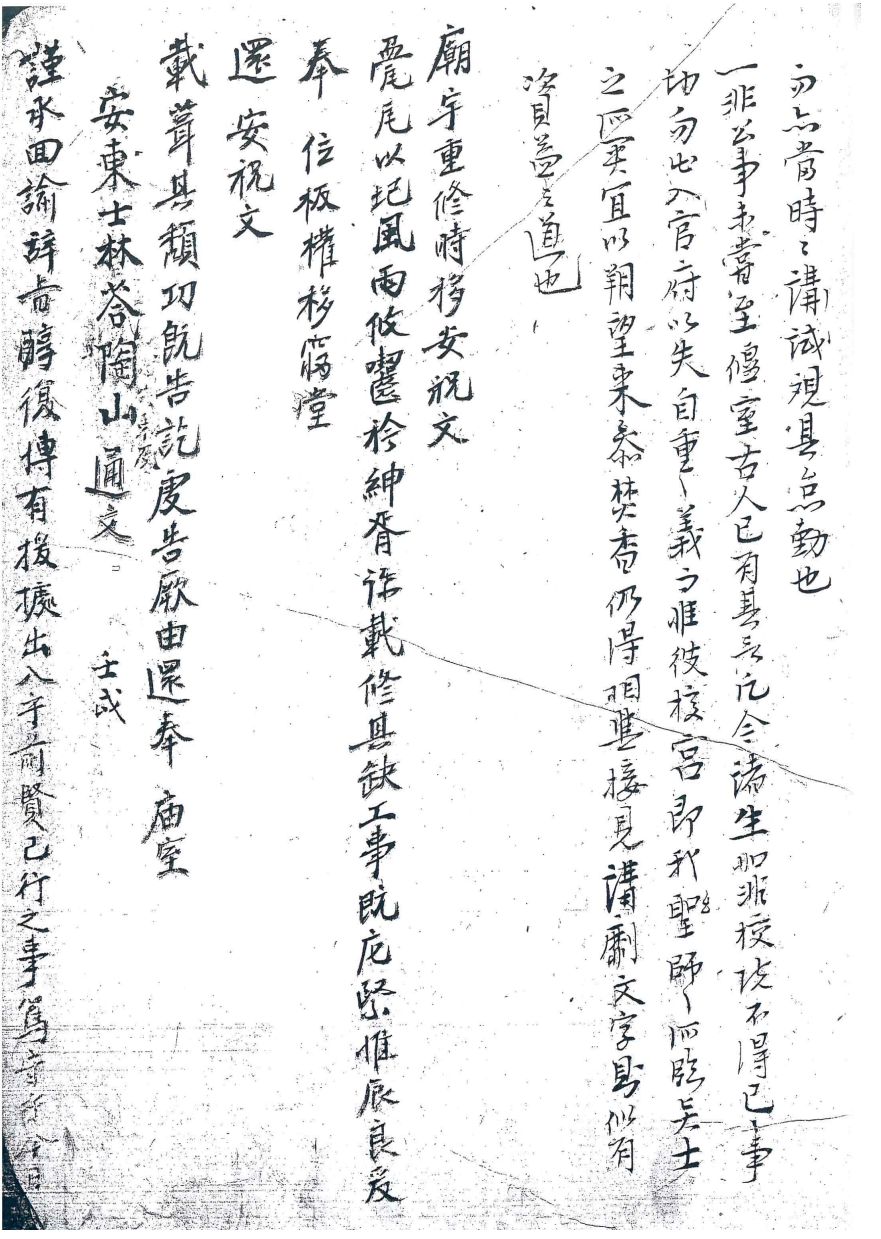
者性也一句似以氣質混說於本然之性決是記錄之誤中庸集註雖有
氣以成形理亦賦焉之說然中庸則既曰性即理也且釋萬物化生之意故
其語不得不帶氣說恐不可以此爲證而論却一性字不然則先儒何以曰
若以此一兒氣看則已不是性之本然云爾也到今點化其措語固所不敢
而因留其字句又極未安生等於此實無所善後之策而曾見先輩文集
中句語有未瑩處則或作白圈或黑之古人已有此例與其存之而有病
曷若沒去之爲便乎若乃末卷所錄雖謂之 老先生傳神可也一語恐
終未免文字之病傳神字本是詩家語而先輩論聖矣處未見有使
此語[illegible]黨一篇分明畫出一箇聖人或曰光風霽月善形容有道者
氣象云而傳神字昔人無用之者生等當以此一條亦恐爲未安之歸也此
外字句之有疵纇言語之有重複文字之閒漫年譜之付刊僉尊或以
程朱爲準或以語類爲據廣引博證逐爲提攜生等誠非有[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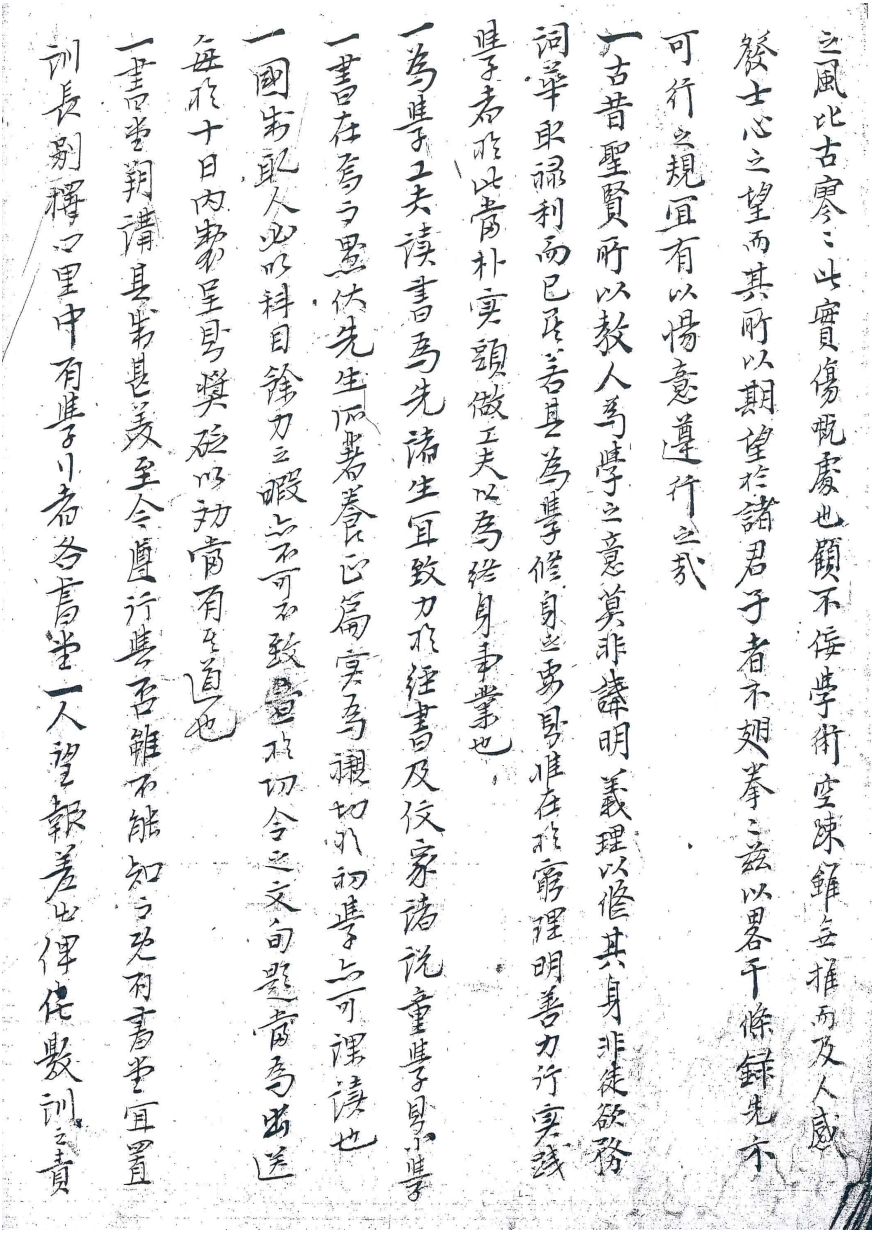


而已自有胷裏之成筭此生等之所以未解者也嗚呼雪齋之編摩是書
便考據者蓋出於尊賢慕古之誠心則僉尊宜即其所編之書以成其發揮
之美而反此忽卒輕遽惟務鋟布者恐非雪齋為先師採摭之意而亦非僉
尊所以為雪齋之道也前日謬見諸条僉尊既不以為然今不暇更煩而姑
就其義理大未安處論之立社本意條補註雖不敢索言而道理終恐有
嫌碍處丁未秋病退在鄉条方玉堂上劄以下二十二字大是不穩已上兩条僉
尊須既面從刪去而今聞更議入錄於付梓之際生等之必欲刪節雖自知其
執迷而僉尊之必欲載錄恐亦非慎重商確之意也是書既曰 老先生
言行錄則其重大何如閑係何如一語一条固非他文字比人苟曰有所未安
則僉尊亦宜虛心俯就不以人廢言可也若一切不施牢持意見則此恐非
重是書之本意而人或以是疑之六字終不可刪動則程先生行狀中不入
条例事一款亦不足為後世法耶至於堂后日記氣以為形而理具於其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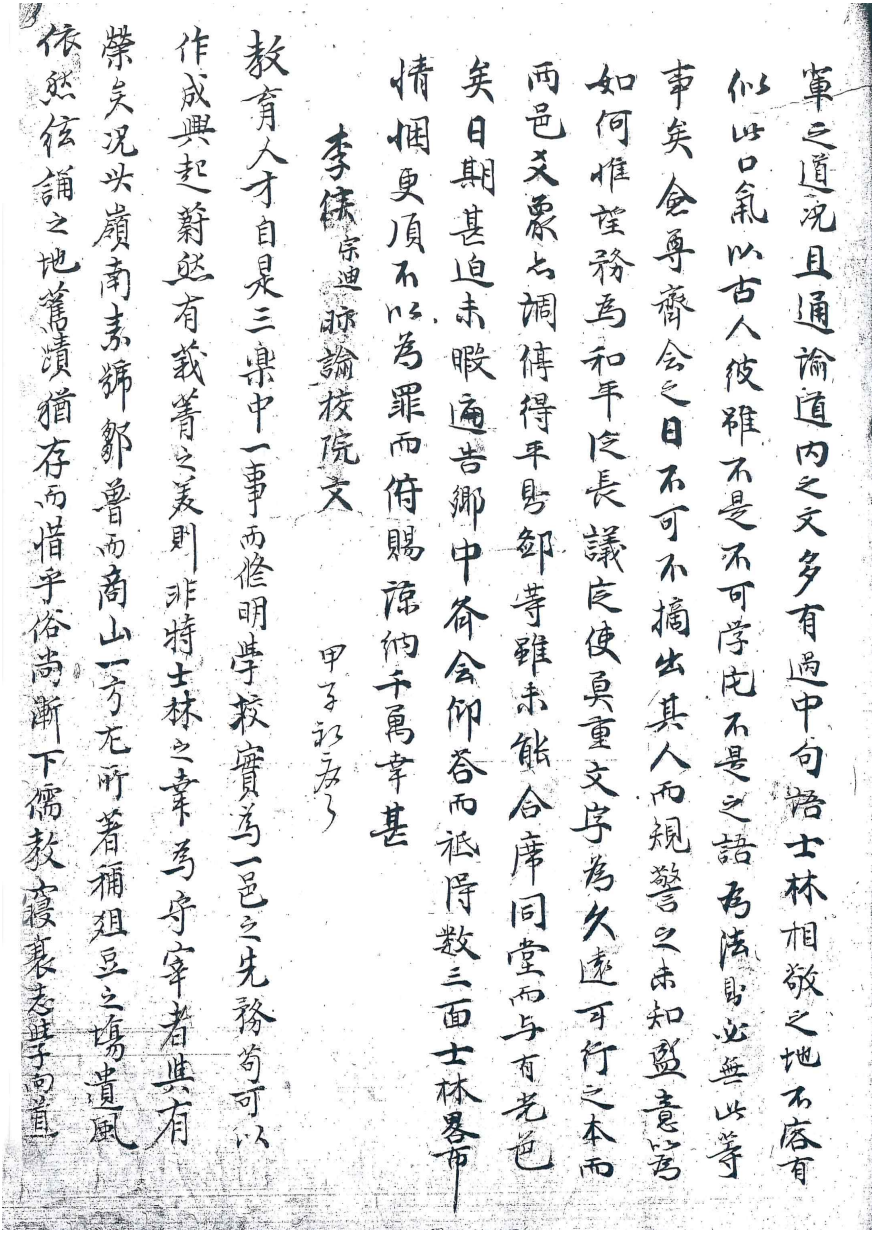
之風比古寥寥此實傷慨處也顧不佞學術空疎雖無推而及人感
發士心之望而其所以期望於諸君子者不翅拳拳茲以畧干條錄先示
可行之規宜有以惕意遵行之哉

一古昔聖賢所以教人爲學之意莫非講明義理以修其身非徒欲務
詞華取祿利而已是若其爲學修身之要則惟在於窮理明善力行實踐
學者於此當朴實頭做工夫以爲終身事業也

一爲學工夫讀書爲先諸生宜致力於經書及伎家諸說童學則小學
一書在焉可愚伏先生所著養正篇實爲親切於初學亦可課讀也

一國家取人必以科目餘力之暇亦不可不致意於功令之文句題當爲出送
每於十日內數呈則獎砥以効當有至道也

一書堂朔講其來甚美至今遵行其否雖不能知可免有書堂宜置
訓長別擇四里中有學行者各書堂一人望報差出俾作數訓之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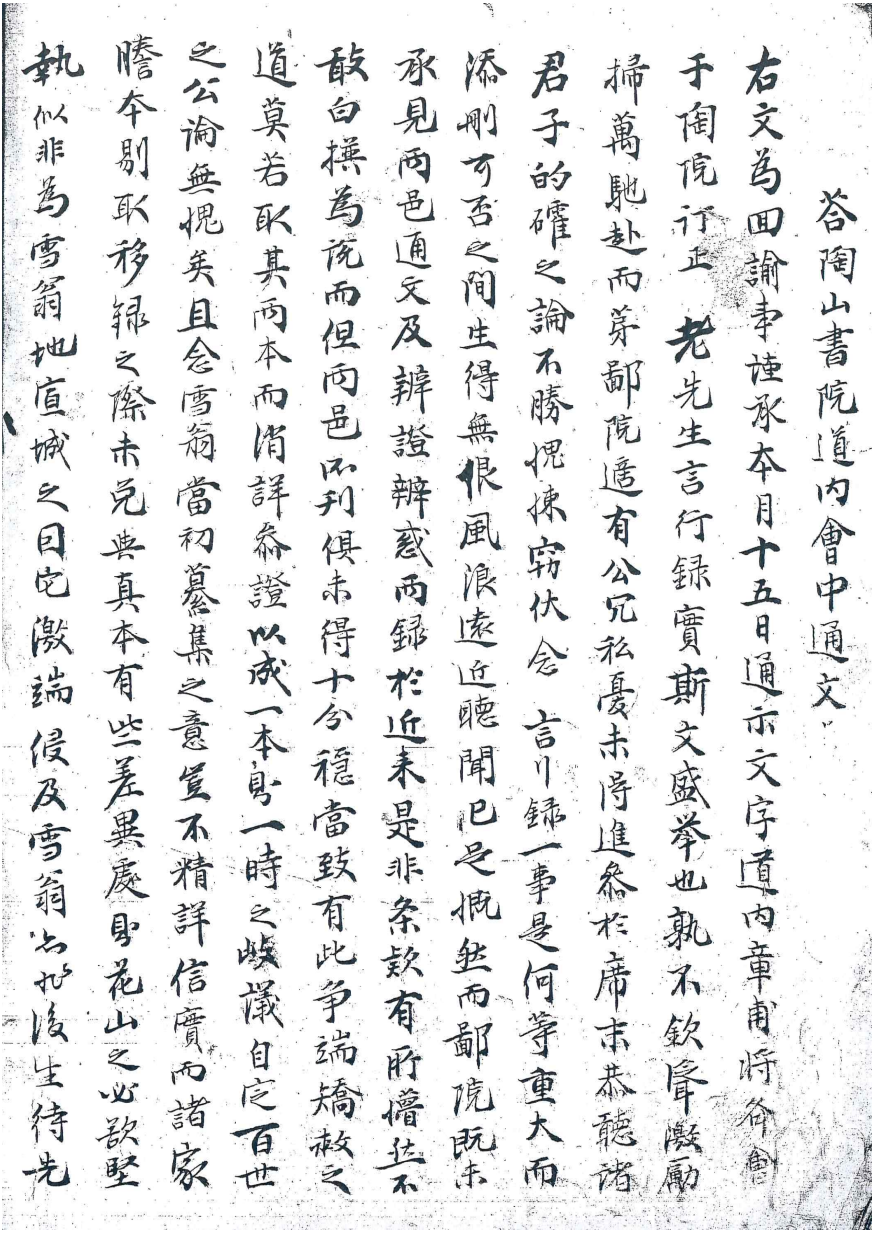


輩之道況且通諭道內之文多有過中句語士林相敬之地不容有似此口氣以古人彼雖不是不可學此不是之語爲法則必無此等事矣僉尊齋会之日不可不摘出其人而規警之未知盛意以爲如何惟望務爲和平從長議定使眞重文字爲久遠可行之本而兩邑文象亦調停得平則鄙等雖未能合席同堂而与有光色矣日期甚迫未暇遍告鄉中斧会仰答而祗得數三面士林畧布情悃更須不以爲罪而俯賜諒納千萬幸甚

李侯宗迪 昨諭校院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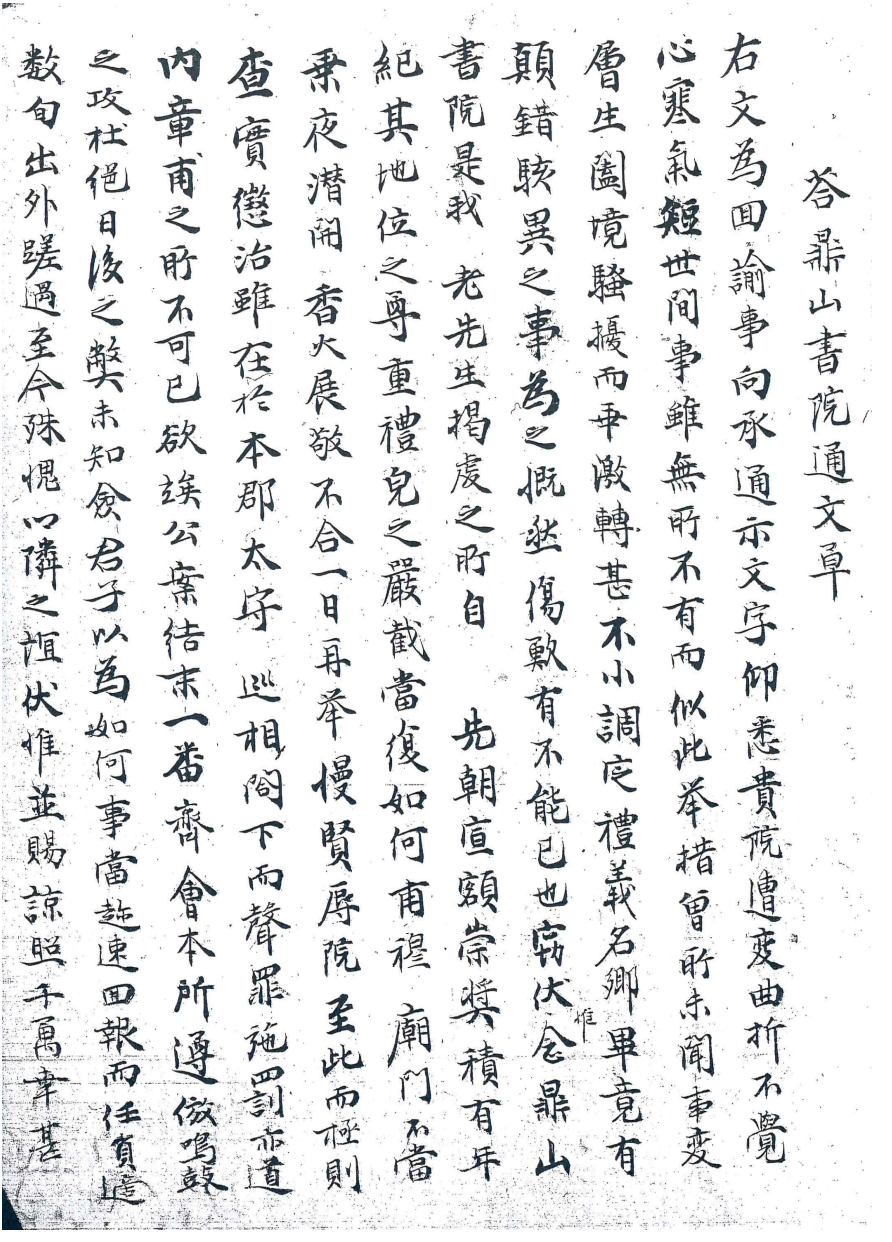
甲子初春

教育人才自是三渠中一事而修明學校實爲一邑之先務苟可以作成興起蔚然有載菁之美則非特士林之幸爲守宰者與有榮矣況此嶺南素號鄒魯而商山一方尤所著稱俎豆之場遺風依然絃誦之地舊蹟猶存而惜乎俗尚漸下儒教寖衰志學向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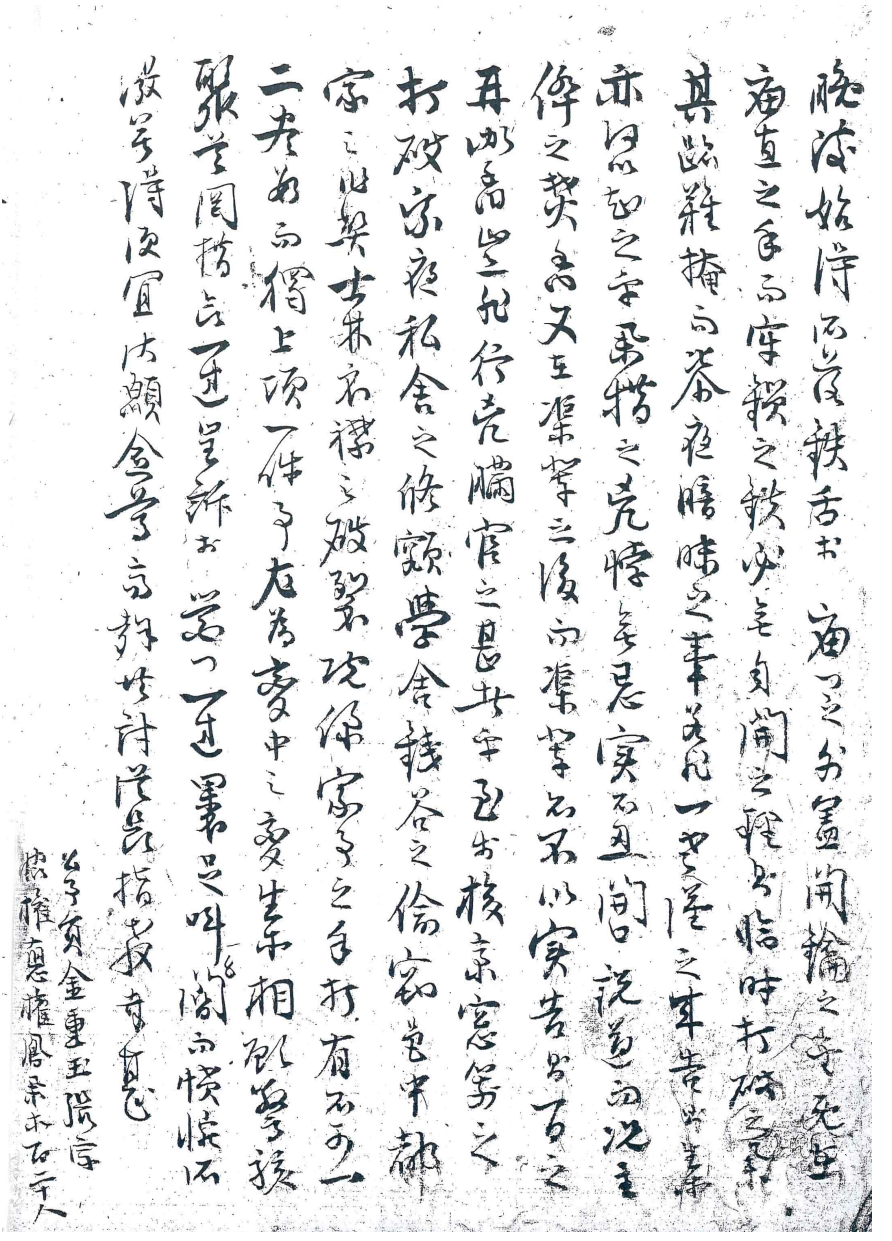
答陶山書院道內會中通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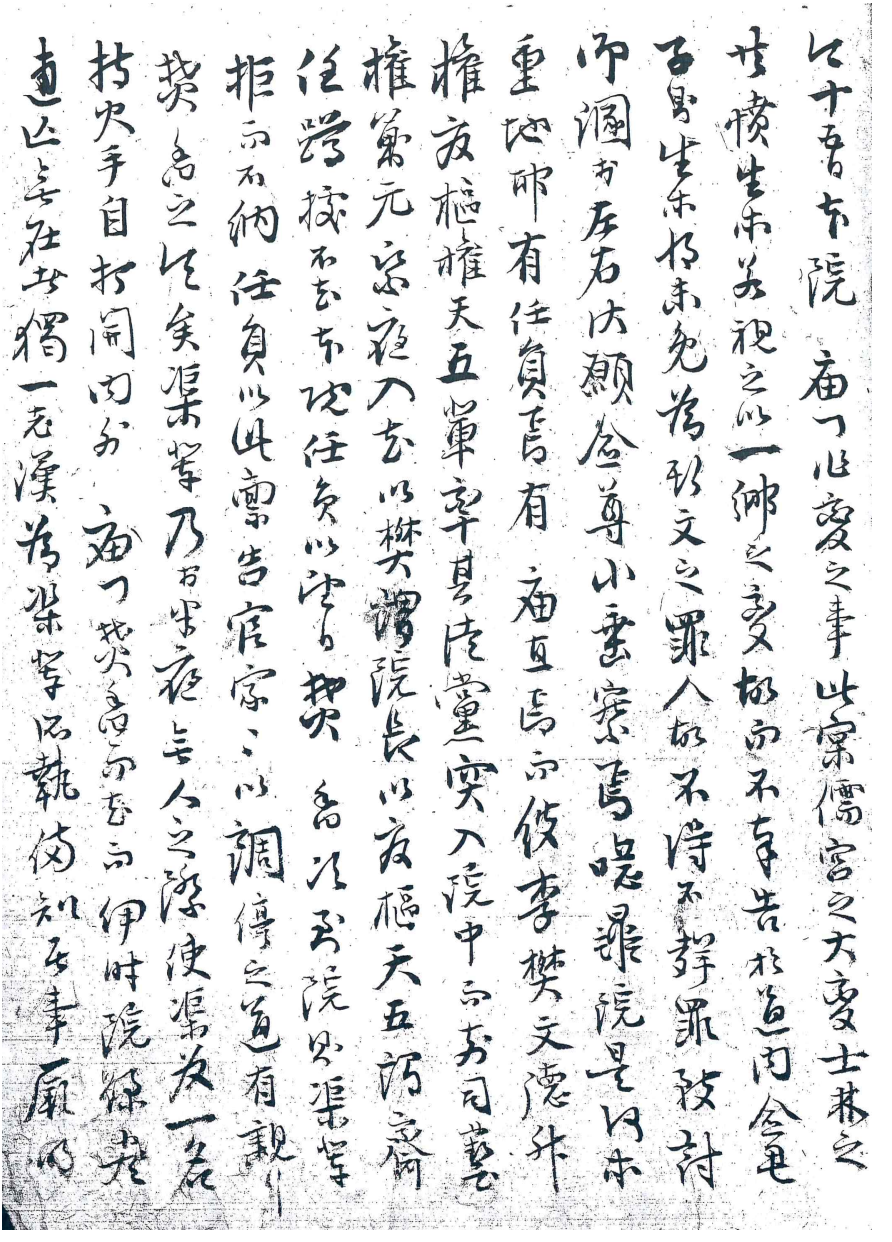
右文爲回諭事謹承本月十五日通示文字道內章甫將各會于陶院訂正 老先生言行錄實斯文盛舉也孰不欽聳激勵掃萬馳赴而第鄙院適有公冗私憂未得進參於席末恭聽諸君子的確之論不勝愧悚竊伏念 言行錄一事是何等重大而添刪可否之間生得無恨風浪遠近聽聞已是慨然而鄙院既未承見兩邑通文及辨證辨惑兩錄於近來是非条款有所懵然不敢白撰爲說而但兩邑所刊俱未得十分穩當致有此爭端矯救之道莫若取其兩本而消詳參證以成一本身一時之岐議自定百世之公論無愧矣且念雪翁當初纂集之意豈不精詳信實而諸家謄本別取移錄之際未免與真本有些差異處身花山之必欲堅執似非爲雪翁地宣城之日它激端侵及雪翁亦此後生待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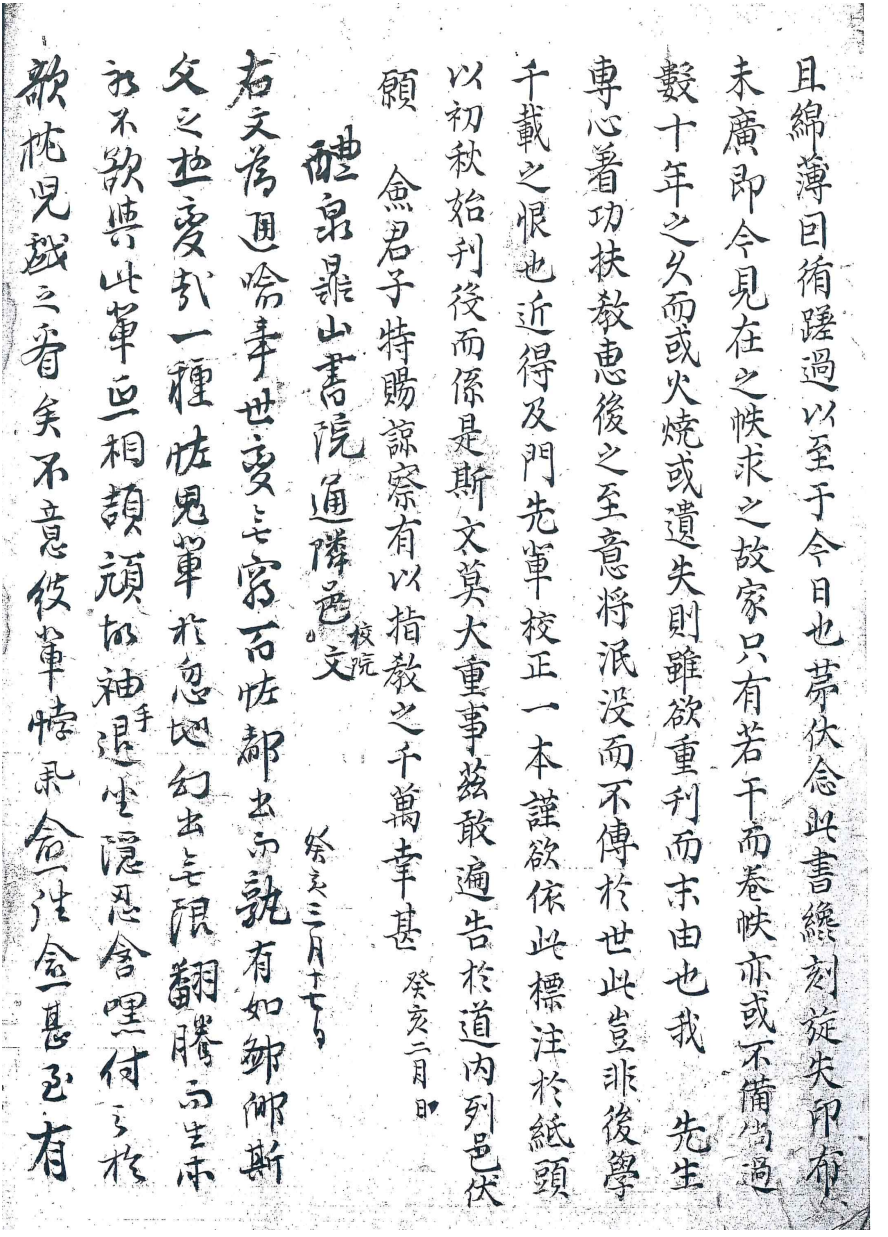


荅鼎山書院通文草

右文爲回諭事向承通示文字仰悉貴院遭變曲折不覺心寒氣短世間事雖無所不有而似此舉措曾所未聞事變層生闔境騷擾而乖激轉甚不小調定禮義名鄉畢竟有顛錯駭異之事爲之慨然傷歎有不能已也竊伏惟念鼎山書院是我 老先生揭虔之所自 先朝宣額崇奬積有年紀其地位之尊重禮皃之嚴截當復如何甫禋 廟門不當乘夜潛開 香火展敬不合一日再舉 慢賢辱院至此而極則查實懲治雖在於本郡太守 巡相閤下而聲罪施四訓亦道內章甫之所不可已欲俟公案結束一番齊會本所遵倣鳴鼓之攻杜絕日後之弊未知僉君子以爲如何事當趁速回報而任負遠數旬出外蹉過至今殊愧以隣之誼伏惟並賜諒照千萬幸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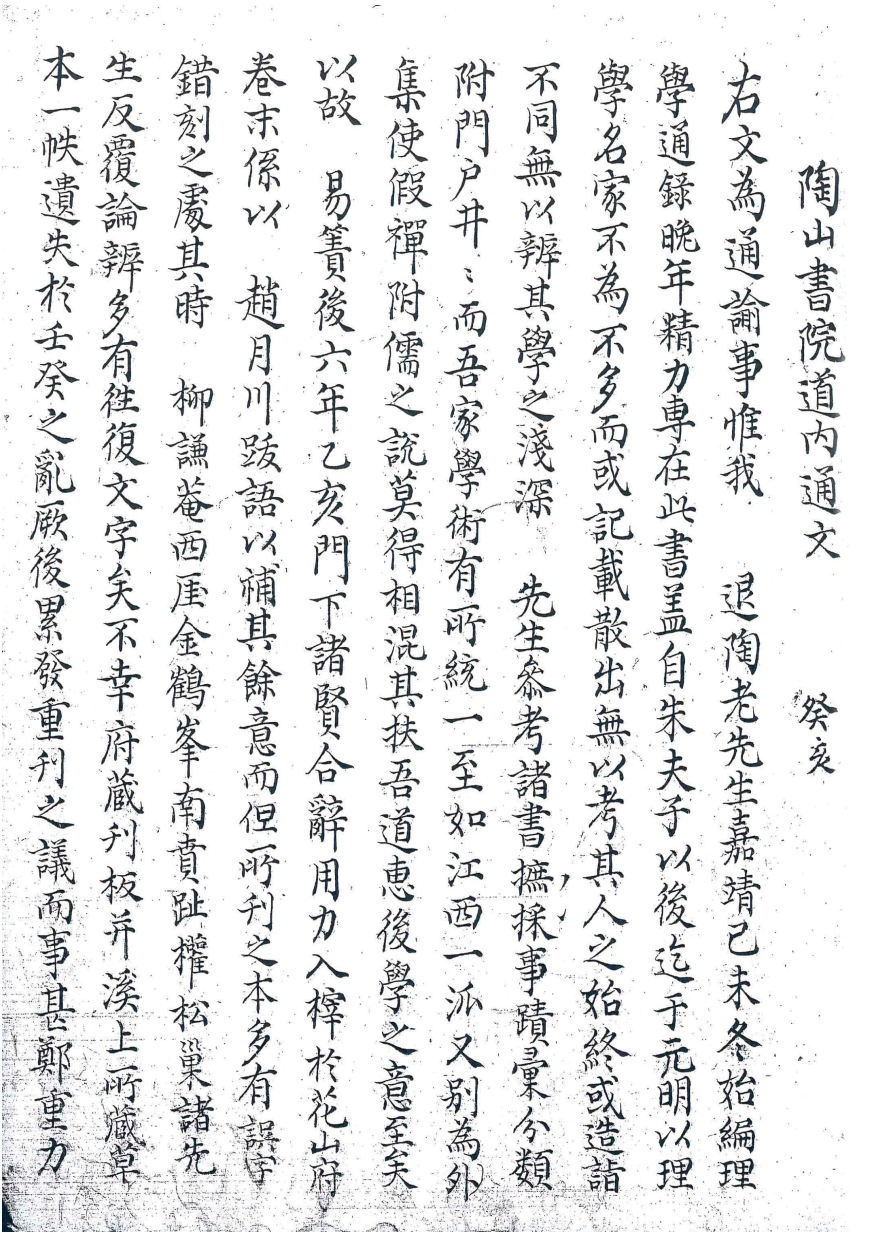




且綿薄因循蹉過以至于今日也茅伏念此書纔刻旋失印布
未廣即今見在之帙求之故家只有若干而卷帙亦或不備尚過
數十年之久而或火燒或遺失則雖欲重刊而末由也我 先生
專心着功扶教惠後之至意將泯沒而不傳於世此豈非後學
千載之恨也近得及門先輩校正一本謹欲依此標注於紙頭
以初秋始刊役而係是斯文莫大重事茲敢遍告於道內列邑伏
願 僉君子特賜諒察有以指教之千萬幸甚 癸亥二月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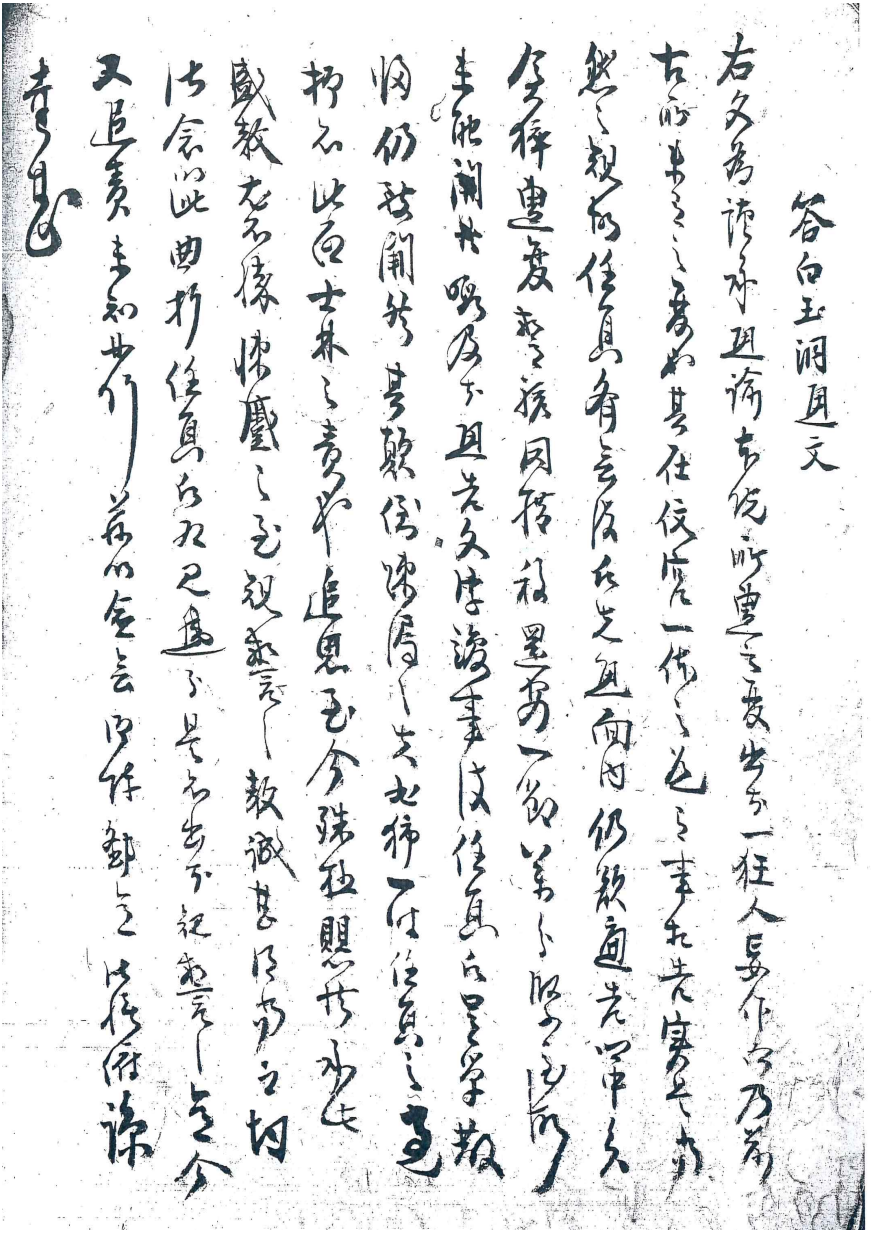
醴泉鼎山書院通隣邑校院文 癸亥三月十七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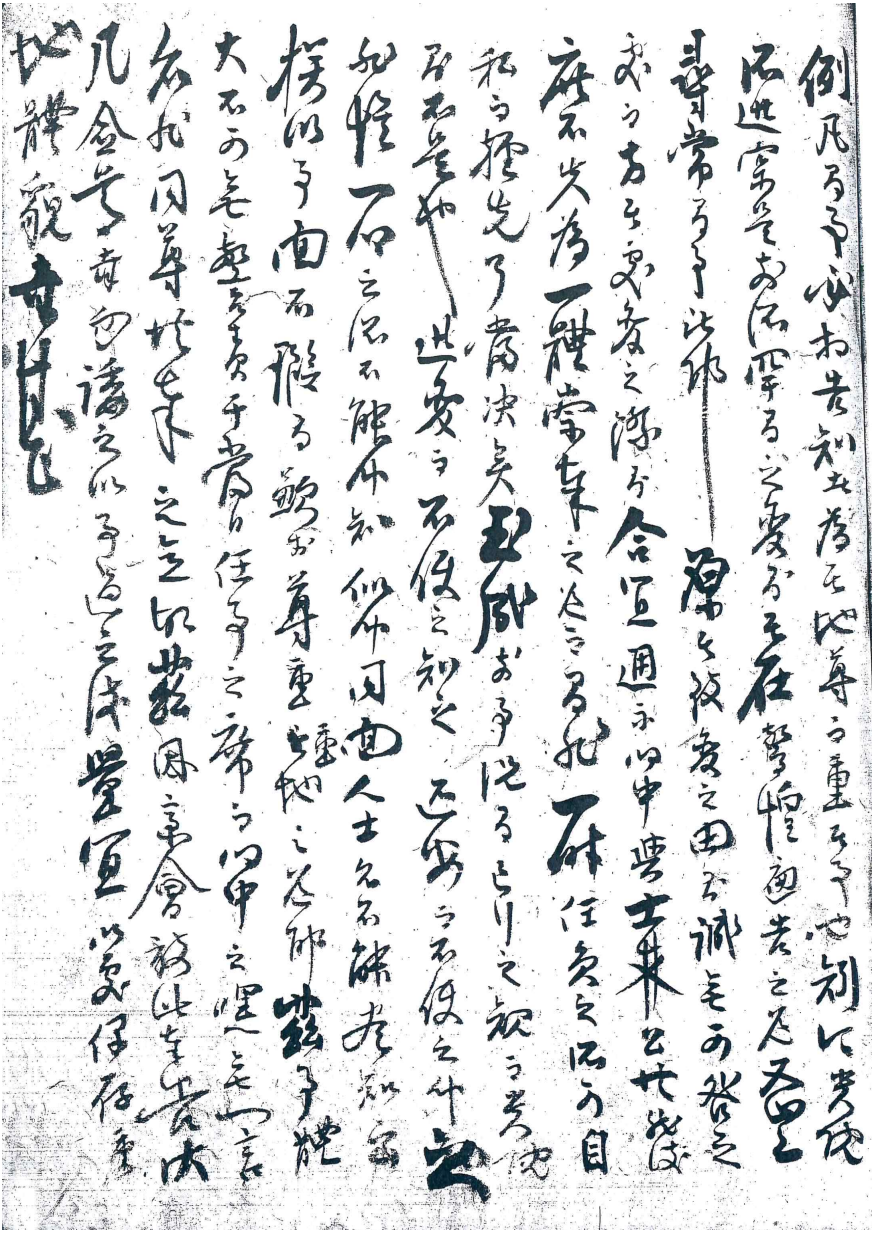
右文爲通喻事世變之窮百怯都出而孰有如鄒卿斯
文之極變哉一種怯鬼輩於忽地幻出之限翻騰而生未
知不欲與此輩亟相頡頏故袖手退坐隱忍含嘿付之於
歎枕兒戲之看矣不意彼輩悖風愈往愈甚至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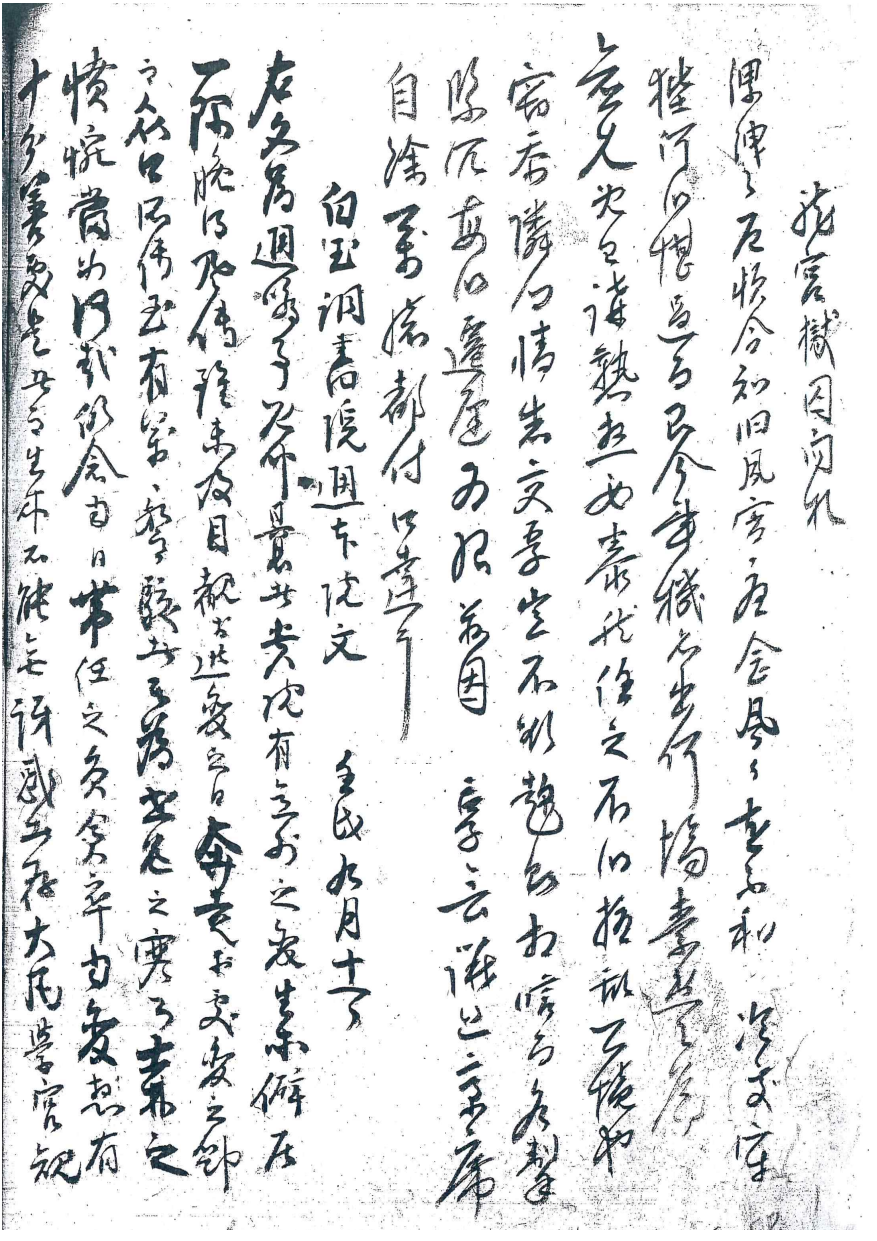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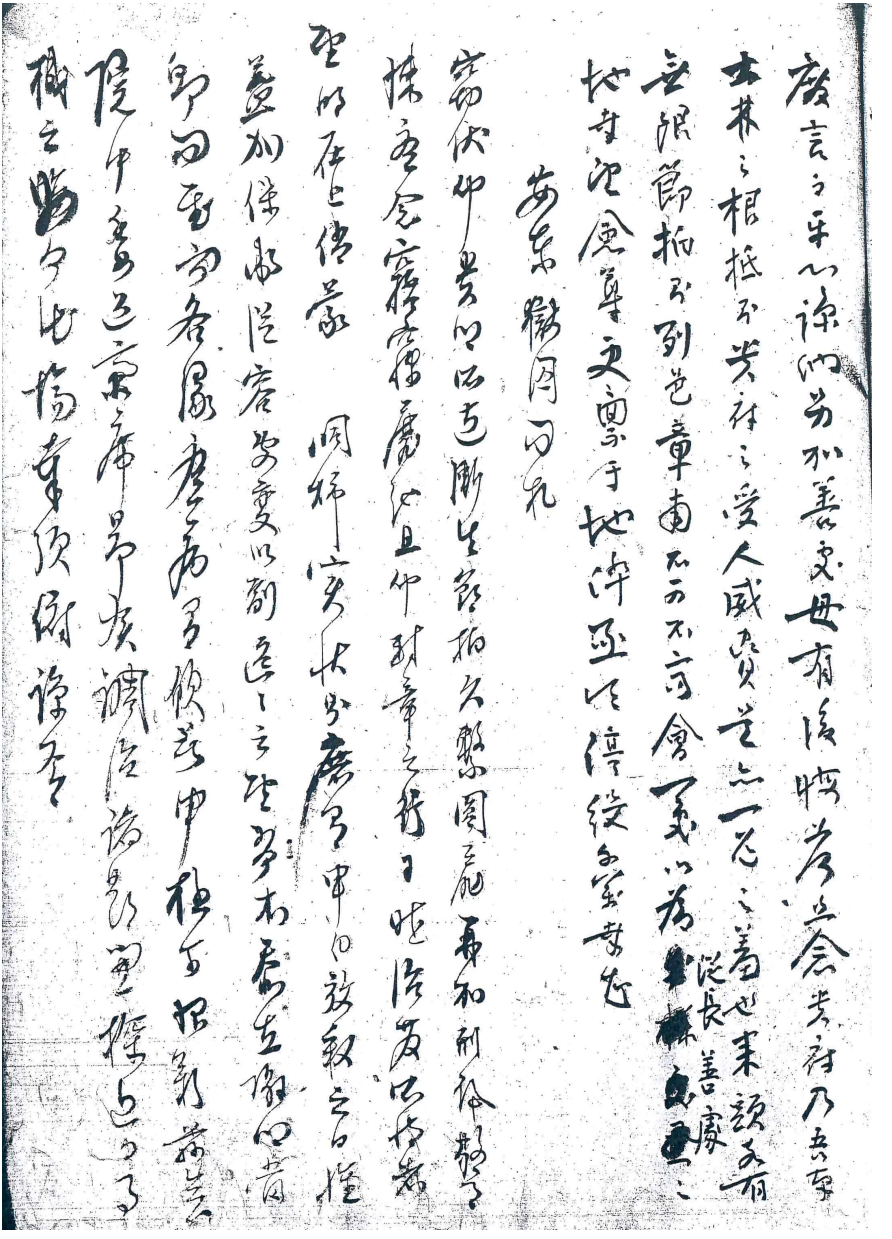
陶山書院道內通文　　癸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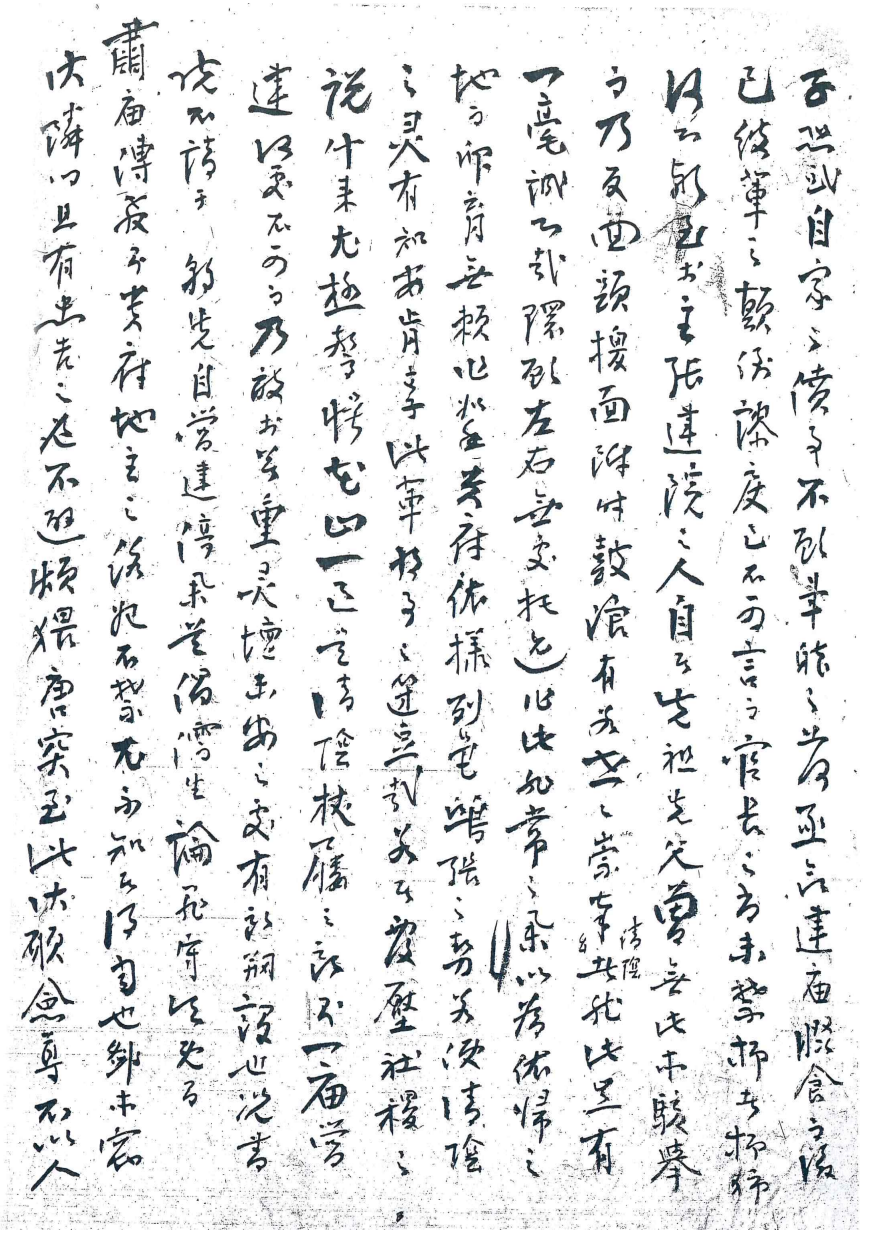
右文爲通諭事惟我　退陶老先生嘉靖己未冬始編理學通錄晩年精力專在此書盖自朱夫子以後迄于元明以理學名家不爲不多而或記載散出無以考其人之始終或造詣不同無以辨其學之淺深　先生參考諸書撫採事蹟彙分類附門戶并而吾家學術有所統一至如江西一派又別爲外集使假禪附儒之說莫得相混其扶吾道惠後學之意至矣以故　易簀後六年乙亥門下諸賢合辭用力入梓於花山府卷末係以　趙月川跋語以補其餘意而但所刊之本多有誤字錯刻之處其時　柳謙菴西厓金鶴峯南責趾權松巢諸先生反覆論辨多有往復文字矣不幸府藏刊板并溪上所藏草本一帙遺失於壬癸之亂厥後累發重刊之議而事甚鄭重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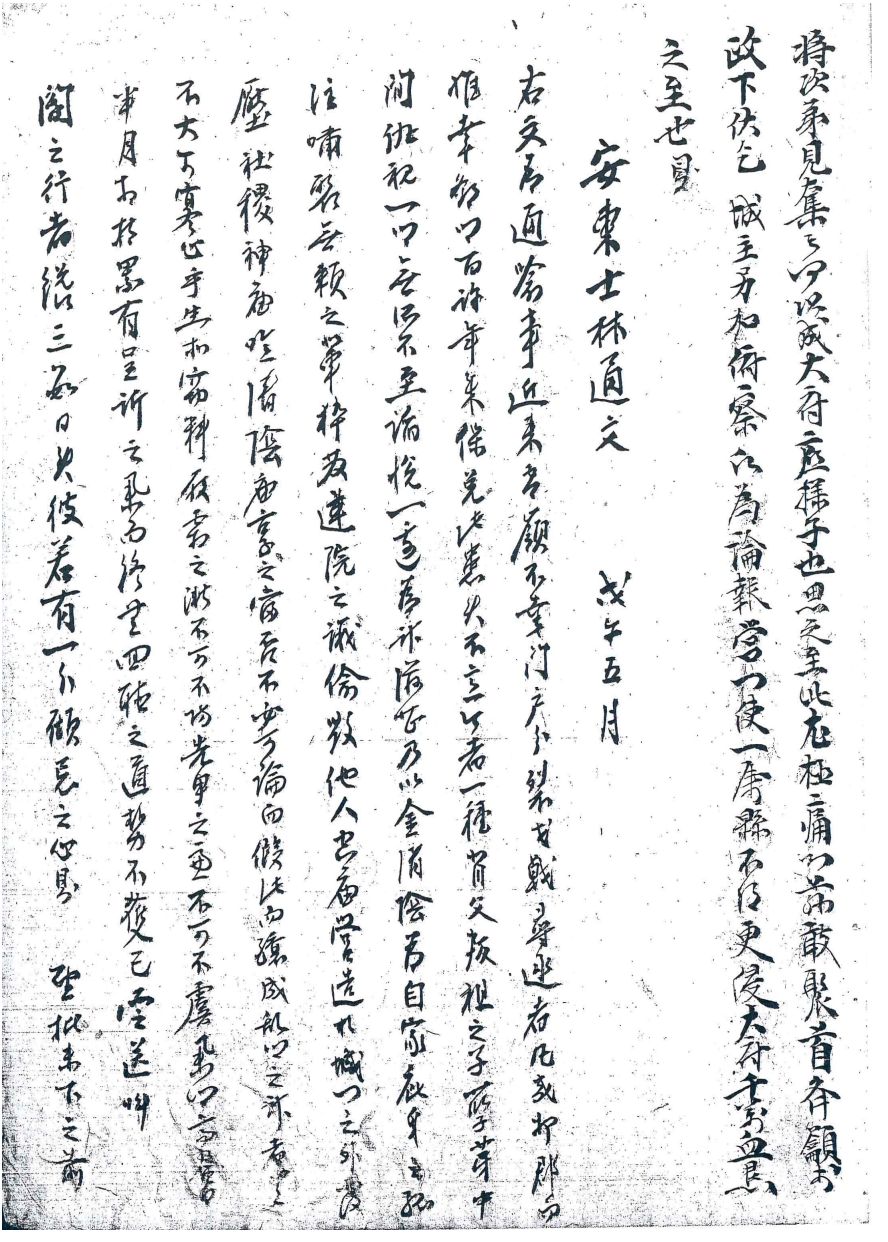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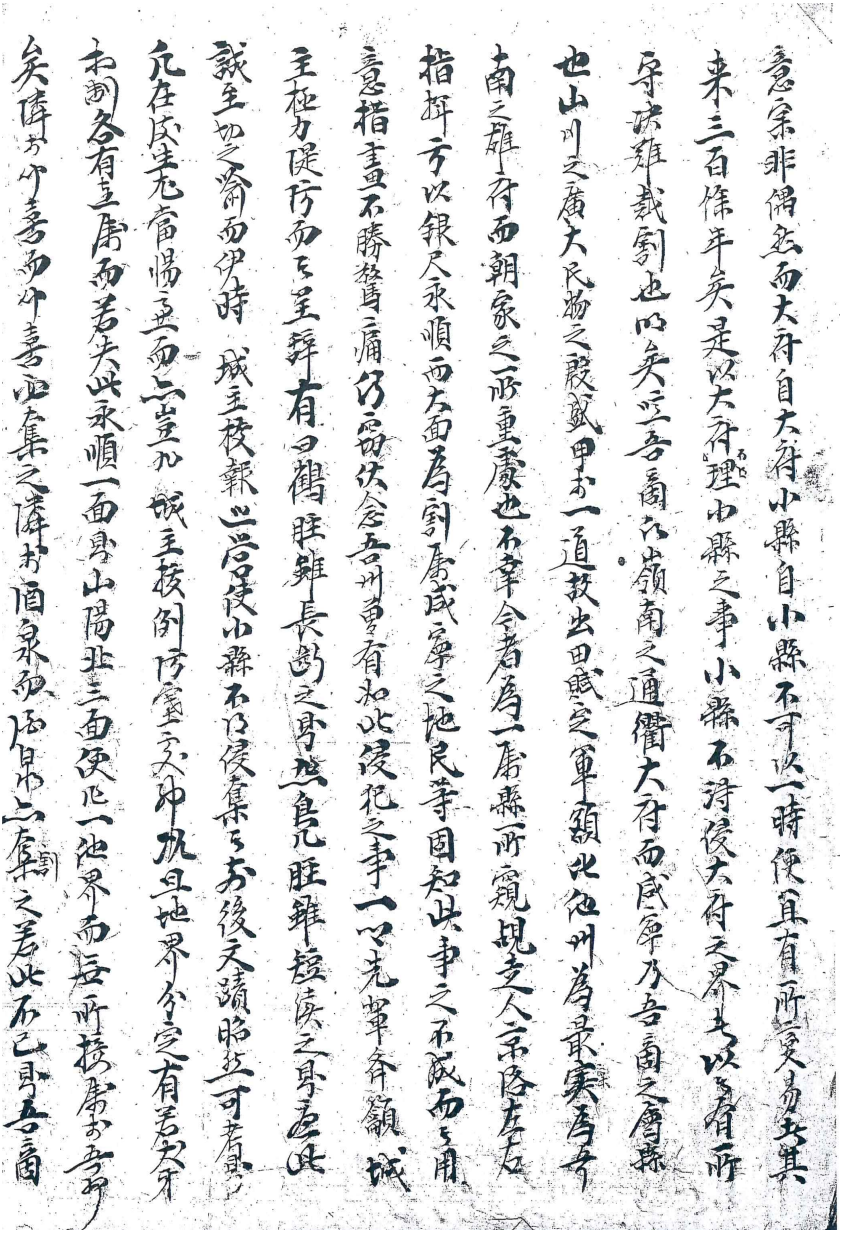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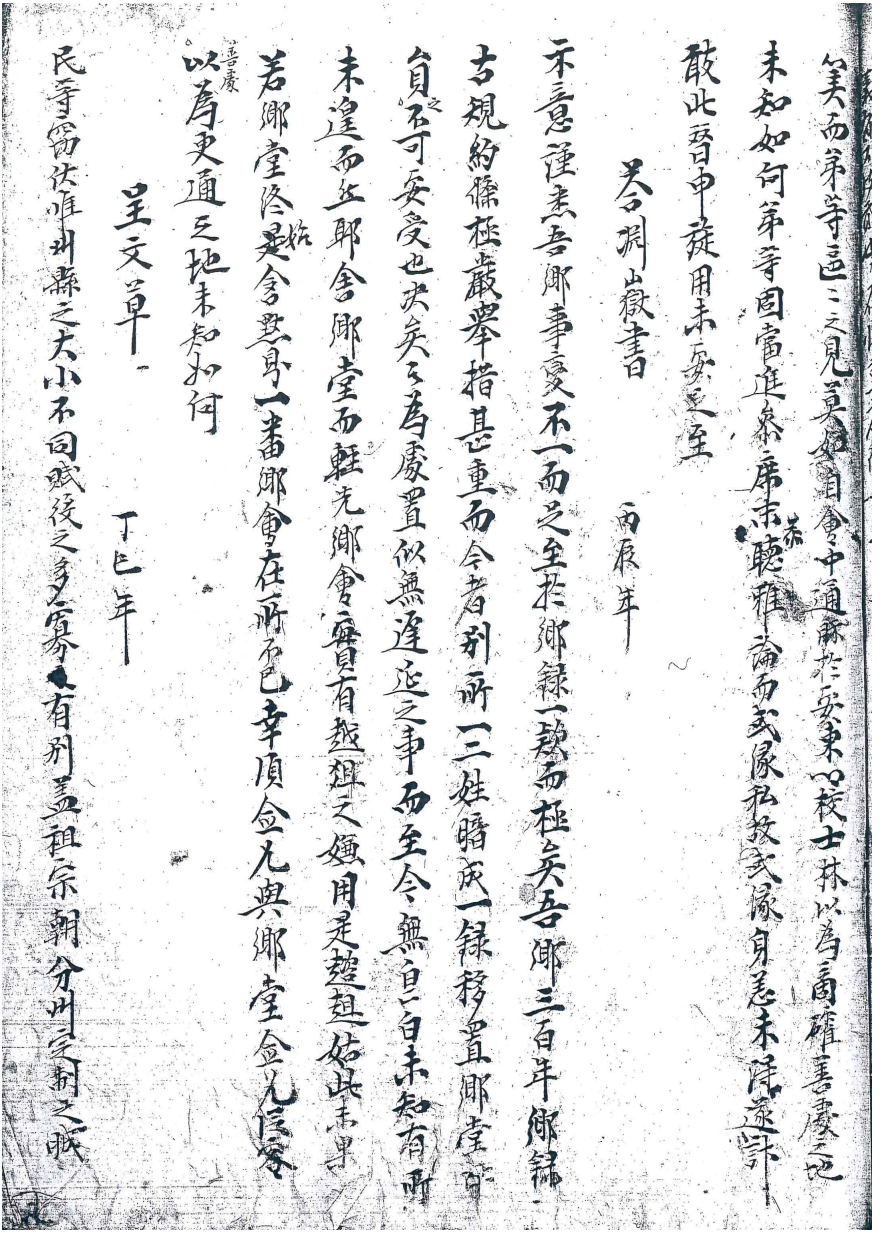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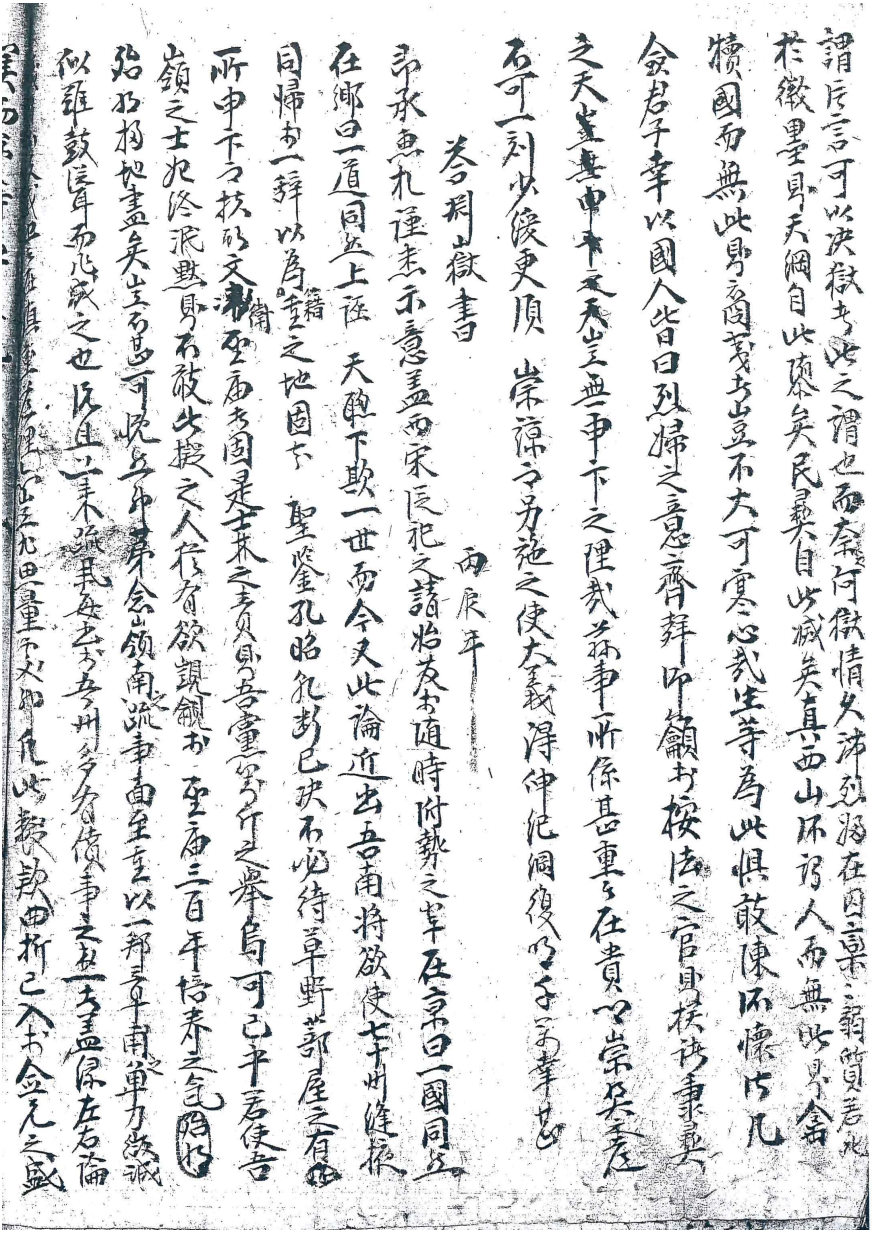
笑而弟等區區之見莫如自會中通脉於安東以校士林以爲商確善處之地
未知如何弟等固當進參席末恭聽雅論而或緣私故或緣身恙未得遂計
敢此晉申旋用未安之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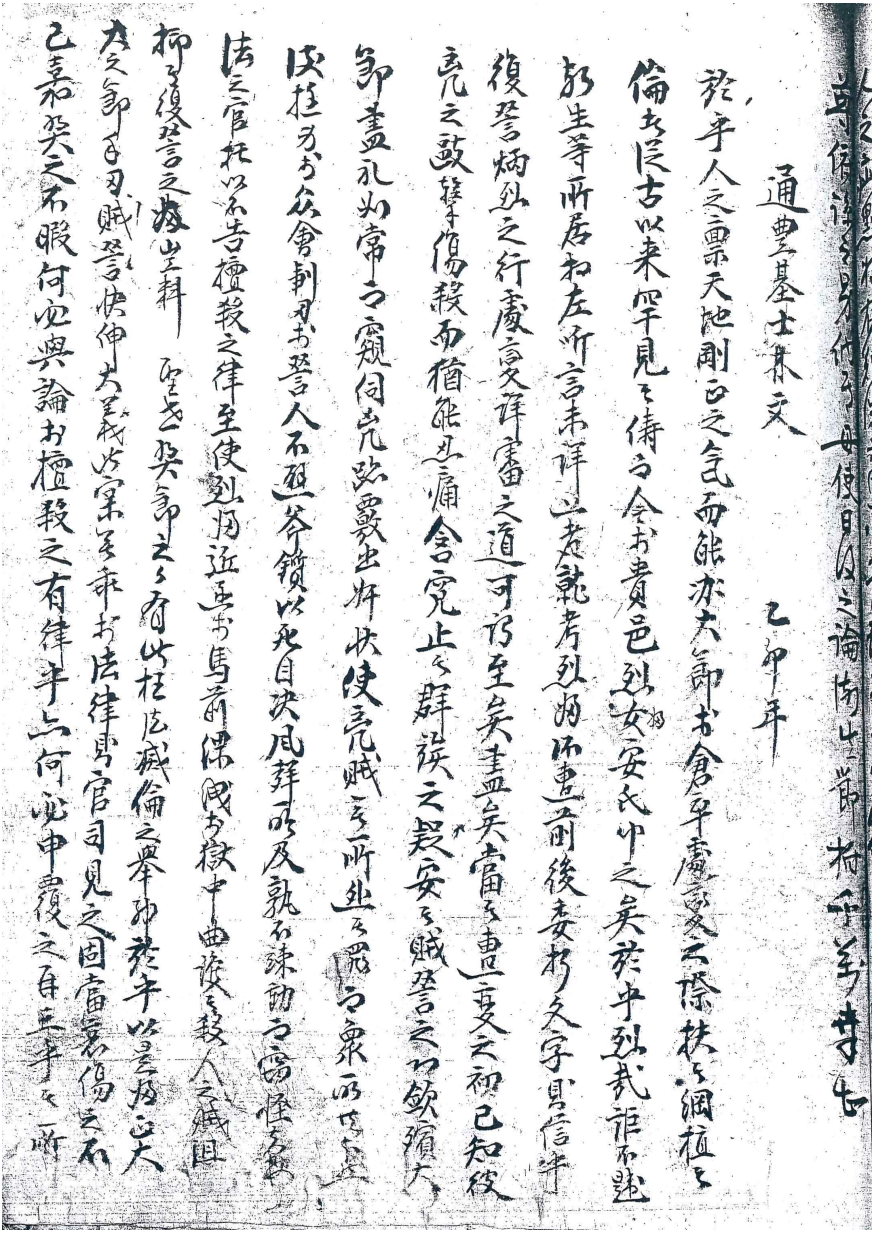
答淵嶽書　丙辰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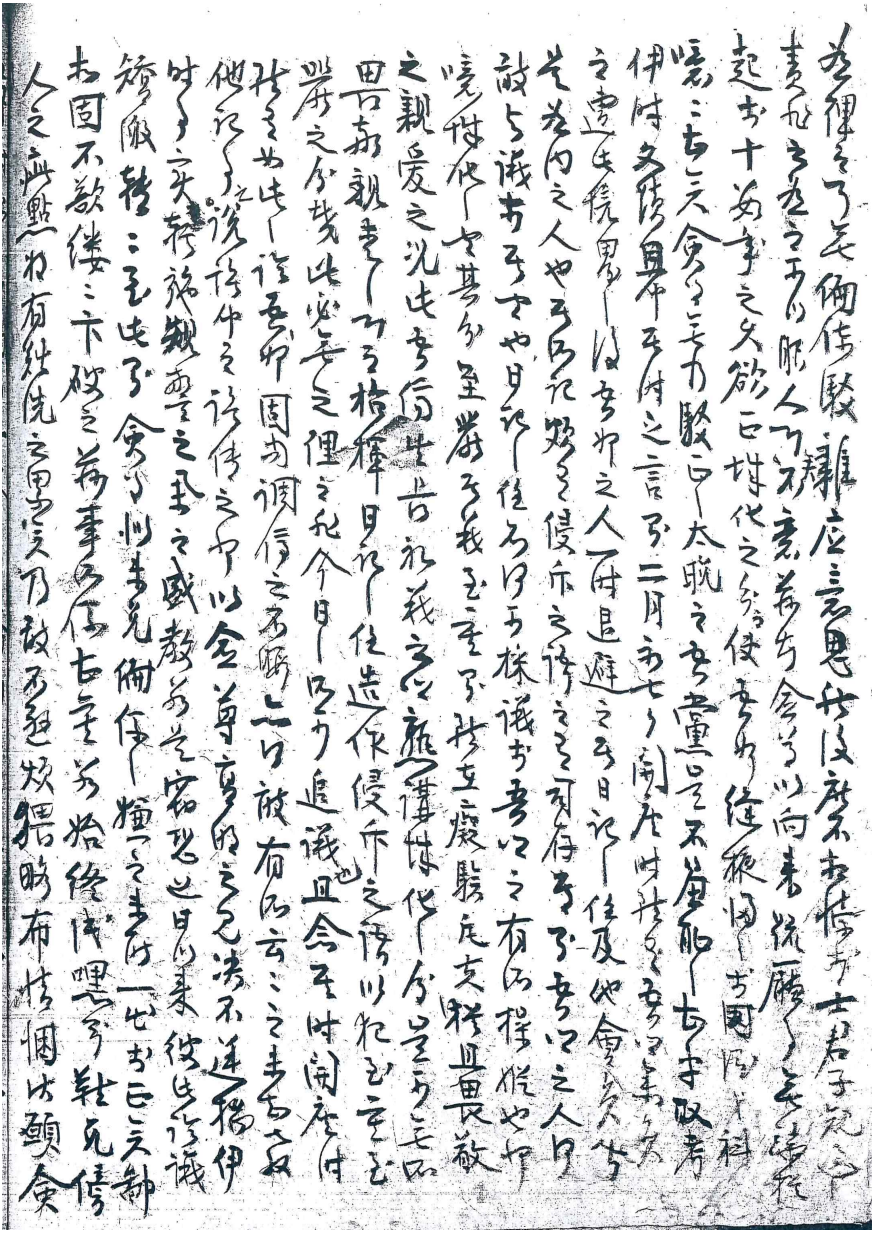
示意謹悉吾鄉事變不一而足至於鄉錄一款而極矣吾鄉三百年鄉錄
古規約條極嚴舉措甚重而今者別所一二姓暗成一錄移置鄉堂自
負之不可妄受也決矣之爲處置似無遲延之事而至今無自白未知有所
未遑而然耶舍鄉堂而輕先鄉會實有越俎之嫌用是趦趄姑此未果
若鄉堂終始含默身一番鄉會在所不已幸須僉允與鄉堂僉允從容
以善處爲更通之地未知如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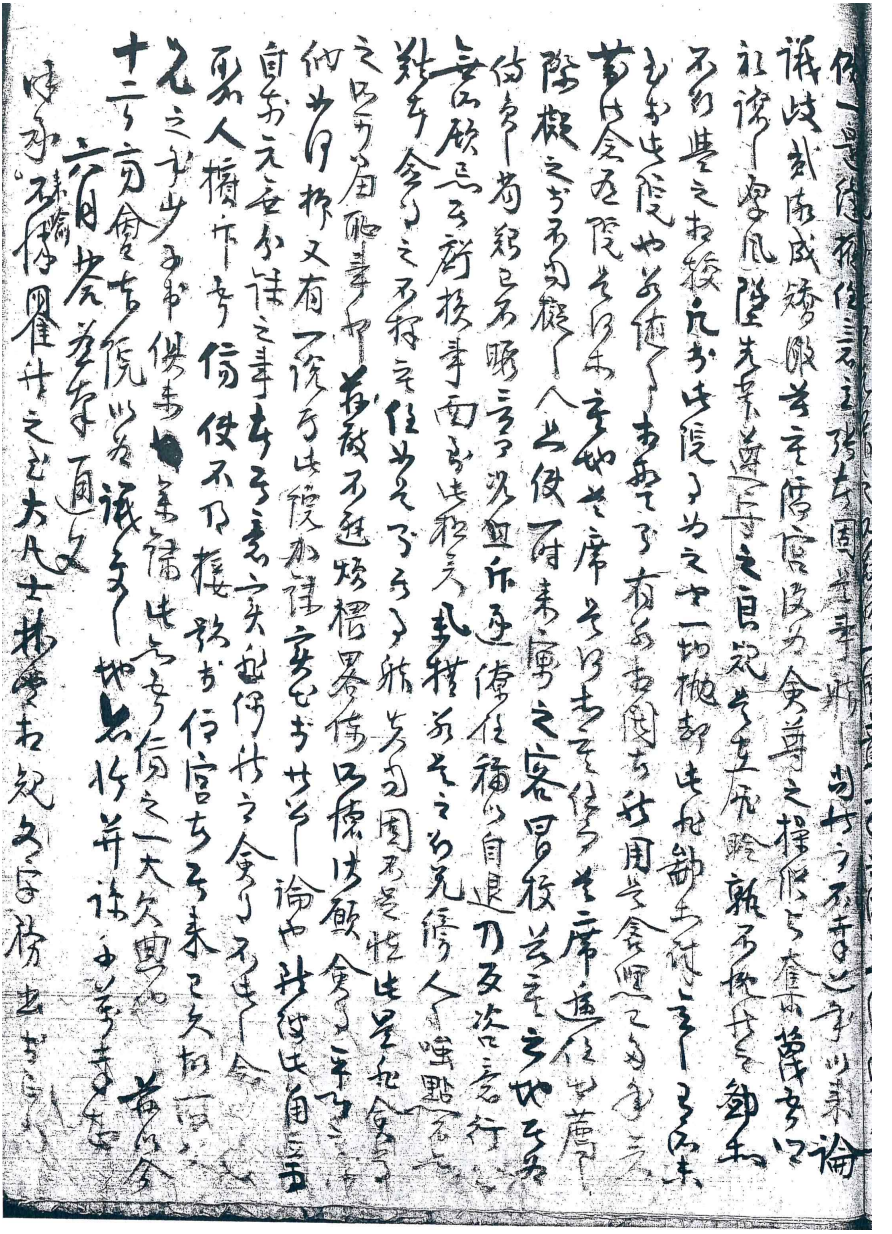
呈文草　丁巳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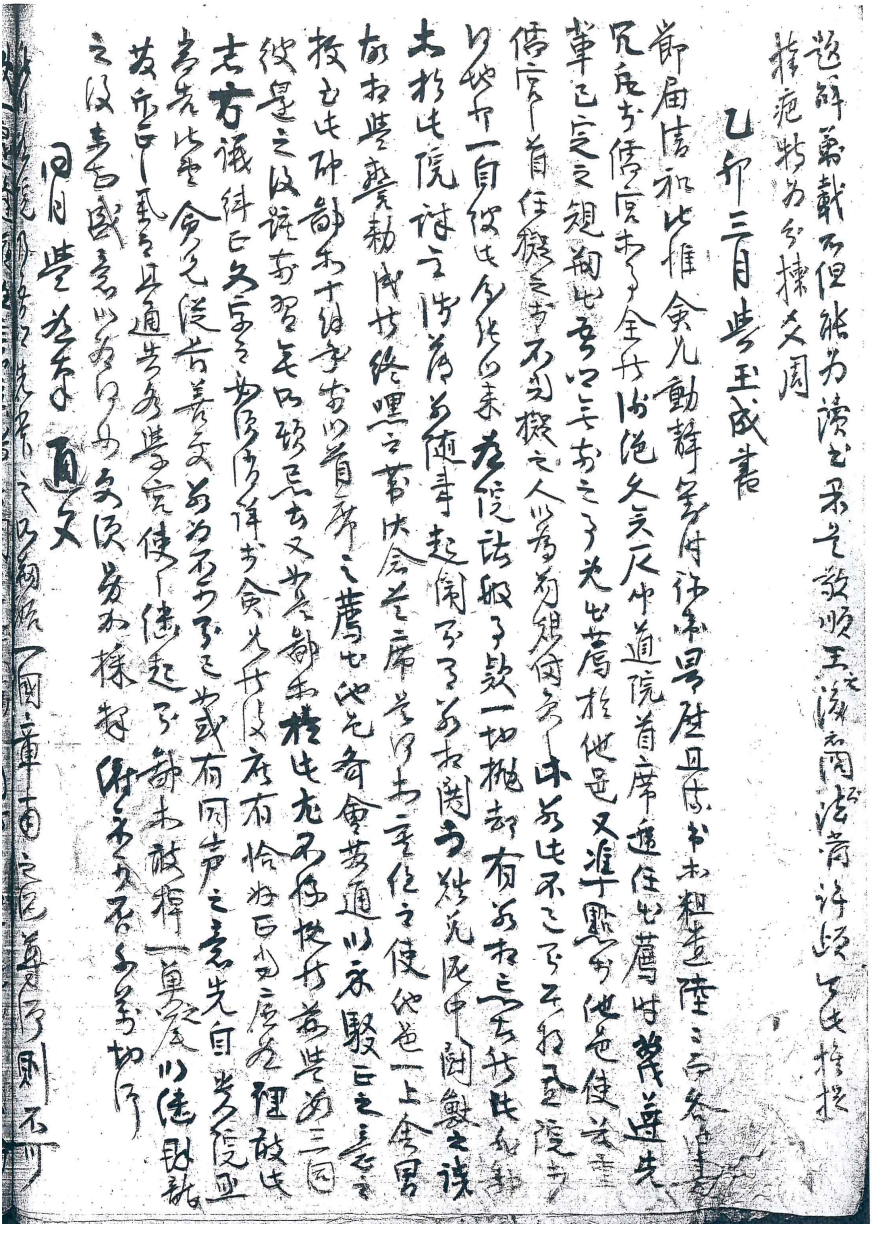
民等竊伏唯州縣之大小不同賦役之多寡有別蓋祖宗朝分州定制之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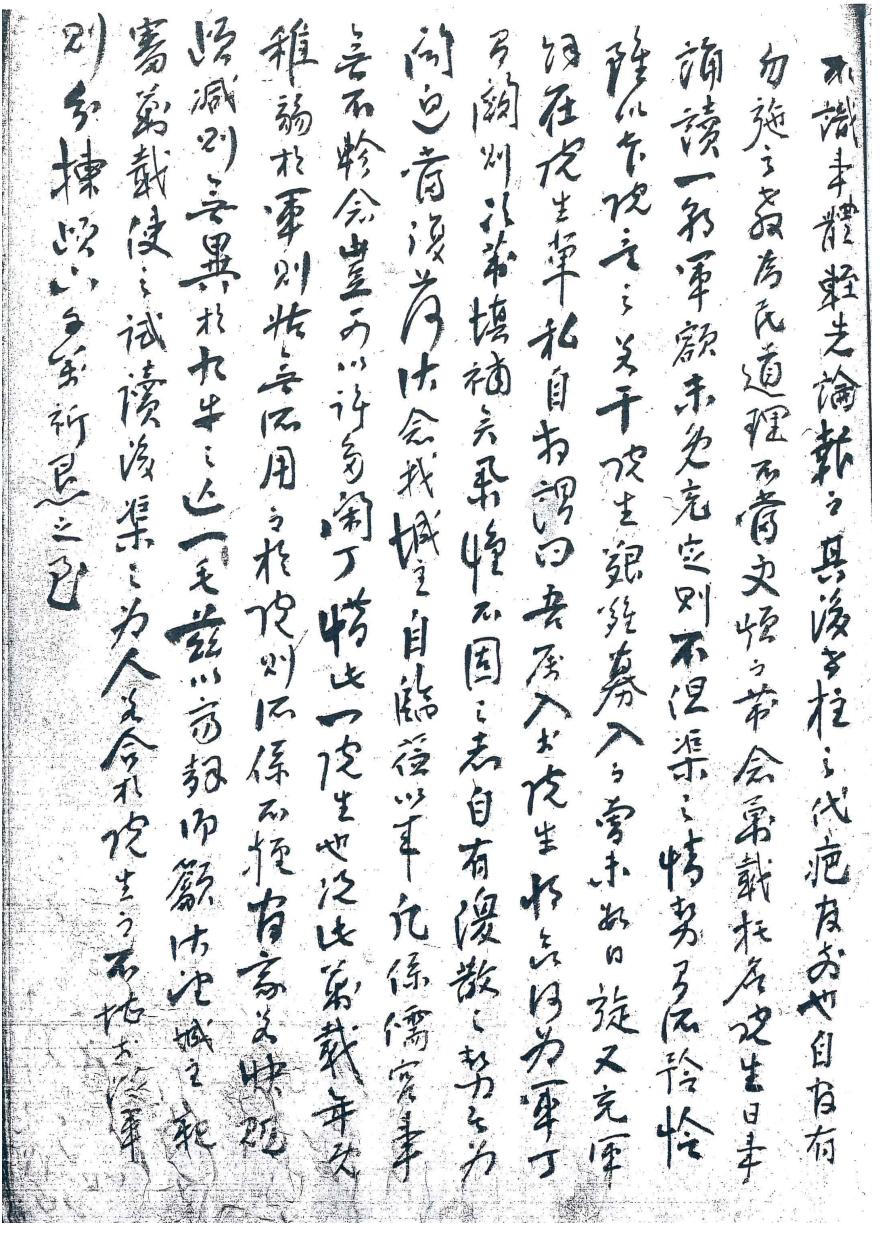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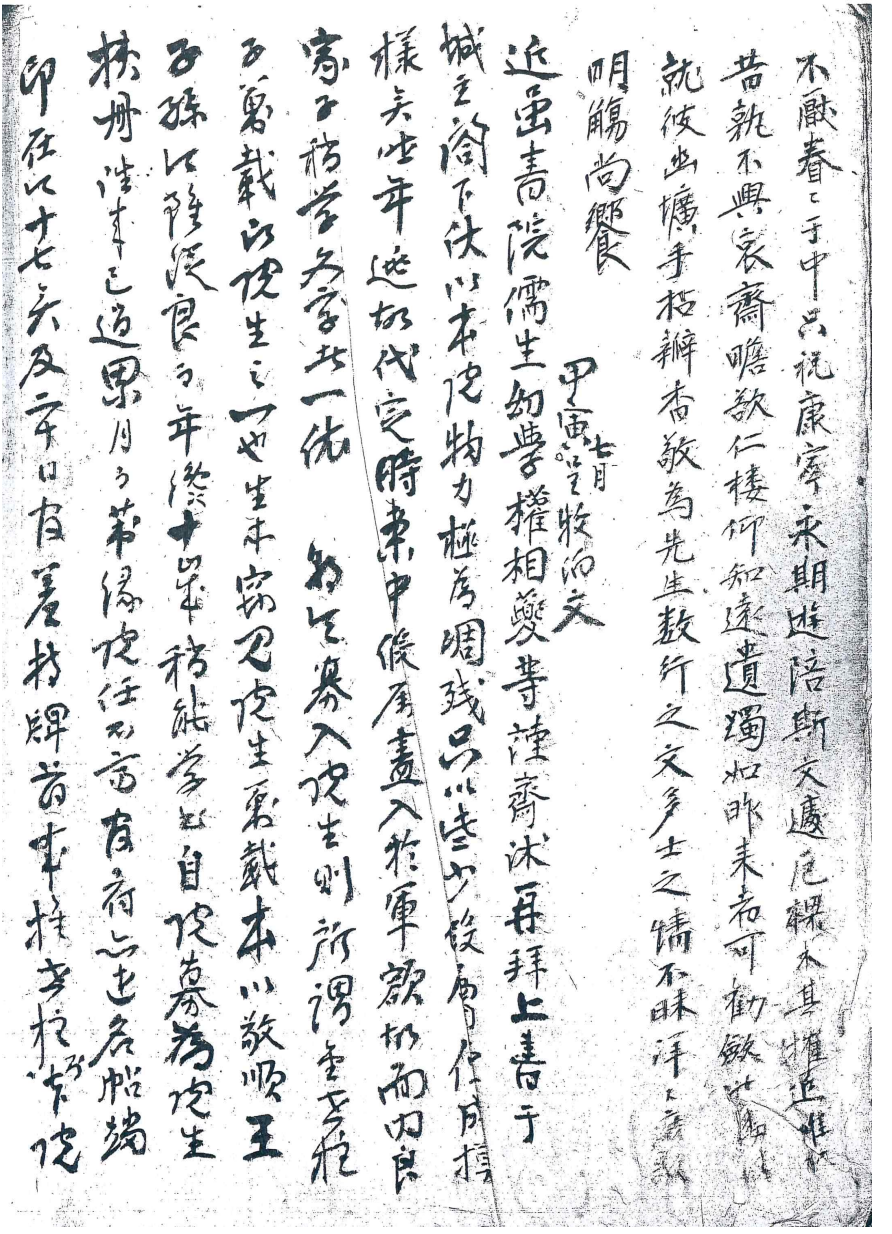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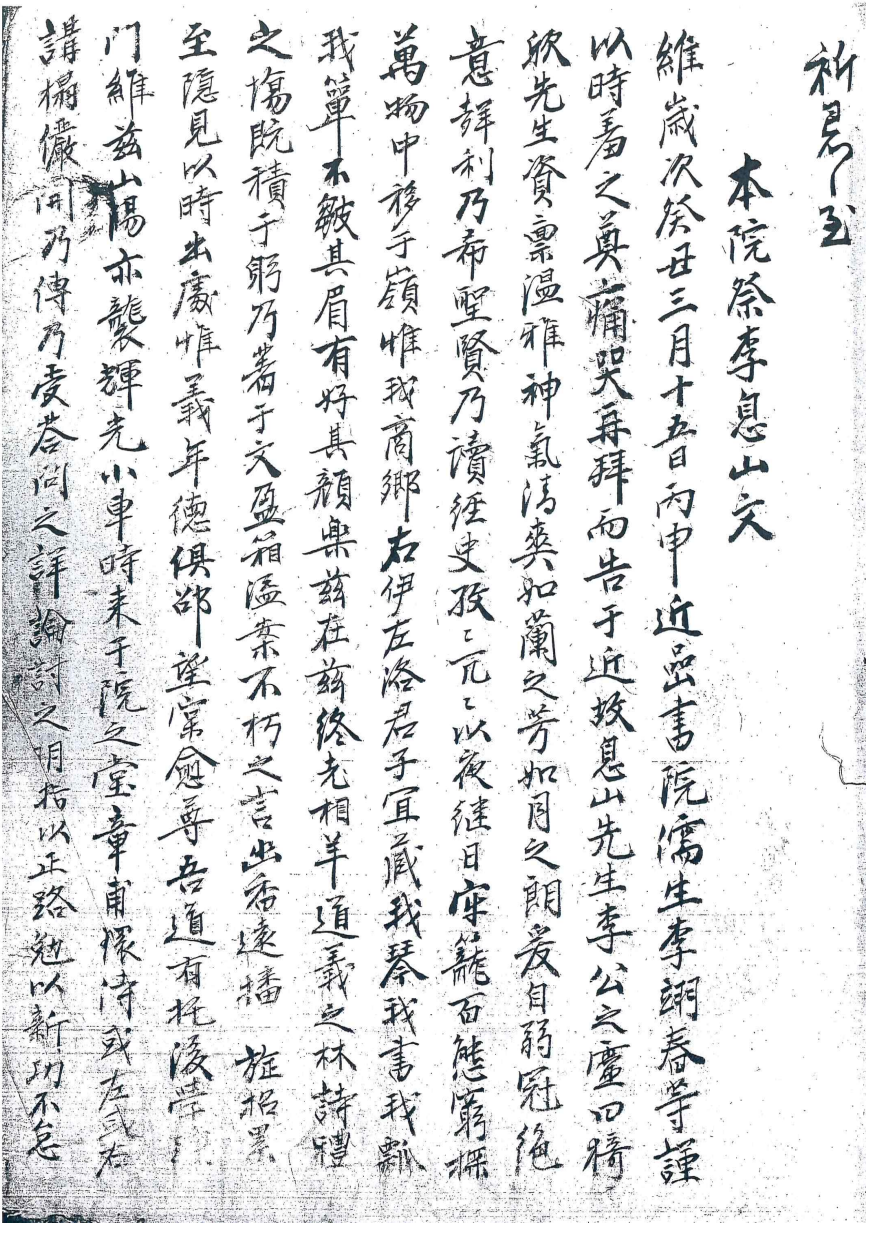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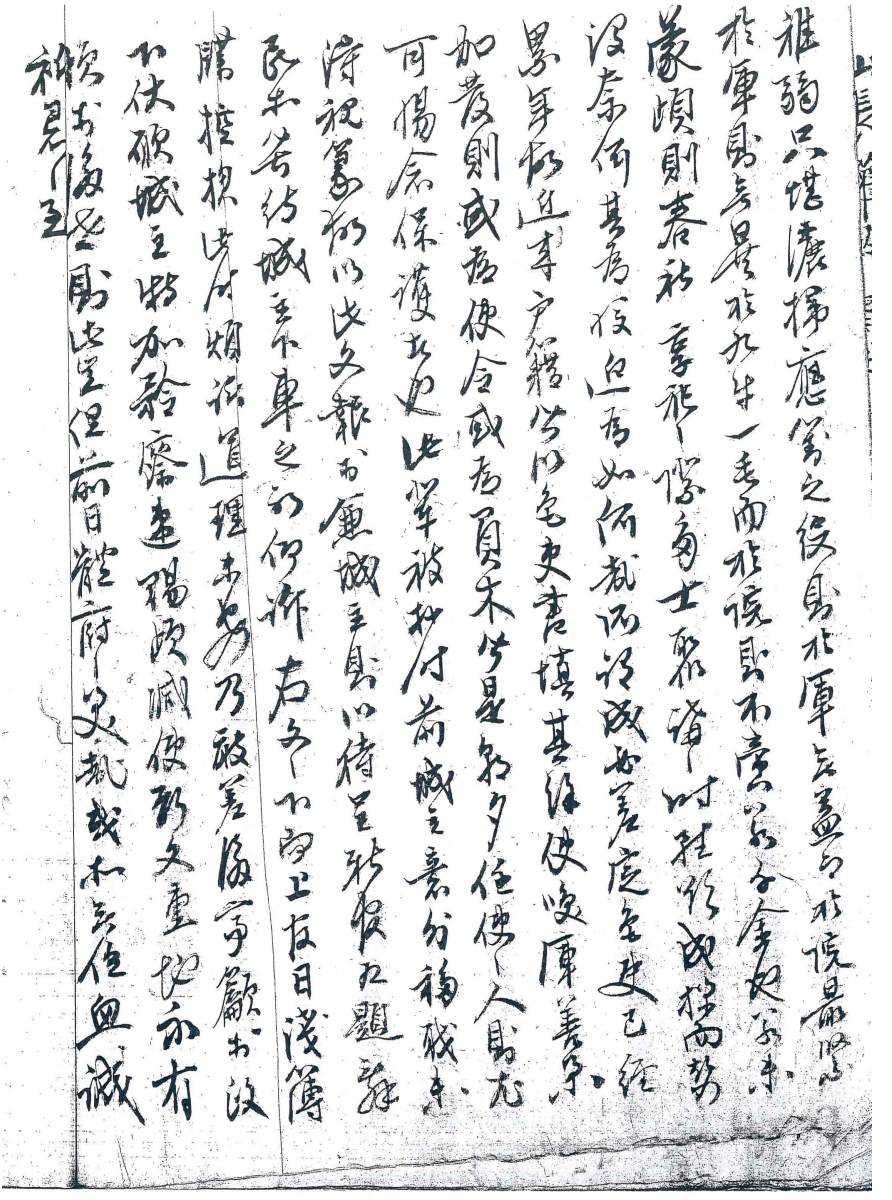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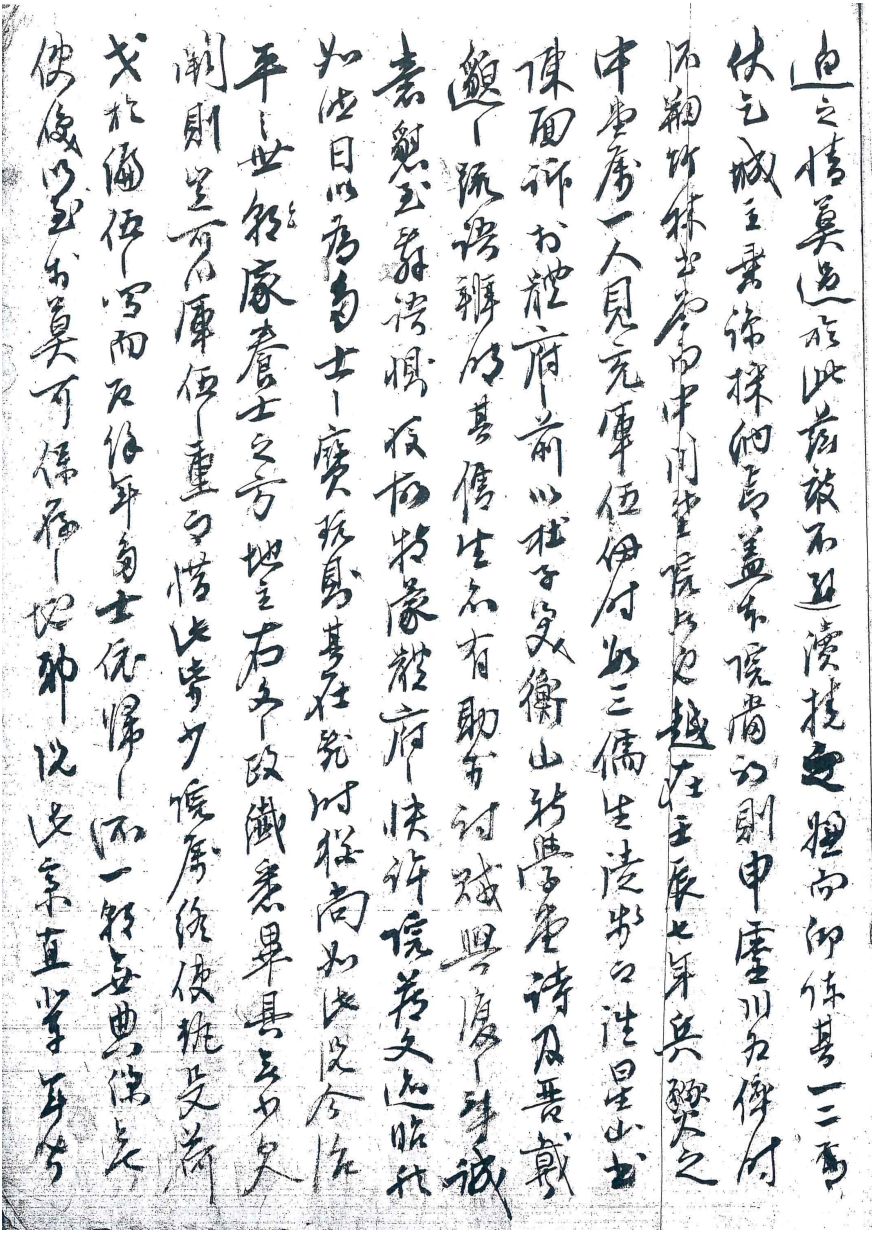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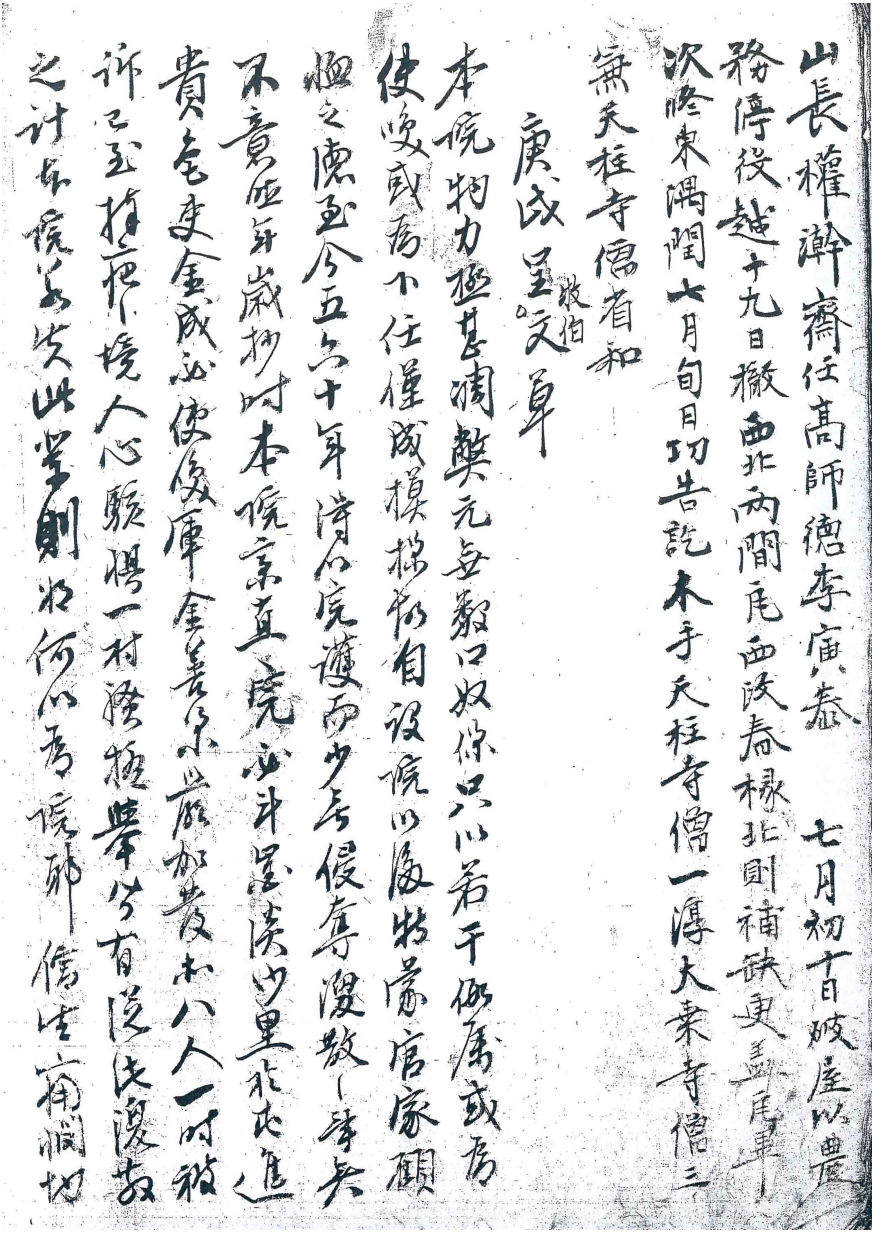
祈昌至

本院祭李息山文

維歲次癸丑三月十五日丙申近嵒書院儒生李翊春等謹
以時羞之奠痛哭再拜而告于近坡息山先生李公之靈曰猗
欣先生資稟溫雅神氣清爽如蘭之芳如月之朗爰自弱冠絶
意聲利乃希聖賢乃讀經史孜孜兀兀以夜繼日宇籠百態窮探
萬物中移于嶺惟我商鄉右伊左洛君子宜藏我琴我書我瓢
我簞不皺其眉有好其顏樂茲在茲終老相羊道義之林詩禮
之場既積于躬乃著于文盈箱溢案不朽之言出希遠播旌招累
至隱見以時出處惟義年德俱邵望宗愈尊吾道有托後學[illegible]
門維茲山陽亦襲輝光小車時來于院之堂章甫懷侍或左或右
講榻儼開乃傳乃受荅問之詳論討之明指以正路勉以新功不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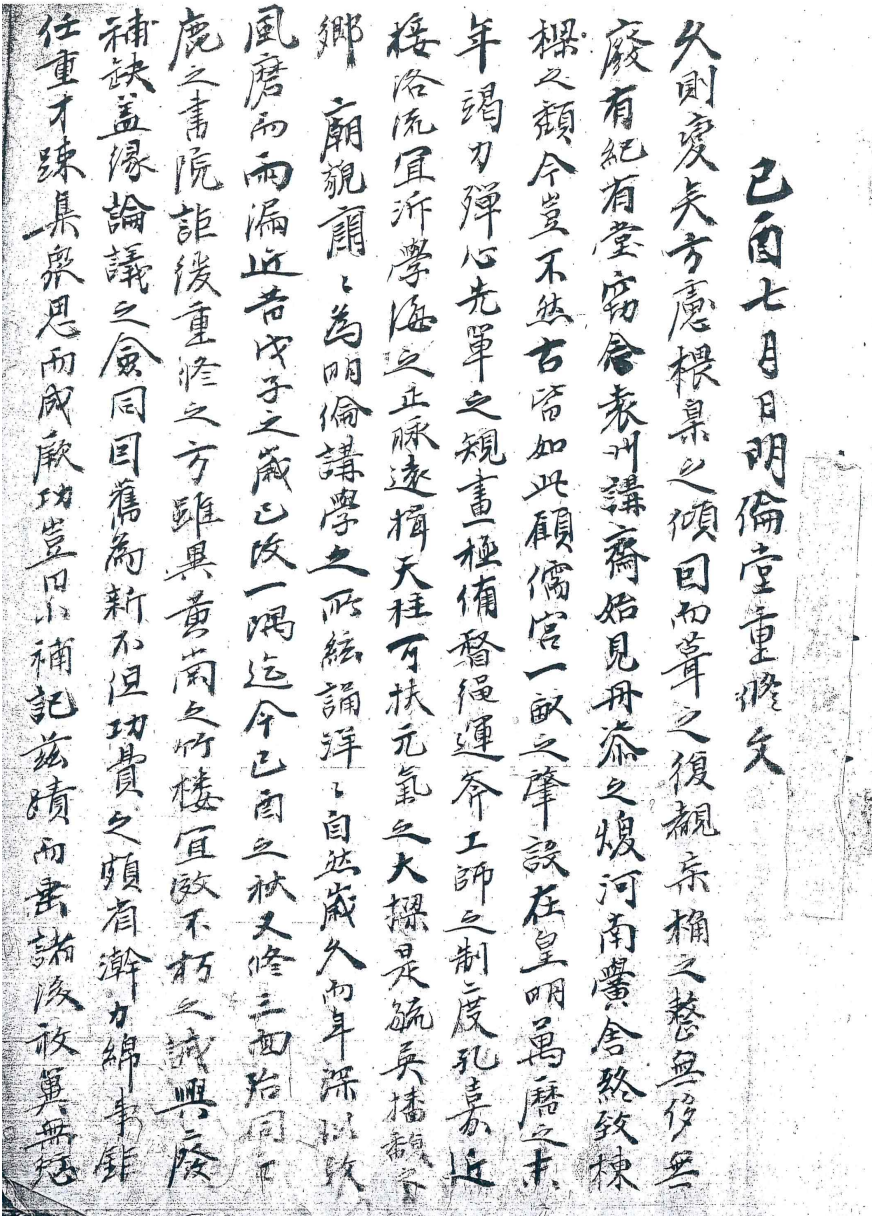




山長權澣齋任高師德李寅泰　七月初十日破屋以農
務停役越十九日撤西北兩間尾西改舂椽北則補缺更盖尾畢
次修東隅閏七月旬日功告訖木手天柱寺僧一淳大乘寺僧三
無天柱寺僧省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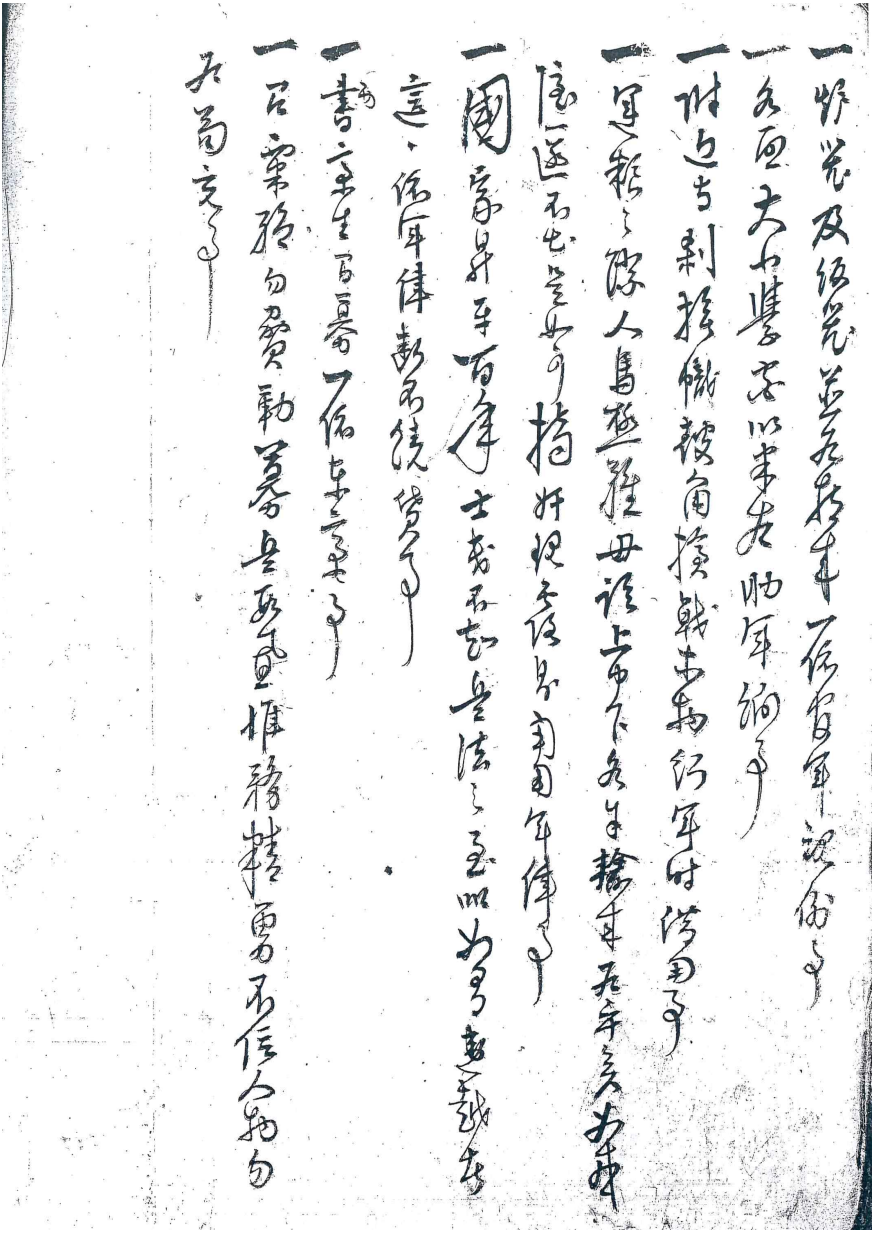
庚戌呈文草 牧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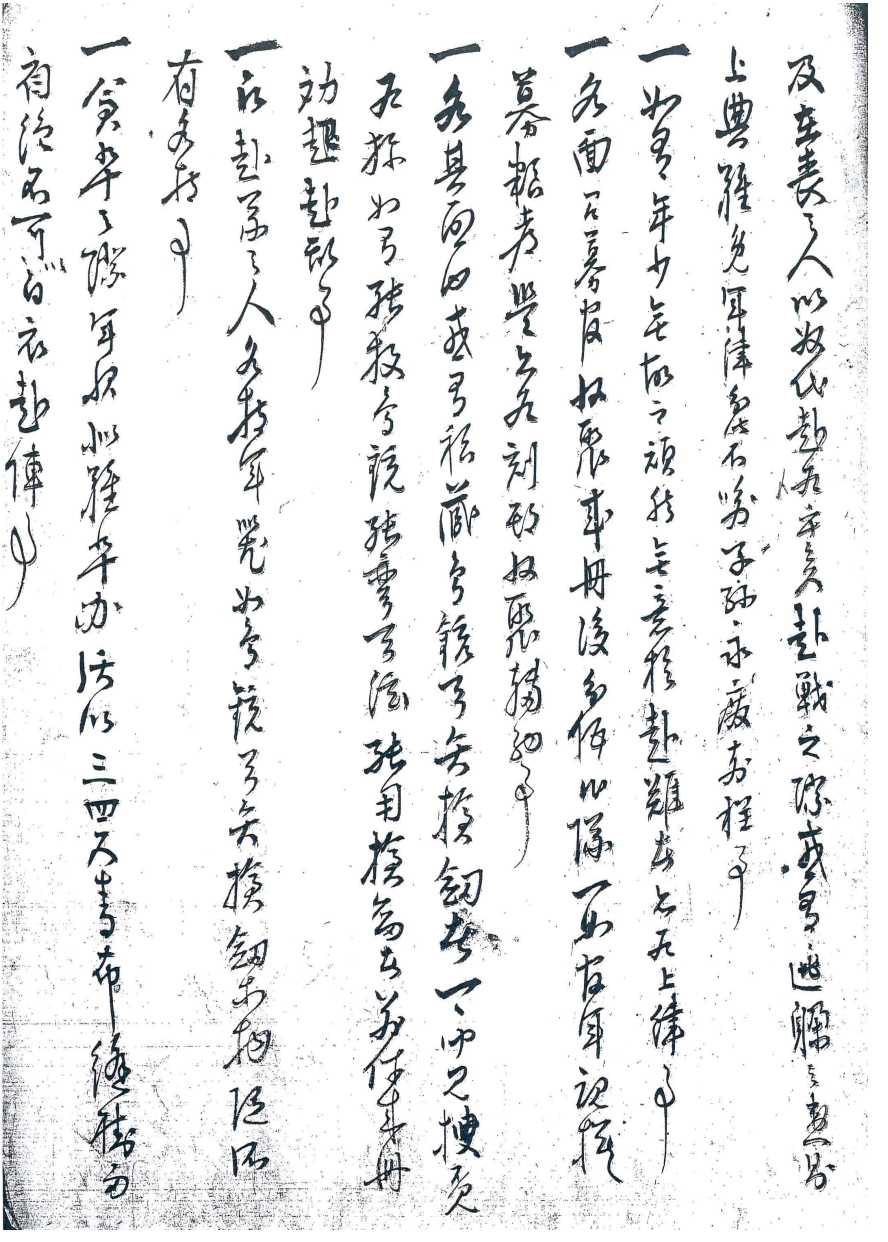
本院物力極甚凋弊元無穀口奴僕只以若干例屬或爲
使喚或爲下任僅成模樣所自設院以後特蒙官家顧
恤之德至今五六十年得以完護而少無侵奪漫散一年矣
不意每年歲抄時本院京直院必斗罡淡少里非此進
貴金使金成必使後庫金善不嚴加發而八人一時被
訴已至推轉境人心驚惶一村騷擾舉分有從此漫散
之計本院無失此業則將何以爲院耶僑生痛惻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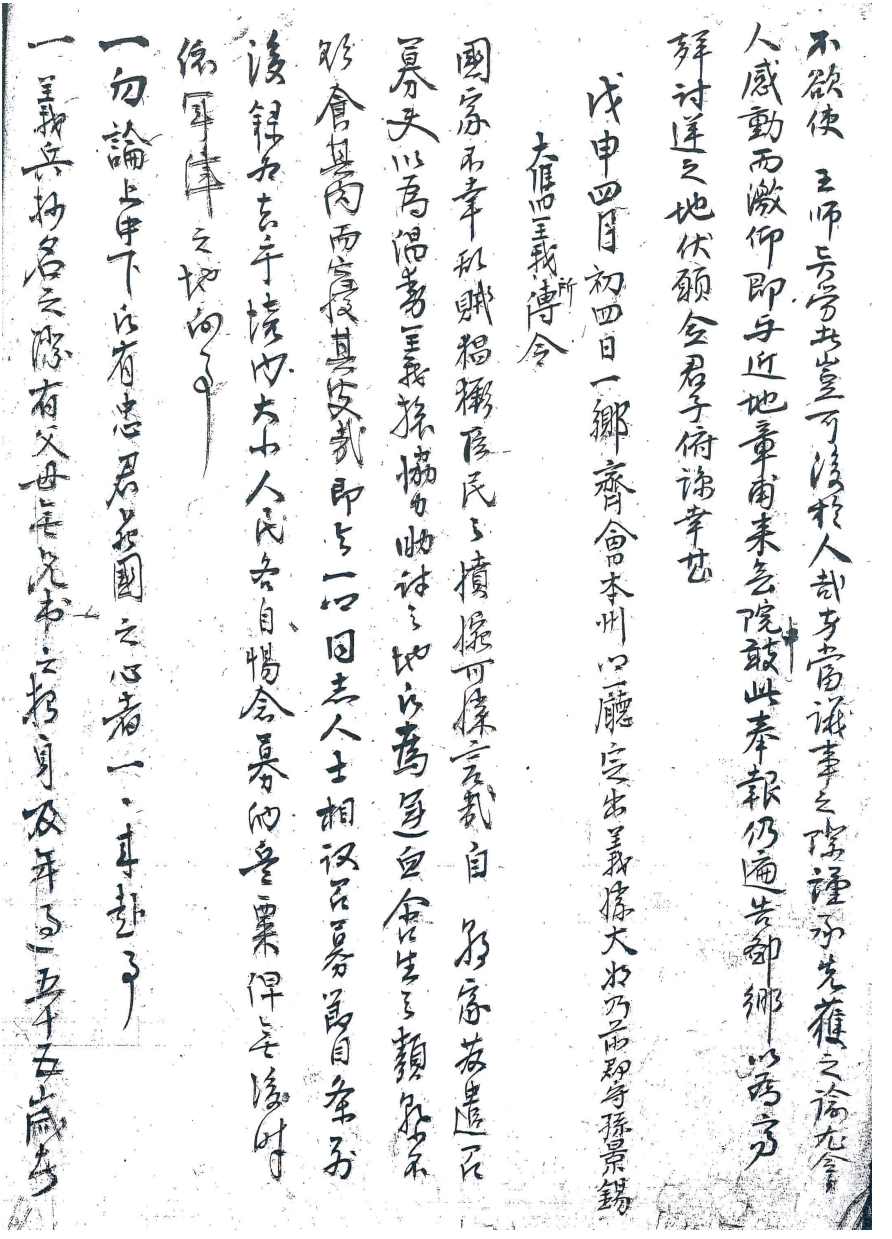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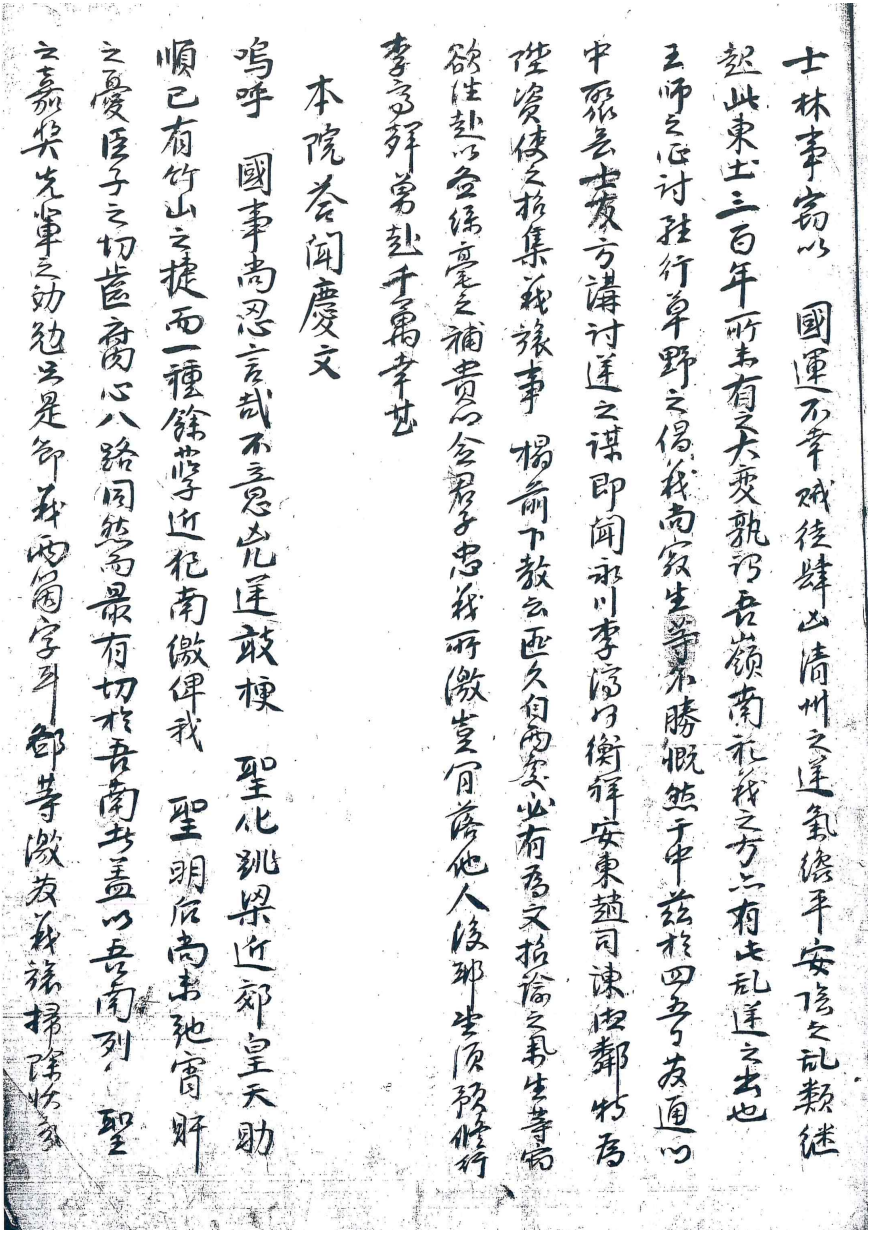
己酉七月日明倫堂重修文

久則變矣方慮棍臬之傾因而葺之復覩宗桷之整無侈無
廢有紀有堂窈念袁州講齋始見丹漆之煥河南黌舍終致棟
樑之頹今豈不然古皆如此顧儒宮一畝之肇設在皇明萬曆之末
年竭力殫心先單之規畫極備督徧運斧工師之制度孔嘉近
接洛流宜泝學海之正脉遠揖天柱可扶元氣之大樑是毓英播馥
鄉廟貌肅肅為明倫講學之所絃誦洋洋自然歲久而年深以致
風磨而雨漏近昔戊子之歲已改一隅迄今己酉之秋又修三面殆同下
鹿之書院詎後重修之方雖異黃崗之竹樓宜效不朽之誠興廢
補缺蓋緣論議之僉同因舊為新不但功貴之頻省澣力綿事鉅
任重才疎集衆思而成厥功豈曰小補記茲績而垂諸後祓冀無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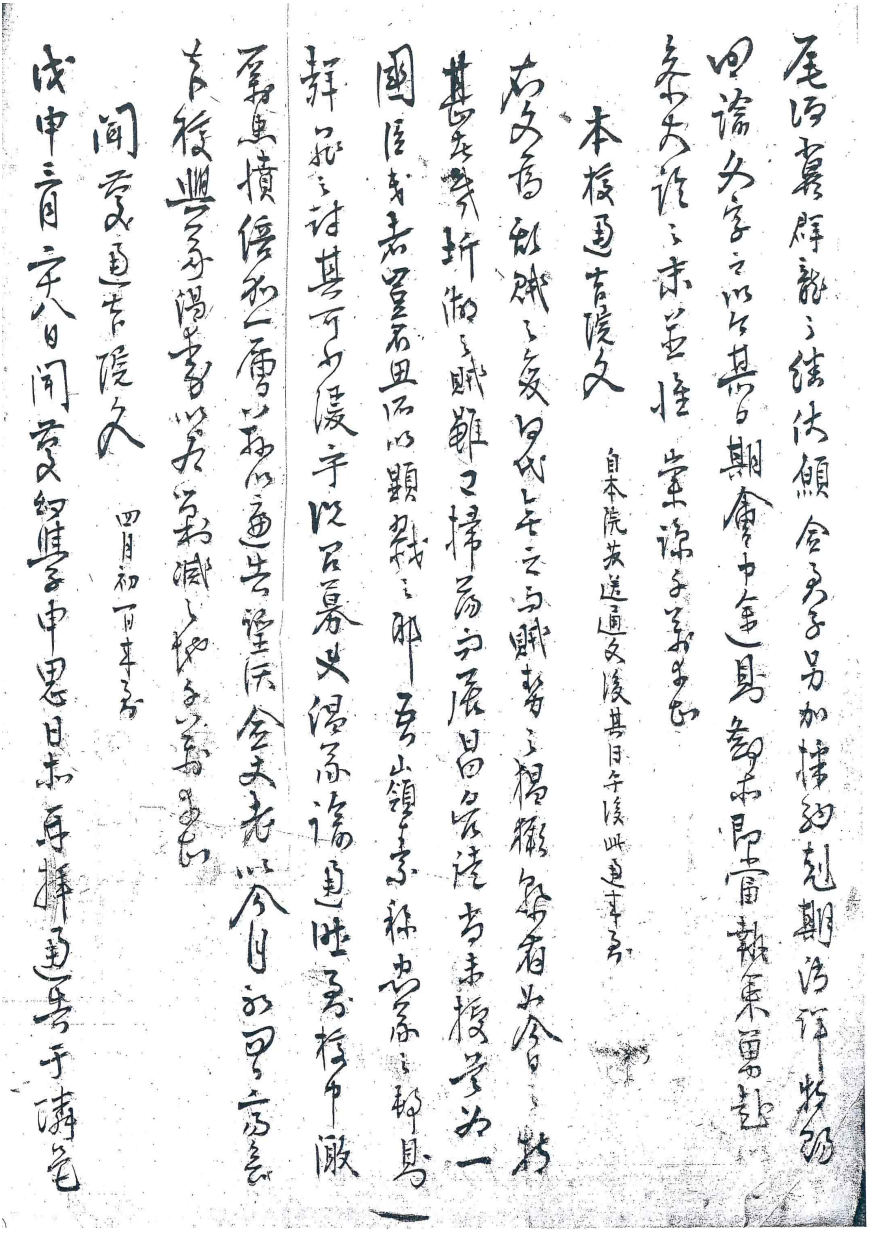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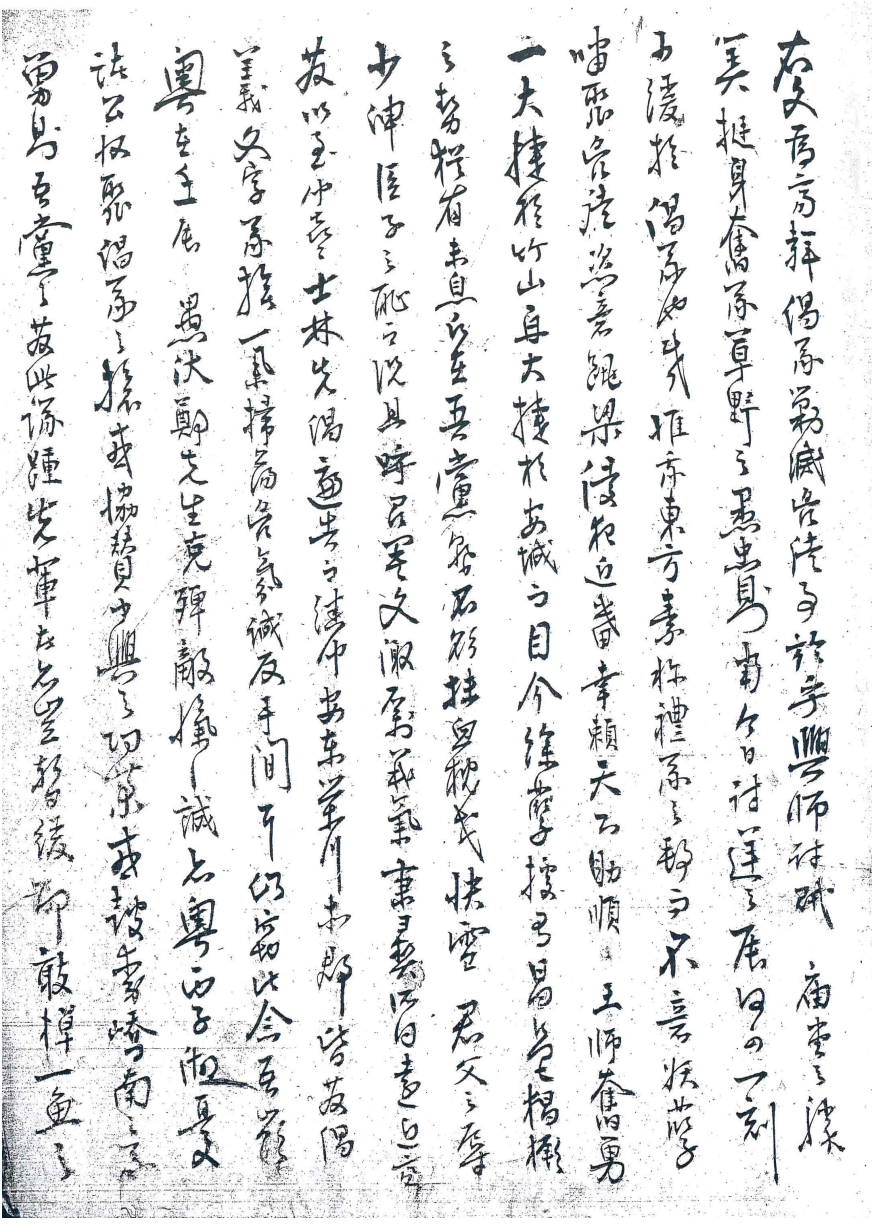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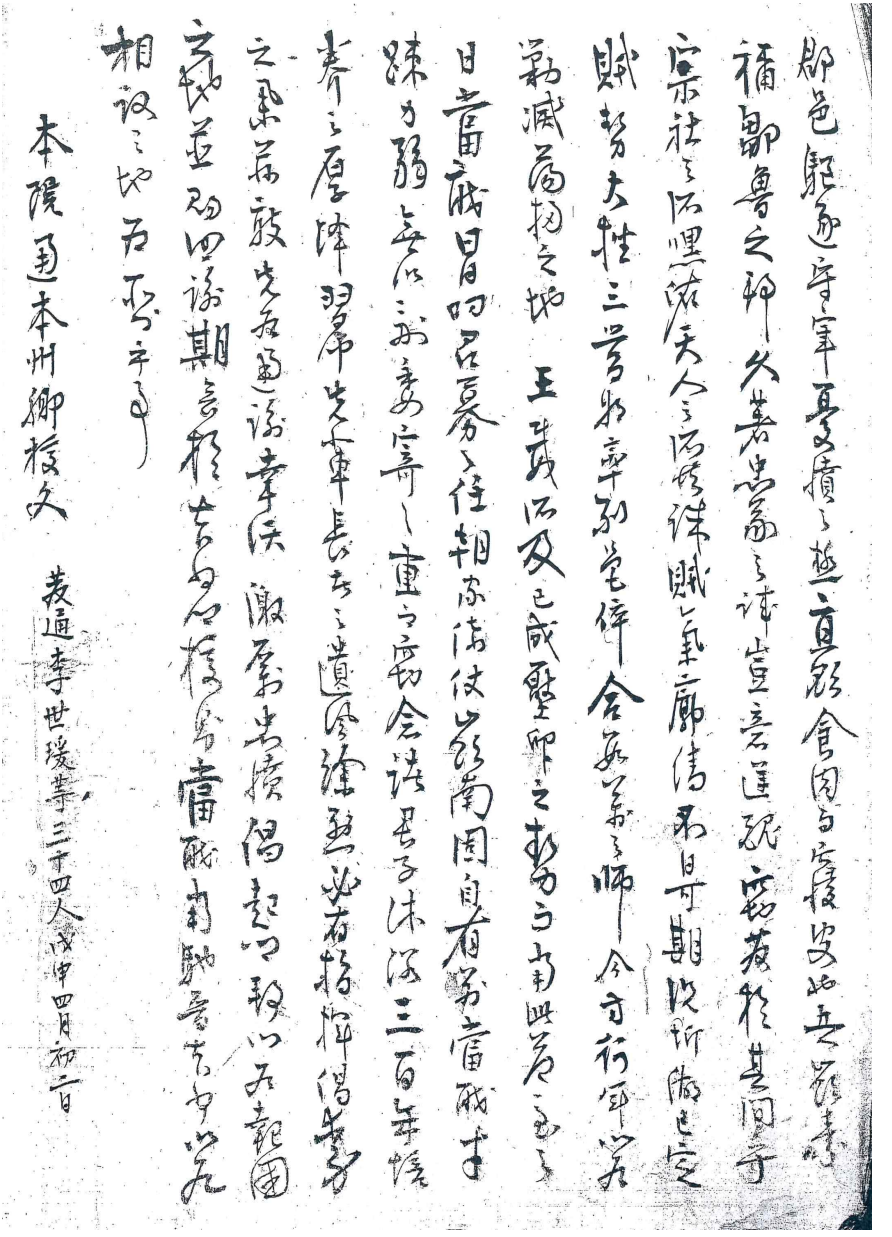
士林事竊以 國運不幸賊徒肆凶清州之逆氣繼平安陰之亂類繼
起此東土三百年所未有之大變孰謂吾嶺南花莪之方亦有此亂逆之出也
王師之正討駐行草野之倡莪尚寂生等不勝慨然于中茲於四五月友通以
中丞云士友方講討逆之謀即聞永川李淳明衡祥安東趙司諫由鄰特爲
陞資使之招集莪旅事 楊前下教云匪久自兩變必有爲文招諭之氣生等竊
欲往赴以益綿毫之補貴以全君子忠莪所激豈肯落他人後耶生須預修行
李寧拜勇赴千萬幸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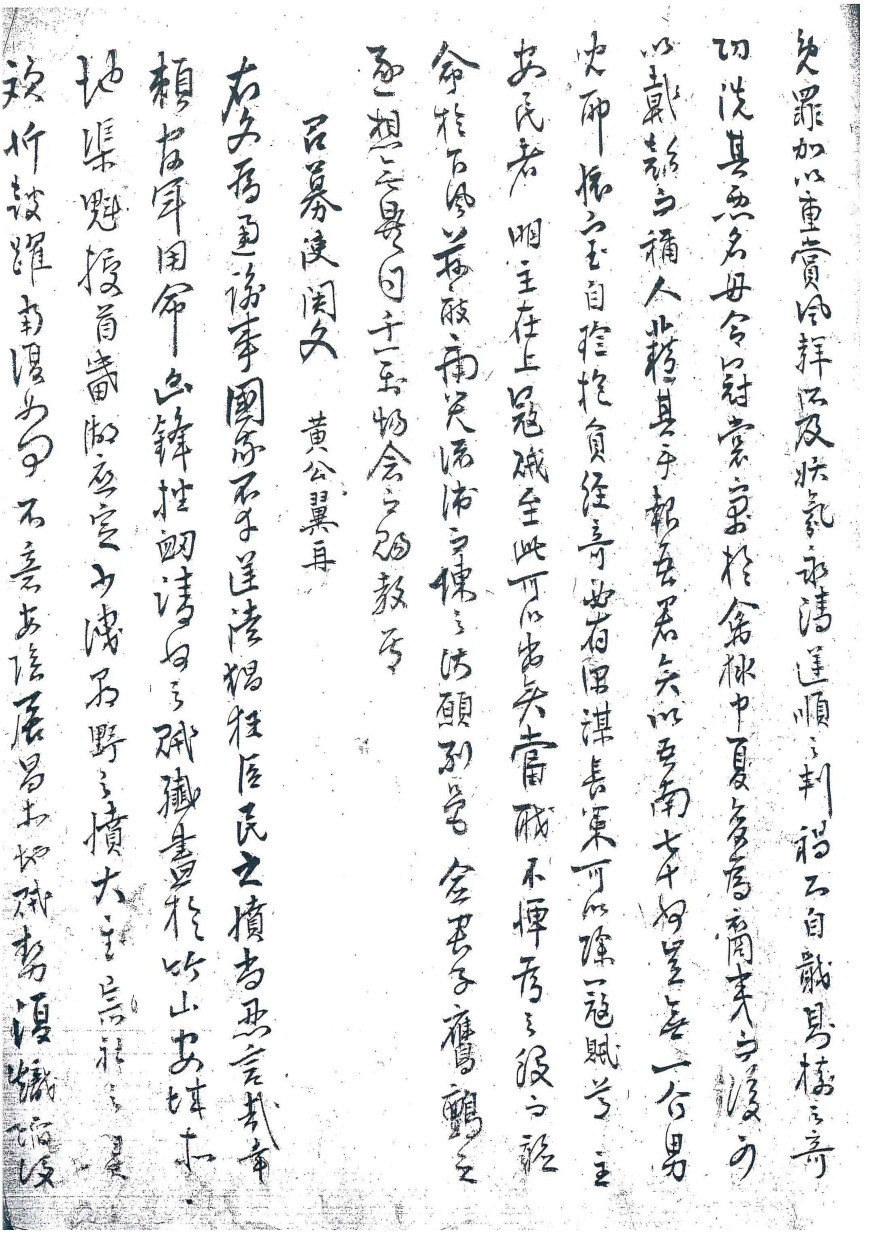
本院答聞慶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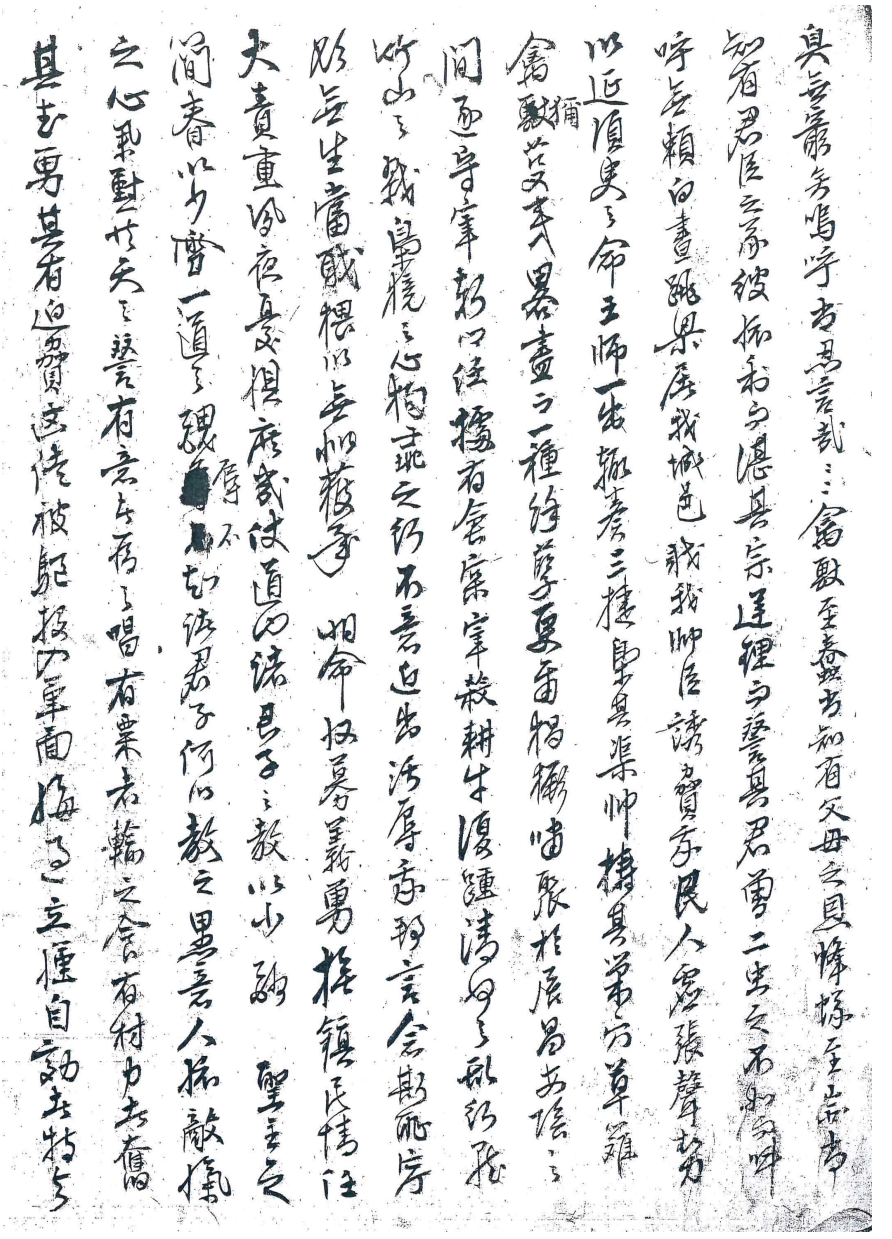
嗚呼 國事尚忍言哉不意凶逆敢梗 聖化跳梁近郊皇天助
順已有竹山之捷而一種餘孽近犯南徼俾我 聖明后尚未弛宵旰
之憂臣子之切齒腐心八路同然而最有切於吾南者蓋以吾南列 聖
之嘉獎先輩之効勉只是卽莪兩屬字耳 鄙等激發莪旅掃除忻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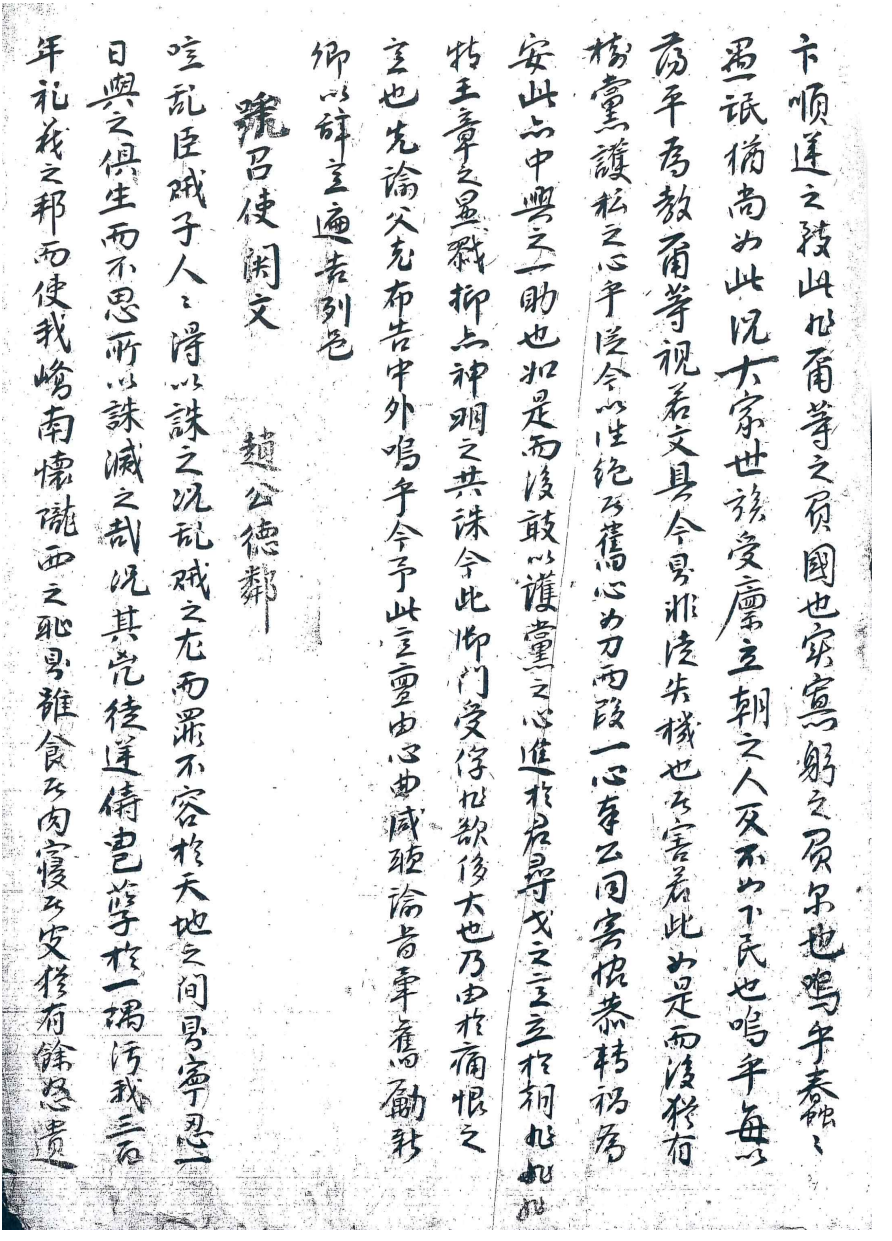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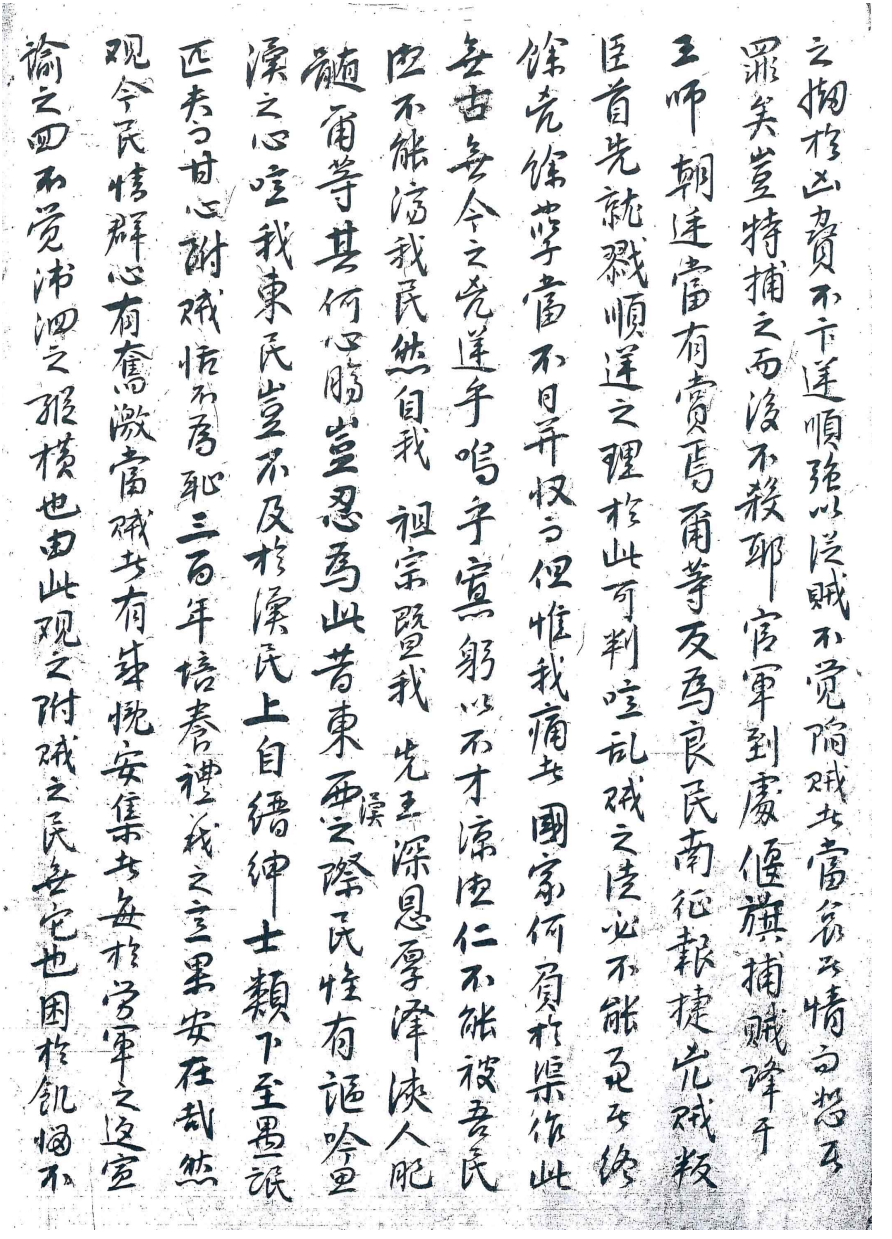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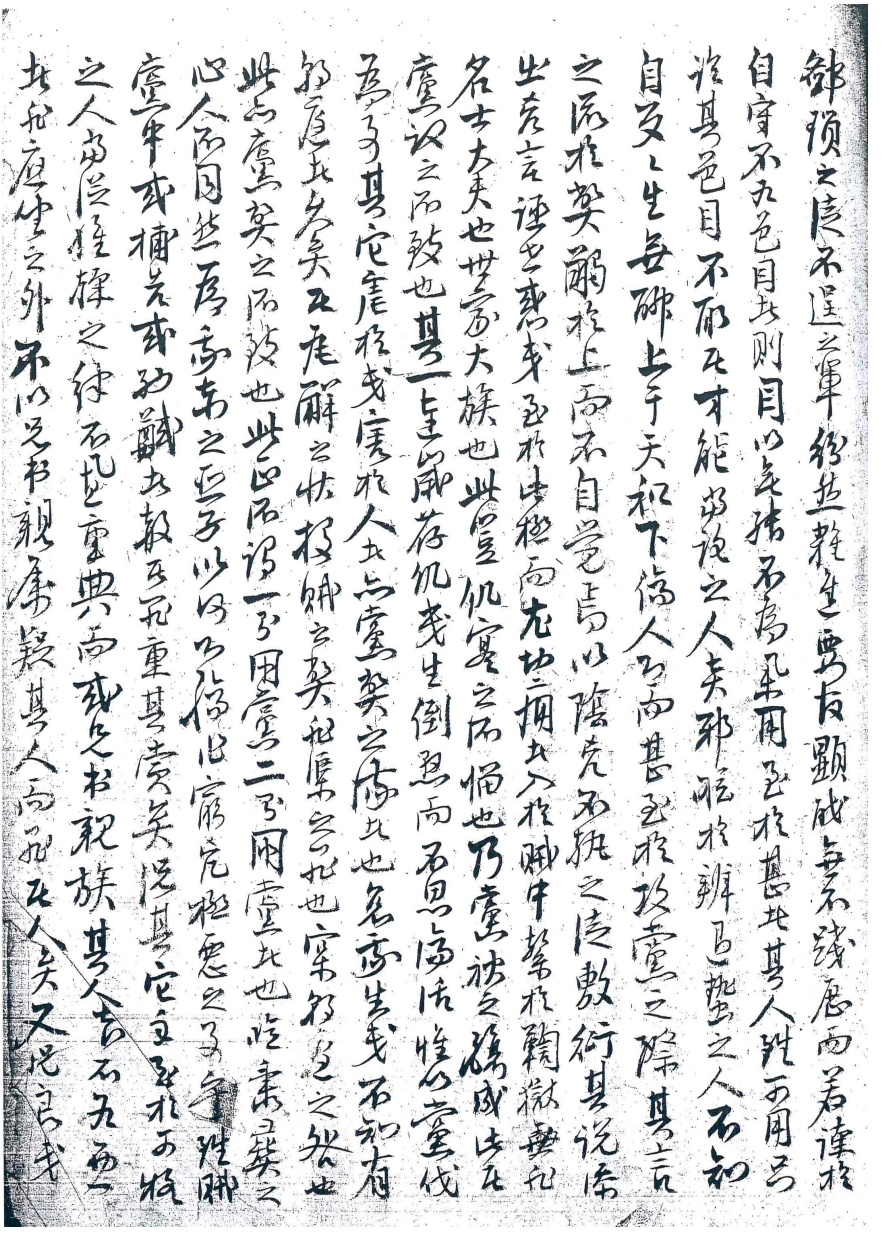
卞順逆之殺此非爾等之負國也寔寡躬之負尔也嗚乎蠢蠢
愚氓猶尚如此況大家世族受廩立朝之人反不如下民也嗚乎每以
爲平爲教爾等視若文具今身非淺失機也者害若此如是而後猶有
樹黨護私之心乎從今以往絕其舊心如刀而段一心奉公同寄恨恭精禍爲
安此亦中興之一助也如是而後敢以護黨之心進於君尋戈之言立於朝非非非
特王章之显戮抑亦神明之共誅今此御門受俘非欲侈大也乃由於痛恨之
言也先論父老布告中外嗚乎今予此言豈由心曲咸聽論旨事舊勵新
卿以辭言遍告列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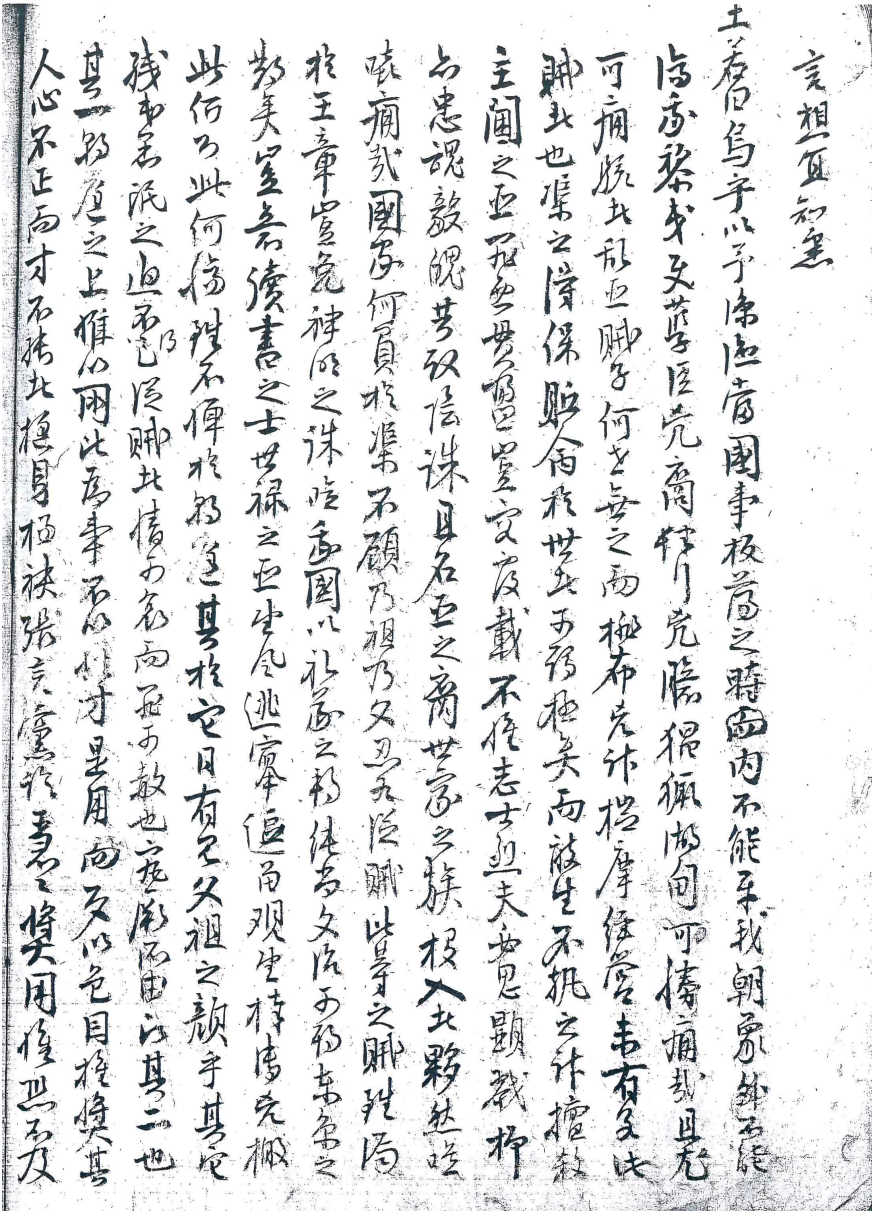
號召使閑文　趙公德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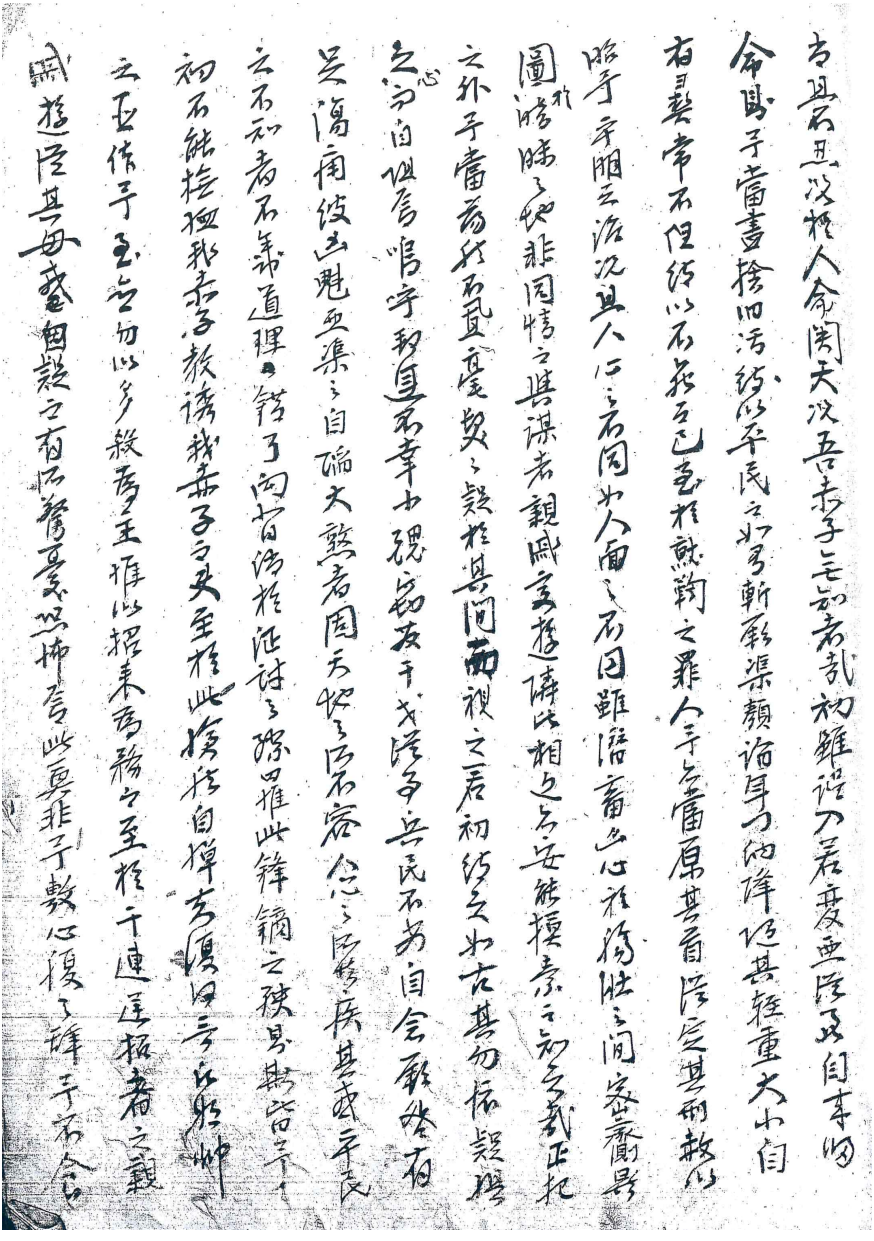
唁乱臣賊子人人得以誅之況乱賊之尤而罪不容於天地之間身寧忍一
日與之俱生而不思所以誅滅之哉況其党徒逆儔豈孽於一堣污我三百
年礼義之邦而使我嶠南懷隴西之恥身雖食其肉寢其皮猶有餘怒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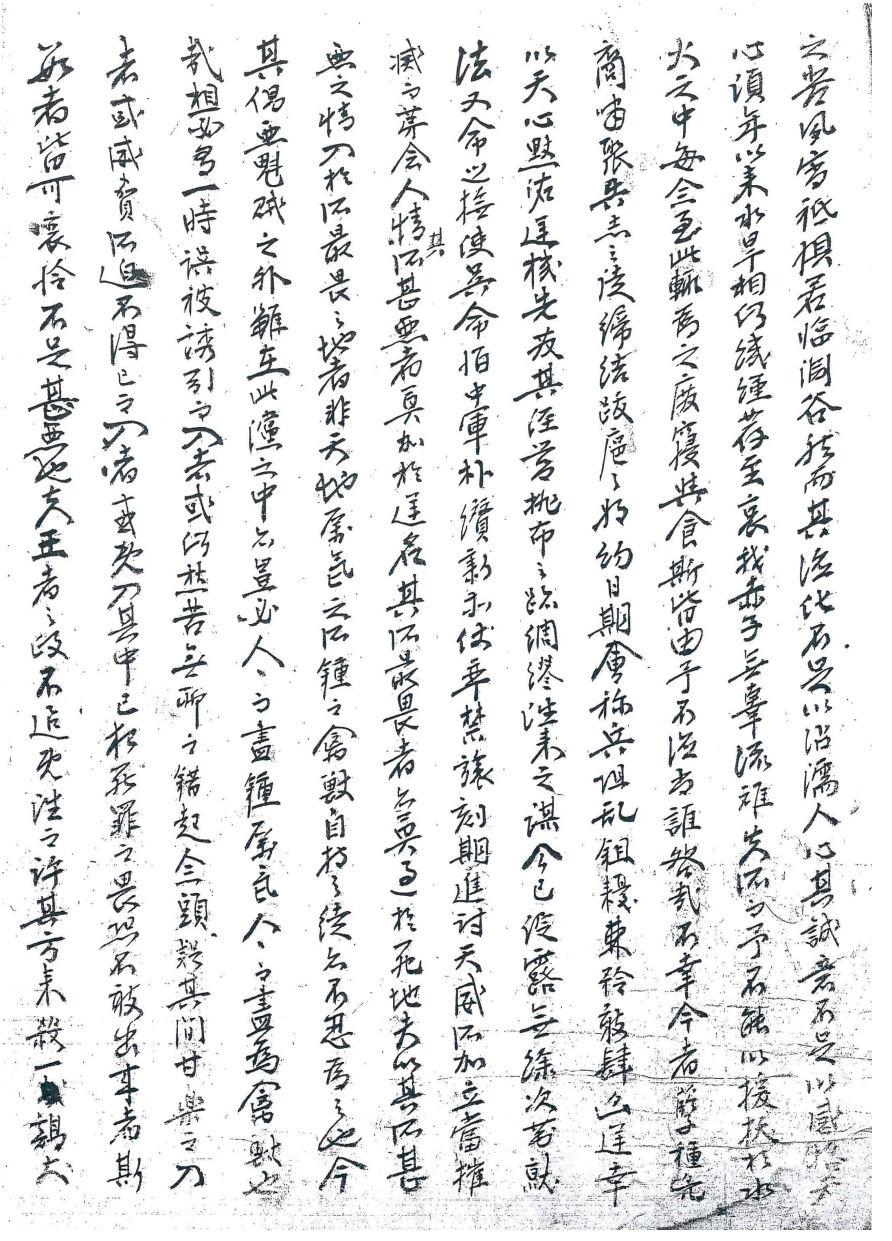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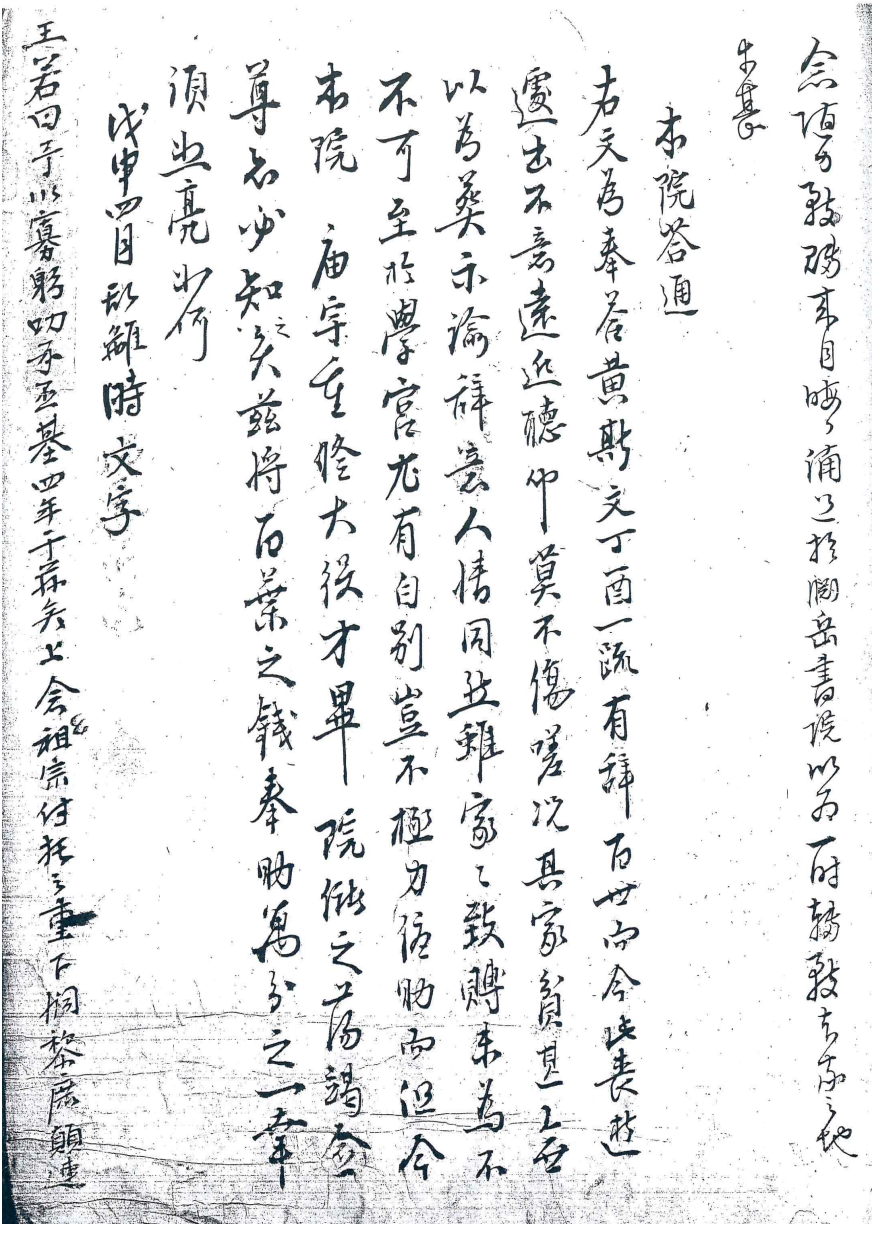
之掬於凶賁不下逆順強以從賊不覺陷賊者當哀者情而恕者
罪矣豈特捕之而後不殺耶官軍到處偃旗捕賊降于
王師朝廷當有賞焉爾等反為良民南征報捷先賊叛
臣首先就戮順逆之理於此可判噫亂賊之徒必不能免者終
餘党餘孽當不日并收而但惟我痛者國家何負於渠作此
無古無今之党逆乎嗚乎寘躬以不才涼德仁不能被吾民
德不能濟我民然自我 祖宗暨我 先王深恩厚澤浹人肥
髓爾等其何心腸豈忍為此昔東西溪之際民性有謳吟思
溪之心噫我東民豈不及於溪民上自縉紳士類下至愚氓
匹夫可甘心附賊恬不為恥三百年培養禮義之意果安在哉然
觀今民情群心有奮激當賊者有年恍安集者每於勞軍之返宣
諭之四不覺沛泗之雅橫也由此觀之附賊之民無它也困於飢惱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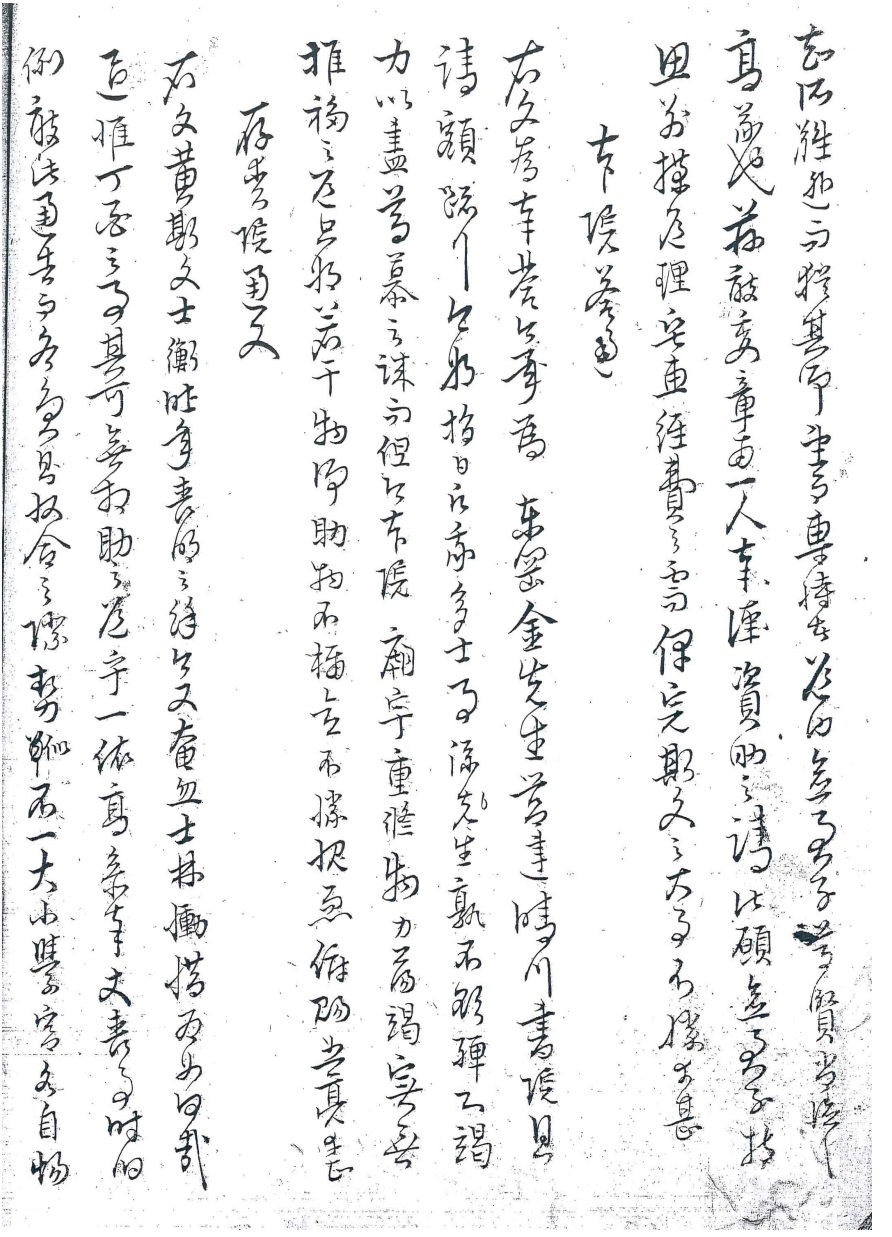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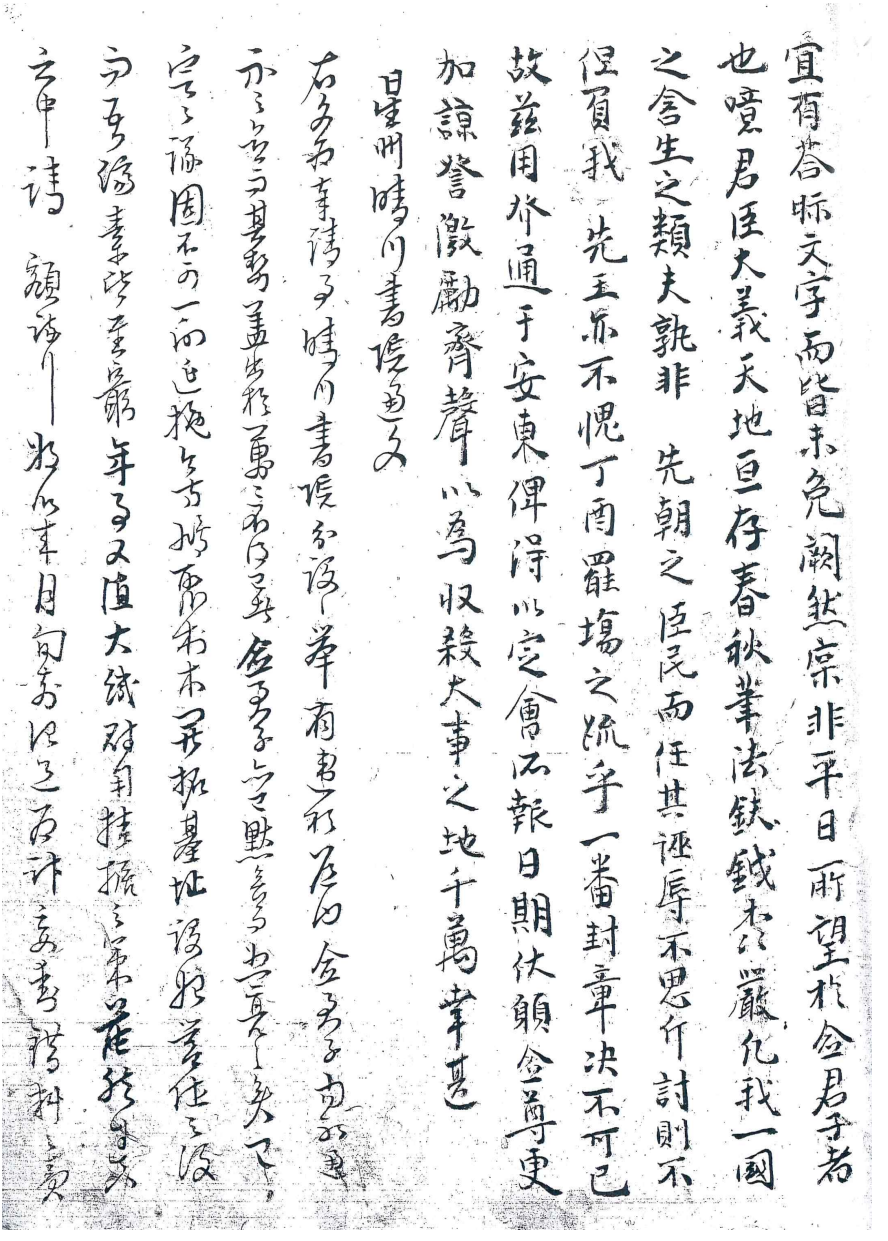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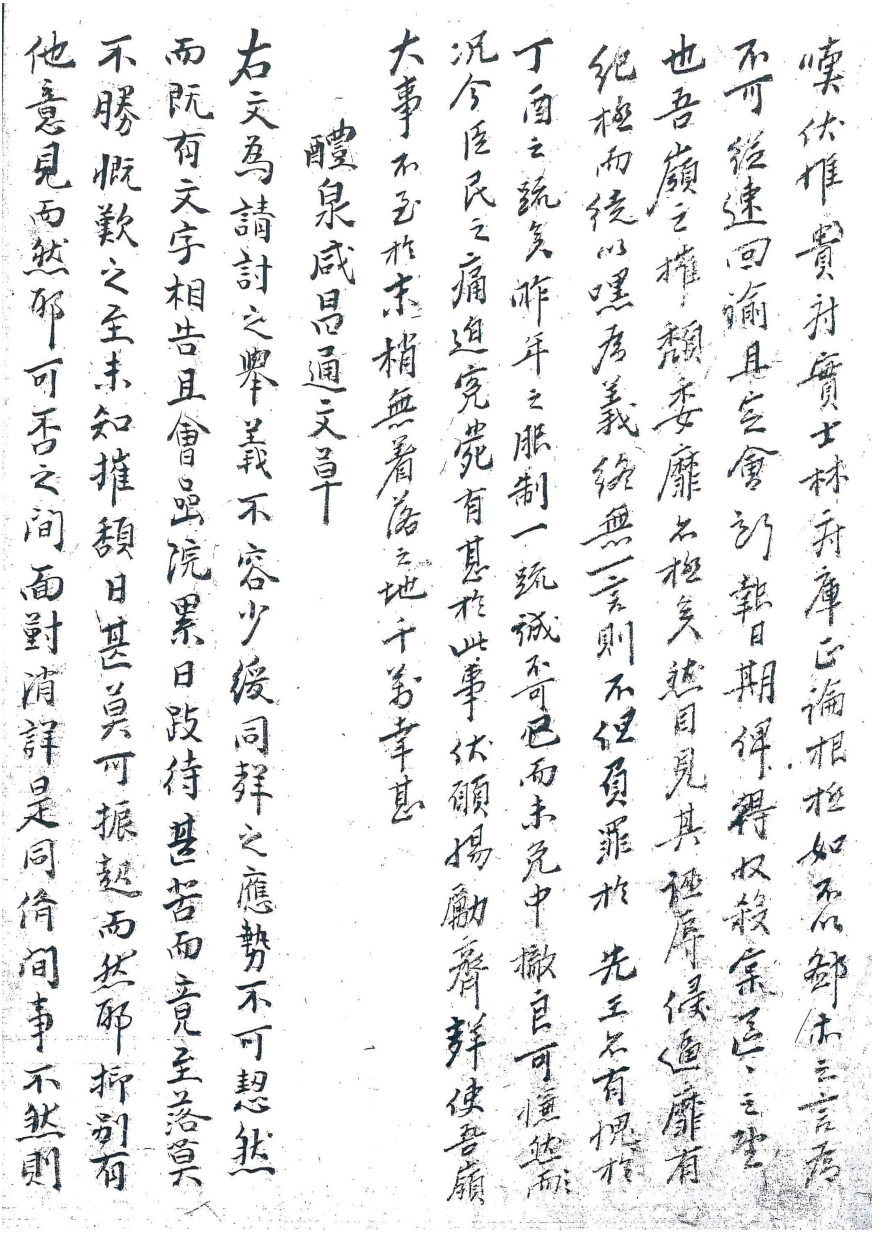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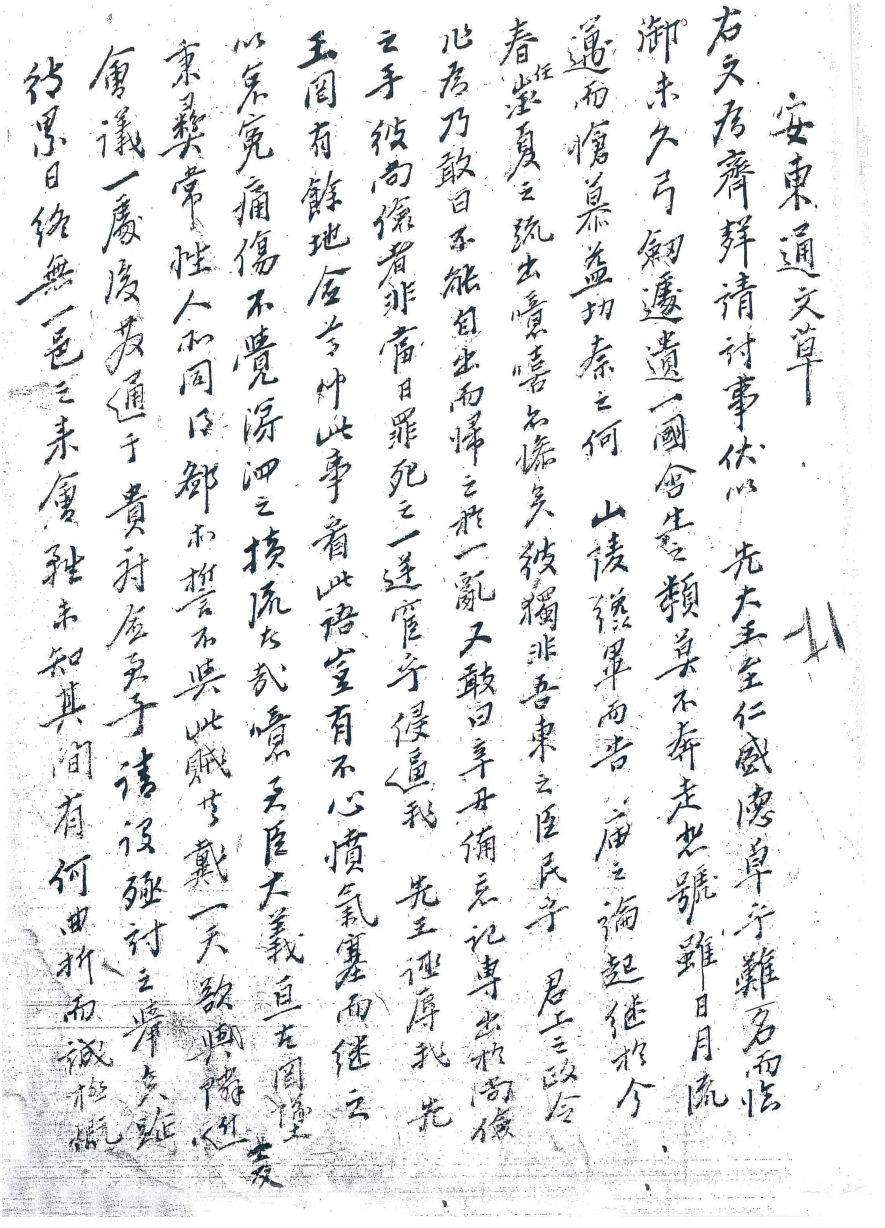




嘆伏惟貴府實士林府庫正論根柢如不在鄙人之言爲
不可從速回諭且定會訂報日期俾得奴殺宗匡之坐
也吾嶺之摧頹委靡不極矣然目見其極辱侵逼靡有
紀極而徒以嘿爲義絕無一言則不但負罪於先王不有愧於
丁酉之疏矣昨年之服制一疏誠不可已而未免中撤良可憮然而
況今臣民之痛迫究竟有甚於此事伏願揚勵齊聲使吾嶺
大事不至於末梢無着落之地千萬幸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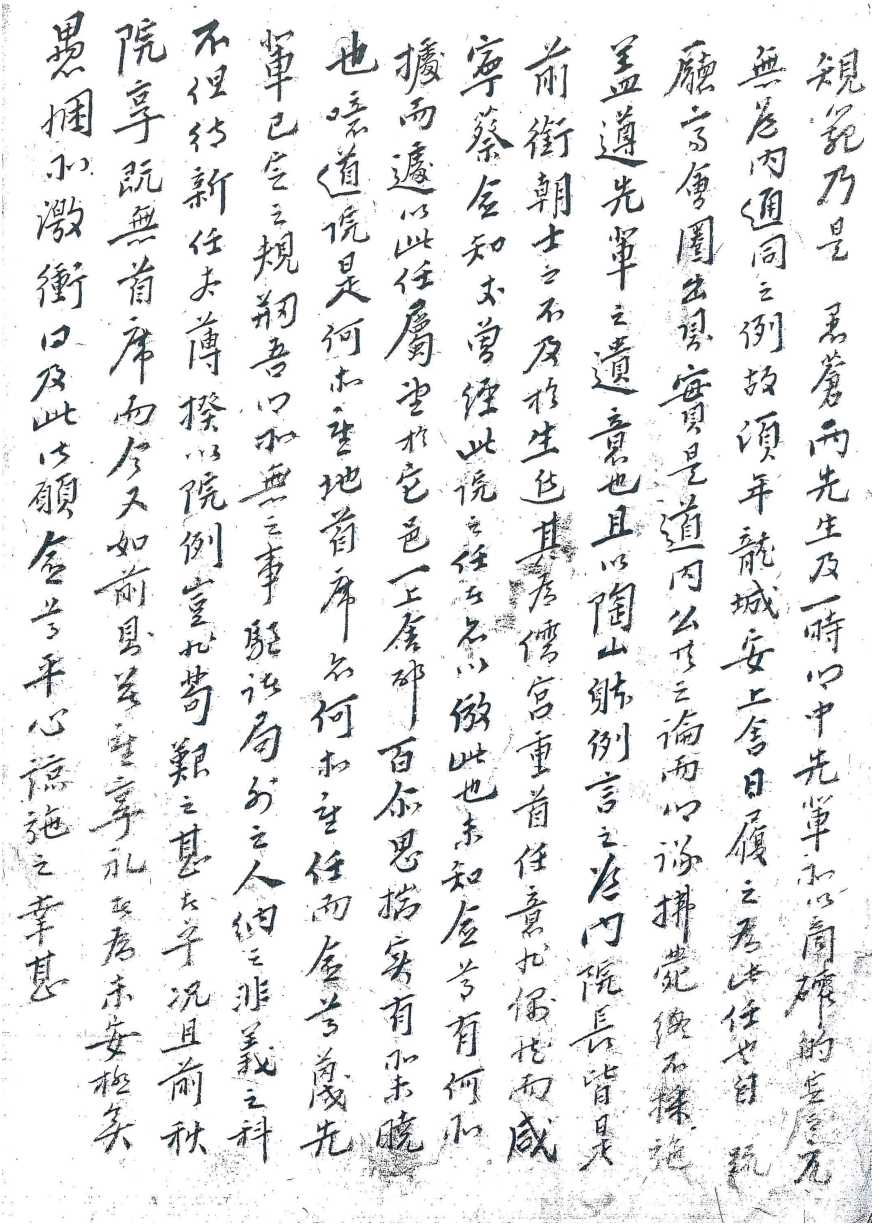
醴泉咸昌通文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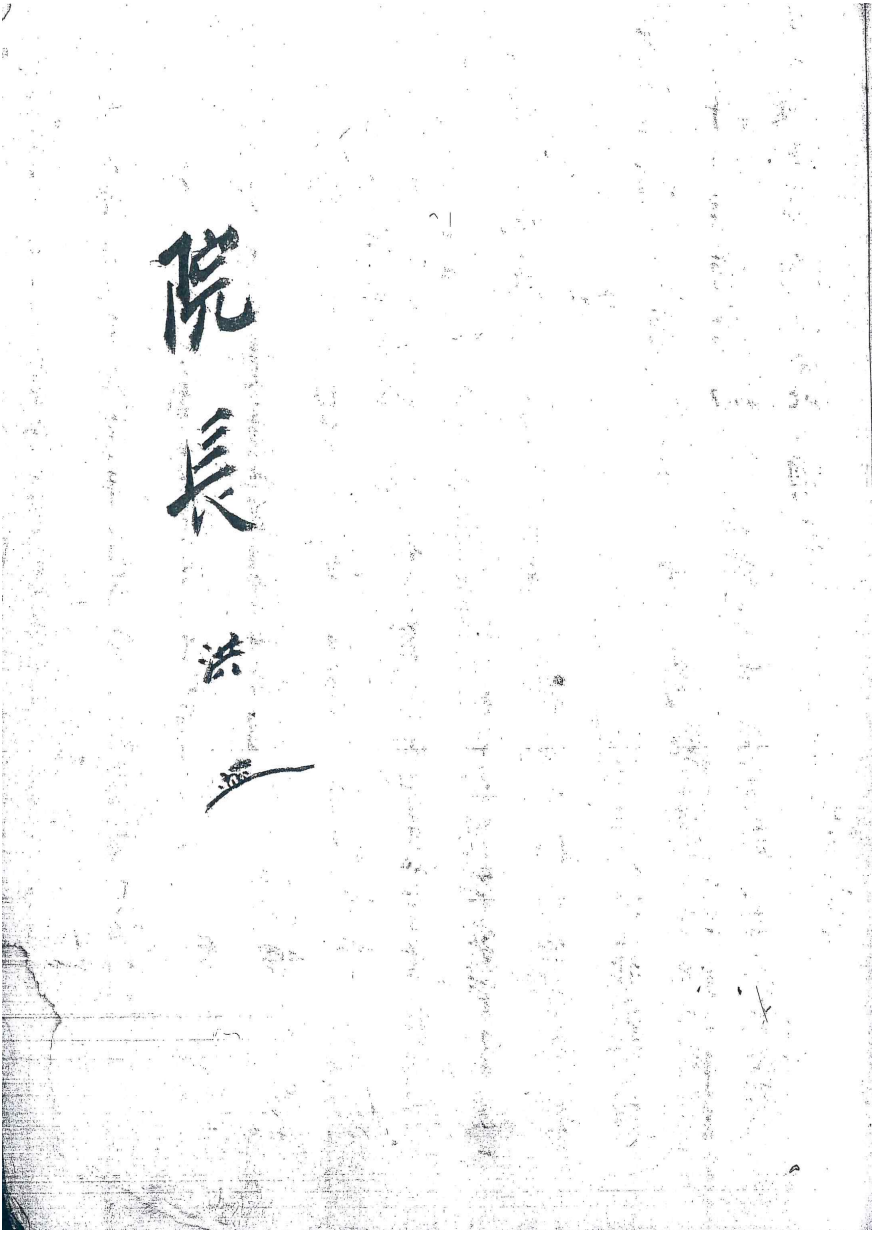
右文爲請討之舉義不容少緩同聲之應勢不可恝然
而既有文字相告且會嵒院累日跂待甚苦而竟至落莫
不勝慨歎之至未知摧頹日甚莫可振起而然耶抑別有
他意見而然耶可否之間面對消詳是同脩間事不然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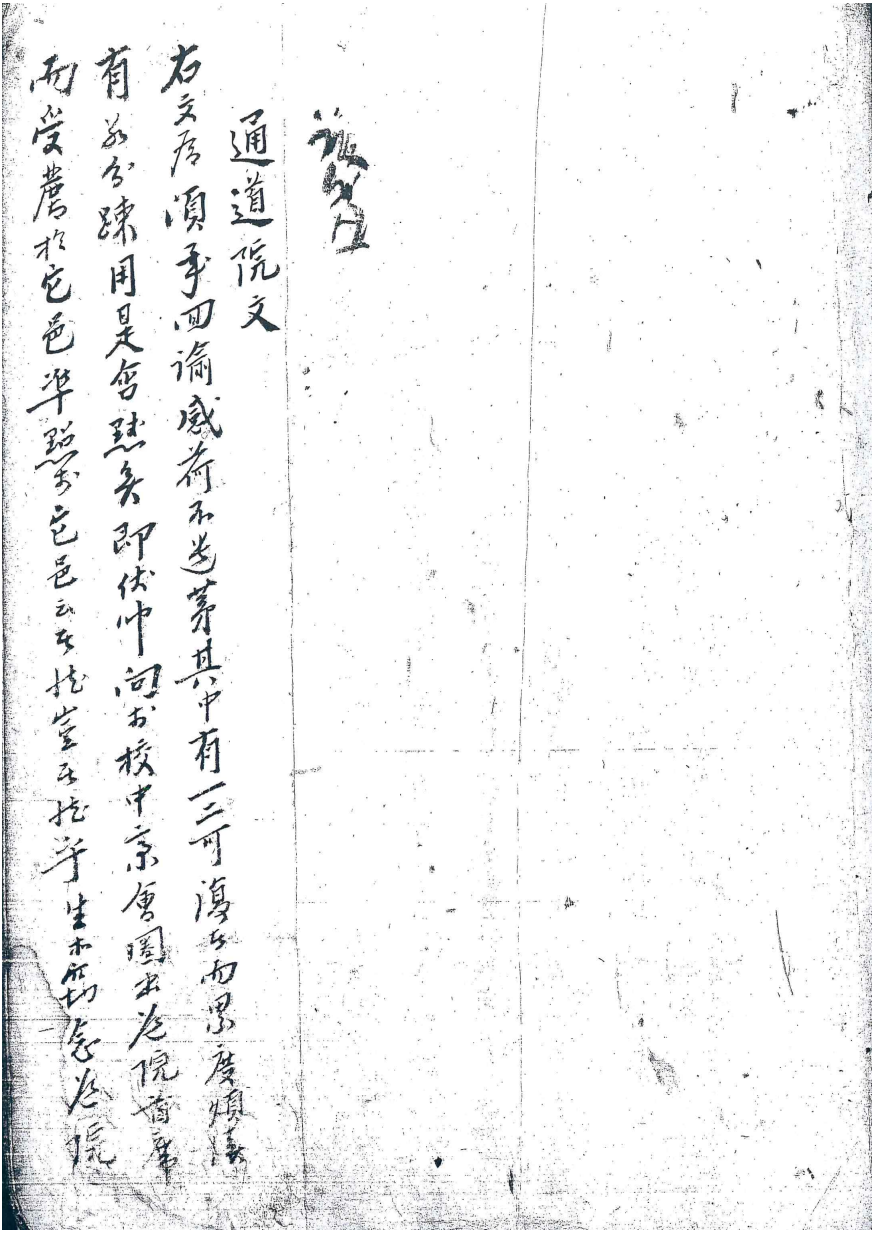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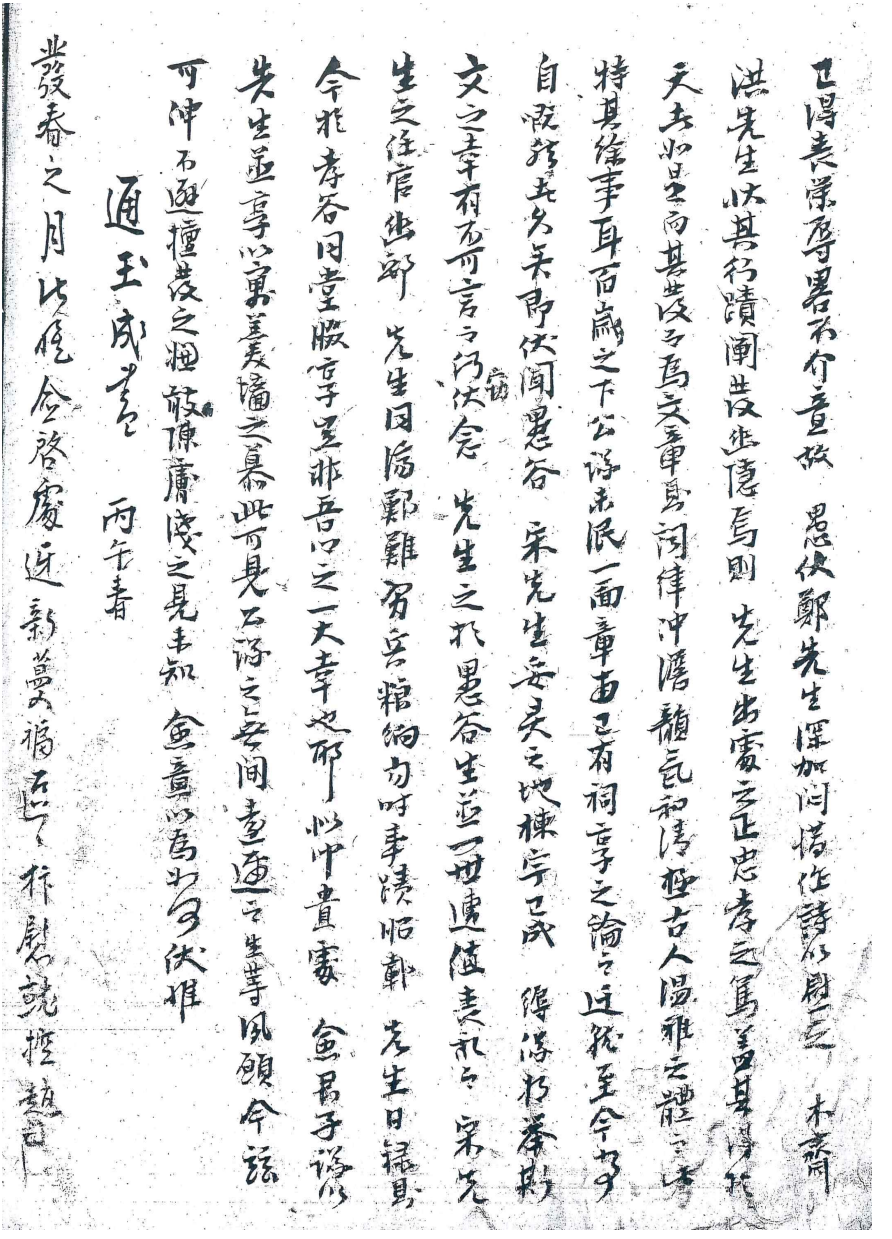
安東通文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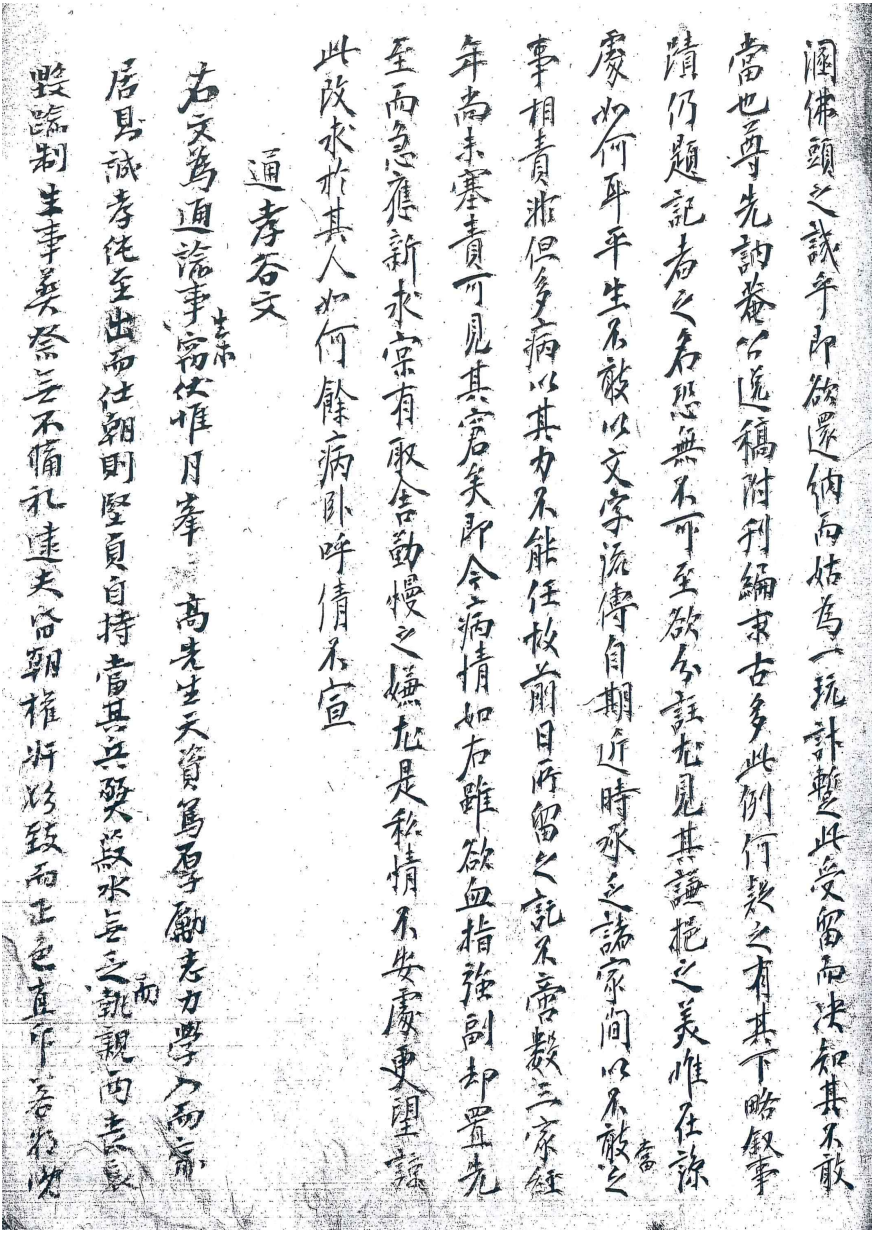
右文爲齊拜請討事伏以 先大王至仁盛德草乎難名而恰
御未久弓劍遽遺一國含生之類莫不奔走悲號雖日月流
邁而愴慕益切奈之何 山陵繼畢而告 廟之論起繼於今
春仕蚩夏之疏出憤嘻不慘矣彼獨非吾東之臣民乎 君上之政令
凡爲乃敢曰不能自出而歸之於一亂又敢曰辛丑備忘記專出於尚儉
之手彼尚儉者非當日罪死之一逆宦乎侵逼我 先王誣辱我 先
王罔有餘地合爲仲此事看此語豈有不心憤氣塞而繼之
以哀冤痛傷不覺涕泗之橫流者哉憤天臣大義直在罔墜
東夷常性人和同得鄙不誓不與此賊共戴一天欲興隣邦
會議一處後發通于貴府僉更予請設殛討之舉矣雖
待累日終無一邑之來會雖未知其間有何曲折而誠極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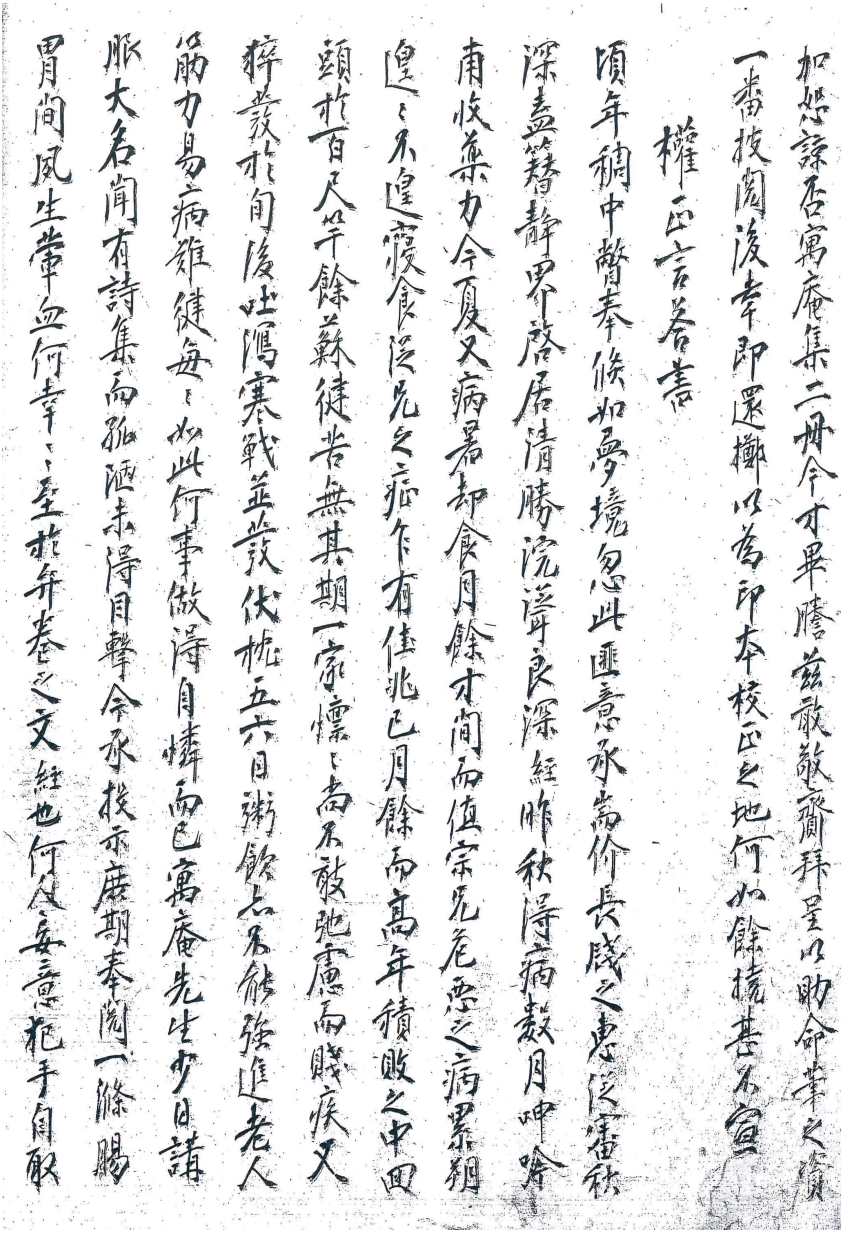



院長
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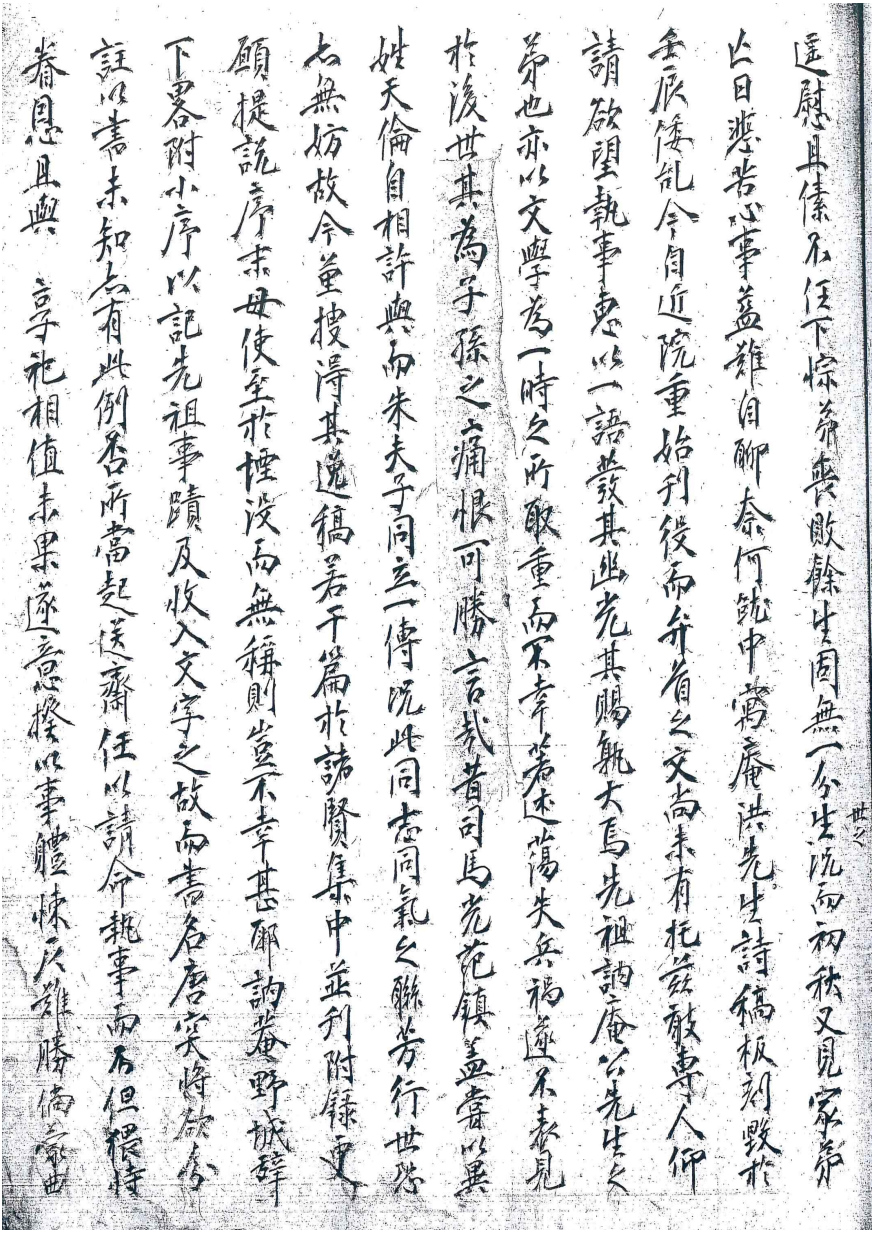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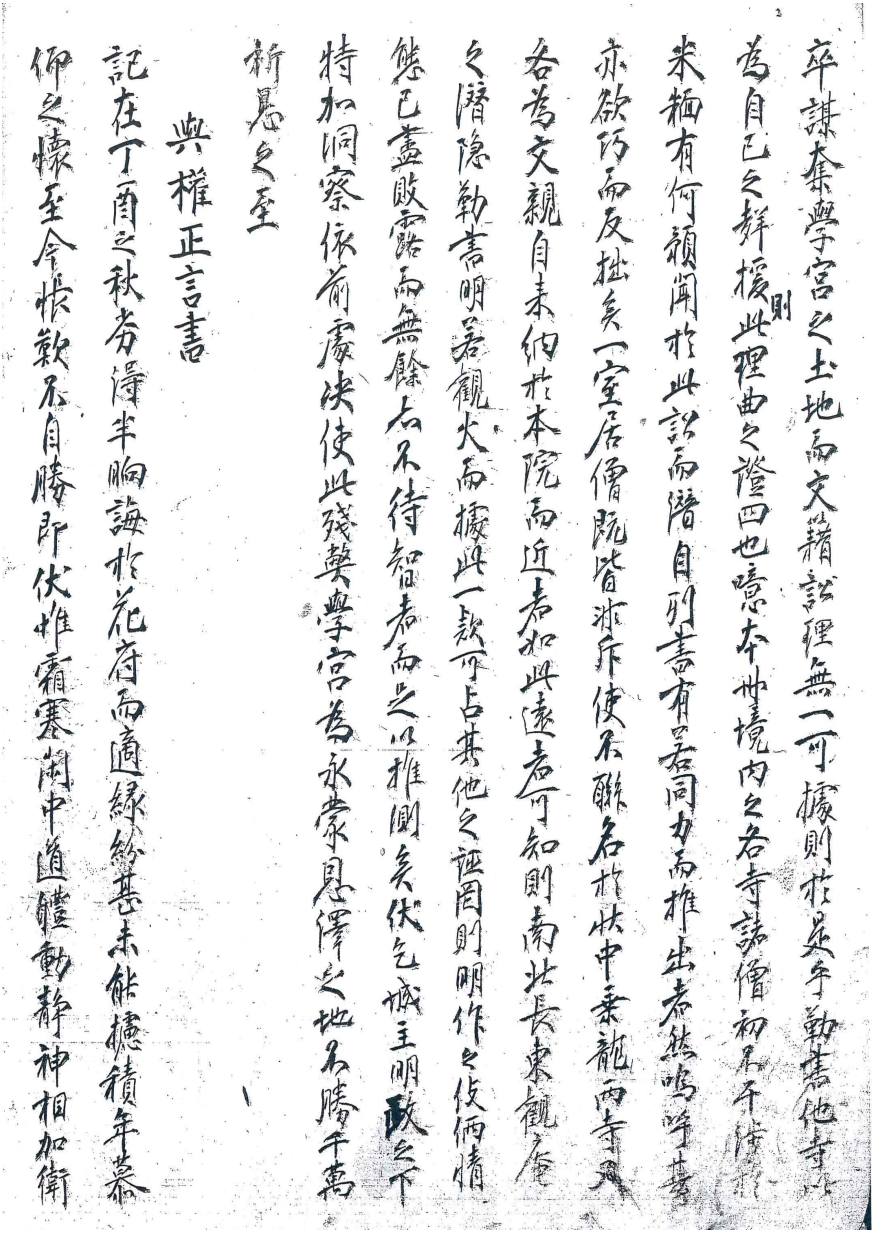


加怨諒否寓庵集二冊今才畢謄茲敢敬齎拜呈以助命筆之資
一番披閱後幸即還擲以爲印本校正之地何如餘撓甚不宣

權正言答書

頃年稠中瞥奉候如夢境忽此匪意承尚价長牋之惠從審秋
深盍簪靜界啓居清勝浣濯良深經昨秋得病數月呻吟
甫收藥力今夏又病暑却食月餘才間而值宗兄危惡之病累朔
遑遑不遑寢食從兄之症乍有佳兆已月餘而高年積敗之中回
頭於百尺竿餘蘇徒苦無其期一家懍懍尚不敢弛慮而賤疾又
猝發於旬後吐瀉寒戰並發伏枕五六日粥飲亦不能強進老人
筋力易病難健每每如此何事做得自憐而已寓庵先生少日講
服大名聞有詩集而孤陋未得目擊今承投示庶期奉閱一滌腸
胃間風生掌血何幸幸至於弁卷之文經也何人妄意犯手自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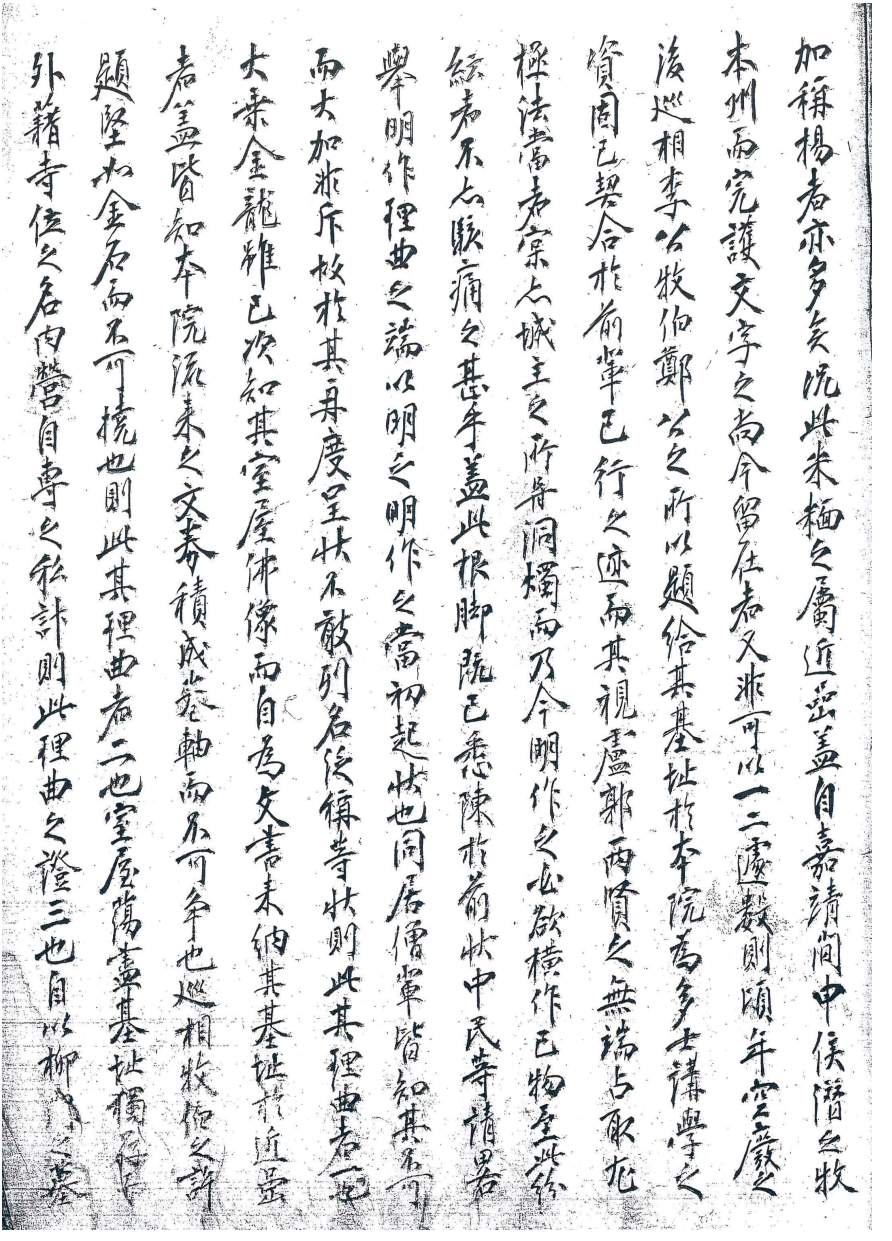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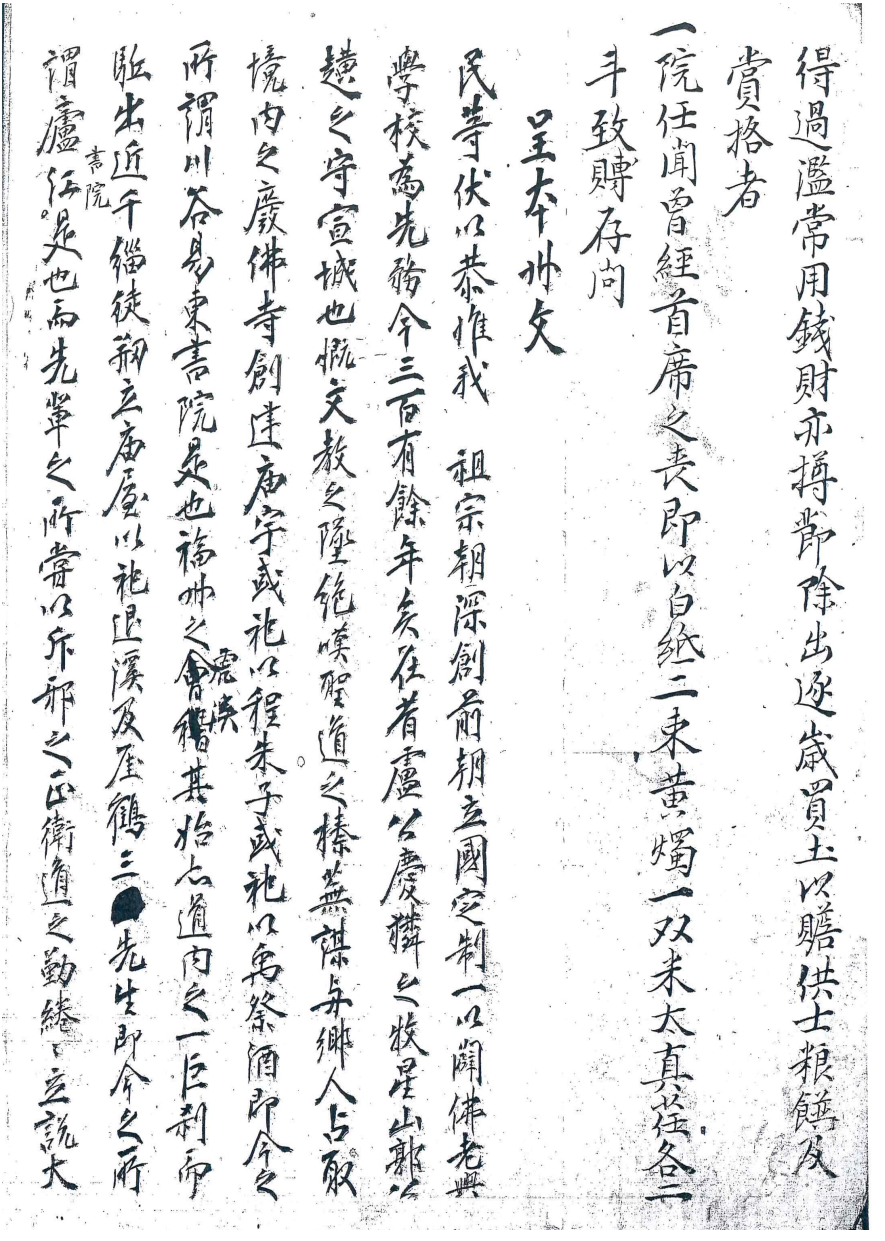


卒謀奪學宮之土地而文籍訟理無一可據則於是乎勤書他寺以
為自己之辭援則此理曲之證四也噫本州境內之各寺諸僧初不干涉於
米粞有何預聞於此訟而潛自列書有若同力而推出者然嗚呼甚
亦欲巧而反拙矣一室居僧既皆非斥使不聯名於狀中乘龍西寺又
各為文親自來納於本院而近者如此遠者可知則南北長東觀庵
之潛隱勒書明若觀火而據此一款可占其他之誣罔則明作之伎倆情
態已盡敗露而無餘者不待智者而足以推測矣伏乞城主明政之下
特加洞察依前處決使此殘弊學宮為永蒙恩澤之地不勝千萬
祈恩之至

與權正言書

記在丁酉之秋劣得半晌誨於花府而適緣紛甚未能攄積年慕
仰之懷至今悵歎不自勝即伏惟霜寒閑中道體動靜神相加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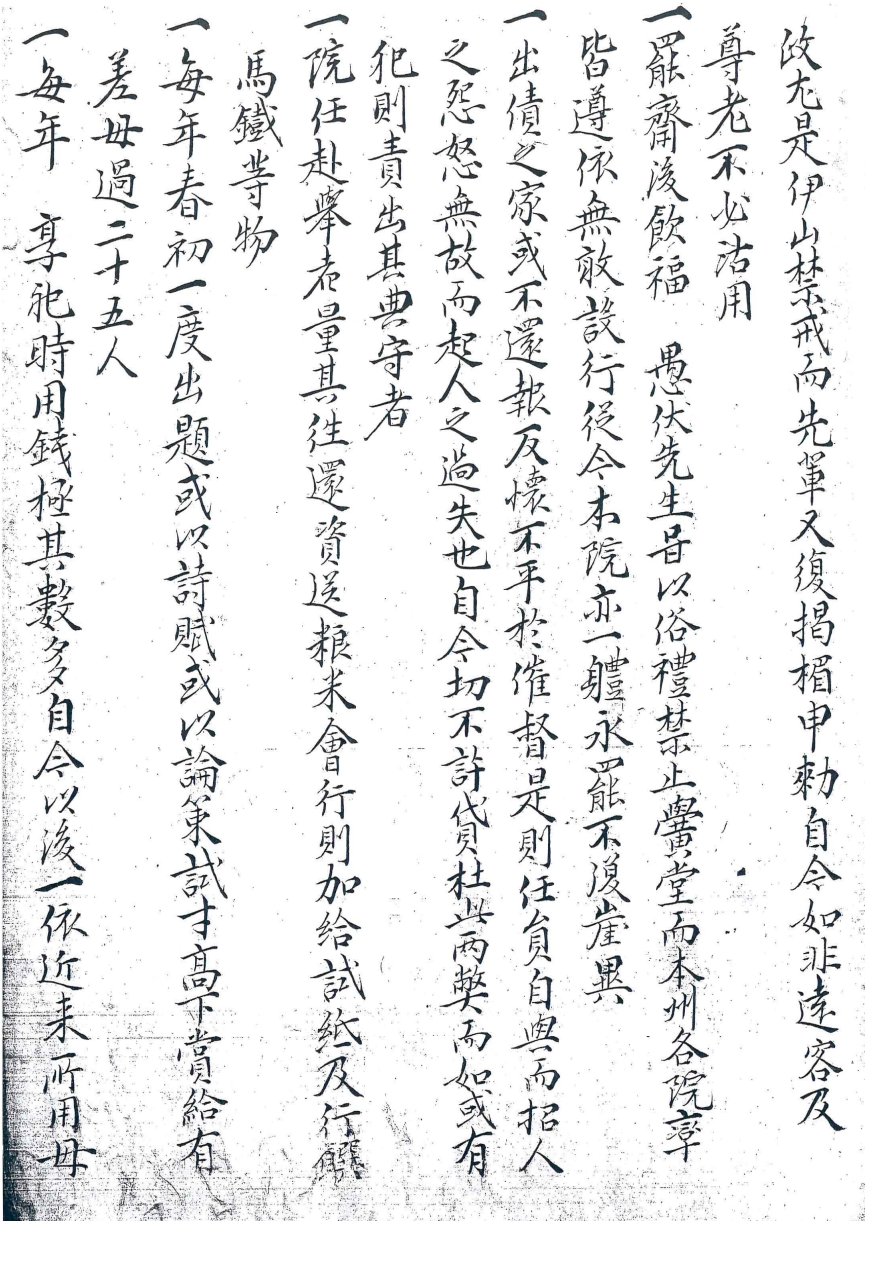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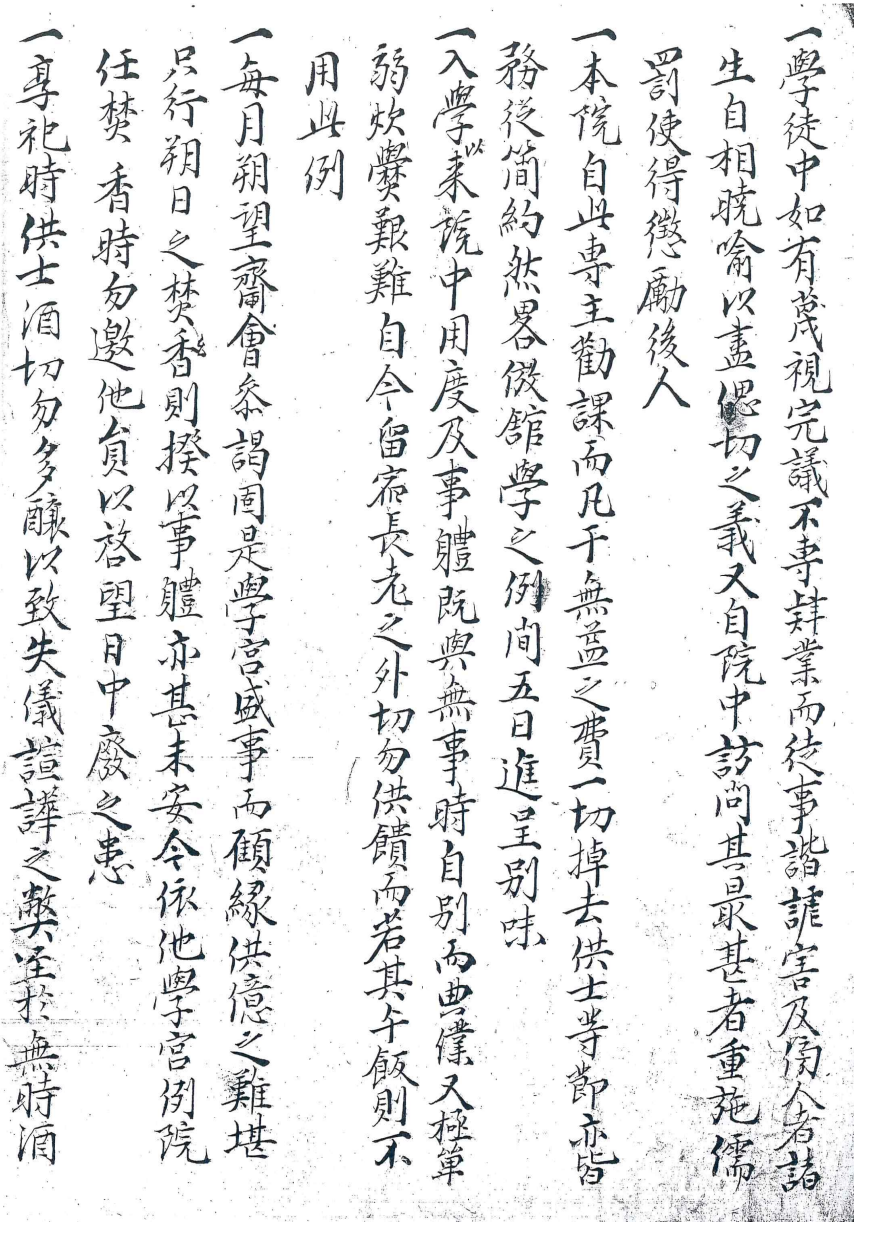
得過濫常用錢財亦搏節除出逐歲買土以贍供士粮饌及
賞格者
一院任聞曾經首席之表即以白紙二束黃燭一双米太真荏各二
斗致賻存問

呈本州文

民等伏以恭惟我 祖宗朝深創前朝立國定制一以闢佛老興
學校為先務今三百有餘年矣在者盧公慶麟之牧星山郭公
趪之守宣城也慨文教之墜絶嘆聖道之榛蕪謀與鄉人占取
境內之廢佛寺創建廟宇或祀以程朱子或祀以禹祭酒即今之
所謂川谷易東書院是也福州之會稽(震澤)其始亦道內之一巨刹而
駈出近千緇徒剏立廟屋以祀退溪及崖鶴三[illegible]先生即今之所
謂廬江(書院)是也而先輩之所嘗以斥邪之正衛道之勤縷縷立說大



改尤是伊山禁戒而先輩又復揭榻申勅自今如非遠客及
尊老不必沽用
一罷齋後飲福　愚伏先生每以俗禮禁止黌堂而本州各院亭
皆遵依無敢設行從今本院亦一體永罷不復崖異
一出債之家或不還報及懷不平於催督是則任負自與而招人
之怨怒無故而起人之過失也自今切不許代貢杜此兩弊而如或有
犯則責出其典守者
一院任赴擧者量其往還資送粮米會行則加給試紙及行
馬鐵等物
一每年春初一度出題或以詩賦或以論策試士高下賞給有
差毋過二十五人
一每年　享祀時用錢極其數多自今以後一依近來所用毋



一學徒中如有蔑視完議不專肄業而徒事諧謔害及傍人者諸生自相曉喻以盡悛改之義又自院中訪問其最甚者重施懲罰使得懲勵後人

一本院自此專主勸課而凡干無益之費一切掉去供士等節亦皆務從簡約然畧倣館學之例間五日進呈別味

一入學以來院中用度及事體院與無事時自別而典儀又極單弱炊爨艱難自今留宿長老之外切勿供饋而若其午飯則不用此例

一每月朔望齋會參謁固是學宮盛事而顧緣供億之難堪只行朔日之焚香則揆以事體亦甚未安今依他學宮例院任焚香時勿邀他員以啓望日中廢之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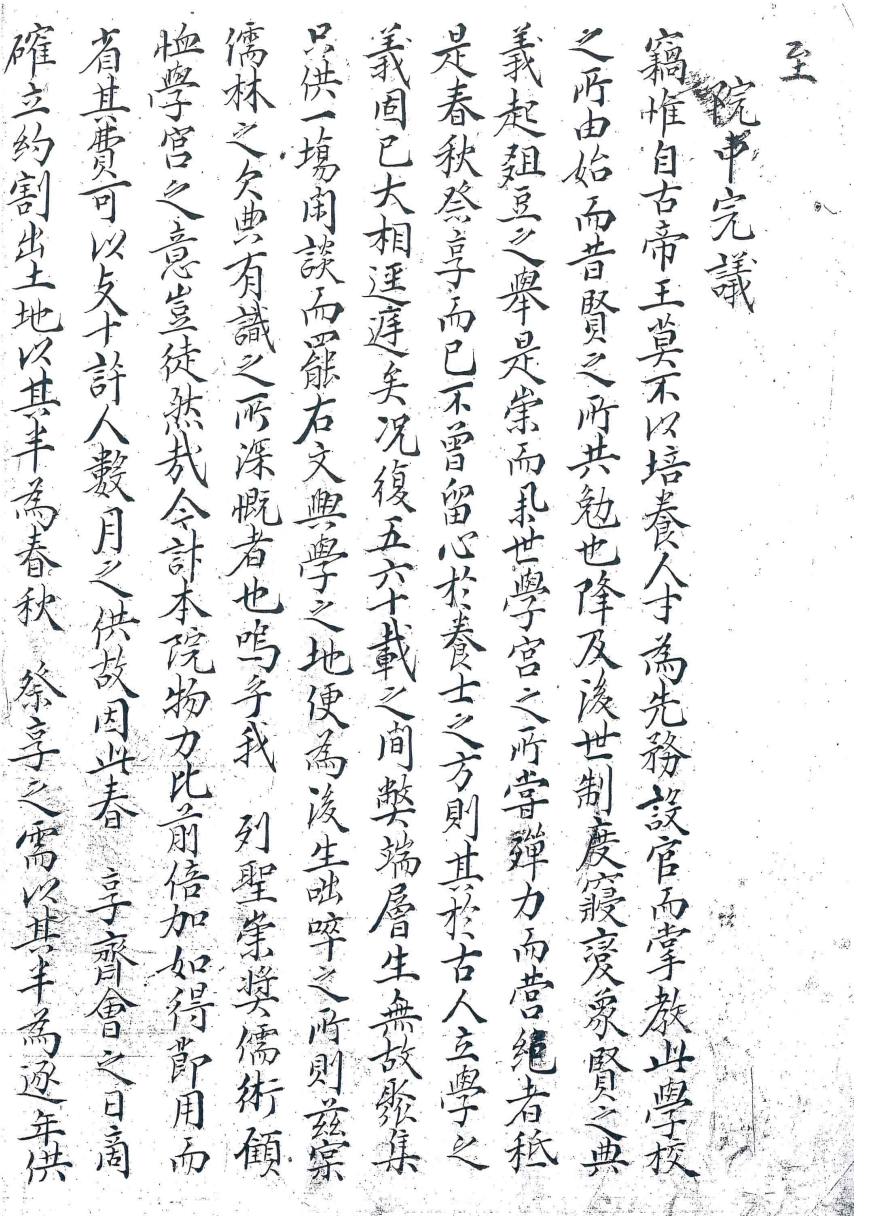
一享祀時供士酒切勿多釀以致失儀諠譁之弊至於無時酒

士之資繼自今任是院者小大戮力一以興起斯文爲己任遵
守伊山之訓戒奉行我 列聖家法其鼓舞振勵之餘安知無
詞林巨手接武迭出而窮則有以傳斯道之緒達則有以補昇平
之治者亦未始不自今日而倡之也顧不韙歟係是儒宮大事有難
輕舉故旣已徵衆議列錄如左又復受跋於 諸長老以重謀事
之始且以勖來者於無窮云

一入學儒生相供二十員而始自至月初至臘月念後罷歸

一凡讀書生各自其門中隨其多少加減擇送而一任怠惰不甚
留意於文字上者不須擧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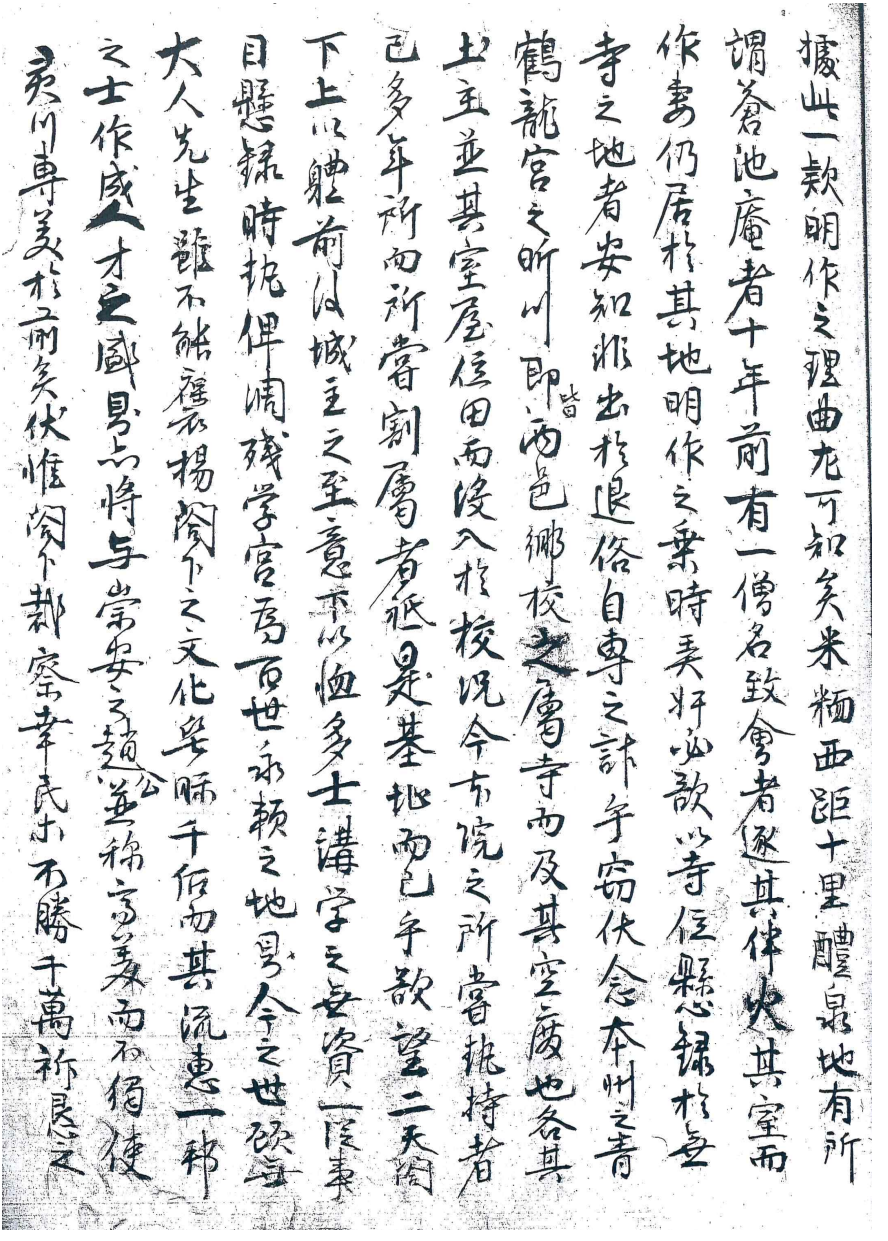
一居齋諸生須各立志守固毋求近效惟以遠大自期而若其治心
之方持己之要則伊山白鹿等規昭揭壁上晝訓丁寧今不待置
床而自有餘師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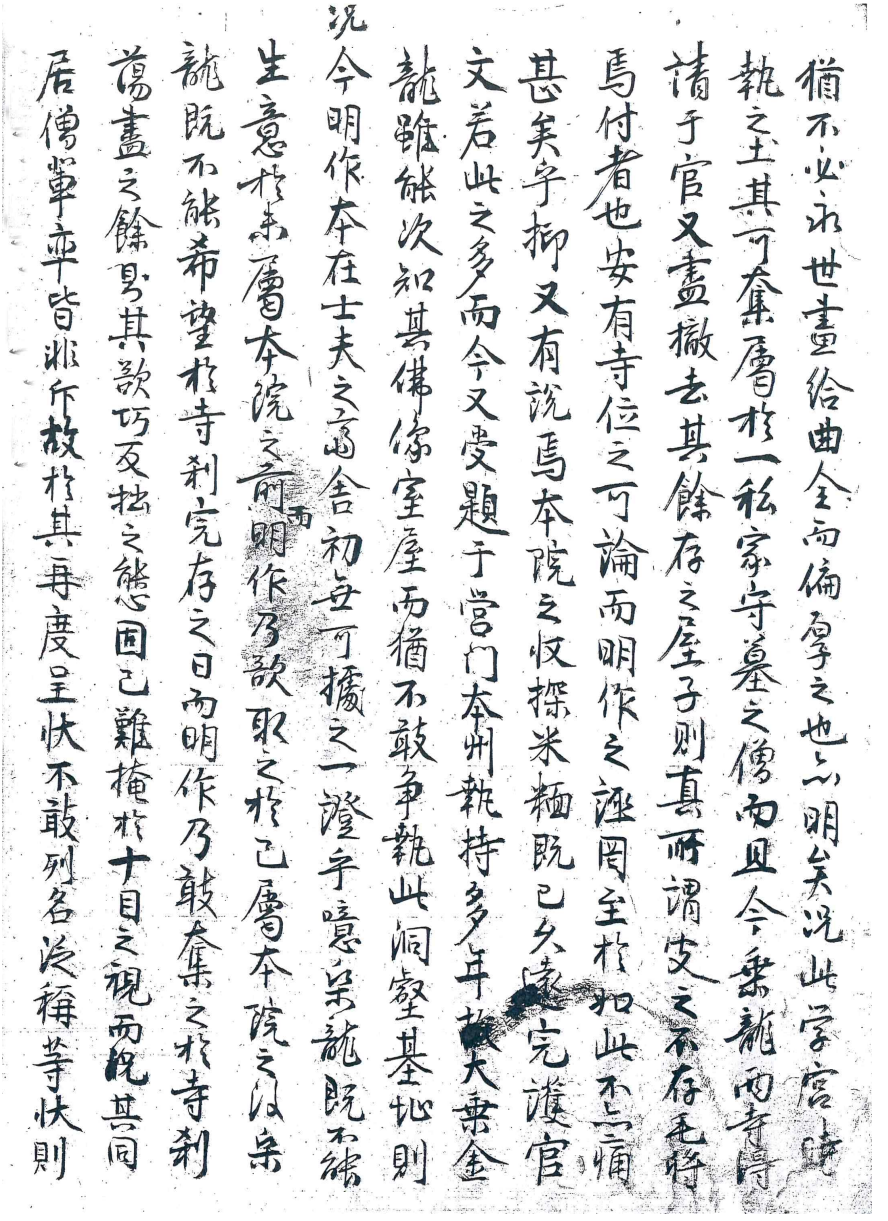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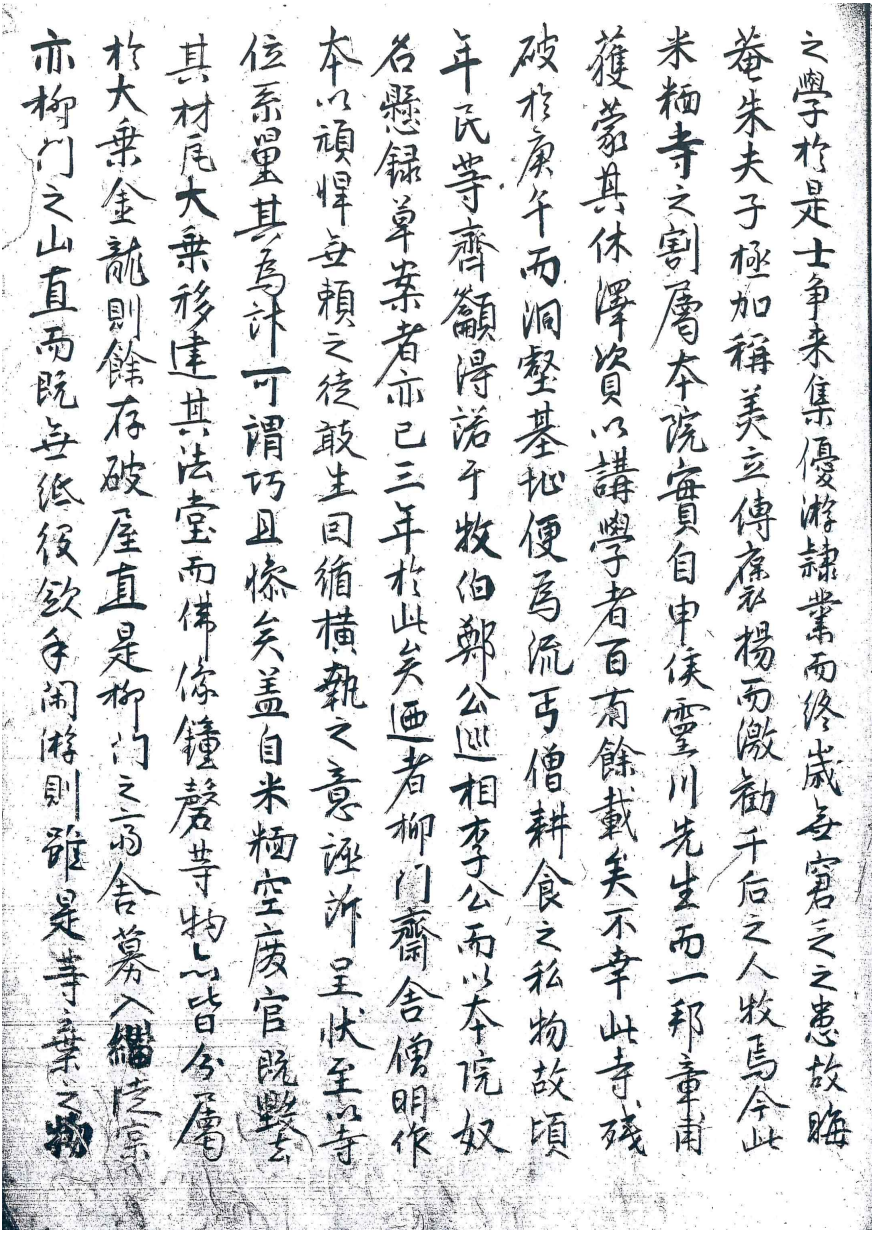
至

院中完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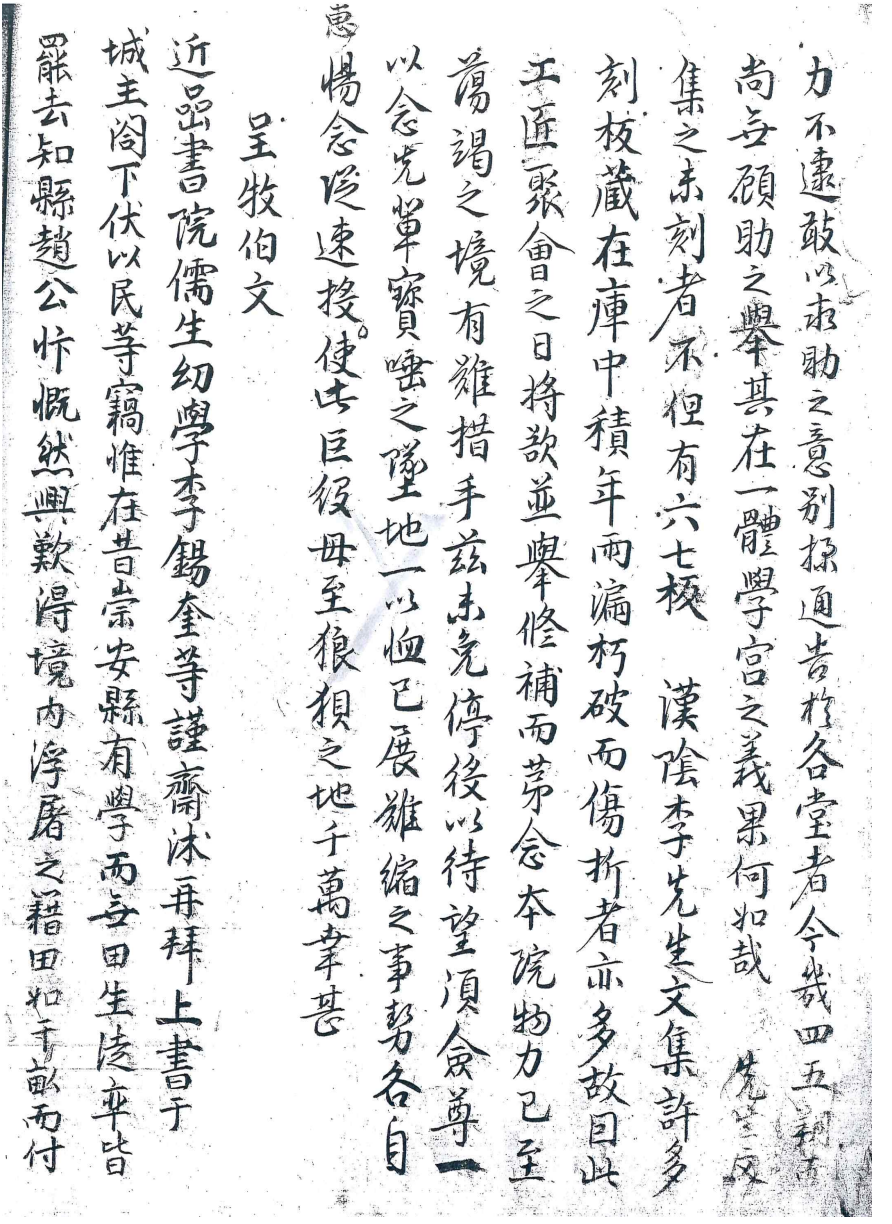
竊惟自古帝王莫不以培養人才爲先務設官而掌教此學校之所由始而昔賢之所共勉也降及後世制度寢寖象賢之典義起俎豆之舉是崇而乎世學宮之所嘗殫力而營絕者秪是春秋祭享而已不曾留心於養士之方則其於古人立學之義固已大相逕庭矣況復五六十載之間弊端層生無故聚集只供一場閑談而罷右文興學之地便爲後生咄啐之所則茲宗儒林之欠典有識之所深慨者也嗚乎我 列聖崇奬儒術顧恤學宮之意豈徒然哉今計本院物力比前倍加如得節用而省其費可以支十許人數月之供故因此春 享齊會之日商確立約割出土地以其半爲春秋 祭享之需以其半爲逐年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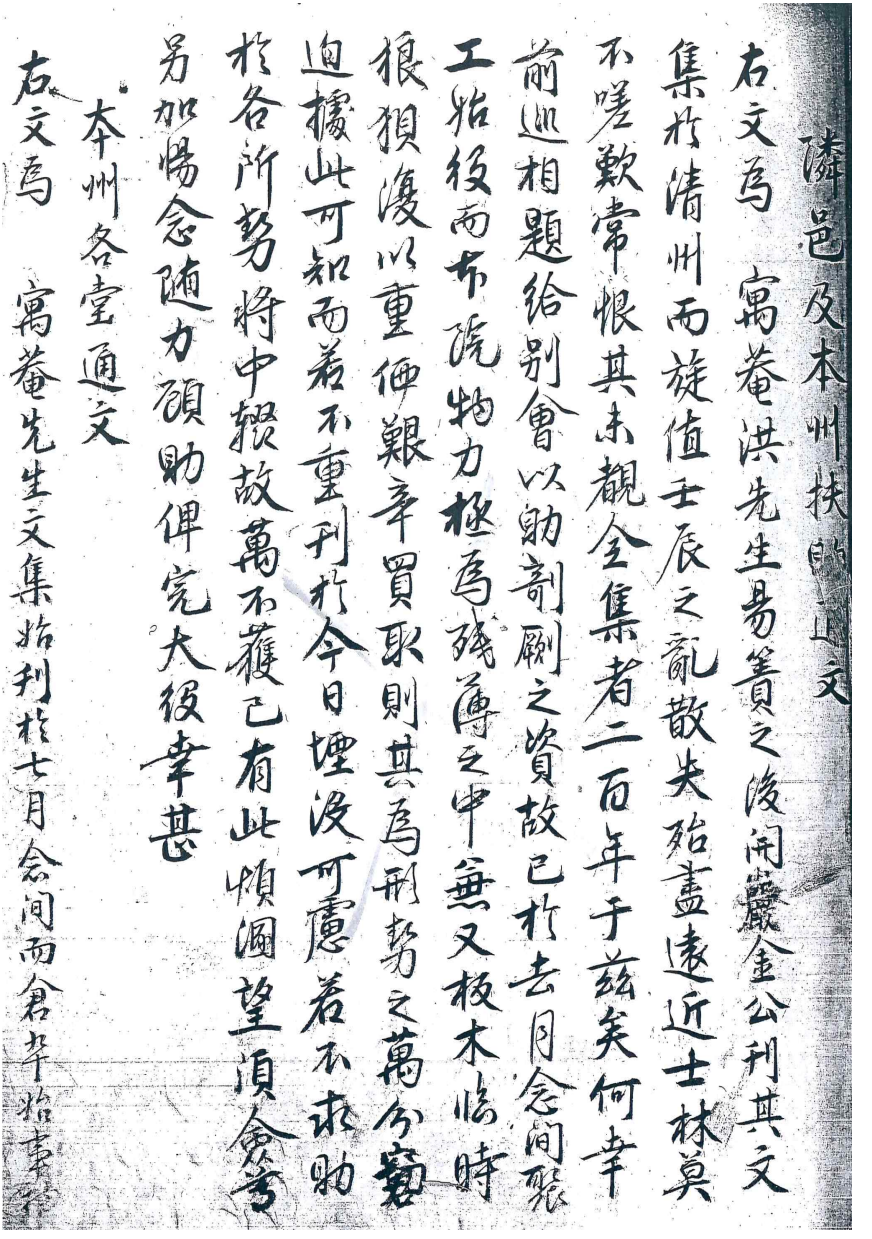
之學於是士爭來集優游隸業而終歲無窘乏之患故晦
菴朱夫子極加稱美立傳褒揚而激勸千后之人牧焉今此
米粞寺之割屬本院實自申侯靈川先生而一邦章甫
獲蒙其休澤資以講學者百有餘載矣不幸此寺殘
破於庚午而洞壑基址便爲流丐僧耕食之私物故頃
年民等齊籲得諾于牧伯鄭公巡相李公而以本院奴
名懸錄草案者亦已三年於此矣迺者柳門齋舍僧明作
本以頑悍無賴之徒敢生因循橫執之意誣訴呈狀至以寺
位系量其爲計可謂巧且慘矣盖自米粞空廢官既毀去
其材瓦大乘移建其法堂而佛像鐘磬等物亦皆分屬
於大乘金龍則餘存破屋直是柳門之前舍募入繼陵寮
亦柳門之山直而既無紙役欲手閑游則雖是等棄之物



力不逮敢以求助之意別採通告於各堂者今幾四五朔而
尚無顧助之舉其在一體學宮之義果何如哉 先生文
集之未刻者不但有六七板 漢陰李先生文集許多
刻板藏在庫中積年雨漏朽破而傷折者亦多故因此
工匠聚會之日將欲並舉修補而第念本院物力已至
蕩竭之境有難措手茲未免停役以待望須僉尊一
以念先輩寶唾之墜地一以恤已展難縮之事勢各自
惠惕念從速投使此巨役毋至狼狽之地千萬幸甚

呈牧伯文

近嵒書院儒生幼學李錫奎等謹齋沐再拜上書于
城主閤下伏以民等竊惟在昔崇安縣有學而無田生徒卒皆
罷去知縣趙公忭慨然興歎得境內浮屠之籍田如干畝而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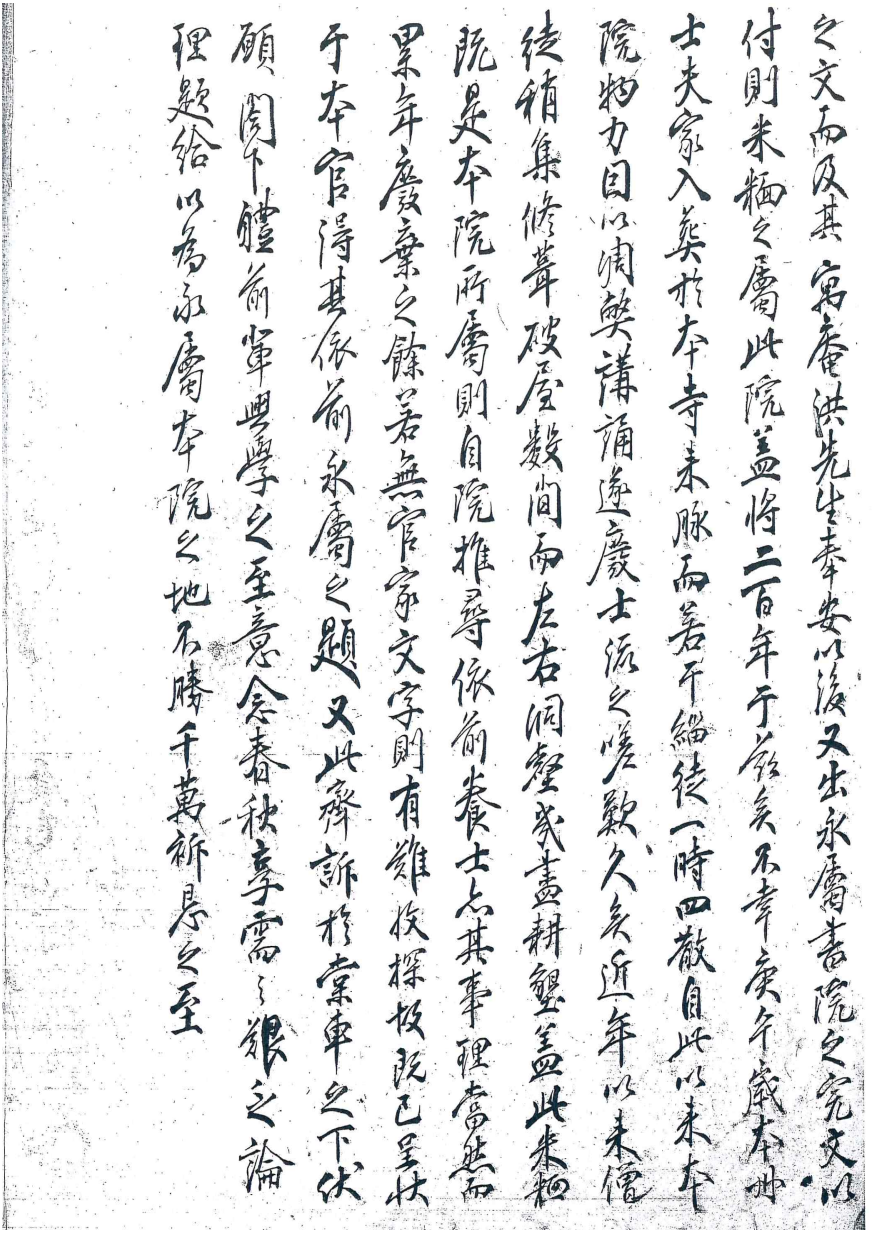


隣邑及本州扶助通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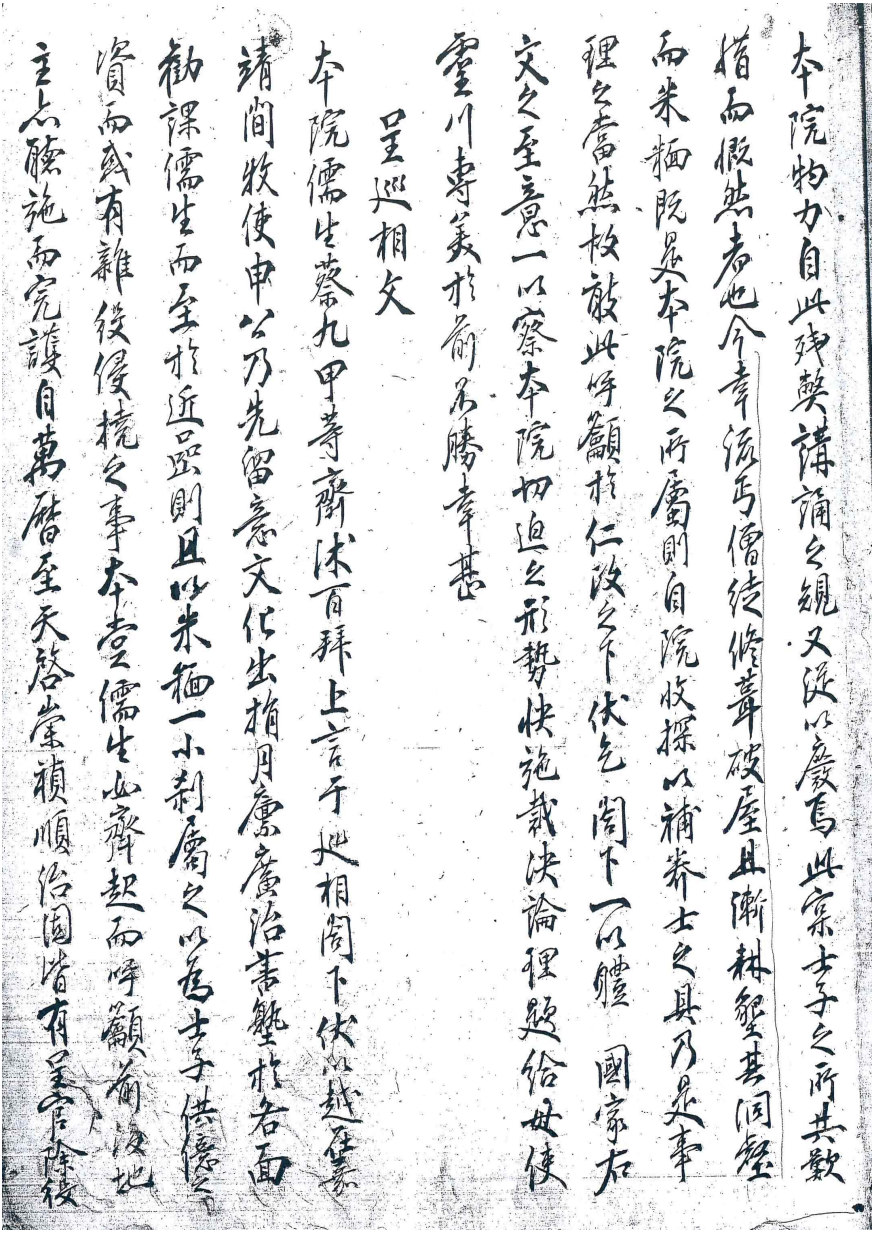
右文爲　寓菴洪先生易簀之後開巖金公刊其文集於清州而旋值壬辰之亂散失殆盡遠近士林莫不嗟歎常恨其未覩全集者二百年于茲矣何幸前巡相題給別會以助剞劂之資故已於去月念間聚工始役而布疏物力極爲殘薄之中無又板木臨時狼狽復以重価艱辛買取則其爲形勢之萬分窘迫據此可知而若不重刊於今日堙沒可慮若不求助於各所勢將中輟故萬不獲已有此煩溷望須僉等另加惕念隨力顧助俾完大役幸甚

本州各堂通文

右文爲　寓菴先生文集始刊於七月念間而倉卒始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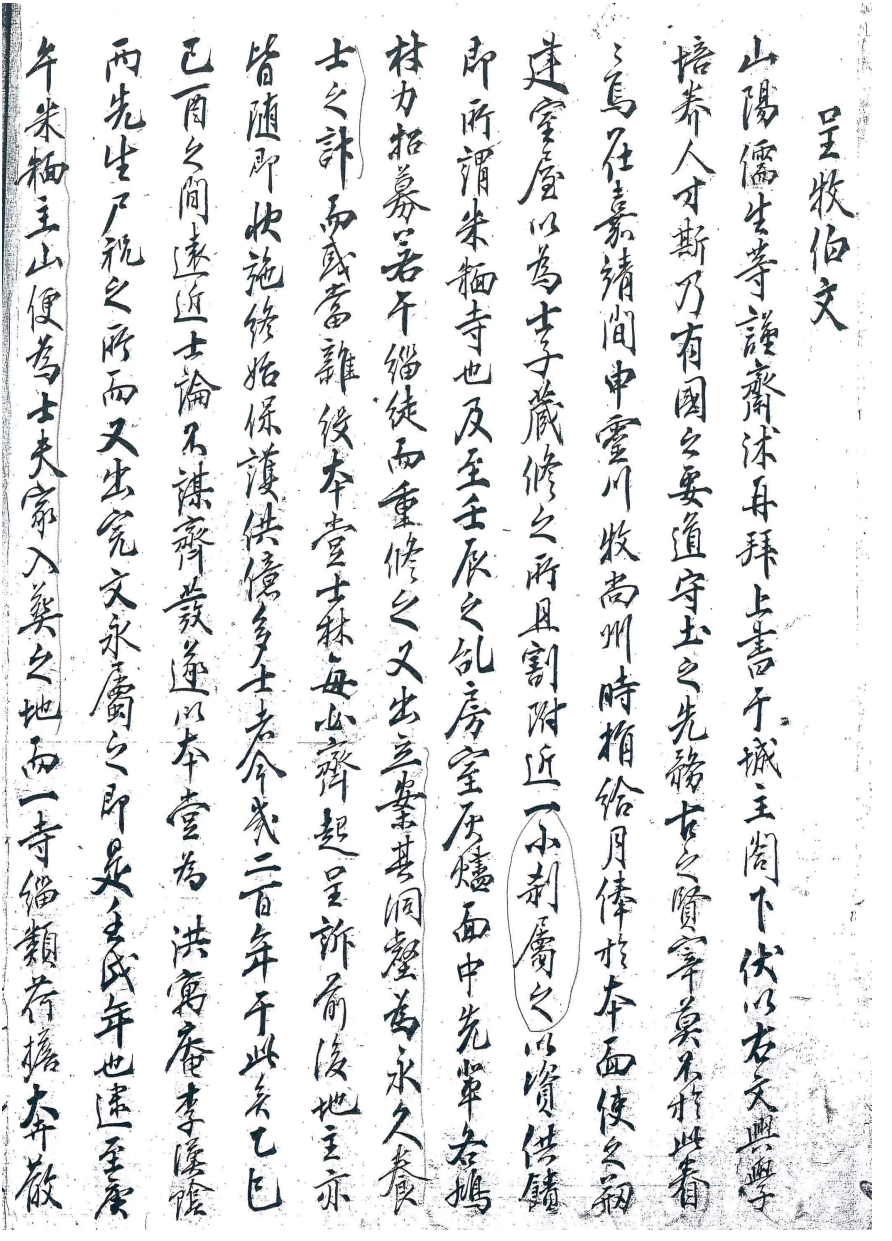
之文而及其寓庵洪先生奉安以後又出永屬書院之完文以
付則米粞之屬此院蓋將二百年于茲矣不幸庚午歲本州
士夫家入葬於本寺未脉而若干緇徒一時四散自此以來本
院物力因以凋弊講誦遂廢士流之嗟歎久矣近年以來僧
徒稍集修葺破屋數間而左右洞壑幾盡耕墾蓋此米粞
既是本院所屬則自院推尋依前養士亦其事理當然而
累年廢棄之餘若無官家文字則有難收探故既已呈狀
于本官得其依前永屬之題又此齊訴於棠車之下伏
願閣下體前輩興學之至意念春秋享需之艱乏論
理題給以為永屬本院之地不勝千萬祈恳之至



本院物力自此殘弊講誦之規又從以廢焉此宗士子之所共歎
惜而慨然者也今幸流馬僧徒修葺破屋且漸耕墾其洞壑
而米粞既是本院之所屬則自院收探以補養士之具乃是事
理之當然故敢此呼籲於仁政之下伏乞閣下一以體 國家右
文之至意一以察本院切迫之形勢快施裁決論理題給毋使
靈川專美於前不勝幸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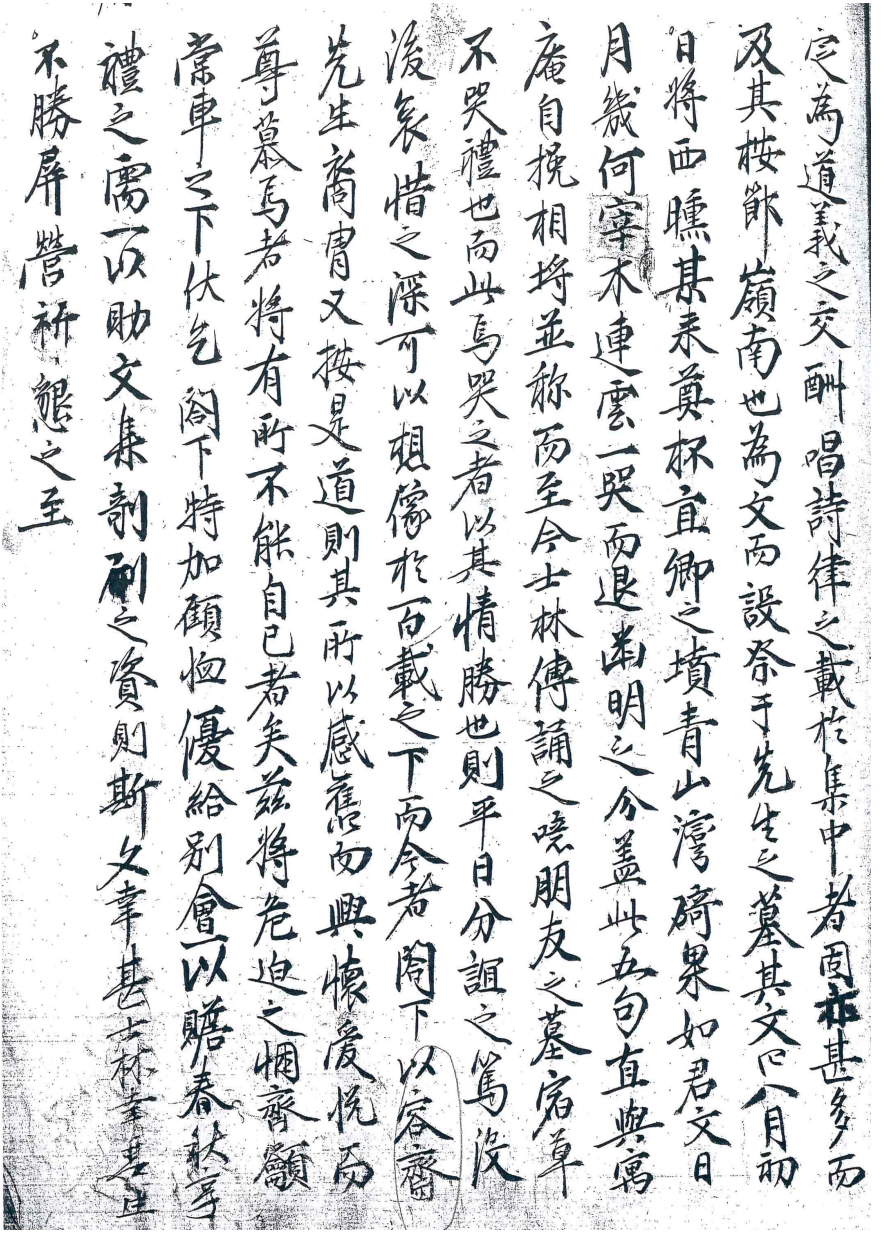
呈巡相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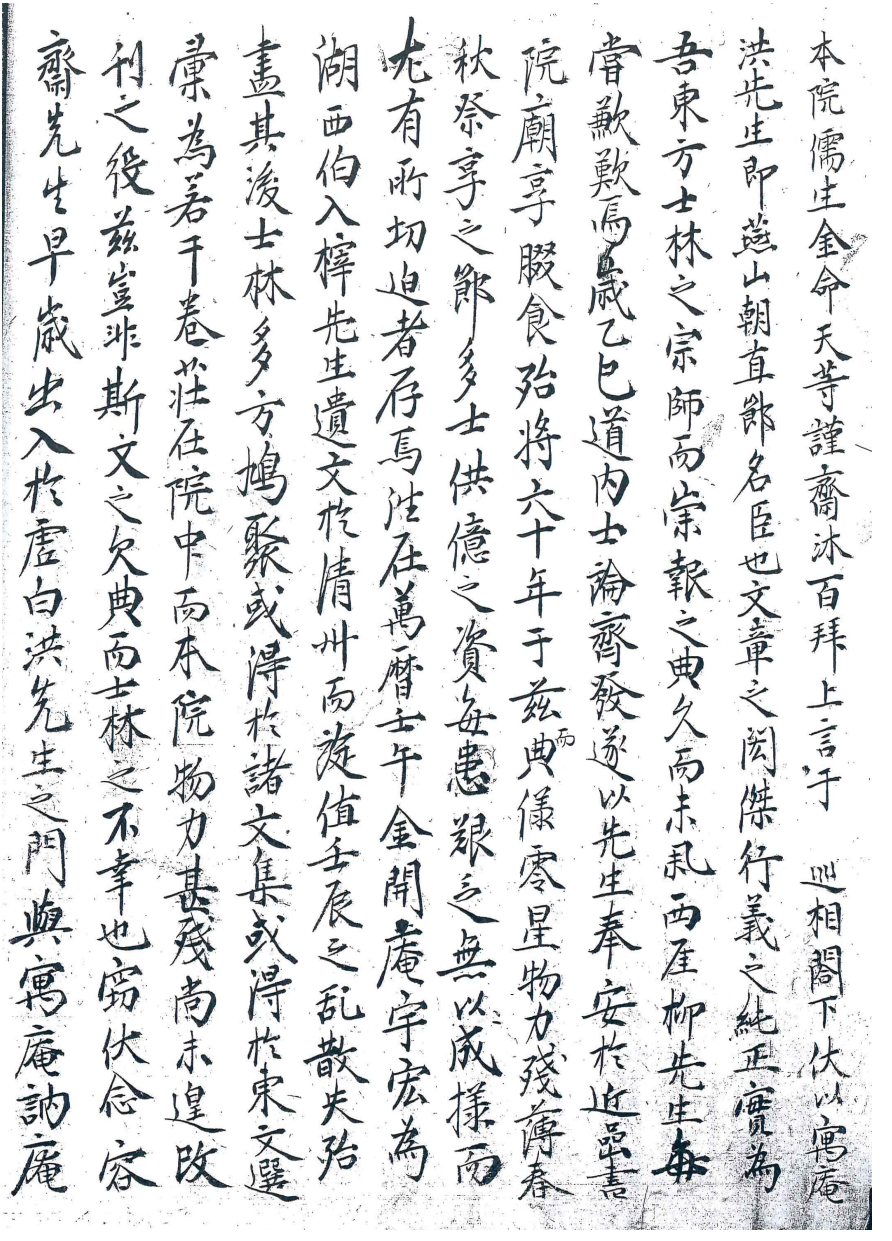
本院儒生蔡九甲等齋沐百拜上言于巡相閣下伏以越在篆
靖間牧使申公乃先留意文化出捐月廩廣治書塾於各面
勸課儒生而至於近邑則且以米粞一小剎屬之以爲士子供億之
資而或有雜役侵撓之事本壹儒生必齊起而呼籲前後地
主亦聽施而完護自萬曆至天啓崇禎順治國皆有呈官除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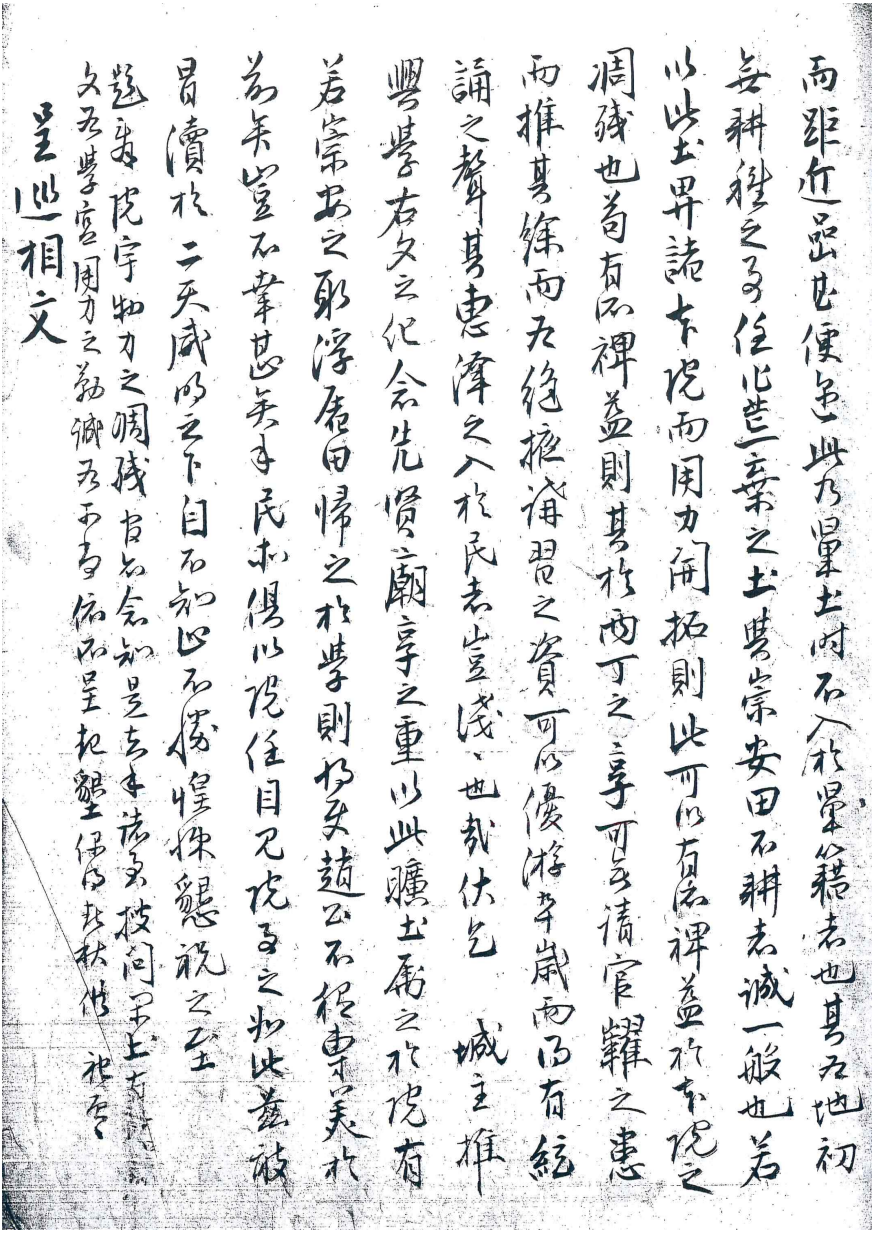
呈牧伯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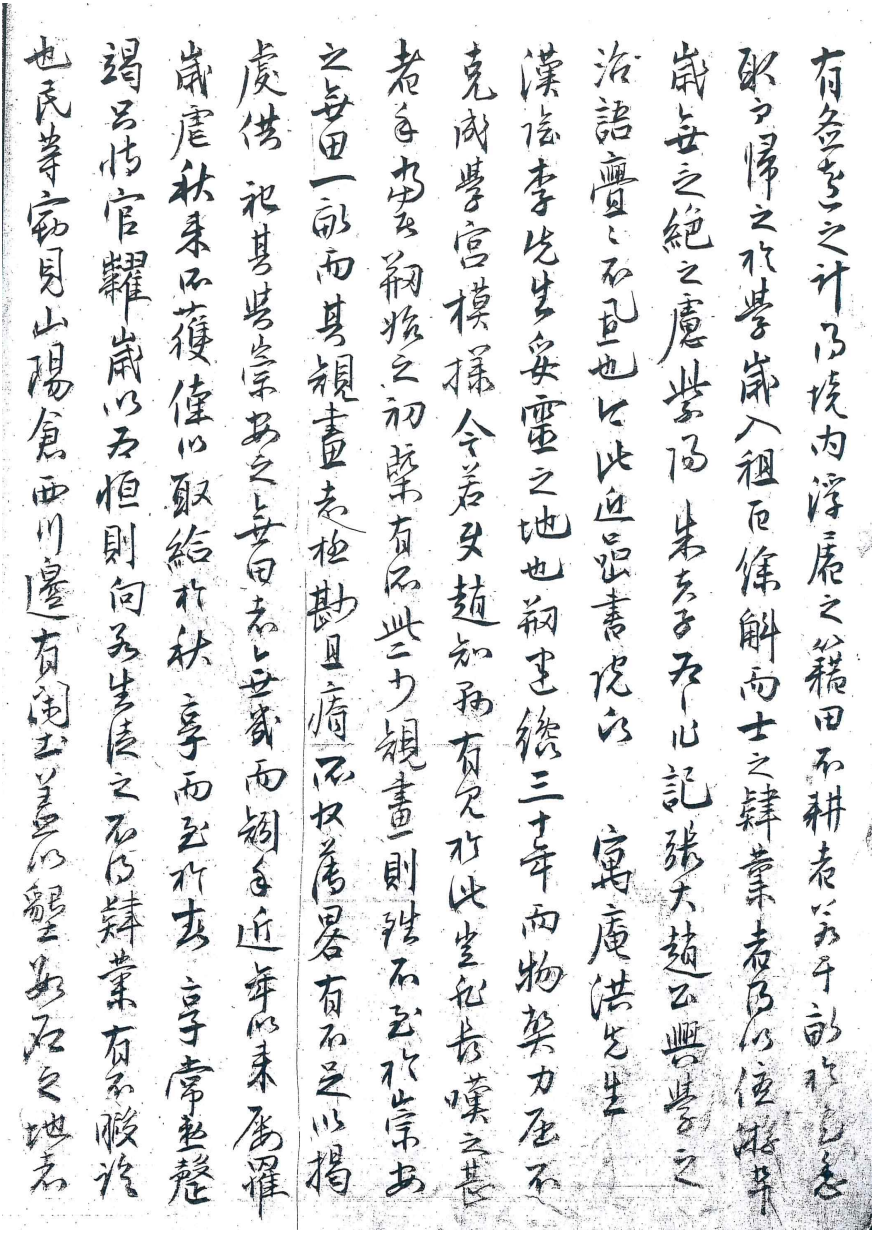
山陽儒生等謹齋沐再拜上書于城主閤下伏以右文興學
培養人才斯乃有國之要道守土之先務古之賢宰莫不於此眷
之焉在嘉靖間申靈川牧尚州時捐給月俸於本面使之剏
建室屋以為士子藏修之所且割附近一小剎屬之以資供饋
即所謂米稻寺也及至壬辰之亂房室屋燼面中先輩各攜
材力招募若干緇徒而重修之又出立案其洞壑為永久養
士之計而或當離役本壹士林每必齊起呈訴前後地主亦
皆隨即收施終始保護供億多士者今幾二百年于此矣乙巳
己酉之間遠近士論不謀齊發遂以本壹為 洪寓庵李溪陰
兩先生尸祝之所而又出完文永屬之即是壬戌年也逮至庚
午米稻主山便為士夫家入葬之地而一寺緇類荷擔奔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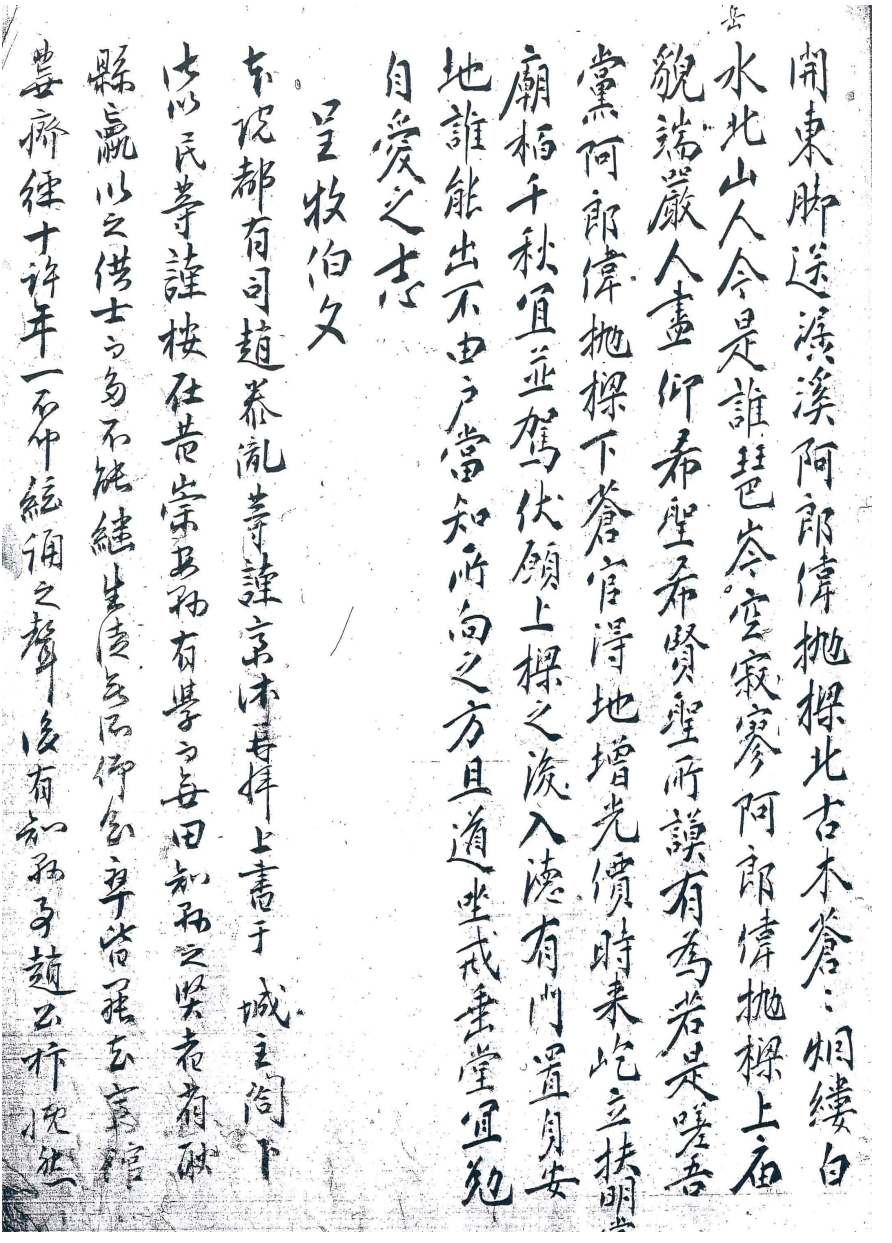




本院儒生金命天等謹齋沐百拜上言于 巡相閤下伏以寓庵
洪先生即慈山朝直郎名臣也文章之閎傑行義之純正實為
吾東方士林之宗師而崇報之典久而未亂西厓柳先生每
嘗歎歎爲歲乙巳道內士論齊發遂以先生奉安於近畿書
院廟享腐食殆將六十年于茲典(而)儀零星物力殘薄春
秋祭享之節多士供億之資每患艱乏無以成樣而
尤有所切迫者存焉往在萬曆壬午金開庵宇宏為
湖西伯入樟先生遺文於清州而旋值壬辰之亂散失殆
盡其後士林多方搜聚或得於諸文集或得於宋文選
彙為若干卷莊在院中而本院物力甚殘尚未遑改
刊之役茲豈非斯文之欠典而士林之不幸也竊伏念容
齋先生早歲出入於慮白洪先生之門與寓庵訥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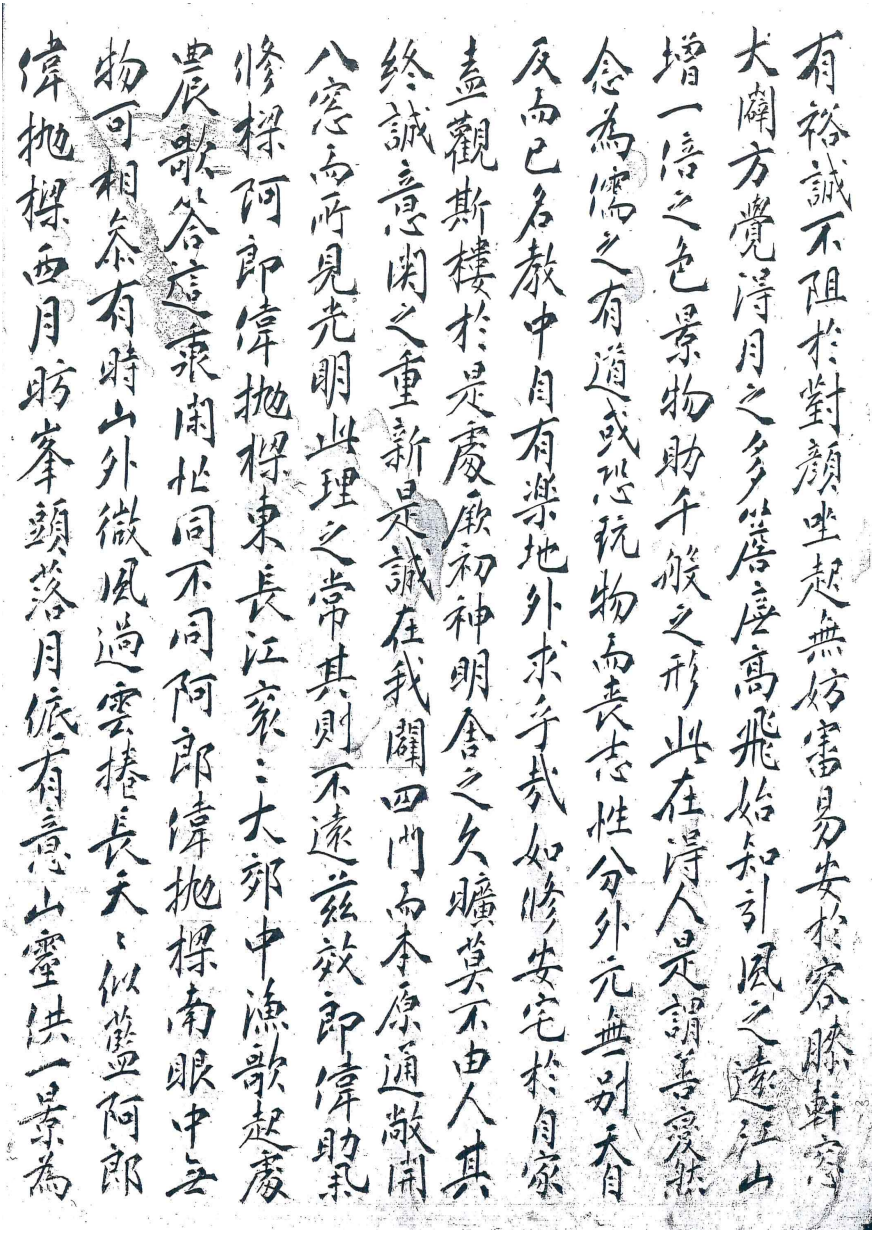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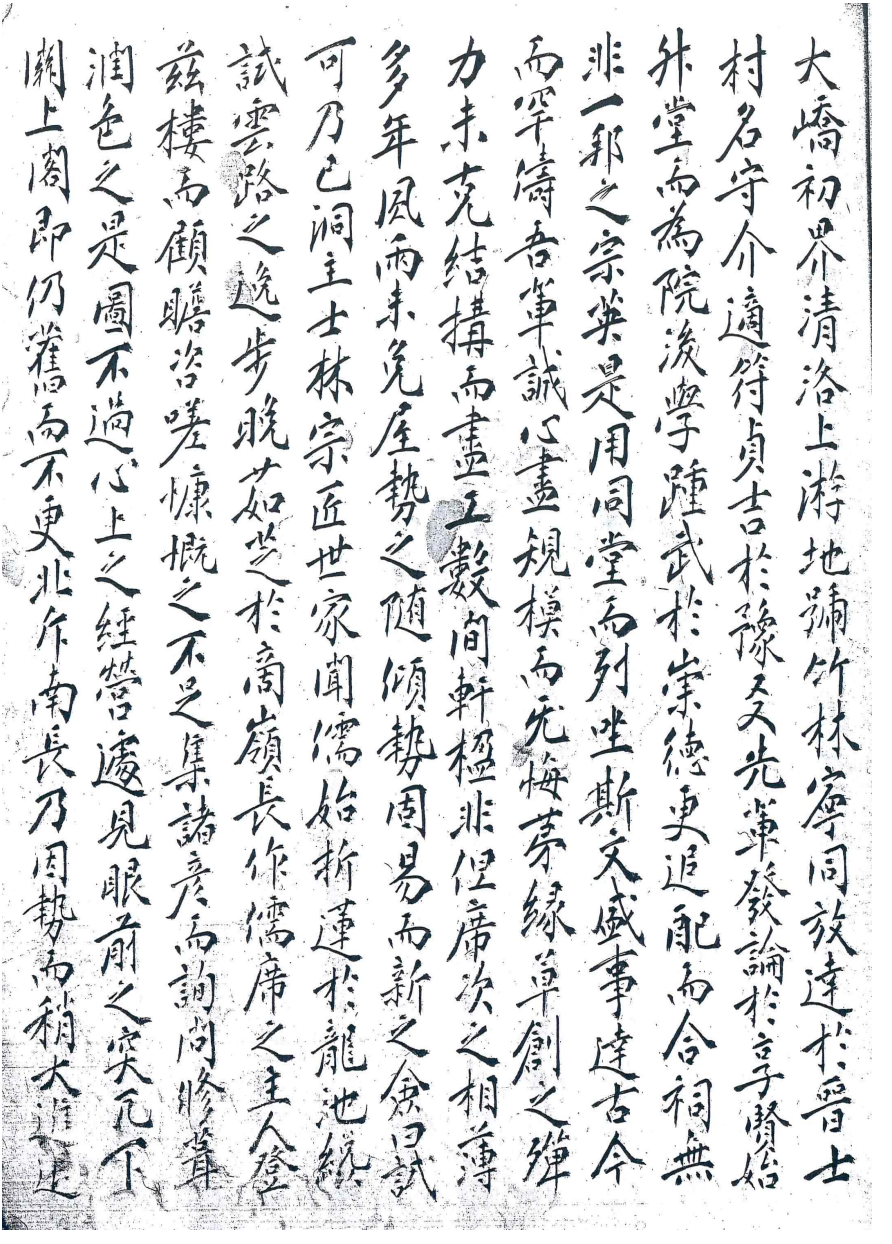


開東脚送溪溪阿郎偉拋樑北古木蒼蒼烟縷白
岳水北山人今是誰琵琶岑空寂寥阿郎偉拋樑上面
貌端嚴人盡仰希聖希賢聖所謨有為若是嗟吾
黨阿郎偉拋樑下蒼官得地增光價時來屹立扶明堂
廟栢千秋宜並駕伏願上樑之後入德有門置身安
地誰能出不由戶當知所向之方且道坐戒垂堂宜勉
自愛之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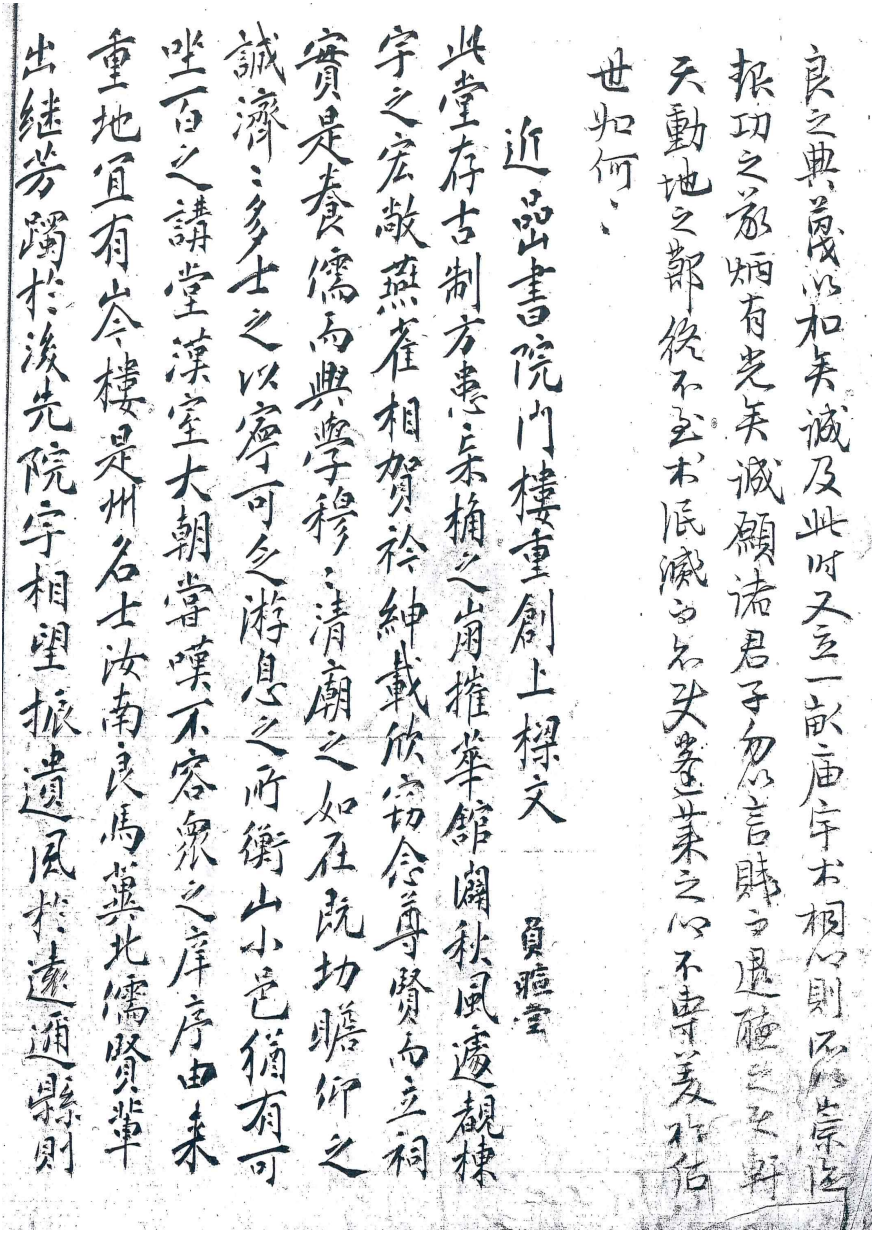
呈牧伯文

東坡都有司趙恭亂等謹案沐再拜上書于 城主閤下
此以民等謹按在昔崇安縣有學之每田知縣之賢者有耿
縣贏以之供士之多不能繼生徒無所仰食享皆罷去寓館
婁齋徑十許年一石仲絃誦之聲後有知縣事趙公抃悅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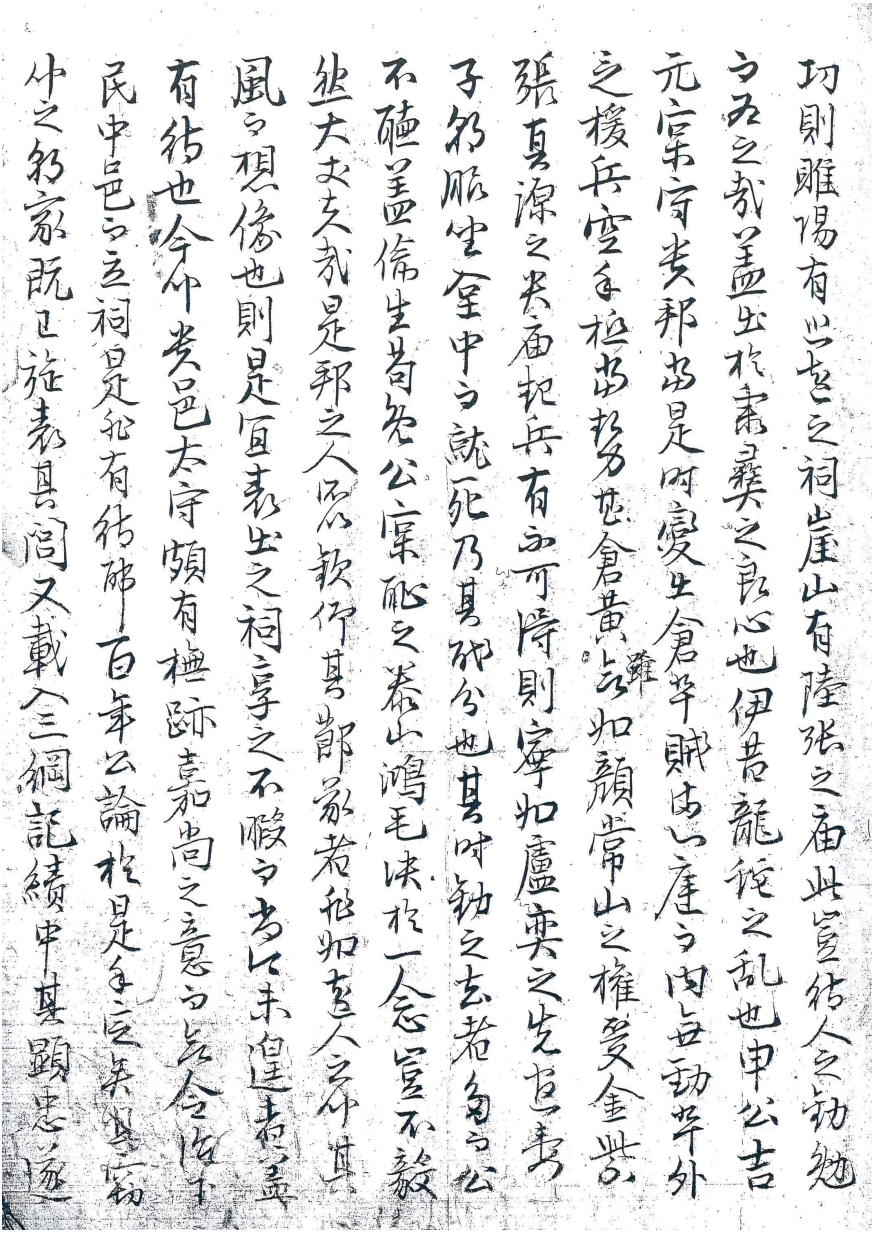
大嶠初界清洛上游地踊竹林寧同放達於晉士
村名守介適符貞吉於豫又先輩發論於享賢始
升堂而為院後學踵武於崇德更追配而合祠無
非一邦之宗英是用同堂而列坐斯文盛事達古今
而罕儔吾輩誠心盡規模而无悔茅緣草創之殫
力未克結搆而盡工數間軒楹非但席次之相薄
多年風雨未免屋勢之隨傾勢固易而新之僉曰試
可乃已洞主士林宗匠世家聞儒始折蓮於龍池縱
試雲路之逸步晚茹芝於商嶺長作儒席之主人登
茲樓而顧瞻咨嗟慷慨之不足集諸彥而詢問修葺
潤色之是圖不過心上之經營遽見眼前之突兀下
闕上閣即仍舊而不更北斥南長乃因勢而稍大進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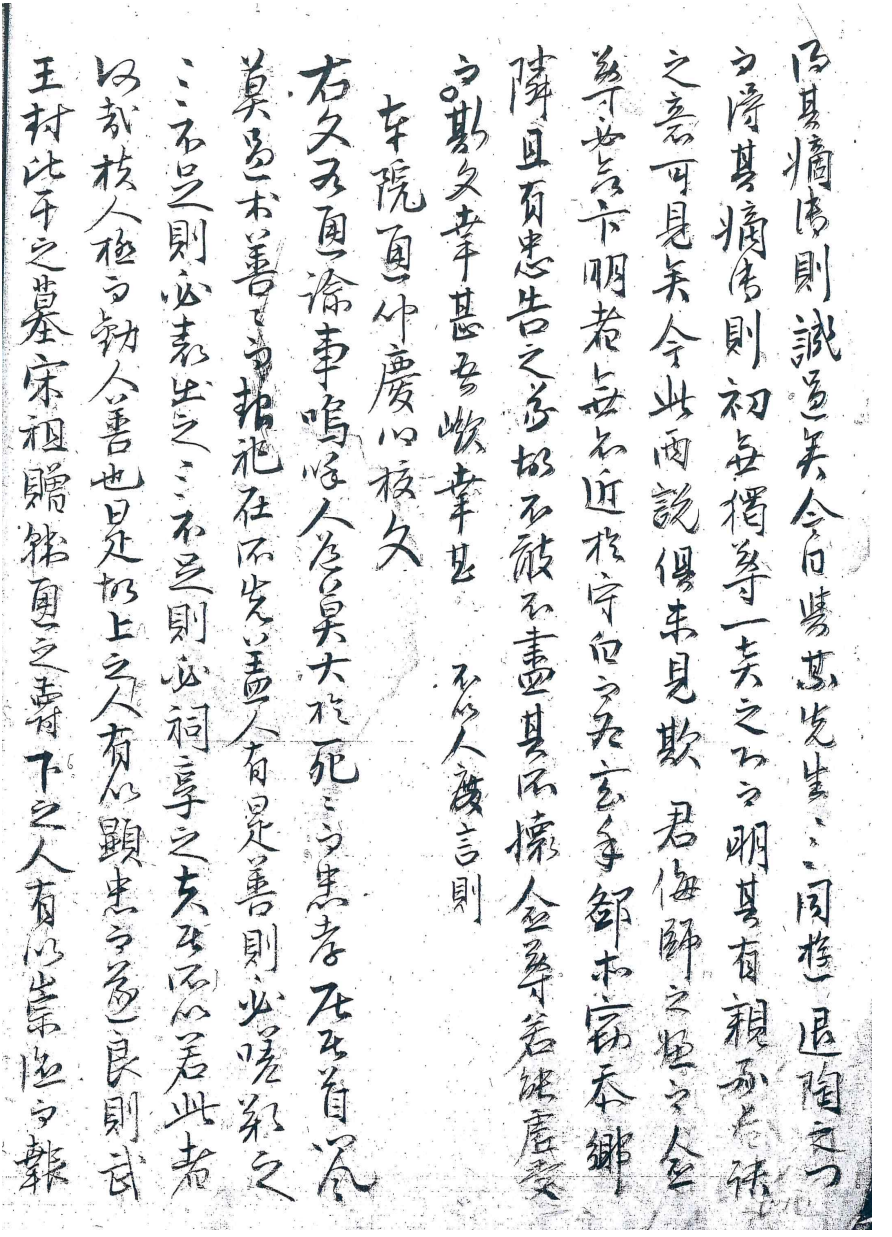
良之典蔑以加矣誠及此時又立一畝庙宇未相似則亦崇德
報功之家炳有光矣誠願諸君子勿以言賤而退醢之至軒
天動地之鄙終不至於泯滅而名其蓋莱之心不專美於佑
世如何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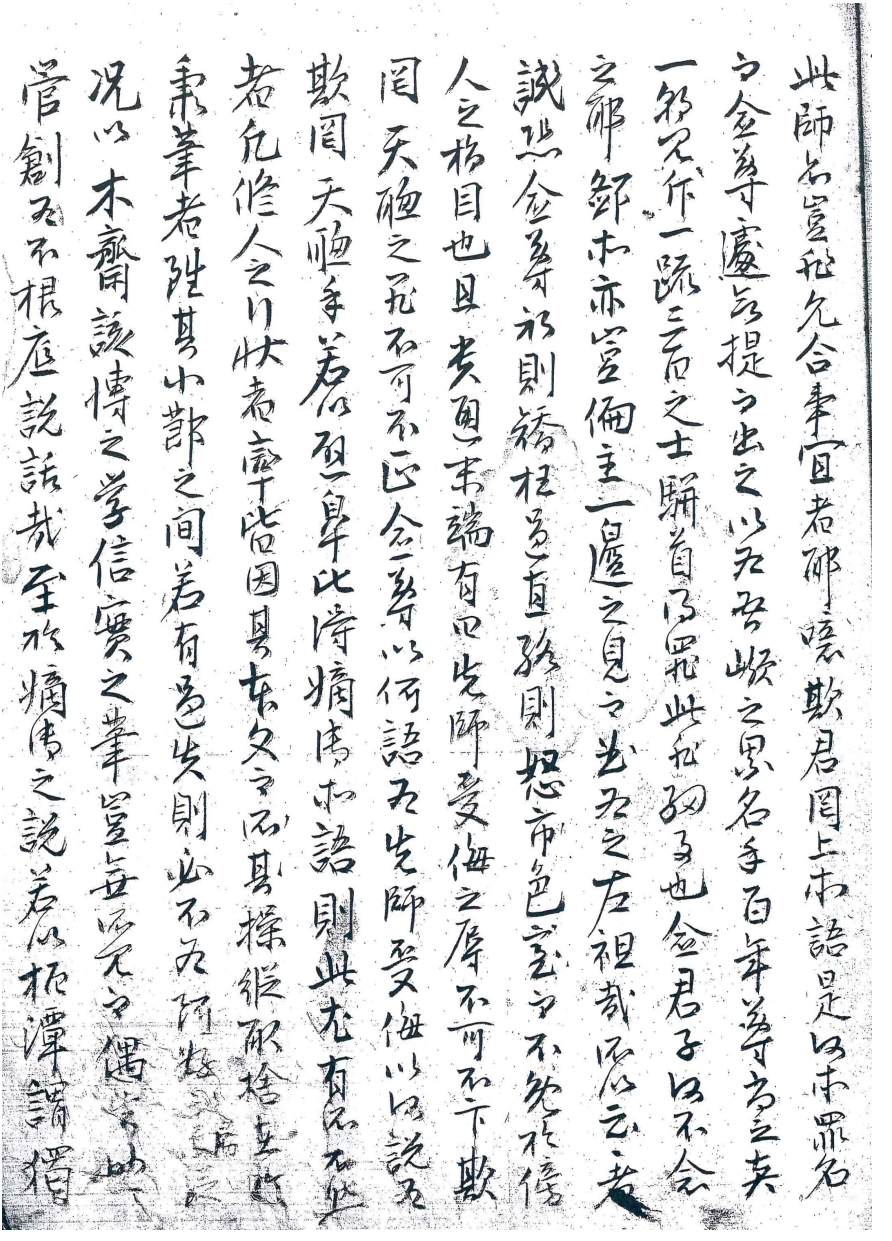
近嵒書院門樓重創上樑文　負暄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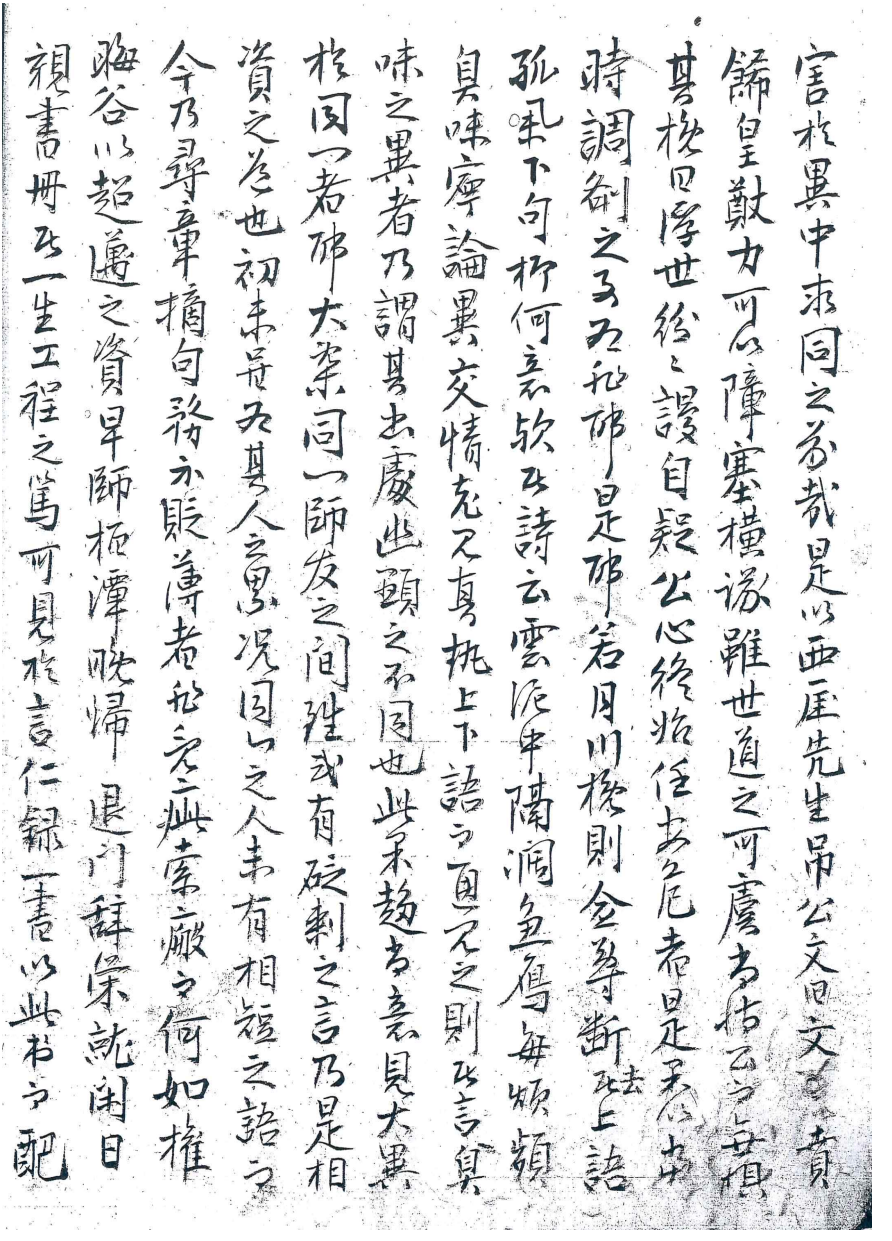
此堂存古制方患乘桷之崩摧華館闢秋風遽覩棟
宇之宏敞燕雀相賀衿紳載欣竊念尊賢而立祠
實是養儒而興學穆〻清廟之如在既切瞻仰之
誠濟〻多士之以寧可乏游息之所衡山小邑猶有可
坐百之講堂漢室大朝嘗嘆不容衆之庠序由來
重地宜有岑樓是州名士汝南良馬冀北儒賢輩
出繼芳躅於後先院宇相望振遺風於遠邇縣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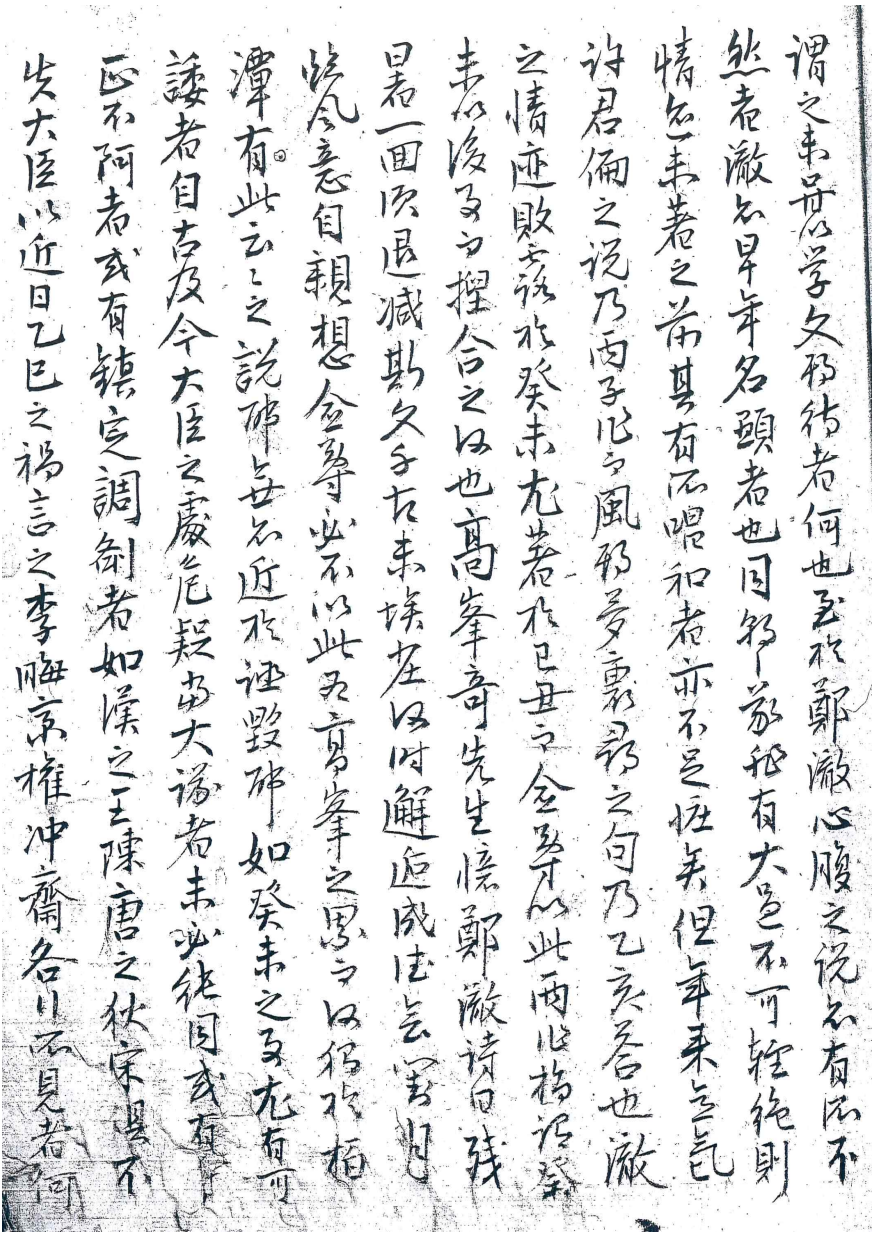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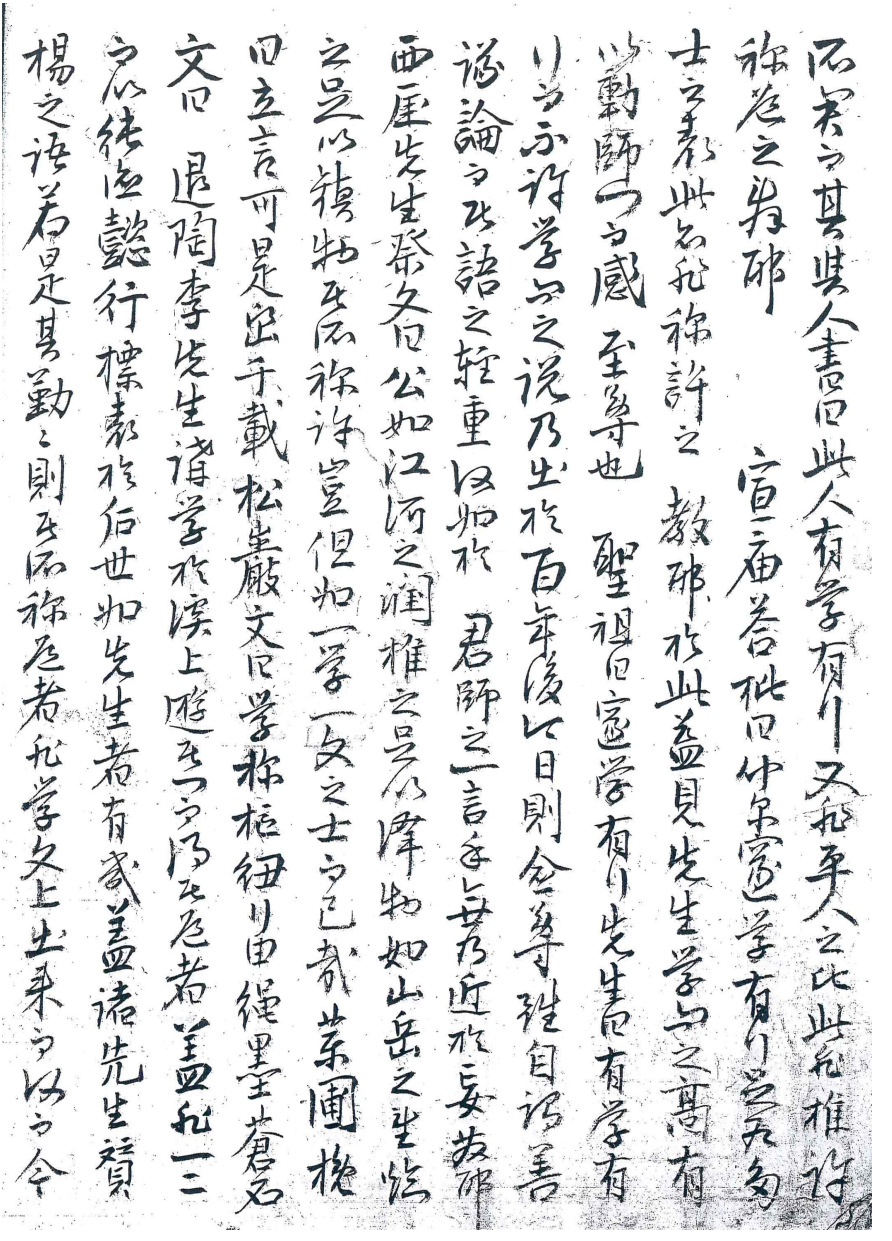
功則雖陽有出者之祠崖山有陸張之廟此豈待人之勸勉
而爲之哉蓋出於秉彝之良心也伊昔龍飛之亂也申公吉
元宗守貴邦當是時變生倉卒賊出山崖而內無動卒外
之援兵空手抵當勢甚倉黃雖如顏常山之權受金紫
張真源之尖廟起兵有不可得則寧如盧奕之先者焉
子弟服坐室中而就死乃其職分也其時勤之去者多而公
不聽蓋偷生苟免公宗祀之泰山鴻毛決於一念豈不毅
然大丈夫哉是邦之人所欽仰其節家者非如是人之仰其
風而想像也則是宜表出之祠享之不暇而當此未遑者蓋
有待也今仲貴邑太守頗有撫跡嘉尚之意而無令治下
民中邑而立祠是非有待耶百年公論於是乎定矣其勸
仲之弟家既已旋表其閭又載入三綱記績中其顯忠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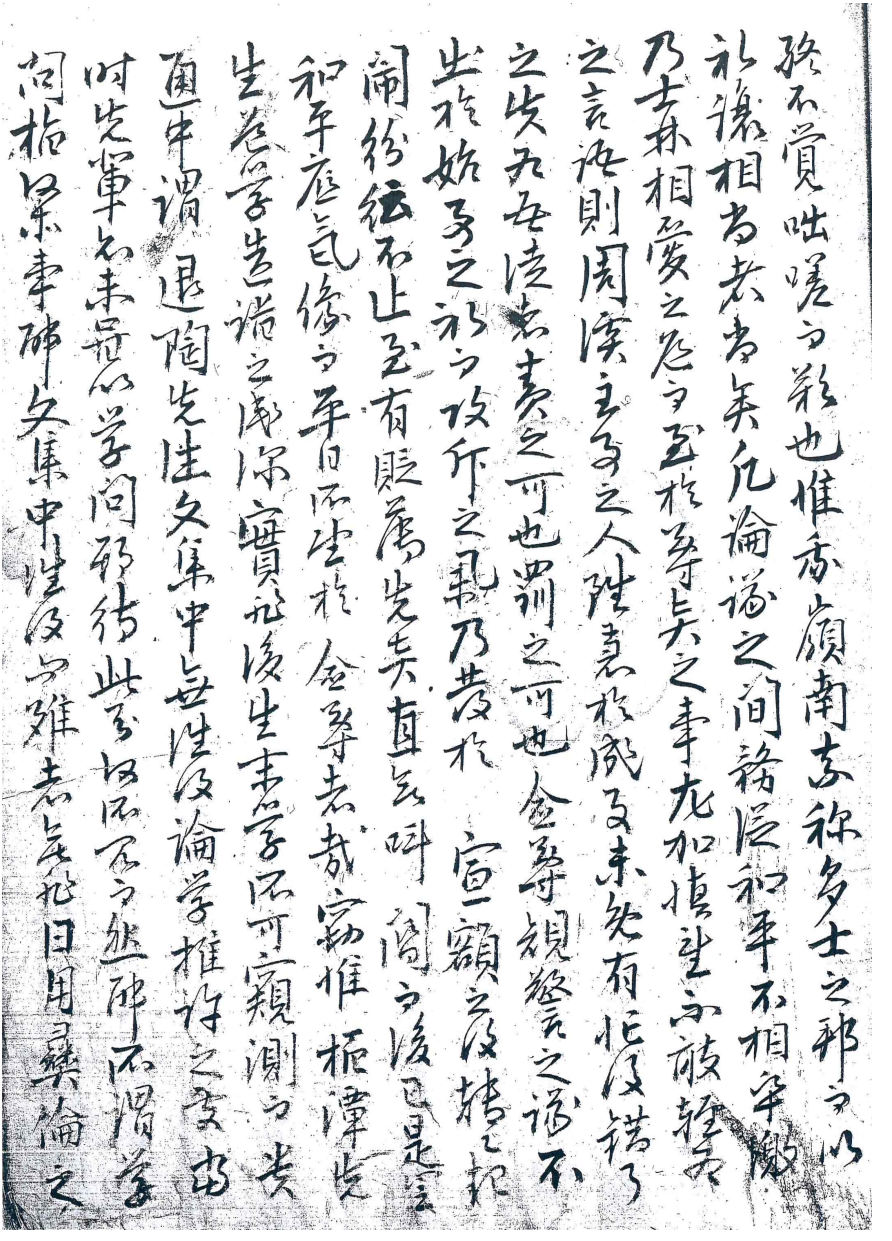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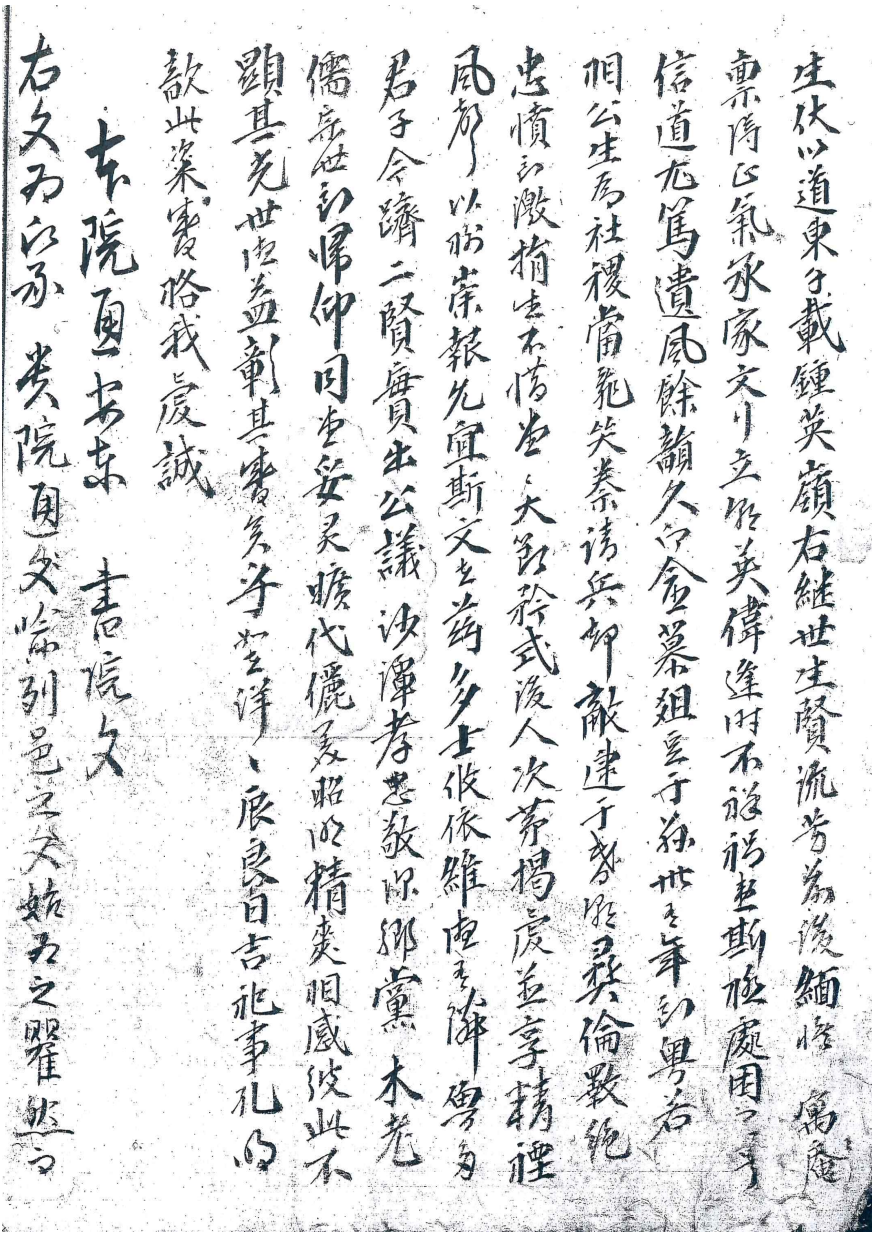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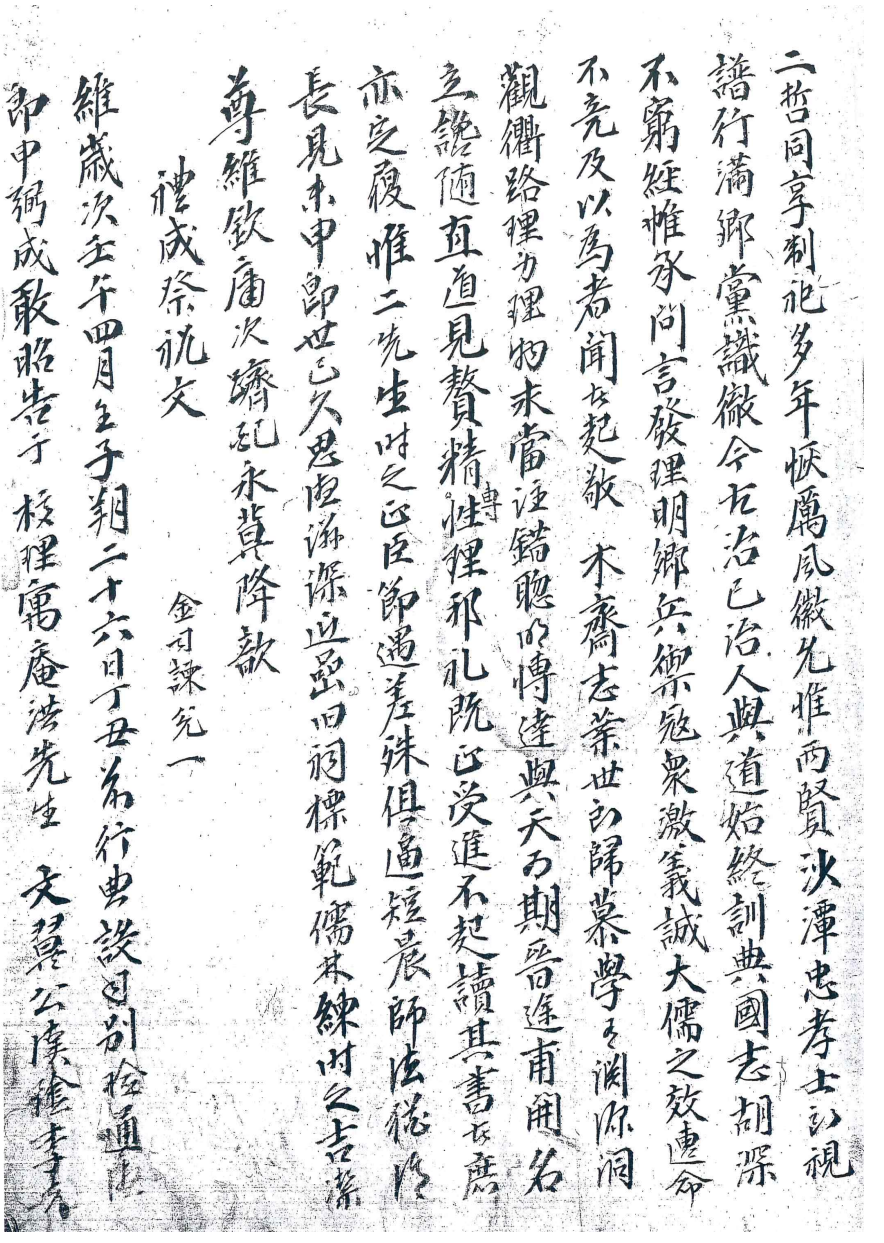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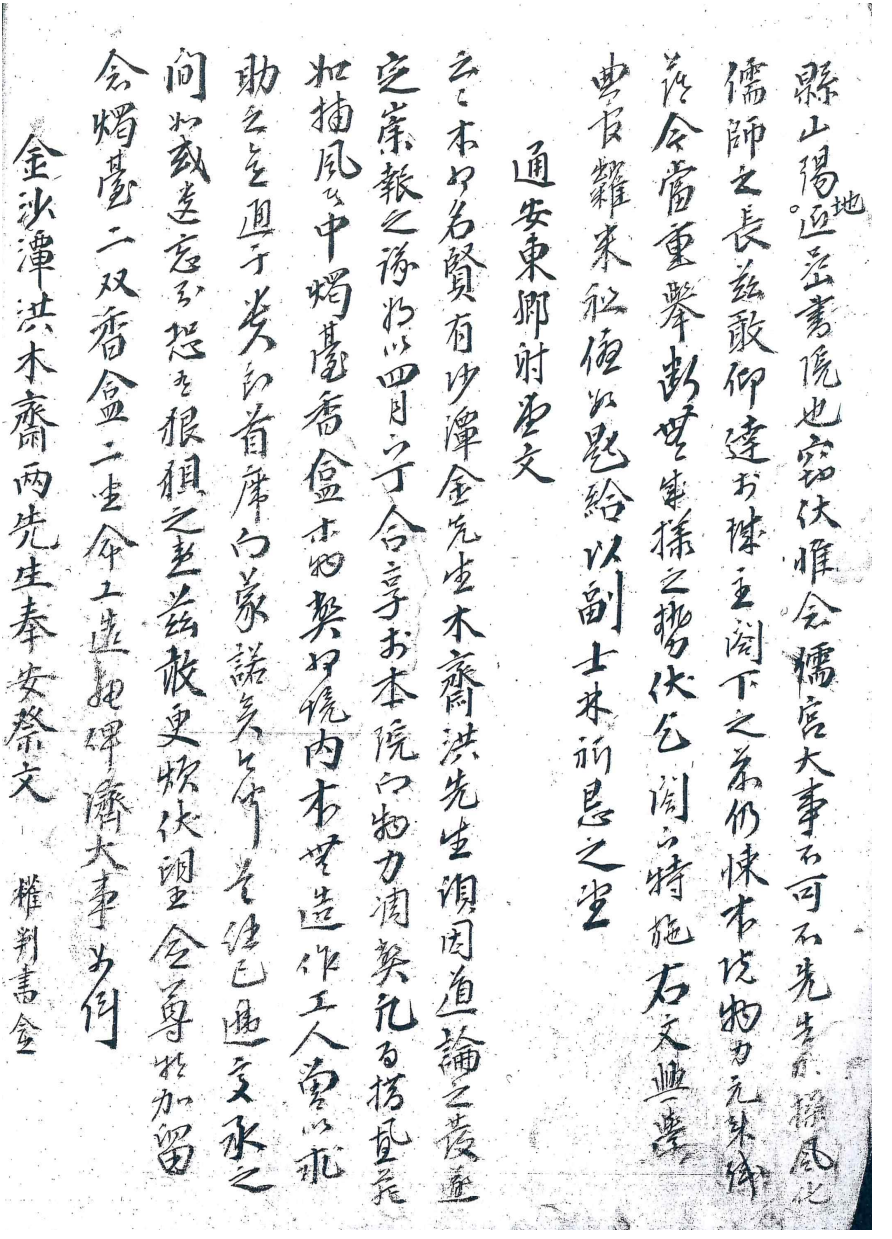


生伏以道東子載鍾英嶺右繼世生賢流芳爲後緬惟 寓庵
稟得正氣承家文行立於英偉逢時不祥禍起斯極處困之乎
信道尤篤遺風餘韻久而愈慕俎豆于茲世之年到粵若
相公生爲社稷當龍笑秦請兵卻敵建于孝於彝倫數絕
忠憤之激指生不惜當大節矜式後人次第揭虔並享精禋
風都以聯崇報允宜斯文之藥多士攸依維由之降粵多
君子今躋二賢實出公議沙潭孝忠敬所鄉黨 木老
儒宗世之歸仰同生安灵曠代儷美昭明精爽相感彼此不
顯其光世德益彰其實矣乎豈洋洋辰良日吉祀事孔明
歆此粢饗格我虔誠

右院通安東 書院文

右文爲所承 貴院通文除列邑之文始爲之罹然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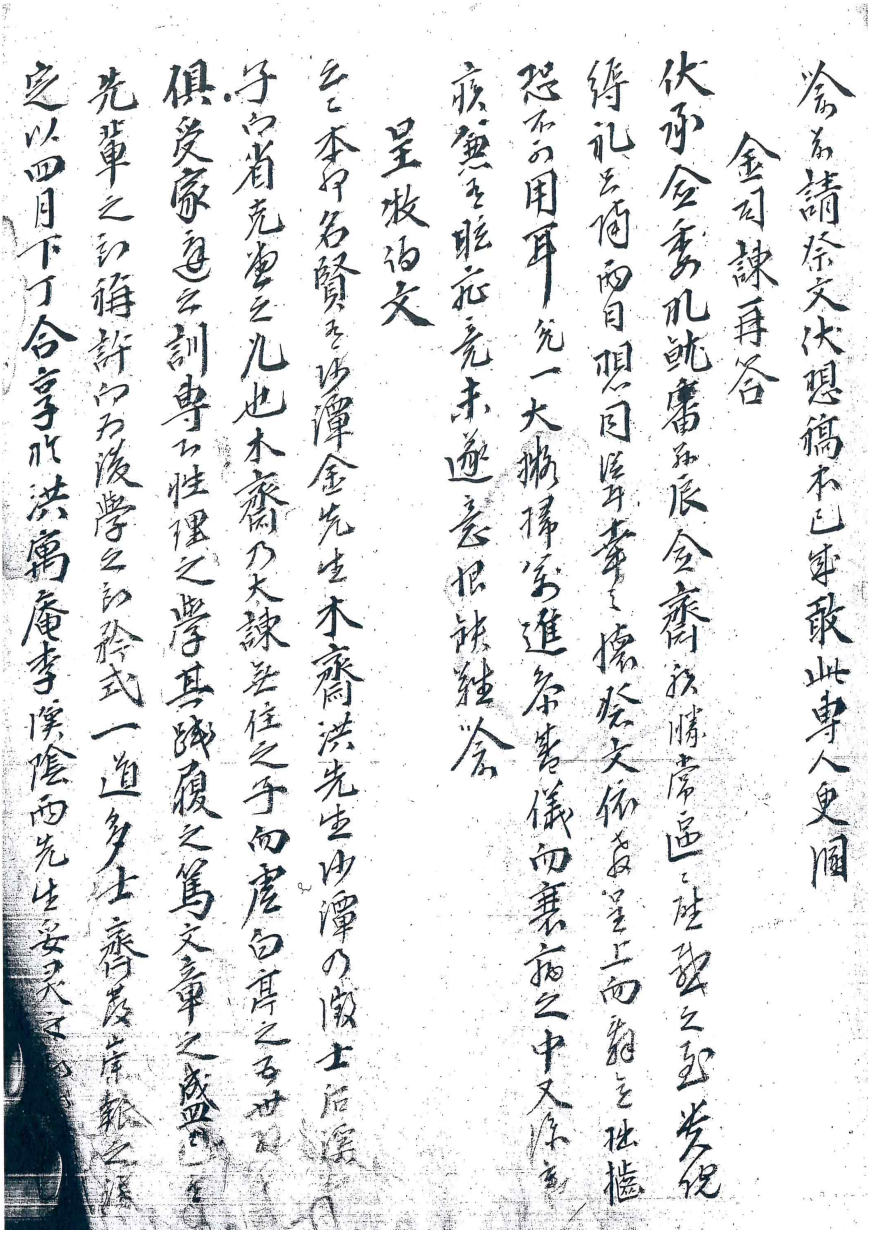
縣山陽地近茲書院也竊伏惟念儒宮大事不可不先生於操風化
儒師之長茲敢仰達於陳主閣下之前仍悚本院物力元來纔
薄今當重擧斷無能樣之勢伏乞閣下特施右文興學
典官糴米私俸以題給以副士林祈恩之望

通安東鄉射堂文

云云本邦名賢有沙潭金先生木齋洪先生須因道論之發遂
定崇報之議將以四月二丁合享於本院而物力凋弊凡百措置莫
如捕風之中燭臺香盒亦物弊如境內本無造作工人曾以求
助之至通于炎節首席而蒙諾矣今所望經已遇交承之
間如或遺忘不恕其狼狽之患茲敢更煩伏望念尊特加留
念燭臺二双香盒二坐命工造施俾濟大事如何

金沙潭洪木齋兩先生奉安祭文　權判書金

[illegible]請祭文伏想稿本已[illegible]敢此專人更圖



金司諫再答

伏承[illegible]季孔[illegible]審[illegible]辰[illegible]齋[illegible]常[illegible]之[illegible]之[illegible]

[illegible]禮[illegible]而[illegible]想[illegible]幸[illegible]擴祭文[illegible]呈上而[illegible]之[illegible]

恐不可用耳[illegible]一大[illegible]掃[illegible]進[illegible]儀而[illegible]之中又[illegible]

[illegible]無[illegible]昭[illegible]未遂[illegible]恨[illegible]

呈牧伯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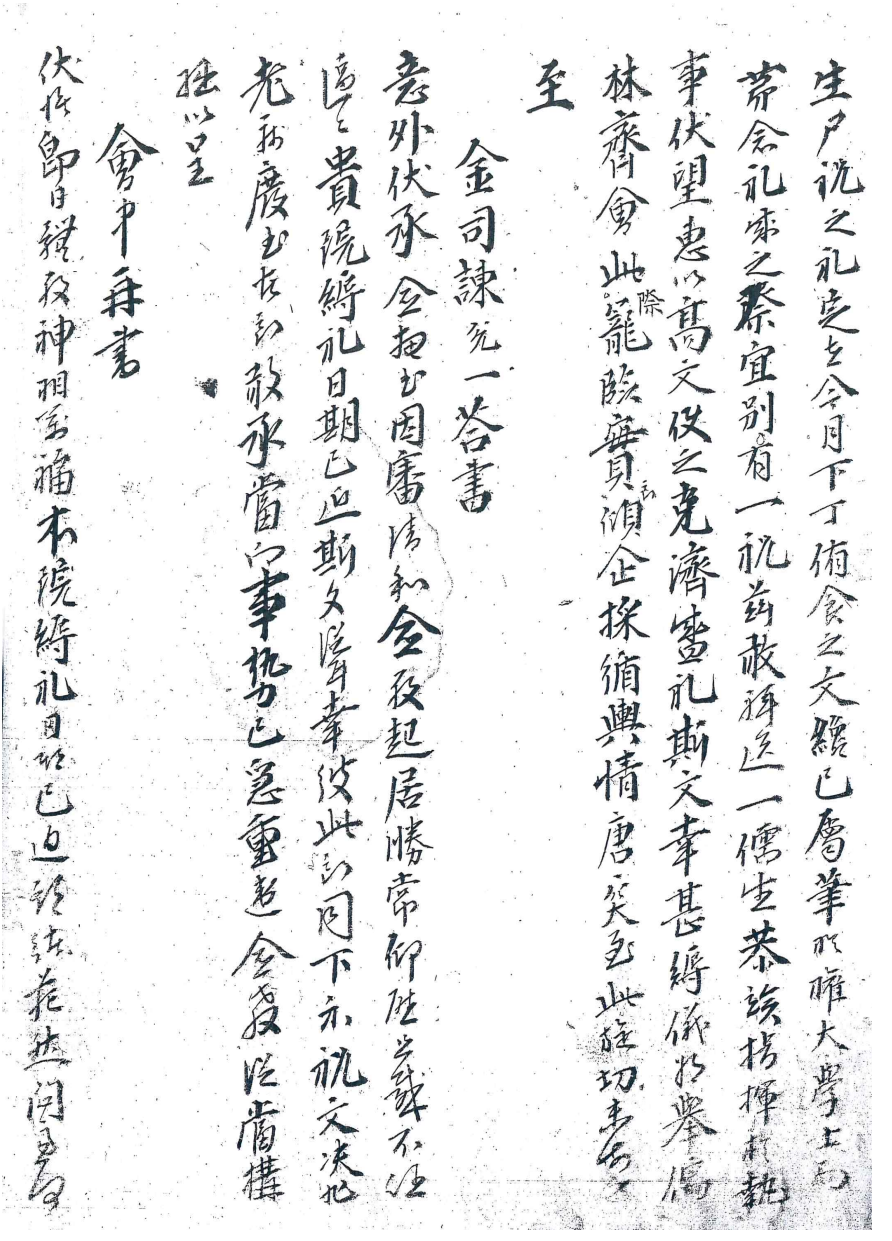
[illegible]本[illegible]名賢[illegible]沙潭金先生木齋洪先生沙潭[illegible]士[illegible]

子[illegible]省[illegible]之[illegible]也木齋[illegible]大諫[illegible]之子而[illegible]白[illegible]之[illegible]

俱受家[illegible]之訓專[illegible]性理之學其踐履之篤文章之盛[illegible]

先輩之[illegible]稱許[illegible]後學之[illegible]矜式一道多士齊[illegible]崇報之[illegible]

定以四月下丁合享於洪寓庵李[illegible]陰西先生[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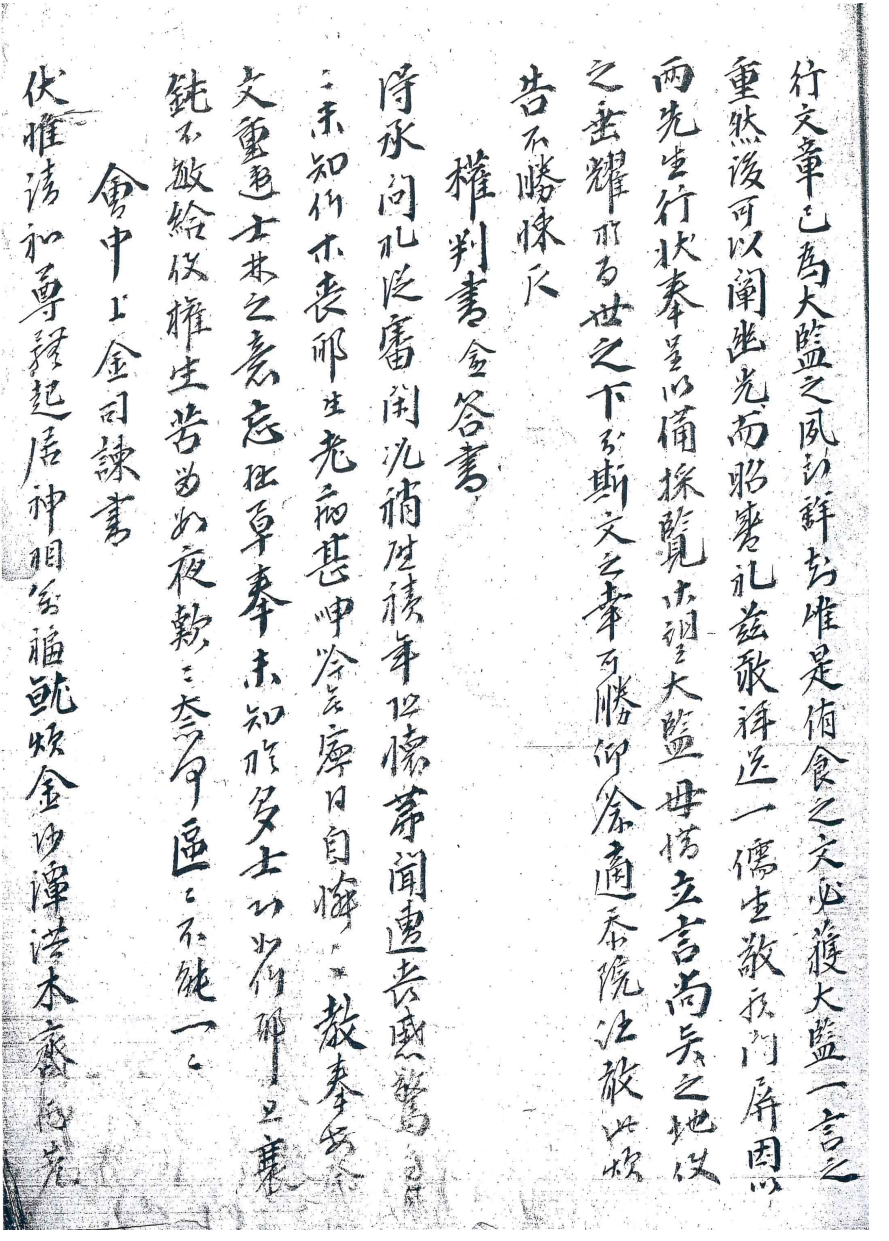
生尸祝之礼定在今月下丁侑食之文纔已屬筆於雍大學士而
芾念礼宋之際宜別有一礼茲敢拜送一儒生恭竢指揮於執
事伏望惠以高文仪之克濟盛礼斯文幸甚縟儀於舉偏
林齋會此際寵臨無貴頒企採循輿情唐突至此旌功未有之
至

金司諫 兌一 答書

意外伏承 念拙者因審清和 念致起居勝常仰慰 [illegible]不任
[illegible]貴院縟礼日期已迫斯文 [illegible]幸彼此 [illegible]同下亦礼文決非
老病廢者 [illegible]敢承當而事勢已急重 [illegible]念致 [illegible]當構
拙以呈

會中再書

伏惟 [illegible]日 [illegible]致神 [illegible]福 本院縟礼日期已迫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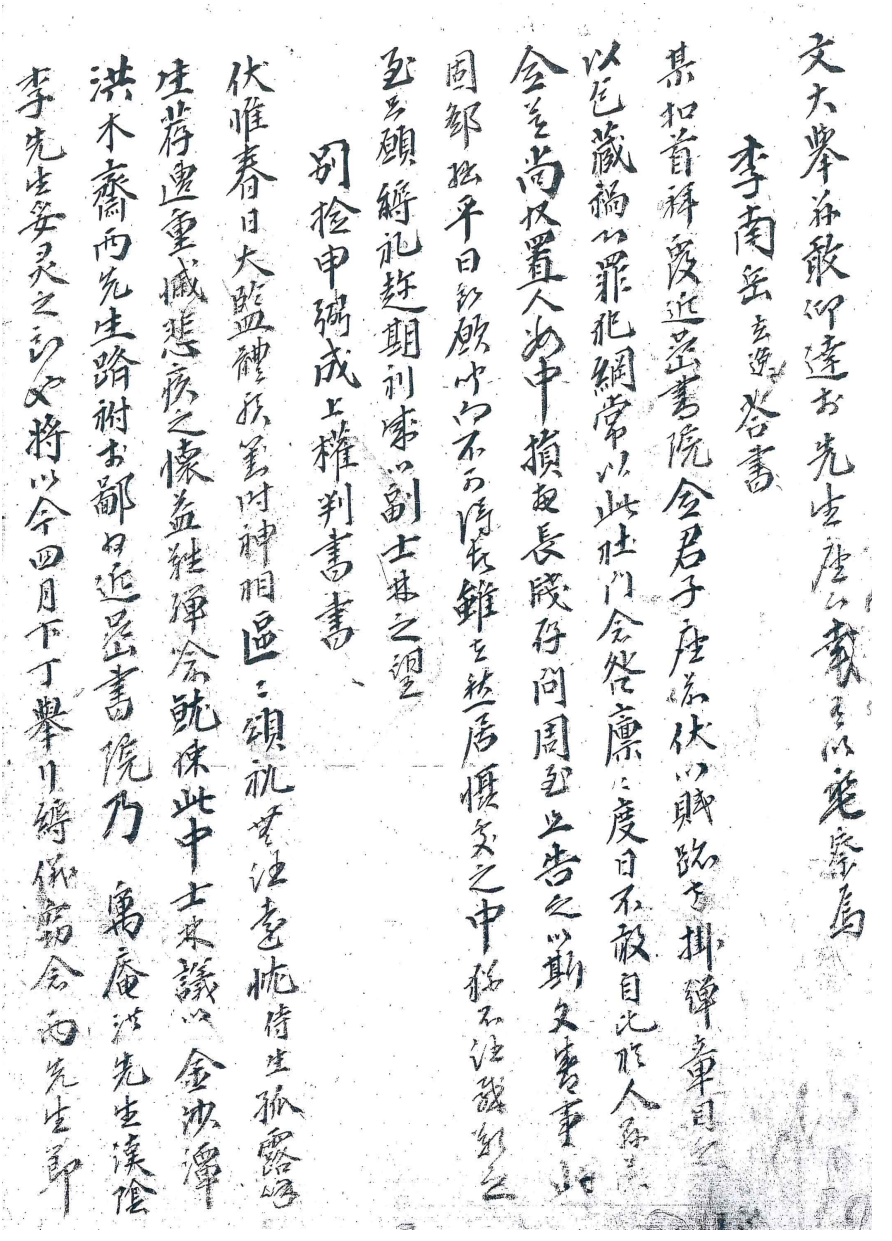
行文章已爲大監之風動辭者惟是侑食之文必獲大監一言之
重然後可以闡幽光而昭著礼茲敢祥送一儒生敬於門屏因以
兩先生行狀奉呈以備採覽以望大監毋惜立言尚矣之地仗
之垂耀於爲世之下於斯文之幸可勝仰念適忝院任敢此煩
告不勝悚仄

權判書 金答書

得承問礼從審閑況稍陞積年恐懷第聞遭喪感驚
〻未知何不喪耶生老病甚呻吟無寧日自憐〻教奉安
文重遇士林之意忘狂草奉未知於多士以如何耶且襄
鈍不敏給仗權生苦爲如夜歎〻奈何區〻不能一〻

會中上金司諫書

伏惟請和尊發起居神相爲福魷煩金沙潭洪本齋起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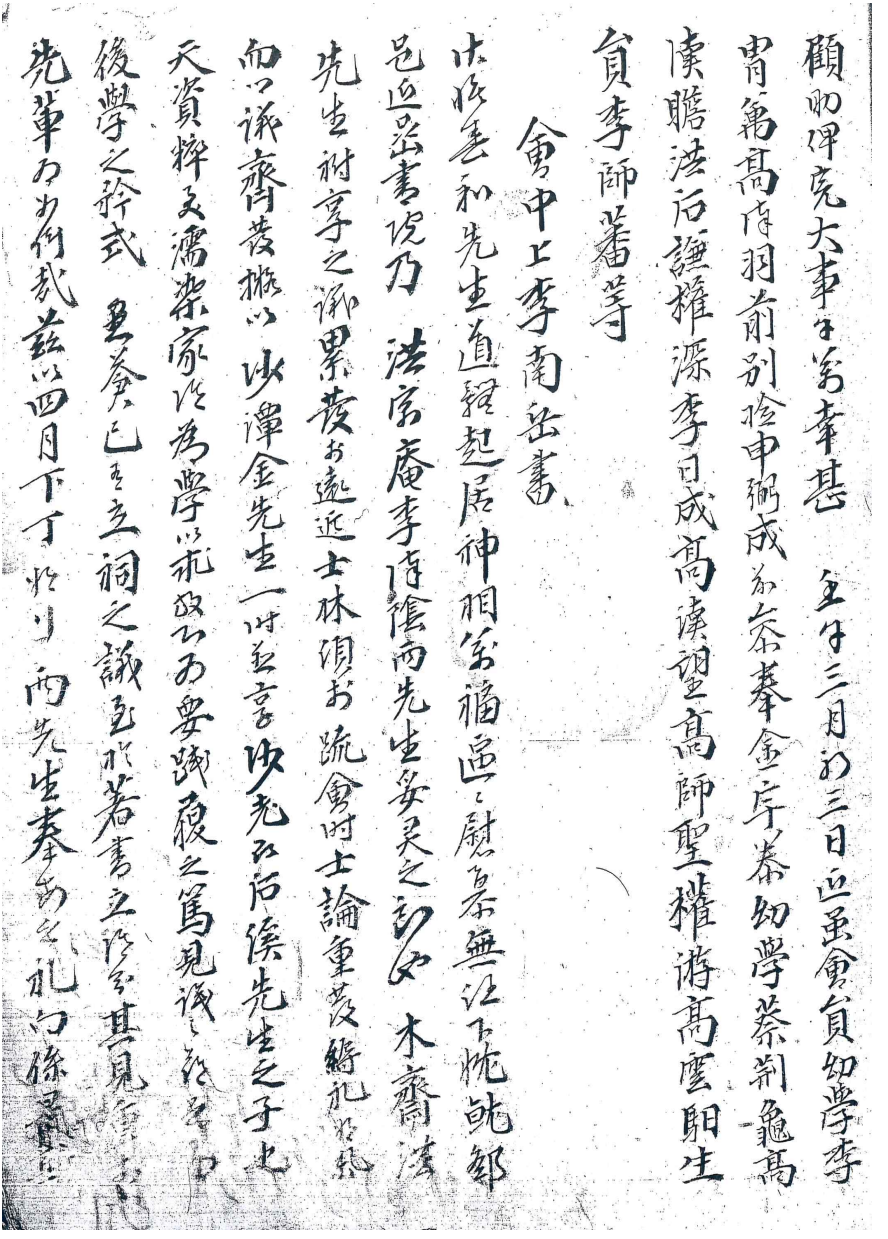
文大擧 敢仰達於先生座以載其以毫察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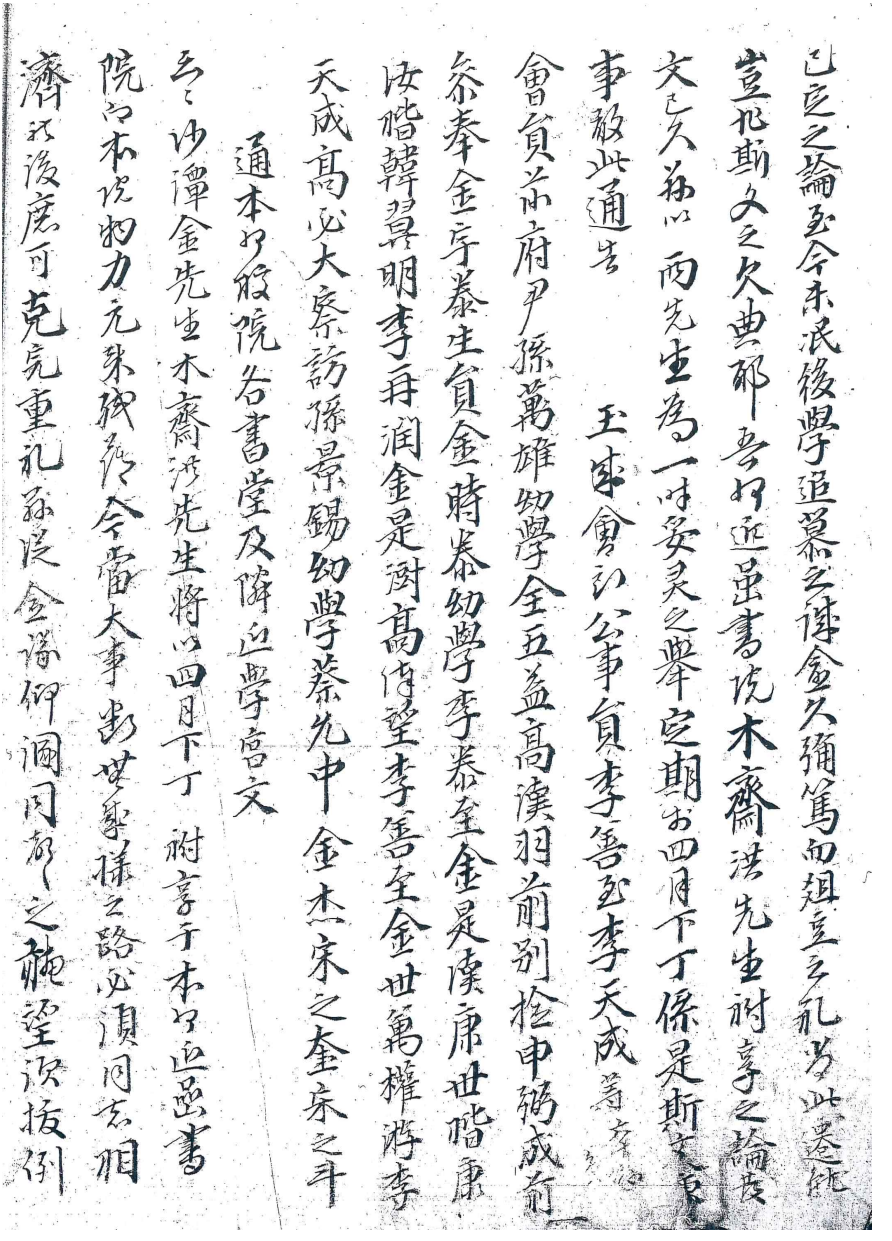
李南岳 玄逸 答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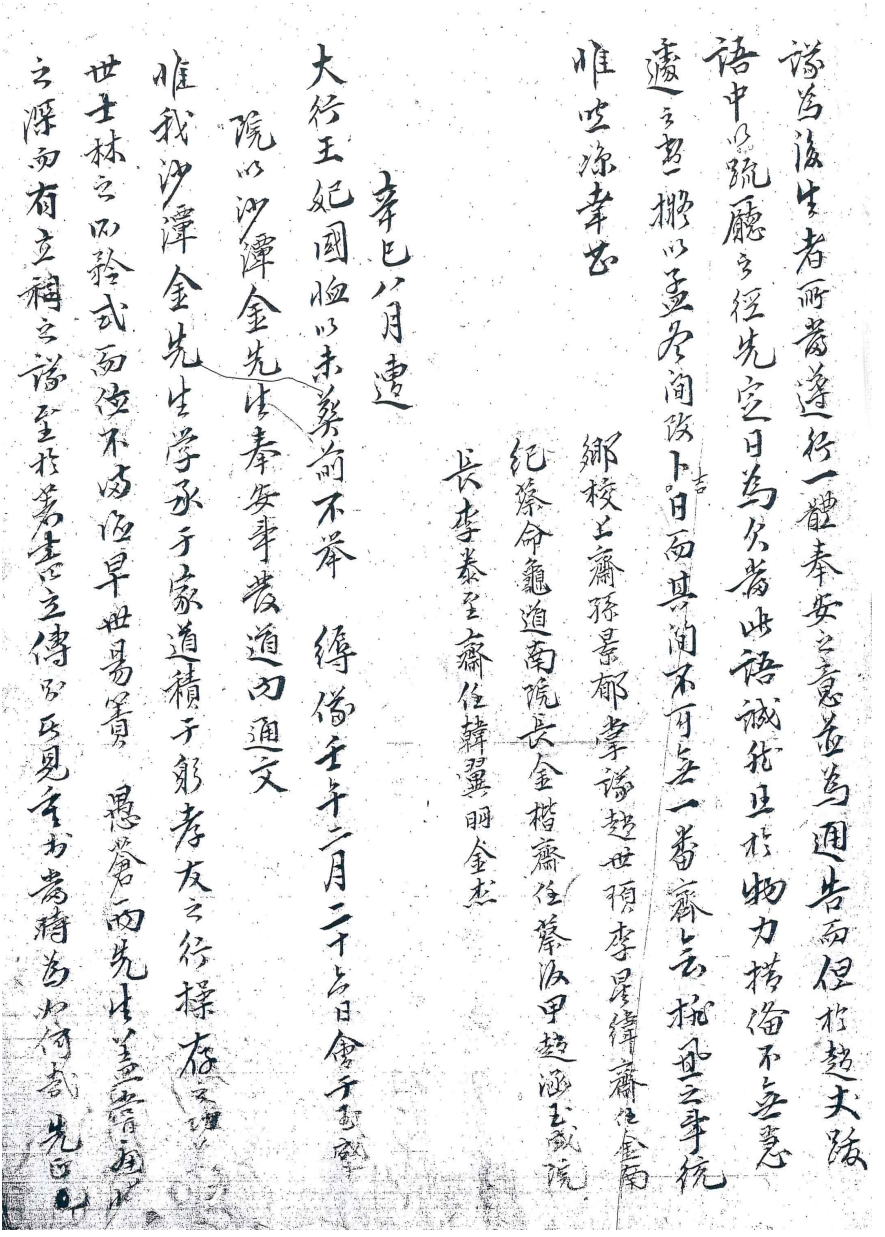
某扣首拜覆近岳書院 令君子座前伏以賊跡方掛彈章目之
以包藏禍心罪犯綱常以此杜門令咎廩廩度日不敢自比於人 [illegible]
令其尚以置人如中損毋長賤存問周至且告之以斯文書事此
固鄙拙平日欲願中而不可得者雖在然居慎交之中稍不注戢新之
至其願縛禮趁期刊寄以副士林之望

別捻申弼成上權判書書

伏惟春日大監體候萬時神相區區頌祝無任遠忱侍生孤露餘
生荐遭重憾悲疾之懷益難彈念既陳此中士林議以金沙潭
洪木齋兩先生路祔於鄙好近岳書院乃 寓庵洪先生溪陰
李先生安靈之所也將以今四月下丁擧行縛儀窮念兩先生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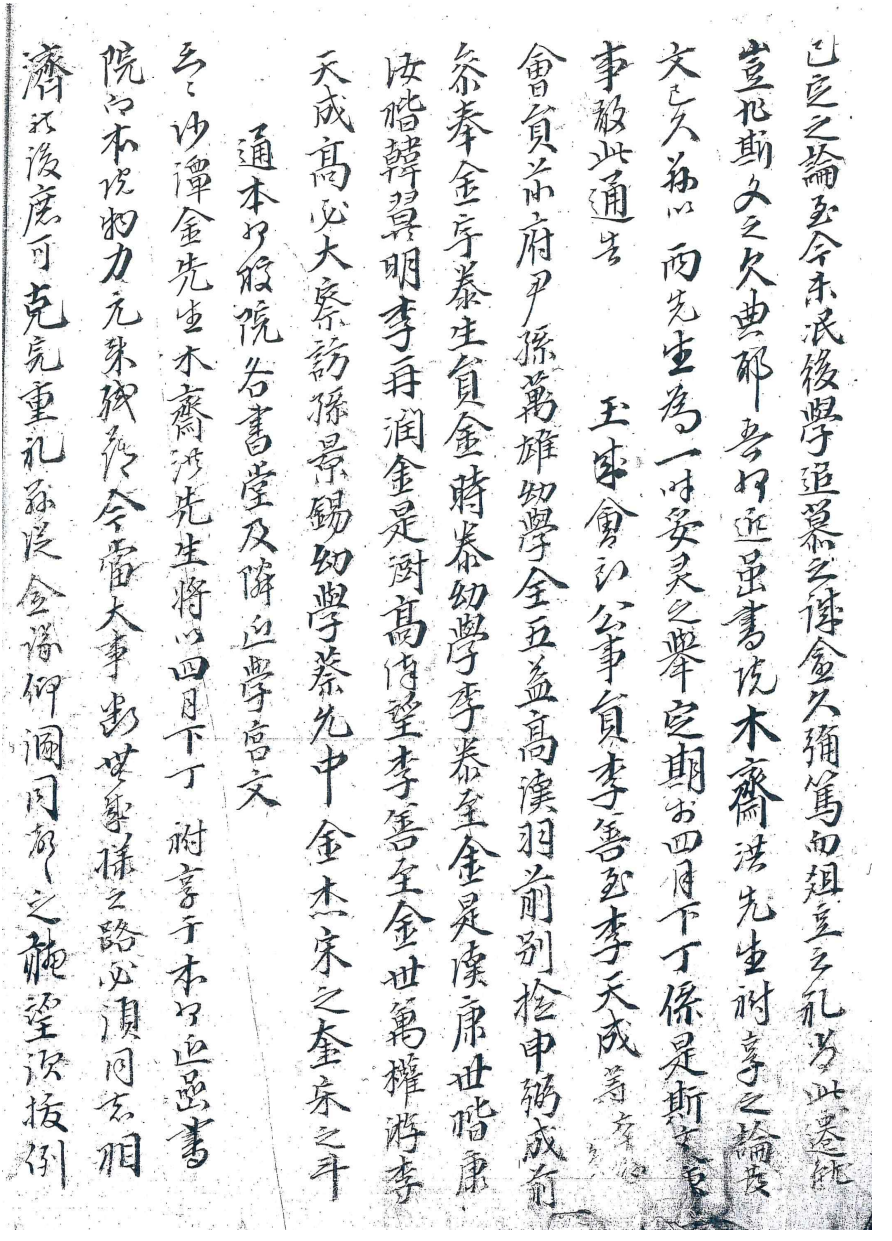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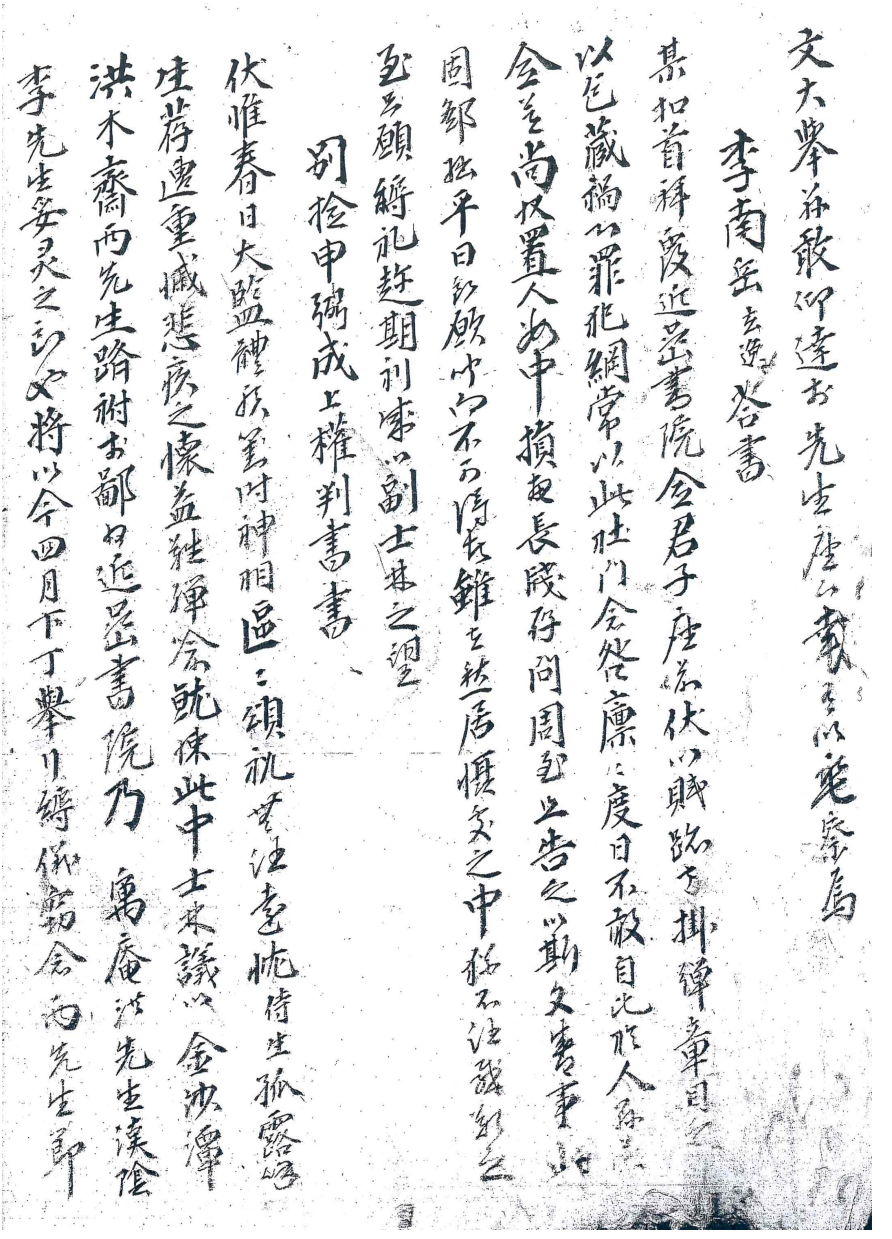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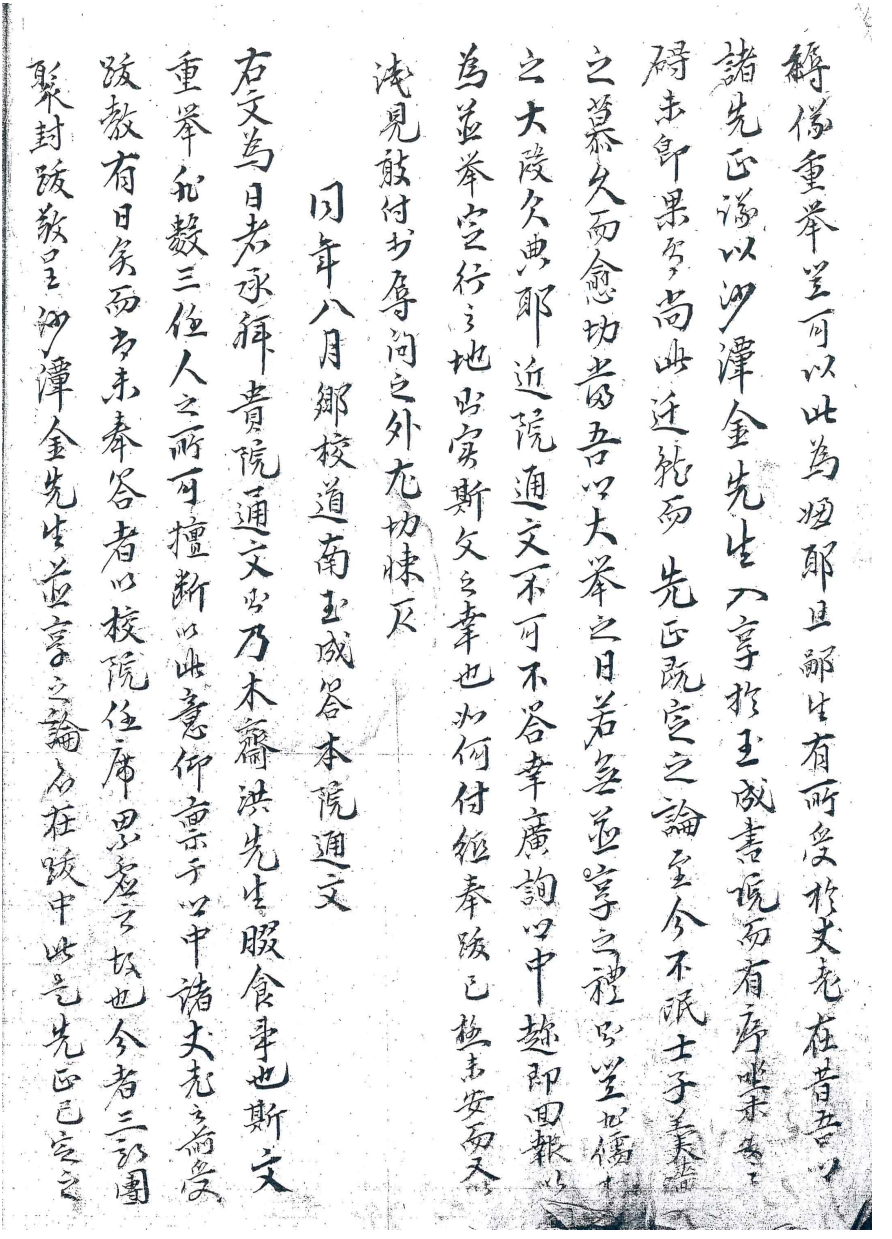
諭爲後生者所當遵行一體奉安之意並爲通告而但於趙丈跋
語中以疏廳之經先定日爲欠當此語誠然且於物力措備不無意
遽之勢擬以孟冬間改卜吉日而其間不可無一番齋會云擬其之事統
唯此係幸也

鄉校上齋孫景郁掌諭趙世頊李星緯齋任金南
紀蔡命龜道南院長金楷齋任蔡汝甲趙涵玉成院
長李泰至齋任韓翼明金杰

辛巳八月遭
大行王妃國恤以未葬前不舉 縟儀壬午二月二十六日會于[illegible]
院以沙潭金先生奉安事發道內通文
唯我沙潭金先生學承于家道積于躬孝友之行操存之理
世士林之所矜式而位不滿於早世易簀 愚蒼而先生蓋嘗[illegible]
之深而有立祠之諭至於著書立傳以所見重者當時爲如何哉 先正[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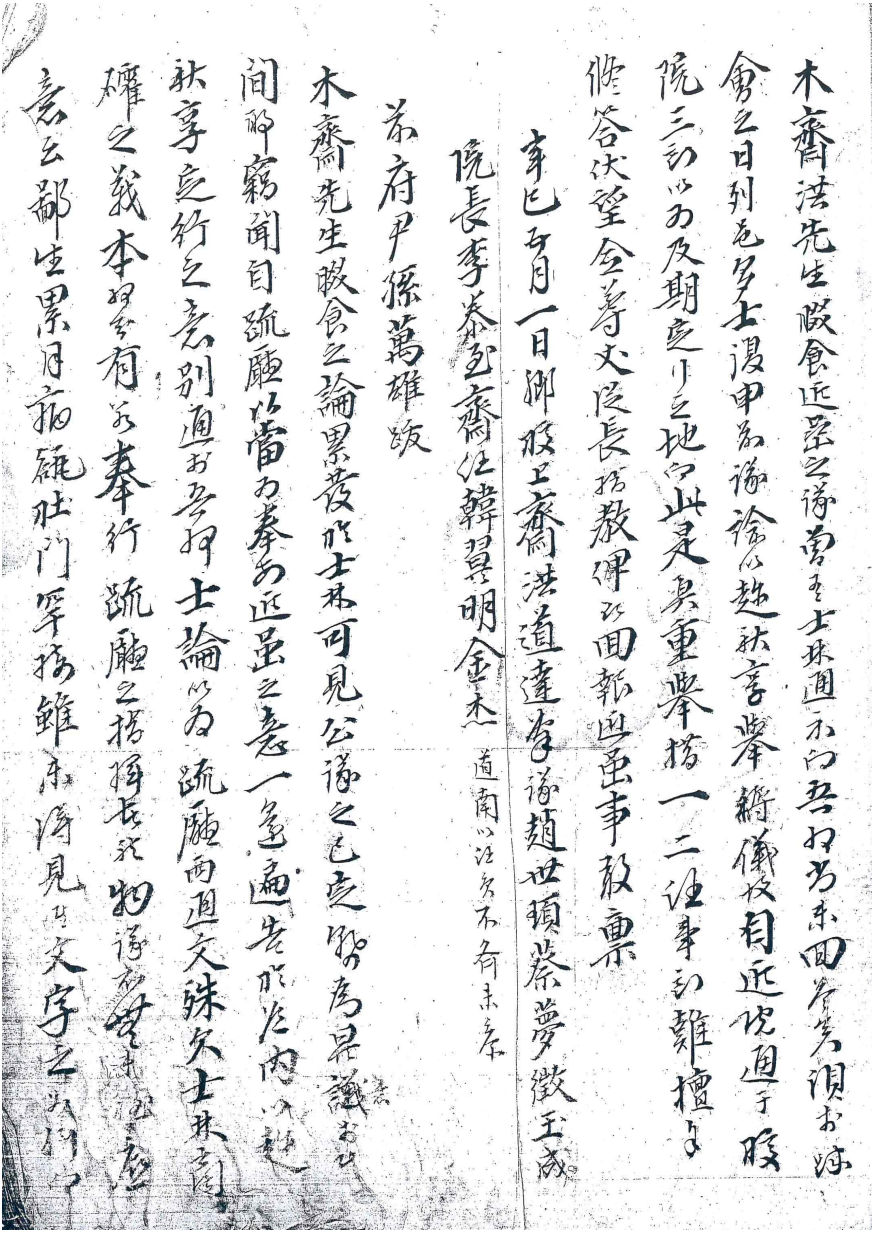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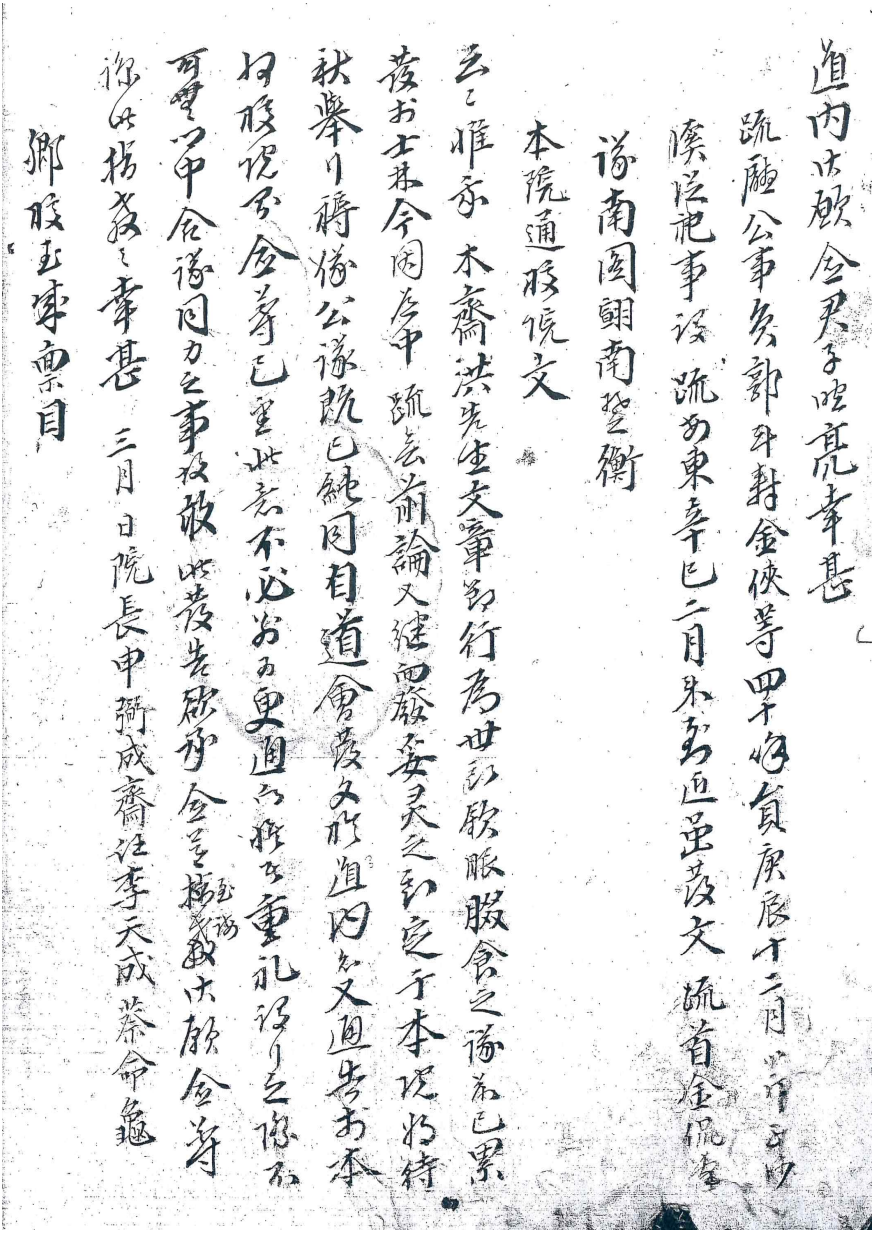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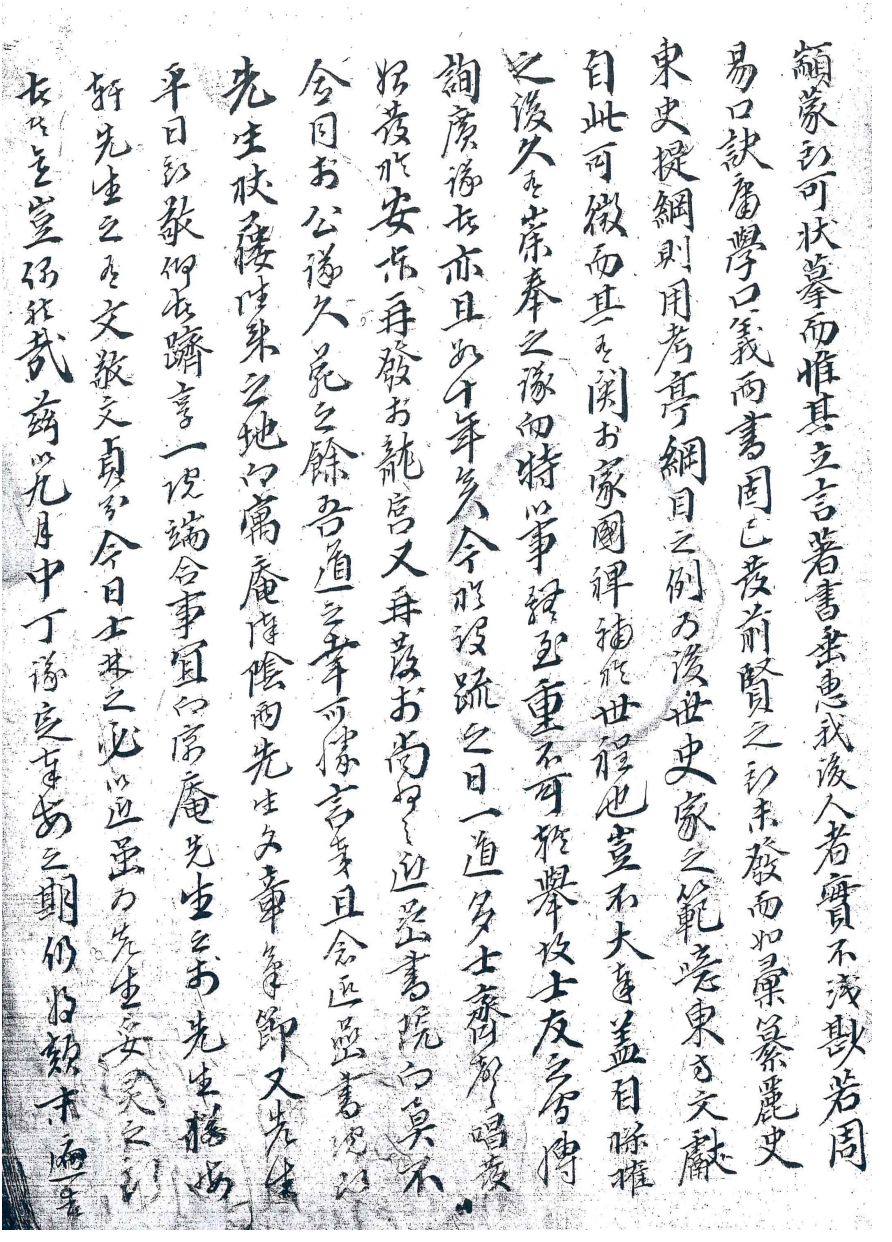
稱儀重舉豈可以此為烟耶且鄙生有所受於丈老在昔吾以
諸先正議以沙潭金先生入享於玉成書院而有序坐未安之
碍未即果爲尚此迁就而 先正既定之論至今不泯士子美蕃
之慕久而愈切當吾以大舉之日若無並享之禮則豈非儒林
之大段欠典耶 近院通文不可不答幸廣詢以中趣即回報以
為並舉定行之地則實斯文之幸也如何付經奉跋已極未安而又以
淺見敢付於辱問之外尤切悚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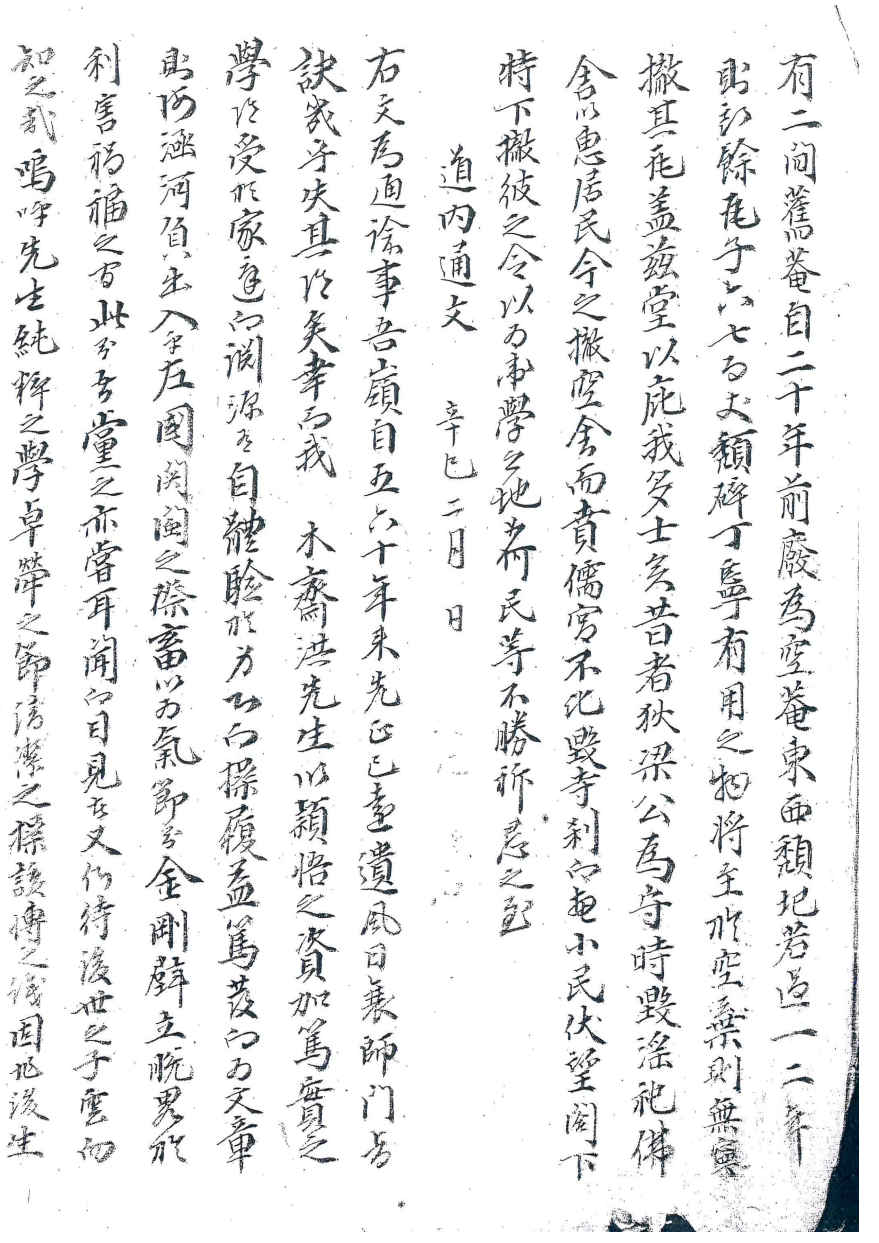
同年八月鄉校道南玉成答本院通文

右文為日者承拜貴院通文則乃木齋洪先生服食事也斯文
重舉非數三任人之所可擅斷以此意仰稟于以中諸丈老之前受
跋教有日矣而未奉答者以校院任席思慮之故也今者三郎團
聚封跋敬呈沙潭金先生並享之論名在跋中此是先正已定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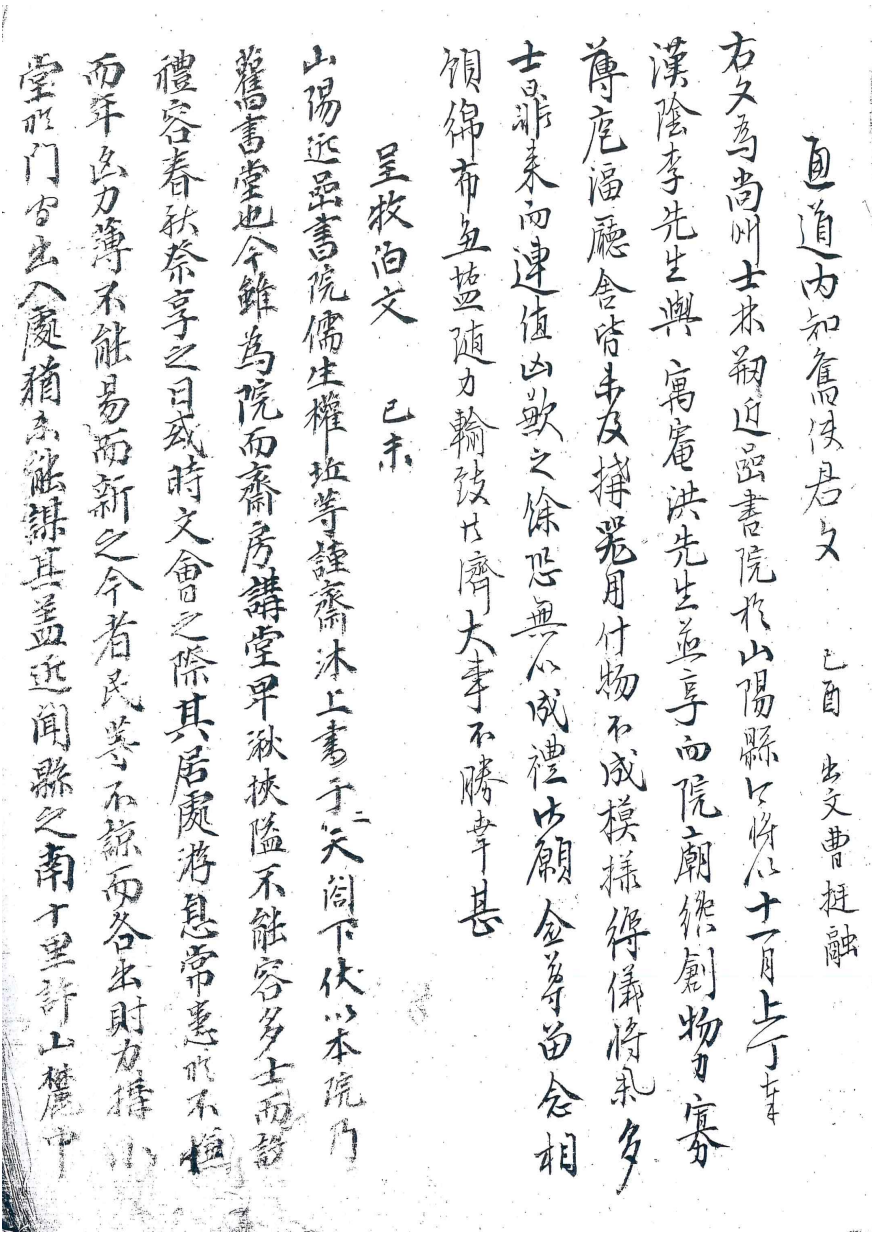




有二間舊菴自二十年前廢爲空菴東西頹圮若過一二年
則卽餘瓦子六七百丈頹碎丁寧有用之物將至於空棄則無寧
撤其瓦蓋茲堂以庇我多士矣昔者狄梁公爲守時毀淫祀佛
舍以惠居民今之撤空舍而賁儒宮不比毀寺刹而庵小民伏望閣下
特下撤彼之令以爲事學之地若何民等不勝祈懇之至

道內通文　辛巳二月　日

右文爲通諭事吾嶺自五六十年來先正已遠遺風日衰師門者
訣哉乎失其所矣幸而我　木齋洪先生以穎悟之資加篤實之
學所受於家庭而淵源者自體驗於方寸而操履益篤發而爲文章
則河涵河負出入乎左國閎閫之際畜以爲氣節者金剛辟立脫累於
利害禍福之有此者吾黨之亦嘗耳聞而目見者又何待後世之子雲而
知之哉嗚呼先生純粹之學卓犖之節清潔之操該博之識固非後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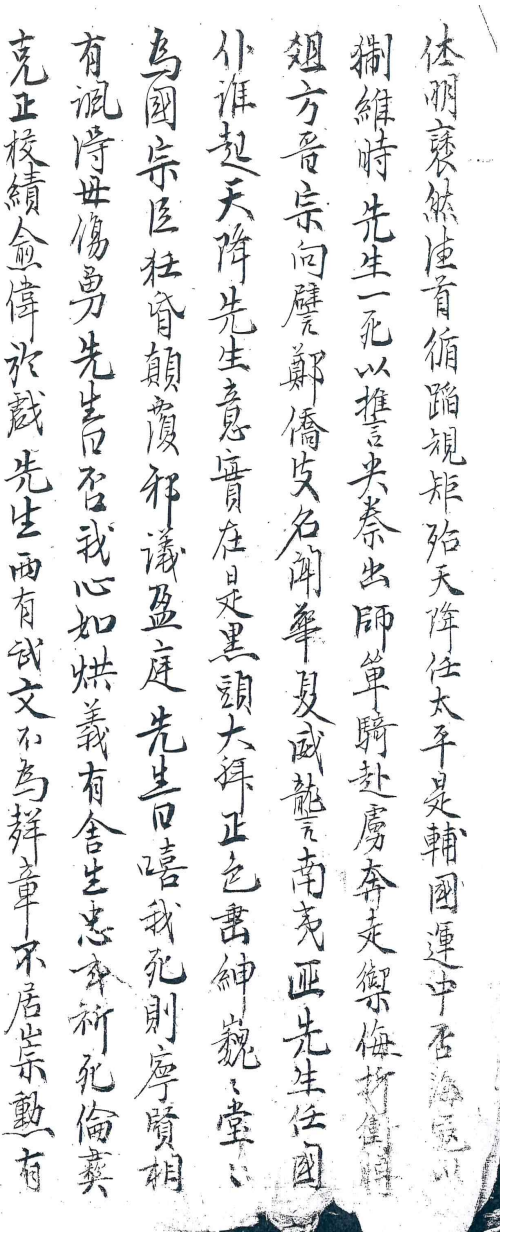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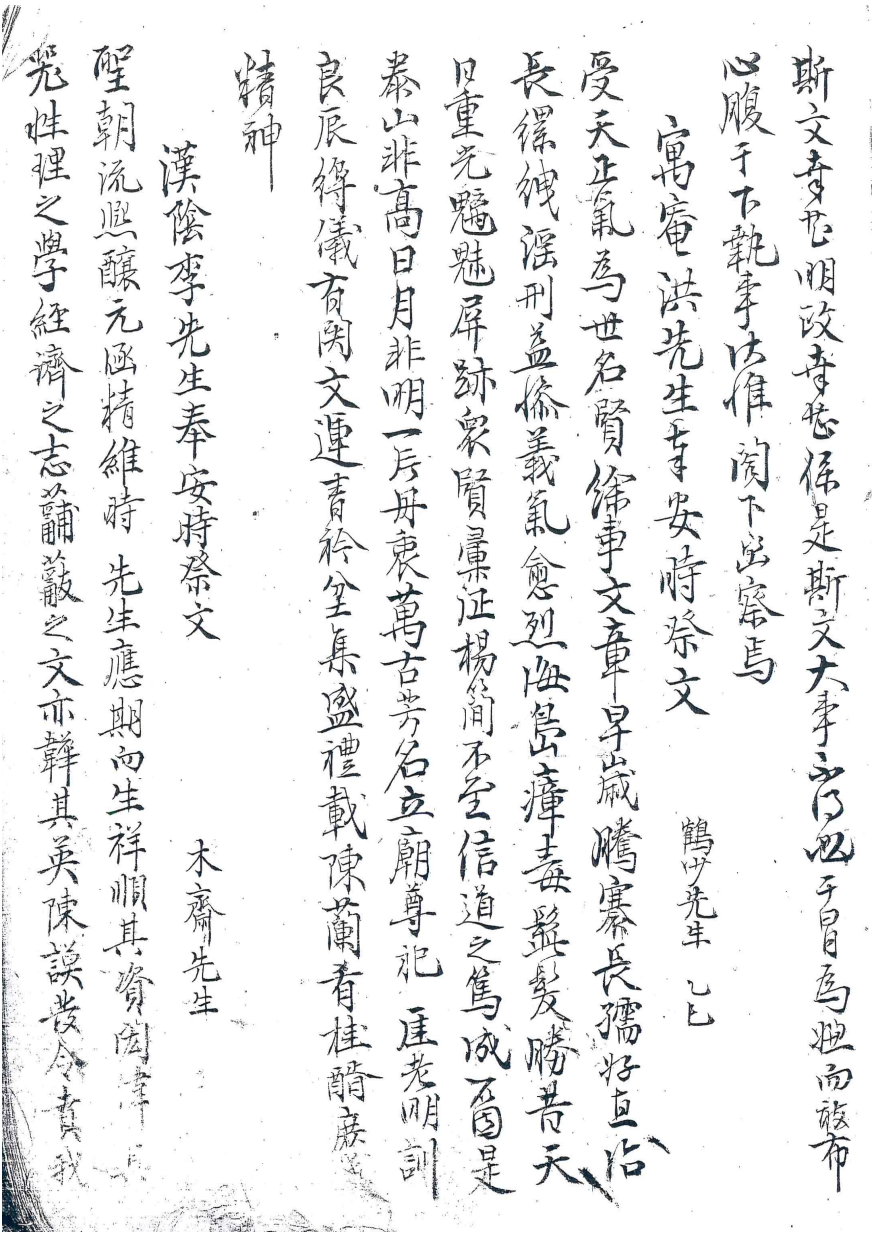
直道內知舊使君文　己酉　出文曹挺融

右文爲尚州士林剏近嵒書院於山陽縣以將以十一月上丁卒
漢陰李先生與寓庵洪先生並享而院廟繼創物力寡
薄庖湢廳舍皆未及搆器用什物不成模樣得儀將亂多
士罪來而連值凶歉之餘恐無以成禮以願金尊留念相
領綿布魚鹽隨力輸致其濟大事不勝幸甚

呈牧伯文　己未

山陽近嵒書院儒生權坵等謹齋沐上書于二天閤下伏以本院乃
舊書堂也今雖爲院而齋房講堂卑湫挾隘不能容多士而設
禮容春秋祭享之日或時文會之際其居處游息常患於不恤
而年凶力薄不能易而新之今者民等不諒而各出財力搆小
堂於門內出入處猶未能謀其蓋近聞縣之南十里許山麓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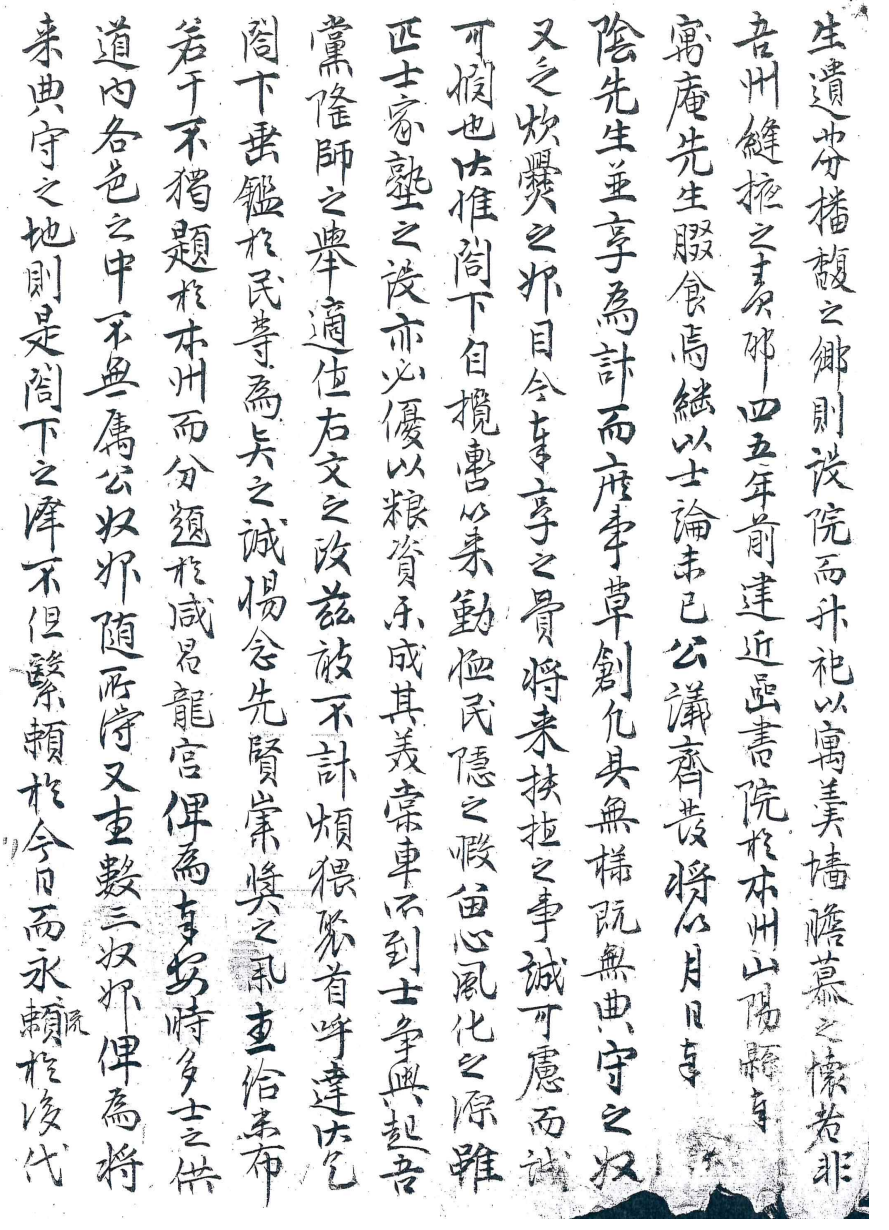
斯文奇悲明政奇悲保是斯文大事[illegible]于冒爲[illegible]而敢布
心腹于下執事法惟閣下出察焉

寓菴洪先生奉安時祭文　　鶴沙先生　乙巳

受天正氣爲世名賢綸事文章早歲騰騫長孺好直治
長繯絏淫刑益慘義氣愈烈海島瘴毒鬚髮勝昔天
日重光魑魅屏跡衆賢彙征楊簡不至信道之篤成爾是
泰山非高日月非明一片丹衷萬古芳名立廟尊祀匡老明訓
良辰得儀有閑文運青衿坐集盛禮載陳蘭香桂醑庶
精神

漢陰李先生奉安時祭文　　木齋先生

聖朝流熙釀元函精維時　先生應期而生祥順其資閎[illegible]
究性理之學經濟之志黼黻之文亦韡其英陳謨發令責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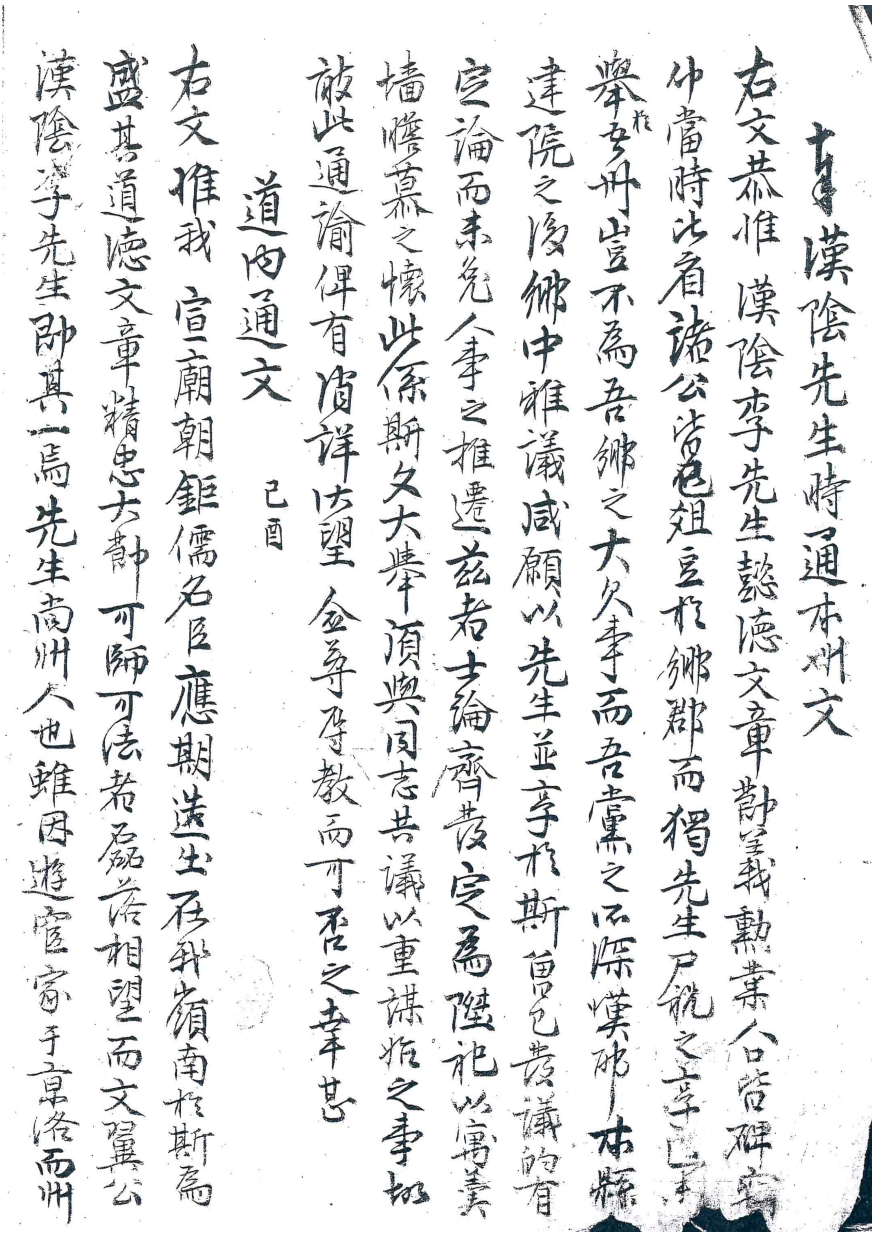


生遺芬播馥之鄉則設院而升祀以寓羹墻瞻慕之懷者非
吾州縫掖之責耶四五年前建近嵒書院於本州山陽縣事
寓庵先生腏食焉繼以士論未已公議齊發將以月日事
陰先生並享爲計而庶事草創凡具無樣既無典守之奴
又乏炊爨之奴目今事享之費將來扶植之事誠可慮而誠
可憫也伏惟閤下自攬轡以來勤恤民隱之暇留心風化之源雖
匹士家塾之設亦必優以粮資不成其義棠車不到士爭興起吾
黨隆師之舉適值右文之政茲敢不計煩猥聚首呼達伏乞
閤下垂鑑於民等爲矣之誠惕念先賢崇奬之風查給米布
若干不獨題於本州而分題於咸昌龍宮俾爲事安時多士之供
道內各邑之中不無屬公奴婢隨所得又查數三奴婢俾爲將
來典守之地則是閤下之澤不但繫賴於今日而永賴於後代

西倉宅喬木宛然遺塵播馥久而不泯高山景行雖無間於遠
通羹墻寺躅最有切於吾州竊念同時諸賢皆已俎豆於文院
而獨我李先生尚未舉縟儀之享此實本州之大事而士林之
嗟惜者也本州山陽縣有 寓庵洪先生廟稱近邑書院一州
雅議將以來十一月七日丁酉奉李先生而並享焉庶幾永樹
風聲激勵來學以推列邑諸君子賁然齊悅共成大事斯文幸也

呈方伯文

竊以高山景行雖無間於遠通而想像欣慕最有切於鄉矣
竊以我東儒先之書院必先建於本郡然後旁及於他邑者然
也本州有 寓庵洪先生 漢陰李先生其遺風餘烈赫赫
人耳口建院俎豆之議不謀而同辭愈久而不泯蓋洪先生家
於此地而沒於此地李先生生於此地而家於京師既爲兩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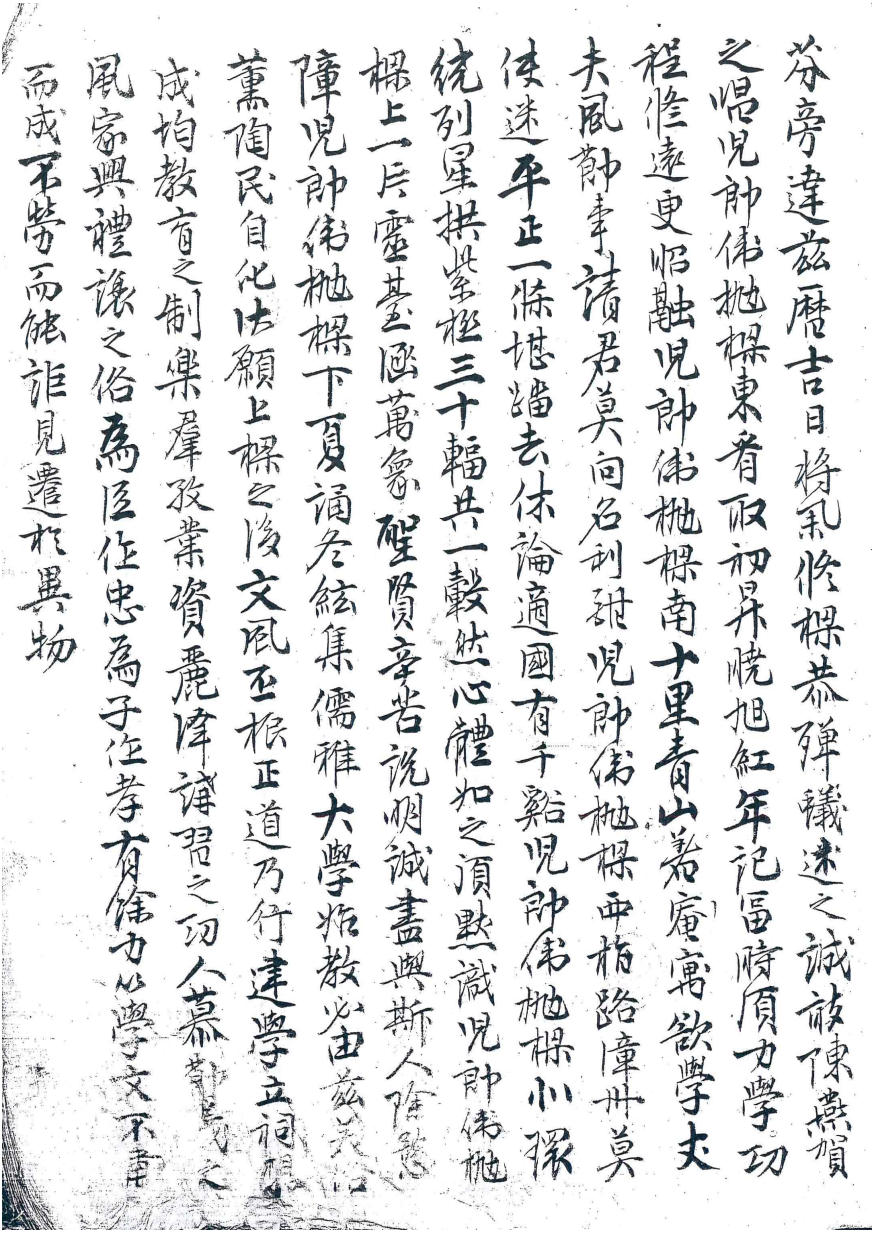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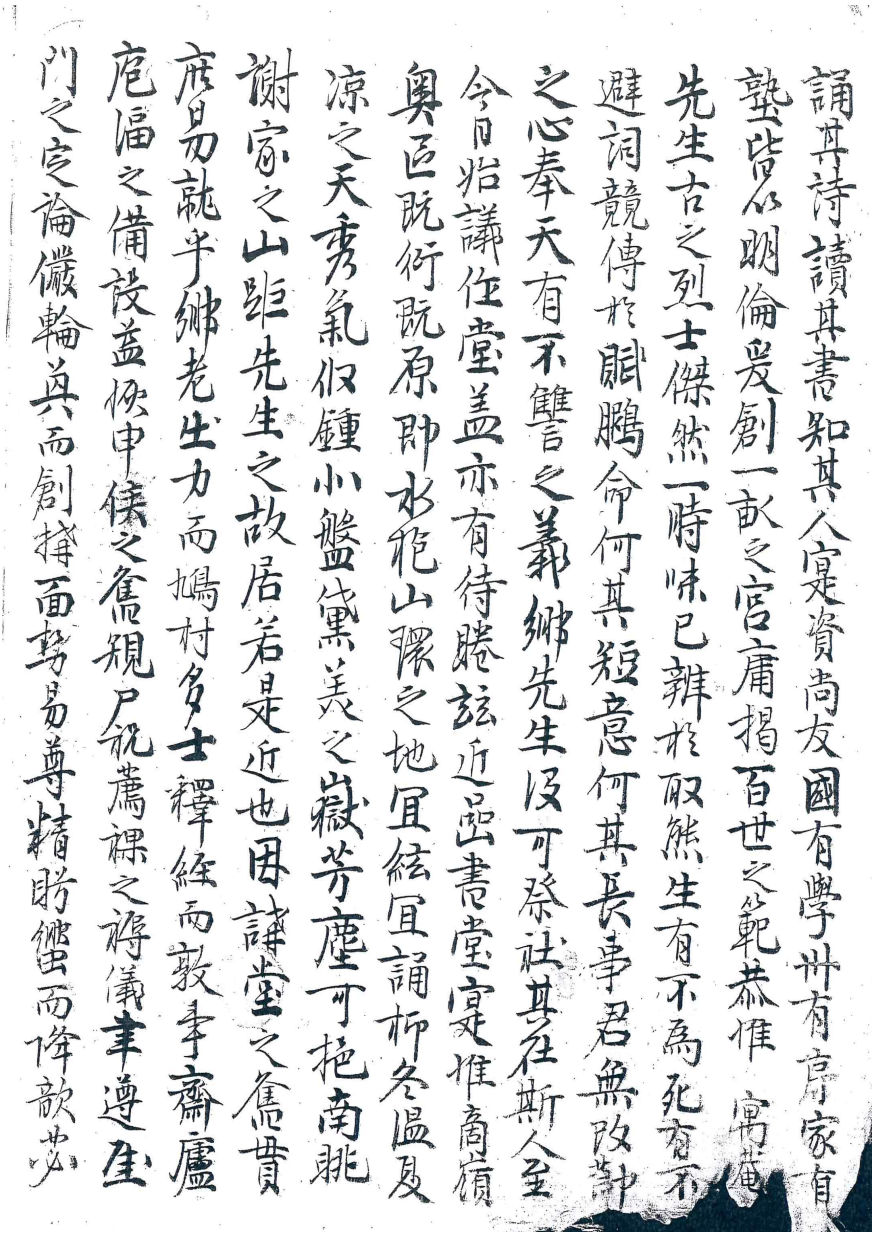
十年漢陰先生時通本州文

右文恭惟 漢陰李先生懿德文章勳業人口皆碑寔
仰當時比肩諸公皆包俎豆於鄉郡而獨先生尸祝之享已未
舉於丹山豈不爲吾鄉之大久事而吾黨之所深嘆耶本縣
建院之後鄉中雅議咸願以先生並享於斯曾已發議的有
定論而未免人事之推遷茲者士論齊發定爲陞祀以寓羹
墻瞻慕之懷此係斯文大舉須與同志共議以重謀始之事切
敢此通諭俾有消詳伏望 僉尊厚教而可否之幸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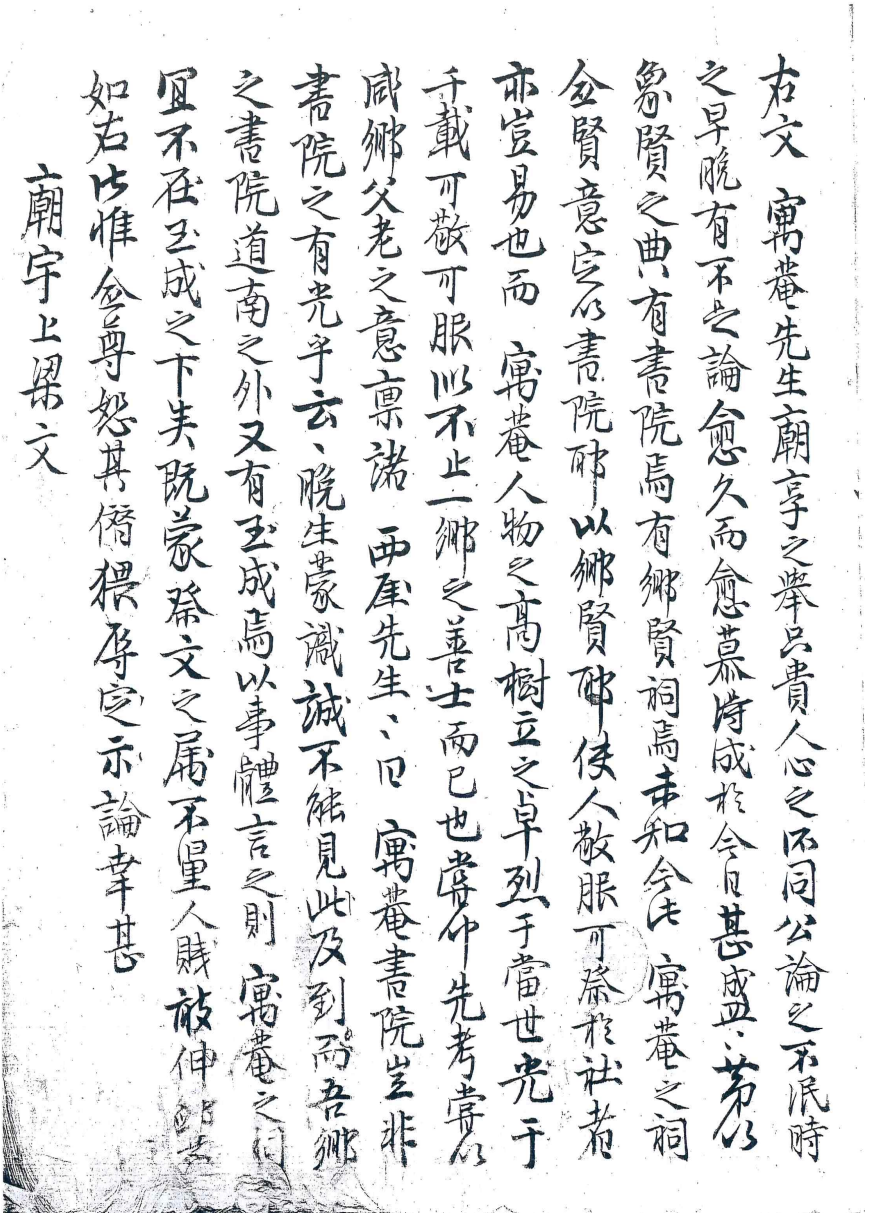
道內通文 己酉

右文惟我 宣廟朝鉅儒名臣應期造出在我嶺南於斯爲
盛其道德文章精忠大節可師可法者磊落相望而文翼公
漢陰李先生即其一焉先生尚州人也雖因遊宦家于京洛而州





誦其詩讀其書知其人寔資尚友國有學卅有亭家有
塾皆以明倫爰創一畝之宮庸揭百世之範恭惟 寓菴
先生古之烈士傑然一時味已辨於取然生有不爲死有不
避詞競傳於賦鵩命何其短意何其長事君無改節
之心奉天有不讐之義鄉先生沒可祭社其在斯人至
今日始議任堂盖亦有待睠茲近嵒書堂寔惟商嶺
奧區既衍既原即水抱山環之地宜絃宜誦柳冬温夏
涼之天秀氣似鍾小盤黛美之嶽芳塵可挹南眺
謝家之山距先生之故居若是近也因講堂之舊貫
庶易就乎鄉老生力而鳩材多士釋經而敦孝齋廬
庖湢之備設益恢申侯之舊規尸祝薦祼之褥儀聿遵生
門之定論儼輪奐而創搆面勢易尊精盼鑾而降歆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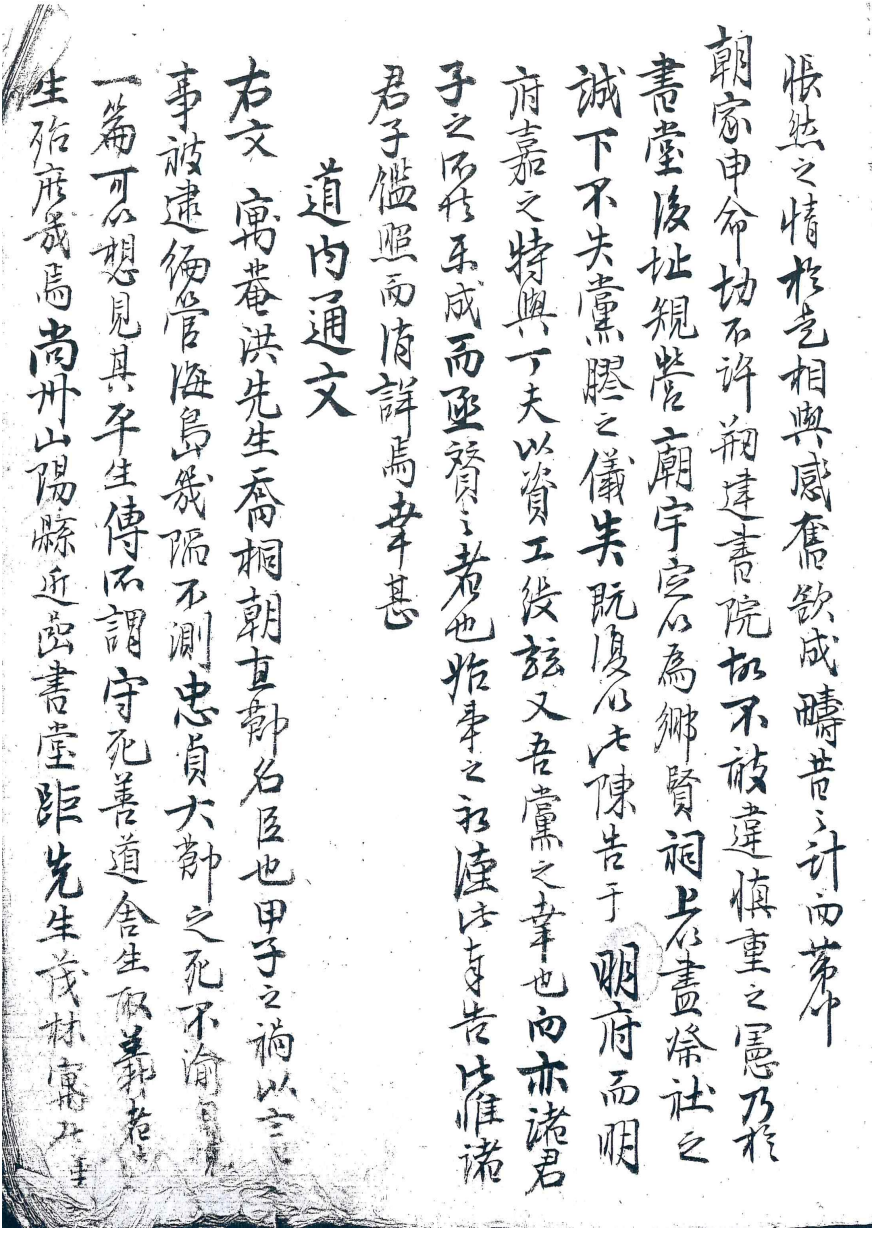


右文 寓菴先生廟享之擧只貴人心之不同公論之不泯時
之早晩有不之論愈久而愈慕時成於今日甚盛〻第以
象賢之典有書院焉有鄉賢祠焉未知今此 寓菴之祠
金賢意定以書院耶以鄉賢耶使人敬服可祭於社者
亦豈易也而 寓菴人物之高樹立之卓烈于當世光于
千載可敬可服以不止一鄉之善士而已也嘗仲先考嘗以
咸鄉父老之意稟諸 西庠先生〻曰 寓菴書院豈非
書院之有光乎云〻晩生蒙識誠不能見此及到而吾鄉
之書院道南之外又有玉成焉以事體言之則 寓菴之祠
宜不在玉成之下矣既蒙祭文之屬不量人賤敢伸鄙
如右此惟金尊恕其僭猥辱定示論幸甚

廟宇上梁文

十里而一州儒品相議尊祀日書堂之舊立鄉賢之祠外
月初三日擇吉事安則隣邑儒士仰風齊會合辭而言
曰先生本咸昌人萬曆甲辰間咸鄉士子將建書院而
俎豆之稟于 西厓老先生先生曰寓菴書院豈不
光於斯文乎爾後未免遷就遠近無不歎惋夫咸寧之
未遑此縣先之誠爲士林之大幸也先生大節不可湮沒
厓老定論不容更改豈可以祭社之禮施之於先生事安
之地乎詳議熟講定爲近邑書院而可惜者此縣士友
始議未審不得與諸賢共此盛禮也事在既往今不可
追而本道舊例凡創書院必有通告之舉故敢此遍告
于道內儒林比惟 僉尊密察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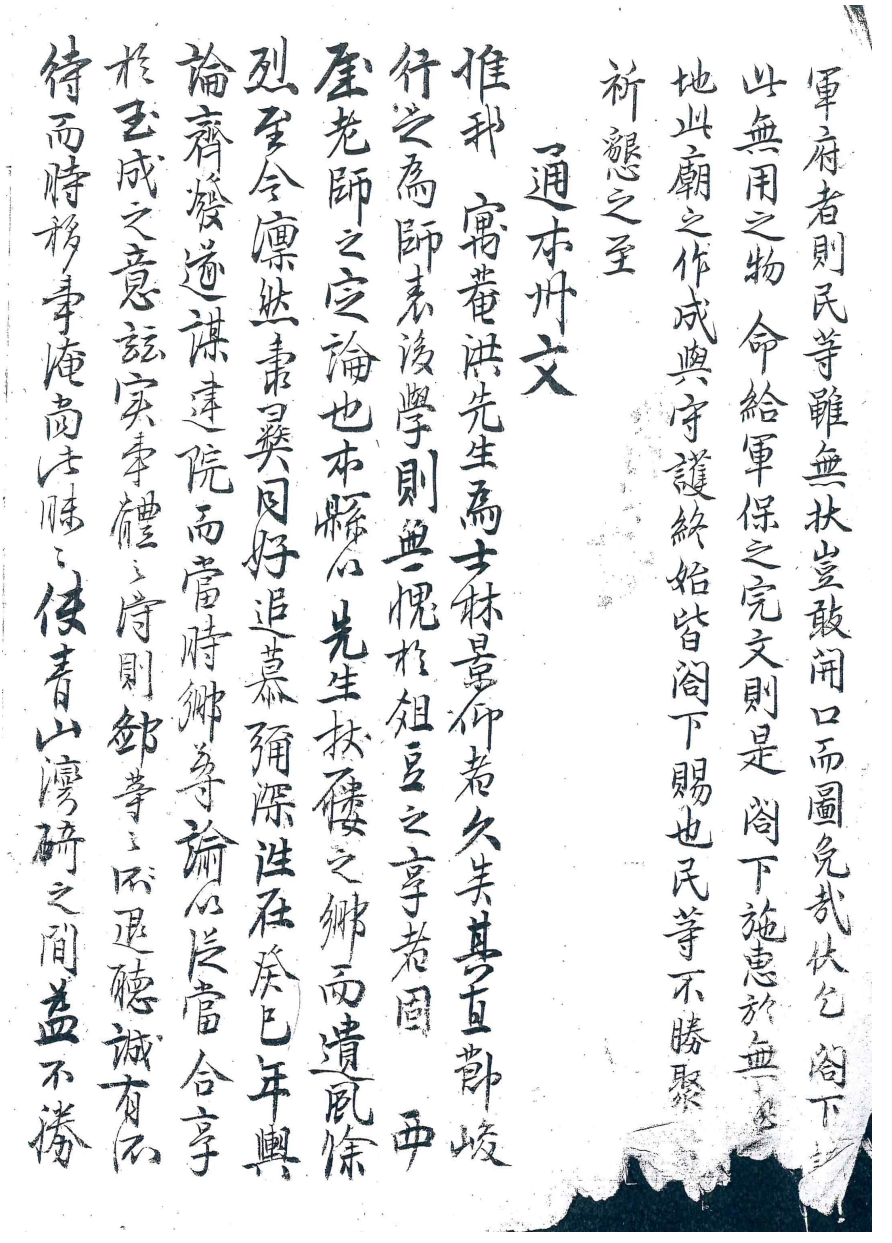
曹高原通文



悵然之情於是相與感奮欲成疇昔之計而第
朝家申命切不許剏建書院故不敢違慎重之憲乃於
書堂後址規營廟宇定以爲鄉賢祠上以盡祭社之
誠下不失黨膠之儀矣既復以此陳告于明府而明
府嘉之特與丁夫以資工役茲又吾黨之幸也而亦諸君
子之所於未成而亟贊之者也始事之初漣此事告此惟諸
君子儘照而消詳焉幸甚

道內通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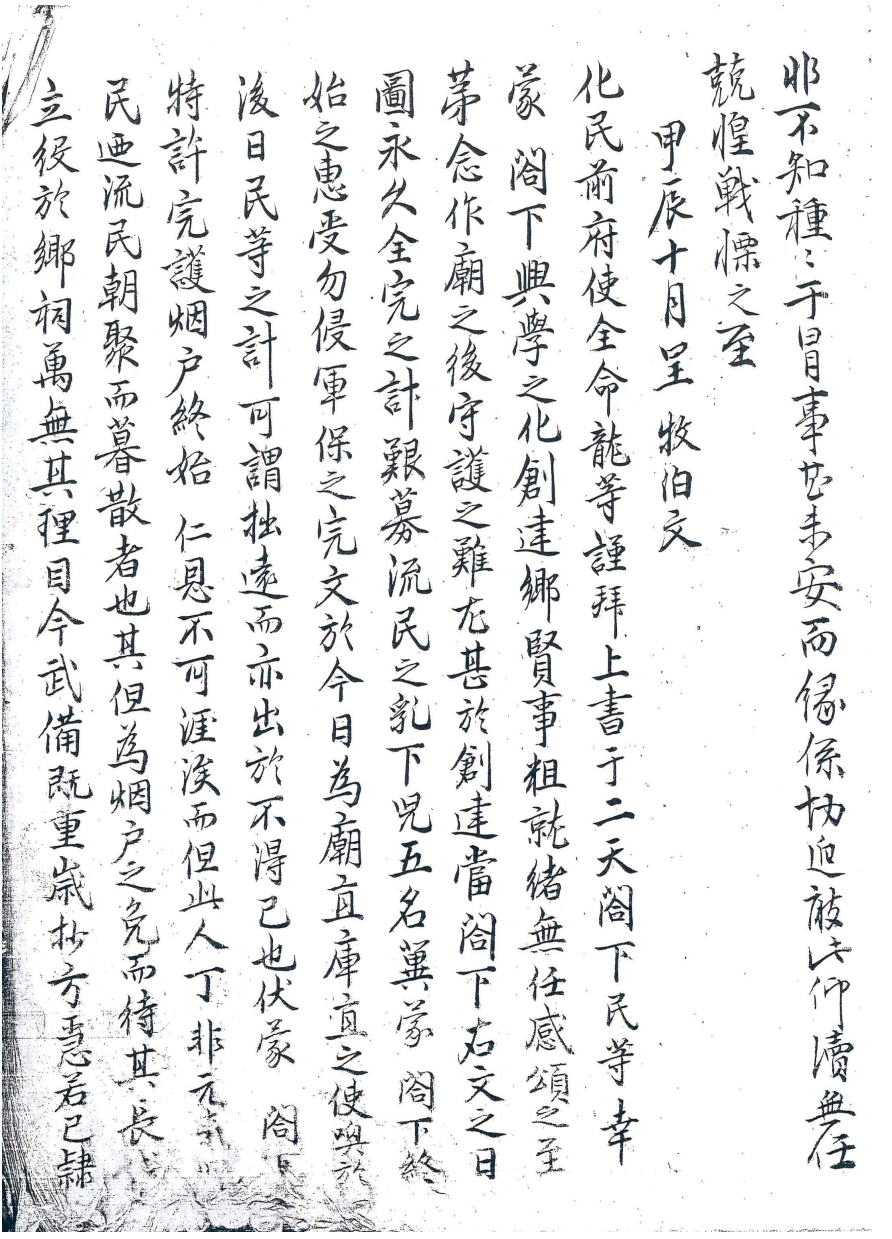
右文 寓菴洪先生喬桐朝直節名臣也甲子之禍以言
事被逮編管海島幾隔不測忠貞大節之死不渝[illegible]
一篇可以想見其平生傳所謂守死善道舍生取義者[illegible]
生殆庶幾焉尚州山陽縣近岳書堂距先生茂林寓所[illegible]



軍府者則民等雖無狀豈敢開口而圖免哉伏乞 閤下
此無用之物 命給軍保之完文則是 閤下施惠於無
地此廟之作成與守護終始皆閤下賜也民等不勝聚
祈懇之至

通本州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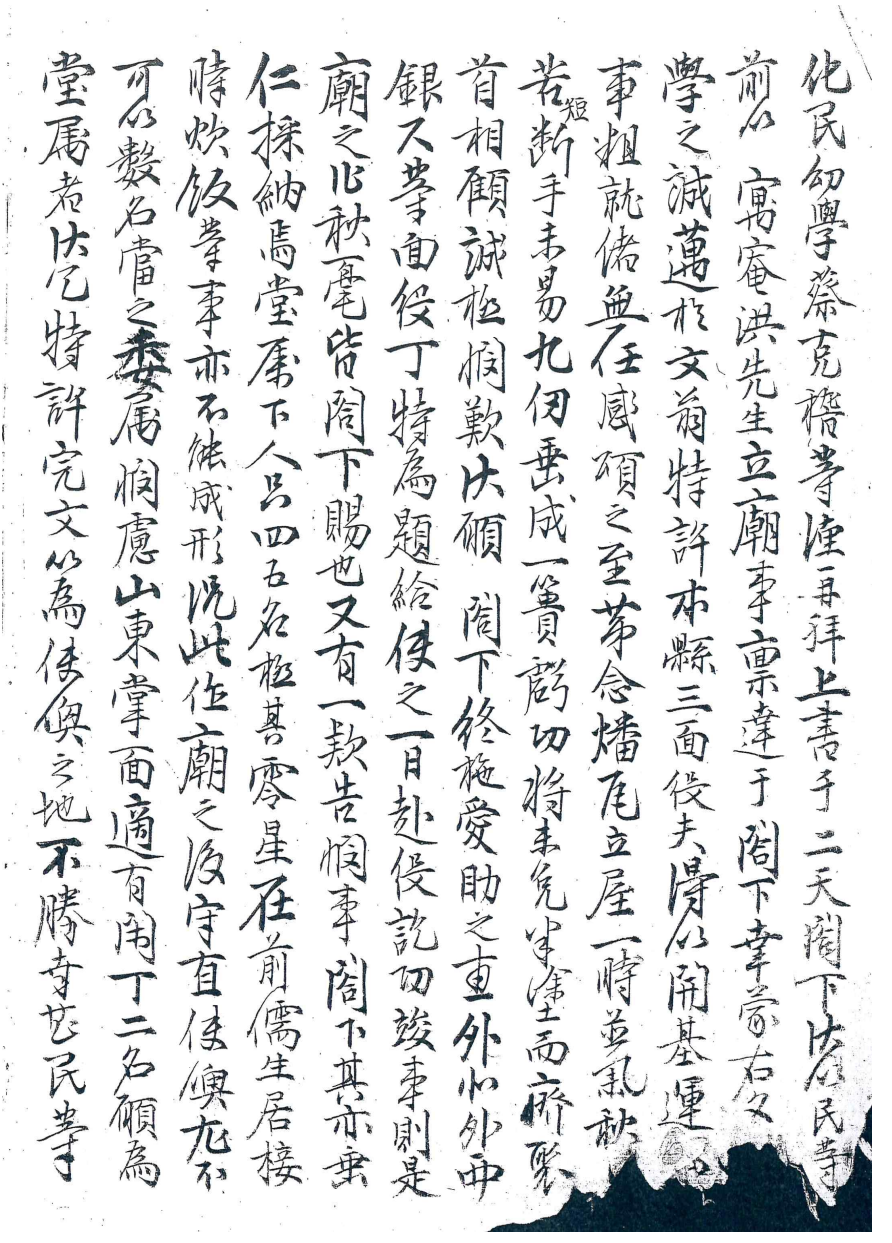
惟我 寓菴洪先生爲士林景仰者久矣其直節峻
行之爲師表後學則無愧於俎豆之享者固 西
屋老師之定論也本縣以 先生扶樓之鄉而遺風餘
烈至今凜然秉彝同好追慕彌深往在癸巳年輿
論齊發遂謀建院而當時鄉尊諭以從當合享
於玉成之意茲實事體之待則鄙等之所退聽誠有不
待而時移事淹尚未昧昧使青山灣碕之間益不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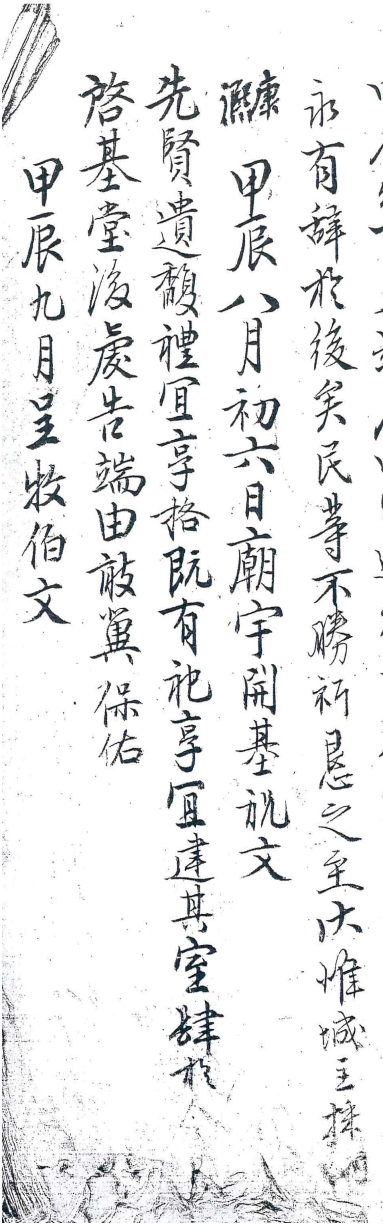
非不知種種于冒事甚未安而緣係切迫敢此仰瀆無任
兢惶戰慄之至

甲辰十月呈 牧伯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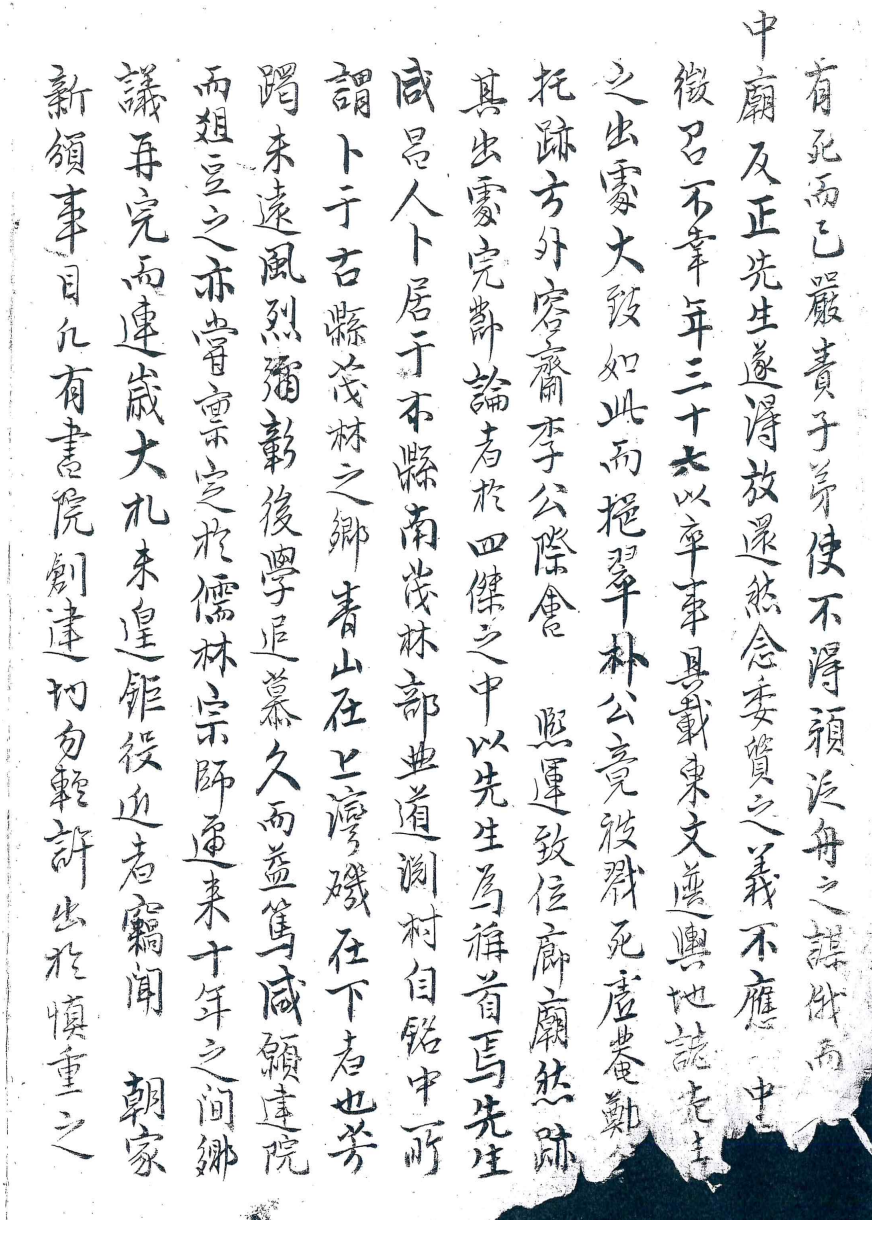
化民前府使全命龍等謹拜上書于二天閤下民等幸
蒙 閤下興學之化創建鄉賢事粗就緒無任感頌之至
茅念作廟之後守護之難尤甚於創建當 閤下右文之日
圖永久全完之計艱募流民之乳下兒五名冀蒙 閤下終
始之惠受勿侵軍保之完文於今日為廟直庫直之使喚於
後日民等之計可謂拙遠而亦出於不得已也伏蒙 閤下
特許完護烟户終始 仁恩不可涯涘而但此人丁非元[illegible]
民迺流民朝聚而暮散者也其但為烟户之免而待其長[illegible]
立役於鄉祠萬無其理目今武備既重歲抄方急若已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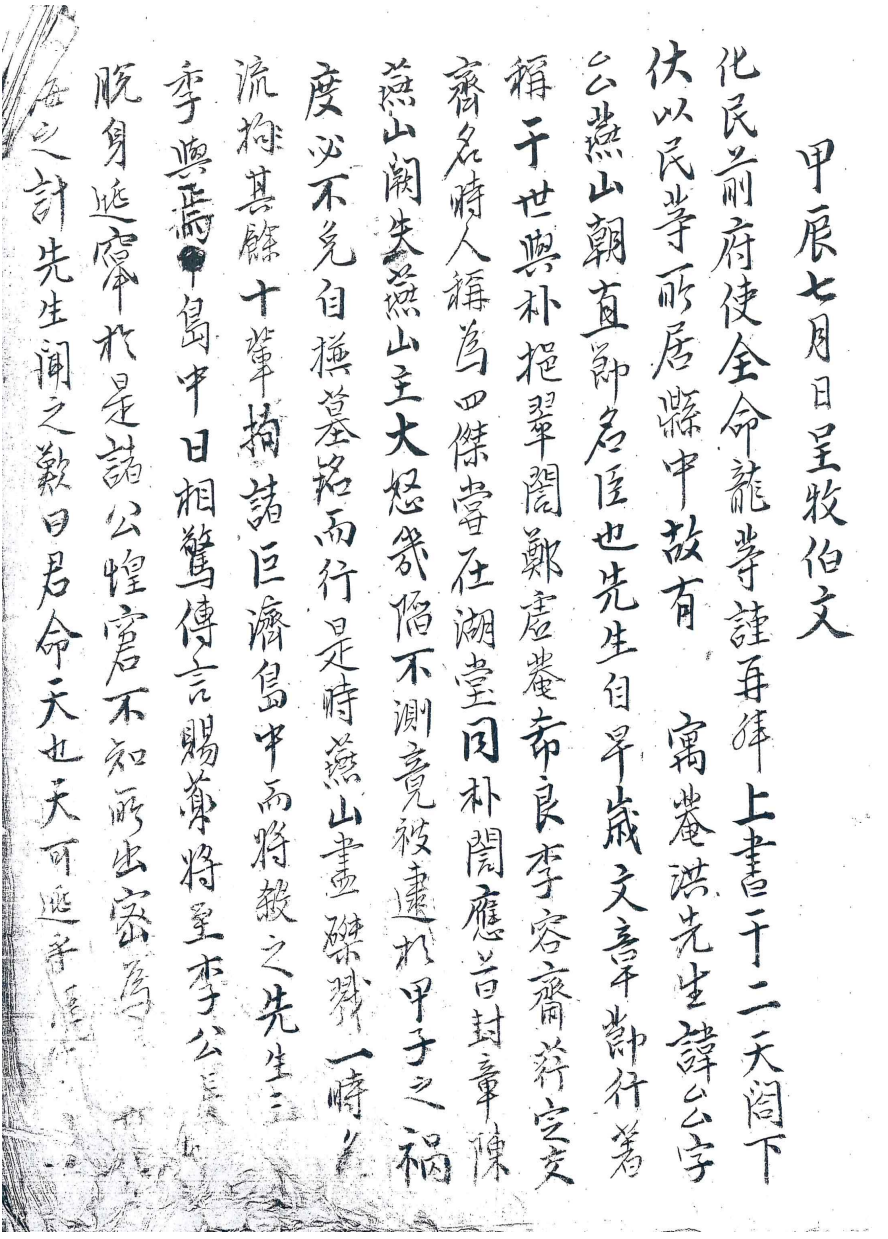
化民幼學蔡克稽等湮再拜上書于二天閣下伏以民等
前以寓菴洪先生立廟事稟達于閣下幸蒙右文
學之誠邁於文翁特許本縣三面役夫得以開基運
事粗就緒無任感頌之至第念燔尾立屋一時並亂秋
若短斷手未易九仞垂成一簣虧功將未免半塗而廢聚
首相顧誠極憫歎伏願 閣下終施愛助之重外以外而
銀又等面役丁特爲題給使之一日赴役訖功竣事則是
廟之北秋毫皆閣下賜也又有一款告憫事閣下其亦垂
仁採納焉堂屬下人只四五名極甚零星在前儒生居接
時炊飯等事亦不能成形況此作廟之後守直使輿尤不
可以數名當之委屬憫慮山東掌面適有閑丁二名願爲
堂屬者伏乞特許完文以爲使輿之地不勝奇甚民等



至意也民等一鄉儒品大小齊會仰遵 朝憲俯恨輿
議因以本縣書堂自有齋室只造三間廟屋功力易
就故即其地定爲鄉賢之祠將以八月之初鳩材始役
民等各出米布期於集事而燔瓦運材須藉若干丁
夫況復事關風教不可不仰達於仁聽伏願二天城主
嘉前輩之遺烈恤民等之誠息特許於本縣面洞
內各出丁夫數名以助運輸則人心感奮功力亟竣其
永有辭於後矣民等不勝祈恳之至伏惟城主採
[illegible]
甲辰八月初六日廟宇開基祝文
先賢遺馥禮宜享格既有祀享宜建其室肆於
啓基堂後處告端由敢冀保佑
甲辰九月呈牧伯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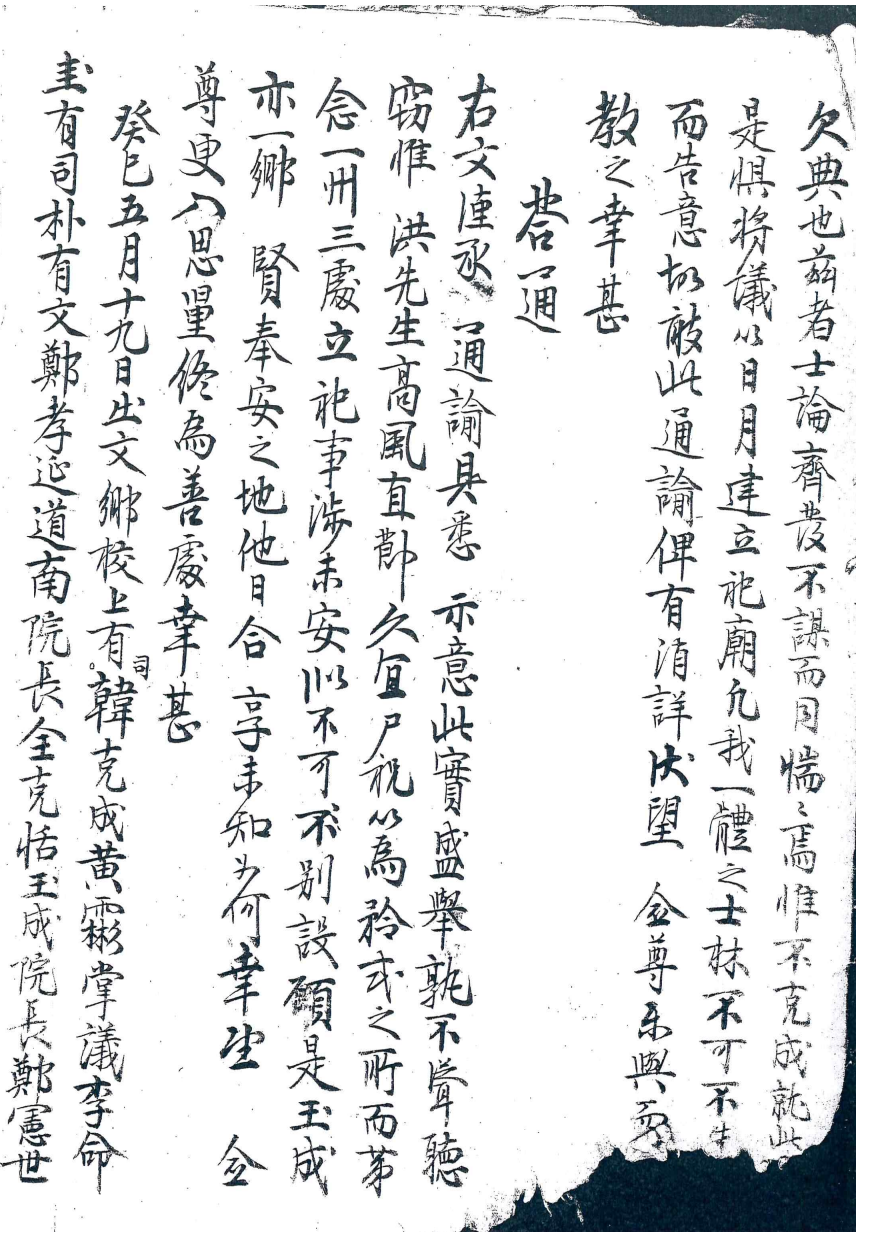


有死而已嚴責子弟使不得預泛舟之謀俄而
中廟反正先生遂得放還然念委質之義不應 中
徵召不幸年三十六以卒事具載東文選輿地誌先生
之出處大致如此而挹翠朴公竟被戮死虛菴勤
托跡方外容齋李公際會 熙運致位廊廟然跡
其出處完節論者於四傑之中以先生爲稱首焉先生
咸昌人卜居于本縣南茂林部典道渕村自銘中所
謂卜于古縣茂林之鄉青山在上灣磯在下者也芳
躅未遠風烈彌彰後學追慕久而益篤咸願建院
而俎豆之亦嘗稟定於儒林宗師運來十年之間鄉
議再完而連歲大札未遑鉅役近者竊聞 朝家
新頒事目凡有書院創建切勿輕許出於慎重之



甲辰七月日呈牧伯文

化民前府使全命龍等謹再拜上書于二天閤下
伏以民等所居縣中故有　寓菴洪先生諱公字
公燕山朝直節名臣也先生自早歲文章節行著
稱于世與朴挹翠閭鄭虛菴希良李容齋荇定交
齋名時人稱爲四傑嘗在湖堂同朴閭應昔封章陳
燕山闕失燕山主大怒幾陷不測竟被逮於甲子之禍
度必不免自撫墓銘而行是時燕山盡磔戮一時人
流拘其餘十輩拘諸巨濟島中而將殺之先生三
季與焉●島中日相驚傳言賜藥將至李公[illegible]
脫身逃竄於是諸公惶窘不知所出密爲
[illegible]之計先生聞之歎曰君命天也天可逃乎[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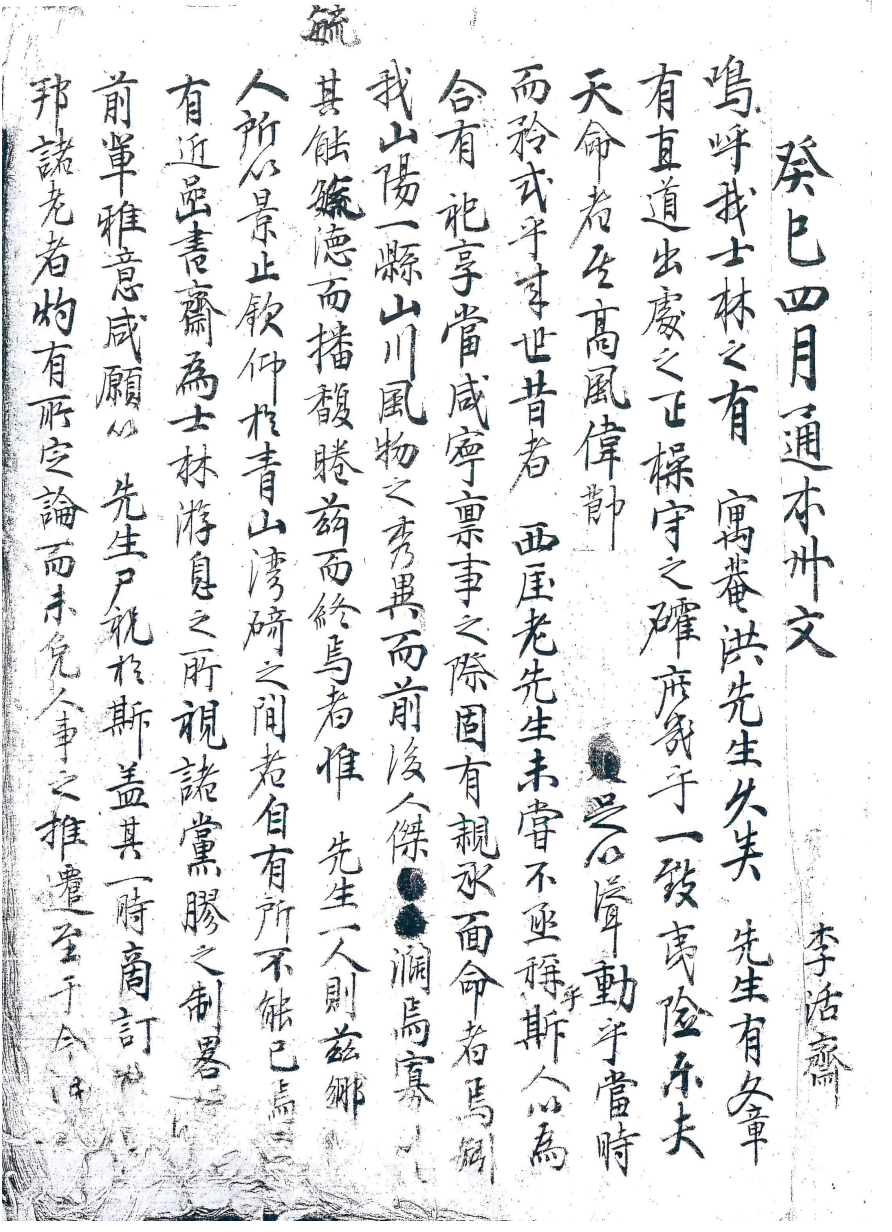


欠典也茲者士論齊發不謀而同惴惴焉惟不克成就此
是惧將議以日月建立祀廟凡我一體之士林不可不生
而告意切敢此通諭俾有消詳伏望 僉尊亦與爲
教之幸甚

答通

右文陳承 通諭具悉 示意此實盛舉孰不聳聽
竊惟 洪先生高風直節久宜尸祝以爲矜式之所而第
念一州三處立祀事涉未安似不可不別設願是玉成
亦一鄉 賢奉安之地他日合 享未知如何幸望 僉
尊更入思量終爲善處幸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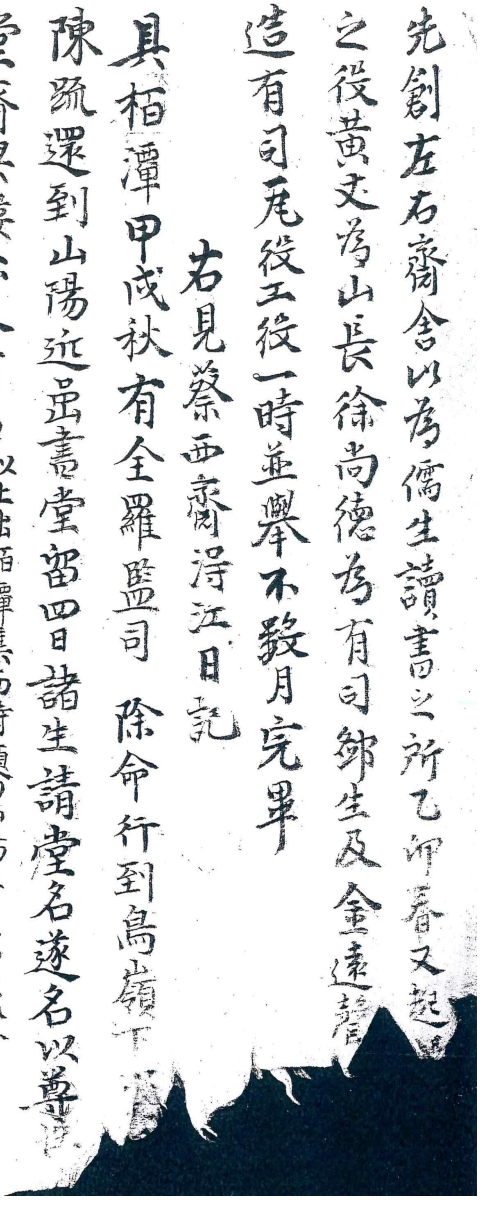
癸巳五月十九日出文鄉校上有司韓克成黃霦掌議李命
圭有司朴有文鄭孝延道南院長全克恬玉成院長鄭憲世



癸巳四月通本州文

李活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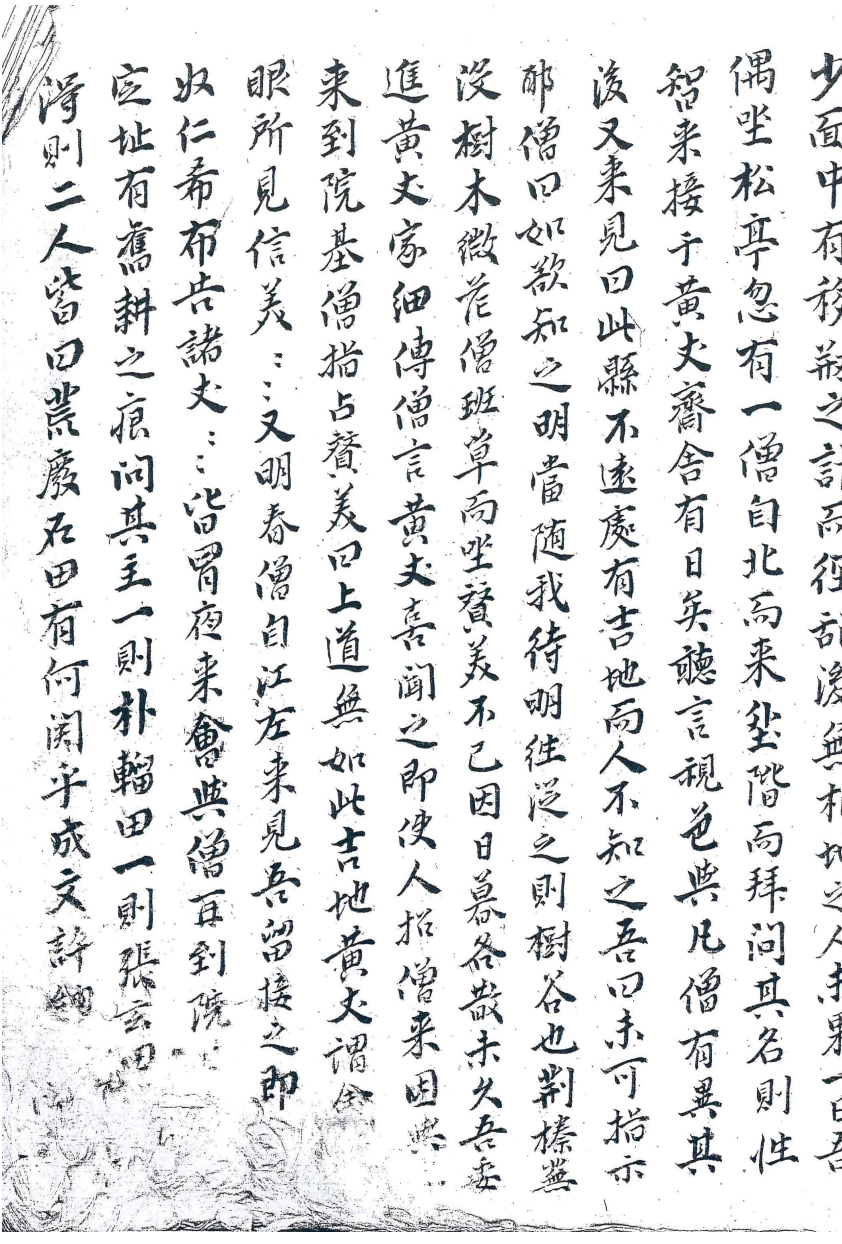
嗚呼我士林之有 寓菴洪先生久矣 先生有文章
有直道出處之正操守之確庶幾乎一致夷險不夫
天命者至高風偉節 [illegible]足以聳動乎當時
而矜式乎其世昔者 西厓老先生未嘗不亟稱乎斯人以為
合有祀享當咸寧稟事之際固有親承面命者焉矧
我山陽一縣山川風物之秀異而前後人傑[illegible]瀾焉寡[illegible]
其能毓德而播馥睠茲而終焉者惟 先生一人則茲鄉
人所以景止欽仰於青山灣碕之間者自有所不能已焉[illegible]
有近邑書齋為士林游息之所視諸黨膠之制畧[illegible]
前輩雅意咸願以 先生尸祝於斯 盖其一時商訂[illegible]
邦諸老者均有所定論而未免人事之推遷至于今[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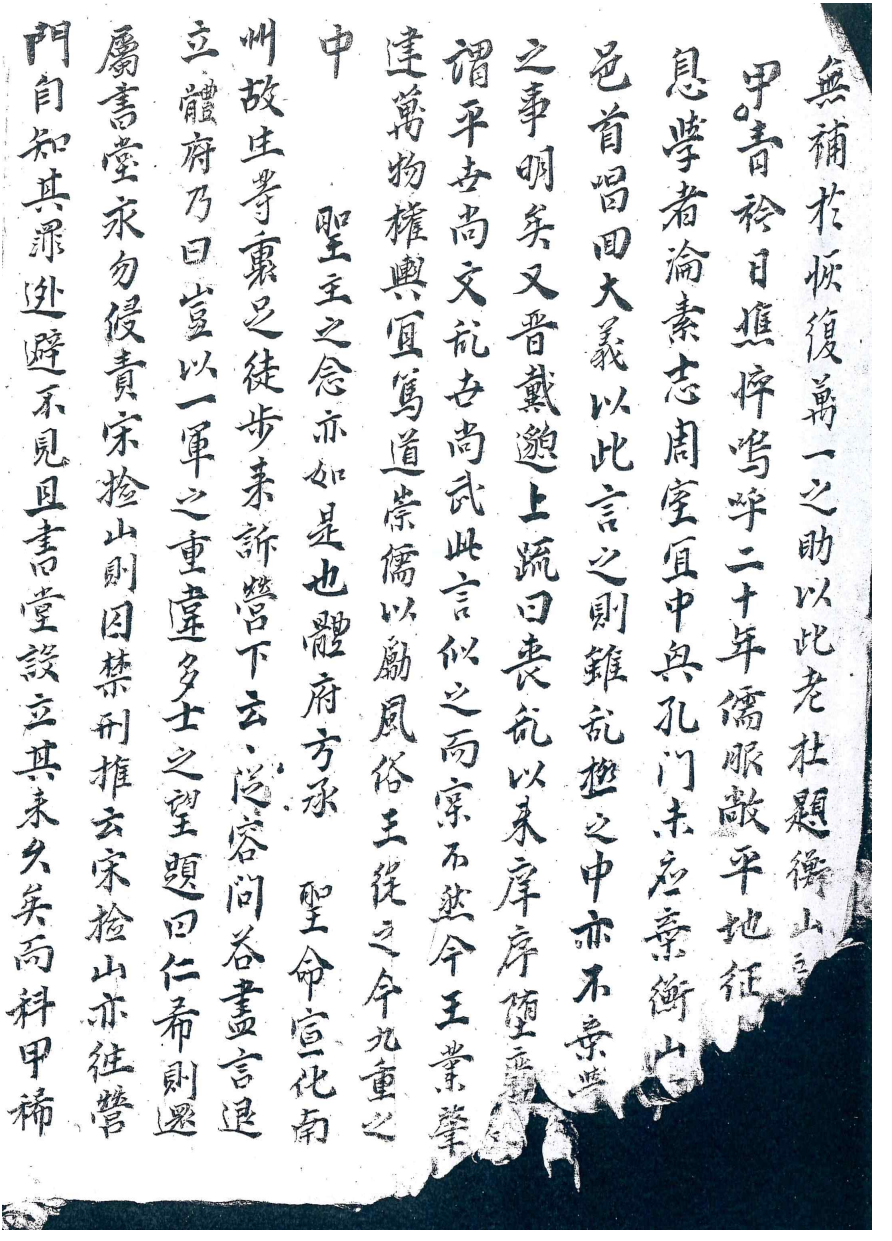
先創左右齋舍以爲儒生讀書之所乙卯春又起[illegible]
之役黃丈爲山長徐尚德爲有司鄒生及金遠聲
造有司瓦役工役一時並舉不數月完畢

右見蔡西齋得江日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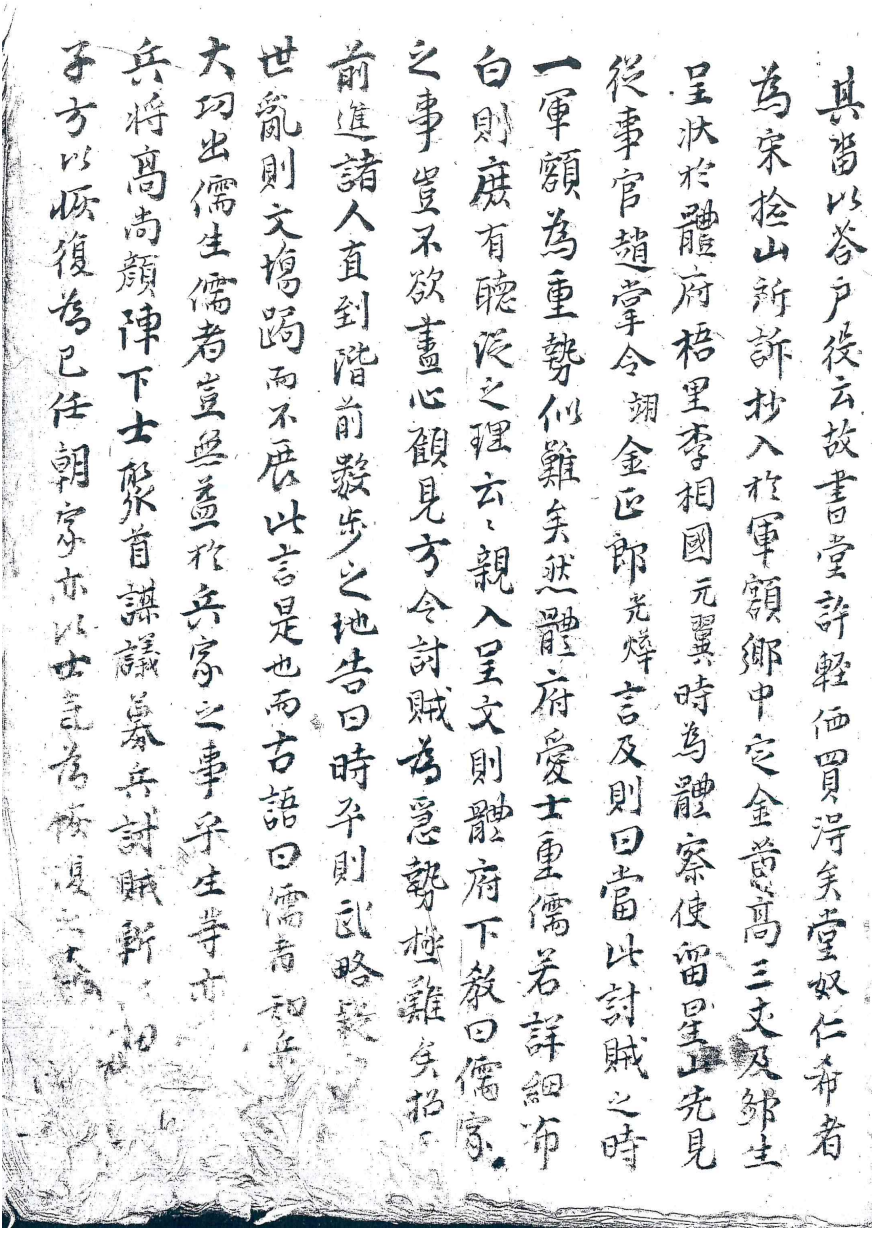
具栢潭甲戌秋有全羅監司 除命行到烏嶺下[illegible]
陳疏還到山陽近岳書堂留四日諸生請堂名遂名以尊[illegible]
堂齋與樓亦各有名 以上出栢潭集而詩題曰山陽尊性堂感吟云云 齋樓名不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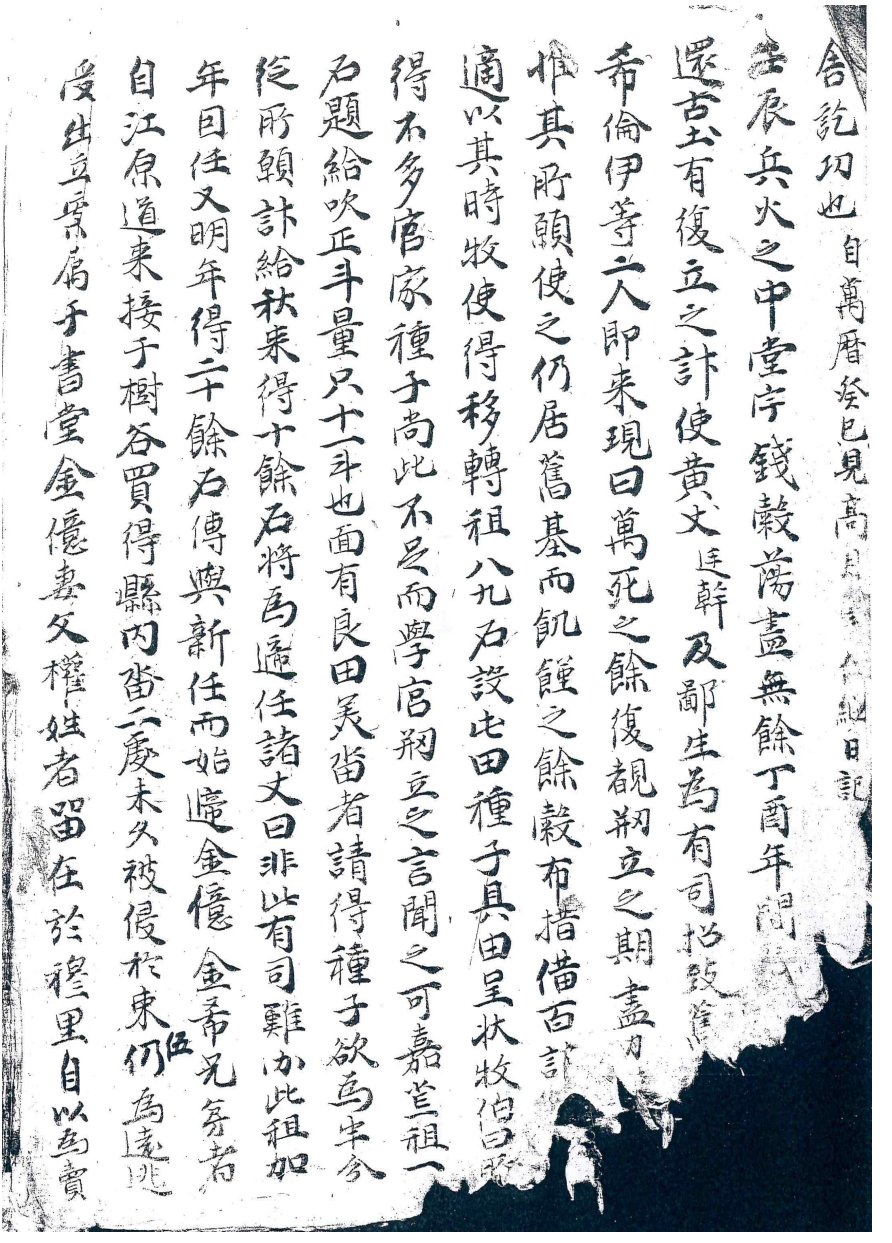


少面中有移剏之計而徑乱後無相地之人未果一日吾
偶坐松亭忽有一僧自北而来坐階而拜問其名則性
智来接于黃丈齋舍有日矣聽言視色與凡僧有異其
後又来見曰此縣不遠處有吉地而人不知之吾曰未可指示
耶僧曰如欲知之明當随我待明往從之則樹谷也荊榛蕪
沒樹木微茫僧班草而坐贊美不已因日暮各散未久吾委
進黃丈家細傳僧言黃丈喜聞之即使人招僧来因與
来到院基僧指占贊美曰上道無如此吉地黃丈謂余
眼所見信美〻〻又明春僧自江左来見吾留接之即
收仁希布告諸丈〻〻皆胃夜来會與僧再到院
定址有舊耕之痕問其主一則朴輜田一則張玄田
得則二人皆曰荒廢石田有何関乎成文許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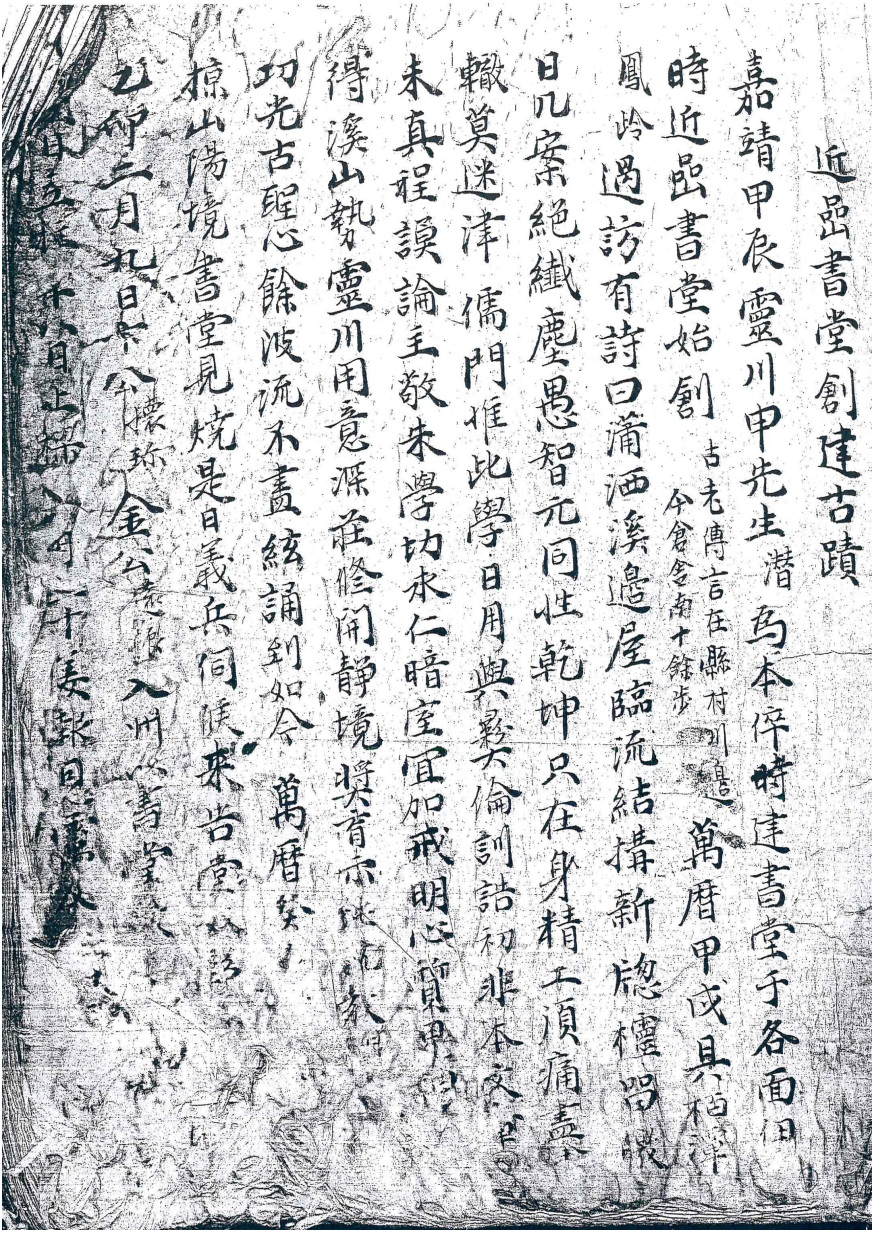


無補於恢復萬一之助以此老杜題衡山之
甲青衿日憔悴嗚呼二十年儒服敞平地征
息學者淪素志周室宜中興孔門未應棄衡山
邑首唱回大義以此言之則雖亂撫之中亦不棄學
之事明矣又晉戴邈上疏曰喪亂以來庠序墮壞
謂平世尚文亂世尚武此言似之而案不然今王業肇
建萬物權輿宜篤道崇儒以勵風俗王從之今九重之
中 聖主之念亦如是也體府方承 聖命宣化南
州故生等裹足徒步來訴營下云云從容問答盡言退
立體府乃曰豈以一軍之重違多士之望題曰仁希則還
屬書堂永勿侵責宋捻山則因禁刑推云宋捻山亦往營
門自知其罪逃避不見且書堂設立其來久矣而科甲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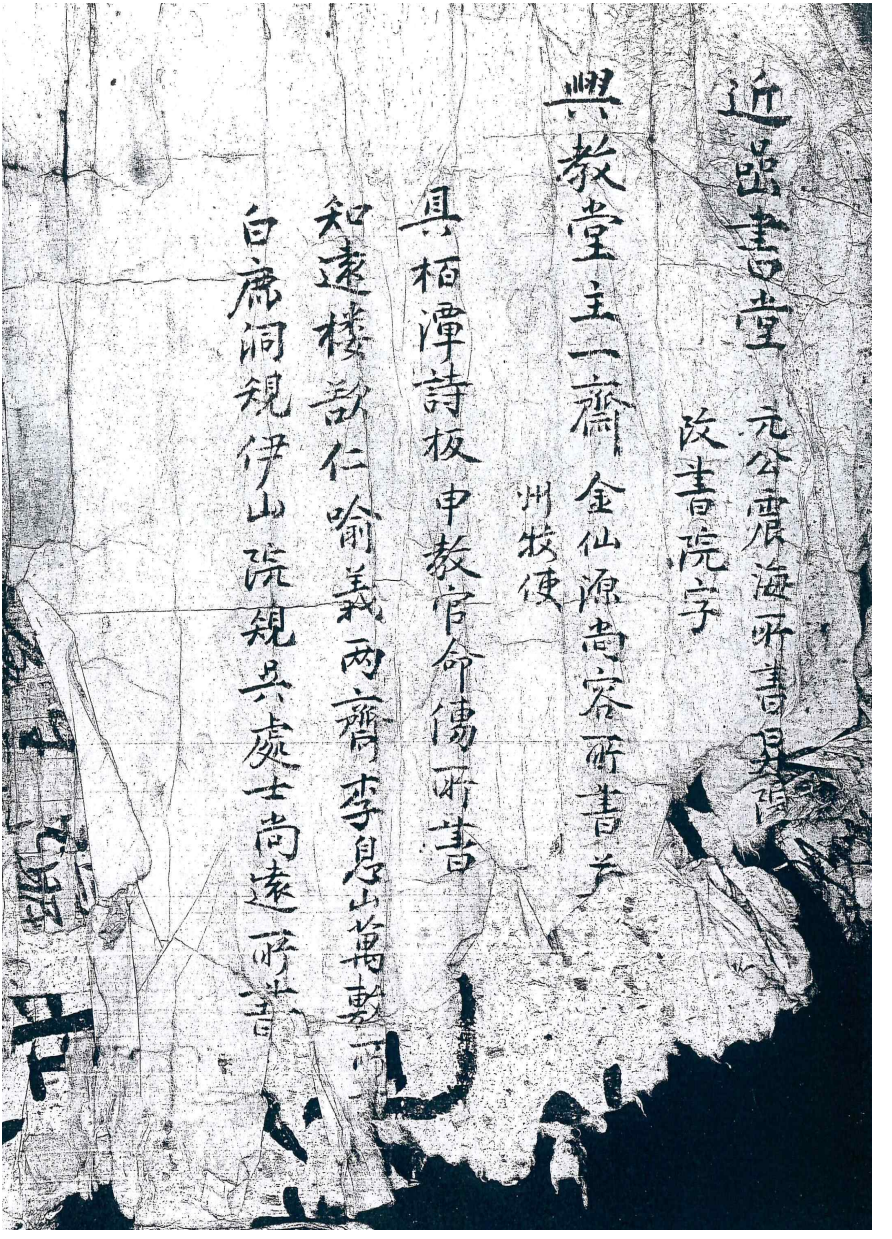




近嵒書堂創建古蹟



嘉靖甲辰靈川申先生潛爲本倅時建書堂于各面田
時近嵒書堂始創 古老傳言在縣村川邊今倉舍南十餘步 萬曆甲戌具栢潭
鳳岭過訪有詩曰蒲洒溪邊屋臨流結搆新牕櫺留曉
日几案絕纖塵愚智元同性乾坤只在身精工須痛盡
轍莫迷津 儒門惟此學日用與彝倫訓誥初非本文[illegible]
未真程謨論主敬朱學功求仁暗室宜加戒明心質[illegible]
得溪山勢靈川用意深莊修開靜境奬育示[illegible]
功光古聖心餘波流不盡絃誦到如今 萬曆癸[illegible]
掠山陽境書堂見燒是日義兵伺候來告堂[illegible]
乙卯二月九日[illegible]公懷珍 金公[illegible]入州以書堂[illegible]
[illegible]日[illegible]十八日止[illegible]入州[illegible]十[illegible]日[illegible]


近品書堂 元公震海所書扁
改書院字
興教堂主一齋 金仙源尚容所書
州牧使
眞栢潭詩板申教官命傳所書
知遠樓記仁喻義兩齋李息山萬敷記
白鹿洞規伊山院規兵處士尚遠所書



휘보

1. 주요 연혁

2018. 4. 27 : 제16회 연구발표회(중국 청도대학교)
2018. 10. 13 : 제17회 연구발표회(중국 니산 성원서원)
2018. 12. 15 : 제18회 연구발표회(한중연) 및《총회》개최
2019. 03. 25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학술회의 지원 대상 선정
2019. 04. 27 : 제19회 연구발표회(한중연)
2019. 10. 13 : 제8회 한·중서원학회 국제학술대회(중국 멱라 굴자서원)
2019. 11. 15 : 국내 공동학술대회(영남대학교)
2020. 02. 14 :《총회》잠정 중단(코로나-19), 이수환 회장 연임
2020. 05. 29 : 국내 공동학술대회(영남대학교)

2. 활동

■ 제16회 연구발표회(2018. 4. 27, 중국 청도대학교)
발표 ① 18세기 말 19세기 초 英陽縣 雲谷影堂의 置廢 (채광수, 경일대)
발표 ② 조선전기 교육정책과 16세기 안동지역 서당 건립 활동 (이병훈, 영남대)
발표 ③ 상주 옥동서원의 사액과정 (김순한, 영남대)

■ 제17회 연구발표회(2018. 10. 13, 중국 니산 성원서원)
발표 ① 16세기 안동지역 서당 설립상황과 서원화 과정(정순우, 한중연)
발표 ② 선산 금오서원 건립과 제향인물 선정 논의(이병훈, 영남대)
발표 ③ 도산서원 교육내용의 공부론(김자운, 공주대)
발표 ④ 18세기 말19세기 초 영양현 운곡영당의 치폐(채광수, 영남대)
발표 ⑤ 청액일기를 통해서 본 상주 옥동서원의 사액과정(김순한, 영남대)

■ 제18회 연구발표회(2018. 12. 15,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① 화양구곡도와 우암학파의 도통의식(정은주, 한중연)

발표 ② 18세기 도동서원의 도서간행과 장서관리(김정운, 경북대)

■ 제19회 연구발표회(2019. 4. 27,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① 공간을 통해 본 서애학의 계승양상 (김학수, 한중연)
발표 ② 향(鄕)에 대한 퇴계의 이해와 실천(한재훈, 연세대)
- 연구윤리 교육 (정수환, 한중연)

■ 제8회 한중서원학회 국제학술대회(2019. 10. 13 중국 멱라시 굴자서원)
기조발표 ①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과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이상해, 성균관대)
기조발표 ② 한국 서원의 인문성과 현대적 발전(김학수, 한중연)
발표 ③ 17세기 초반 盧守愼의 道南書院 祭享論: 朱子學과 陽明學의 拮抗(김학수, 섹션발표)
발표 ④ 17~18세기 문경 근암서원의 변천으로 본 조선후기 서원 전승의 일사례(이병훈, 영남대)
발표 ⑤ 태주학파 왕간의 강학 활동 연구(이우진, 공주대)
발표 ⑥ 退溪의 '鄕'에 대한 化民易俗: 鄕約과 書院을 中心으로(한재훈, 연세대)
발표 ⑦ 조선 소수서원 운영의 공공성과 집단성(정수환, 한중연)
발표 ⑧ 1禮安 汾江書院의 창건과 請額 활동(채광수, 영남대)
발표 ⑨ 8세기후기 尙州 玉洞书院 請額活動과 賜額의 意味(김순한, 영남대)
발표 ⑩ 서원의 인문성: 강회를 통한 학풍의 형성과 전개(이종록, 한중연)
발표 ⑪ 書院의 社會史: 庶類系 儒賢의 登場과 社會的 外裝(권지은, 한중연)

■ 국내 공동학술대회(2019. 11. 15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발표 ① 18~19세기 유교적 상장례의 정치·경제적 함의 (김성우, 대구한의대)
발표 ② 노상추 일가의 의례 활동과 친족 관계(김정운, 경북대)
발표 ③ 조선후기 선산지역 원사건립과 금오서원의 위상 변화(이병훈, 영남대)

발표 ④ 노상추의 중앙 관료 생활 -'오위장과 금군장을 중심으로'(정해은, 영남대)
발표 ⑤ 노상추의 매매정보 수집과 토지매매(정수환, 한중연)

■ 국내 공동학술대회(2020. 5. 29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2층, 18층)
발표 ① 書院의 前史: 고중세 한국 私學의 전통이 서원 설립에 이르기까지(이광우, 영남대)
발표 ② 16세기 한국 서원의 출현과 정비(이병훈, 영남대)
발표 ③ 唐代 書院의 형성에 대한 재검토(류준형, 영남대)
발표 ④ 일본과 베트남의 서원 연구 현황과 제언(이우진, 공주교육대)
발표 ⑤ 白鹿洞书院的建立及其对中国书院的影响(등홍파, 중국 호남대)
발표 ⑥ 한국 서원 의례의 유형과 특징(한재훈, 연세대)
발표 ⑦ 岳麓书院清代学礼考述(란갑운, 중국 호남대)
발표 ⑧ 한국 서원 향사례의 지역적 특징 연구(임근실, 단국대)
발표 ⑨ 서원의 일상 의례와 복원(김자운, 공주대)
발표 ⑩ 서원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채광수, 영남대)

한국 서원학회 회칙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서원학회(韓國書院學會)라 칭한다.(이하 “학회”라고 약칭한다)

제 2조(소재)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학회는 한국 서원의 제분야에 걸친 학문적 연구와 자료 발굴·정보교환·토론 등의 학술활동을 벌이며,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대중화에 유념함으로써 한국사의 체계화에 기여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학술 활동을 한다.

1. 연구논문 발표회
2. 특별 학술회의 및 세미나
3. 문화 유적 학술 답사
4. 서원지 및 서원자료집 발간
5. 학회지 발간
6. 기타 학문 연구와 회원 친목에 필요한 사업

제 5조(회원) 학회의 회원은 서원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시에도 회비를 납부해야 정회원으로 인정

한다.<개정 2018.12.15.>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회의나 세미나에서 연구물을 발표할 수 있으며, 또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배부 받고 여기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연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 8조(명예회원) 회장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학회의 사업이나 재정에 기여한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9조(기록과 문서 보존) 각급 임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상황을 소정양식에 의해 기록하고 대내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는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제 10조(시행세칙) 학회의 운영은 본 회칙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행 세칙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업무

제 11조(기구)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삭제 <2017.01.20.> 3. 이사회 4. 편집위원회

제 12조(임원과 직무)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7.01.20.>
2. 부회장(1인):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2인):학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독한다.
4. 삭제 <2017.01.20.>
5. 이사(20인 이내):총무, 재무, 연구, 기획, 섭외, 출판, 지역이사로 하고 학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6. 편집위원(10인 내외):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을 심사 하며,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

을 기획·편집한다.<개정 2018.12.15.>

7. 자문위원(무정수):학회의 회장과 감사를 역임한 회원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8. 연구윤리위원(15인 이내):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를 심의 처리한다.

제 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제 14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15.>

제1절 총회

제 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의결)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중요 안건의 예심) 총회에서 의결할 중요 사안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심의한다.<개정 2017.01.20.>

제18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삭제 <2017.01.20.>
2. 예산안 및 결산 승인
3. 회칙의 개정과 조직의 개편
4.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절 평의원회

제 19조 삭제 <2017.01.20.>

제 20조 삭제 <2017.01.20.>

제3절 이사회

제 21조(구성과 소집)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22조(기능)

1. 학회의 사업을 분장하고 추진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집행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개정 2018.12.25.>

제 23조(업무분장) 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분장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이사와 섭외이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학회 조직·회원 관리, 재산·도서·문서·장부·기록·자료 관리
2. 연구이사:연구 발표회, 학술회의와 세미나, 유적 답사의 기획과 추진
3. 재무이사:재정·회계·기금의 관리, 예산·결의안 작성
4. 기획이사:사업계획, 연구프로젝트 수주 및 기획, 학회 발전 방안 연구
5. 출판이사: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실무 담당

제24조(간사) 학회의 연구, 행정, 연락, 도서관리 등의 제반 실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절 편집위원회

학술지와 기타 출판물의 기획, 편집, 심사를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25조(구성과 운영) <개정 2018.12.25.>

1. 편집위원은 학회 이사를 포함하여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인정되는 자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단, 편집위원의 위촉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 실무는 출판이사가 담당하며, 편집간사가 보조한다.
4.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3월, 9월)으로 개최한다. 단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은 필요시 수시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편집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
7.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속한다.

제 26조 (편집위원장의 임명과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회장이 임명하며, 유고시 회장이 재임명 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위원장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 27조(기능)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심사자 선정
2. 심사 확정 논문에 대한 처리
3. 학보 내용과 관련된 기획 등 학보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4.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기획 및 심사
5. 학회지 등에 게재할 저작물의 심사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28조(편집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수준 제고를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편집자문위원은 필요시 전임 회장을 비롯해 학계의 원로 중진 가운데 편집위원장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2. 편집자문위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3.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4. 학보의 편집과 간행에 대해 자문한다.
5.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자문

제5절 연구윤리위원회

제 29조(구성과 소집) 회장, 편집이사 및 연구이사 중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30조(기능) 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그 처리를 심의 결정한다.

제 31조(연구윤리 문제의 처리) 연구윤리 문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제3장 재정

제 32조(예산 편성) 학회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및 각종 보조비와 기부금 등으로 편성한다.

제 33조(수익사업) 학회는 공동 연구비, 공동 저작의 인세나 저작료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학회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사업에서 회원 수익금 중 일부를 헌납 받을 수 있다.

제 34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01.20.>

제 35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2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정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 36조(결산보고)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수시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결산 내역과 사업 실적을 12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제 37조(기금의 조성과 운영) 학회의 특수 사업 추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특수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은 일반 회

계와 분리하여 관리 운영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편집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의 학회지인 『韓國書院學報』(이하 '학보'라 약칭함)의 편집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학보는 서원 연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한다.

① 연구논문

② 비평논문(說林, 論壇 등을 포함)

③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3조(인쇄 및 발행) 학보는 년2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① 인쇄일은 6월 23일, 12월 23일로 한다.

②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4조(투고 제한) 학보에는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제5조(논문 심사)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와 원고 작성규정의 준수유무, 학회지 성격에 부합 여부를 우선 심의한 후 이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별도의 전문 학자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8.12.15.>

②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단 투고자와 같은 소속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③ 심사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6조(논문 심사 절차)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 독창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수정후 게재(B), 재심의(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② 게재 판정을 제외한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일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A,A) (A,A,B):게재

(A,B,B) (B,B,B):수정 후 게재

(A,A,C) (A,A,D) (A,B,C) (A,B,D):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의뢰

(A,C,C) (B,B,C) (A,C,D) (B,C,C) (B,B,D) (C,C,C):수정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게재불가

⑤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원고의 기한) 원고의 투고와 논문게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①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01.20.>

②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에 한해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인쇄일(6월 23일, 12월 2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8.12.15.>

제8조(심사료와 게재료 청구)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심사료와 게재료를 청구한다.<개정 2018.12.15.>

제9조(지적재산권)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의거하여 《한국서원학보》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귀속한다.<개정 2018.12.15.>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이 편집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논문투고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학술지『韓國書院學報』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와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종류) 논문은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으로 나뉘며, 모두 심사의 대상이 된다.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특정 연구자에게 집필을 위촉한 논문을 가리킨다. 일반투고논문은 기획과 무관한 개별적 자유투고 논문을 가리킨다.

제3조(원고의 분량) 논문은 편집된 논문집 기준으로 35쪽(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 쪽수는 본문, 각주, 도표, 그림,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등을 모두 포함한다. 35쪽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게재료(원고지 5매당 10,000원)를 부과한다.

제4조(원고의 조건)

① 논문은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② 국문으로 논문 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5개 내외),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5개 내외) 순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③ 우리 학회의 특성상 본문은 외국어(중문, 일문, 영문)로 작성이 가능하다. 단 중문·일문 논문의 경우 초록은 한글과 영문의 2종을 제출해야 한다. 영문 논문의 경우에도 한글과 영문 초록을 제출한다. 한글 논문의 외국어 초록은 英文을 기본으로 하지만 우리 학회의 특성상 中文·日文 투고도 인정한다. 단 중문·일문으로 투

고시에는 영문으로 제목, 필자명, 주제어를 병기해야 한다.

④ <원고작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투고 기한) 논문집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2회 발간한다. 논문의 투고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하며,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 기한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될 수 있다.

제6조(원고의 투고 제한)

①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②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③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경우 향후 투고를 제한한다.

제7조(심사료와 게재료 납부)

①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은 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심사비를 요청하며, 심사료를 납부한 논문에 한해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18.12.15>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책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8.12.15>

③ 심사료와 게재료는 한국서원학회 개설 계좌로 납부한다.

제8조(논문 작성) 논문은 '한글과컴퓨터 워드프로그램[한글 2002이상, *.HWP]' 또는 그것과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제9조(원고 투고) 투고하는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원고작성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반려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한국서원학회 홈페이지(www.ksw2007.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털에서 '한국서원학회' 검색]

②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에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논문을 다음의 주소로 발송한다 (접수 : ksw2007@ksw2007.or.kr).

③ 논문 투고시 홈페이지에서 <논문접수신청서>와 <저작권이용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④ 투고자는 해당 논문을 <KCI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 내지 기타 표절프로그램에서 검사를 마친 후 결과서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제10조(원고의 저작권 이양 동의) 논문 투고자는 우리 학회에서 정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를 읽고, 투고자의 논문이 《韓國書院學報》에 게재됨과 동시에 투고 논문에 대한 저자권을 '한국서원학회' 이양함을 동의하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별도의 서명이 없더라도 논문 투고시 동의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논문접수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이나 학회 메일로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8.12.15>

1)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

①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② 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③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④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숍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2)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

①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이 한국서원학회에 속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단, I(1)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저작권의 소유 및 서명에 대한 단서

① 저자 중 1인(논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자)이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본 저작권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가 아닌 저자를 고용하고 있는 학교, 회사, 연구소 혹은 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는 해당 단체의 저작권 담당자가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에서의 초록을 제외한 다른 형태로 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 한다.

⑤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학회지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⑥ 상기인(들)은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⑦ 본 저작권이양동의서 파일을 작성하여 한국서원학회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부 칙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원고작성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기본 원칙) 투고하는 논문은 제목, 성명(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제목, 성명, 소속, 직위의 영문표기 or 병기), keyword(영문 or 영문 병기)의 순서로 작성한다. 투고된 원고가 작성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2조(저자 표기) 투고자의 소속은 성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를 병기한다. 공동연구의 경우는 제1저자를 명시한다.<개정 2018.12.15>

<예> 단독 :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공동 : 제1저자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병훈(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제3조(장·절 표기) 장과 절의 기호 표기 방식은 Ⅰ. 1. 1) (1) / Ⅱ. 1. 1) (1) / Ⅲ. 1. 1) (1) / Ⅳ. 1. 1) (1)의 순서로 한다.

<예> Ⅳ. 李天封의 한강학 계승과 한강학파에서의 위상
1. 寒岡學의 수용과 師門의 협찬활동
1) 寒岡學의 수용 양상
(2) 川谷書院 중건론

제4조(본문의 작성)

① 본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일문, 중문, 영문]로 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본문 작성시 활자크기는 한글 10포인트, 인용문과 각주는 9포인

트로 한다.

③ 문단 모양은 기본적인 작성방식을 따른다. 왼쪽 여백(0), 오른쪽 여백(0), 들여쓰기(0), 문단 위(0), 문단 아래(0), 낱말 간격(0), 정렬 방식(양쪽 혼합), 줄 간격 160%.

제5조(한자 표기) 본 학술지의 특성상 漢字를 그대로 노출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으나, 한자어의 가독성을 위해 자주 중복되거나 일반적인 단어는 가급적 한글을 사용한다.

제6조(인용문 작성) 본문의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 번역된 인용문의 경우, 인용원문은 각주에 제시한다. 인용문은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제7조(인용시 작성) 본문에 인용된 시의 경우는 원시를 먼저 쓰고 풀이를 병립하여 작성한다.

<예> 派者同水 갈래가 져도 근원이 같은 물이면
百川雖異則水 온갖 냇물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물

제8조(문헌 표기) 단행본·문집·학회지 등은 『 』(유니코드 300E, 300F)으로 표기하며, 논문·단행본 속의 작은 제목 등은 「 」(유니코드 300C, 300D)으로 표기한다. 단 학위논문은 『 』으로 표기하며, 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문은 연도 뒤에 알파벳(a, b) 붙여 구분한다. 논문명과 학술지명 사이에 쉼표(,)를 붙여 구분한다.

<예> 정만조,「조선시대 파주 사족과 서원활동」,『한국서원학보』1, 한국서원학회, 2011.

김덕현,「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독해」,『한국서원학보』1, 한국서원학회, 2011(a).

추제협,『근기 퇴계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인걸,「서원 연구의 현재적 의의와 향후 과제」,『한국서원학보』1, 한국서원학회, 2011, p.214.

제9조(작품 및 인용 표기) 작품명은 < >(유니코드 3008, 3009), 원문인용·대화 등은 “ ”(유니코드 201C, 201D), 간접인용 및 강조는 ‘ ’(유니

코드 2018, 2019) 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曺植,『南冥集』卷2,〈遊頭流錄〉,“新雨水肥, 激石濆碎…….”

제10조(표·그림·사진의 구분) 논문에 사용된 표, 그림, 사진 등의 구분은 < >(유니코드 FF1C, FF1E)로 표기한다.

<예>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제11조(각주 번호) 각주의 번호는 기본적으로 쉼표(,)나 마침표(.) 다음에 붙인다.

<예> 언급이 여러 차례 보이는데,1) 심지어 유생들을 가르치기까지 하였다.2)

제12조(중복 인용) 중복 인용되는 책이나 논문의 경우 ‘앞의 책’ 혹은 ‘앞의 논문’을 사용한다. 같은 저자의 글이 중복되는 경우는 연도와 영문소문자로 구분한다.

<예> 김학수, 앞의 논문(2007), pp.41-42.
정만조, 앞의 책(2012), p.22.
이수환, 앞의 논문(2015), p.17.
정순우, 앞의 논문(2013a), p.213.

제13조(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각주와 참고문헌은 저자, 제목, 책이름, 편집기관(혹은 출판사), 출판연도, 수록 페이지의 순서로 기록한다. 참고문헌은 원서를 먼저 제시하고, 연구논문과 저서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한다.

<예> 이해준,「노강서원 자료의 유형과 성격」,『한국서원학보』1, 한국서원학회, 2011, p.17.
정만조,『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5, pp.150-153.

제14조(초록 작성) 국문과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과 주제어를 제출한다.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하며, 영문 초록은 300단어 이내로 한다. 주제어(keyword)는 5개 이하로 한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초록은 제목과 저자, 소속, 주제어는 英文을 병기한다. <개정 2018.12.15>

제15조(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

<개정 2018.12.15>

부 칙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관련 연구물을 간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기능) 이 규정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제재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 3 조(연구윤리위원회) 제1조(목적)와 제2조(기능)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에서 10명 내외로 편집위원장이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개정 2018.12.15.>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모든 학술활동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 위원장이 위임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8.12.15.>

제 4 조(표절 및 중복게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① 타인의 연구결과를 본문이나 주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②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내용을 첨삭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중복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제 5 조(심의 및 판정)

①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논문표절시스템(KCI 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으로 검증한 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8.12.15.>

② 표절 및 중복게재로 제보된 논문의 심의 및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6 조(제재조치)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행한다.

①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② 해당 논문이 이미 학보에 게재된 경우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제 7 조(공고)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한국서원학회 회보에 공지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한다.

제 8 조(소명기회)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 9 조(기타) 제4조에 해당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 외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고의로 자료나 통계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② 학회 명의를 도용하여 연구사업이나 출판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이 윤리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서원학회 임원명단

고　　문 : 정만조, 이해준, 정순우
회　　장 : 이수환(영남대)
부 회 장 : 김학수(한중연)
감　　사 : 장동표(부산대), 최광만(충남대)
총무이사 : 이병훈(영남대)
재무이사 : 김자운(공주대)
연구이사 : 조영화(교남문화유산원), 김종석(국학진), 옥영정(한중연),
김경옥(목포대), 정우락(경북대), 손숙경(동아대),
김대식(경인교대), 권오영(한중연), 최석기(경상대)
기획이사 : 조준호(실학박물관), 채광수(영남대)
출판이사 : 이우진(공주교대), 이근호(한국체육대)
지역이사 : 경기.강원 이규대(강릉대), 전라.제주 김봉곤(전남대)
경상 정진영(경북독립운동기념관)
간　　사 : 이신예(한중원), 김순한(영남대)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 김학수(정치사회사, 한중연)
편 집 위 원 : 강봉수(윤리교육, 제주대), 등홍파(중국서원, 악록서원),
이우진(교육사, 공주교대), 엄연석(철학, 한림대),
정수환(사회경제사, 한중연), 정우락(국문학, 경북대),
조재모(건축, 경북대), 진성수(철학, 전북대)
편 집 간 사 : 김순한(영남대)

韓國書院學報 제10호 값 15,000원

인쇄일 2020년 6월 25일
발행일 2020년 6월 30일
발행처 한국서원학회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80 영남대학교 인문관 353호
전 화 053-810-3706
팩 스 053-810-4696
이메일 ksw2007@ksw2007.or.kr
홈페이지 www.ksw2007.or.kr
발행인 이수환
학회비 종신회원(60만원), 일반회원(3만원)
기관회원(5만원), 외국회비($50)
회비납부계좌 : 대구은행 508-12-677669-6, 이수환(한국서원학회)

인쇄소 삼성정밀인쇄사(053-255-3255)

ISSN 2234-8603

The Journal of Korean Seowon Studies

NO. 10 Jun, 2020

Contents

Articles

The Reviewal of Formation of Seowon(書院,Shuyuan) in Tang dynasty ····· Ryu, Jun-hyoung 1

Tradition of Sahak(私學) in Ancient and Medieval Korea Leading Up to the Appearance of Seowon(書院) ····· Yi, Gwang-woo 33

The Appearance and Maintenance of the Korean Seowon in 16th Century ··· Lee, Byoung-hoon 67

The Establishment, Status, and Significance of Yeongyeong Seowon School ···· Koo, Bon-wook 101

The Establishment, Improvement and Tradition of the Confucianist Sacrifice Service System in Zhu Xi's Neo-Confucian Academies ····· Fāng, Yàn-Shòu 129

The Research Status and Suggestions on Confucian Academies in Japan and Vietnam ····· Lee, Woo-jin 143

Muheul Gugok-do, Visualization of Jeong Gu' Confucian Thought ····· Jeong, Eun-joo 165

Types and Actuality of Special Ceremonies of Seowon - Focusing on Chuhyangrye, Chijerye and Saaekrye - ····· Chae, Gwang-su 201

Bulletin ····· 373

Association Notes

KOREAN SEOWON STUDIES ASSOCIATION

http://www.ksw2007.or.kr e-mail : ksw2007@ksw2007.or.kr

9 772234 860309 10

ISSN 2234-8603